

종합편

2015 스포츠안전사고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스포츠안전재단
KOREA SPORTS SAFETY FOUNDATION

제 출 문

스포츠안전재단 이사장 귀하

본 보고서를 「스포츠안전사고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종합편」의 결과물로 제출합니다.

2016년 4월

연구책임자	서울대학교	교수	김유겸
공동연구자	서울대학교	교수	임충훈
	서울대학교	연구원	이원재
	닐슨코리아	국장	구성욱
	닐슨코리아	부장	민동걸
	닐슨코리아	부장	조정훈
	닐슨코리아	차장	임창모
	닐슨코리아	차장	김효준

이용자를 위하여

보고서 포괄 범위

- ◎ 본 간행물은 스포츠 안전재단이 발주하고 닐슨컴퍼니코리아(유)-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컨소시엄이 수행한 『스포츠 안전사고 실태조사』 용역 수행 결과물 중 일부로써, 조사된 모든 종목을 망라한 종합적인 결과를 다루고 있습니다.
- ◎ 여러 종목별 참여자들로부터 얻어진 종합적인 결과이므로 전체 종목에 공통적 접근이 가능한 일부 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결과들은 세부 응답자 특성별 분석 없이 전체 결과 분석 및 종목별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 ◎ 각 종목별 주요 결과는 요약문 형태로 본 간행물의 부록에 포함되어 있으며 종목별 참여자 특성별 분석을 포함한 세부 결과는 본 용역의 일환으로 함께 작성된 각 종목별 보고서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모집단 및 수집자료 근거

- ◎ 본 보고서에 수록된 통계는 총 3가지 조사를 통해 수집 되었으며 학교안전공제중앙회(2014년)의 ‘학교안전사고 통계분석 및 예방정책 수립 방안 연구’의 통계자료를 병기하였습니다.
 - ◎ 생활 스포츠 기초조사 : 우리나라 일반국민 3,031명 대상 조사
 - ◎ 스포츠 안전사고 실태조사 : 2015년 기준 스포츠 활동인구이며 부상을 경험한 인구 10,366명 대상 조사
 - ◎ 전문 체육 지도자 조사 : 전문 체육을 지도하는 지도자 119명 대상 조사

신체 부위 범례

- 본 보고서의 내용 중 부상 부위별 통계에 사용된 신체 부위는 37개 부위로 세분화하여 조사된 결과를 토대로,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15개로 재분류한 범례를 사용하였습니다. 재분류 기준은 유사 신체 부위에 따랐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통계 분류용 신체부위	재분류 기준 (포괄하는 세부 신체 부위)
머리(안면부 포함)	두피, 눈, 코, 입, 치아, 귀, 이마, 턱, 광대(뺨), 그 외 머리 부위
목	
상반신	가슴, 배, 등, 허리
어깨	
위팔	어깨 아래 ~ 팔꿈치 위
팔꿈치	
아래팔	팔꿈치 아래 ~ 손목 위
손목	
손	손바닥, 손등, 손가락, 손톱
고관절	
하체 상부	엉덩이, 허벅지, 사타구니
무릎	
하체 하부	정강이, 종아리, 아킬레스 건
발목	
발	발바닥, 발등, 발가락, 발톱

- ※ 신체부위 구분은 「대한의사협회 의학용어위원회」의 신체구분 기준을 토대로 설문 참여자가 알기 쉽도록 서울대학교 연구진이 조정·분류한 기준을 활용 하였습니다.

종목 구분

- 본 보고서에서 다룬 대부분의 종목은 명칭 자체가 하나의 종목을 지칭하는 단일 종목입니다. 다만 아래의 3개 종목은 여러 종목의 집합으로 구성된 복수의 종목이므로 종목별 결과 확인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상 종목	포괄 세부 종목
자전거	일반자전거, 사이클(로드바이크 포함), 산악자전거
무도	킥복싱, 이종격투기, 복싱, 태권도
항공 스포츠	스카이다이빙, 행글라이딩, 패러글라이딩

부상 종류

- 본 보고서에서 다루는 부상의 종류는 12가지이며 세부적인 부상 종류 및 간단한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상 당시 증상이 크게 나타나지 않아서 당시에는 몰랐더라도, 추후에 알게 된 경우 부상으로 응답하도록 하였습니다.

부상 종류	설명	상세설명
염좌	뺨	관절부위의 인대 혹은 근육이 일부 늘어나거나 찢어져 통증, 부어오름으로 인해 관절의 움직임이 불편한 부상
골절	-	뼈가 완전히 부러지거나 금이 가는 경우 (추후에 알게 된 경우도 포함)
탈구	빠짐	관절을 구성하는 골, 연골, 인대 등이 정상적 위치에서 이탈하는 부상. 흔히 뼈가 빠졌다고 일컫는 부상
열상	찢어짐	피부가 찢어지는 부상
절단	-	신체의 일부가 잘리는 부상. 손발톱, 머리카락 등의 절단까지 포함
찰과상 출혈	긁힘	마찰에 의해 피부의 표면에 입는 상처 어떤 충격에 의해 혈액이 몸 밖으로 나오는 부상
좌상	타박상	내부의 근육, 장기 등이 충격을 받는 부상. 멍, 통증, 부어오름 등의 증상이 수반됨
자상	찢림, 베임	외부의 어떤 날카로운 물체 등에 의해 피부가 찢리거나 베여서 생긴 상처
통증	-	물리적인 충격이나 근육의 반복적인 사용으로 인해 생기는 불쾌하고 아픈 감각
염증	끓음	신체 조직이 손상을 입어 나타나는 체내의 반응. 부어오르거나 고름이 나타남
파열	터짐	외부의 힘 또는 과도한 움직임으로 인해 인대나 근육이 끊어지는 경우

- ※ 부상종류 구분은 자료 통일성 및 활용도를 고려하여 학교안전공제중앙회(학교안전사고 통계분석 및 예방정책 수립 방안 연구, 2014)의 분류기준을 따랐습니다.
- ※ 당시에는 몰랐더라도 추후에 알게 된 경우까지 포함하여 응답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부상 당시의 조치/부위 등과 부상 종류가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사 통계와의 수치비교·해석 유의사항

- ◎ 본 보고서에서 작성한 통계의 집계 기준, 조작적 정의 등의 상이함에 따라 유사 통계와 비교 시 수치상의 경향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비교·분석 시 주의를 요합니다. 해석상 주의를 요하는 주요 집계기준 및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본 조사의 기준·정의	유사 통계(국민생활체육참여 실태조사)와 비교 시 주의점
체육활동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 1회 이상 어떠한 형태로든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경우 - 비정기적 참여, 이벤트성 참여 (피서철 해수욕·수영)를 모두 포함함 	- 규칙적 참여(주1회 이상) 기준
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괄적 의미의 부상 - 심각한 수준(병원진료, 입원, 수술 등이 수반되는 수준)부터 아주 경미한 수준(부상 후 바로 스포츠활동 참여가 가능한 수준, 별도 조치 없이 자연 치유되는 수준) 까지 모두 포함 	- 병원치료경험 기준
부상 횟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각한 수준부터 아주 경미한 수준을 아우르는 포괄적 의미의 부상 발생 횟수 - 병원 진료, 의약처방 및 투여 여부 등과 관계 없음 	- 병원치료횟수 기준

수치해석 유의사항

- 제시된 각 통계 수치는 소수점 1자리 또는 2자리에서 반올림 되었으므로 세부 항목의 합이 전체 합계와 일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본적인 통계의 형태는 단수응답(여러 개의 보기 중 1개 선택)이며 이 경우 각 항목별 응답비율의 합은 100.0%입니다. 다만, 위에 안내 드린 이유로 인해 99.8% ~ 100.2%의 합산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항목별 응답비율의 합이 100.0%를 훨씬 상회하는 경우, 복수응답(여러개의 보기 중 해당되는 모든 것 선택)으로 수집된 결과이며, 이 경우 통계 수치를 제시할 때 '복수응답'으로 수집된 결과임을 명시 하였습니다.
- 결과 해석의 기본적인 방법은 단수응답과 복수응답 등 자료수집 형태에 관계없이 “전체 응답자 중 00%(응답 비율)가 □□(항목 내용)로 응답하였다”로 동일합니다.
- 세부 응답자특성별 결과 확인 시 사례수 20표본 미만인 경우 통계적으로 의미를 가질 수 없는 표본 크기이므로 응답 경향치 분석 시 이를 반영하지 않았으며, 독자의 결과 해석 시에도 주의를 요합니다.
(참고적으로만 활용하시길 권장합니다.)
- 응답자특성별 분석 시 유의할만한 내용이 없는 일부 항목은 별도의 특성별 분석을 실시하지 않고 전체 결과만을 요약하여 제시하였습니다.
- 각 특성별 분석 중 '부상 종류별'은 응답자가 주관적으로 판단(응답)한 '가장 심각한 부상 종류'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즉, 복합적인 부상(예: 개방 골절로 인해 골절과 찢어짐이 동시 발생)을 당한 응답자의 경우 응답자가 스스로 판단하기에 여러 부상 중 가장 심각하다고 응답한 1가지를 기준으로 하였으므로 타 특성별 분석과 달리 절대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해석상 주의를 요하며 참고적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전 체 목 차

I. 조사 개요 1

1. 조사 목적	1
2. 조사 개요	2
1) 생활 스포츠 실태 기초조사 개요	3
2) 스포츠 안전사고 실태조사 개요	4
3) 기초조사 및 실태조사의 표본오차	5
3. 표본 설계	6
1) 생활 스포츠 실태 기초조사 표본설계	6
2) 스포츠 안전사고 실태조사 표본설계	10
4. 문항 설계	16
1) 생활 스포츠 실태 기초조사 문항 설계	16
2) 스포츠 안전사고 실태조사 문항 설계	17
5. 조사 진행	19
1) 생활 스포츠 실태 기초조사 조사 진행	19
2) 스포츠 안전사고 실태조사 진행	20
6. 품질관리 활동 및 자료처리	24
1) 생활 스포츠 실태 기초조사 품질관리 활동	24
2) 스포츠 안전사고 실태조사 품질관리 활동	25
7. 최종 조사완료 결과	26
1) 생활 스포츠 실태 기초조사 최종 조사완료 결과	26
2) 스포츠 안전사고 실태조사(생활 스포츠인) 최종 조사완료 결과	27
3) 스포츠 안전사고 실태조사(전문 체육 지도자) 최종 조사완료 결과	29

II. 주요 결과 요약 31

1. 생활스포츠 참여 실태	31
2. 부상 발생 현황	32
3. 부상 발생 환경	34

4. 부상 후 대처 및 경과	36
5. 스포츠 안전의식	37

Ⅲ. 조사 결과 41

제1절 생활스포츠 참여실태 41

1. 생활스포츠 참여율	41
1) 생활스포츠 참여 현황	41
2) 주요 참여 종목	43
2. 생활스포츠 활동 빈도	45
3. 생활스포츠 1회 평균 활동시간	48
4. 생활스포츠 주 활동 시간대	51

제2절 스포츠 안전사고 실태 54

1. 부상 발생 현황	54
1) 부상 발생률	54
2) 부상 경험자 주요 특성	58
3) 연간 부상 횟수	62
4) 부상 정도(주관적 인식 기준)	65
5) 주요 부상 부위	67
6) 주요 부상 종류	71
7) 가장 심각한 부상부위 및 종류 유형	74
8) 부상의 직접적 원인	77
9) 부상 수준	81
2. 부상 발생 환경	87
1) 부상 전 사고예방활동 현황	87
2) 부상 시 착용한 보호장구 및 안전용품의 상태	93
3) 부상 전 환경적 위험요소 확인 현황	95
4) 부상 전 준비운동 현황	97
5) 부상 전 확인한 안전매뉴얼 부상 방지 도움 정도	99
6) 부상 전 신체상태	101
7) 부상 발생 시각	104
8) 부상 시기	106

9) 부상 장소 운영주체	108
10) 부상 장소 안전 안내문구 및 책자 비치 및 확인 현황	109
11) 부상 장소 환경적 요인	111
12) 부상 당시 지도/숙련자 배석여부 및 역할	117
3. 부상 후 대처 및 경과	122
1) 부상 후 응급대처 현황	122
2) 발생 부상의 치료 방법	126
3) 부상 치료비용 처리 방법	130
4) 부상 치료비용 개인 부담금액	133
5) 가료기간	136
6) 부상으로 인한 후유 발생 현황	139
7) 부상 후 스포츠활동 변화 및 감소율	143
8) 부상 후 스포츠활동 감소 및 중단 이유	146

제3절 스포츠 안전의식 149

1. 안전 의식	149
1) 종목 안전수칙 인지도	149
2) 종목 안전수칙 인지 경로	151
2. 안전수칙 준수현황	155
1) 안전수칙 준수 인식	155
2) 세부 안전수칙 준수 정도	157
3) 시설물 안전여부 미확인 이유	159
4) 안전시설 미확인 이유	161
5) 위험지역 미확인 이유	163
6) 보호장구 착용 이유	165
7) 보호장구 구매비 지출의향	167
3. 사고대처 및 응급처치	169
1) 스포츠 안전사고 대처 및 예방법 인지도	169
2) 스포츠 안전사고 응급처치 요령 인지도	174
3) 응급처치 요령 습득경로	180
4) 스포츠 안전사고 대비교육 이수율	184
5) 스포츠 안전사고 대비교육 기관 유형	187
6) 스포츠 안전사고 대비교육 미이수 이유	189
7) 스포츠 안전사고 대비교육 필요성 인식	191

8) 안전한 스포츠활동을 위한 개선사항	193
4. 보험 및 공제 서비스	196
1) 스포츠/일반 상해보험 및 공제 가입 여부	196
2) 스포츠 상해보험 및 공제서비스 미가입 이유	199
3) 스포츠 상해보험 및 공제서비스 필요성 인식	200
4) 스포츠 상해보험 및 공제서비스 비용 지출	202

부록1. 종목별 주요결과 요약 203

부록2. 조사 설문지 433

< 표 목차 >

Ⅰ 표 I-1	조사 개요	5
Ⅰ 표 I-2	지역·성·연령별 주민등록 인구통계 현황(만19세 이상)	8
Ⅰ 표 I-3	지역·성·연령별 제공근 비례배분 결과(만19세 이상)	9
Ⅰ 표 I-4	스포츠 안전사고 실태조사 종목산정 변인	11
Ⅰ 표 I-5	스포츠 안전사고 실태조사(생활 스포츠인 조사) 종목설정 결과	13
Ⅰ 표 I-6	스포츠 안전사고 실태조사(생활 스포츠인 조사) 종목별 표본배분 결과	15
Ⅰ 표 I-7	생활 스포츠 실태 기초조사 문항 구조	16
Ⅰ 표 I-8	스포츠 안전사고 실태조사(생활 스포츠인 조사) 문항 구조	17
Ⅰ 표 I-9	면접원 투입 현황	21
Ⅰ 표 I-10	종목별 조사 방식	22
Ⅰ 표 I-11	생활 스포츠 실태 기초조사 최종 조사완료 결과	26
Ⅰ 표 I-12	스포츠 안전사고 실태조사 최종 조사완료 결과-전체	27
Ⅰ 표 I-13	스포츠 안전사고 실태조사 최종 조사완료 결과-기본 특성	28
Ⅰ 표 I-14	스포츠 안전사고 실태조사 최종 조사완료 결과-기본 특성	29
Ⅲ 표 Ⅲ-1	응답자 특성별 생활스포츠 참여율	42
Ⅲ 표 Ⅲ-2	성별 생활스포츠 참여율	44
Ⅲ 표 Ⅲ-3	연령별 생활스포츠 참여율	44
Ⅲ 표 Ⅲ-4	종목별 활동 빈도	46
Ⅲ 표 Ⅲ-5	응답자 특성별 생활스포츠 활동빈도	47
Ⅲ 표 Ⅲ-6	종목별 1회 평균 활동시간	49
Ⅲ 표 Ⅲ-7	응답자 특성별 생활스포츠 1회 평균 활동시간	50
Ⅲ 표 Ⅲ-8	종목별 주 활동 시간대	52
Ⅲ 표 Ⅲ-9	응답자 특성별 생활스포츠 주 활동 시간대	53
Ⅲ 표 Ⅲ-10	종목별 부상 발생률	55
Ⅲ 표 Ⅲ-11	응답자 특성별 부상 발생률	56
Ⅲ 표 Ⅲ-12	부상경험자의 종목별 스포츠 참여빈도 및 참여시간	59
Ⅲ 표 Ⅲ-13	부상경험자의 종목별 능숙도	60
Ⅲ 표 Ⅲ-14	부상경험자의 종목별 활동 경력	61
Ⅲ 표 Ⅲ-15	종목별 연간 부상 횟수	63
Ⅲ 표 Ⅲ-16	종목별 부상 정도(주관적 인식)	66
Ⅲ 표 Ⅲ-17	종목별 부상 부위 : 상반신	68
Ⅲ 표 Ⅲ-18	종목별 부상 부위 : 하반신	69
Ⅲ 표 Ⅲ-19	종목별 부상 종류	72

Ⅰ 표 Ⅲ-20 Ⅰ	가장 심각한 부상유형의 반복발생 빈도	75
Ⅰ 표 Ⅲ-21 Ⅰ	종목별 부상 원인	78
Ⅰ 표 Ⅲ-22 Ⅰ	부상 종류별 부상 원인	79
Ⅰ 표 Ⅲ-23 Ⅰ	종목별 부상 수준	82
Ⅰ 표 Ⅲ-24 Ⅰ	응답자 특성별 부상 수준	83
Ⅰ 표 Ⅲ-25 Ⅰ	종목별 사고예방활동 현황	88
Ⅰ 표 Ⅲ-26 Ⅰ	응답자 특성별 사고예방활동 현황	89
Ⅰ 표 Ⅲ-27 Ⅰ	종목별 착용한 보호장구 및 안전용품의 상태	94
Ⅰ 표 Ⅲ-28 Ⅰ	종목별 부상 전 환경적 위험요소 확인 현황	96
Ⅰ 표 Ⅲ-29 Ⅰ	종목별 부상 전 준비운동 현황	98
Ⅰ 표 Ⅲ-30 Ⅰ	종목별 안전매뉴얼 부상 방지 도움 정도	100
Ⅰ 표 Ⅲ-31 Ⅰ	종목별 부상 전 신체상태	102
Ⅰ 표 Ⅲ-32 Ⅰ	종목별 부상발생 시간 패턴	105
Ⅰ 표 Ⅲ-33 Ⅰ	월별 부상 시기	106
Ⅰ 표 Ⅲ-34 Ⅰ	종목별 부상 시기	107
Ⅰ 표 Ⅲ-35 Ⅰ	종목별 부상 장소 운영주체	108
Ⅰ 표 Ⅲ-36 Ⅰ	종목별 안전 안내문구 및 책자 비치 및 확인 현황	110
Ⅰ 표 Ⅲ-37 Ⅰ	종목별 부상 장소 환경적 요인	112
Ⅰ 표 Ⅲ-38 Ⅰ	종목별 지도/숙련자 배석여부	118
Ⅰ 표 Ⅲ-39 Ⅰ	배석한 지도/숙련자의 역할	119
Ⅰ 표 Ⅲ-40 Ⅰ	종목별 응급대처 현황	123
Ⅰ 표 Ⅲ-41 Ⅰ	부상 종류별 응급대처 현황	124
Ⅰ 표 Ⅲ-42 Ⅰ	종목별 응급대처 도움 인원	125
Ⅰ 표 Ⅲ-43 Ⅰ	종목별 발생 부상의 치료 방법	127
Ⅰ 표 Ⅲ-44 Ⅰ	종목별 발생 부상의 병원 진료 시 치료 방법	128
Ⅰ 표 Ⅲ-45 Ⅰ	부상 종류 및 가료기간 별 발생 부상의 치료 방법	129
Ⅰ 표 Ⅲ-46 Ⅰ	종목별 치료비용 처리방법	131
Ⅰ 표 Ⅲ-47 Ⅰ	부상 종류 및 가료기간 별 치료비용 처리방법	132
Ⅰ 표 Ⅲ-48 Ⅰ	종목별 치료비용 개인 부담금액	134
Ⅰ 표 Ⅲ-49 Ⅰ	부상 종류 및 가료기간 별 치료비용 개인 부담금액	135
Ⅰ 표 Ⅲ-50 Ⅰ	종목별 부상 후 가료기간	137
Ⅰ 표 Ⅲ-51 Ⅰ	부상 종류별 부상 후 가료기간	138
Ⅰ 표 Ⅲ-52 Ⅰ	종목별 부상 후유 발생률 및 심각도	140
Ⅰ 표 Ⅲ-53 Ⅰ	부상 종류 및 가료기간 별 부상 후유 발생률 및 심각도	141
Ⅰ 표 Ⅲ-54 Ⅰ	주 발생 부상후유 유형	142

Ⅰ 표 Ⅲ-55 Ⅰ	종목별 부상 후 스포츠활동 변화 및 감소율	144
Ⅰ 표 Ⅲ-56 Ⅰ	부상 종류 및 가료기간 별 부상 후 스포츠활동 변화 및 감소율	145
Ⅰ 표 Ⅲ-57 Ⅰ	종목별 부상 후 스포츠활동 감소 및 중단 이유	147
Ⅰ 표 Ⅲ-58 Ⅰ	부상 종류 및 가료기간 별 부상 후 스포츠활동 감소 및 중단 이유	148
Ⅰ 표 Ⅲ-59 Ⅰ	종목별 안전수칙 인지도	150
Ⅰ 표 Ⅲ-60 Ⅰ	종목별 안전수칙 인지 경로	152
Ⅰ 표 Ⅲ-61 Ⅰ	종목별 안전수칙 준수 인식	156
Ⅰ 표 Ⅲ-62 Ⅰ	종목별 세부 안전수칙 준수 정도	158
Ⅰ 표 Ⅲ-63 Ⅰ	종목별 시설물 안전여부 미확인 이유	160
Ⅰ 표 Ⅲ-64 Ⅰ	종목별 안전시설 미확인 이유	162
Ⅰ 표 Ⅲ-65 Ⅰ	종목별 위험지역 미확인 이유	164
Ⅰ 표 Ⅲ-66 Ⅰ	종목별 보호장구 착용 이유	166
Ⅰ 표 Ⅲ-67 Ⅰ	종목별 보호장구 구매비 지출의향	168
Ⅰ 표 Ⅲ-68 Ⅰ	종목별 스포츠 안전사고 대처 및 예방법 인지도	171
Ⅰ 표 Ⅲ-69 Ⅰ	응답자 특성별 스포츠 안전사고 대처 및 예방법 인지도	172
Ⅰ 표 Ⅲ-70 Ⅰ	종목별 스포츠 안전사고 응급처치 요령 인지도	175
Ⅰ 표 Ⅲ-71 Ⅰ	응답자 특성별 스포츠 안전사고 응급처치 요령 인지도	177
Ⅰ 표 Ⅲ-72 Ⅰ	종목별 응급처치 요령 습득경로	181
Ⅰ 표 Ⅲ-73 Ⅰ	응답자 특성별 스포츠 안전사고 응급처치 요령 습득경로	182
Ⅰ 표 Ⅲ-74 Ⅰ	종목별 스포츠 안전사고 대비교육 이수율	185
Ⅰ 표 Ⅲ-75 Ⅰ	응답자 특성별 스포츠 안전사고 대비교육 이수율	186
Ⅰ 표 Ⅲ-76 Ⅰ	종목별 스포츠 안전사고 대비교육 기관 유형	188
Ⅰ 표 Ⅲ-77 Ⅰ	종목별 스포츠 안전사고 대비교육 미이수 이유	190
Ⅰ 표 Ⅲ-78 Ⅰ	종목별 스포츠 안전사고 대비교육 필요성 인식	192
Ⅰ 표 Ⅲ-79 Ⅰ	안전한 스포츠활동 위한 개선사항 주요 의견	193
Ⅰ 표 Ⅲ-80 Ⅰ	종목별 스포츠/일반 상해보험 및 공제 가입 여부	197

<그림목차>

Ⅰ 그림 I-1	조사 목적	1
Ⅰ 그림 I-2	조사 체계	2
Ⅰ 그림 I-3	조사의 전반적 구성	2
Ⅰ 그림 I-4	CAPI 응답화면 예시	23
Ⅰ 그림 I-5	생활 스포츠 실태 기초조사 품질관리 활동	24
Ⅰ 그림 I-6	스포츠 안전사고 실태조사 내검 체계	25
Ⅲ 그림 Ⅲ-1	생활스포츠 참여율	41
Ⅲ 그림 Ⅲ-2	생활스포츠 주요 참여 종목	43
Ⅲ 그림 Ⅲ-3	생활스포츠 활동빈도	45
Ⅲ 그림 Ⅲ-4	생활스포츠 1회 평균 활동시간	48
Ⅲ 그림 Ⅲ-5	생활스포츠 주 활동 시간대	51
Ⅲ 그림 Ⅲ-6	부상 발생률	54
Ⅲ 그림 Ⅲ-7	종목별 부상 발생률	55
Ⅲ 그림 Ⅲ-8	부상 경험자 주요 특성	58
Ⅲ 그림 Ⅲ-9	연간 부상 횟수	62
Ⅲ 그림 Ⅲ-10	부상 정도(주관적 인식)	65
Ⅲ 그림 Ⅲ-11	부상 부위	67
Ⅲ 그림 Ⅲ-12	부상 종류	71
Ⅲ 그림 Ⅲ-13	가장 심각한 부상유형	74
Ⅲ 그림 Ⅲ-14	부상 원인	77
Ⅲ 그림 Ⅲ-15	부상 수준	81
Ⅲ 그림 Ⅲ-16	부상 전 사고예방활동	87
Ⅲ 그림 Ⅲ-17	부상 시 착용한 보호장구 및 안전용품의 상태	93
Ⅲ 그림 Ⅲ-18	부상 전 환경적 위험요소 확인 현황	95
Ⅲ 그림 Ⅲ-19	부상 전 준비운동 현황	97
Ⅲ 그림 Ⅲ-20	안전매뉴얼 부상 방지 도움 정도	99
Ⅲ 그림 Ⅲ-21	부상 전 신체상태	101
Ⅲ 그림 Ⅲ-22	부상 발생 주요 시각	104
Ⅲ 그림 Ⅲ-23	계절별 부상 시기	106
Ⅲ 그림 Ⅲ-24	부상 장소 운영주체	108
Ⅲ 그림 Ⅲ-25	안전 안내문구 및 책자 비치 및 확인 현황	109
Ⅲ 그림 Ⅲ-26	부상 장소 환경적 요인	111
Ⅲ 그림 Ⅲ-27	지도/숙련자 배석여부	117

Ⅱ 그림 Ⅲ-28 Ⅱ	부상 후 응급대처	122
Ⅱ 그림 Ⅲ-29 Ⅱ	발생 부상의 치료 방법	126
Ⅱ 그림 Ⅲ-30 Ⅱ	치료비용 처리방법	130
Ⅱ 그림 Ⅲ-31 Ⅱ	치료비용 개인 부담금액	133
Ⅱ 그림 Ⅲ-32 Ⅱ	부상 후 가료기간	136
Ⅱ 그림 Ⅲ-33 Ⅱ	부상 후유 발생률 및 심각도	139
Ⅱ 그림 Ⅲ-34 Ⅱ	부상 후 스포츠활동 변화 및 감소율	143
Ⅱ 그림 Ⅲ-35 Ⅱ	부상 후 스포츠활동 감소 및 중단 이유	146
Ⅱ 그림 Ⅲ-36 Ⅱ	종목 안전수칙 인지도	149
Ⅱ 그림 Ⅲ-37 Ⅱ	종목 안전수칙 인지 경로	151
Ⅱ 그림 Ⅲ-38 Ⅱ	안전수칙 준수 인식	155
Ⅱ 그림 Ⅲ-39 Ⅱ	세부 안전수칙 준수 정도	157
Ⅱ 그림 Ⅲ-40 Ⅱ	시설물 안전여부 미확인 이유	159
Ⅱ 그림 Ⅲ-41 Ⅱ	안전시설 미확인 이유	161
Ⅱ 그림 Ⅲ-42 Ⅱ	위험지역 미확인 이유	163
Ⅱ 그림 Ⅲ-43 Ⅱ	보호장구 착용 이유	165
Ⅱ 그림 Ⅲ-44 Ⅱ	보호장구 구매비 지출의향	167
Ⅱ 그림 Ⅲ-45 Ⅱ	스포츠 안전사고 대처법 인지도	169
Ⅱ 그림 Ⅲ-46 Ⅱ	스포츠 안전사고 예방법 인지도	170
Ⅱ 그림 Ⅲ-47 Ⅱ	스포츠 안전사고 응급처치 요령 인지도	174
Ⅱ 그림 Ⅲ-48 Ⅱ	응급처치 요령 습득경로	180
Ⅱ 그림 Ⅲ-49 Ⅱ	스포츠 안전사고 대비교육 이수율	184
Ⅱ 그림 Ⅲ-50 Ⅱ	스포츠 안전사고 대비교육 기관 유형	187
Ⅱ 그림 Ⅲ-51 Ⅱ	스포츠 안전사고 대비교육 미이수 이유	189
Ⅱ 그림 Ⅲ-52 Ⅱ	스포츠 안전사고 대비교육 필요성 인식	191
Ⅱ 그림 Ⅲ-53 Ⅱ	스포츠/일반 상해보험 및 공제 가입 여부	196
Ⅱ 그림 Ⅲ-54 Ⅱ	스포츠 상해보험 및 공제서비스 미가입 이유	199
Ⅱ 그림 Ⅲ-55 Ⅱ	스포츠 상해보험 및 공제서비스 필요성 인식	200
Ⅱ 그림 Ⅲ-56 Ⅱ	스포츠 상해보험 및 공제서비스 비용 지출	202

I. 조사 개요



스포츠안전재단
KOREA SPORTS SAFET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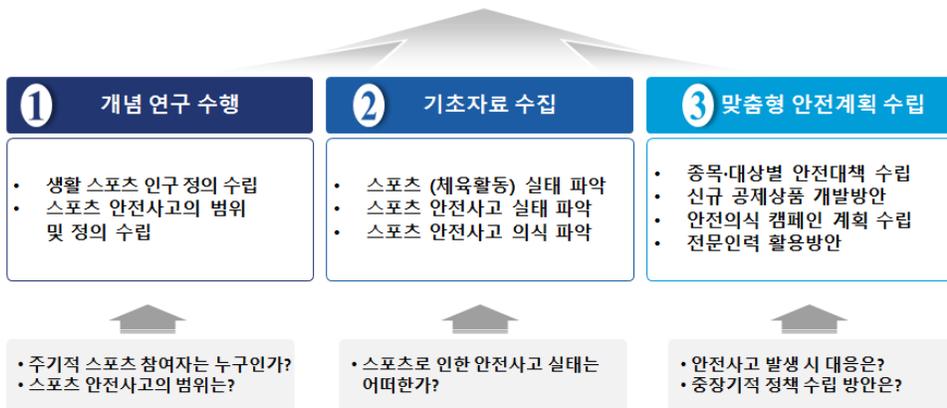
I.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 본 조사는 주기적 스포츠 참여자 및 안전사고에 대한 개념 연구와 이를 바탕으로 한 안전사고 실태에 대한 기초자료 수집, 종합적인 맞춤형 안전계획 수립을 통해 안전한 스포츠 환경 조성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 수립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음.

■ 그림 I-1 ■ 조사 목적

안전한 스포츠 환경 조성 위한 다각적 정책 수립 기초자료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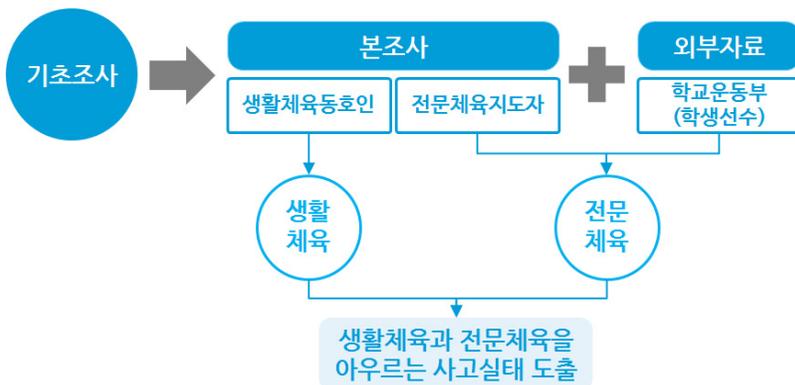
2 조사 개요

- ▶ 본 조사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종목별 생활 스포츠 인구 및 부상 경험자 비율 파악을 위한 ‘생활 스포츠 실태 기초조사(이하 기초조사)’와 부상 경험자의 세부 특성 파악을 위한 ‘스포츠 안전사고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 등 2단계로 실시되었음.
- ▶ 또한 조사로 수집한 자료 외에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학교안전사고 통계분석 및 예방정책 수립 방안에 수록된 부상 관련 통계 자료를 병기하여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을 아우르는 사고실태를 도출하고자 하였으며 이상의 조사체계 및 조사의 전반적 구성도는 <그림 1-2>, <그림 1-3>과 같음.

┃ 그림 1-2 ┃ 조사 체계



┃ 그림 1-3 ┃ 조사의 전반적 구성



1) 생활 스포츠 실태 기초조사 개요

- ▶ 기초조사의 조사 단위는 국내에 거주하는 우리나라 국민 전체의 각 개인이고, 일반국민으로부터의 전반적 실태 파악을 목표로 하는 만큼 특별한 제약 조건이 불필요하므로 개념상 규정된 목표모집단(Target Population) 역시 이와 같음.
 - 최종적인 조사모집단(Survey Population)은 개인의 주관적 의사를 밝힐 수 있는 만19세 이상의 일반국민으로 설정하여 진행 함.
- ▶ 기초조사 표본 규모의 경우 조사 예산과 기간 대비 가장 효율적인 표본 오차를 보일 수 있는 3,000명을 목표 표본으로 설정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3,031명이 표집 됨. 이는 통상적인 전국 단위 대국민 여론조사, 인식조사에서 주로 활용되는 표본 크기인 1,000명을 크게 상회하는 안정적인 표본 규모라 할 수 있음.
- ▶ 기획된 문항의 내용과 이를 바탕으로 예상되는 설문응답 길이를 감안하였을 때 가장 효과적인 조사방법으로 판단되는 웹 조사(Web Survey)방법을 취하였으며 구조화된 설문지(Structured Questionnaire)를 활용하여 웹 조사 중 대국민 조사 진행 방법으로 가장 일반적인 온라인 패널 조사(On-line Panel Survey) 방법으로 진행함.

2) 스포츠 안전사고 실태조사 개요

- ▶ 실태조사 중 ‘생활 스포츠인 조사’의 조사 단위는 스포츠 활동을 영위하며 부상을 경험한 개인이고 개념 상 규정 된 목표 모집단 (Target Population)은 조사 시점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일
반국민 중 위 조사 단위 조건에 해당하는 모든 개인임.
 - 조사 모집단(Survey Population)은 취합 자료의 최신성, 기간적 공통
성 확보를 감안하여 2015년 1월부터 12월, 즉, 2015년 1년 간 해당
스포츠 활동을 영위하며 부상을 경험한 개인으로 설정하여 진행함.
- ▶ 각 종목별 특성의 상이함으로 인해 취합된 조사 결과는 종목별
별도 분석 및 활용을 필수로 하는 점을 고려하여, 주어진 조사
예산과 기간 내에서 설정할 수 있는 최대 표본 크기인 10,000
명을 목표 표본으로 하였으며 최종 10,366명으로 완료됨.
- ▶ 구조화된 설문지(Structured Questionnaire)를 바탕으로, 면접원
방문에 의한 컴퓨터 기반 일대일 면접 조사(CAPI: 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 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조사대상자
의 응답 여건 상 컴퓨터 활용이 어려울 경우 종이 설문지
(PAPI: Pen And Paper Interview)에 의한 응답 방식을 병행함.
- ▶ 한편, 실태조사 중 ‘전문 체육 지도자 조사’의 조사 단위는 전문
선수를 지도하는 지도자임. 지도자 조사에 조사 대상이 되는 종
목은 ①축구, ②사이클, ③스키, ④태권도, ⑤보디빌딩, ⑥농구,
⑦육상, ⑧수영, ⑨야구, ⑩테니스 등 총 10개로, 각 종목당
11~13명씩 총 119명의 지도자를 조사함. (당초 목표 할당은 종
목별 10명씩 총 100명)

3) 기초조사 및 실태조사의 표본오차

- ▶ 기초조사는 일반국민 조사로써 불특정 다수의 우리나라 일반국민 전체를 모집단으로 하는 점, 실태조사는 우리나라 생활스포츠 인구 중 부상 경험자에 대한 규모, 종목별 편차를 확인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통계자료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본 조사에서의 표본 오차는 모집단의 크기를 감안하지 않는 일반적인 표본 오차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 이 경우, 3,031명으로 완료된 기초조사의 표본오차는 $\pm 1.78\%p$, 10,366명으로 완료된 실태조사의 ‘생활 스포츠인 조사’의 표본 오차는 $\pm 0.96\%p$, 119명으로 완료된 ‘전문 체육 지도자 조사’의 표본오차는 $\pm 8.95\%p$ 임. 이 중 실태조사는, 종목별로 살펴볼 경우, 해당 종목의 표본 수에 따라 별도의 표본 오차를 적용해야 함.

▣ 표 I-1 ▣ 조사 개요

구 분	내 용		
	생활 스포츠 실태 기초조사	스포츠 안전사고 실태조사	
전 체		생활 스포츠인 조사	전문 체육 지도자 조사
표본 규모	3,031표본	10,366표본	119표본
표본 오차	$\pm 1.78\%p$ (신뢰수준 95%)	$\pm 0.96\%p$ *(신뢰수준 95%)	$\pm 8.95\%p$ (신뢰수준 95%)
표본 할당	성·연령·지역별 계급근비례할당	종목별 임의할당	종목별 임의할당
표본 추출	할당 표본추출법	단순 무작위 표본추출법	단순 무작위 표본추출법
조사 방법	온라인 패널 기반 웹 조사	1:1 개별면접 조사 (CAPI 방식)	1:1 개별면접 조사(멀티)
조사 기간	2015.12.23~2016.4.16		
조사 지역	전국(Nationwide)		
조사 도구	구조화된 설문지(Structured Questionnaire)		

* 전체 종목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때 적용 가능한 표본오차이며 종목별로 살펴볼 경우 해당 종목별 표본 크기에 따른 별도 표본오차를 적용해야 함

3 표본 설계

1) 생활 스포츠 실태 기초조사 표본설계

(1) 모집단 분석 및 표본추출 틀 작성

- ▶ 기초조사의 조사단위와 목표모집단(target population)은 국내에 거주하는 우리나라 국민 전체의 각 개인이며 조사모집단(survey population)은 개인의 주관적 의사를 밝힐 수 있는 만19세 이상의 일반국민임.
- ▶ 따라서 우리나라의 지역별, 성별, 연령별 인구분포 비율을 일 단위로 파악 가능한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통계를 활용하여 모집단을 구성하는 한편, 표본추출 틀로 활용하였으며 기초조사 기획 시점에서 가장 최근 자료인 2015년 11월 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통계 자료를 활용함.
- ▶ 단, 세종시는 인구 다수가 국가 및 공공기관 소속 직원 및 그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특별행정구역인 점, 만19세 이상 전체 국민의 0.35%에 불과하여 어떠한 비례할당법을 실시하더라도 전체 할당표 작성 시 영향을 주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2015년 7월말 기준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자료를 활용하되 세종시의 인구를 제외하여 활용함.
- ▶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활용한 표본추출틀 작성은 지역별·성별·연령별 비례할당에 적합하도록 각 변인들 간의 3-way 교차표 형태로 작성하였으며 구축된 최종 현황은 <표 I-2>와 같음.

(2) 표본 할당표 작성

- ▶ 일반적인 비례할당에 의해 16개 시도의 성·연령·지역별 표본 할당을 실시할 경우 인구 분포에 따라 서울과 경기 2개 지역에 전체 표본의 약 44%가 할당되며 같은 이유로 울산 등 일부 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등 인구가 적은 지역엔 과소 할당이 이루어지는 문제가 발생함.
- ▶ 따라서 본 기초조사에서는 추후 분석 단계에서 조사 결과 및 항목 내용에 따라 특정 시도별 분석이 실시될 가능성을 감안하여 16개 시도별로 분석에 필요한 최소 표본 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된 비례할당법을 활용하였으며 이 결과는 <표 I-3>에 제시함.

(3) 표본 추출

- ▶ 본 조사는 기 구축된 조사기관의 온라인 패널을 기반으로 하는 패널 웹 조사(On-line Panel Web Survey)로 진행 되었으며 통상적인 웹 조사 방식인 단계별 메일 발송(Stepwise mailing), 즉 할당별 동일 배수에 대한 랜덤 메일 발송 방식을 취하였으므로 추출 과정에서 임의의 기준이 활용될 소지 없이 무작위 성이 담보 되었다고 할 수 있음.
- ▶ 따라서 별 다른 추출법은 적용하지 않았으며 결론적으로 본 조사에서의 최종 표본 추출은 할당 내에서 무작위로 진행 되는 할당 표본추출(Quota Sampling)로 진행되었음.

스포츠 안전사고 실태조사 -종합편

【 표 I-2 】 지역·성·연령별 주민등록 인구통계 현황(만19세 이상, 2015.11월말 기준)

행정구역	구분	2015년 11월 주민등록인구통계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합계
전국	합계	7,382,109	7,685,597	8,871,542	8,304,828	9,618,698	41,862,774
	남자	3,886,420	3,925,714	4,512,070	4,187,825	4,243,650	20,755,679
	여자	3,495,689	3,759,883	4,359,472	4,117,003	5,375,048	21,107,095
서울	남자	788,277	840,452	851,908	774,077	832,318	4,087,032
	여자	786,069	833,346	854,229	814,016	1,009,695	4,297,355
부산	남자	264,911	252,923	283,390	300,147	339,140	1,440,511
	여자	236,747	242,195	286,160	319,678	420,292	1,505,072
대구	남자	198,870	172,871	216,717	206,447	200,702	995,607
	여자	164,215	170,843	222,998	212,273	260,100	1,030,429
인천	남자	229,666	234,772	261,098	250,367	205,839	1,181,742
	여자	211,759	222,000	255,765	242,235	253,140	1,184,899
광주	남자	115,896	111,398	128,878	107,008	102,566	565,746
	여자	106,962	110,598	129,902	109,872	133,069	590,403
대전	남자	123,557	115,942	133,672	118,945	108,687	600,803
	여자	109,786	114,124	133,800	119,505	133,890	611,105
울산	남자	98,310	95,040	106,602	103,900	75,745	479,597
	여자	77,371	86,222	106,238	96,960	87,814	454,605
경기	남자	944,185	999,887	1,169,150	1,004,127	852,963	4,970,312
	여자	865,644	970,761	1,134,720	949,617	1,049,748	4,970,490
강원	남자	115,687	98,201	130,909	136,377	157,753	638,927
	여자	89,675	91,839	120,033	132,231	201,951	635,729
충북	남자	118,803	112,714	135,841	133,149	142,339	642,846
	여자	99,243	103,853	127,001	126,049	183,213	639,359
충남	남자	157,199	177,741	196,904	178,724	212,712	923,280
	여자	136,556	158,601	172,179	164,959	274,654	906,949
전북	남자	130,306	120,758	156,517	150,217	190,121	747,919
	여자	114,284	112,370	143,510	144,609	254,448	769,221
전남	남자	124,343	118,539	158,489	161,121	212,273	774,765
	여자	106,070	105,953	133,433	146,699	295,404	787,559
경북	남자	191,248	182,620	224,600	232,984	280,555	1,112,007
	여자	154,028	165,454	204,840	223,017	375,114	1,122,453
경남	남자	242,072	248,166	299,599	281,048	279,831	1,350,716
	여자	198,336	229,724	281,917	268,889	375,373	1,354,239
제주	남자	43,090	43,690	57,796	49,187	50,106	243,869
	여자	38,944	42,000	52,747	46,394	67,143	247,228

표 I-3 지역·성·연령별 재공근 비례배분 결과(만19세 이상)

행정구역	구분	2015년 11월 주민등록인구통계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합계
전국	합계	522	537	629	602	710	3,000
	남자	278	275	322	305	312	1,492
	여자	244	262	307	297	398	1,508
서울	남자	34	37	37	34	36	178
	여자	34	36	37	36	44	187
부산	남자	19	19	21	22	25	106
	여자	17	18	21	23	31	110
대구	남자	18	15	19	18	18	88
	여자	15	15	20	19	23	92
인천	남자	19	19	21	21	17	97
	여자	17	18	21	20	21	97
광주	남자	13	13	15	13	12	66
	여자	12	13	15	13	16	69
대전	남자	14	13	16	14	12	69
	여자	13	13	15	14	15	70
울산	남자	13	12	14	14	10	63
	여자	10	11	14	13	11	59
경기	남자	38	40	47	40	34	199
	여자	34	39	45	38	42	198
강원	남자	13	11	15	15	18	72
	여자	10	10	13	15	22	70
충북	남자	13	13	15	15	16	72
	여자	11	12	14	14	20	71
충남	남자	15	17	18	17	20	87
	여자	13	15	16	15	25	84
전북	남자	13	12	16	16	19	76
	여자	12	11	15	15	26	79
전남	남자	13	12	16	16	21	78
	여자	11	11	13	15	30	80
경북	남자	16	15	19	20	24	94
	여자	13	14	17	19	31	94
경남	남자	19	19	23	21	21	103
	여자	15	18	22	20	29	104
제주	남자	8	8	10	9	9	44
	여자	7	8	9	8	12	44

2) 스포츠 안전사고 실태조사 표본설계

(1) 모집단 및 표본추출 틀 검토

- ▶ 스포츠 안전사고 실태조사 중 ‘생활 스포츠인 조사’는 생활 스포츠 인구의 활동 실태는 물론, 부상의 종류 및 유형, 세부적인 부상 당시의 상황을 집중적으로 조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최대한 많은 부상 경험자의 응답을 취합하기 위해 구성 표본 전체를 스포츠 활동을 영위 중이면서 부상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설정해야 함.
- ▶ 다만, 구체적 근거 틀 없이 불특정 다수 중의 스포츠 활동자 및 부상 경험자에 대해 조사를 실시할 경우 결과의 활용도가 떨어질 뿐 아니라, 종목별로 활동 인구에 편차가 존재하는 점, 행동 규칙, 신체적 및 주변 환경적 위험성,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부상의 경중이 상이한 점을 고려하여 ‘특정 종목을 활동 중인 부상 경험자’로 재규정할 필요가 있음.
- ▶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종목별 생활 스포츠 인구는 물론, 종목별 부상 발생률, 부상 수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통계자료가 필요하나 현재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관련 통계는 없음.
- ▶ 본 실태조사에서는 표본설계 시 종목별 활동인구를 비롯한 각종 부상 관련 지표의 반영이 필요한 상황에서 관련 통계자료가 없는 현실적인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실태조사에 앞서 실시한 본 조사의 <생활스포츠 실태 기초조사>결과 및 전문가의 자문 결과를 모집단 구성 및 표본추출의 틀로 활용하였음.

(2) 조사대상 종목 설정

- ▶ 조사대상 종목 설정을 위한 고려 변인으로는, 부상 발생 빈도와 직결된 변인이라 할 수 있는 <종목별 활동 인구: 참여빈도>와 <부상률>, 부상의 경중을 판별할 수 있는 부상 발생 후의 <치료기간>, 부상 발생 가능성과 부상의 심각성의 잠재요인을 고려하기 위한 <주관적 발생 가능성>과 <주관적 심각성>을 기초조사 결과로부터 확보함.
- ▶ 그 외에 정책적인 판단과 전문가·연구자의 조사 필요성에 대한 판단을 근거로 하는 <Manageability>와 유사한 종목들이 중복 선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연구자의 판단인 <Uniqueness>를 추가로 포함하여 총 7개의 변인을 최종 종목 산정 변인으로 활용함.

【 표 I-4 】 스포츠 안전사고 실태조사 종목산정 변인

구분	설명	출처
참여 빈도	지난 1년간 한 번이라도 활동했다고 응답한 종목의 수	기초조사
부상률	지난 1년간 참여한 종목별 부상 경험 비율	기초조사
치료기간	다소 심각한 부상을 당했다고 응답한 숫자(4주 이상 가료)	기초조사
주관적 발생 가능성	종목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부상당하기 쉽다고 생각하는 1~3순위 응답 빈도 합계	기초조사
주관적 심각성	종목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부상당할 경우 심각한 부상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1~3순위 응답 빈도 합계	기초조사
Manageability	스포츠 관련 전문가 및 연구진이 판단할 때, 조사의 필요성을 요한다고 판단되는 정도	스포츠 전문가 자문, 연구진 검토
Uniqueness	유사한 종목이 중복되어 선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연구자 판단	연구진 검토

- ▶ 최종적인 ‘생활 스포츠인 조사’의 종목 설정을 위해 본 조사 수행 연구진의 검토 및 스포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각 변인 별 지표 반영 비율을 설정하여 점수화 하는 과정을 거침.
 - <참여빈도>, <부상률>, <치료기간>은 본 조사와 가장 밀접한 변인이면서 응답자의 직접 경험에 기반한 결과인 점을 고려하여 기초조사 응답결과(빈도 및 비율)를 2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반영함.
 - <주관적 발생 가능성>, <주관적 심각성>은 응답자의 간접적인 경험에 기반한 결과라는 점, <Manageability>, <Uniqueness>는 전문가 및 연구자의 판단에 근거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참여빈도>, <부상률>, <치료기간>보다 낮은 1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반영함.
- ▶ 기초조사 결과 점수가 높은 종목을 우선 선정하고, 점수는 낮으나 재단에서 부상 관련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종목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총 22개의 종목을 설정하였으며 세부 변인별 지표 반영 결과를 포함한 전체 종목 산정표는 <표 I-5>에 제시함.
- ▶ 한편, ‘전문 체육 지도자 조사’ 역시 본 조사 수행 연구진의 검토와 스포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총 10개의 종목을 설정함. 종목은 ①축구, ②사이클, ③스키, ④태권도, ⑤보디빌딩, ⑥농구, ⑦육상, ⑧수영, ⑨야구, ⑩테니스 등 총 10개임.

I. 조사 개요

【 표 I-5 】 스포츠 안전사고 실태조사(생활 스포츠인 조사) 종목설정 결과

구 분	참여빈도		부상률		치료기간		주관적 발생가능성		주관적 심각성		연구자 및 전문가 판단		총점
	응답 빈도 (명)	점수 환산	부상률 (%)	점수 환산	응답 빈도 (명)	점수 환산	응답 빈도 (명)	점수 환산	응답 빈도 (명)	점수 환산	Man ageability	Uniq ueness	
등산	1,343	20.0	51.3	10.2	181	18.2	351	10.0	249	2.5	8.0	8.0	76.9
축구	449	19.8	72.1	14.4	108	10.8	397	10.0	233	2.3	10.0	8.0	75.2
자전거/인라인	1,017	20.0	54.5	11.0	153	15.4	1,094	10.0	1,050	10.0	5.0	0.0	71.2
스키/스노보드	404	17.8	59.9	12.0	55	5.6	132	6.6	108	1.1	10.0	10.0	62.9
아이스스케이팅	322	14.2	42.7	8.6	32	3.2	142	7.1	115	1.2	10.0	10.0	54.1
보디빌딩(헬스)	420	18.4	42.8	8.6	61	6.2	48	2.4	31	0.3	10.0	7.0	52.8
농구	256	11.2	64.7	13.0	52	5.2	78	3.9	40	0.4	10.0	8.0	51.7
배드민턴	672	20.0	33.2	6.6	57	5.8	34	1.7	21	0.2	10.0	7.0	51.3
걷기	2,378	20.0	34.7	7.0	213	20.0	43	2.2	17	0.2	0.0	0.0	49.1
달리기	413	18.2	30.1	6.0	36	3.6	15	0.8	9	0.1	10.0	10.0	48.6
수영	688	20.0	18	3.6	27	2.8	35	1.8	14	0.1	10.0	10.0	48.2
골프	300	13.2	50.2	10.0	48	4.8	34	1.7	22	0.2	8.0	10.0	47.9
볼링	615	20.0	32.1	6.4	24	2.4	12	0.6	7	0.1	8.0	8.0	45.5
야구	264	11.6	45	9.0	39	4.0	55	2.8	23	0.2	10.0	8.0	45.5
무도	161	7.0	56.3	11.2	39	4.0	1,750	10.0	1,616	10.0	0.0	3.0	45.3
에어로빅	153	6.8	50	10.0	6	0.6	26	1.3	7	0.1	10.0	10.0	38.7
테니스	121	5.4	44.5	9.0	17	1.8	12	0.6	9	0.1	10.0	10.0	36.6
게이트볼	42	1.8	63.2	12.6	6	0.6	25	1.3	15	0.2	10.0	10.0	36.5
요가	575	20.0	18	3.6	28	2.8	14	0.7	5	0.1	5.0	2.0	34.2
탁구	446	19.6	20.1	4.0	16	1.6	12	0.6	9	0.1	2.0	5.0	32.9
승마	71	3.2	50	10.0	3	0.4	247	10.0	476	4.8	0.0	0.0	30.5
항공 스포츠	66	2.8	50	10.0	2	0.2	148	7.4	165	1.7	0.0	8.0	30.1

(3) 종목별 표본 배분

- ▶ 설정된 종목의 개수(22개)와 계획된 총 표본 수(10,000표본)를 고려하여 한 종목당 최대 할당 표본을 1,000표본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는 특정 종목에의 과대표집으로 인한 표본 편중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라고 할 수 있음.
- ▶ 같은 논거로, 종목별 분석 시 활용할 수 있는 최소 표본 크기를 고려하여 한 종목당 최소 할당 표본을 100표본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는 종목의 기본 부상 특성 파악을 위해 필요한 최소 표본 크기를 100표본 가량으로 판단했기 때문임.
- ▶ 이상의 종목별 최대·최소 배분 범위 내에서, 본 조사의 공동 연구기관(서울대학교)과 조사기관(닐슨컴퍼니코리아), 스포츠안전재단이 협의하여 4개 등급으로 구분 후 임의 배분을 실시함.
 - 참여빈도와 부상률이 모두 높은 종목의 경우 1,000표본을 배분함.
 - 참여빈도와 부상률이 모두 높으나 1,000표본 배분 종목보다는 낮은 수준일 경우 700표본을 배분함.
 - 참여빈도와 부상률 중 한 가지만 높은 종목은 300표본을 배분함.
 - 참여빈도와 부상률이 모두 낮은 종목은 낮은 수준을 고려하여 100-200표본을 배분함.
- ▶ 종목별 표본 배분 결과는 <표 I-6>에 제시함.

【 표 I-6 】 스포츠 안전사고 실태조사(생활 스포츠인 조사) 종목별 표본배분 결과

구 분	표본 배분 크기	구 분	표본 배분 크기
등산	1,000	골프	300
축구	1,000	볼링	300
자전거/인라인	1,000	야구	300
스키/스노보드	700	무도	300
아이스스케이팅	300	에어로빅	300
보디빌딩(헬스)	700	테니스	300
농구	700	게이트볼	100
배드민턴	700	요가	200
걷기	300	탁구	300
달리기	700	승마	100
수영	300	항공 스포츠	100

(4) 종목별 표본 배분 후 보정

- ▶ 최초 22개 종목을 기준으로 표본 배분을 실시하였으나 중간 데이터 점검 결과 여러 개의 종목이 동일 종목으로 설정된 복합 종목 일부에서 상이한 결과 경향이 확인되어 실사 과정 중 이를 분리하는 과정을 거쳐 보정함.
- 자전거/인라인의 경우 일반 자전거, 산악 자전거, 로드바이크 등 자전거류와 인라인 스케이팅을 포함하여 단일 종목으로 배분 하였으나 공간적 범위, 부상 부위 및 종류 등 주요 결과에서 상이한 특성이 발견되어 자전거류와 인라인 스케이팅을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함.

4 문항 설계

1) 생활 스포츠 실태 기초조사 문항 설계

- ▶ 기초조사는 우리나라 전체 국민 중 생활 스포츠 참여 인구를 파악하는 한편, 파악된 생활 스포츠 인구의 기본적인 참여 행태와 부상 경험 여부를 파악함으로써, 실태조사의 종목별 할당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문항을 중심으로 설계됨.
- ▶ 이 외 파악된 부상 경험자의 기본적인 부상 행태와 스포츠 안전의식에 대한 기본 사항을 추가로 파악함.

【 표 I-7 】 생활 스포츠 실태 기초조사 문항 구조

구 분	항 목
Part I. 최근 1년 간 스포츠활동 참여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1년 간 스포츠활동 참여 경험 · 최근 1년 간 스포츠활동 미참여 이유 · 최근 1년 간 스포츠활동 참여 경험 종목
Part II. 스포츠활동 참여 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포츠활동 참여 빈도 · 스포츠활동 1회 평균 소요 시간 · 스포츠활동 주 참여 시간대 · 스포츠활동 주요 참여 장소 · 스포츠활동 참여 시설 운영 주체
Part III. 스포츠활동 시 부상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포츠활동 중 부상 경험 유무 · 스포츠활동 중 부상 경험 종목 · 종목별 부상 경험 부위 · 종목별 부상 종류 · 종목별 부상 치료 기간 · 부상 발생 가능성이 큰 종목 · 부상 심각성이 큰 종목
Part IV. 스포츠 안전의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포츠활동 종목 안전수칙 인지 여부 · 스포츠 안전의식의 중요성 · 스포츠 안전의식이 중요한 이유 · 사고 대처법/부상예방 교육 이수경험 · 스포츠안전사고 발생시 응급처치 요령 인지 여부 · 스포츠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공제 가입 여부

2) 스포츠 안전사고 실태조사 문항 설계

- ▶ 스포츠 안전사고 실태조사 중 ‘생활 스포츠인 조사’는 2015년 기준, 전원 스포츠 활동을 영위 중이면서 부상 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됨.
- ▶ 따라서, 기본적인 생활 스포츠 참여 실태는 물론, 부상 종류 및 유형, 세부적인 부상 전후 및 당시 상황, 부상 경험자의 스포츠 안전 의식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들로 구성됨.
- ▶ 한편, ‘전문 체육 지도자 조사’의 경우, ‘생활 스포츠인 조사’와 비슷한 문항 구조로 진행됨.

▮ 표 I-8 ▮ 스포츠 안전사고 실태조사(생활 스포츠인 조사) 문항 구조

구 분	항 목
Part I. 스포츠활동 참여 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포츠 참여 빈도 · 종목 비정기 활동자의 연간 참여빈도 · 1회당 참여 시간 · 주 참여 시간대 · 종목 능숙도 · 종목 경력
Part II. 부상 종류 및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상 정도 · 연간 부상 횟수 · 부상 부위 · 부상 종류 · 가장 심각한 부상 유형 · 심각한 부상유형 반복발생 빈도
Part III. 부상 발생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상 발생 시간 · 부상 시기 · 부상 장소 · 부상 장소 운영 주체 · 부상 장소 내 안전 안내문구 및 책자 비치 현황 · 비치된 안전 안내문구 및 책자 확인 현황 · 부상 장소 환경적 요인 · 부상 당시 동반자 여부 · 부상 당시 지도/숙련자 동반 여부 · 지도/숙련자 교육 실시현황 및 성실도

스포츠 안전사고 실태조사 -종합편

【 표 I-8 】 스포츠 안전사고 실태조사(생활 스포츠인 조사) 문항 구조(계속)

구 분	항 목
Part IV. 부상 원인, 대처 및 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상 직접적 원인 · 부상 응급대처 · 부상 응급대처 도움 인원 수 · 부상 응급대처 도움 인원 유형 · 부상 치료 방법 · 병원치료 방법 · 부상 치료비용 처리 유형 · 부상 치료비용 개인 부담금액 · 부상 가료기간 · 부상으로 인한 후유증 발생 여부 · 부상 후유증 유형 · 발생 후유증 심각도
Part V. 부상 발생 전후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예방활동 현황 · 부상 시 착용 보호장구 및 안전용품 · 착용 보호장구 및 안전용품 상태 · 환경적 위험요소 확인 정도 · 부상 전 준비운동 현황 (평균) · 부상 전 확인한 안전매뉴얼의 부상방지 도움 정도 · 부상 전 신체상태 · 부상 발생 후 스포츠활동 변화 · 부상 발생에 따른 스포츠활동 감소율 · 부상 발생 후 스포츠활동 감소 및 중단 이유
Part VI. 스포츠 안전의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목 안전수칙 인지도 · 종목 안전수칙 인지 경로 · 안전수칙 준수 인식 · 안전한 스포츠활동 위한 개선사항 · 스포츠 안전사고 예방법 인지도 · 스포츠 안전사고 대처법 인지도 · 스포츠 안전사고 응급처치 요령 인지도 (평균) · 응급처치 요령 습득 경로 · 스포츠 활동 습관 (평균) · 시설물 안전여부 미확인/안전-위험시설 미확인, 보호장구 착용 이유 · 보호장구 구매비 지출의향 · 스포츠/일반 상해보험 및 공제 가입 여부 · 스포츠 상해보험 및 공제 가입 기관 · 스포츠 상해보험 및 공제서비스 미가입 이유 · 스포츠 상해보험 및 공제서비스 가입 필요성 인식 · 스포츠 상해보험 및 공제서비스 가입비용 지출의향 및 현황 · 스포츠 안전사고 대비교육 경험율 · 스포츠 안전사고 대비교육 기관 유형 · 스포츠 안전사고 대비교육 미참석 이유 · 스포츠 안전사고 대비교육 필요성 인식

5 조사 진행

1) 생활 스포츠 실태 기초조사 조사 진행

(1) 면접원 교육

- ▶ 기초조사의 경우 온라인상에서 응답자가 자기기입 형태로 진행하였으며, 일부 고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개별 방문 면접 진행 역시 자기기입을 기반으로 개발된 설문지의 응답 난이도를 감안하여 별도의 면접원 교육은 실시하지 않음.

(2) 조사 진행

- ▶ 기초조사 진행은 온라인 패널을 기반으로 하는 패널 웹 조사(On-line Panel Web Survey)로 진행 되었으므로 별도의 종이 설문지나 면접원에 의한 진행 없이 기 구축된 웹 설문(Web Questionnaire)으로 진행되었음.
- ▶ 사용된 온라인 패널의 추출은 조사 담당 회사인 닐슨컴퍼니코리아(유)에 기 구축되어 있는 온라인 응답 패널 중 컴퓨터에 의해 무작위로 발송되는 방식을 취하였으며 각 지역·성·연령 할당별동일 배수씩 순차 발송하는 단계적 메일 발송으로 추출 확률의 동질성 및 조사의 효율성을 기함.

2) 스포츠 안전사고 실태조사 진행

(1) 면접원 교육

- ▶ 실태조사를 위한 면접원 교육은 2016년 3월 11일 닐슨컴퍼니코리아(유) 본사 교육장에서 실시되었으며, 최초 집체교육 외에 중도 포기자를 대체할 면접원이나 진행이 미흡한 종목·지역에 투입할 추가 면접원을 대상으로 한 수시 교육이 실사 기간 동안 추가로 실시됨.
- ▶ 2016년 3월 11일 실시된 전체 집체교육에는 각 지역 실사감독원 및 보조감독원, 핵심 면접원 등 총 50명이 참석 하였으며 교육은 사전에 준비된 <스포츠 안전사고 실태조사 - 조사 지침서>에 준해 다음과 같이 3개 파트로 나누어 2시간여에 걸쳐 진행됨.
 - 첫 번째 파트는 <조사개요> 부분으로 스포츠 안전사고 실태조사의 배경 및 목적, 조사 적격 응답자에 대한 기준 등을 설명함.
 - 두 번째 파트는 현장조사의 실제적인 <방법론>에 대한 교육으로 주요용어 정의, 현장조사 단계별 접근방법, 적격대상자 선정 절차, 면접원의 역할 및 윤리, 면접요령 등의 내용으로 진행됨.
 - 세 번째 파트는 <설문지 작성방법>으로 설문지 구성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 문항별 의미 및 용어정의, 보기문항에 대한 설명, 질문요령 등을 설명하였으며, 또한 질의/응답시간을 통해 현장조사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참여자 간 공유할 수 있도록 함.

- ▶ 정기교육 외에 중도포기자를 대체할 면접원이나 진행이 미흡한 지역에 투입할 추가 면접원을 대상으로 한 수시교육을 현장조사 진행기간 동안 실시함.

(2) 면접원 투입 현황

- ▶ 이번 조사에 투입된 전체 면접원은 총 167명이며 지역별 상세 현황은 <표 I-9>와 같음.

■ 표 I-9 ■ 면접원 투입 현황

투입 권역	담당 지역	면접원 수
서울/경기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지역 담당	95
대전/충청	대전, 충남, 충북 지역 담당	12
광주/전라	광주, 전북, 전남 지역 담당	14
대구/경북	대구, 경북 지역 담당	15
부산/경남	부산, 울산, 경남 지역 담당	29
제주	제주시 일원 담당	2
전 체		167

(3) 조사 진행

- ▶ 조사 진행은 가구 방문에 의한 1:1 개별면접과 특정 장소(주로 해당 스포츠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방문하여 진행하는 현장 면접 등 2가지 방식으로 진행 되었으며 대상 종목별 조사 진행 방식은 <표 I-10>과 같음.

스포츠 안전사고 실태조사 -종합편

- 가구방문에 의한 1:1 개별면접 진행 종목은 주로 활동 인구가 많은 범국민적 스포츠에 해당하거나(예: 등산, 자전거, 걷기 등) 조사 시기에 따른 계절적 요인으로 특정 장소에서의 진행이 불가능한(예: 스키, 스노보드) 종목들이 해당 되며, 그 외 종목은 모두 해당 스포츠 활동이 주로 이루어지는 장소에 방문하여 진행됨.

표 I-10 | 종목별 조사 방식

종목	조사방식	종목	조사방식
등산	가구방문 면접	골프(스크린골프 포함)	현장방문 면접
축구	현장방문 면접	볼링	현장방문 면접
자전거, 사이클, 산악자전거	가구방문 면접	야구	현장방문 면접
인라인 스케이팅	가구방문 면접	킥복싱, 이종격투기, 권투, 태권도	현장방문 면접
스키/스노보드	가구방문 면접	에어로빅	현장방문 면접
아이스 스케이팅	현장방문 면접	테니스	현장방문 면접
보디빌딩(헬스)	현장방문 면접	게이트볼	현장방문 면접
농구	현장방문 면접	요가	현장방문 면접
배드민턴	현장방문 면접	탁구	현장방문 면접
걷기	가구방문 면접	승마	현장방문 면접
달리기(걷기 제외, 마라톤 포함)	가구방문 면접	스카이다이빙, 행글라이딩, 패러글라이딩	현장방문 면접
수영	현장방문 면접		

(4) 응답 방식

- ▶ 응답 방식은 기본적으로 종이 설문지 대신 노트북(넷북, 태블릿 PC 포함)을 활용한 CAPI(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 방식으로 진행됨.
- CAPI 진행 방식은 현장에서 개별 면접으로 진행 된다는 점 이외엔 온라인 조사와 동일한 구조로 진행되므로 응답과 동시에 응답 논리를 체크하는 등 오류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음.

I. 조사 개요

- 또한, 별도의 데이터 입력 과정 없이 간단한 데이터 동기화(Sync) 만으로 로우 데이터 확보가 가능하여 조사 완료 이후 후속 조치에 소요되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음.

【그림 I-4】 CAPI 응답화면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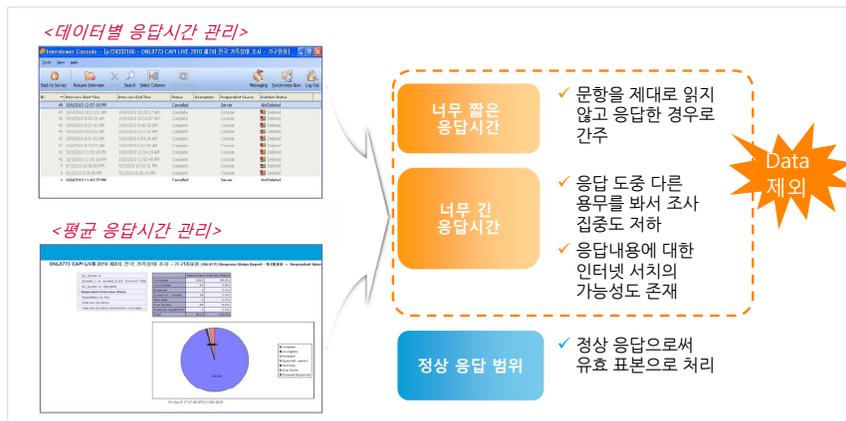
- ▶ 일부 컴퓨터 기기 활용을 어려워하는 응답자, 응답 환경 상 컴퓨터 활용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종이 설문지에 의한 진행을 병행 하였으며, 이 경우에도 응답 결과 입력은 CAPI Device를 통해 진행하여 응답 논리 점검 및 데이터 통일성을 확보함.

6 품질관리 활동 및 자료처리

1) 생활 스포츠 실태 기초조사 품질관리 활동

- ▶ 기초조사는 Web-Survey Program을 통해 별도의 Data 입력 과정 등을 거칠 필요가 없고 온라인 패널 조사의 특성 상 응답자 선정에 인력이 관여할 소지가 없어 별도의 내검은 필요하지 않음.
- ▶ 단, 조사원에 의한 진행 방식이 아닌, 자기기입 형태로 진행되는 특성 상 불성실 응답을 차단하기 위해 데이터별 응답 시간 및 평균 응답 시간 관리를 실시함.
 - 너무 짧은 응답시간(응답시간 하위 5% 기준)을 보인 케이스의 경우, 문항을 제대로 읽지 않고 응답한 경우로 간주하여 삭제 처리함.
 - 너무 긴 응답시간(응답시간 상위 5% 기준)을 보인 케이스의 경우, 응답 도중 다른 용무 및 웹 검색, 자리비움 등이 발생한 경우로써, 조사 집중도 저하 및 바이어스 발생 개연성이 높으므로 삭제 처리함.

【그림 I-5】 생활 스포츠 실태 기초조사 품질관리 활동



2) 스포츠 안전사고 실태조사 품질관리 활동

- ▶ 각 지역본부별로 회수된 응답 데이터에 대한 품질 관리는 ‘지역 실사감독자에 의한 1차 내검’과 ‘본부 전문에디터에 의한 2차 내검’, ‘30% 무작위 전화검증’의 3단계로 진행되었으며, 각 단계에서 문제가 발견된 설문지는 폐기 또는 보완조사를 실시함.

■ 그림 I-6 ■ 스포츠 안전사고 실태조사 내검 체계



7 최종 조사완료 결과

1) 생활 스포츠 실태 기초조사 최종 조사완료 결과

【 표 I-11 】 생활 스포츠 실태 기초조사 최종 조사완료 결과

(단위: %)

구 분		사례수	비율
전 체		3,031	100.0
성별	남성	1,514	50.0
	여성	1,517	50.0
연령	20대	557	18.4
	30대	559	18.4
	40대	608	20.1
	50대	637	21.0
	60~64세	287	9.5
	65세 이상	383	12.6
지역	수도권	862	28.4
	충청권	535	17.7
	영남권	893	29.5
	호남권	482	15.9
	강원권	168	5.5
	제주권	91	3.0
학력별	중졸 이하	462	15.2
	고졸	784	25.9
	대재 이상	1,785	58.9
직업별	농/임/어업	77	2.5
	자영업	329	10.9
	화이트칼라	796	26.3
	블루칼라	650	21.4
	전업주부	591	19.5
	학생	217	7.2
	무직/기타	369	12.2
	모름/무응답	2	0.1

2) 스포츠 안전사고 실태조사(생활 스포츠인) 최종 조사완료 결과

【 표 I-12 】 스포츠 안전사고 실태조사 최종 조사완료 결과-전체

(단위: %)

구 분		사례수	비율	구 분		사례수	비율
전 체		10,366	100.0				
종목별	등산	1,028	9.9	능숙도	초급	6,834	65.9
	축구	1,013	9.8		중급	2,725	26.3
	자전거	883	8.5		상급	807	7.8
	스키/스노보드	729	7.0	경력	2년미만	2,099	20.2
	무도	336	3.2		2년 이상-5년 미만	1,952	18.8
	아이스스케이팅	311	3.0		5년이상-10년미만	2,207	21.3
	인라인스케이팅	160	1.5		10년 이상-20년 미만	2,406	23.2
	보디빌딩(헬스)	713	6.9		20년 이상	1,702	16.4
	농구	711	6.9	부상부위	머리/목	954	9.2
	배드민턴	714	6.9		상반신	1,095	10.6
	걷기	314	3.0		팔	3,218	31.0
	달리기	713	6.9		하반신 상부	2,224	21.5
	수영	313	3.0		하반신 하부	2,855	27.5
	골프/스크린골프	329	3.2		기타	20	0.2
	볼링	312	3.0	부상종류	염좌	3,454	33.3
	야구	314	3.0		골절	678	6.5
	에어로빅	302	2.9		탈구	210	2.0
	테니스	310	3.0		열상	457	4.4
	게이트볼	100	1.0		절단	46	0.4
	요가	211	2.0		찰과상	943	9.1
	탁구	310	3.0		출혈	284	2.7
	승마	110	1.1		좌상	1,054	10.2
	항공스포츠	130	1.3		자상	78	0.8
					통증	2,613	25.2
활동빈도	주1회이상	5,338	51.5		염증	193	1.9
	월1회이상	2,926	28.2		파열	197	1.9
	분기1회이상	650	6.3		기타	159	1.5
	반기1회이상	501	4.8	가료기간	경마가료기간 없음	1,880	18.1
	비정기적활동	951	9.2		1주 미만 가료	2,574	24.8
회당 활동시간	30분 이하	1,513	14.6		1-2주 가료	3,128	30.2
	30분 초과-60분 이하	4,436	42.8		3-4주 가료	1,800	17.4
	1시간 초과-2시간 이하	2,877	27.8		5-8주 가료	589	5.7
	2시간초과	1,540	14.9		9주 이상 가료	395	3.8

스포츠 안전사고 실태조사 -종합편

【 표 I -13 】 스포츠 안전사고 실태조사 최종 조사완료 결과-기본 특성

(단위: %)

구 분		사례수	비율
전 체		10,366	100.0
성별	남성	6,110	58.9
	여성	4,256	41.1
연령	20대	1,627	15.7
	30대	3,649	35.2
	40대	3,171	30.6
	50대	1,564	15.1
	60-64세	258	2.5
	65세 이상	97	0.9
거주지 규모	서울	3,332	32.1
	6대 광역시	3,559	34.3
	지방 중소도시	3,025	29.2
	지방 군읍면	450	4.3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846	8.2
	200-299만원	1,793	17.3
	300-499만원	3,725	35.9
	500-699만원	2,229	21.5
	700만원 이상	1,773	17.1

3) 스포츠 안전사고 실태조사(전문 체육 지도자) 최종 조사완료 결과

【 표 I-14 】 스포츠 안전사고 실태조사 최종 조사완료 결과-기본 특성
(단위: %)

구 분		사례수	비율
전 체		119	100.0
성별	남성	108	90.8
	여성	11	9.2
연령	20대	16	13.4
	30대	60	50.4
	40대	23	19.3
	50대 이상	18	15.1
	모름/무응답	2	1.7
지도 지역	대도시	56	47.1
	중소도시	52	43.7
	읍면지역	11	9.2
지도 경력	1~3년 미만	17	14.3
	3~5년 미만	24	20.2
	5년~10년 미만	35	29.4
	10년 이상	43	36.1
자격증	1급전문스포츠지도사	9	7.6
	2급전문스포츠지도사	60	50.4
	경기연맹 인정 자격증	35	29.4
	없음/모름/무응답	28	23.5
지도 대상	초등부	28	23.5
	중학부	57	47.9
	고등부	50	42.0
	대학부	8	6.7
	일반	19	16.0
	기타	5	4.2
지도 스포츠	축구	13	10.9
	사이클	13	10.9
	스키	11	9.2
	태권도	13	10.9
	보디빌딩	12	10.1
	농구	11	9.2
	육상	12	10.1
	수영	12	10.1
	야구	11	9.2
	테니스	11	9.2

II. 주요 결과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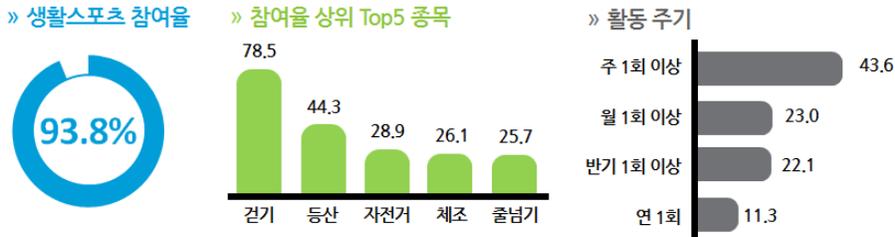


스포츠안전재단
KOREA SPORTS SAFETY FOUNDATION

Ⅱ. 주요 결과 요약

1 생활스포츠 참여 실태

전체 인구의 93.8% 생활스포츠 참여, 종목별로는 걷기(78.5%), 등산(44.3%), 자전거(28.9%) 등의 순이며 43.6%가 '주1회 이상' 활동



- 최근 1년간 종목에 관계없이 생활 스포츠 활동을 한 인구 비율은 93.8%임.
- 세부 종목별로는 걷기(78.5%), 등산(44.3%), 자전거(28.9%), 체조(26.1%), 줄넘기(25.7%), 수영(22.7%), 배드민턴(22.2%), 볼링(20.3%), 당구(19.6%), 요가(19.0%) 등의 순임.
- 응답자 특성별로 다양한 생활스포츠 참여 행태 발견, 예를 들어 성별 남성은 축구(5순위, 27.4%)를 상대적으로 많이 했던 것으로 조사된 반면, 여성은 요가(3순위, 31.5%)와 헬스(10순위, 11.1%)를 보다 많이 즐기고 있으며, 같은 관점에서 20대 사이의 젊은 층에서 축구(9순위, 25.9%)를 상대적으로 많이 즐기고 높은 연령층으로 갈수록 낚시의 참여 순위가 증가하고 있음.
- 응답자의 43.6%는 주1회 이상 생활스포츠에 참여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월 1회 이상(23.0%), 반기 1회 이상(22.1%), 연 1회(11.3%)의 순임.
- 전체적으로 1회 당 평균 88.03분가량 참여하고 있으며 세부 종목별로, 등산(148.49분), 축구(99.37분), 볼링(84.16분) 순으로 높은 반면, 줄넘기(35.22분), 배드민턴(62.90분), 걷기(64.33분) 순으로 낮음.
- 생활스포츠 주요 활동 시간대는 '저녁'(18시-21시 이전) 27.1%, '오후'(15시-18시 이전) 19.2%, '오전'(09시-12시 이전) 18.4% 등 주로 주간-저녁 시간대에 이루어지고 있음.

2 부상 발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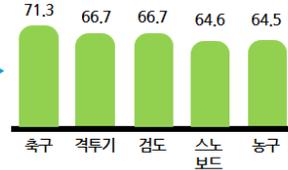
생활 스포츠 인구 2명 중 1명 이상 부상 경험

가장 부상률이 높은 종목은 축구, 다음으로 격투기→검도→스노보드 순

» 부상 경험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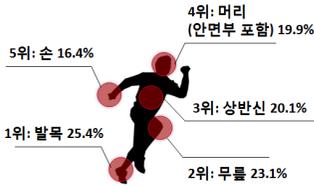


» 부상을 상위 Top5 종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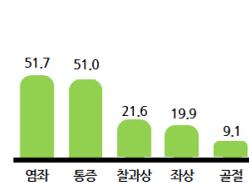


주요 부상 부위는 ‘발목’(25.4%), ‘무릎’(23.1%) 순, 주요 부상 종류는 ‘염좌’(51.7%)와 ‘통증’(51.0%) 무리한 동작을 하거나(30.7%) 미끄러져 넘어져서(30.3%) 주로 부상

» 부상 부위



» 주요 발생 부상종류 Top5



» 부상 직접적 원인



- 스포츠 활동 중 부상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전체의 절반이 넘는 57.3%의 응답자가 심한 부상부터 경미한 부상까지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종목별 부상 발생률은 축구가 71.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격투기, 검도(각 66.7%), 스노보드(64.6%), 농구(64.5%), 권투(62.7%) 등의 순임.
 - 전문체육 지도자 조사 결과 전문체육선수 부상 관련 자료의 부상 경험률은 96.6%로 생활체육 참여인구 대비 높은 부상률을 보임.
- 부상 경험자 주요 특성은 활동 빈도 기준 ‘주 1회 이상’(51.5%) 참여자, 1회당 평균 참여시간 약 90분, 종목 능숙도 ‘초급’(65.9%), 종목 경력은 전체적으로 고른 분포를 보임.
- 종합적인 부상 부위는 ‘발목’(25.4%), ‘무릎’(23.1%), ‘상반신’(20.1%), ‘머리(안면부 포함)’(19.9%), ‘손’(16.4%)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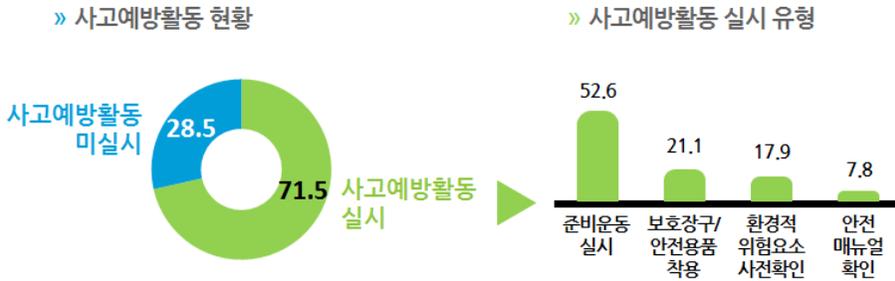
II. 주요 결과 요약

- 부상 부위는 종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
 - ‘상반신’은 골프/스크린골프(54.1%), 보디빌딩(헬스)(52.0%), 요가(48.8%) 등의 순, ‘머리(안면부 포함)’는 무도(81.3%), 게이트볼(52.0%), 항공스포츠(37.7%) 등의 순, ‘손’은 볼링(70.5%), 농구(49.8%), 인라인스케이팅(36.9%) 순, ‘손목’은 볼링(37.5%), 탁구(31.6%), 테니스(27.7%) 순으로 높게 나타나 종목별 다양한 형태의 부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부상 종류로는 ‘염좌(뺨)’가 51.7%, ‘통증’이 51.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찰과상(긁힘)’(21.6%), ‘좌상(타박상)’(19.9%) 등의 순으로 나타난 가운데, 종목별로 특징적인 부상 종류가 발견됨.
 - ‘염좌(뺨)’는 농구(87.6%), 보디빌딩(헬스)(66.8%), 등산(62.6%) 등의 순, ‘통증’은 게이트볼(96.0%), 보디빌딩(헬스)(91.0%), 요가(84.4%) 등의 순, ‘찰과상(긁힘)’은 자전거(58.2%), 인라인스케이팅(44.4%), 축구(32.4%)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 종목별 주요 부상 종류가 달리 나타나는 특징을 보임.
- 전문체육 지도자 조사 결과 전문체육선수들의 부상 부위 및 종류 역시 비율은 상이하나 전반적으로는 생활체육 참여자들과 비슷한 부상 발생 경향(부위 및 종류)을 보이고 있음.
- 부상의 원인은 ‘무리한 동작’(30.7%), ‘미끄러져 넘어짐’(30.3%), ‘사람과 충돌’(16.4%), ‘시설과 충돌’(10.1%), ‘물체에 걸려 넘어짐’(9.8%)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난 가운데, 종목별 특이점은 다음과 같음.
 - ‘무리한 동작’은 요가(86.7%), 골프/스크린골프(78.1%), 보디빌딩(헬스)(68.9%) 순, ‘미끄러져 넘어짐’은 등산(61.8%), 인라인스케이팅(58.1%), 스키/스노보드(54.5%) 순, ‘사람과 충돌’은 축구(55.0%), 무도(37.5%), 농구(37.0%) 순으로 나타남.
- 보통 이상 부상비율, 연간 부상 횟수, 개인부담 치료비, 3주 이상 가료비율을 모두 종합한 위험수준을 종목별로 살펴보면, 축구, 자전거, 무도, 농구, 항공스포츠가 상대적으로 위험한 종목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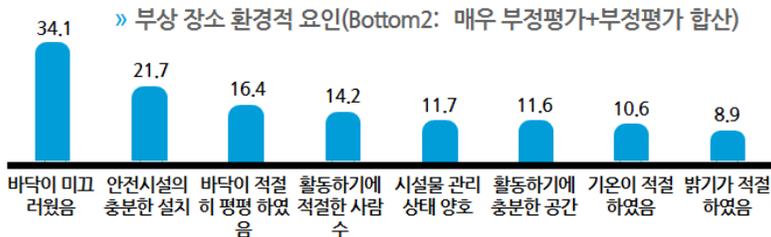
3 부상 발생 환경

전체적으로 부상경험자들의 사고예방활동은 미흡

부상경험자의 28.5%는 부상 전 아무런 사고예방활동을 실시하지 않음
 실시한 응답자 중에서도 '준비운동'(52.6%)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20% 내외의 실시율



여러 환경적 요인 중 가장 문제는 '미끄러운 바닥'(34.1%)과 '충분치 않은 안전시설'(21.7%), '평평하지 않은 바닥'(16.4%) 순



※ 5점 척도로 응답된 결과 중 [1] 매우 부정평가와 [2] 부정평가의 합산 비율을 제시함
 ※ '미끄러운 바닥'은 역척도 문항이므로 Bottom2는 [4]부정평가와 [5]매우 부정평가의 합산 비율임

◎ 부상발생 이전 상황 : 예방활동 측면

- 대부분의 사고예방활동 실시비율에서 종목별 편차가 크지 않을뿐더러 가장 높았던 '준비운동'(52.6%)을 제외하면 모두 20% 내외에 그쳐 전반적으로는 준비운동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고예방활동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보호장구 및 안전용품을 착용한 경우 착용한 장비의 전반적 상태는 '양호'(39.6%)함.
 - 환경적 위험요소 확인자의 28.4%만이 성실히 확인할 뿐 나머지는 불성실하거나 형식적 확인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남.

II. 주요 결과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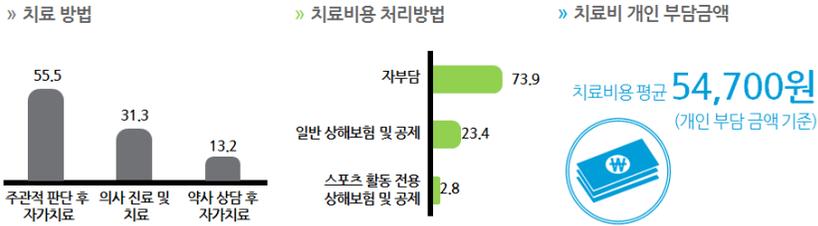
- 준비운동 실시자는 ‘유연성’(52.5%), ‘근력’(43.1%), ‘심폐지구력’(40.0%) 등 다양한 준비운동을 실시(5점 척도 중 [4]그렇다, [5]매우 그렇다의 합산비율 기준)하고 있음.
- 확인한 안전매뉴얼의 경우 전반적으로 ‘부상 방지에 도움이 되었다’(41.4%)고 평가됨.
- 부상 전 신체상태가 ‘양호’했다는 응답이 33.1%(매우 좋았다 2.8%+좋은 편 30.2%)로, ‘비양호’했다는 응답(10.6%: 전혀 좋지 않음 1.0%+좋지 않은 편 9.6%)에 비해 3배 이상 높았으나 종합적으로는 10명 중 3명만이 신체상태가 양호한 상태에서 운동에 참여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음.

◎ 부상 당시 상황 : 환경적 요인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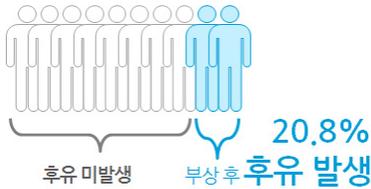
- 부상 장소에 안전 안내문구 및 책자 비치여부에 대해, ‘안내문구 및 책자가 비치되었다’는 응답은 20.1%이며 비치된 경우 57.2%는 이를 확인한 것으로 나타남.
 - 안전 안내문구 및 책자 비치여부를 종목별로 살펴보면, ‘비치되었다’는 응답은 항공스포츠(46.4%), 스키/스노보드(41.2%), 아이스스케이팅(40.3%) 순, 비치된 자료를 ‘확인했다’는 응답은 게이트볼(87.5%), 무도(71.1%), 승마(70.0%) 순으로 높게 나타남.
- 부상 장소의 환경적 요인을 종합한 결과, ‘바닥이 미끄러웠음’이라는 평가가 34.1%로 가장 높음.
- 다음으로 ‘안전시설의 충분한 설치’에 대한 부정적 평가(21.7%), ‘바닥이 적절히 평평하였음’에 대한 부정적 평가(16.4%) 등의 순으로 조사됨.(5점 척도 중 [1]매우 부정적, [2]부정적의 합산비율 기준. 단, ‘미끄러운 바닥’은 역척도 문항이므로 Bottom2는 [4]부정평가와 [5]매우 부정평가의 합산 비율).
 - 종목별로 살펴보면, ‘미끄러운 바닥’은 스키/스노보드(57.9%), 아이스스케이팅(51.8%), 수영(46.6%) 순, ‘안전시설의 충분한 설치’의 부정적 평가는 자전거(35.0%), 인라인스케이팅(30.6%), 농구(29.7%) 순, ‘바닥이 적절히 평평함’의 부정적 평가는 등산(43.9%), 자전거(26.2%), 스키/스노보드(21.4%) 순으로 부정 응답이 높게 나타남.
- 부상 당시 지도자 또는 숙련자가 배석했는지에 대해, ‘전문 체육 지도자 배석’은 15.6%, ‘숙련자 배석’은 37.7%로, 응답자의 53.3%는 전문 체육 지도자 또는 숙련자가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됨.
 - 배석한 지도자 또는 숙련자가 교육을 실시했다는 응답은 58.0%였으며, 종목별로는 볼링(86.4%), 탁구(74.3%), 농구(72.5%) 순임,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항공스포츠(97.0%), 승마(77.3%), 무도(66.7%) 순으로 높게 나타남.

4 부상 후 대처 및 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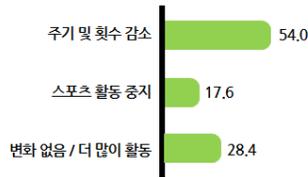
발생된 부상 절반가량(56%)은 주관적 판단 후 자가치료
 10명 중 7명 이상(73.9%)은 치료비용을 자부담 처리
 개인 부담금액 기준, 1인 1건당 치료 소요비용은 평균 54,700원



부상 경험자 10명 중
 약 2명가량(20.8%)이
 부상으로 인해 후유증 발생



10명 중 7명 정도는 부상 이후
 스포츠 활동을 줄이거나(54.0%)
 중지(17.6%)함



- 실시한 응급대처를 부상 종류별로 살펴보면, ‘냉찜질’이라는 응답은 ‘파열’(38.6%), ‘염좌’(37.3%), ‘좌상’(33.0%) 순, ‘압박’이라는 응답은 ‘탈구’(24.8%), ‘골절’(24.6%), ‘파열’(22.3%) 순으로 높게 나타는 등 전반적으로 부상 종류에 적절한 응급 대처를 실시하고 있음.
- 발생한 부상은 ‘주관적 판단 후 자가치료’한 비율이 55.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의사 진료 및 치료’(31.3%), ‘약사 상담 후 자가치료’(13.2%)의 순이며, 부상 경험자 10명 중 7명 이상(73.9%)은 치료 비용을 자부담하고, 치료비용 개인 부담금액은 평균 54,700원임.
 - 치료비용 개인 부담금액을 종목별로 살펴보면, 항공스포츠(98,021원), 승마(83,856원), 보디빌딩(헬스)(77,105원) 순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볼링(24,680원), 요가(36,805원), 탁구(36,917원) 순으로 낮게 나타남.
 - 가료기간이 길수록 부담금액이 높게 나타남.

- 부상 경험자 10명 중 약 2명가량(20.8%)이 부상으로 인해 후유증이 발생함.
- 부상 경험자 10명 중 5명 이상(54.0%)은 부상 후 활동 주기 및 횟수가 감소하였고, 이의 주된 이유는 ‘신체적 불편함’(53.3%)때문이며 다음으로 ‘심리적 두려움’(30.9%), ‘가족 또는 지인의 반대’(12.0%) 등의 순임.

5 스포츠 안전의식

스포츠 안전수칙 인지
2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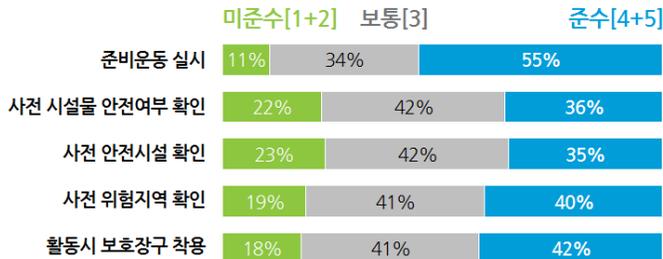
» 스포츠 안전수칙
인지도

» 스포츠 안전수칙 준수정도

대부분 안전수칙
준수를 우선



세부 안전수칙 중 준비운동을 가장 충실히 수행하며 다음으로 보호장구 착용 → 위험지역 확인 → 시설물 안전확인 → 안전시설 확인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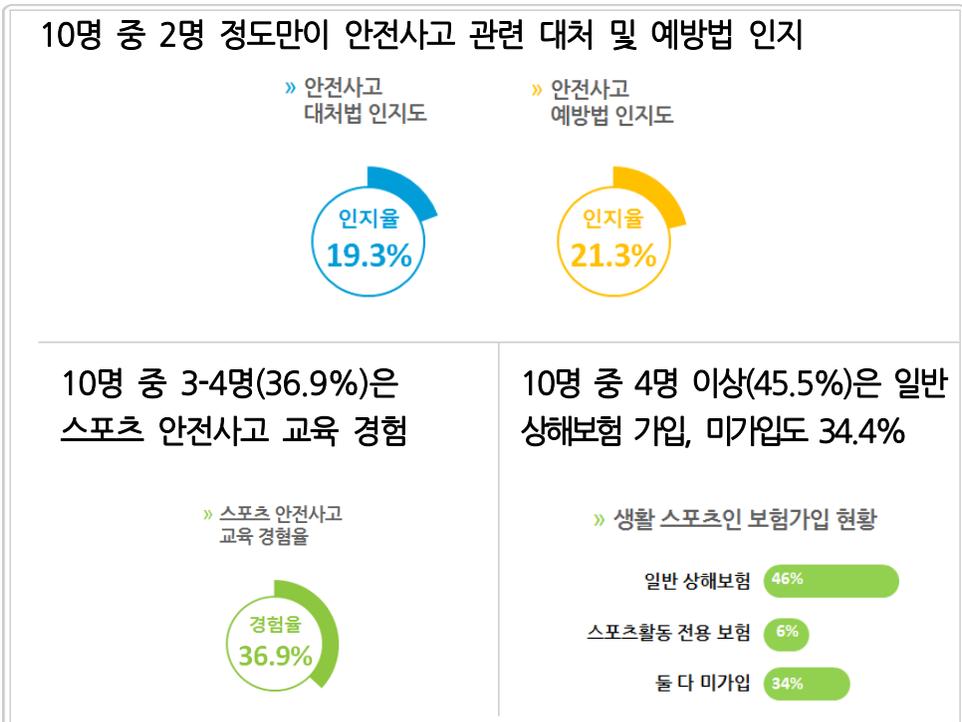
※ 5점 척도로 구성된 문항의 응답 결과임

◎ 안전 인식

- 스포츠 안전수칙을 ‘인지’하고 있다는 응답은 25.7%(매우 잘 알고 있음 2.0%+대체로 아는 편 23.7%)이며 10명 중 4명(41.8%)은 ‘같이 운동하는 사람’으로부터 안전수칙을 알게 되었다고 응답함.
- 전문 체육지도자 전원은 안전수칙을 인지(매우 잘 알고 있음 39.5%+대체로 아는 편 50.4%+보통 10.1%)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10명 중 8명 이상(84.9%)은 ‘교육’을 통해 안전수칙을 인지함.

스포츠 안전사고 실태조사 -종합편

- 부상 경험자 10명 중 6명 이상(63.7%: 안전 최우선 22.1%+어느 정도 안전 우선 41.6%)은 운동을 할 때 ‘안전 수칙 준수’를 우선 시하며 세부적으로는 ‘준비 운동을 실시한다’는 응답이 55.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활동 시 보호장구 착용’(41.6%), ‘사전에 위험지역 확인’(40.3%) 등의 순으로 조사됨. (이상 세부안전수칙 준수 비율은 5점 척도 중 [4]그렇다, [5]매우 그렇다의 합산비율 기준임)
 - 시설물 안전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이유는 ‘확인하기 귀찮아서’(35.4%), ‘확인방법을 몰라서’(28.0%), ‘시설물이 중요하지 않은 스포츠라서’(20.8%) 등의 순임.
 - 안전시설을 확인하지 않은 이유는 ‘확인하기 귀찮아서’(32.5%), ‘확인 방법을 몰라서’(29.0%), ‘안전시설 설치여부가 중요하지 않은 스포츠라서’(23.4%) 순임.
 - 위험지역을 확인하지 않은 이유는 ‘확인하기 귀찮아서’(28.8%), ‘확인 방법을 몰라서’(26.1%), ‘위험지역이라고 할만한 곳이 없기 때문에’(23.0%) 순임.
- 보호장구를 구매하기 위한 지출의향 및 지출수준에 대해서는 단지 3.0%만이 지출의향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1인 평균 연간 지출의향(또는 현재 지출금액)은 약 25만원 선임.



II. 주요 결과 요약

- 부상 경험자의 34.4%(전혀 모름 2.6%+잘 모르는 편 31.8%)가 운동을 하던 중 안전 사고가 발생했을 시 대처방법을 ‘미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예방법 역시 ‘미인지’ 비율이 30.7%(전혀 모름 2.4%+잘 모르는 편 28.3%)에 달함.
 - 인지율은 대처법 19.3%(매우 잘 앎 1.3%+대체로 아는 편 18.0%), 예방법 21.3%(매우 잘 앎 1.3%+대체로 아는 편 20.0%)임.
- 응급처치 요령 인지도는 ‘심폐소생술 실시요령’(35.7%), ‘골절 및 염좌 발생 시 대처요령’(29.1%), ‘저체온증 발생 시 대처요령’(27.8%) 순임(5점 척도 중 [4]어느 정도 알고 있음, [5]매우 잘 알고 있음의 합산비율 기준).
 - 전문 체육지도자 조사 결과 전체적인 각 요령별 인지도 경향은 생활스포츠인 조사와 유사하나 절대적인 인지율은 생활스포츠인 대비 매우 높은 수준임(생활스포츠인 조사 최저 15.0%~최고 35.7%, 전문 체육지도자 조사 최저 37.8%~최고 88.2%).
- 응급처치 요령 습득경로는 ‘인터넷’(37.1%), ‘TV’(31.1%), ‘전문기관 교육 외 스포츠 전문가의 설명’(22.0%), ‘응급처치 관련 전문기관 교육’(18.5%) 등의 순임.
 - 전문 체육지도자의 습득경로는 ‘응급 처치 관련 전문 기관’이 69.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전문기관 교육 외 스포츠 전문가의 설명’(47.9%) 등, 대부분 전문적인 기관이나 전문가를 통해 응급처치를 습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생활체육인과 차이를 보임.
- 스포츠 안전사고에 대비한 ‘교육을 경험’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36.9%, 교육을 받은 기관으로는 ‘국가 및 공공기관’(34.8%), ‘대학교’(28.9%), ‘동호회/팀’(26.0%) 등의 순임.
- 스포츠 안전사고에 대비 교육을 받지 않은 이유는 ‘스포츠활동 중 부상을 대비한 안전교육이 있는지 몰라서’(40.5%), ‘교육을 받고 싶었으나 어느 기관에서 교육하는지 몰라서’(31.7%), ‘교육을 필요성을 못 느껴서’(27.2%) 등의 순임.
- 스포츠 안전사고에 대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68.3%로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 (6.3%)에 비해 현저히 높음.
- 일반 상해보험 및 공제 가입률이 45.5%, 스포츠 활동 전용 보험 및 공제 가입률은 6.0%에 불과하며 둘 다 미가입 상태인 응답자 비율도 34.4%에 달함.
 - 전문 체육지도자 조사 결과 학교 또는 팀 단위 스포츠 활동의 경우 10명(팀, 단체) 중 6명가량(59.7%)은 학교안전 공제중앙회 공제 및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남.
- 스포츠 상해보험 및 공제서비스 미가입 이유를 살펴보면, ‘활동을 자주 하지 않아서’(24.3%), ‘다른 보험이 있어서’(21.2%), ‘다칠 위험이 적은 스포츠라서’ 및 ‘스포츠 활동 전용 보험 및 공제가 있는지 몰랐음’(각 19.1%) 등의 순으로 조사됨.
- 스포츠 상해보험 및 공제서비스 필요성에 대해, ‘필요하다’는 응답은 33.8%(매우 필요 3.9%+대체로 필요 29.9%)로 ‘불필요하다’는 의견(25.3%:전혀 필요치 않음 3.9%+별로 필요치 않음 21.4%) 대비 높음.

Ⅲ. 조사 결과



스포츠안전재단
KOREA SPORTS SAFETY FOUNDATION

Ⅲ. 조사 결과

제1절 생활스포츠 참여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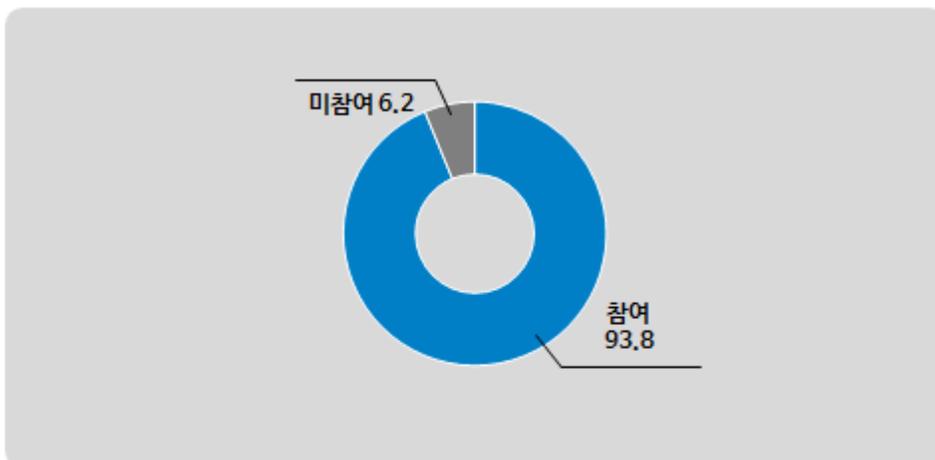
1 생활스포츠 참여율

1) 생활스포츠 참여 현황

- ▶ 최근 1년간 스포츠활동을 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전체의 93.8%가 활동경험이 있다고 응답함.

■ 그림 Ⅲ-1 ■ 생활스포츠 참여율

(단위: %)



※ 기초조사 전체 응답자, n=3,031

※ 본 조사는 '부상의 원인 및 실태'를 조사하는 것이 주 목적이므로 본 조사에서의 스포츠 참여율은 포괄 범위를 넓혀, '연 1회 이상 어떠한 형태로든(비정기 포함)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경우'를 기준으로 하였음

스포츠 안전사고 실태조사 -종합편

- 연령별로 60대 이상에서는 86.9%가 활동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연령일수록 활동경험이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됨.
- 학력이 높을수록 활동경험이 있다는 응답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됨.
- 특히 농/임/어업 직업군에서는 운동경험이 있다는 응답률(72.7%)이 다른 직업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됨.

【 표 III-1 】 응답자 특성별 생활스포츠 참여율

(단위: %)

구 분		사례수	참여	미참여	계
전 체		3,031	93.8	6.2	100.0
성별	남성	1,514	94.6	5.4	100.0
	여성	1,517	93.0	7.0	100.0
연령	20대	557	96.4	3.6	100.0
	30대	559	96.1	3.9	100.0
	40대	608	96.4	3.6	100.0
	50대	637	94.5	5.5	100.0
	60~64세	287	87.8	12.2	100.0
	65세 이상	383	86.2	13.8	100.0
학력별	중졸 이하	462	81.4	18.6	100.0
	고졸	784	94.0	6.0	100.0
	대재 이상	1,785	97.0	3.0	100.0
직업별	농/임/어업	77	72.7	27.3	100.0
	자영업	329	92.1	7.9	100.0
	화이트칼라	796	98.1	1.9	100.0
	블루칼라	650	94.0	6.0	100.0
	전업주부	591	91.4	8.6	100.0
	학생	217	95.9	4.1	100.0
	무직/기타	369	93.0	7.0	100.0
	모름/무응답	2	100.0	0.0	100.0

※ 기초조사 전체 응답자, n=3,0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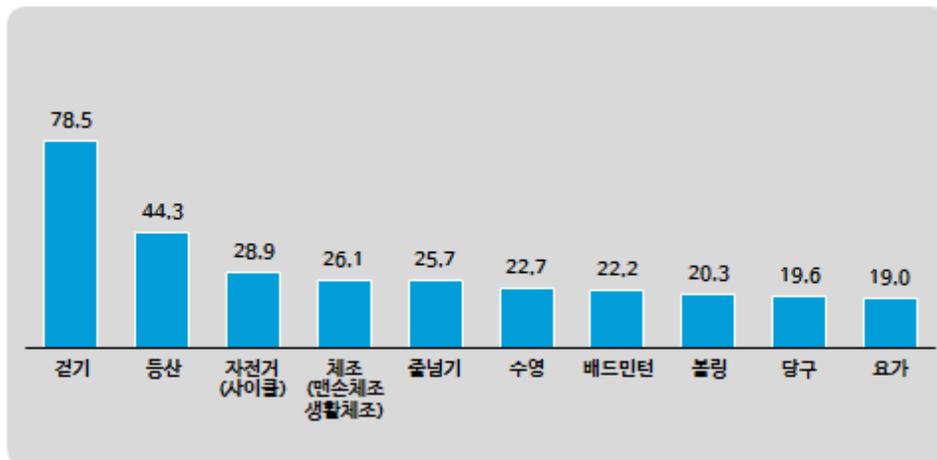
※ 개별 사례수 20표본 이하 결과는 해석 시 주의를 요함

2) 주요 참여 종목

- ▶ 최근 1년간 스포츠활동 경험이 있는 종목은 걷기(78.5%), 등산(44.3%), 자전거(28.9%), 체조(26.1%), 줄넘기(25.7%), 수영(22.7%), 배드민턴(22.2%), 볼링(20.3%), 당구(19.6%), 요가(19.0%)순으로 나타남.

■ 그림 Ⅲ-2 ■ 생활스포츠 주요 참여 종목

(단위: %)



※ 기초조사 전체 응답자, n=3,031

※ 전체 참여율 상위 10개 종목만 제시함

- 성별로는 남성이 전체적인 참여 종목에 비해서 체조보다는 축구(5순위, 27.4%)를 상대적으로 많이 했던 것으로 조사되었고, 여성은 요가(3순위, 31.5%)와 헬스(10순위, 11.1%)를 했던 것으로 조사됨.

스포츠 안전사고 실태조사 -종합편

Ⅰ 표 Ⅲ-2 Ⅰ 성별 생활스포츠 참여율

(단위: %)

순위	남성(n=1,514)		여성(n=1,517)	
	종목	참여율	종목	참여율
1	걷기	76.6	걷기	80.3
2	등산	49.4	등산	39.2
3	자전거	33.9	요가	31.5
4	당구	32.3	체조	31.0
5	축구	27.4	출넘기	29.3
6	족구	26.0	자전거	23.9
7	배드민턴	23.9	수영	21.6
8	수영	23.8	배드민턴	20.4
9	볼링	22.4	볼링	18.2
10	출넘기	22.0	헬스	11.1

※ 기초조사 전체 응답자, n=3,031

- 연령별로는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20대사이의 젊은층에서 축구(9순위, 25.9%)를 상대적으로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나며, 높은 연령층에서 낚시의 참여 순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Ⅰ 표 Ⅲ-3 Ⅰ 연령별 생활스포츠 참여율

(단위: %)

순위	20대 (n=557)		30대 (n=559)		40대 (n=608)		50대 (n=637)		60-64세 (n=287)		65세 이상 (n=383)	
	종목	참여율	종목	참여율	종목	참여율	종목	참여율	종목	참여율	종목	참여율
1	걷기	84.7	걷기	84.3	걷기	84.2	걷기	82.1	걷기	54.7	걷기	63.4
2	등산	38.8	등산	45.4	등산	55.6	등산	59.2	등산	32.1	등산	17.2
3	자전거	38.2	자전거	36.7	자전거	34.7	체조	31.7	자전거	9.8	체조	11.0
4	볼링	35.5	출넘기	34.9	출넘기	33.2	자전거	30.8	수영	8.0	자전거	6.3
5	출넘기	34.1	체조	33.3	체조	30.8	출넘기	28.3	낚시	6.6	수영	4.2
6	당구	31.2	볼링	32.6	배드민턴	30.8	수영	23.9	헬스	5.9	낚시	4.2
7	배드민턴	31.1	수영	32.6	수영	28.9	배드민턴	22.3	에어로빅	4.9	헬스	3.1
8	체조	29.3	배드민턴	29.5	당구	23.4	요가	22.1	체조	3.8	탁구	2.9
9	축구	25.9	당구	26.5	요가	22.2	당구	19.5	요가	3.1	요가	1.3
10	요가	25.1	요가	25.9	볼링	21.5	낚시	17.4	축구	2.4	출넘기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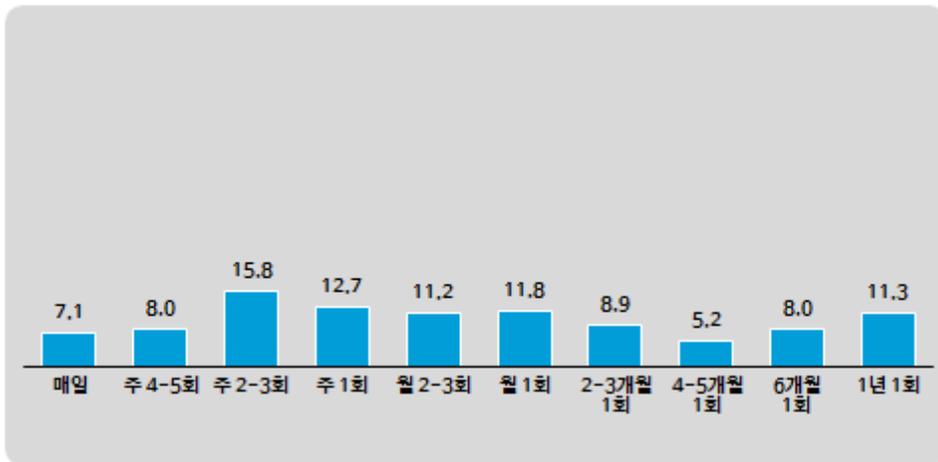
※ 기초조사 전체 응답자, n=3,031

2 생활스포츠 활동 빈도

- ▶ 생활스포츠 활동빈도는 ‘주2-3회’라는 응답이 15.8%로 가장 높았고, ‘주1회’(12.7%), ‘월1회’(11.8%), ‘월2-3회’(11.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 응답자의 43.6%는 주1회 이상 생활스포츠에 참여하고 있음.

【그림 Ⅲ-3】 생활스포츠 활동빈도

(단위: %, 복수응답)



※ 기초조사 생활스포츠 참여자, n=2,844

스포츠 안전사고 실태조사 -종합편

- ‘매일’ 활동한다는 응답은 걷기(26.9%)에서, ‘주4-5회’ 활동한다는 응답은 보디빌딩(헬스)(24.0%), 걷기(16.4%)에서, ‘주2-3회’ 활동한다는 응답은 보디빌딩(헬스)(42.4%), 걷기(25.2%), 줄넘기(19.8%), 자전거(사이클)(19.2%)에서, ‘주1회’ 활동한다는 응답은 축구(20.9%), 줄넘기(18.3%), 자전거(사이클)(16.9%)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Ⅲ 표 Ⅲ-4 Ⅲ 종목별 활동 빈도

(단위: %)

구 분	사례수	매일	주 4-5회	주 2-3회	주1회	월 2-3회	월1회	2-3개월 1회	4-5개월 1회	6개월 1회	1년 1회
전 체	15,643	7.1	8.0	15.8	12.7	11.2	11.8	8.9	5.2	8.0	11.3
걷기	2,378	26.9	16.4	25.2	13.4	6.4	4.4	2.1	1.3	1.5	2.4
등산	1,343	2.2	4.3	9.5	13.6	16.8	18.5	14.1	6.7	7.7	6.6
자전거(사이클)	877	4.1	8.0	19.2	16.9	14.7	14.5	7.2	3.2	6.4	5.9
체조(맨손, 생활)	791	17.8	18.1	27.2	14.9	6.6	5.1	2.4	1.0	2.4	4.6
줄넘기	778	5.0	8.4	19.8	18.3	13.5	9.5	5.4	3.6	7.3	9.3
수영	688	3.5	7.7	17.3	10.8	9.9	9.4	10.6	6.5	11.9	12.4
배드민턴	672	2.2	3.6	11.2	14.1	18.5	18.6	11.3	6.0	8.0	6.5
볼링	615	0.3	1.1	2.6	7.5	11.2	15.6	21.3	13.7	14.3	12.4
당구	595	1.0	2.5	9.4	12.8	19.5	17.3	15.5	6.2	9.2	6.6
요가	575	5.0	9.4	32.9	17.9	7.3	8.7	4.9	1.9	4.0	8.0

※ 기초조사 생활스포츠 참여자, n=2,844

※ 사례수는 종목별 참여 응답자 수(복수응답) 기준으로 제시함

※ 전체 참여율 상위 10개 종목만 제시함

III. 조사 결과

- ‘매일’, ‘주4-5회’ 활동한다는 응답은 60세 이상(60-64세 : 14.6%, 65세 이상 27.4%)에서,
 ‘주2-3회’ 활동한다는 응답은 여성(18.9%), 연령이 높을수록(65세 이상 : 25.4%),
 ‘주1회’ 활동한다는 응답은 60-64세(15.1%)에서,
 ‘1년 1회’ 활동한다는 응답은 연령이 낮을수록(20대 : 16.0%)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 이외 응답은 응답자 특성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

▣ 표 III-5 ▣ 응답자 특성별 생활스포츠 활동빈도

(단위: %)

구 분		사례수	매일	주 4-5회	주 2-3회	주1회	월 2-3회	월1회	2-3개월 1회	4-5개월 1회	6개월 1회	1년 1회
전 체		15,643	7.1	8.0	15.8	12.7	11.2	11.8	8.9	5.2	8.0	11.3
성별	남성	9,108	6.4	7.0	13.5	12.9	12.6	13.8	10.2	5.3	8.3	10.0
	여성	6,535	8.0	9.3	18.9	12.3	9.4	9.1	7.2	5.0	7.6	13.2
연령	20대	3,628	7.2	7.8	13.5	9.5	10.8	9.4	9.5	6.7	9.6	16.0
	30대	3,790	5.3	5.8	13.9	12.0	11.2	13.3	10.2	6.7	10.0	11.8
	40대	3,785	6.0	6.7	15.7	14.4	11.9	12.7	9.7	5.0	7.4	10.6
	50대	3,526	6.1	9.5	18.1	14.6	12.0	12.8	7.7	3.0	6.6	9.6
	60-64세	418	14.6	18.2	21.8	15.1	10.0	9.8	4.1	3.6	1.9	1.0
	65세 이상	496	27.4	16.3	25.4	11.7	6.3	6.3	2.8	1.0	2.0	0.8

※ 기초조사 생활스포츠 참여자, n=2,8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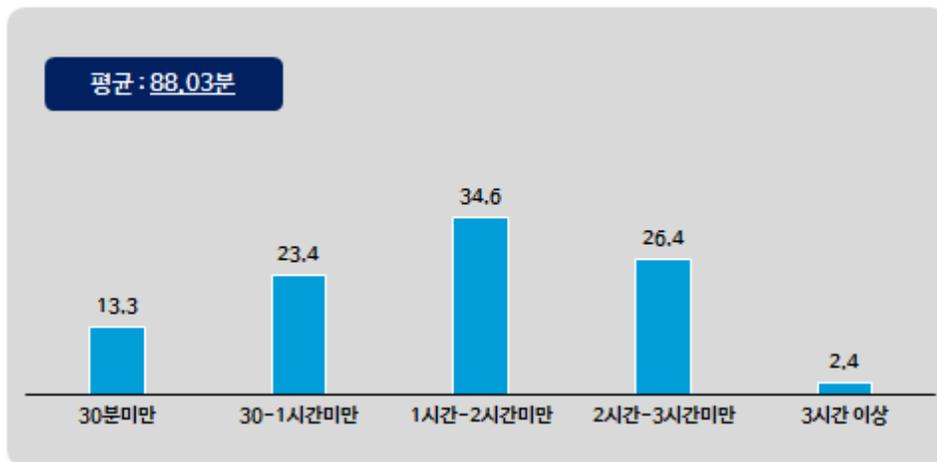
※ 사례수는 종목별 참여 응답자 수(복수응답) 기준으로 제시함

3 생활스포츠 1회 평균 활동시간

- ▶ 생활스포츠 1회 평균 활동시간은 ‘1-2시간 미만’(34.6%), ‘2-3시간 미만’(26.4%), ‘30분-1시간 미만’(23.4%)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 1회 평균 활동시간은 88.03분임.

■ 그림 III-4 ■ 생활스포츠 1회 평균 활동시간

(단위: %, 분)



※ 기초조사 생활스포츠 참여자, n=2,844

Ⅲ. 조사 결과

- 종목별로 살펴보면, 1회 평균 활동시간이 ‘30분 미만’이라는 응답은 줄넘기(43.3%)에서, ‘30분-1시간 미만’이라는 응답은 줄넘기(41.3%), 요가(40.2%), 걷기(36.9%), 배드민턴(34.7%)에서, ‘1-2시간 미만’이라는 응답은 당구(57.0%), 볼링(53.7%), 수영(50.9%), 배드민턴(42.6%), 걷기(38.4%)에서, ‘2-3시간 미만’이라는 응답은 등산(63.5%), 볼링(30.2%), 당구(28.2%)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평균 활동시간은 등산(148.49분), 당구(86.29분), 볼링(84.16분) 순으로 높음.

Ⅱ 표 Ⅲ-6 Ⅱ 종목별 1회 평균 활동시간

(단위: %, 분)

구 분	사례수	30분 미만	30-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미만	2시간-3시간 미만	3시간 이상	계	평균(분)
전 체	15,643	13.3	23.4	34.6	26.4	2.4	100.0	88.03
걷기	2,378	12.0	36.9	38.4	11.2	1.4	100.0	64.33
등산	1,343	7.4	5.4	19.4	63.5	4.3	100.0	148.49
자전거(사이클)	877	11.1	27.8	36.4	23.8	0.9	100.0	76.65
체조(맨손, 생활)	791	57.3	27.8	12.0	2.4	0.5	100.0	31.91
줄넘기	778	43.3	41.3	12.3	2.4	0.6	100.0	35.22
수영	688	4.7	24.3	50.9	19.0	1.2	100.0	76.40
배드민턴	672	8.0	34.7	42.6	14.6	0.1	100.0	62.90
볼링	615	4.6	11.2	53.7	30.2	0.3	100.0	84.16
당구	595	3.4	10.3	57.0	28.2	1.2	100.0	86.29
요가	575	15.7	40.2	39.5	4.3	0.3	100.0	51.75

※ 기초조사 생활스포츠 참여자, n=2,844

※ 사례수는 종목별 참여 응답자 수(복수응답) 기준으로 제시함

※ 전체 참여율 상위 10개 종목만 제시함

스포츠 안전사고 실태조사 -종합편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30분 미만’이라는 응답은 여성(17.3%)에서,
 ‘30분-1시간 미만’이라는 응답은 65세 이상(33.3%)에서,
 ‘1-2시간 미만’이라는 응답은 60세 이상(60-64세 : 40.9%, 65세 이상 : 40.3%), 20대(36.3%)에서,
 ‘2-3시간 미만’이라는 응답은 남성(31.0%)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1회 평균 활동시간은 남성(98.17분)이 여성(73.89분)보다 높고 연령별로는 60-64세(98.31분), 50대(92.65분), 30대(90.73분)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표 III-7 】 응답자 특성별 생활스포츠 1회 평균 활동시간

(단위: %, 분)

구 분		사례수	30분 미만	30-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미만	2시간-3시간 미만	3시간 이상	계	평균 (분)
전 체		15,643	13.3	23.4	34.6	26.4	2.4	100.0	88.03
성별	남성	9,108	10.5	19.9	35.7	31.0	2.9	100.0	98.17
	여성	6,535	17.3	28.2	32.9	20.0	1.6	100.0	73.89
연령	20대	3,628	14.3	22.1	36.3	25.1	2.2	100.0	84.33
	30대	3,790	12.0	24.0	33.3	28.4	2.4	100.0	90.73
	40대	3,785	14.7	24.6	33.9	24.4	2.3	100.0	84.87
	50대	3,526	14.1	21.4	33.3	28.8	2.4	100.0	92.65
	60-64세	418	5.7	21.8	40.9	28.5	3.1	100.0	98.31
	65세 이상	496	6.7	33.3	40.3	17.5	2.2	100.0	77.05

※ 기초조사 생활스포츠 참여자, n=2,8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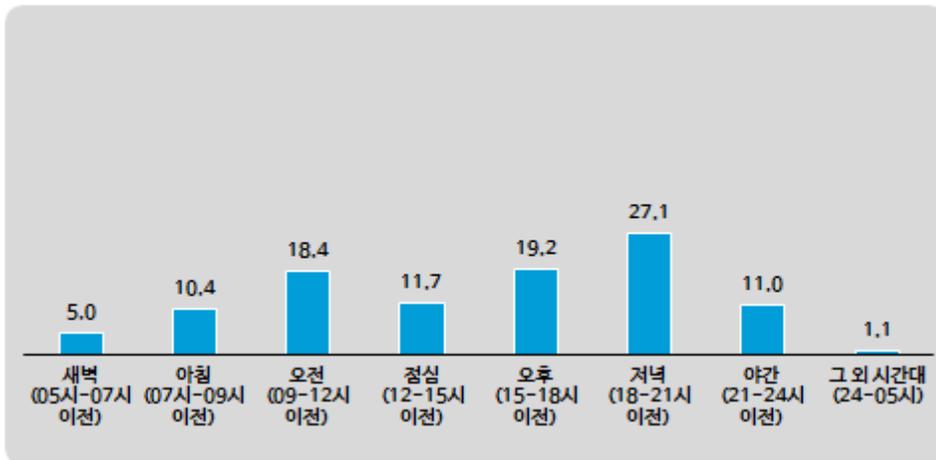
※ 사례수는 종목별 참여 응답자 수(복수응답) 기준으로 제시함

4 생활스포츠 주 활동 시간대

- ▶ 생활스포츠 주요 활동 시간대는 ‘저녁’(18시-21시 이전) 27.1%, ‘오후’(15시-18시 이전) 19.2%, ‘오전’(09시-12시 이전) 18.4%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그림 Ⅲ-5 ■ 생활스포츠 주 활동 시간대

(단위: %, 복수응답)



※ 기초조사 생활스포츠 참여자, n=2,844

※ 복수응답(활동하는 시간대 모두 체크)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합이 100%가 되도록 보정하여 제시함

스포츠 안전사고 실태조사 -종합편

- 종목별로 살펴보면, ‘저녁’(18시-21시 이전) 시간대는 볼링(49.8%), 보디빌딩(헬스)(47.1%), 줄넘기(46.0%), 배드민턴(42.7%), 농구(37.5%), 걷기(32.2%)에서, ‘오후’(15시-18시 이전) 시간대는 족구(38.0%), 축구(28.1%), 농구(26.6%), 자전거(사이클)(25.5%), 배드민턴(20.1%)에서, ‘오전’(09시-12시 이전) 시간대는 등산(51.8%)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표 Ⅲ-8 ▣ 종목별 주 활동 시간대

(단위: %)

구 분	사례수	새벽 05-07시 이전	아침 07-09시 이전	오전 09-12시 이전	점심 12-15시 이전	오후 15-18시 이전	저녁 18-21시 이전	야간 21-24시 이전	그 외 시간대 24-05시
전 체	15,643	5.0	10.4	18.4	11.7	19.2	27.1	11.0	1.1
걷기	2,378	6.0	13.0	18.0	9.1	14.3	32.2	10.3	0.9
등산	1,343	4.0	13.4	51.8	14.1	10.9	6.9	2.1	1.3
자전거(사이클)	877	4.2	9.7	17.2	12.3	25.5	23.9	8.0	1.1
축구	449	9.7	30.6	16.3	6.7	9.4	19.8	14.3	1.3
배드민턴	672	5.5	9.1	7.7	4.5	10.0	46.0	20.1	0.6
볼링	615	15.0	13.5	19.0	12.2	20.8	17.2	2.3	0.0
보디빌딩(헬스)	420	2.7	6.3	8.9	10.4	20.1	42.7	9.8	0.3
줄넘기	778	0.2	0.5	2.6	2.8	17.9	49.8	26.0	0.3
농구	256	1.3	1.0	2.7	3.2	10.9	46.7	36.0	1.5
족구	418	3.8	10.3	20.3	4.9	8.7	38.1	15.0	0.2

※ 기초조사 생활스포츠 참여자, n=2,844

※ 사례수는 종목별 참여 응답자 수(복수응답) 기준으로 제시함

※ 전체 참여율 상위 10개 종목만 제시함

Ⅲ. 조사 결과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저녁’(18시-21시 이전) 시간대는 연령이 낮을수록(20대 : 31.5%), ‘오후’(15시-18시 이전) 시간대는 특성별 차이가 없었고, ‘오전’(09시-12시 이전) 시간대는 여성(21.5%), 연령이 높을수록(65세 이상 : 33.9%)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표 Ⅲ-9 】 응답자 특성별 생활스포츠 주 활동 시간대

(단위: %)

구 분		사례수	새벽 05-07 시 이전	아침 07-09 시 이전	오전 09-12 시 이전	점심 12-15 시 이전	오후 15-18 시 이전	저녁 18-21 시 이전	야간 21-24 시 이전	그 외 시간대 24-05 시
전 체		15,643	5.0	10.4	18.4	11.7	19.2	27.1	11.0	1.1
성별	남성	9,108	5.8	11.4	16.2	11.8	20.2	26.4	11.2	1.3
	여성	6,535	4.0	9.1	21.5	11.6	17.7	28.0	10.8	0.9
연령	20대	3,628	3.3	8.5	12.7	12.8	20.7	31.5	14.3	1.4
	30대	3,790	3.9	9.2	16.7	11.4	18.9	27.1	14.3	1.1
	40대	3,785	5.2	9.9	19.3	10.4	19.8	28.1	10.4	1.2
	50대	3,526	6.9	11.7	21.6	11.8	18.6	25.6	7.2	1.1
	60-64세	418	11.2	21.1	30.6	10.5	11.0	13.4	2.6	0.0
	65세 이상	496	6.7	19.6	33.9	16.5	16.3	8.3	1.4	0.0

※ 기초조사 생활스포츠 참여자, n=2,844

※ 사례수는 종목별 참여 응답자 수(복수응답) 기준으로 제시함

제2절 스포츠 안전사고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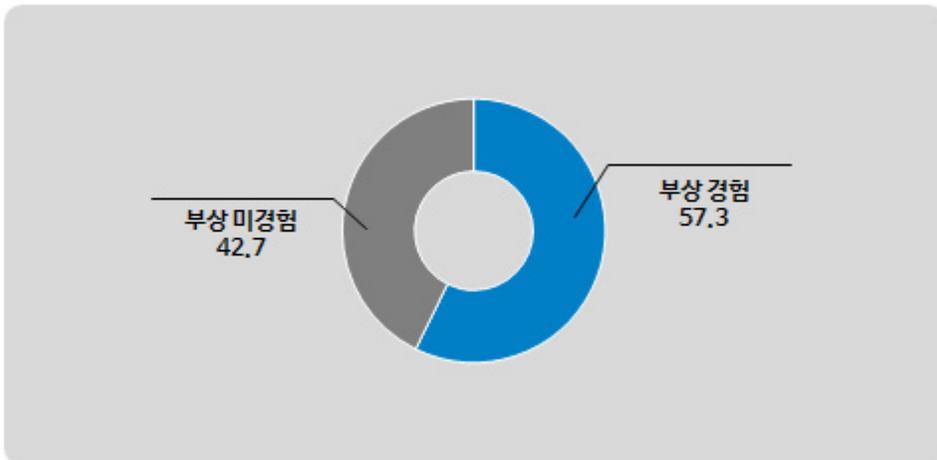
1 부상 발생 현황

1) 부상 발생률

- ▶ 스포츠 활동 중 부상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전체의 절반이 넘는 57.3%의 응답자가 심한 부상부터 경미한 부상까지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함.

■ 그림 Ⅲ-6 ■ 부상 발생률

(단위: %)



※ 기초조사 생활스포츠 참여자, n=2,844

※ 부상의 기준 : 심각한 수준(병원진료, 입원, 수술 등이 수반되는 수준)부터 아주 경미한 수준(부상 후 바로 스포츠활동 참여가 가능한 수준, 별도 조치 없이 자연치유되는 수준)까지 모두 포함한 포괄적 의미의 부상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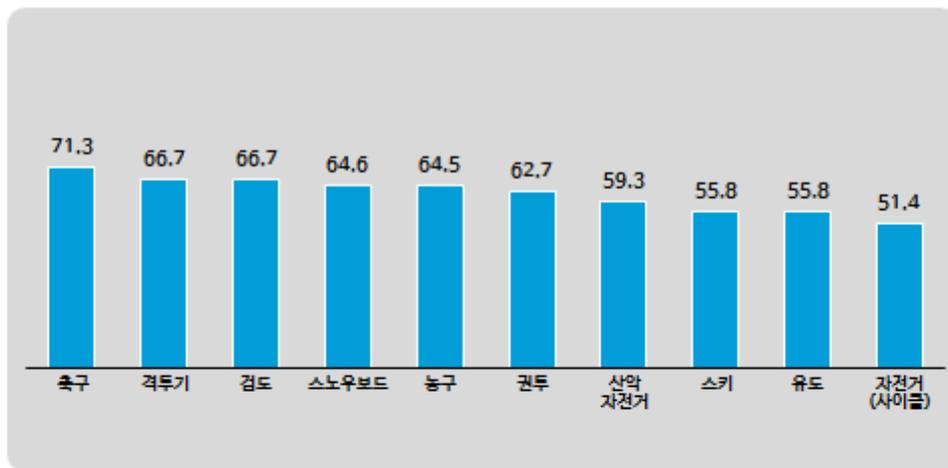
Ⅲ. 조사 결과

(1) 종목별 부상 발생률

- ▶ 종목별 부상 발생률은 ‘축구’가 71.3%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 됨.
- 다음으로 ‘격투기’, ‘검도’(각 66.7%) > ‘스노보드’(64.6%) > ‘농구’(64.5%) > ‘권투’(62.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그림 Ⅲ-7 ■ 종목별 부상 발생률

(단위: %)



- ※ 기초조사 생활스포츠 참여자, n=2,844
- ※ 전체 부상 발생률 상위 10개 종목만 제시함
- ※ 참여빈도(건) 30 미만은 제외함

■ 표 Ⅲ-10 ■ 종목별 부상 발생률

(단위: 건, %)

구 분	축구	격투기	검도	스노보드	농구	권투	산악자전거	스키	유도	자전거 (사이클)
참여빈도(건)	449	60	51	189	256	51	140	215	43	877
부상경험빈도(건)	320	40	34	122	165	32	83	120	24	451
부상 발생률(%)	71.3	66.7	66.7	64.6	64.5	62.7	59.3	55.8	55.8	51.4

- ※ 기초조사 생활스포츠 참여자, n=2,844
- ※ 전체 부상 발생률 상위 10개 종목만 제시함
- ※ 참여빈도(건) 30 미만은 제외함

(2) 응답자 특성별 부상 발생률

- ▶ 성별로 남성은 부상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66.6%로 부상경험이 없다는 응답인 33.4%보다 대략 2배정도 많았으며, 여성은 부상경험이 없다(52.0%)는 응답이 부상경험이 있다는 응답(48.0%)보다 많은 것으로 응답하여 남녀 간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됨.
- ▶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서 부상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줄어들고, 특히 60세 이상의 연령대에서는 부상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60-64세 : 17.5%, 65세이상 : 9.7%)이 대폭 줄어듦.

■ 표 Ⅲ-11 ■ 응답자 특성별 부상 발생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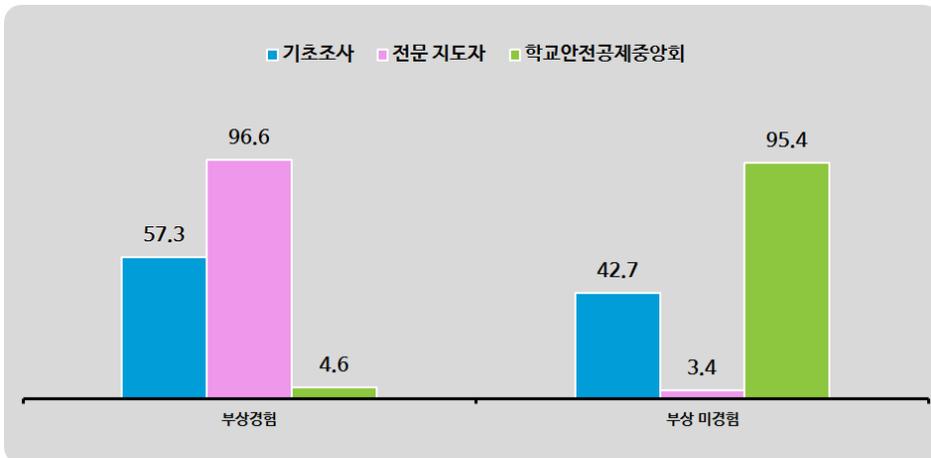
구 분		사례수	부상 경험	부상 미경험	계
전 체		2,844	57.3	42.7	100.0
성별	남성	1,433	66.6	33.4	100.0
	여성	1,411	48.0	52.0	100.0
연령	20대	537	75.2	24.8	100.0
	30대	537	74.5	25.5	100.0
	40대	586	65.5	34.5	100.0
	50대	602	61.0	39.0	100.0
	60-64세	252	17.5	82.5	100.0
	65세 이상	330	9.7	90.3	100.0

※ 기초조사 생활스포츠 참여자, n=2,844

참고 [전문 체육 지도자 조사/학교안전공제중앙회] 부상 경험률

- ◎ ‘전문 체육지도자 조사’ 결과와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자료를 비교해본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기초조사’의 경우 부상률이 절반가량에서 엇갈리나, ‘전문 체육지도자 조사’에서는 97% 가량이 부상 경험, 즉 본인이 지도하는 학생이 부상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함.
 - 한편, ‘학교안전공제중앙회’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학교 운동부 선수 211,092명(2012년~2014년 합계) 가운데 4.6%(n=9,750/2012년~2014년 합계)만이 ‘부상자 수’로 분류되어 다른 두 조사 결과와 매우 상이한 결과를 보임.
(전체 학교 운동부 선수 수는 ‘체육백서’를 참고함. 종목별 운동부 선수수는 나타나 있지 않아, 종합보고서에만 부상률을 기재함)
- ※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접수된 부상 자료만을 기준으로 하므로 생활체육인 대상 실태조사(경미한 부상까지 포함)와 부상 기준이 다르며, 전체 학교 운동부 선수수를 기준으로 추정된 부상 경험률임에 따라 실제 부상률보다 낮을 수 있음
- ※ 다만, 부상으로 인한 병원 치료 경험만을 조사한 「국민생활체육참여 실태조사」(2015년 기준 3.7%)와는 유사한 경향을 보임

(단위: %)



- ※ 기초조사 생활스포츠 참여자, n=2,844
- ※ 전문 체육 지도자 조사 전체 응답자, n=119
- ※ 전체 학교 운동부 선수, n=211,0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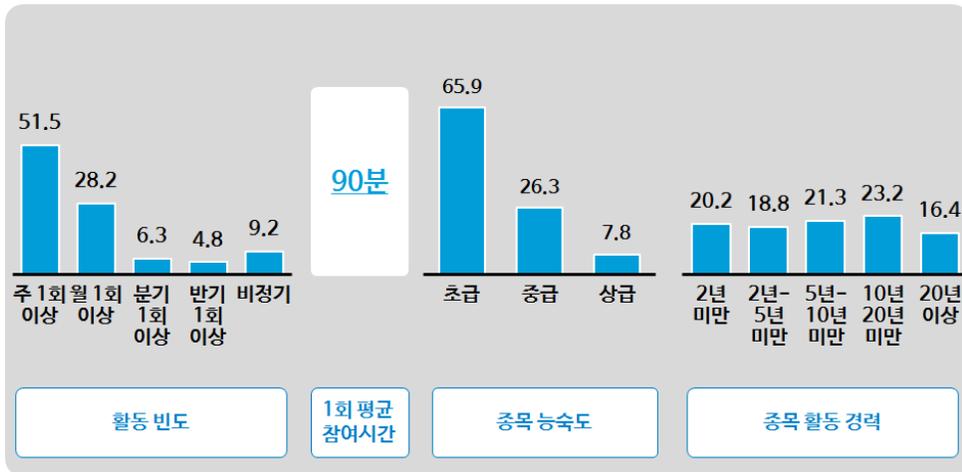
2) 부상 경험자 주요 특성

(1) 부상 경험자 주요 특성

- ▶ 부상 경험자들의 주요 특성을 살펴보면, ‘주 1회 이상’(51.5%) 참여자, 1회당 평균 참여시간 90분, 종목 능숙도 ‘초급’(65.9%)자 비중이 높고, 종목 경력은 전체적으로 고른 분포를 보임.

【그림 Ⅲ-8】 부상 경험자 주요 특성

(단위: %, 분)



※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10,366

Ⅲ. 조사 결과

(2) 부상경험자의 종목별 스포츠 참여빈도 및 참여시간

- ▶ 전반적으로 종목별 부상 경험자의 스포츠 참여빈도 및 시간은 해당 종목의 활동·참여 행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종목별 부상 경험자의 참여 빈도와 참여시간을 살펴본 결과, 보디빌딩(93.1%), 에어로빅(85.4%), 요가(82.0%), 걷기(81.2%), 게이트볼(74.0%) 등의 종목에서 주 1회 이상 활동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 한편, 등산(163.01분), 스키/스노보드(153.92분), 골프(149.72분), 야구(130.03분) 등의 1회 평균 참여 시간이 높게 나타남.

▮ 표 Ⅲ-12 ▮ 부상경험자의 종목별 스포츠 참여빈도 및 참여시간

(단위: %, 분)

구 분	사례수	스포츠 참여 빈도						1회 평균 참여 시간 (분)
		주 1회 이상	월 1회 이상	분기 1회 이상	반기 1회 이상	비정기	계	
전 체	10,366	51.5	28.2	6.3	4.8	9.2	100.0	90.54
등산	1,028	36.7	41.2	12.5	5.3	4.4	100.0	163.01
축구	1,013	45.6	37.9	6.9	3.8	5.8	100.0	84.59
자전거	883	61.3	27.5	3.1	1.2	6.9	100.0	89.41
스키/스노보드	729	14.1	25.0	8.1	16.6	36.2	100.0	153.92
무도	336	72.9	17.6	2.1	2.4	5.1	100.0	63.01
아이스스케이팅	311	26.0	26.0	10.9	10.6	26.4	100.0	78.19
인라인스케이팅	160	28.1	43.1	11.9	3.8	13.1	100.0	69.66
보디빌딩(헬스)	713	93.1	4.2	0.6	0.1	2.0	100.0	73.64
농구	711	46.8	36.7	5.6	2.7	8.2	100.0	65.82
배드민턴	714	60.1	28.7	4.2	2.1	4.9	100.0	63.11
걷기	314	81.2	10.2	0.3	1.6	6.7	100.0	61.45
달리기(마라톤)	713	58.1	24.7	4.6	4.8	7.9	100.0	54.22
수영	313	72.8	14.4	2.2	3.2	7.3	100.0	60.10
골프/스크린골프	329	38.0	39.2	13.7	5.2	4.0	100.0	149.72
볼링	312	19.9	30.8	15.1	15.1	19.2	100.0	76.27
야구	314	26.1	54.1	9.6	4.1	6.1	100.0	130.03
에어로빅	302	85.4	8.9	1.0	0.0	4.6	100.0	54.30
테니스	310	50.0	40.0	3.5	2.9	3.5	100.0	76.43
게이트볼	100	74.0	17.0	3.0	2.0	4.0	100.0	96.53
요가	211	82.0	10.4	1.4	1.4	4.7	100.0	52.75
탁구	310	57.7	27.1	5.8	2.9	6.5	100.0	66.35
승마	110	21.8	29.1	17.3	14.5	17.3	100.0	67.58
항공스포츠	130	22.3	26.2	9.2	23.1	19.2	100.0	104.93

※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10,366

스포츠 안전사고 실태조사 -종합편

(3) 부상경험자의 종목별 능숙도 및 경력

- ▶ 부상 경험자의 능숙도를 종목별로 살펴보면, ‘초급’은 요가(81.5%), 달리기(마라톤)(80.8%), 볼링(77.9%), ‘중급’은 게이트볼(44.0%), 농구(31.8%), 골프/스크린골프 및 테니스(각 31.3%), ‘상급’은 수영(22.4%), 게이트볼(18.0%), 무도(13.1%) 순으로 높게 나타남(능숙도별 상위 3순위).

【 표 III-13 】 부상경험자의 종목별 능숙도

(단위: %)

구 분	사례수	능숙도			계
		초급	중급	상급	
전 체	10,366	65.9	26.3	7.8	100.0
등산	1,028	73.2	23.0	3.8	100.0
축구	1,013	64.5	30.1	5.4	100.0
자전거	883	61.4	30.9	7.7	100.0
스키/스노보드	729	62.1	28.3	9.6	100.0
무도	336	56.5	30.4	13.1	100.0
아이스스케이팅	311	77.5	19.0	3.5	100.0
인라인스케이팅	160	72.5	23.1	4.4	100.0
보디빌딩(헬스)	713	62.8	28.8	8.4	100.0
농구	711	56.7	31.8	11.5	100.0
배드민턴	714	69.3	23.4	7.3	100.0
견기	314	70.1	23.6	6.4	100.0
달리기(마라톤)	713	80.8	16.0	3.2	100.0
수영	313	49.2	28.4	22.4	100.0
골프/스크린골프	329	59.3	31.3	9.4	100.0
볼링	312	77.9	16.3	5.8	100.0
야구	314	65.3	26.8	8.0	100.0
에어로빅	302	62.3	27.2	10.6	100.0
테니스	310	61.0	31.3	7.7	100.0
게이트볼	100	38.0	44.0	18.0	100.0
요가	211	81.5	14.2	4.3	100.0
탁구	310	58.7	31.0	10.3	100.0
승마	110	76.4	15.5	8.2	100.0
항공스포츠	130	72.3	21.5	6.2	100.0

※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10,366

Ⅲ. 조사 결과

- ▶ 부상 경험자의 활동 경력을 종목별로 살펴보면, ‘2년 미만’은 요가(53.6%), 승마(37.3%), 에어로빅(36.4%), ‘2-5년 미만’은 게이트볼(32.0%), 에어로빅(29.5%), 승마(28.2%), ‘5-10년 미만’은 게이트볼(28.0%), 스키/스노보드(27.7%), 수영(25.6%), ‘10-20년 미만’은 볼링(33.0%), 인라인스케이팅(30.6%), 축구(29.6%), ‘20년 이상’은 농구(37.1%), 축구(31.9%), 탁구(23.9%) 순으로 높게 나타남(종목별 상위 3순위).

■ 표 Ⅲ-14 ■ 부상경험자의 종목별 활동 경력

(단위: %)

구 분	사례수	종목 활동 경력					계
		2년 미만	2년 이상-5년 미만	5년 이상-10년 미만	10년 이상-20년 미만	20년 이상	
전 체	10,366	20.2	18.8	21.3	23.2	16.4	100.0
등산	1,028	9.6	14.2	25.4	29.4	21.4	100.0
축구	1,013	7.2	12.4	18.9	29.6	31.9	100.0
자전거	883	19.1	22.4	21.6	20.5	16.3	100.0
스키/스노보드	729	14.7	19.3	27.7	28.4	9.9	100.0
무도	336	29.8	18.8	18.2	14.6	18.8	100.0
아이스스케이팅	311	21.2	15.4	18.6	28.0	16.7	100.0
인라인스케이팅	160	20.0	22.5	21.3	30.6	5.6	100.0
보디빌딩(헬스)	713	33.2	22.3	19.9	18.9	5.6	100.0
농구	711	8.3	10.7	14.6	29.3	37.1	100.0
배드민턴	714	23.4	22.0	21.3	20.4	12.9	100.0
걷기	314	21.7	18.8	23.2	25.5	10.8	100.0
달리기(마라톤)	713	24.4	18.4	25.1	22.2	10.0	100.0
수영	313	33.5	16.6	25.6	17.3	7.0	100.0
골프/스크린골프	329	21.6	26.4	25.5	20.7	5.8	100.0
볼링	312	15.7	16.0	19.9	33.0	15.4	100.0
야구	314	18.8	19.1	21.3	25.8	15.0	100.0
에어로빅	302	36.4	29.5	18.2	10.9	5.0	100.0
테니스	310	23.5	18.1	19.0	15.8	23.5	100.0
게이트볼	100	22.0	32.0	28.0	10.0	8.0	100.0
요가	211	53.6	25.6	12.3	8.5	.0	100.0
탁구	310	19.7	21.9	16.8	17.7	23.9	100.0
승마	110	37.3	28.2	15.5	16.4	2.7	100.0
항공스포츠	130	33.8	25.4	22.3	11.5	6.9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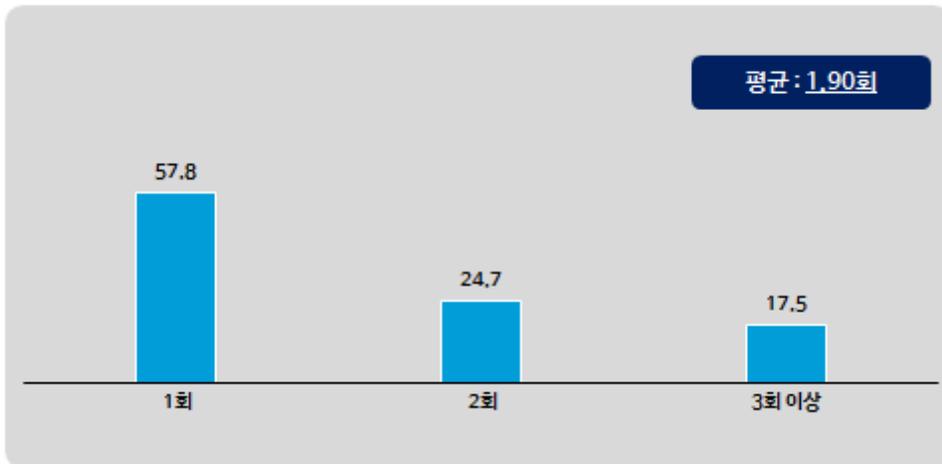
※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10,366

3) 연간 부상 횟수

- ▶ 생활 스포츠 부상 경험자들은 부상 부위와 종류, 정도를 막론하고 연 평균 약 1.9회 가량의 부상을 입고 있음.
- ▶ 구간 별로 살펴보면 ‘1회’가 57.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2회’(24.7%), ‘3회 이상’(17.5%)의 순으로 조사됨.

■ 그림 Ⅲ-9 ■ 연간 부상 횟수

(단위: %)



※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10,366

※ 부상 횟수 집계 기준 : 심각한 수준부터 아주 경미한 수준을 아우르는 포괄적 의미의 부상 발생 횟수(병원 진료, 의약처방 및 투여 여부 등과 관계 없음)

Ⅲ. 조사 결과

- ▶ 세부 종목별로 무도가 연평균 2.57회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보디빌딩(헬스)(연평균 2.38회), 축구(연평균 2.33회)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표 Ⅲ-15 ▣ 종목별 연간 부상 횟수

(단위: %, 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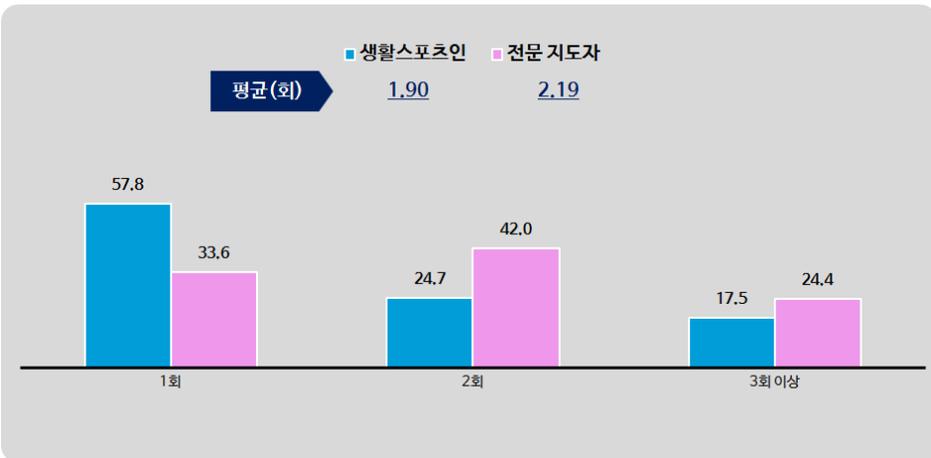
구 분	사례수	1회	2회	3회 이상	평균 부상횟수
전 체	10,366	57.8	24.7	17.5	1.90
등산	1,028	55.6	31.1	13.2	1.71
축구	1,013	44.8	27.9	27.2	2.33
자전거	883	52.7	24.2	23.1	2.02
스키/스노보드	729	70.2	22.6	7.1	1.44
무도	336	47.9	21.4	30.7	2.57
아이스스케이팅	311	53.1	27.0	19.9	2.25
인라인스케이팅	160	58.1	26.3	15.6	1.84
보디빌딩(헬스)	713	47.3	29.3	23.4	2.38
농구	711	48.2	25.2	26.6	2.25
배드민턴	714	59.1	26.2	14.7	1.75
걷기	314	58.6	22.9	18.5	1.85
달리기(마라톤)	713	65.2	22.3	12.5	1.59
수영	313	71.2	16.9	11.8	1.56
골프/스크린골프	329	65.0	22.5	12.5	1.69
볼링	312	68.3	21.2	10.6	1.50
야구	314	66.2	20.4	13.4	1.61
에어로빅	302	57.6	27.8	14.6	1.79
테니스	310	65.8	23.2	11.0	1.67
게이트볼	100	42.0	31.0	27.0	2.26
요가	211	66.4	21.8	11.8	1.91
탁구	310	68.1	19.7	12.3	1.56
승마	110	78.2	10.9	10.9	1.35
항공스포츠	130	78.5	12.3	9.2	1.87

※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10,366

참고 [전문 체육 지도자 조사] 선수 1명 기준, 1년간 부상사고 발생횟수

- ◎ ‘전문 체육 지도자 조사’ 결과와 비교해보면, ‘생활 스포츠인 조사’의 경우 ‘1회’ 응답이 절반 이상인 57.8%로 가장 높았으나, ‘전문 체육 지도자’ 조사의 경우 ‘2회’가 42.0%로 가장 높음.
- ‘전문 체육 지도자 조사’ 결과에서 평균 부상 횟수는 2.19회로, ‘생활 스포츠인 조사’의 평균(1.90회)보다 다소 높게 나타남.

(단위: %, 회)



※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10,3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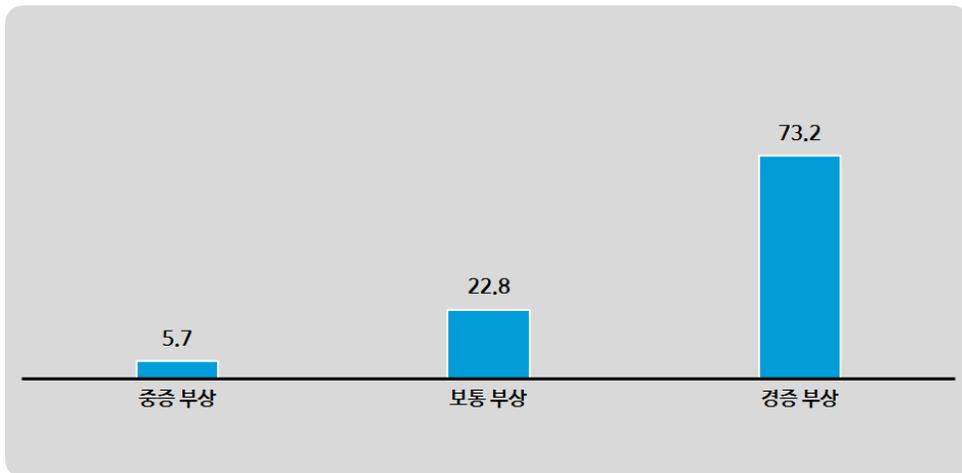
※ 전문 체육 지도자 조사 전체 응답자, n=119

4) 부상 정도(주관적 인식 기준)

- ▶ 부상 경험자 10명 중 약 7명가량(73.2%)는 본인 스스로 판단한 주관적 부상 정도를 ‘경증’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보통’ 정도의 부상은 22.8%, ‘중증’ 부상 비율은 5.7%로 조사됨.

■ 그림 Ⅲ-10 ■ 부상 정도(주관적 인식)

(단위: %)



※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10,366

스포츠 안전사고 실태조사 -종합편

- ▶ 부상 정도별 중증 부상은 게이트볼(13.0%), 승마(10.0%), 농구(9.6%)의 순, 보통 부상은 게이트볼(36.0%), 항공 스포츠(34.6%), 무도(29.8%)의 순, 경증 부상은 볼링(91.0%), 요가(86.3%), 걷기(83.8%)의 순으로 나타남.

Ⅲ 표 Ⅲ-16 Ⅲ 종목별 부상 정도(주관적 인식)

(단위: %)

구 분	사례수	중증 부상	보통 부상	경증 부상
전 체	10,366	5.7	22.8	73.2
등산	1,028	2.9	17.8	81.0
축구	1,013	9.4	29.3	63.0
자전거	883	7.8	27.7	66.4
스키/스노보드	729	5.8	25.8	69.5
무도	336	9.5	29.8	63.1
아이스스케이팅	311	3.2	20.3	78.1
인라인스케이팅	160	4.4	20.0	75.6
보디빌딩(헬스)	713	5.8	21.5	74.3
농구	711	9.6	28.7	65.0
배드민턴	714	4.9	21.3	75.2
걷기	314	2.9	14.6	83.8
달리기(마라톤)	713	2.5	17.8	81.2
수영	313	3.2	17.6	80.8
골프/스크린골프	329	4.9	15.5	79.9
볼링	312	1.0	8.7	91.0
야구	314	5.7	26.4	70.4
에어로빅	302	6.6	26.8	70.2
테니스	310	6.1	26.5	68.4
게이트볼	100	13.0	36.0	60.0
요가	211	1.9	13.3	86.3
탁구	310	4.2	18.4	77.7
승마	110	10.0	22.7	70.0
항공스포츠	130	7.7	34.6	5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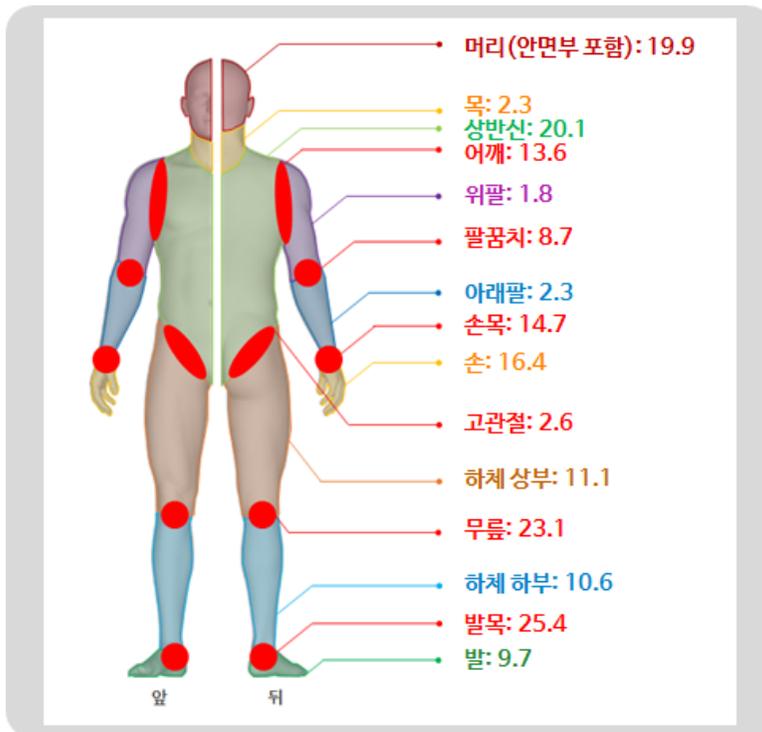
※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10,366

5) 주요 부상 부위

- ▶ 부상 경험자의 부상 부위는 ‘발목’(25.4%), ‘무릎’(23.1%), ‘상반신’(20.1%), ‘머리(안면부 포함)’(19.9%), ‘손’(16.4%)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Ⅲ-11 부상 부위

(단위: %, 복수응답)



※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10,366

※ 머리(안면부 포함) : 두피, 눈, 코, 입, 치아, 귀, 이마, 턱, 광대(뺨) 등 안면부를 포함(이하 '머리'로 언급된 모든 부분 동일)

스포츠 안전사고 실태조사 -종합편

- ▶ 상반신 부상 부위를 종목별로 살펴보면, ‘상반신’은 골프/스크린골프(54.1%), 보디빌딩(헬스)(52.0%), 요가(48.8%) 등의 순, ‘머리’는 무도(81.3%), 게이트볼(52.0%), 항공스포츠(37.7%) 등의 순, ‘손’은 볼링(70.5%), 농구(49.8%), 인라인스케이팅(36.9%) 순, ‘손목’은 볼링(37.5%), 탁구(31.6%), 테니스(27.7%) 순으로 높게 나타남(부상 부위별 상위 3순위).

■ 표 III-17 ■ 종목별 부상 부위 : 상반신

(단위: %)

구 분	사례수	머리	목(경부)	상반신	위팔	팔꿈치	아래팔	손목	손
전 체	10,366	19.9	2.3	20.1	1.8	8.7	2.3	14.7	16.4
등산	1,028	7.7	0.7	10.2	0.5	3.5	1.8	7.0	11.7
축구	1,013	29.4	1.7	17.2	1.1	8.3	2.4	5.9	10.5
자전거	883	25.4	1.2	15.1	1.8	16.2	4.1	12.2	24.0
스키/스노보드	729	7.7	2.3	17.3	1.2	5.6	2.7	17.3	5.9
무도	336	81.3	4.5	33.0	4.2	7.1	3.9	17.9	11.9
아이스스케이팅	311	25.7	3.9	18.6	2.6	10.9	2.3	18.3	18.0
인라인스케이팅	160	10.0	0.0	6.9	0.0	18.8	1.3	19.4	36.9
보디빌딩(헬스)	713	13.7	6.9	52.0	3.6	9.8	2.8	21.9	7.9
농구	711	35.7	3.0	17.2	1.8	6.8	2.7	19.3	49.8
배드민턴	714	16.1	1.4	15.3	2.7	14.8	2.7	27.3	8.3
걷기	314	5.1	0.3	10.5	0.0	3.2	1.6	5.7	6.7
달리기(마라톤)	713	5.6	0.0	6.3	0.6	4.9	1.0	2.5	7.2
수영	313	34.2	1.3	16.3	2.9	2.9	1.3	2.9	9.9
골프/스크린골프	329	8.2	3.3	54.1	3.6	14.9	0.9	20.4	17.6
볼링	312	2.2	0.3	8.0	1.6	2.9	1.6	37.5	70.5
야구	314	23.6	0.6	18.5	1.0	9.6	1.6	14.6	20.7
에어로빅	302	19.5	4.3	34.8	2.0	5.3	3.3	7.9	5.0
테니스	310	16.5	2.3	11.9	1.9	22.9	1.9	27.7	15.5
게이트볼	100	52.0	3.0	22.0	6.0	3.0	0.0	19.0	7.0
요가	211	12.3	11.4	48.8	0.5	4.7	0.0	6.6	3.8
탁구	310	12.9	1.3	17.7	2.6	9.7	3.2	31.6	16.1
승마	110	15.5	0.0	30.9	0.0	7.3	0.9	5.5	6.4
항공스포츠	130	37.7	3.8	12.3	3.1	6.2	2.3	2.3	6.9

※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10,366

Ⅲ. 조사 결과

- ▶ 하반신 부상 부위를 종목별로 살펴보면, ‘발목’은 걷기(54.5%), 등산(54.2%), 축구(41.5%) 순, ‘무릎’은 게이트볼(45.0%), 달리기(마라톤)(40.7%), 자전거(37.5%) 순, ‘하체 상부’는 승마(30.9%), 스키/스노보드(30.2%), 아이스스케이팅(25.4%) 순으로 높게 나타남(종목별 상위 3순위).

▮ 표 Ⅲ-18 ▮ 종목별 부상 부위 : 하반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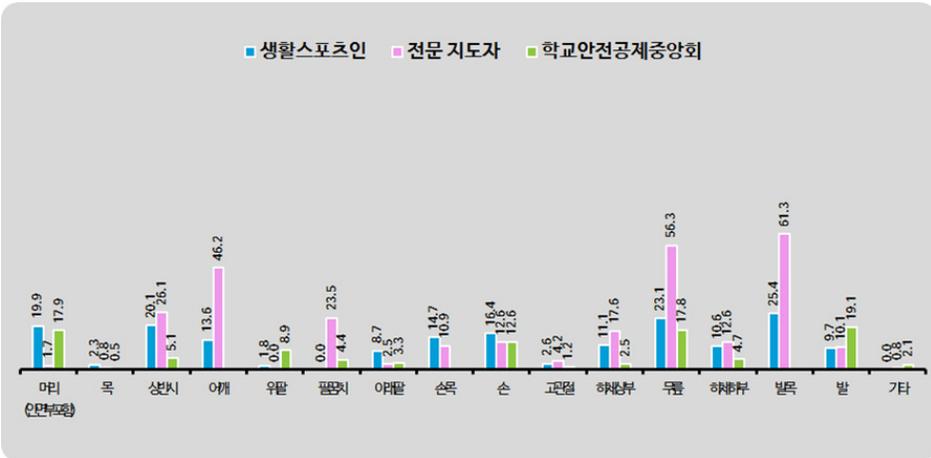
구 분	사례수	고관절	하체 상부	무릎	하체 하부	발목	발
전 체	10,366	2.6	11.1	23.1	10.6	25.4	9.7
등산	1,028	2.5	8.9	34.7	9.9	54.2	13.4
축구	1,013	1.6	14.3	31.9	27.0	41.5	21.0
자전거	883	2.6	13.7	37.5	17.7	10.2	4.2
스키/스노보드	729	4.4	30.2	18.5	7.4	15.2	2.3
무도	336	2.1	10.1	13.7	12.2	14.0	11.0
아이스스케이팅	311	6.1	25.4	20.9	7.1	28.6	7.7
인라인스케이팅	160	2.5	21.9	30.6	8.1	23.1	5.0
보디빌딩(헬스)	713	3.8	10.4	18.9	7.9	10.4	6.6
농구	711	0.6	5.3	14.8	6.6	35.3	8.0
배드민턴	714	1.0	4.8	16.7	4.8	22.4	4.6
걷기	314	4.5	6.1	30.3	13.1	54.5	33.4
달리기(마라톤)	713	2.8	8.3	40.7	13.0	40.4	22.4
수영	313	1.6	7.7	6.4	12.5	8.6	9.9
골프/스크린골프	329	1.5	1.5	5.2	1.2	2.7	1.8
볼링	312	1.6	3.5	5.8	1.3	2.9	0.6
야구	314	1.0	8.9	10.8	9.6	11.5	6.1
에어로빅	302	3.6	7.3	25.5	8.6	30.5	7.3
테니스	310	1.6	4.2	15.2	3.5	17.7	3.2
게이트볼	100	5.0	4.0	45.0	18.0	13.0	9.0
요가	211	8.5	16.1	9.0	6.6	9.5	5.2
탁구	310	0.6	4.2	12.6	3.2	13.2	3.5
승마	110	6.4	30.9	6.4	4.5	10.9	0.9
항공스포츠	130	3.1	9.2	15.4	2.3	18.5	4.6

※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10,366

참고 [전문 체육 지도자 조사/학교안전공제중앙회] 주요 부상 부위

- ‘전문 체육 지도자 조사’ 결과와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자료를 비교해본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생활스포츠인 조사’의 경우 ‘발목’(25.4%), ‘무릎’(23.1%), ‘상반신’(20.1%) 등의 순이며, ‘전문 체육 지도자 조사’의 경우에는 ‘발목’(61.3%), ‘무릎’(56.3%), ‘어깨’(46.2%) 등의 순으로 전체적인 경향은 비슷하나, 비율의 차이를 보임. 한편,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자료에서는 ‘발’(19.1%), ‘머리’(17.9%), ‘무릎’(17.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세 자료를 모두 살펴본 결과, ‘발’, ‘발목’, ‘무릎’ 등의 부위 부상이 공통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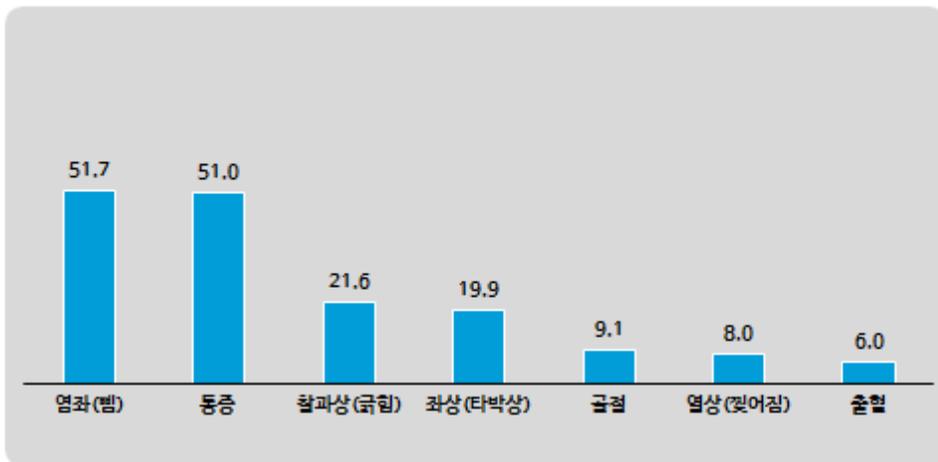
- ※ ‘부상부위’는 ‘생활 스포츠인’ 조사의 리코드(재분류) 원칙을 따랐으며, 그에 따른 분류는 다음과 같음. (제시되지 않은 부위는 단일 부위임)
- 머리(안면 포함) : 두피, 눈, 코, 입, 치아, 귀, 이마, 턱, 광대/뺨
- 상반신 : 가슴, 배, 등, 허리
- 손 : 손바닥, 손등, 손가락, 손톱
- 하체 상부 : 엉덩이, 허벅지, 사타구니 / 하부 : 정강이, 종아리, 아킬레스 건
- 발 : 발바닥, 발등, 발가락, 발톱
- ※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10,366
- ※ 전문 체육 지도자 조사 전체 응답자, n=119
- ※ 학교안전공제중앙회 부상 학생수, n=9,750

6) 주요 부상 종류

- ▶ 부상자들의 부상 종류로는 ‘염좌(뺨)’가 51.7%, ‘통증’이 51.0%로 가장 높게 나타남. 다음으로는 ‘찰과상(긁힘)’(21.6%), ‘좌상(타박상)’(19.9%) 등의 순임.

Ⅲ-12 부상 종류

(단위: %, 복수응답)



- ※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10,366
- ※ 5% 이상 응답된 부상 종류만 제시함

스포츠 안전사고 실태조사 -종합편

- ▶ 부상 종류를 종목별로 살펴보면, ‘염좌(뺨)’는 농구(87.6%), 보디빌딩(헬스)(66.8%), 등산(62.6%) 등의 순, ‘통증’은 게이트볼(96.0%), 보디빌딩(헬스)(91.0%), 요가(84.4%) 등의 순, ‘찰과상(긁힘)’은 자전거(58.2%), 인라인스케이팅(44.4%), 축구(32.4%)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부상 부위별 상위 3순위).

【 표 III-19 】 종목별 부상 종류

(단위: %, 복수응답)

구 분	사례수	염좌 (뺨)	통증	찰과상 (긁힘)	좌상 (타박상)	골절	열상 (찢어짐)	출혈
전 체	10,366	51.7	51.0	21.6	19.9	9.1	8.0	6.0
등산	1,028	62.6	43.1	24.6	13.1	7.3	5.9	3.5
축구	1,013	60.6	42.3	32.4	30.3	15.2	10.7	11.2
자전거	883	29.4	27.6	58.2	27.4	10.3	16.1	8.9
스키/스노보드	729	40.3	35.9	11.4	34.3	9.2	2.5	2.1
무도	336	51.8	54.8	21.1	26.8	21.7	16.7	16.1
아이스스케이팅	311	54.0	39.9	23.2	38.9	13.2	8.7	5.8
인라인스케이팅	160	50.0	30.0	44.4	30.0	6.3	13.1	5.6
보디빌딩(헬스)	713	66.8	91.0	12.3	15.6	4.9	6.3	3.2
농구	711	87.6	34.6	18.6	20.0	18.4	10.4	8.0
배드민턴	714	55.2	59.5	16.9	12.7	7.3	4.9	3.6
걷기	314	54.8	68.8	12.7	10.5	7.0	2.9	4.8
달리기(마라톤)	713	48.4	52.2	17.8	11.9	3.8	6.2	4.9
수영	313	24.9	53.4	16.0	12.5	4.5	6.4	6.4
골프/스크린골프	329	44.4	82.4	4.6	8.2	3.3	6.4	1.2
볼링	312	42.3	55.1	9.6	6.7	3.2	11.2	6.7
야구	314	39.2	36.6	19.7	32.8	9.9	6.1	5.4
에어로빅	302	42.7	79.8	8.9	14.2	7.9	5.3	4.0
테니스	310	46.5	53.5	15.5	17.4	6.8	6.5	4.5
게이트볼	100	41.0	96.0	14.0	22.0	11.0	9.0	6.0
요가	211	44.5	84.4	2.8	2.4	2.4	2.4	6.6
탁구	310	49.7	57.4	14.2	13.2	4.5	5.2	3.2
승마	110	30.9	32.7	11.8	27.3	10.0	8.2	3.6
항공스포츠	130	30.0	17.7	25.4	13.8	10.0	14.6	1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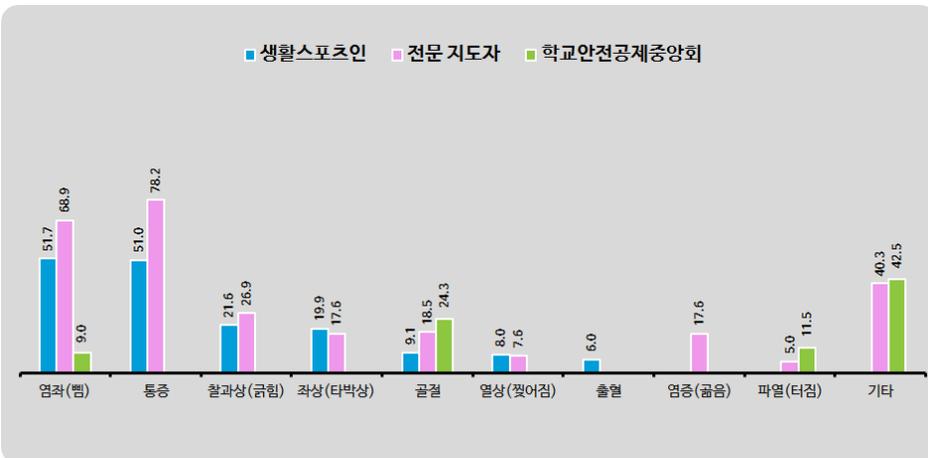
※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10,366

※ 5% 이상 응답된 부상 종류만 제시함

참고 [전문 체육 지도자 조사/학교안전공제중앙회] 주요 부상 종류

- ‘전문 체육 지도자 조사’ 결과와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자료를 비교해본 결과는 다음과 같음. (자료는 모두 5% 이상만 제시함)
- ‘생활스포츠인 조사’의 경우 ‘염좌’(51.7%), ‘통증’(51.0%), ‘찰과상’(21.6%)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문 체육 지도자인 조사’의 경우에는 ‘통증’(78.2%), ‘염좌’(68.9%), ‘찰과상’(26.9%) 등의 순임.
-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자료를 살펴보면, ‘골절’(24.3%), ‘파열’(11.5%), ‘염좌’(9.0%)의 순임을 확인할 수 있음.
- ‘전문 체육 지도자 조사’ 결과와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자료에서는 ‘기타’ 비율이 40% 이상으로 높는데, 이는 실제 ‘기타’ 응답자와 ‘응답 미기재 응답자’가 합쳐진 결과이기 때문임.

(단위: %)



※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10,366
 ※ 전문 체육 지도자 조사 전체 응답자, n=119
 ※ 학교안전공제중앙회 부상 학생수, n=9,7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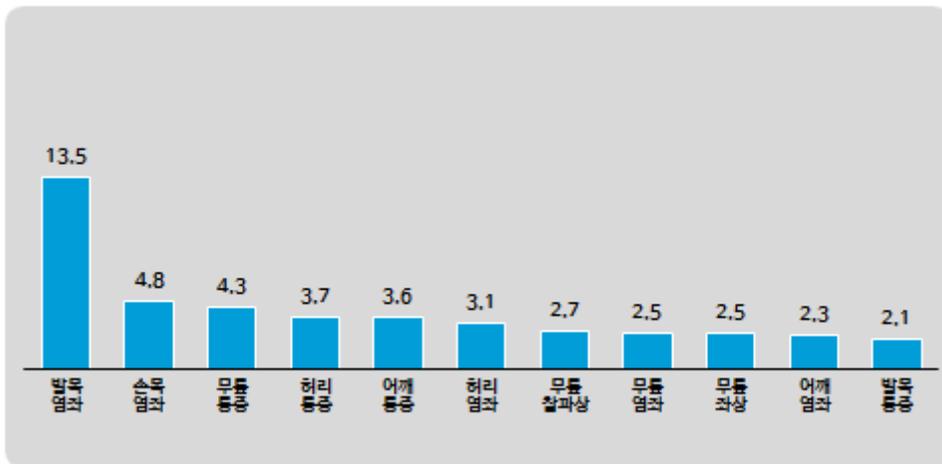
7) 가장 심각한 부상부위 및 종류 유형

▶ 생활 스포츠 부상 경험자들이 겪은 여러 부위와 종류를 종합하여 가장 심각했던 부상 유형이 무엇이었는지 조사한 결과, ‘발목 염좌’가 13.5%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다음으로 ‘손목 염좌’(4.8%), ‘무릎 통증’(4.3%), ‘허리 통증’(3.7%) 등의 순으로 조사됨.

■ 그림 Ⅲ-13 ■ 가장 심각한 부상유형

(단위: %)



※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10,366

※ 2% 이상 응답된 부상 유형만 제시함

Ⅲ. 조사 결과

- ▶ 생활 스포츠 부상 경험자들이 겪은 가장 심각했던 부상 유형은 전체적으로 연간 1.28회 가량 반복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 ▶ 많이 발생하는 부상 유형 기준으로 무릎 통증(1.34회), 허리 통증(1.32회), 어깨 통증(1.30회) 등은 평균 대비 높은 반복 발생 빈도를 보이는 등 많이 발생하면서도 같은 유형을 여러 차례 반복하여 당하는 부상으로 판단할 수 있음.

【 표 Ⅲ-20 】 가장 심각한 부상유형의 반복발생 빈도

(단위: %, 회)

구 분	사례수	1회	2회	3회 이상	평균 횟수
전 체	10,366	81.1	14.5	4.4	1.28
발목 염좌(뺨)	1,403	82.3	14.9	2.9	1.23
손목 염좌(뺨)	498	82.5	13.7	3.8	1.25
무릎 통증	443	76.1	18.7	5.2	1.34
허리 통증	379	78.1	15.6	6.3	1.32
어깨 통증	378	78.3	18.0	3.7	1.30
허리 염좌(뺨)	325	78.8	17.2	4.0	1.28
무릎 찰과상(굽힘)	277	86.3	11.9	1.8	1.16
무릎 염좌(뺨)	257	81.7	16.0	2.3	1.21
무릎 좌상(타박상)	256	84.0	13.7	2.3	1.20
어깨 염좌(뺨)	241	82.2	14.5	3.3	1.22
발목 통증	222	81.5	11.7	6.8	1.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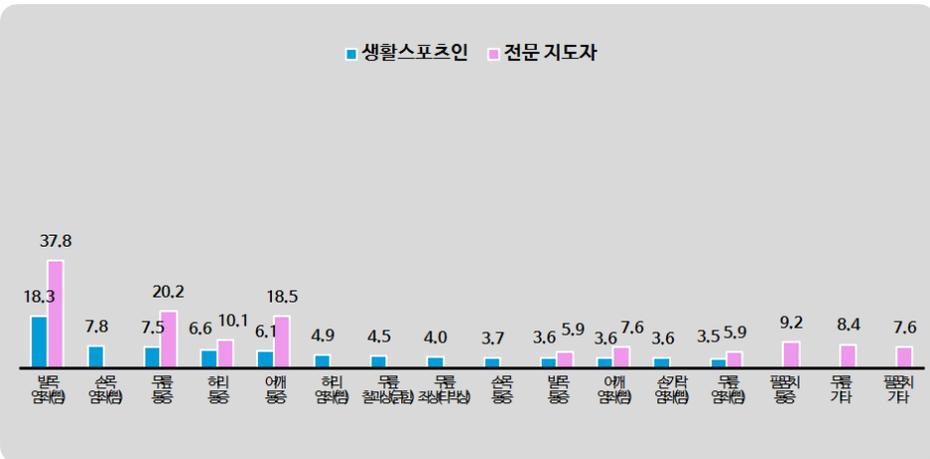
※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10,366

※ 2% 이상 응답된 부상 유형만 제시함

참고 [전문 체육 지도자 조사] 주요 부위별 부상 종류

- ◎ ‘전문 체육 지도자 조사’ 결과와 비교해본 결과는 다음과 같음. (‘생활스포츠인 조사’는 3% 이상/ ‘전문 체육 지도자 조사’는 top10만 제시함. ‘전문 체육 지도자 조사’의 경우 사례수가 적어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생활 스포츠인 조사’와 ‘전문 체육 지도자 조사’ 결과 모두 ‘발목 염좌’가 가장 높게 나타남.
- 그러나, ‘생활 스포츠인 조사’에서 2순위로 나타난 ‘손목 염좌’는 ‘전문 체육 지도자 조사’의 Top10 안에 들어있지 않는 등, 다소 간 결과의 차이를 보임.

(단위: %,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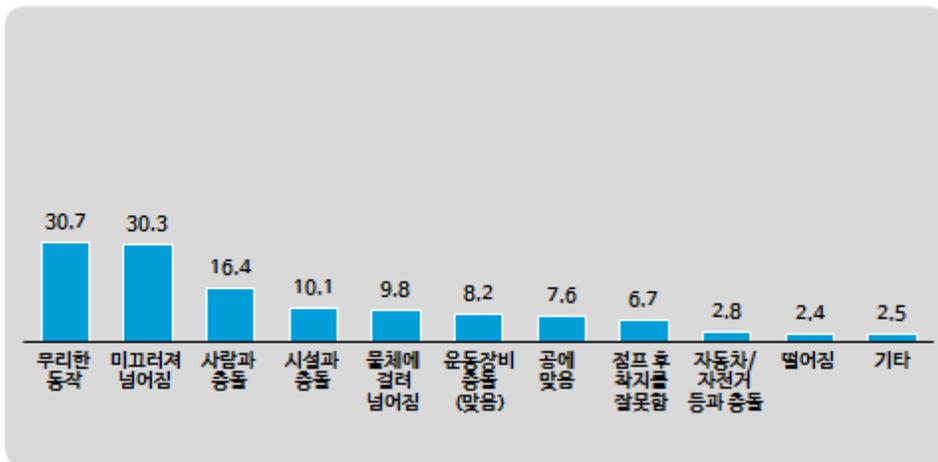
※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10,366
 ※ 전문 체육 지도자 조사 전체 응답자, n=119
 ※ 전문체육지도자조사(복수응답으로만 질문함)와의 직접적인 비교를 위해 생활스포츠인 조사 역시 복수응답 결과를 제시함

8) 부상의 직접적 원인

- ▶ 부상의 원인은 ‘무리한 동작’(30.7%), ‘미끄러져 넘어짐’(30.3%), ‘사람과 충돌’(16.4%), ‘시설과 충돌’(10.1%), ‘물체에 걸려 넘어짐’(9.8%)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그림 Ⅲ-14 ■ 부상 원인

(단위: %, 복수응답)



※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10,366

스포츠 안전사고 실태조사 -종합편

(1) 종목별 부상 원인

- ▶ 부상의 원인을 종목별로 살펴보면, ‘무리한 동작’은 요가(86.7%), 골프/스크린골프(78.1%), 보디빌딩(헬스)(68.9%) 순, ‘미끄러져 넘어짐’은 등산(61.8%), 인라인스케이팅(58.1%), 스키/스노보드(54.5%) 순, ‘사람과 충돌’은 축구(55.0%), 무도(37.5%), 농구(37.0%) 순으로 나타남(부상 원인별 상위 3순위).

【 표 Ⅲ-21 】 종목별 부상 원인

(단위: %)

구 분	사례수	무리한 동작	미끄러져 넘어짐	사람과 충돌	주변 시설과 충돌	물체에 걸려 넘어짐	운동 장비에 충돌	공에 맞음	점프후 착지를 잘못함	자동차/자전거 등과 충돌	떨어짐
전 체	10,366	30.7	30.3	16.4	10.1	9.8	8.2	7.6	6.7	2.8	2.4
등산	1,028	16.9	61.8	2.3	6.6	19.0	2.0	0.7	3.8	0.7	0.8
축구	1,013	15.6	26.9	55.0	5.6	4.6	5.8	10.6	9.0	1.5	1.1
자전거	883	10.3	35.7	7.8	21.5	24.5	8.8	2.2	2.7	11.1	4.1
스키/스노보드	729	12.8	54.5	31.8	11.0	6.9	4.7	1.1	4.8	0.8	1.4
무도	336	21.1	15.8	37.5	14.3	4.5	21.1	7.4	7.7	6.3	3.0
아이스스케이팅	311	7.7	48.6	33.8	18.0	7.7	11.9	3.9	2.9	4.8	1.3
인라인스케이팅	160	9.4	58.1	11.9	9.4	20.0	2.5	1.9	3.8	4.4	0.6
보디빌딩(헬스)	713	68.9	10.5	1.7	6.3	5.2	15.6	1.8	2.1	2.5	3.2
농구	711	9.1	19.1	37.0	11.0	3.4	8.3	35.0	21.9	2.5	3.5
배드민턴	714	44.5	30.5	8.3	9.7	4.9	7.7	6.2	15.3	1.3	1.1
걷기	314	32.5	33.8	1.6	4.5	22.3	3.2	1.3	1.9	2.2	2.5
달리기(마라톤)	713	37.9	30.6	4.1	6.6	17.7	2.7	1.7	3.5	2.0	1.1
수영	313	40.3	17.6	14.7	21.7	3.8	5.1	1.3	0.3	2.9	0.6
골프/스크린골프	329	78.1	5.2	0.9	5.2	2.4	9.4	4.0	0.6	1.2	0.6
볼링	312	58.3	12.2	1.6	2.9	3.2	14.1	9.0	1.0	1.0	2.2
야구	314	25.2	17.5	10.8	4.1	6.1	11.1	43.3	1.9	1.0	1.0
에어로빅	302	51.0	23.2	12.9	12.3	8.9	8.6	3.0	17.2	4.0	3.3
테니스	310	42.9	26.8	4.2	6.8	3.5	10.3	13.5	7.4	2.6	1.3
게이트볼	100	39.0	19.0	16.0	14.0	11.0	21.0	20.0	3.0	6.0	7.0
요가	211	86.7	7.6	2.4	1.9	1.9	1.9	1.9	2.4	1.9	0.9
탁구	310	41.0	23.9	6.5	20.0	6.1	15.8	6.8	4.2	1.0	1.0
승마	110	21.8	14.5	4.5	10.0	6.4	10.9	2.7	6.4	0.9	38.2
항공스포츠	130	6.9	23.1	6.9	20.8	10.0	20.8	3.8	33.1	3.1	8.5

※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10,366

Ⅲ. 조사 결과

(2) 부상 종류별 부상 원인

- ▶ 부상의 원인을 부상 종류에 따라 살펴보면, ‘무리한 동작’으로 인해 발생한 부상은 통증(56.3%), 염증(47.7%), 파열(43.1%) 순,
 ‘미끄러져 넘어짐’으로 인해 발생한 부상은 찰과상(43.6%), 좌상(38.4%), 염좌(33.9%) 순,
 ‘사람과 충돌’로 인해 발생한 부상은 골절(26.4%), 좌상(25.5%), 탈구(25.2%) 순으로 나타남(부상 종류별 상위 3순위).

Ⅰ 표 Ⅲ-22 Ⅰ 부상 종류별 부상 원인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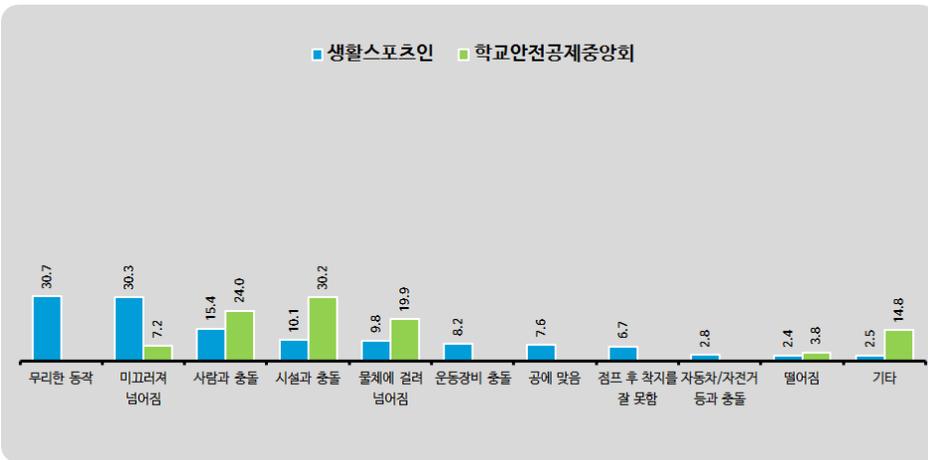
구 분	사례수	무리한 동작	미끄러져 넘어짐	사람과 충돌	주변 시설과 충돌	물체에 걸려 넘어짐	운동 장비에 충돌	공에 맞음	점프 후 착지를 잘못함	자동차/자전거등과 충돌	떨어짐
전 체	10,366	30.7	30.3	16.4	10.1	9.8	8.2	7.6	6.7	2.8	2.4
염좌	3,454	30.2	33.9	15.8	8.2	9.6	6.3	7.5	9.3	1.5	1.8
골절	678	13.9	30.7	26.4	15.9	11.8	12.1	13.4	7.7	4.9	5.0
탈구	210	22.4	26.7	25.2	15.7	12.4	20.0	11.9	6.2	10.0	3.8
열상	457	10.1	33.3	19.7	15.5	16.4	16.4	7.9	4.4	7.7	3.9
절단	46	8.7	23.9	6.5	15.2	19.6	32.6	17.4	2.2	21.7	8.7
찰과상	943	8.8	43.6	14.5	14.6	16.4	9.3	5.2	3.6	3.9	1.8
출혈	284	7.7	27.1	20.8	21.5	17.3	15.5	12.7	4.2	9.5	2.8
좌상	1,054	12.7	38.4	25.5	11.8	10.6	9.3	10.1	4.0	2.4	2.7
자상	78	14.1	21.8	17.9	33.3	14.1	14.1	3.8	9.0	12.8	1.3
통증	2,613	56.3	20.4	10.4	5.9	4.7	5.3	5.1	5.7	1.1	2.0
염증	193	47.7	19.7	10.9	8.8	8.3	6.7	5.7	6.7	1.6	3.6
파열	197	43.1	21.3	14.7	8.1	6.6	9.6	8.6	13.7	1.0	2.5
기타	159	33.3	13.2	14.5	6.9	7.5	6.9	8.2	4.4	4.4	0.0

※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10,366

참고 [학교안전공제중앙회] 부상 원인

- ◎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자료를 비교해본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생활스포츠인 조사’의 경우 ‘무리한 동작’(30.7%), ‘미끄러져 넘어짐’(30.3%) 등의 순이나,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자료를 살펴보면, ‘시설과 충돌’(30.2%), ‘사람과 충돌’(24.0%) 등의 순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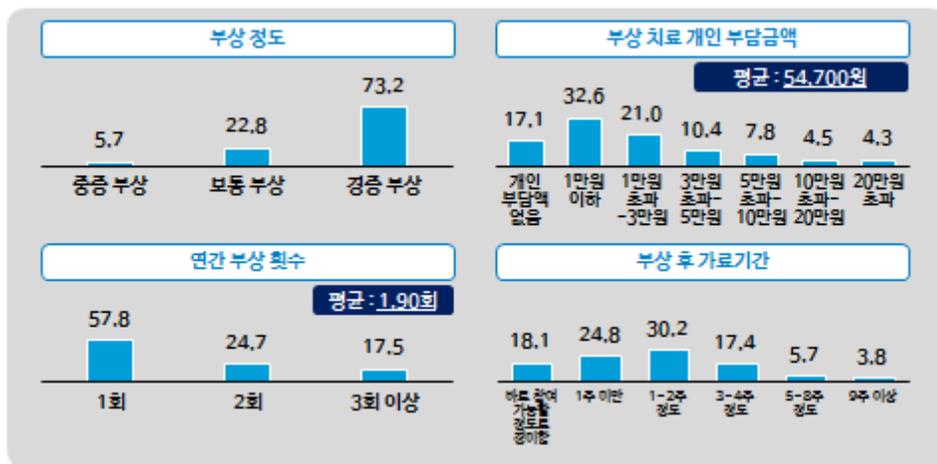
- ※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자료의 경우, 이미 소분류가 되어 있는 data로, 최대한 ‘생활 스포츠인’ 조사와 비교가능하게 리코드(재분류)함.
 그에 따른 분류는 다음과 같음.
 - 미끄러져 넘어짐 : 미끄러져 넘어짐_아스팔트, 자갈, 빙판 등의 분류
 - 물체에 걸려 넘어짐 : 넘어짐_아스팔트, 자갈, 빙판 등의 분류
 - 떨어짐 : 떨어짐_아스팔트, 자갈, 빙판 등의 분류
 - 충돌 : 접촉, 물체와의 충돌 등
 - 기타 : 질식, 정신적 장애, 전류/방사선 노출 등
- ※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10,366
- ※ 학교안전공제중앙회 부상 학생수, n=9,750

9) 부상 수준

- ▶ 부상 경험자들의 부상 수준을 살펴보면, 부상 정도는 ‘경증부상’이 73.2%로 가장 높았고 부상을 치료하기 위한 개인 부담금액은 평균 54,700원으로 나타남. 연간 부상 횟수는 평균 1.9회, 부상 후 가료기간은 ‘1-2주정도’가 30.2%, ‘1주 미만’이 24.8%로 나타남.

▮ 그림 Ⅲ-15 ▮ 부상 수준

(단위: %)



※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10,366

스포츠 안전사고 실태조사 -종합편

(1) 종목별 부상 수준

- ▶ 부상 경험률, 보통 이상 부상비율, 연간 부상 횟수, 개인부담 치료비, 3주 이상 가료비율을 모두 종합한 부상 수준을 종목별로 살펴보면, 축구, 자전거, 무도, 농구, 항공 스포츠가 상대적으로 위험한 종목으로 나타남.

【 표 Ⅲ-23 】 종목별 부상 수준

구 분	부상 경험률		부상 정도 (보통 이상)		연간 부상 횟수		치료비 개인부담액		3주 이상 가료비율		체크 개수	Dash Board 등급
	%	순위	%	순위	회	순위	만원	순위	%	순위		
등산	47.0	7	20.7	18	1.71	14	5.13	13	26.3	10	2	Yellow
축구	71.3	1	38.7	4	2.33	3	6.33	5	35.3	3	5	Red
자전거	52.5	4	35.6	6	2.02	7	5.41	10	21.9	17	4	Red
스키/스노보드	59.9	3	31.6	11	1.44	22	5.74	8	25.2	11	2	Yellow
무도	55.9	5	39.3	3	2.57	1	7.47	4	24.7	13	4	Red
아이스스케이팅	39.1	13	23.5	15	2.25	5	5.05	14	20.6	19	1	Green
인라인스케이팅	46.5	8	24.4	14	1.84	11	3.81	20	18.1	21	1	Green
보디빌딩(헬스)	40.5	12	27.2	12	2.38	2	7.71	3	33.1	4	3	Yellow
농구	64.5	2	38.3	5	2.25	5	5.66	9	31.1	7	5	Red
배드민턴	33.0	14	26.2	13	1.75	13	4.71	16	26.6	9	1	Green
걷기	29.2	16	17.5	21	1.85	10	5.22	12	24.8	12	1	Green
달리기	30.0	17	20.3	20	1.59	18	4.06	19	24.0	15	0	Green
수영	17.2	22	20.8	17	1.56	19	4.47	17	24.3	14	0	Green
골프/스쿠르골프	49.3	6	20.4	19	1.69	15	6.16	6	35.9	1	3	Yellow
볼링	32.0	15	9.6	23	1.50	21	2.47	23	15.1	22	0	Green
야구	44.7	9	32.2	10	1.61	17	4.36	18	31.2	6	3	Yellow
에어로빅	17.0	23	33.4	7	1.79	12	5.27	11	20.5	20	1	Green
테니스	43.8	10	32.6	9	1.67	16	4.83	15	32.9	5	3	Yellow
게이트볼	42.9	11	49.0	1	2.26	4	6.09	7	13.0	23	3	Yellow
요가	17.6	21	15.2	22	1.91	8	3.68	22	22.7	16	1	Green
탁구	19.5	20	22.6	16	1.56	19	3.69	21	21.0	18	0	Green
승마	19.7	18	32.7	8	1.35	23	8.39	2	35.5	2	3	Yellow
항공스포츠	19.7	18	42.3	2	1.87	9	9.8	1	30.0	8	4	Red

※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10,366 (부상 경험률은 기초조사 전체 응답자)

※ Dash Board 기법 설명

- 각 측정 항목별 순위 결과를 한 표에 열거함으로써 여러 분야(종목)의 종합적인 경향을 확인하는 데 용이한 기법
- 본 보고서에서는 종목별 부상 수준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함

※ Dash Board 등급 판정 기준

- 상위 10위 이내 해당 종목을 check, 5개 분야 중 4-5개 이상에 체크(Red) / 2-3개 체크(Yellow) / 0-1개 체크(Green)로 판정함

(2) 응답자 특성별 부상 수준

- ▶ 부상 경험률, 보통 이상 부상비율, 연간 부상 횟수, 개인부담 치료비, 3주 이상 가료비율을 모두 종합한 부상 수준을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종목 능숙도 상급자, 종목 경력 10-20년 미만자, 동호회 활동자, 남성, 30대에서 부상 수준이 높게 나타남.

【표 Ⅲ-24】 응답자 특성별 부상 수준

구분		부상 경험률		부상 정도 (보통 이상)		연간 부상 횟수		치료비 개인부담액		3주 이상 가료비율	
		%	순위	%	순위	회	순위	만원	순위	%	순위
종목 능숙도	초급	-	-	23.4	3	1.75	3	4.66	3	23.4	3
	중급	-	-	36.3	2	2.05	2	6.51	2	31.5	2
	상급	-	-	45.4	1	2.61	1	8.45	1	40.9	1
종목 경력	2년미만	-	-	23.7	5	1.67	5	4.05	5	20.7	5
	2년 이상-5년 미만	-	-	29.1	3	1.81	4	5.55	4	25.0	4
	5년이상-10년 미만	-	-	29.0	4	1.90	3	6.03	1	28.2	3
	10년 이상-20년 미만	-	-	30.2	2	2.06	1	5.89	2	29.3	2
동호회 활동	20년 이상	-	-	30.7	1	2.02	2	5.64	3	31.5	1
	동호회 활동	-	-	34.2	1	2.09	1	7.15	1	33.7	1
성별	동호회 미활동	-	-	25.6	2	1.80	2	4.50	2	23.4	2
	남성	66.6	1	30.9	1	1.94	1	5.93	1	29.4	1
연령별	여성	48.0	2	25.0	2	1.83	2	4.78	2	23.2	2
	20대	75.2	1	27.2	2	1.97	2	4.61	5	19.1	5
	30대	74.5	2	32.3	1	1.99	1	5.69	3	26.0	4
	40대	65.5	3	26.5	3	1.80	5	5.45	4	29.5	3
	50대	61.0	4	26.5	4	1.80	6	5.87	2	31.3	2
	60-64세	17.5	5	22.5	5	1.89	3	4.40	6	31.4	1
	65세 이상	9.7	6	20.6	6	1.86	4	6.98	1	17.5	6

※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10,366 (부상 경험률은 기초조사 전체 응답자)

※ 부상 경험률의 경우 기초조사 결과이므로 종목 활동 관련 특성별 분석 결과가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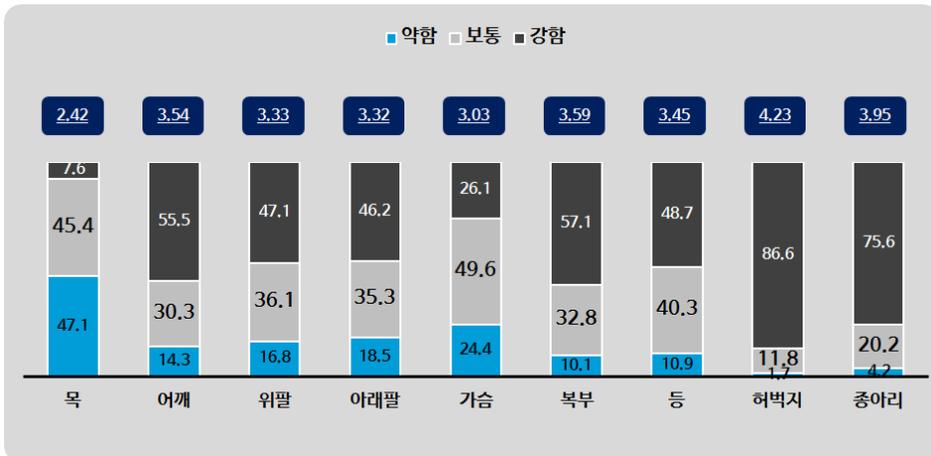
※ Dash Board 체크 기준

- 각 특성별 상위 순위(3개 이하로 구분되는 특성-1개, 4개 이상 구분 특성-2개)를 체크함
- 본 페이지에서는 체크 개수 카운트 및 등급판정은 하지 않고 각 응답자 특성별 경향을 파악하는 용도로 사용함

참고 [전문 체육 지도자 조사] 신체 부위별 훈련 강도

- ◎ ‘전문 체육 지도자 조사’에서 ‘각 신체부위별 훈련강도’를 질문한 결과, ‘허벅지’ 훈련 강도가 평균 4.2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 ‘종아리’(3.95), 복부’(3.59) 순이었으며, ‘목’(2.42)의 훈련 강도가 가장 낮다고 평가함.
- 아래 질문은 ‘전문 체육 지도자 조사’에서만 질문한 문항이며, 각 신체부위별로 n=119임.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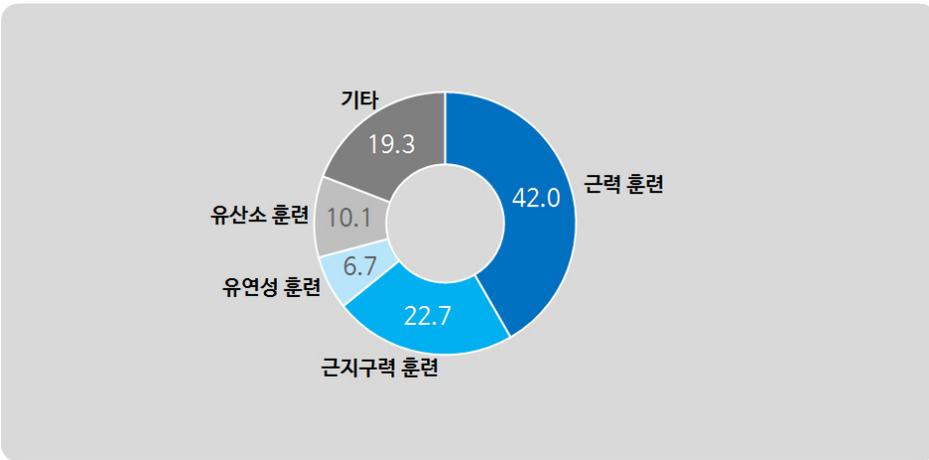


※ 전문 체육 지도자 조사 전체 응답자, n=119
 ※ 상단 네모 : 평균

참고 [전문 체육 지도자 조사] 가장 부상이 많이 발생하는 훈련

- ◎ ‘전문 체육 지도자 조사’에서 ‘가장 부상이 많이 발생하는 훈련’을 질문한 결과, ‘근력 훈련’이 42.0%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이어 ‘근지구력 훈련’(22.7%), ‘유산소 훈련’(10.1%) 등의 순임.
- 아래 질문은 ‘전문 체육 지도자 조사’에서만 질문한 문항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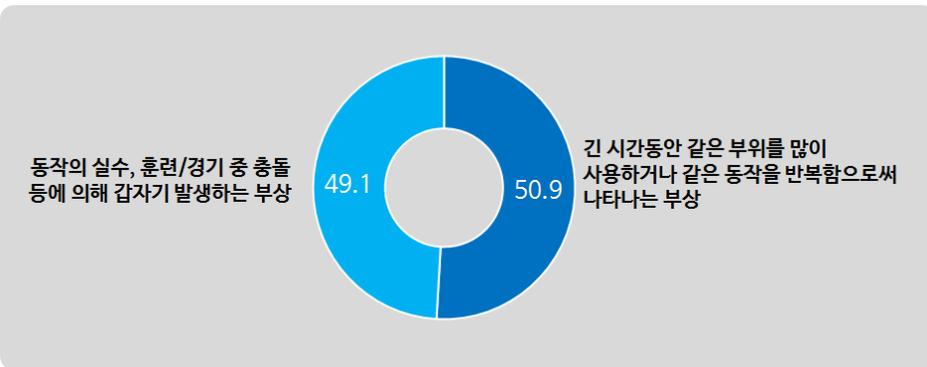


※ 전문 체육 지도자 조사 전체 응답자, n=119

참고 [전문 체육 지도자 조사] 같은 동작 반복/충돌로 인한 부상

- ‘전문 체육 지도자 조사’에서 ‘긴 시간동안 같은 부위를 많이 사용하거나 같은 동작을 반복함으로써 나타나는 부상’의 비율과 ‘동작의 실수, 훈련/경기 중 충돌 등에 의해 갑자기 발생하는 부상’의 비율의 합을 100%로 두고, 각의 비율을 질문한 결과, 절반 수준에서 비슷하게 엇갈림.
- 그러나, 종목별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그 비율이 다소 다르게 나타남. ‘보디빌딩’, 수영, 야구, 테니스 등은 ‘반복동작’이, 축구, ‘사이클’, 농구 등은 ‘갑자기 발생’ 비율이 높음.
- 아래 질문은 ‘전문 체육 지도자 조사’에서만 질문한 문항임.

(단위: %)



※ 전문 체육 지도자 조사 전체 응답자, n=119

구분	반복동작 부상 빈도(%)	갑자기 발생 부상 빈도(%)
전체	50.9	49.1
축구	34.6	65.4
사이클	37.7	62.3
스키	51.4	48.6
태권도	33.1	66.9
보디빌딩	64.6	35.4
농구	39.5	60.5
육상	55.8	44.2
수영	61.7	38.3
야구	73.2	26.8
테니스	63.6	3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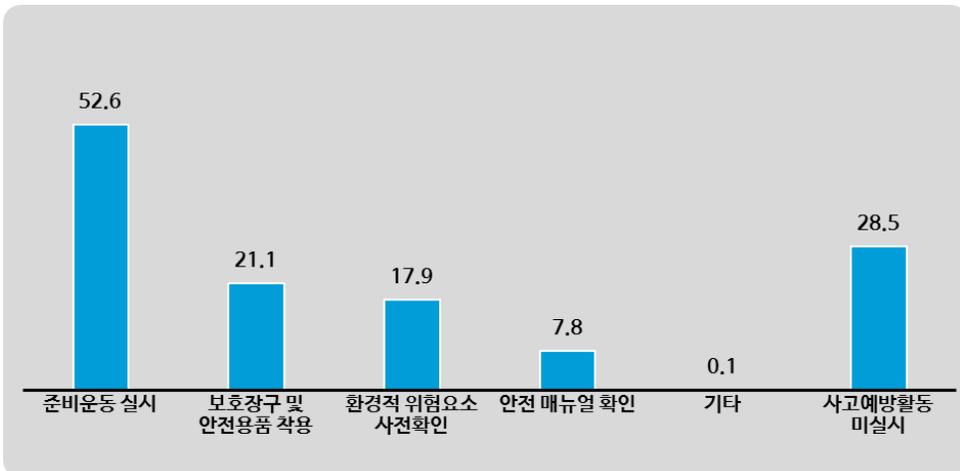
2 부상 발생 환경

1) 부상 전 사고예방활동 현황

- ▶ 부상 전 사고예방을 위한 활동을 살펴보면 ‘준비운동 실시’라는 응답이 52.6%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보호장구 및 안전용품 착용’(21.1%), ‘환경적 위험요소 사전확인’(17.9%), ‘안전매뉴얼 확인’(7.8%) 순임.
- ▶ 사고예방활동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28.5%로 나타남.

■ 그림 Ⅲ-16 ■ 부상 전 사고예방활동

(단위: %, 복수응답)



※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10,366

스포츠 안전사고 실태조사 -종합편

(1) 종목별 사고예방활동 현황

- ▶ 사고예방활동을 종목별로 살펴보면, ‘준비운동 실시’는 보디빌딩(헬스)(68.4%), 수영(67.7%), 축구(66.8%) 순, ‘아무런 행동을 안함’은 걷기(60.8%), 볼링(57.1%), 등산(42.7%) 순으로 높게 나타남(종목별 상위 3순위).

【 표 III-25 】 종목별 사고예방활동 현황

(단위: %)

구분	사례수	준비운동 실시	보호장구 착용	위험요소 사전확인	안전 매뉴얼 확인	기타	아무런 행동을 안함
전 체	10,366	52.6	21.1	17.9	7.8	0.1	28.5
등산	1,028	40.7	14.3	14.7	6.2	0.4	42.7
축구	1,013	66.8	20.7	16.9	4.3	0.1	19.2
자전거	883	31.7	33.9	23.1	6.2	0.2	35.1
스키/스노보드	729	52.0	61.7	23.0	14.8	0.1	14.1
무도	336	63.1	36.3	33.3	14.9	0.0	8.3
아이스스케이팅	311	47.9	54.7	24.1	11.6	0.0	12.5
인라인스케이팅	160	36.3	56.3	23.1	4.4	0.0	19.4
보디빌딩(헬스)	713	68.4	9.1	14.9	8.8	0.1	20.9
농구	711	53.2	8.4	17.0	3.9	0.0	34.3
배드민턴	714	54.8	9.9	19.9	5.3	0.0	28.2
걷기	314	30.3	4.5	8.9	2.2	0.0	60.8
달리기(마라톤포함)	713	56.5	3.9	12.2	4.9	0.1	34.9
수영	313	67.7	13.7	17.6	10.5	0.0	19.2
골프/스크린골프	329	54.1	8.8	11.9	7.9	0.0	35.3
볼링	312	26.0	14.7	9.6	2.2	0.6	57.1
야구	314	61.1	35.7	18.8	6.7	0.0	20.7
에어로빅	302	65.2	9.6	15.6	9.3	0.0	21.2
테니스	310	65.2	11.9	15.2	9.4	0.0	22.9
게이트볼	100	27.0	20.0	34.0	14.0	0.0	40.0
요가	211	64.5	3.8	8.5	6.6	0.9	27.0
탁구	310	49.4	6.1	17.7	5.8	0.0	36.1
승마	110	56.4	50.9	21.8	25.5	0.0	9.1
항공스포츠	130	63.8	51.5	34.6	40.0	0.0	3.8

※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10,366

Ⅲ. 조사 결과

(2) 응답자 특성별 사고예방활동 현황

- ▶ 사고예방활동을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준비운동 실시’는 종목능숙도가 높을수록(상급 : 61.3%), 동호회 활동자(64.1%)에서,
‘아무런 행동을 안함’은 종목능숙도가 낮을수록(초급 : 32.0%), ‘동호회 비활동자’(34.5%)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Ⅲ-26 | 응답자 특성별 사고예방활동 현황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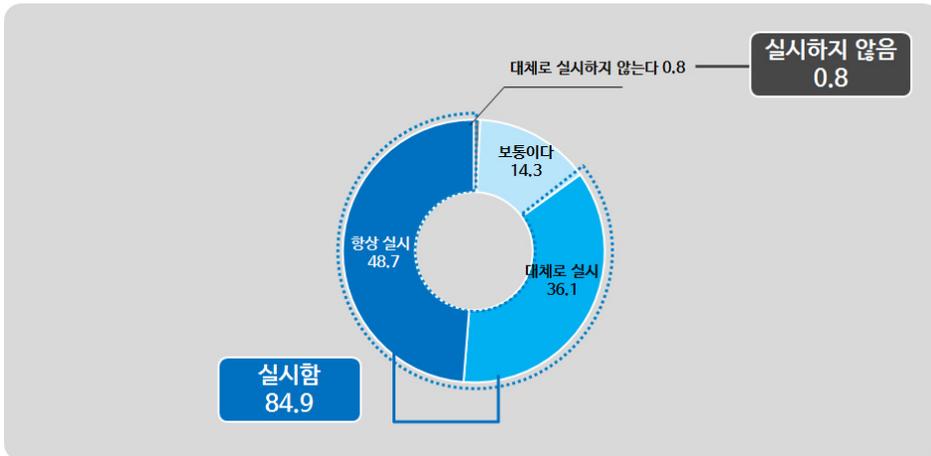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준비운동 실시	보호장구 착용	위험요소 사전확인	안전 매뉴얼 확인	기타	아무런 행동을 안함
전 체		10,366	52.6	21.1	17.9	7.8	0.1	28.5
종목 능숙도	초급	6,834	49.4	19.2	16.0	6.6	0.1	32.0
	중급	2,725	58.1	24.1	20.8	9.4	0.2	22.4
	상급	807	61.3	27.5	24.2	12.1	0.1	20.2
종목 경력	2년미만	2,099	50.3	18.8	15.1	7.5	0.0	31.3
	2년 이상-5년 미만	1,952	52.9	22.0	19.5	9.1	0.1	26.1
	5년이상-10년미만	2,207	53.9	22.7	18.4	8.8	0.2	25.7
	10년 이상-20년 미만	2,406	52.2	22.5	17.9	7.1	0.2	29.5
	20년 이상	1,702	53.9	19.2	18.8	6.1	0.2	30.1
동호회 활동	동호회 활동	3,494	64.1	27.8	23.6	10.4	0.1	16.7
	동호회 미활동	6,872	46.7	17.7	15.0	6.4	0.1	34.5
성별	남성	6,110	55.8	20.6	18.6	7.1	0.1	26.5
	여성	4,256	48.0	21.9	16.8	8.7	0.2	31.4
연령별	20대	1,627	47.2	19.3	16.8	7.7	0.1	32.0
	30대	3,649	53.7	23.7	19.7	8.4	0.1	24.9
	40대	3,171	55.3	21.2	18.0	6.5	0.1	27.0
	50대	1,564	51.7	18.4	15.6	8.8	0.2	33.6
	60-64세	258	53.1	17.4	14.0	11.2	0.4	32.2
	65세 이상	97	28.9	8.2	11.3	3.1	0.0	62.9

※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10,366

참고 [전문 체육 지도자 조사] 지도 전 안전사고 예방 교육

- ◎ ‘전문 체육 지도자 조사’에서 ‘지도 전, 선수 대상 안전사고 예방 교육 실시 여부’를 질문한 결과, ‘실시한다’는 응답이 84.9%(항상 실시 48.7%+대체로 실시 36.1%)로 대부분임.
- 전문체육선수들을 지도하는 지도자로, 다소 ‘모범적이고 도덕적인 응답’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아래 질문은 ‘전문 체육 지도자 조사’에서만 질문한 문항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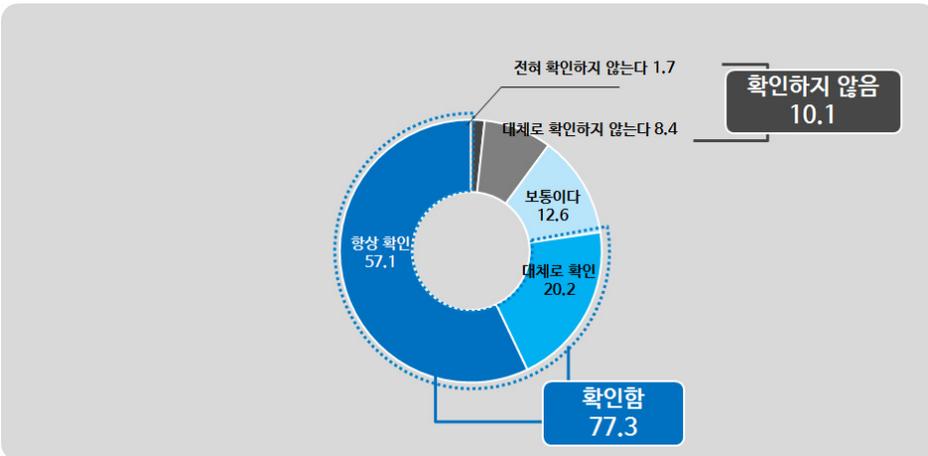
※ 전문 체육 지도자 조사 전체 응답자, n=119

실시하지 않는 이유(오픈 응답, n=18)	(%)
선수들이 인지하고 있다	27.8
항상 하는 훈련이다	16.7
평소에 자주 언급한다	11.1
시간이 부족하다	11.1
전문 지식이 부족하다	5.6
안전교육을 지켜워한다	5.6
부상이 거의 없는 종목이다	5.6
라이프가드를 운영하고 있다	5.6
없음	16.7
모름/무응답	5.6

참고 [전문 체육 지도자 조사] 지도 전 보호장구 착용 확인

- ◎ ‘전문 체육 지도자 조사’에서 ‘지도 전, 선수의 보호장구 착용 여부’를 질문한 결과, ‘확인한다’는 응답이 77.3%(항상 확인 57.1%+대체로 확인 20.2%)로 대부분임.
- 전문체육선수들을 지도하는 지도자로, 다소 ‘모범적이고 도덕적인 응답’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아래 질문은 ‘전문 체육 지도자 조사’에서만 질문한 문항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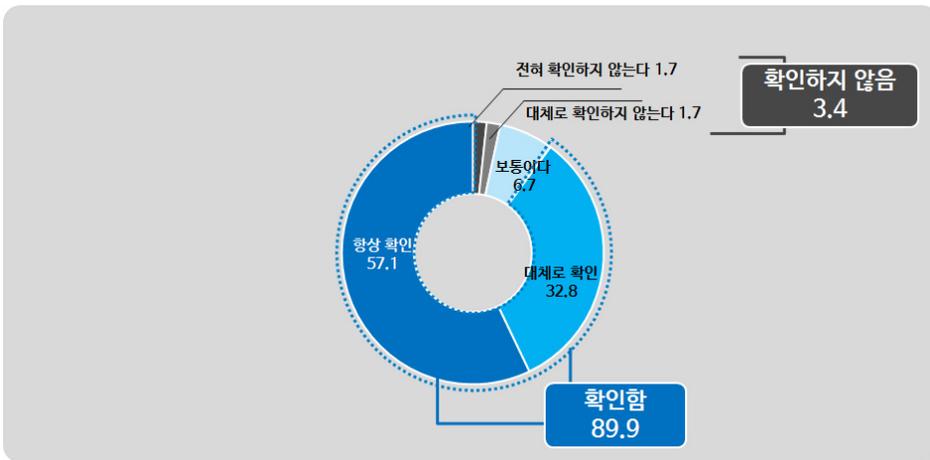
※ 전문 체육 지도자 조사 전체 응답자, n=119

확인하는 이유(항상확인+대체로확인+보통, n=107, 복수응답)	(%)
선수 보호 차원에서	93.5
스포츠안전 관련 교육에서 중요성을 강조	16.8
개인 또는 팀 전력 유지를 위하여	13.1
경기 규칙상 보호장구 착용이 의무라서	8.4
사고로 인한 치료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3.7
주변 사람들의 조언	1.9
기타	2.8

참고 [전문 체육 지도자 조사] 지도 전 위험 물품 착용 확인

- ◎ ‘전문 체육 지도자 조사’에서 ‘지도 전, 선수의 위험 물품 착용 확인 여부’를 질문한 결과, ‘확인한다’는 응답이 89.9%(항상 확인 57.1%+대체로 확인 32.8%)로 대부분임.
- 전문체육선수들을 지도하는 지도자로, 다소 ‘모범적이고 도덕적인 응답’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보호장구 착용’보다는 ‘위험물품 착용’ 확인에 더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아래 질문은 ‘전문 체육 지도자 조사’에서만 질문한 문항임.

(단위: %)



※ 전문 체육 지도자 조사 전체 응답자, n=119

확인하는 이유(항상확인+대체로확인+보통, n=115, 복수응답)	(%)
선수 보호 차원에서	91.3
스포츠안전 관련 교육에서 중요성을 강조	17.4
개인 또는 팀 전력 유지를 위하여	14.8
경기 규칙상 위험물 소지여부 확인이 의무라서	11.3
사고로 인한 치료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2.6
주변 사람들의 조언	1.7
기타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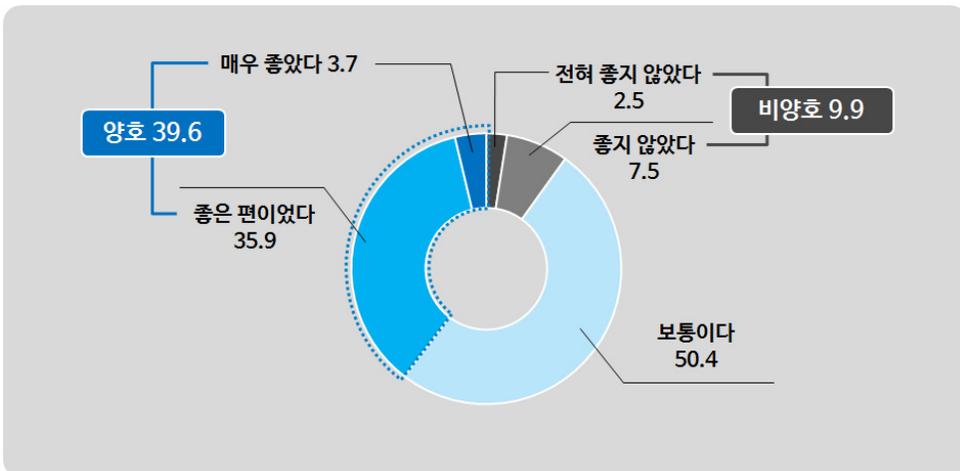
2) 부상 시 착용한 보호장구 및 안전용품의 상태

- ▶ 부상 시 착용한 보호장구 및 안전용품의 상태는 ‘양호했다’는 응답이 39.6%로, ‘불량했다’(9.9%)는 응답에 비해 3배가량 높게 나타남.

‘보통이었다’는 응답은 50.4%임.

【그림 Ⅲ-17】 부상 시 착용한 보호장구 및 안전용품의 상태

(단위: %)



※ 실태조사 부상 시 보호장구 및 안전용품 착용자, n=2,192

스포츠 안전사고 실태조사 -종합편

- ▶ 보호장구 및 안전용품 상태를 종목별로 살펴보면,
 ‘양호’라는 응답은 자전거(50.5%), 등산(50.3%), 승마(48.2%) 순
 으로 높게 나타남.

【 표 III-27 】 종목별 착용한 보호장구 및 안전용품의 상태

(단위: %)

구분	사례수	전혀 좋지 않음	좋지 않은 편	보통	좋은 편	매우 좋음	불량	양호
전 체	2,192	2.5	7.5	50.4	35.9	3.7	9.9	39.6
등산	147	2.0	6.8	40.8	46.9	3.4	8.8	50.3
축구	210	3.3	8.1	49.0	38.1	1.4	11.4	39.5
자전거	299	1.3	6.7	41.5	45.2	5.4	8.0	50.5
스키/스노보드	450	0.7	3.6	53.1	40.2	2.4	4.2	42.7
무도	122	4.9	8.2	50.0	32.0	4.9	13.1	36.9
아이스스케이팅	170	1.8	12.9	62.4	20.6	2.4	14.7	22.9
인라인스케이팅	90	1.1	5.6	50.0	37.8	5.6	6.7	43.3
보디빌딩(헬스)	65	0.0	9.2	44.6	40.0	6.2	9.2	46.2
농구	60	5.0	10.0	71.7	13.3	0.0	15.0	13.3
배드민턴	71	4.2	5.6	54.9	29.6	5.6	9.9	35.2
걷기	14	0.0	7.1	57.1	35.7	0.0	7.1	35.7
달리기	28	0.0	7.1	50.0	32.1	10.7	7.1	42.9
수영	43	4.7	11.6	41.9	27.9	14.0	16.3	41.9
골프	29	10.3	6.9	48.3	27.6	6.9	17.2	34.5
볼링	46	0.0	17.4	50.0	30.4	2.2	17.4	32.6
야구	112	0.0	6.3	55.4	34.8	3.6	6.3	38.4
에어로빅	29	17.2	17.2	37.9	27.6	0.0	34.5	27.6
테니스	37	5.4	2.7	48.6	43.2	0.0	8.1	43.2
게이트볼	20	10.0	10.0	55.0	20.0	5.0	20.0	25.0
요가	8	12.5	12.5	50.0	25.0	0.0	25.0	25.0
탁구	19	10.5	26.3	47.4	15.8	0.0	36.8	15.8
승마	56	3.6	7.1	41.1	42.9	5.4	10.7	48.2
항공스포츠	67	3.0	7.5	61.2	22.4	6.0	10.4	28.4

※ 실태조사 부상 시 보호장구 및 안전용품 착용자, n=2,1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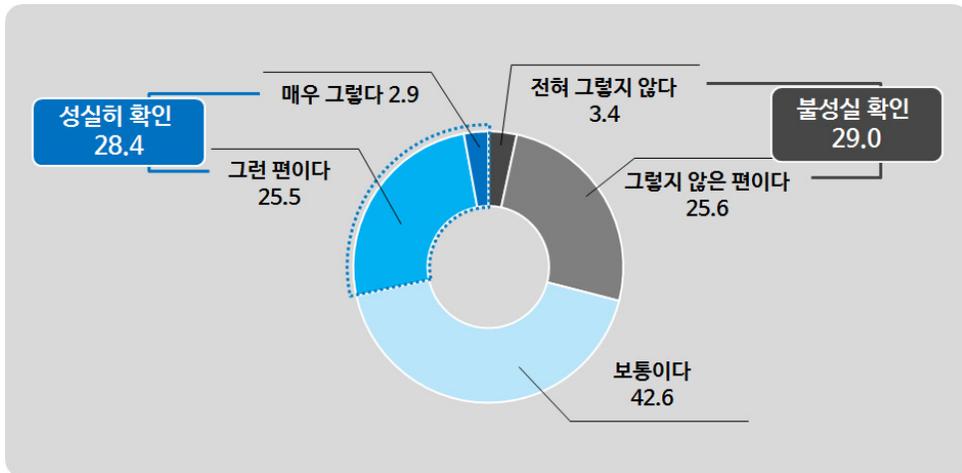
※ 개별 사례수 20표본 이하 결과는 해석 시 주의를 요함

3) 부상 전 환경적 위험요소 확인 현황

- ▶ 부상 전 환경적 위험요소에 대한 사전 확인여부를 질문한 결과, ‘확인하지 않거나 충실히 확인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29.0%, ‘충실히 확인했다’는 응답이 28.4%로 비슷하게 나타남.
- ▶ 10명 중 3명 정도만이 사전에 환경적 위험요소를 성실히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남.

■ 그림 Ⅲ-18 ■ 부상 전 환경적 위험요소 확인 현황

(단위: %)



※ 실태조사 부상 전 환경적 위험요소 확인자, n=1,855

스포츠 안전사고 실태조사 -종합편

- ▶ 환경적 위험요소를 ‘충실히 확인’했다는 응답은 항공스포츠(42.2%), 보디빌딩(헬스)(38.7%), 승마(37.5%) 순, ‘확인하지 않았거나 충실히 확인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게이트볼(41.2%), 무도(41.1%), 축구(36.8%) 순으로 높게 나타남.

▮ 표 Ⅲ-28 ▮ 종목별 부상 전 환경적 위험요소 확인 현황

(단위: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은 편	보통	그런 편	매우 그럼	불성실 확인	충실히 확인
전 체	1,855	3.4	25.6	42.6	25.5	2.9	29.0	28.4
등산	151	1.3	23.2	45.7	27.2	2.6	24.5	29.8
축구	171	7.0	29.8	42.7	19.3	1.2	36.8	20.5
자전거	204	2.5	28.9	39.2	27.0	2.5	31.4	29.4
스키/스노보드	168	0.0	19.0	47.0	29.8	4.2	19.0	33.9
무도	112	6.3	34.8	34.8	20.5	3.6	41.1	24.1
아이스스케이팅	75	1.3	29.3	48.0	18.7	2.7	30.7	21.3
인라인스케이팅	37	5.4	24.3	51.4	18.9	0.0	29.7	18.9
보디빌딩(헬스)	106	3.8	25.5	32.1	30.2	8.5	29.2	38.7
농구	121	5.0	18.2	52.1	24.0	0.8	23.1	24.8
배드민턴	142	2.1	30.3	41.5	25.4	0.7	32.4	26.1
걷기	28	3.6	28.6	35.7	32.1	0.0	32.1	32.1
달리기	87	2.3	18.4	49.4	28.7	1.1	20.7	29.9
수영	55	5.5	21.8	38.2	30.9	3.6	27.3	34.5
골프	39	2.6	33.3	35.9	20.5	7.7	35.9	28.2
볼링	30	0.0	30.0	40.0	26.7	3.3	30.0	30.0
야구	59	5.1	15.3	54.2	25.4	0.0	20.3	25.4
에어로빅	47	8.5	23.4	51.1	17.0	0.0	31.9	17.0
테니스	47	0.0	27.7	40.4	27.7	4.3	27.7	31.9
게이트볼	34	8.8	32.4	32.4	23.5	2.9	41.2	26.5
요가	18	5.6	27.8	22.2	33.3	11.1	33.3	44.4
탁구	55	0.0	34.5	38.2	27.3	0.0	34.5	27.3
승마	24	0.0	16.7	45.8	25.0	12.5	16.7	37.5
항공스포츠	45	6.7	13.3	37.8	33.3	8.9	20.0	42.2

※ 실태조사 부상 전 환경적 위험요소 확인자, n=1,8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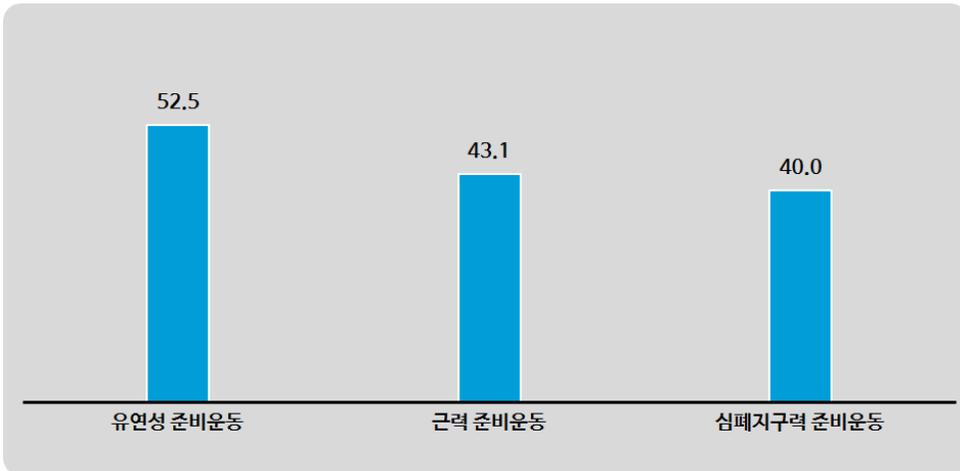
※ 개별 사례수 20표본 이하 결과는 해석 시 주의를 요함

4) 부상 전 준비운동 현황

- ▶ 준비운동을 실시했다는 응답자(n=5,451)가 부상 전 실시한 준비운동은 ‘유연성’(52.5%), ‘근력’(43.1%), ‘심폐지구력’(40.0%) 순으로 나타남.

■ 그림 Ⅲ-19 ■ 부상 전 준비운동 현황(Top2: 매우긍정+긍정 비율)

(단위: %)



※ 실태조사 부상 전 준비운동 실시자, n=5,451

※ Top2: [4]긍정과 [5]매우 긍정의 합산 비율

스포츠 안전사고 실태조사 -종합편

- ▶ 실시한 준비운동을 종목별로 살펴보면 ‘유연성 운동’은 에어로빅(59.9%), 수영(58.5%), 승마(58.1%) 순,
 ‘근력 운동’은 무도(54.7%), 에어로빅(51.8%), 승마(50.0%) 순,
 ‘심폐지구력 운동’은 무도(53.8%), 승마(53.2%), 에어로빅(44.7%) 순으로 나타남.

【 표 III-29 】 종목별 부상 전 준비운동 현황(Top2: 매우긍정+긍정 비율)

(단위: %)

구분	사례수	유연성 준비운동	근력 준비운동	심폐지구력 준비운동
전 체	5,451	52.5	43.1	40.0
등산	418	56.7	40.9	38.5
축구	677	53.3	43.0	38.1
자전거	280	52.5	43.6	42.9
스키/스노보드	379	54.9	40.4	34.0
무도	212	49.1	54.7	53.8
아이스스케이팅	149	51.0	44.3	39.6
인라인스케이팅	58	51.7	43.1	37.9
보디빌딩(헬스)	488	54.3	44.3	42.2
농구	378	46.8	40.7	39.4
배드민턴	391	48.3	39.1	34.8
견기	95	48.4	32.6	43.2
달리기	403	54.1	43.2	41.9
수영	212	58.5	44.3	42.5
골프	178	51.1	42.7	37.6
볼링	81	45.7	28.4	27.2
야구	192	52.6	45.8	37.0
에어로빅	197	59.9	51.8	44.7
테니스	202	51.0	44.6	37.1
게이트볼	27	37.0	37.0	40.7
요가	136	47.8	44.1	41.9
탁구	153	49.0	39.2	42.5
승마	62	58.1	50.0	53.2
항공스포츠	83	50.6	49.4	44.6

※ 실태조사 부상 전 준비운동 실시자, n=5,4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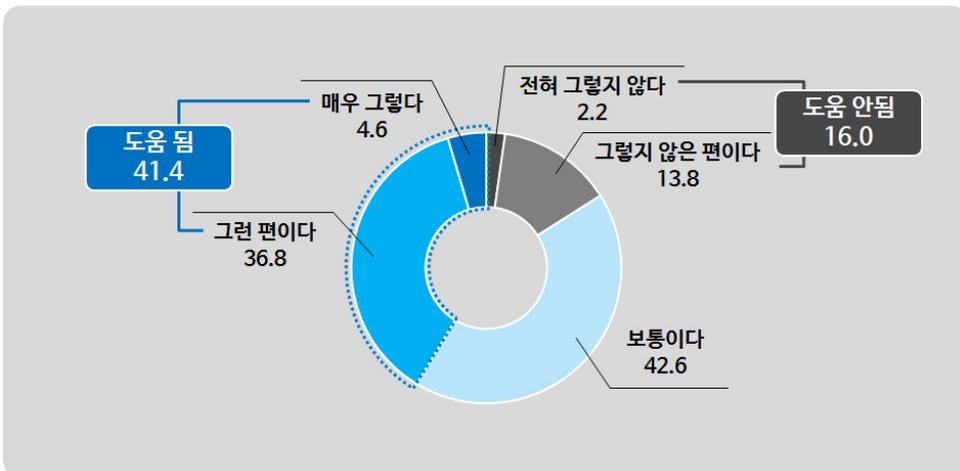
※ Top2: [4]긍정과 [5]매우 긍정의 합산 비율

5) 부상 전 확인한 안전매뉴얼 부상 방지 도움 정도

- ▶ 안전매뉴얼이 부상 방지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41.4%로, ‘도움되지 않는다’(16.0%)는 응답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나타남.

Ⅰ 그림 Ⅲ-20 Ⅰ 안전매뉴얼 부상 방지 도움 정도

(단위: %)



※ 실태조사 부상 전 안전매뉴얼 확인자, n=805

스포츠 안전사고 실태조사 -종합편

- ▶ 안전매뉴얼이 부상 방지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을 종목별로 살펴보면 승마(60.7%), 수영(57.6%), 골프/스크린골프(53.8%), 무도(52.0%)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표 III-30 ▮ 종목별 안전매뉴얼 부상 방지 도움 정도

(단위: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도움 안됨	도움 됨
전 체	805	2.2	13.8	42.6	36.8	4.6	16.0	41.4
등산	64	0.0	7.8	43.8	43.8	4.7	7.8	48.4
축구	44	6.8	11.4	38.6	43.2	0.0	18.2	43.2
자전거	55	3.6	14.5	43.6	30.9	7.3	18.2	38.2
스키/스노보드	108	0.9	13.0	41.7	42.6	1.9	13.9	44.4
무도	50	2.0	18.0	28.0	44.0	8.0	20.0	52.0
아이스스케이팅	36	2.8	13.9	52.8	22.2	8.3	16.7	30.6
인라인스케이팅	7	0.0	0.0	57.1	42.9	0.0	0.0	42.9
보디빌딩(헬스)	63	1.6	14.3	44.4	30.2	9.5	15.9	39.7
농구	28	0.0	17.9	50.0	25.0	7.1	17.9	32.1
배드민턴	38	0.0	18.4	50.0	28.9	2.6	18.4	31.6
걷기	7	0.0	28.6	42.9	28.6	0.0	28.6	28.6
달리기	35	0.0	25.7	31.4	40.0	2.9	25.7	42.9
수영	33	3.0	0.0	39.4	54.5	3.0	3.0	57.6
골프/스크린골프	26	0.0	7.7	38.5	42.3	11.5	7.7	53.8
볼링	7	28.6	28.6	14.3	28.6	0.0	57.1	28.6
야구	21	0.0	14.3	38.1	42.9	4.8	14.3	47.6
에어로빅	28	3.6	17.9	39.3	39.3	0.0	21.4	39.3
테니스	29	3.4	24.1	44.8	24.1	3.4	27.6	27.6
게이트볼	14	14.3	28.6	35.7	21.4	0.0	42.9	21.4
요가	14	0.0	0.0	71.4	28.6	0.0	0.0	28.6
탁구	18	0.0	11.1	72.2	16.7	0.0	11.1	16.7
승마	28	0.0	7.1	32.1	53.6	7.1	7.1	60.7
항공스포츠	52	3.8	11.5	46.2	32.7	5.8	15.4	38.5

※ 실태조사 부상 전 안전매뉴얼 확인자, n=8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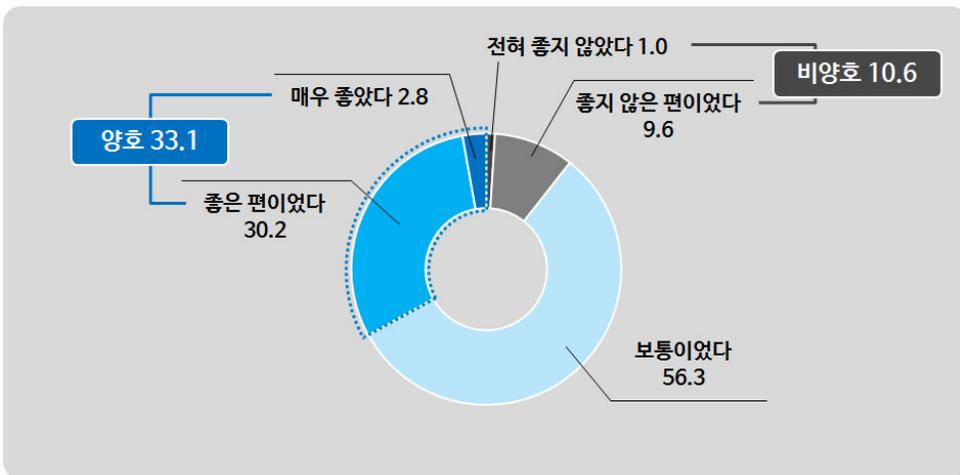
※ 개별 사례수 20표본 이하 결과는 해석 시 주의를 요함

6) 부상 전 신체상태

- ▶ 부상 전 신체상태가 ‘양호’했다는 응답이 33.1%로, ‘비양호’했다는 응답(10.6%)에 비해 3배 이상 높았음.
- ▶ 그러나 10명 중 3명만이 신체상태가 양호한 상태에서 운동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남.

■ 그림 Ⅲ-21 ■ 부상 전 신체상태

(단위: %)



※ 실태조사 전체응답자, n=10,366

스포츠 안전사고 실태조사 -종합편

- ▶ 부상 전 신체상태를 종목별로 살펴보면, ‘양호’라는 응답은 인라인스케이팅(45.0%), 스키/스노보드(43.3%), 아이스스케이팅(41.5%) 순,
‘비양호’라는 응답은 게이트볼(27.0%), 에어로빅(23.8%), 무도(17.9%) 순으로 높게 나타남.

【 표 III-31 】 종목별 부상 전 신체상태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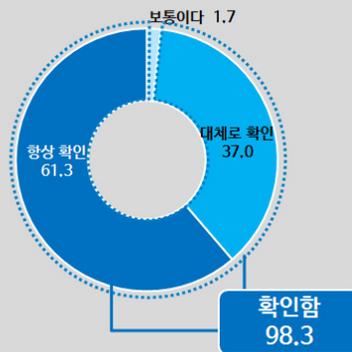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전혀 좋지 않았음	좋지 않은 편	보통	좋은 편	매우 좋았음	비양호	양호
전 체	10,366	1.0	9.6	56.3	30.2	2.8	10.6	33.1
등산	1,028	0.3	5.5	60.5	31.8	1.8	5.8	33.7
축구	1,013	1.0	8.3	57.2	31.5	2.1	9.3	33.6
자전거	883	0.7	9.2	49.7	36.6	3.9	9.9	40.4
스키/스노보드	729	1.0	5.5	50.2	40.7	2.6	6.4	43.3
무도	336	1.5	16.4	56.3	21.4	4.5	17.9	25.9
아이스스케이팅	311	1.9	7.7	48.9	35.7	5.8	9.6	41.5
인라인스케이팅	160	0.0	6.9	48.1	40.0	5.0	6.9	45.0
보디빌딩(헬스)	713	1.1	13.3	62.4	21.0	2.1	14.4	23.1
농구	711	1.5	8.2	54.0	32.6	3.7	9.7	36.3
배드민턴	714	0.8	10.9	56.3	29.6	2.4	11.8	31.9
걷기	314	0.6	9.2	63.7	23.9	2.5	9.9	26.4
달리기	713	0.4	10.1	60.7	27.3	1.4	10.5	28.8
수영	313	1.3	10.2	56.9	28.4	3.2	11.5	31.6
골프	329	0.3	10.6	62.3	23.4	3.3	10.9	26.7
볼링	312	0.0	6.7	57.1	31.4	4.8	6.7	36.2
야구	314	1.0	3.8	55.7	36.3	3.2	4.8	39.5
에어로빅	302	4.3	19.5	50.0	23.8	2.3	23.8	26.2
테니스	310	2.3	11.3	57.1	26.8	2.6	13.5	29.4
게이트볼	100	5.0	22.0	48.0	23.0	2.0	27.0	25.0
요가	211	1.4	15.6	63.5	18.0	1.4	17.1	19.4
탁구	310	0.6	11.9	55.5	29.7	2.3	12.6	31.9
승마	110	0.9	11.8	51.8	30.9	4.5	12.7	35.5
항공스포츠	130	1.5	8.5	56.2	30.0	3.8	10.0	33.8

※ 실태조사 전체응답자, n=10,366

참고 [전문 체육 지도자 조사] 지도 전, 선수 컨디션 확인

- ◎ ‘전문 체육 지도자 조사’에서 ‘지도 전 선수의 건강(컨디션) 확인 여부’를 질문한 결과, ‘확인한다’는 응답이 98.3%(항상 확인 61.3%+대체로 확인 37.0%)로 거의 모두 확인하고 있음.
- ‘보통이다’가 1.7%로, ‘확인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없음.
- 전문체육선수들을 지도하는 지도자로, 다소 ‘모범적이고 도덕적인 응답’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아래 질문은 ‘전문 체육 지도자 조사’에서만 질문한 문항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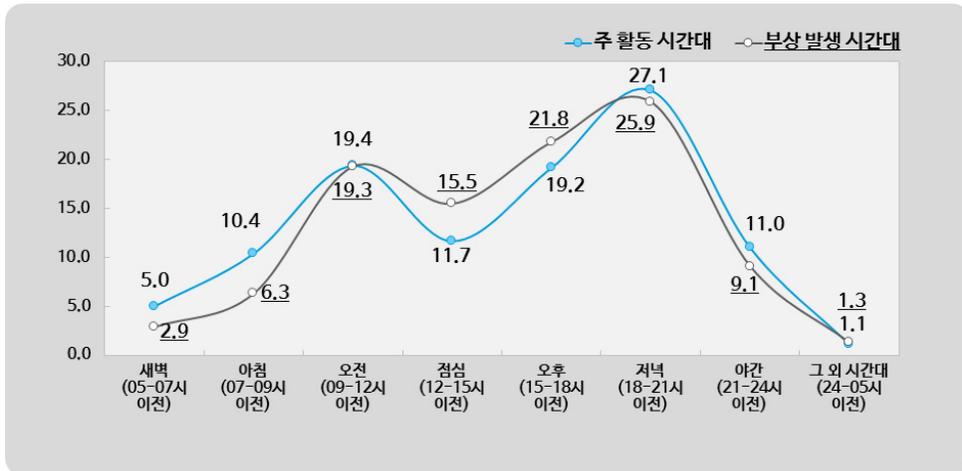
※ 전문 체육 지도자 조사 전체 응답자, n=119

7) 부상 발생 시각

- ▶ 전반적으로 생활 스포츠의 ‘주 활동 시간대’와 ‘부상 발생 시간대’가 비슷하게 나타나 활동자 수 증가에 따라 자연스럽게 부상자 수도 증가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음.

■ 그림 III-22 ■ 부상 발생 주요 시각

(단위: %)



※ 주요 활동 시간대 : 기초조사 전체 응답자, n=3,031

※ 부상 발생 시간대 :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10,366

Ⅲ. 조사 결과

▶ 다수의 종목들이 주 활동 시간대와 부상 발생 시간대가 유사한 패턴, 즉 활동 인구가 많은 시간대에 부상도 많이 일어나는 정상분포를 보이고 있으나 등산, 축구, 달리기, 수영, 야구, 게이트볼 등 6개 종목은 특정 시간대에 부상 발생이 집중되는 이상분포를 보임.

○ 등산과 축구는 오전 시간대(09시-12시 이전), 달리기와 수영은 저녁 시간대(18시-21시 이전)에 부상이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야구는 점심 시간대(12시-15시 이전), 게이트볼은 오후 시간대(15시-18시 이전)에 활동인구 대비 부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음.

■ 표 Ⅲ-32 ■ 종목별 부상발생 시간 패턴

구분	부상 발생시간 패턴	이상 시간대	구분	부상 발생시간 패턴	이상 시간대
등산	이상 패턴	오전 시간대(09-12시 이전)	수영	이상 패턴	저녁 시간대(18-21시 이전)
축구	이상 패턴	오전 시간대(09-12시 이전)	골프/스크린골프	정상 패턴	-
자전거	정상 패턴	-	볼링	정상 패턴	-
스키/스노보드	정상 패턴	-	야구	이상 패턴	점심 시간대(12-15시 이전)
무도	정상 패턴	-	에어로빅	정상 패턴	-
아이스스케이팅	정상 패턴	-	테니스	정상 패턴	-
인라인스케이팅	정상 패턴	-	게이트볼	이상 패턴	오후 시간대(15-18시 이전)
보디빌딩(헬스)	정상 패턴	-	요가	정상 패턴	-
농구	정상 패턴	-	탁구	정상 패턴	-
배드민턴	정상 패턴	-	승마	정상 패턴	-
걷기	정상 패턴	-	항공스포츠	정상 패턴	-
달리기	이상 패턴	저녁 시간대(18-21시 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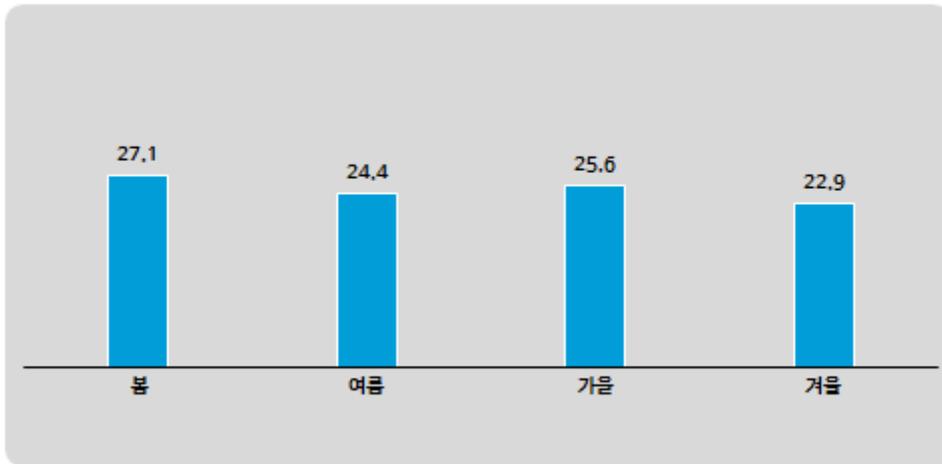
- ※ 정상 패턴 : 주 활동 시간대와 부상 발생 시간대가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경우
- ※ 이상 패턴 : 주 활동 시간대 분포와 달리 특정 시간대에 부상 발생이 집중되는 경우
- ※ 이상 시간 : 주 활동 시간 대비 부상 발생이 특이하게 높은 시간대

8) 부상 시기

- ▶ 특정 계절에 관계없이 부상 발생 시기는 연중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월별로 살펴볼 경우에도 봄철 '5월'과 가을철 '10월'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나 전반적으로는 월별 큰 차이 없이 고른 분포를 보임.

■그림 Ⅲ-23 ■ 계절별 부상 시기

(단위: %)



※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10,366

■표 Ⅲ-33 ■ 월별 부상 시기

(단위: %)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	부상 비율	계절	부상 비율	계절	부상 비율	계절	부상 비율
전체	27.1	전체	24.4	전체	25.6	전체	22.9
3월	8.2	6월	8.3	9월	8.6	12월	8.5
4월	7.6	7월	8.4	10월	10.4	1월	7.6
5월	11.3	8월	7.8	11월	6.6	2월	6.8

※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10,366

Ⅲ. 조사 결과

- ▶ 등산은 ‘봄’-‘가을’, 스키/스노보드 및 아이스스케이팅은 ‘겨울’에 주로 부상이 일어나는 등 전반적으로 해당 스포츠별 주요 시즌(주로 활동하는 시기)에 활동 인구가 많아짐으로 인해 부상 또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유추됨.

Ⅰ 표 Ⅲ-34 Ⅰ 종목별 부상 시기

(단위: %)

구 분	사례수	봄	여름	가을	겨울
전 체	10,366	27.1	24.4	25.6	22.9
등산	1,028	35.6	17.3	30.9	16.1
축구	1,013	36.5	26.5	24.3	12.7
자전거	883	31.8	31.9	25.7	10.5
스키/스노보드	729	1.1	0.7	4.3	94.0
무도	336	27.7	27.7	25.6	19.0
아이스스케이팅	311	11.6	19.0	19.6	49.8
인라인스케이팅	160	30.0	38.8	23.1	8.1
보디빌딩(헬스)	713	22.6	23.1	26.9	27.3
농구	711	30.0	32.8	24.6	12.7
배드민턴	714	27.7	26.1	28.4	17.8
걷기	314	25.8	22.6	29.0	22.6
달리기(마라톤)	713	29.7	22.9	28.8	18.7
수영	313	24.3	35.1	19.5	21.1
골프/스크린골프	329	31.0	19.5	31.6	17.9
볼링	312	20.2	23.4	38.1	18.3
야구	314	35.4	38.5	19.1	7.0
에어로빅	302	29.1	24.2	25.8	20.9
테니스	310	26.8	31.0	31.6	10.6
게이트볼	100	33.0	26.0	27.0	14.0
요가	211	18.5	22.3	35.1	24.2
탁구	310	26.5	25.2	25.5	22.9
승마	110	25.5	20.9	40.9	12.7
항공스포츠	130	26.2	43.1	25.4	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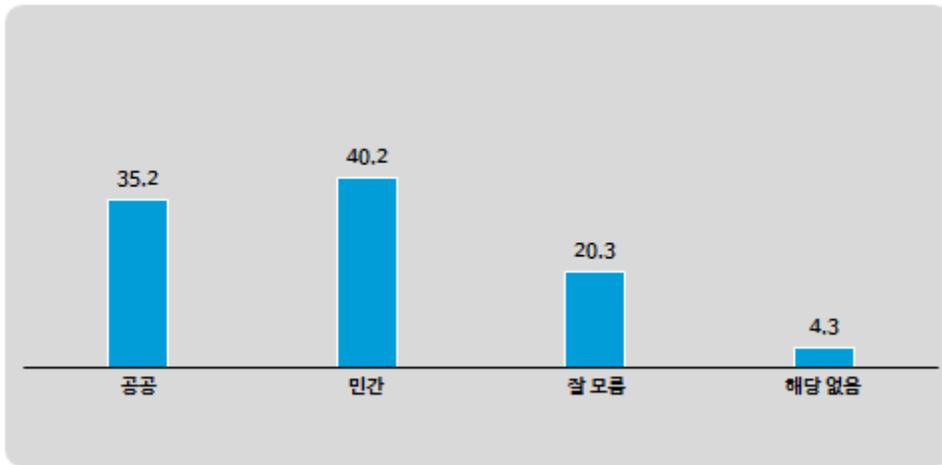
※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10,366

9) 부상 장소 운영주체

- ▶ 부상을 입었던 장소의 운영 주체로는 ‘민간’시설이 40.2%, ‘공공’시설이 35.2%로 나타남.

┃ 그림 Ⅲ-24 ┃ 부상 장소 운영주체

(단위: %)



※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10,366

┃ 표 Ⅲ-35 ┃ 종목별 부상 장소 운영주체

(단위: %)

구분	사례 수	공공	민간	잘 모름	해당 없음	구분	사례 수	공공	민간	잘 모름	해당 없음
등산	1,028	41.1	14.3	35.3	9.3	수영	313	44.7	39.9	13.4	1.9
축구	1,013	45.6	31.6	19.2	3.7	골프/스키/골프	329	2.4	91.2	4.6	1.8
자전거	883	49.4	12.2	32.3	6.1	볼링	312	4.2	75.3	19.2	1.3
스키/스노보드	729	7.4	70.4	20.0	2.2	야구	314	36.6	37.3	24.2	1.9
무도	336	17.3	67.9	9.8	5.1	에어로빅	302	32.5	56.0	10.3	1.3
아이스스케이팅	311	40.5	33.4	25.1	1.0	테니스	310	31.3	48.7	17.4	2.6
인라인스케이팅	160	60.6	10.0	26.9	2.5	게이트볼	100	46.0	37.0	16.0	1.0
보디빌딩(헬스)	713	13.2	79.0	4.8	3.1	요가	211	19.4	61.1	5.2	14.2
농구	711	52.0	23.9	22.1	2.0	탁구	310	23.2	68.4	6.1	2.3
배드민턴	714	50.0	28.9	17.2	3.9	승마	110	9.1	72.7	16.4	1.8
걷기	314	52.2	9.9	26.4	11.5	항공스포츠	130	9.2	66.9	20.0	3.8
달리기	713	49.9	16.8	28.2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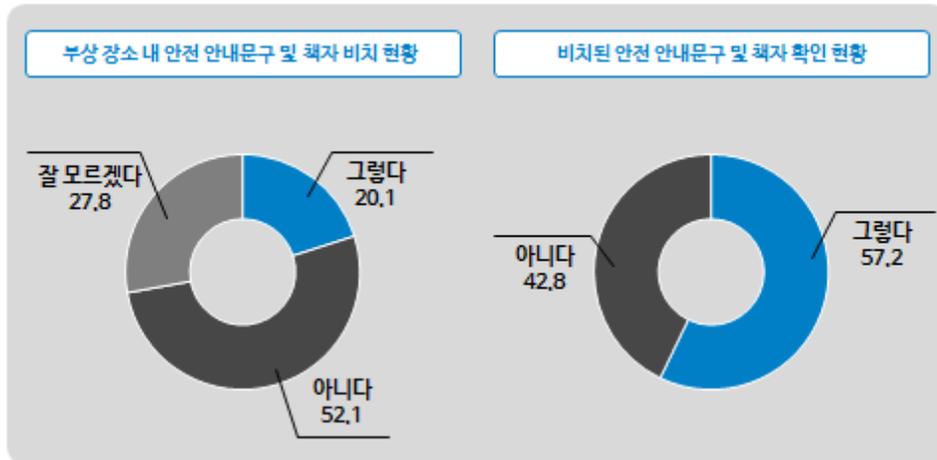
10) 부상 장소 안전 안내문구 및 책자 비치 및 확인 현황

(1) 안전 안내문구 및 책자 비치 및 확인 현황

- ▶ 부상 장소에 안전 안내문구 및 책자 비치여부에 대해, ‘안내문구 및 책자가 비치되었다’는 응답은 20.1%, 안내문구나 책자 비치 응답자(n=1,991)중 실제로 확인한 경우는 57.2%로 나타남.

■ 그림 Ⅲ-25 ■ 안전 안내문구 및 책자 비치 및 확인 현황

(단위: %)



※ 안전 안내문구 및 책자 비치현황 : 실태조사 부상장소 운영주체 인지자, n=9,924

※ 안전 안내문구 및 책자 확인현황 : 실태조사 비치된 안전문구 및 책자 확인자, n=1,991

스포츠 안전사고 실태조사 -종합편

(2) 종목별 안전 안내문구 및 책자 비치 및 확인 현황

- ▶ 안전 안내문구 및 책자 비치여부를 종목별로 살펴보면, ‘비치되었다’는 응답은 항공스포츠(46.4%), 스키/스노보드(41.2%), 아이스스케이팅(40.3%) 순,
비치된 자료를 ‘확인했다’는 응답은 게이트볼(87.5%), 무도(71.1%), 승마(70.0%) 순으로 높게 나타남.

【 표 Ⅲ-36 】 종목별 안전 안내문구 및 책자 비치 및 확인 현황

(단위: %)

구분	안전 안내문구 및 책자 비치 현황				비치된 자료 확인 현황		
	사례수	그렇다	아니다	잘 모름	사례수	그렇다	아니다
전 체	9,924	20.1	52.1	27.8	1,991	57.2	42.8
등산	932	14.7	49.1	36.2	137	61.3	38.7
축구	976	12.1	65.9	22.0	118	56.8	43.2
자전거	829	13.4	61.4	25.2	111	69.4	30.6
스키/스노보드	713	41.2	16.8	41.9	294	42.9	57.1
무도	319	35.7	44.5	19.7	114	71.1	28.9
아이스스케이팅	308	40.3	22.7	37.0	124	50.0	50.0
인라인스케이팅	156	7.1	62.8	30.1	11	36.4	63.6
보디빌딩(헬스)	691	30.0	45.6	24.5	207	58.9	41.1
농구	697	11.5	72.2	16.4	80	65.0	35.0
배드민턴	686	16.5	62.0	21.6	113	60.2	39.8
겉기	278	7.6	63.7	28.8	21	61.9	38.1
달리기	677	11.8	61.9	26.3	80	62.5	37.5
수영	307	35.8	30.3	33.9	110	51.8	48.2
골프	323	21.4	45.2	33.4	69	52.2	47.8
볼링	308	13.0	41.9	45.1	40	35.0	65.0
야구	308	11.0	68.2	20.8	34	67.6	32.4
에어로빅	298	24.5	41.6	33.9	73	58.9	41.1
테니스	302	17.2	58.3	24.5	52	57.7	42.3
게이트볼	99	24.2	53.5	22.2	24	87.5	12.5
요가	181	18.8	48.6	32.6	34	55.9	44.1
탁구	303	15.5	61.1	23.4	47	46.8	53.2
승마	108	37.0	36.1	26.9	40	70.0	30.0
항공스포츠	125	46.4	40.0	13.6	58	67.2	3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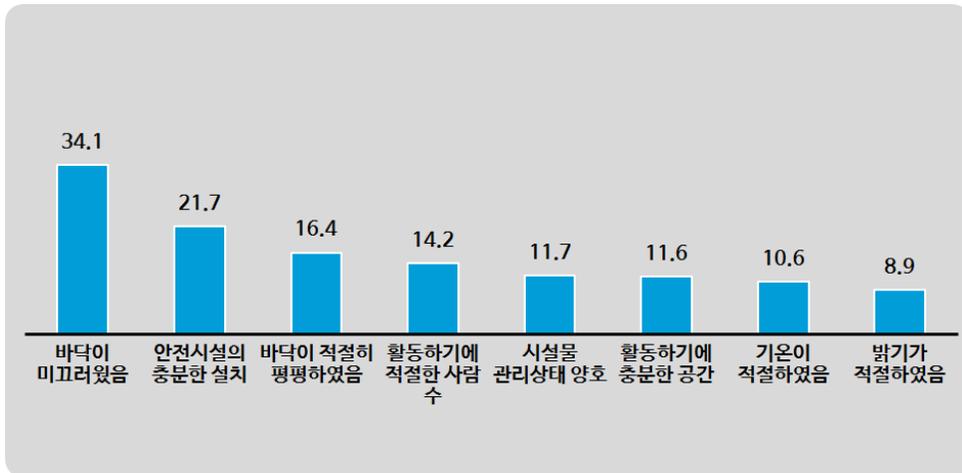
※ 안전 안내문구 및 책자 비치현황 : 실태조사 부상장소 운영주체 인지자, n=9,924

※ 안전 안내문구 및 책자 확인현황 : 실태조사 비치된 안전문구 및 책자 확인자, n=1,991

11) 부상 장소 환경적 요인

- ▶ 부상 장소의 환경적 요인을 종합한 결과, ‘바닥이 미끄러웠음’이라는 평가가 34.1%로 가장 높음.
- ▶ 다음으로 ‘안전시설의 충분한 설치’에 대한 부정적 평가(21.7%), ‘바닥이 적절히 평평하였음’에 대한 부정적 평가(16.4%) 등의 순으로 조사됨.

■ 그림 Ⅲ-26 ■ 부상 장소 환경적 요인(Bottom2: 매우부정평가+부정평가 비율)
(단위: %)



※ 실태조사 전체응답자, n=10,366

※ Bottom2: [1]매우 부정평가와 [2]부정평가의 합산 비율

※ ‘미끄러운 바닥’은 역척도 문항이므로 Bottom2는 [4]부정평가와 [5]매우 부정평가의 합산 비율

스포츠 안전사고 실태조사 -종합편

- ▶ 종목별로 살펴보면, ‘미끄러운 바닥’은 스키/스노보드(57.9%), 아이스스케이팅(51.8%), 수영(46.6%) 순, ‘안전시설의 충분한 설치’의 부정적 평가는 자전거(35.0%), 인라인스케이팅(30.6%), 농구(29.7%) 순, ‘바닥이 적절히 평평함’의 부정적 평가는 등산(43.9%), 자전거(26.2%), 스키/스노보드(21.4%) 순으로 부정 응답이 높게 나타남.

▮ 표 III-37 ▮ 종목별 부상 장소 환경적 요인(Bottom2: 매우부정평가+부정평가 비율)
(단위: %)

구분	사례수	바닥이 미끄러웠음	안전시설의 충분한 설치	바닥이 적절히 평평하였음	활동하기에 적절한 사람 수	시설물 관리상태 양호	활동하기에 충분한 공간	기온이 적절하였음	밝기가 적절하였음
전 체	10,366	34.1	21.7	16.4	14.2	11.7	11.6	10.6	8.9
등산	1,028	45.4	21.1	43.9	10.2	9.0	8.0	12.5	5.9
축구	1,013	29.2	24.6	14.2	8.0	12.5	9.6	11.0	6.9
자전거	883	27.7	35.0	26.2	23.8	22.0	24.3	11.3	14.2
스키/스노보드	729	57.9	10.0	21.4	24.7	8.8	6.4	9.9	6.0
무도	336	17.6	8.6	4.8	6.0	5.7	10.7	6.0	4.8
아이스스케이팅	311	51.8	19.3	14.1	32.8	14.1	18.0	7.4	9.0
인라인스케이팅	160	25.0	30.6	18.8	15.6	10.0	12.5	7.5	6.3
보디빌딩(헬스)	713	24.3	20.1	5.5	12.6	6.3	8.3	9.1	5.6
농구	711	34.0	29.7	14.1	12.8	16.6	11.3	13.5	11.4
배드민턴	714	29.0	23.2	10.4	12.6	11.3	10.2	12.9	11.8
걷기	314	30.3	22.6	18.5	15.0	13.7	12.7	12.1	15.9
달리기	713	21.6	24.4	15.1	14.9	10.4	10.2	12.3	15.4
수영	313	46.6	13.7	8.9	17.3	8.3	9.6	8.3	6.7
골프	329	21.3	9.4	7.9	6.1	6.1	6.7	7.0	4.0
볼링	312	41.0	17.3	1.9	7.7	7.4	6.1	4.5	8.3
야구	314	26.4	29.0	15.0	12.4	20.7	12.7	11.5	8.6
에어로빅	302	33.8	13.9	9.6	10.6	7.6	11.9	10.3	8.9
테니스	310	33.5	16.5	9.0	8.7	13.2	9.4	11.6	7.1
게이트볼	100	35.0	20.0	12.0	14.0	14.0	15.0	10.0	6.0
요가	211	28.0	19.4	3.3	11.4	8.1	9.0	4.7	2.4
탁구	310	29.4	21.0	7.7	14.2	10.6	16.8	10.3	8.7
승마	110	40.9	13.6	13.6	10.9	8.2	12.7	6.4	7.3
항공스포츠	130	41.5	13.8	15.4	15.4	12.3	20.8	10.8	8.5

※ 실태조사 전체응답자, n=10,3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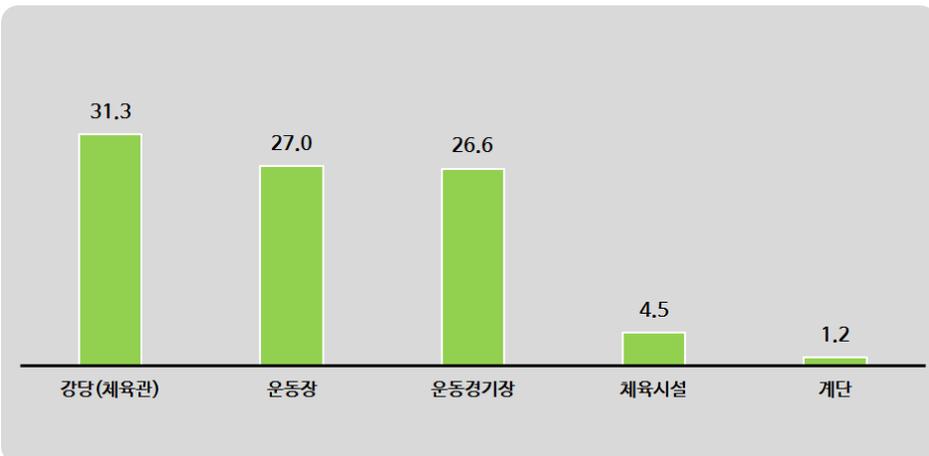
※ Bottom2: [1]매우 부정평가와 [2]부정평가의 합산 비율

※ ‘미끄러운 바닥’은 역척도 문항이므로 Bottom2는 [4]부정평가와 [5]매우 부정평가의 합산 비율

참고 [학교안전공제중앙회] 학교 운동부 선수 부상 장소

- ◎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자료를 살펴보면, 학교 운동부 선수들의 경우 ‘강당(체육관)’에서 부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31.3%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 ‘운동장’(27.0%), ‘운동경기장’(26.6%) 등이 순임.
- 단, 부상 장소로 응답한 비율이 높은 장소는 안전에 취약한 장소가 아니라, 해당 장소에서의 활동이 많기 때문일 가능성도 있어 해석상의 주의를 요함.

(단위: %)



※ 학교안전공제중앙회 부상 학생수, n=9,7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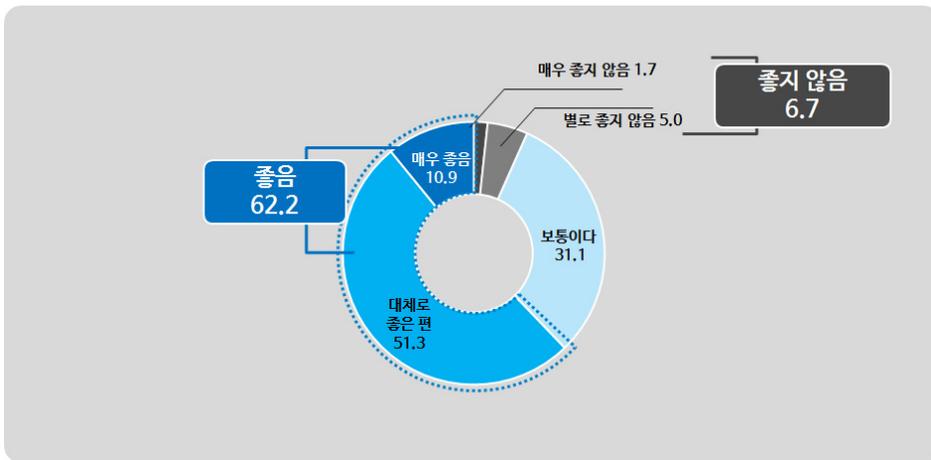
참고 [전문 체육 지도자 조사] 지도 훈련시설 상태

◎ ‘전문 체육 지도자 조사’에서 ‘훈련시설의 상태’를 질문한 결과, ‘좋다’는 응답이 62.2%(매우 좋음 10.9%+대체로 좋은 편 51.3%)로 나타남.

‘좋지 않다’는 응답은 6.7%로 낮게 나타남.

○ 아래 질문은 ‘전문 체육 지도자 조사’에서만 질문한 문항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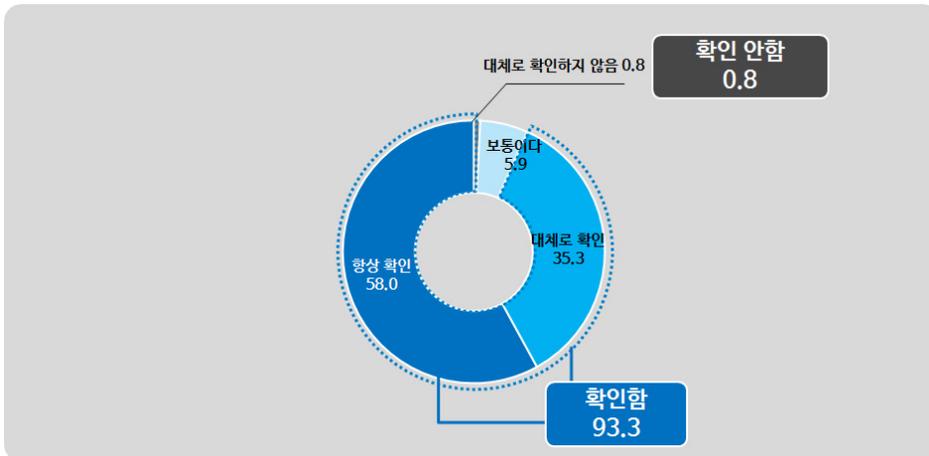


※ 전문 체육 지도자 조사 전체 응답자, n=119

참고 [전문 체육 지도자 조사] 지도 전, 위험지역 유무 확인

- ◎ ‘전문 체육 지도자 조사’에서 ‘지도 전, 위험지역 유무 확인’을 질문한 결과, ‘확인한다’는 응답이 93.3%(항상 확인 58.0%+대체로 확인 35.3%)로 거의 대부분임.
- 한편, ‘대체로 확인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0.8%로 매우 낮게 나타났으며, 그 이유로는 ‘위험지역이라고 할 만한 곳이 없다’는 등을 언급함.
- 전문체육선수들을 지도하는 지도자로, 다소 ‘모범적이고 도덕적인 응답’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아래 질문은 ‘전문 체육 지도자 조사’에서만 질문한 문항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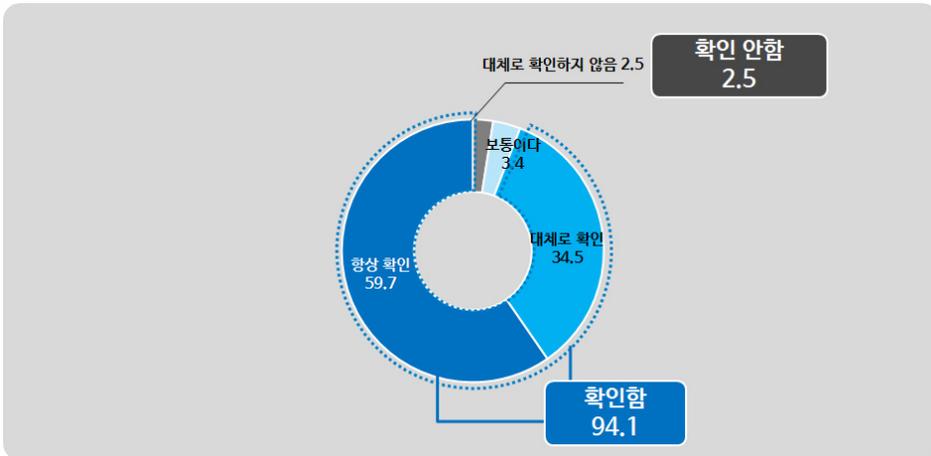
※ 전문 체육 지도자 조사 전체 응답자, n=119

확인하지 않는 이유(대체로 확인하지 않음, n=8)	(%)
위험지역이라고 할 만한 곳이 없어서	50.0
확인하지 않아도 괜찮아서	37.5
확인하기 귀찮아서	12.5

참고 [전문 체육 지도자 조사] 지도 전, 안전시설 상태 확인

- ◎ ‘전문 체육 지도자 조사’에서 ‘지도 전, 안전시설 상태 확인 여부’를 질문한 결과, ‘확인한다’는 응답이 94.1%(항상 확인 59.7%+대체로 확인 34.5%)로 거의 대부분임.
- 한편, ‘대체로 확인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5%로 매우 낮게 나타났으며, 그 이유로는 ‘시설물이 중요하지 않은 스포츠라서’ 등을 언급함.
- 전문체육선수들을 지도하는 지도자로, 다소 ‘모범적이고 도덕적인 응답’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아래 질문은 ‘전문 체육 지도자 조사’에서만 질문한 문항임.

(단위: %)



※ 전문 체육 지도자 조사 전체 응답자, n=119

확인하지 않는 이유(대체로 확인하지 않음, n=7)	(%)
시설물이 중요하지 않은 스포츠라서	42.9
시설물을 이용하지 않는 스포츠라서	28.6
확인하기 귀찮아서	14.3
확인하지 불가능해서	1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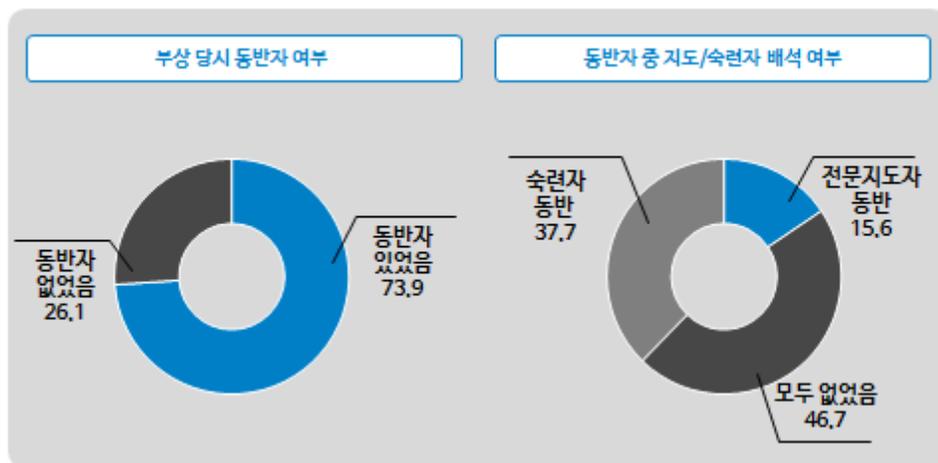
12) 부상 당시 지도/숙련자 배석여부 및 역할

(1) 동반자 및 지도/숙련자 배석여부

- ▶ 부상 당시 동반자가 있었던 경우가 73.9%, 별도의 동반자가 없었던 경우가 26.1%로 조사됨.
- ▶ 부상 당시 지도자 또는 숙련자가 배석했는지에 대해, ‘전문 체육 지도자 배석’은 15.6%, ‘숙련자 배석’은 37.7%로, 응답자의 53.3%는 전문 체육 지도자 또는 숙련자가 함께 있었다고 응답함.
전문 체육 지도자 또는 숙련자 모두 없었다는 응답은 46.7%임.

■ 그림 Ⅲ-27 ■ 동반자 및 지도/숙련자 배석여부

(단위: %)



※ 부상 당시 동반자 여부 :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10,366

※ 지도/숙련자 배석 여부 : 실태조사 부상 시 동반인 '있음' 응답자, n=7,657

스포츠 안전사고 실태조사 -종합편

(2) 종목별 동반자 및 지도/숙련자 배석여부

- ▶ 종목별 동반자 여부는 해당 종목 특성이 반영된 결과를 보임.
- ▶ 종목별로 살펴보면, ‘전문 체육 지도자 배석’이라는 응답은 요가(76.3%), 수영(59.5%), 항공스포츠(59.0%) 순, ‘숙련자 배석’이라는 응답은 게이트볼(50.6%), 야구(48.1%), 테니스(48.0%) 순으로 높음.

【 표 III-38 】 종목별 지도/숙련자 배석여부

(단위: %)

구분	사례수	동반자 없음	동반자 있음	동반자 중 지도/숙련자 배석 여부			
				사례수	전문 지도자 배석	숙련자 배석	모두 없었음
전 체	10,366	26.1	73.9	7,657	15.6	37.7	46.7
등산	1,028	18.6	81.4	837	1.9	28.7	69.4
축구	1,013	8.1	91.9	931	4.8	47.0	48.1
자전거	883	50.3	49.7	439	13.2	41.2	45.6
스키/스노보드	729	14.1	85.9	626	6.5	45.7	47.8
무도	336	28.6	71.4	240	57.9	37.1	5.0
아이스스케이팅	311	16.1	83.9	261	15.7	31.0	53.3
인라인스케이팅	160	39.4	60.6	97	3.1	24.7	72.2
보디빌딩(헬스)	713	63.8	36.2	258	34.9	37.6	27.5
농구	711	9.8	90.2	641	5.3	32.8	61.9
배드민턴	714	9.5	90.5	646	8.7	42.1	49.2
걷기	314	66.2	33.8	106	4.7	12.3	83.0
달리기	713	58.5	41.5	296	10.5	25.3	64.2
수영	313	29.7	70.3	220	59.5	26.4	14.1
골프	329	15.5	84.5	278	11.5	45.0	43.5
볼링	312	9.9	90.1	281	2.8	33.8	63.3
야구	314	8.0	92.0	289	4.2	48.1	47.8
에어로빅	302	19.2	80.8	244	58.2	27.9	13.9
테니스	310	11.3	88.7	275	16.0	48.0	36.0
게이트볼	100	19.0	81.0	81	22.2	50.6	27.2
요가	211	28.0	72.0	152	76.3	19.7	3.9
탁구	310	11.6	88.4	274	12.0	42.0	46.0
승마	110	27.3	72.7	80	46.3	47.5	6.3
항공스포츠	130	19.2	80.8	105	59.0	37.1	3.8

※ 부상 당시 동반자 여부 :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10,366

※ 지도/숙련자 배석 여부 : 실태조사 부상 시 동반인 ‘있음’ 응답자, n=7,657

III. 조사 결과

(3) 배석한 지도/숙련자의 역할

- ▶ 배석한 지도자 또는 숙련자가 ‘교육을 실시했다’는 응답은 58.0%였으며, 종목별로는 항공스포츠(97.0%), 승마(77.3%), 무도(66.7%) 등의 순으로 조사됨.
- ▶ 교육을 실시한 경우 10명 중 5명(54.5%)은 ‘자세한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조사 되었으며 종목별 교육 성실도는 탁구(68.4%), 아이스스케이팅(66.1%), 항공 스포츠(65.3%)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III-39 배석한 지도/숙련자의 역할

(단위: %)

구분	사례수	교육 미실시	교육 실시	교육 성실도							
				사례수	매우 자세히 교육	자세히 교육	보통	미흡한 교육	매우 미흡한 교육	자세한 교육	미흡한 교육
전 체	4,080	58.0	42.0	1,713	12.4	42.1	41.3	4.1	0.2	54.5	4.3
등산	256	69.1	30.9	79	10.1	43.0	41.8	5.1	0.0	53.2	5.1
축구	483	71.8	28.2	136	9.6	41.2	46.3	2.2	0.7	50.7	2.9
자전거	239	46.9	53.1	127	18.1	41.7	37.0	3.1	0.0	59.8	3.1
스키/스노보드	327	58.7	41.3	135	9.6	37.0	46.7	5.9	0.7	46.7	6.7
무도	228	33.3	66.7	152	14.5	50.7	32.2	2.6	0.0	65.1	2.6
아이스스케이팅	122	49.2	50.8	62	11.3	54.8	30.6	3.2	0.0	66.1	3.2
인라인스케이팅	27	66.7	33.3	9	11.1	0.0	88.9	0.0	0.0	11.1	0.0
보디빌딩(헬스)	187	52.9	47.1	88	11.4	43.2	39.8	5.7	0.0	54.5	5.7
농구	244	72.5	27.5	67	16.4	37.3	43.3	3.0	0.0	53.7	3.0
배드민턴	328	67.1	32.9	108	12.0	39.8	45.4	2.8	0.0	51.9	2.8

- ※ 교육 실시 현황 : 실태조사 부상 시 지도/숙련자 배석자, n=4,080
- ※ 교육 성실 정도 : 배석한 지도/숙련자에 의한 교육 수혜자, n=1,713
- ※ 개별 사례수 20표본 이하 결과는 해석 시 주의를 요함

【 표 Ⅲ-39 】 배석한 지도/숙련자의 역할 (계속)

(단위: %)

구분	사례수	교육 미실시	교육 실시	교육 성실도							
				사례수	매우 자세히 교육	자세히 교육	보통	미흡한 교육	매우 미흡한 교육	자세한 교육	미흡한 교육
전 체	4,080	58.0	42.0	1,713	12.4	42.1	41.3	4.1	0.2	54.5	4.3
걷기	18	50.0	50.0	9	11.1	22.2	55.6	11.1	0.0	33.3	11.1
달리기	106	53.8	46.2	49	12.2	26.5	55.1	6.1	0.0	38.8	6.1
수영	189	39.7	60.3	114	11.4	35.1	44.7	8.8	0.0	46.5	8.8
골프	157	69.4	30.6	48	10.4	41.7	43.8	4.2	0.0	52.1	4.2
볼링	103	86.4	13.6	14	14.3	42.9	35.7	7.1	0.0	57.1	7.1
야구	151	68.2	31.8	48	6.3	33.3	52.1	8.3	0.0	39.6	8.3
에어로빅	210	46.7	53.3	112	13.4	39.3	42.0	5.4	0.0	52.7	5.4
테니스	176	58.5	41.5	73	9.6	45.2	42.5	2.7	0.0	54.8	2.7
게이트볼	59	50.8	49.2	29	17.2	44.8	37.9	0.0	0.0	62.1	0.0
요가	146	58.9	41.1	60	11.7	48.3	40.0	0.0	0.0	60.0	0.0
탁구	148	74.3	25.7	38	13.2	55.3	28.9	2.6	0.0	68.4	2.6
승마	75	22.7	77.3	58	10.3	44.8	41.4	3.4	0.0	55.2	3.4
항공스포츠	101	3.0	97.0	98	16.3	49.0	30.6	3.1	1.0	65.3	4.1

- ※ 교육 실시 현황 : 실태조사 부상 시 지도/숙련자 배석자, n=4,080
- ※ 교육 성실 정도 : 배석한 지도/숙련자에 의한 교육 수혜자, n=1,713
- ※ 개별 사례수 20표본 이하 결과는 해석 시 주의를 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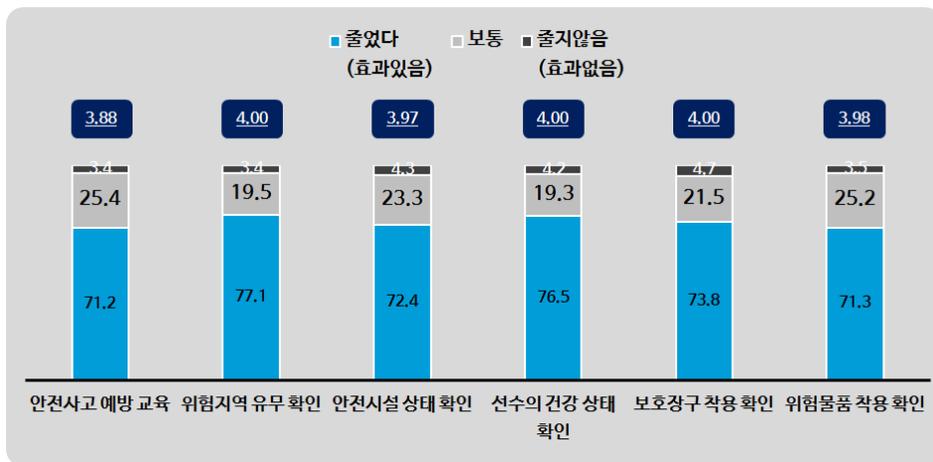
참고 [전문 체육 지도자 조사] 예방활동의 사고 감소 효과

◎ ‘전문 체육 지도자 조사’에서 ‘스포츠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실시한 결과, 스포츠안전사고 감소 여부’를 질문한 결과, ‘줄었다(효과가 있다)’는 응답이 대부분 70%이상으로 높게 나타남.

그 가운데, 위험지역 유무 확인의 ‘줄었다’는 응답이 77.1%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아래 질문은 ‘전문 체육 지도자 조사’에서만 질문한 문항이며, 각 항목에 대해 각 질문(n=119)함.

(단위: %, 점)



※ 전문 체육 지도자 조사 전체 응답자, n=119

※ 상단 네모 :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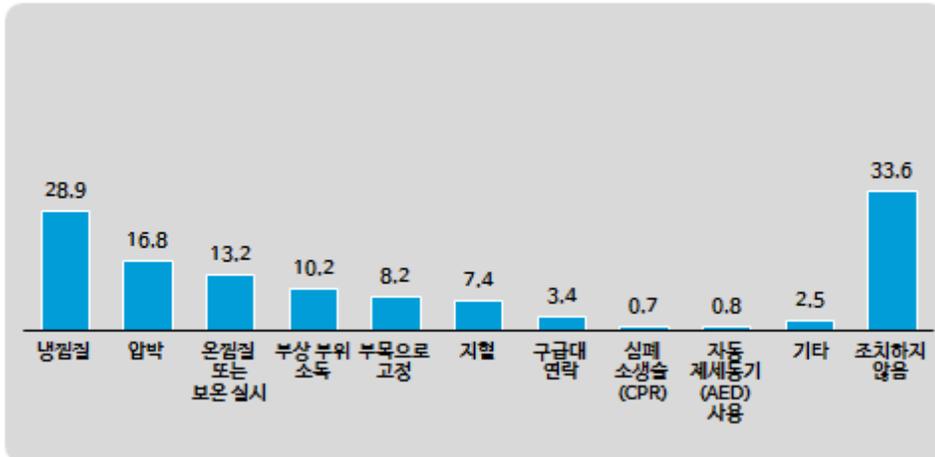
3 부상 후 대처 및 경과

1) 부상 후 응급대처 현황

- ▶ 부상 후 실시한 응급대처는 ‘냉찜질’(28.9%), ‘압박’(16.8%), ‘온찜질 또는 보온’(13.2%) 등의 순임.
- ▶ 반면 ‘조치하지 않음’이라는 응답도 33.6%로 나타남.

■ 그림 III-28 ■ 부상 후 응급대처

(단위: %, 복수응답)



※ 실태조사 전체응답자, n=10,366

Ⅲ. 조사 결과

(1) 종목별 응급대처 현황

- ▶ 별도의 응급처치를 실시하지 않은 비율은 걷기(54.5%), 볼링(50.3%), 요가(48.3%) 등의 순으로 조사됨.
- ▶ 응급처치를 실시한 경우, ‘냉찜질’은 테니스(42.9%), 무도(42.0%), 야구(40.4%)에서, ‘압박’은 테니스(26.8%), 농구(23.6%), 등산(21.4%)에서 주로 실시하고 있음.

【 표 Ⅲ-40 】 종목별 응급대처 현황

(단위: %)

구분	사례수	응급 대처 미실시	응급 대처 실시	응급대처 현황							
				사례수	냉찜질	압박	온찜질 (보온)	소독	부목 고정	지혈	구급대 연락
전 체	10,366	33.6	66.4	6,878	28.9	16.8	13.2	10.2	8.2	7.4	3.4
등산	1,028	46.0	54.0	555	15.3	21.4	6.1	7.3	7.7	6.5	2.9
축구	1,013	23.0	77.0	780	38.5	18.6	7.7	14.7	9.7	10.4	4.1
자전거	883	31.9	68.1	601	20.7	14.0	7.9	19.8	10.0	17.4	5.2
스키/스노보드	729	35.4	64.6	471	28.5	14.5	20.9	5.3	8.5	2.9	9.5
무도	336	10.4	89.6	301	42.0	16.4	16.1	17.3	17.0	13.7	3.3
아이스케이팅	311	30.5	69.5	216	32.2	15.4	15.1	13.5	11.3	7.1	2.9
인라인스케이팅	160	36.9	63.1	101	20.6	8.1	11.3	19.4	2.5	15.6	0.6
보디빌딩(헬스)	713	33.7	66.3	473	32.7	13.3	20.6	6.5	6.7	3.1	2.5
농구	711	26.2	73.8	525	36.8	23.6	10.4	10.0	11.5	7.6	4.1
배드민턴	714	28.0	72.0	514	37.0	20.0	15.3	9.1	7.8	5.0	1.1
걷기	314	54.5	45.5	143	19.1	10.2	11.8	5.7	3.2	3.8	1.0
달리기	713	43.6	56.4	402	24.3	13.0	13.5	8.3	4.9	5.2	1.7
수영	313	36.1	63.9	200	19.8	11.8	13.7	8.9	6.4	10.5	4.2
골프/스쿠르골프	329	47.4	52.6	173	21.6	14.9	17.9	4.0	3.0	3.3	0.9
볼링	312	50.3	49.7	155	22.8	11.5	8.0	2.2	2.6	5.8	1.6
야구	314	28.3	71.7	225	40.4	17.2	10.5	11.1	4.8	6.7	3.2
에어로빅	302	36.1	63.9	193	29.8	18.5	18.9	6.3	12.3	4.6	3.3
테니스	310	18.7	81.3	252	42.9	26.8	15.5	11.0	9.4	6.5	1.6
게이트볼	100	39.0	61.0	61	23.0	13.0	13.0	17.0	18.0	5.0	4.0
요가	211	48.3	51.7	109	20.9	10.4	25.1	2.8	1.4	0.9	0.0
탁구	310	29.0	71.0	220	32.6	19.4	17.1	8.4	5.5	6.5	0.6
승마	110	17.3	82.7	91	35.5	17.3	19.1	17.3	12.7	4.5	10.0
항공스포츠	130	10.0	90.0	117	26.9	20.0	13.8	17.7	17.7	11.5	10.8

※ 응급 대처여부 : 실태조사 전체응답자, n=10,366

※ 응급대처현황 : 응급대처자, n=6,878

※ 응급대처 미실시는 ‘아무런 조치하지 않음’을 의미, 응급대처 현황은 응답률 3% 이상만 제시

※ 응급대처 현황은 복수응답, 즉 1회 부상 시 행동한 응급대처 모두 선택한 비율임

스포츠 안전사고 실태조사 -종합편

(2) 부상 종류별 응급대처 현황

- ▶ 실시한 응급대처를 부상 종류별로 살펴보면, ‘냉찜질’이라는 응답은 파열(38.6%), 염좌(37.3%), 좌상(33.0%) 순, ‘압박’이라는 응답은 탈구(24.8%), 골절(24.6%), 파열(22.3%) 순으로 높게 나타남.

【 표 III-41 】 부상 종류별 응급대처 현황

(단위: %)

구분	사례수	응급 대처 미실시	응급 대처 실시	응급대처 현황							
				사례수	냉찜질	압박	온찜질 (보온)	소독	부목 고정	지혈	구급대 연락
전 체	10,366	33.6	66.4	6,878	28.9	16.8	13.2	10.2	8.2	7.4	3.4
염좌	3,454	32.6	67.4	2,329	37.3	20.4	14.5	4.9	8.3	1.7	2.1
골절	678	15.5	84.5	573	29.4	24.6	10.9	10.5	29.1	4.7	12.5
탈구	210	10.5	89.5	188	24.8	24.8	16.2	20.0	23.3	8.1	19.0
열상	457	14.9	85.1	389	16.8	14.9	7.0	26.7	10.3	39.4	5.7
절단	46	15.2	84.8	39	17.4	15.2	19.6	34.8	37.0	6.5	8.7
찰과상	943	36.2	63.8	602	13.0	8.3	4.7	27.9	4.3	20.5	1.1
출혈	284	10.9	89.1	253	17.3	13.0	6.3	27.5	12.7	41.5	3.9
좌상	1,054	34.3	65.7	692	33.0	15.7	13.3	12.9	5.0	7.0	3.4
자상	78	12.8	87.2	68	16.7	16.7	10.3	29.5	14.1	34.6	10.3
통증	2,613	46.5	53.5	1,397	26.3	13.5	17.1	3.5	2.6	1.5	1.0
염증	193	38.9	61.1	118	26.4	14.0	13.0	9.8	6.7	1.6	4.1
파열	197	26.9	73.1	144	38.6	22.3	10.2	6.6	13.2	9.1	11.7
기타	159	45.9	54.1	86	18.2	15.1	10.1	8.2	2.5	0.6	3.1

※ 응급 대처여부 : 실태조사 전체응답자, n=10,366

※ 응급대처현황 : 응급대처자, n=6,878

※ 응급대처 미실시는 ‘아무런 조치하지 않음’을 의미, 응급대처 현황은 응답률 3% 이상만 제시

※ 응급대처 현황은 복수응답, 즉 1회 부상 시 행동한 응급대처 모두 선택한 비율임

※ 부상 종류는 단수응답으로 집계된 결과임. 즉, 여러 부상종류가 동시에 발생한 복합 부상이더라도 응답자가 판단한 가장 주요한 종류 1가지로 선택한 결과임

Ⅲ. 조사 결과

(3) 종목별 응급대처 도움 인원

- ▶ 응급대처 시 도움을 준 인원은 ‘1-2명’이 51.3%로 가장 높게 조사 되었으며 별도의 도움인원 없이 혼자 처치한 경우도 41.3%로 조사됨.
- ▶ 도움 인원 유형은 ‘친구’(32.0%)나 ‘동호회 회원’(31.3%)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종목별 동반인원 구성에 따라 상이한 특성을 보임.

【 표 Ⅲ-42 】 종목별 응급대처 도움 인원

(단위: %)

구분	응급대처 도움인원 수					도움 인원 유형							
	사례수	없음	1-2명	3-4명	5명 이상	사례수	친구	동호회 회원	가족	주변인	안전 요원	119 구급대	기타
전 체	10,366	41.3	51.3	6.1	1.3	6,088	32.0	31.3	14.1	11.9	8.1	1.9	0.7
등산	1,028	35.3	60.5	3.8	0.4	665	42.7	18.3	31.9	3.9	1.4	1.7	0.2
축구	1,013	20.4	63.0	13.0	3.6	806	28.0	56.8	2.0	9.7	2.1	1.1	0.2
자전거	883	52.4	42.1	5.0	0.5	420	23.6	35.0	19.8	10.5	4.8	5.0	1.4
스키/스노보드	729	33.1	60.9	5.3	0.7	488	43.4	8.8	18.9	5.3	21.9	1.4	0.2
무도	336	19.9	69.0	8.3	2.7	269	15.6	38.3	1.9	30.9	8.6	3.7	1.1
아이스케이팅	311	35.7	58.8	4.2	1.3	200	39.0	15.0	19.5	6.5	18.0	1.5	0.5
인라인스케이팅	160	50.0	48.8	1.3	0.0	80	33.8	12.5	43.8	6.3	2.5	1.3	0.0
보디빌딩(헬스)	713	64.8	32.0	2.7	0.6	251	21.9	12.7	8.4	28.7	21.5	1.6	5.2
농구	711	30.4	57.0	10.1	2.5	495	52.7	27.5	5.3	9.5	3.2	1.4	0.4
배드민턴	714	30.8	62.3	5.9	1.0	494	27.7	42.9	18.4	6.5	3.2	1.2	0.0
걷기	314	72.6	26.8	0.6	0.0	86	24.4	3.5	50.0	15.1	3.5	2.3	1.2
달리기	713	69.1	28.9	1.4	0.6	220	28.6	11.4	31.4	16.4	12.3	0.0	0.0
수영	313	50.2	47.0	1.6	1.3	156	26.3	20.5	8.3	16.0	25.0	1.3	2.6
골프(스쿠르골프)	329	47.7	44.7	7.3	0.3	172	45.9	18.6	10.5	16.9	6.4	1.2	0.6
볼링	312	59.6	37.5	2.6	0.3	126	51.6	17.5	16.7	9.5	3.2	0.8	0.8
야구	314	26.1	58.6	10.2	5.1	232	21.6	67.2	3.0	7.3	0.4	0.4	0.0
에어로빅	302	41.1	45.7	10.9	2.3	178	20.2	34.8	9.0	25.3	8.4	1.7	0.6
테니스	310	28.4	65.5	5.8	0.3	222	30.6	45.0	6.3	11.7	4.5	1.4	0.5
게이트볼	100	36.0	50.0	10.0	4.0	64	21.9	39.1	6.3	18.8	12.5	1.6	0.0
요가	211	60.7	34.6	2.8	1.9	83	12.0	19.3	12.0	44.6	7.2	0.0	4.8
탁구	310	41.0	54.5	4.5	0.0	183	36.6	36.1	8.7	15.8	2.2	0.0	0.5
승마	110	22.7	62.7	13.6	0.9	85	7.1	32.9	7.1	14.1	31.8	5.9	1.2
항공스포츠	130	13.1	65.4	18.5	3.1	113	6.2	38.1	3.5	6.2	33.6	12.4	0.0

※ 응급대처 도움 인원 수 :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10,3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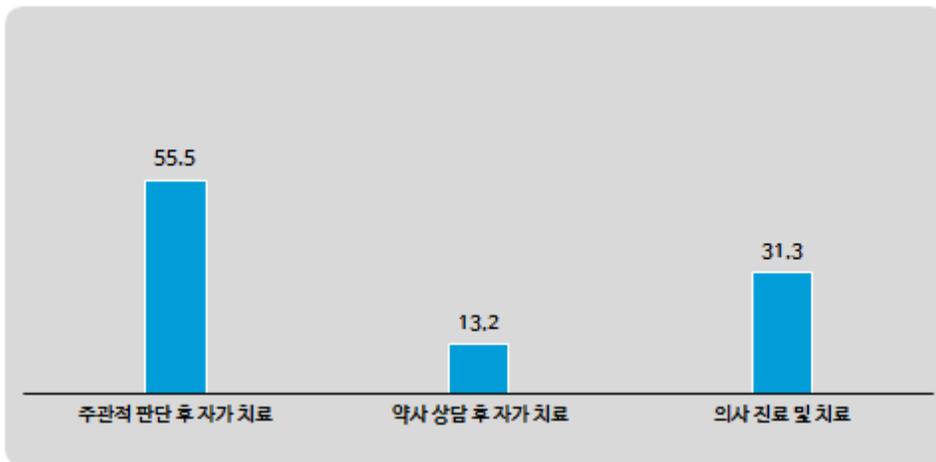
※ 응급대처 도움 인원 유형 : 도움인원 1명 이상 응답자(없음 제외), n=6,088

2) 발생 부상의 치료 방법

- ▶ 부상의 치료 방법은 ‘주관적 판단 후 자가 치료’라는 응답이 55.5%로 가장 높았음. ‘의사 진료 및 치료’라는 응답은 31.3%, ‘약사 상담 후 자가 치료’라는 응답은 13.2%로 나타남.

■ 그림 III-29 ■ 발생 부상의 치료 방법

(단위: %)



※ 실태조사 전체응답자, n=10,366

Ⅲ. 조사 결과

(1) 종목별 치료방법

- ▶ ‘주관적 판단 후 자가치료’한 비율은 볼링(78.8%), 인라인스케이팅(65.0%), 요가(63.5%)에서, ‘약사 상담 후 자가치료’는 게이트볼(24.0%), 항공 스포츠(23.8%), 에어로빅(20.5%)에서, ‘의사 진료 및 치료’는 승마(41.8%), 보디빌딩(헬스)(39.0%), 골프/스쿠린골프(38.3%)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됨.

▮ 표 Ⅲ-43 ▮ 종목별 발생 부상의 치료 방법

(단위: %)

구분	사례수	주관적 판단후 자가 치료	약사 상담후 자가 치료	의사 진료 및 치료
전 체	10,366	55.5	13.2	31.3
등산	1,028	51.2	11.5	37.4
축구	1,013	52.1	12.6	35.2
자전거	883	61.3	13.3	25.5
스키/스노보드	729	54.3	11.8	33.9
무도	336	47.3	19.9	32.7
아이스스케이팅	311	59.2	15.1	25.7
인라인스케이팅	160	65.0	14.4	20.6
보디빌딩(헬스)	713	51.5	9.5	39.0
농구	711	53.4	11.5	35.0
배드민턴	714	54.6	13.9	31.5
걷기	314	58.9	10.5	30.6
달리기	713	63.3	12.6	24.1
수영	313	49.5	14.1	36.4
골프/스쿠린골프	329	50.2	11.6	38.3
볼링	312	78.8	7.1	14.1
야구	314	55.7	15.3	29.0
에어로빅	302	56.0	20.5	23.5
테니스	310	50.0	17.7	32.3
게이트볼	100	57.0	24.0	19.0
요가	211	63.5	6.6	29.9
탁구	310	58.4	18.7	22.9
승마	110	44.5	13.6	41.8
항공스포츠	130	40.0	23.8	36.2

※ 실태조사 전체응답자, n=10,366

스포츠 안전사고 실태조사 -종합편

- ▶ 병원 진료 시 치료 방법의 경우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종목에서 처방이나 물리적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 세부적으로 ‘처방’ 비율은 요가(66.7%), 수영(59.6%), 골프/스크린골프(57.9%)에서, ‘물리적 조치’는 아이스스케이팅 (61.3%), 농구(59.0%), 스키/스노보드(54.7%)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 됨.

▮ 표 Ⅲ-44 ▮ 종목별 발생 부상의 병원 진료 시 치료 방법

(단위: %)

구분	사례수	처방	물리적 조치	수술 후 통원	수술 후 입원
전 체	3,248	42.6	46.9	6.9	3.6
등산	384	49.2	43.2	4.2	3.4
축구	357	31.7	53.5	9.2	5.6
자전거	225	38.2	42.7	12.9	6.2
스키/스노보드	247	38.9	54.7	4.0	2.4
무도	110	29.1	50.9	12.7	7.3
아이스스케이팅	80	31.3	61.3	6.3	1.3
인라인스케이팅	33	33.3	48.5	9.1	9.1
보디빌딩(헬스)	278	48.6	44.6	3.6	3.2
농구	249	29.3	59.0	8.8	2.8
배드민턴	225	44.4	48.0	5.3	2.2
견기	96	51.0	42.7	3.1	3.1
달리기	172	55.8	40.7	3.5	0.0
수영	114	59.6	34.2	6.1	0.0
골프/스크린골프	126	57.9	36.5	4.0	1.6
볼링	44	47.7	50.0	2.3	0.0
야구	91	37.4	42.9	8.8	11.0
에어로빅	71	38.0	49.3	9.9	2.8
테니스	100	44.0	46.0	8.0	2.0
게이트볼	19	21.1	52.6	21.1	5.3
요가	63	66.7	27.0	4.8	1.6
탁구	71	53.5	42.3	2.8	1.4
승마	46	37.0	43.5	17.4	2.2
항공스포츠	47	23.4	44.7	14.9	17.0

※ 실태조사 병원 치료 응답자, n=3,248

Ⅲ. 조사 결과

(2) 부상 종류 및 가료기간 별 치료방법

- ▶ 부상 종류별로 살펴보면, ‘의사 진료 및 치료’라는 응답은 파열(65.5%), 골절(59.6%), 탈구(56.7%) 순으로 높고, 병원 치료 방법 중 ‘물리적 조치’는 탈구(66.4%), 골절(62.6%), 염좌(53.2%)에서, ‘처방’은 찰과상(74.6%), 염증(73.7%), 통증(59.4%)에서 비교적 높음.
- ▶ 가료기간이 길어질수록 ‘의사 진료 및 치료’를 받는 비율과 병원 치료 시 물리적 조치 이상(물리적 조치, 수술 후 통원 및 입원) 행해지는 비율이 점차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표 Ⅲ-45】 부상 종류 및 가료기간 별 발생 부상의 치료 방법

(단위: %)

구분	사례수	주관적 판단후 자가 치료	약사 상담후 자가 치료	의사 진료 및 치료	병원(의사) 치료 방법					
					사례수	처방	물리적 조치	수술후 통원	수술후 입원	
전 체	10,366	55.5	13.2	31.3	3,248	42.6	46.9	6.9	3.6	
부상 종류	염좌	3,454	51.8	11.7	36.5	1,262	43.4	53.2	2.9	0.6
	골절	678	24.9	15.5	59.6	404	12.4	62.6	13.1	11.9
	탈구	210	27.1	16.2	56.7	119	16.8	66.4	8.4	8.4
	열상	457	41.8	22.8	35.4	162	37.7	29.0	30.2	3.1
	절단	46	26.1	45.7	28.3	13	23.1	46.2	23.1	7.7
	찰과상	943	78.2	15.2	6.7	63	74.6	17.5	6.3	1.6
	출혈	284	56.3	20.8	22.9	65	53.8	30.8	9.2	6.2
	좌상	1,054	63.5	14.7	21.8	230	48.7	46.1	4.8	0.4
	자상	78	35.9	30.8	33.3	26	50.0	26.9	23.1	0.0
	통증	2,613	65.9	10.2	23.9	625	59.4	37.4	2.6	0.6
	염증	193	36.8	14.0	49.2	95	73.7	17.9	3.2	5.3
파열	197	24.4	10.2	65.5	129	19.4	41.1	17.1	22.5	
가료 기간	경마-가료기간 없음	1,880	87.7	5.9	6.4	121	71.1	24.0	2.5	2.5
	1주 미만 가료	2,574	69.9	14.1	16.0	412	60.7	34.5	3.4	1.5
	1-2주 가료	3,128	48.1	19.5	32.4	1,014	49.7	43.7	5.7	0.9
	3-4주 가료	1,800	32.3	12.8	54.9	988	34.1	56.4	7.2	2.3
	5-8주 가료	589	22.6	6.8	70.6	416	26.2	55.8	10.6	7.5
	9주 이상 가료	395	20.5	4.3	75.2	297	33.0	40.7	11.1	15.2

※ 부상 치료 방법 : 실태조사 전체응답자, n=10,3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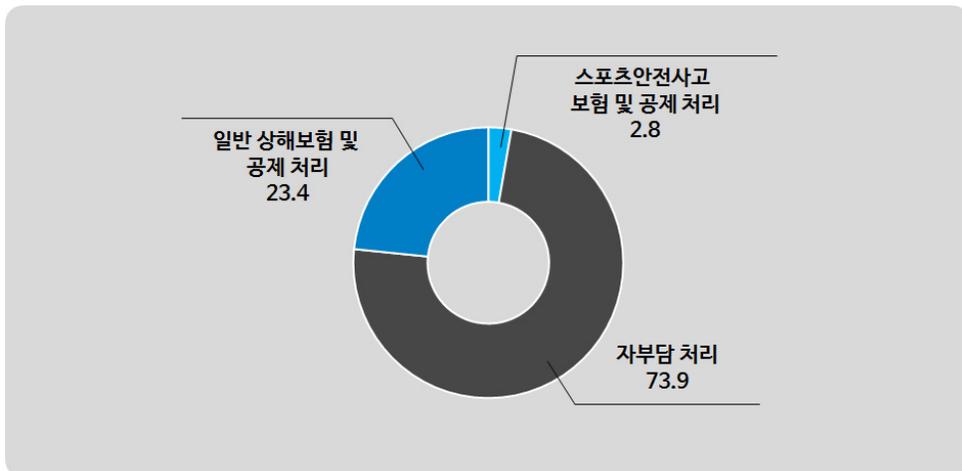
※ 병원 치료 방법 : 실태조사 병원 치료 응답자, n=3,248

3) 부상 치료비용 처리 방법

- ▶ 치료비용은 ‘자부담’으로 처리한다는 응답이 73.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일반 상해보험 및 공제’(23.4%), ‘스포츠안전사고 관련 보험 및 공제’(2.8%) 순임.

■ 그림 III-30 ■ 치료비용 처리방법

(단위: %)



※ 실태조사 약사상담-자가치료 및 병원 의사진료 응답자, n=4,617

Ⅲ. 조사 결과

(1) 종목별 치료비용 처리방법

- ▶ 종목별로 살펴보면 ‘자부담’은 인라인스케이팅 (85.7%), 골프/스 크린골프(83.5%), 요가(83.1%)에서, ‘일반 상해보험 및 공제’는 게이트볼(48.8%), 무도(35.0%), 항공스포츠(34.6%)에서, ‘스포츠 안전사고 보험 및 공제’는 게이트볼(14.0%), 항공 스포츠 (7.7%), 무도(6.8%)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표 Ⅲ-46 】 종목별 치료비용 처리방법

(단위: %)

구분	사례수	자부담 처리	일반 상해보험 및 공제 처리	스포츠안전사고 보험 및 공제 처리
전 체	4,617	73.9	23.4	2.8
등산	502	79.3	19.9	0.8
축구	485	72.8	25.2	2.1
자전거	342	66.1	31.0	2.9
스키/스노보드	333	73.0	23.7	3.3
무도	177	58.2	35.0	6.8
아이스스케이팅	127	65.4	31.5	3.1
인라인스케이팅	56	85.7	14.3	0.0
보디빌딩(헬스)	346	78.3	19.1	2.6
농구	331	74.6	23.0	2.4
배드민턴	324	79.0	17.9	3.1
걷기	129	78.3	21.7	0.0
달리기	262	78.2	19.1	2.7
수영	158	77.8	18.4	3.8
골프/스크린골프	164	83.5	15.9	0.6
볼링	66	74.2	19.7	6.1
야구	139	71.9	25.9	2.2
에어로빅	133	66.2	29.3	4.5
테니스	155	77.4	20.6	1.9
게이트볼	43	37.2	48.8	14.0
요가	77	83.1	15.6	1.3
탁구	129	75.2	22.5	2.3
승마	61	60.7	34.4	4.9
항공스포츠	78	57.7	34.6	7.7

※ 실태조사 약사상담-자가치료 및 병원 의사진료 응답자, n=4,617

(2) 부상 종류 및 가료기간 별 치료비용 처리방법

- ▶ 부상 종류 및 가료기간에 따라 살펴보면, ‘자부담’이라는 응답은 통증(82.2%), 염좌(80.8%), 염증(77.0%), 가료기간이 짧을수록, 일반 상해보험 및 공제’라는 응답은 절단(52.9%), 파열(40.3%), 골절(37.7%), 가료기간이 길수록 높게 나타남.

【 표 III-47 】 부상 종류 및 가료기간 별 치료비용 처리방법

(단위: %)

구분		사례수	자부담 처리	일반 상해보험 및 공제 처리	스포츠안전사고 보험 및 공제 처리
전 체		4,617	73.9	23.4	2.8
부상 종류	염좌	1,665	80.8	17.7	1.4
	골절	509	57.0	37.7	5.3
	탈구	153	62.7	31.4	5.9
	열상	266	63.5	32.0	4.5
	절단	34	41.2	52.9	5.9
	찰과상	206	73.3	22.8	3.9
	출혈	124	60.5	33.1	6.5
	좌상	385	71.2	25.5	3.4
	자상	50	60.0	34.0	6.0
	통증	891	82.2	16.3	1.6
	염증	122	77.0	21.3	1.6
	파열	149	57.0	40.3	2.7
	기타	63	85.7	12.7	1.6
가료 기간	경마-가료기간 없음	231	74.9	19.9	5.2
	1주 미만 가료	774	80.6	18.1	1.3
	1-2주 가료	1,623	73.7	23.3	3.0
	3-4주 가료	1,219	73.3	24.0	2.7
	5-8주 가료	456	68.2	28.9	2.9
	9주 이상 가료	314	67.5	29.3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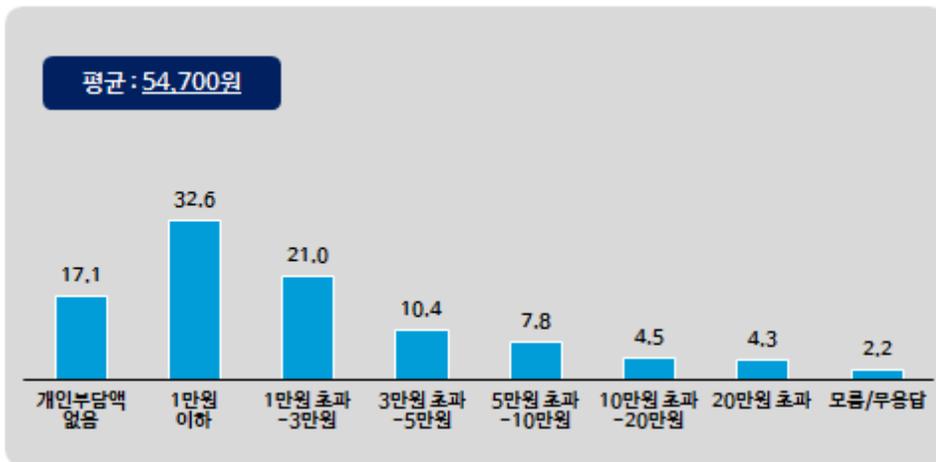
※ 실태조사 약사상담-자가치료 및 병원 의사진료 응답자, n=4,617

4) 부상 치료비용 개인 부담금액

- ▶ 개인이 부담한 치료비용은 ‘1만원 이하’(32.6%), ‘1-3만원’(21.0%), ‘3-5만원’(10.4%)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응답자 1인당 평균 치료비 개인부담금액은 54,700원으로 조사됨.

■ 그림 Ⅲ-31 ■ 치료비용 개인 부담금액

(단위: %)



※ 실태조사 전체응답자, n=10,366

스포츠 안전사고 실태조사 -종합편

(1) 종목별 치료비용 개인 부담금액

- ▶ 치료비용 개인 부담금액을 종목별로 살펴보면, 항공스포츠(98,021원), 승마(83,856원), 보디빌딩(헬스)(77,105원) 순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볼링(24,680원), 요가(36,805원), 탁구(36,917원) 순으로 낮게 나타남.

【 표 III-48 】 종목별 치료비용 개인 부담금액

(단위: %, 원)

구분	사례수	개인부담액 없음	1만원 이하	1만원 초과 3만원 이하	3만원 초과 5만원 이하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20만원 초과	모름/무응답	평균 (원)
전 체	10,366	17.1	32.6	21.0	10.4	7.8	4.5	4.3	2.2	54,700
등산	1,028	12.5	36.4	22.7	10.0	7.5	4.4	4.3	2.3	51,298
축구	1,013	13.1	28.1	22.3	13.6	8.3	6.0	5.2	3.3	63,335
자전거	883	15.2	39.8	17.0	8.0	6.5	4.9	5.4	3.3	54,086
스키/스노보드	729	16.7	30.7	21.0	11.4	9.2	5.1	4.4	1.5	57,447
무도	336	9.8	24.7	25.0	14.6	9.8	6.0	8.0	2.1	74,715
아이스스케이팅	311	15.8	34.4	18.6	12.2	7.4	2.6	5.1	3.9	50,491
인라인스케이팅	160	15.6	45.6	23.1	4.4	3.1	1.9	3.1	3.1	38,131
보디빌딩(헬스)	713	17.1	27.1	19.9	12.1	9.4	5.8	6.9	1.8	77,105
농구	711	16.5	30.9	20.3	10.5	10.0	5.3	4.6	1.8	56,625
배드민턴	714	15.1	34.6	24.6	9.1	7.4	3.8	3.4	2.0	47,111
걷기	314	22.6	39.5	16.2	8.6	3.8	2.2	5.1	1.9	52,202
달리기	713	23.8	38.1	18.7	6.5	7.2	2.9	2.1	0.7	40,552
수영	313	17.3	30.4	24.9	9.9	9.3	3.8	2.9	1.6	44,694
골프/스크린골프	329	14.3	28.0	23.7	14.0	8.8	4.0	6.1	1.2	61,566
볼링	312	39.4	36.2	14.1	3.8	2.6	1.0	1.0	1.9	24,680
야구	314	17.2	33.4	22.3	10.8	8.9	2.9	2.5	1.9	43,617
에어로빅	302	25.2	22.5	20.2	13.6	7.0	5.6	2.6	3.3	52,659
테니스	310	10.3	31.6	25.8	13.2	10.6	4.2	2.9	1.3	48,289
게이트볼	100	29.0	25.0	11.0	14.0	9.0	7.0	3.0	2.0	60,935
요가	211	30.8	28.9	21.3	6.2	8.1	1.4	0.9	2.4	36,805
탁구	310	16.1	40.0	20.6	11.0	5.5	2.6	2.6	1.6	36,917
승마	110	15.5	17.3	28.2	10.0	8.2	12.7	5.5	2.7	83,856
항공스포츠	130	13.1	20.8	20.8	13.8	8.5	10.0	9.2	3.8	98,021

※ 실태조사 전체응답자, n=10,366

Ⅲ. 조사 결과

(2) 부상 종류 및 가료기간 별 치료비용 개인 부담금액

- ▶ 부상 종류별로 살펴보면, 파열(177,926원), 골절(135,475원), 탈구(126,781원) 순으로 높은 반면 찰과상(18,479원), 좌상(36,282원), 통증(42,005원) 순으로 낮게 나타남.
- ▶ 가료기간별로 살펴보면, 가료기간이 길수록 부담금액이 높게 나타남.

【 표 Ⅲ-49 】 부상 종류 및 가료기간 별 치료비용 개인 부담금액

(단위: %, 원)

구분	사례수	개인부담액 없음	1만원 이하	1만원 초과 3만원 이하	3만원 초과 5만원 이하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20만원 초과	모름/무응답	평균 (원)	
전 체	10,366	17.1	32.6	21.0	10.4	7.8	4.5	4.3	2.2	54,700	
부상 종류	염좌	3,454	14.4	31.8	25.0	12.8	8.2	4.2	2.3	1.4	43,618
	골절	678	4.4	10.5	17.0	16.7	18.0	11.1	17.7	4.7	135,475
	탈구	210	5.7	16.2	17.6	11.0	16.2	11.9	16.7	4.8	126,781
	열상	457	8.5	29.3	21.7	12.9	10.1	7.9	6.3	3.3	66,862
	절단	46	6.5	17.4	19.6	10.9	17.4	4.3	10.9	13.0	110,676
	찰과상	943	22.0	53.4	15.0	4.3	1.9	1.1	0.7	1.6	18,479
	출혈	284	10.2	38.7	20.4	11.6	3.9	6.0	4.9	4.2	57,114
	좌상	1,054	17.8	40.1	21.3	7.5	6.8	3.1	2.0	1.2	36,282
	자상	78	9.0	28.2	30.8	11.5	11.5	6.4	1.3	1.3	44,875
	통증	2,613	26.2	32.6	19.2	9.1	5.6	2.8	2.4	2.0	42,005
	염증	193	7.8	26.4	27.5	8.8	13.0	5.7	6.2	4.7	73,244
	파열	197	7.6	15.2	15.7	8.1	10.2	11.7	25.9	5.6	177,926
기타	159	32.1	25.2	13.2	5.0	9.4	5.0	8.2	1.9	88,198	
가료 기간	경마가료 없음	1,880	43.6	42.3	8.8	2.0	0.8	0.4	0.5	1.6	15,594
	1주 미만 가료	2,574	19.5	46.7	19.9	7.3	3.1	1.1	1.0	1.4	23,486
	1-2주 가료	3,128	9.0	31.6	29.3	14.2	8.1	3.8	2.0	2.0	41,292
	3-4주 가료	1,800	6.6	17.1	24.3	16.8	14.7	9.6	8.1	2.9	83,374
	5-8주 가료	589	5.4	7.8	16.0	12.9	22.4	13.4	18.0	4.1	146,060
	9주 이상 가료	395	6.3	9.9	12.7	8.6	17.5	14.2	25.6	5.3	185,8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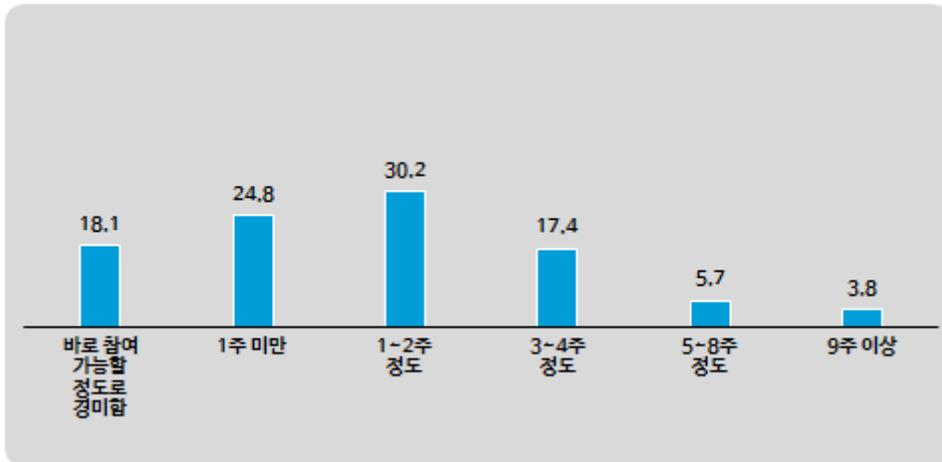
※ 실태조사 전체응답자, n=10,366

5) 가료기간

- ▶ 부상 경험자들의 가료기간은 ‘1-2주 정도’가 30.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1주 미만’(24.8%), ‘바로 참여 가능할 정도로 경미’(18.1%) 등의 순으로 조사되어 전체적으로 10명 중 7명 이상(73.1%: 18.1%+24.8%+30.2%)이 1-2주 정도 또는 그 이하의 가료기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Ⅲ-32■ 부상 후 가료기간

(단위: %)



※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10,366

Ⅲ. 조사 결과

(1) 종목별 가료기간

- ▶ 세부 종목별로 1-2주 정도 또는 그 이하(바로 참여가능, 1주 미만 포함)의 가료기간을 가지는 비율은 게이트볼(87.0%), 볼링(84.9%), 인라인스케이팅(81.9%)의 순이며 3-4주 이상의 가료기간을 가지는 비율은 ‘골프’(35.9%), 승마(35.5%), 축구(35.3%)의 순으로 조사됨.

【 표 Ⅲ-50 】 종목별 부상 후 가료기간

(단위: %)

구 분	사례수	바로 참여 가능할 경도로 경미함	1주 미 만	1-2주 정도	3-4주 정도	5-8주 정도	9주 이 상	1-2주 또는 그 이하	3-4주 이상
전 체	10,366	18.1	24.8	30.2	17.4	5.7	3.8	73.1	26.9
등산	1,028	14.7	27.1	31.9	16.8	5.6	3.8	73.7	26.3
축구	1,013	10.8	21.2	32.7	23.6	7.2	4.5	64.7	35.3
자전거	883	21.4	26.3	30.5	14.7	4.3	2.8	78.1	21.9
스키/스노보드	729	26.5	23.0	25.2	18.5	4.8	1.9	74.8	25.2
무도	336	19.3	20.2	35.7	14.3	7.1	3.3	75.3	24.7
아이스스케이팅	311	21.9	28.6	28.9	13.8	5.8	1.0	79.4	20.6
인라인스케이팅	160	30.6	23.8	27.5	10.6	6.9	0.6	81.9	18.1
보디빌딩(헬스)	713	11.2	24.0	31.7	20.5	6.7	5.9	66.9	33.1
농구	711	13.6	24.8	30.5	18.7	8.0	4.4	68.9	31.1
배드민턴	714	15.1	26.2	32.1	16.2	6.3	4.1	73.4	26.6
걷기	314	23.9	23.9	27.4	11.8	4.8	8.3	75.2	24.8
달리기(마라톤)	713	18.2	30.2	27.6	15.1	4.6	4.2	76.0	24.0
수영	313	24.9	22.4	28.4	17.3	3.5	3.5	75.7	24.3
골프/스크린골프	329	16.1	17.0	31.0	23.1	9.1	3.6	64.1	35.9
볼링	312	27.2	29.8	27.9	12.2	2.2	0.6	84.9	15.1
야구	314	14.6	23.6	30.6	21.0	4.1	6.1	68.8	31.2
에어로빅	302	30.5	22.2	26.8	14.9	2.6	3.0	79.5	20.5
테니스	310	12.3	22.6	32.3	21.3	7.4	4.2	67.1	32.9
게이트볼	100	37.0	22.0	28.0	8.0	4.0	1.0	87.0	13.0
요가	211	22.3	26.1	28.9	11.8	4.3	6.6	77.3	22.7
탁구	310	14.8	31.6	32.6	13.2	4.2	3.5	79.0	21.0
승마	110	15.5	25.5	23.6	25.5	8.2	1.8	64.5	35.5
항공스포츠	130	20.8	21.5	27.7	21.5	5.4	3.1	70.0	30.0

※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10,366

스포츠 안전사고 실태조사 -종합편

(2) 부상 종류별 가료기간

- ▶ 부상 종류에 따른 1-2주 정도 또는 그 이하(바로 참여가능, 1주 미만 포함)의 가료기간을 가지는 비율은 찰과상(93.0%), 자상(83.3%), 출혈(82.4%)의 순이며 3-4주 이상의 가료기간을 가지는 비율은 파열(70.1%), 골절(57.5%), 탈구(51.9%)의 순으로 조사됨.

▮ 표 III-51 ▮ 부상 종류별 부상 후 가료기간

(단위: %)

구분	사례수	바로 참여 가능할 정도로 경미함	1주 미만	1-2주 정도	3-4주 정도	5-8주 정도	9주 이상	1-2주 또는 그 이하	3-4주 이상	
전 체	10,366	18.1	24.8	30.2	17.4	5.7	3.8	73.1	26.9	
부상 종류	염좌	3,454	11.3	25.3	35.7	19.7	5.3	2.6	72.3	27.7
	골절	678	4.9	14.0	23.6	27.3	18.7	11.5	42.5	57.5
	탈구	210	5.7	10.0	32.4	33.3	11.9	6.7	48.1	51.9
	열상	457	15.3	21.7	33.5	22.1	4.6	2.8	70.5	29.5
	절단	46	15.2	15.2	39.1	19.6	6.5	4.3	69.6	30.4
	찰과상	943	40.9	30.8	21.3	6.4	0.5	0.1	93.0	7.0
	출혈	284	19.4	28.5	34.5	13.4	2.8	1.4	82.4	17.6
	좌상	1,054	24.9	28.1	28.6	14.9	2.3	1.3	81.5	18.5
	자상	78	16.7	25.6	41.0	12.8	1.3	2.6	83.3	16.7
	통증	2,613	21.8	27.2	28.7	14.4	4.6	3.3	77.7	22.3
	염증	193	10.9	18.1	28.5	25.4	8.8	8.3	57.5	42.5
	파열	197	4.1	8.6	17.3	19.3	21.3	29.4	29.9	70.1
기타	159	34.0	17.6	15.7	15.1	7.5	10.1	67.3	3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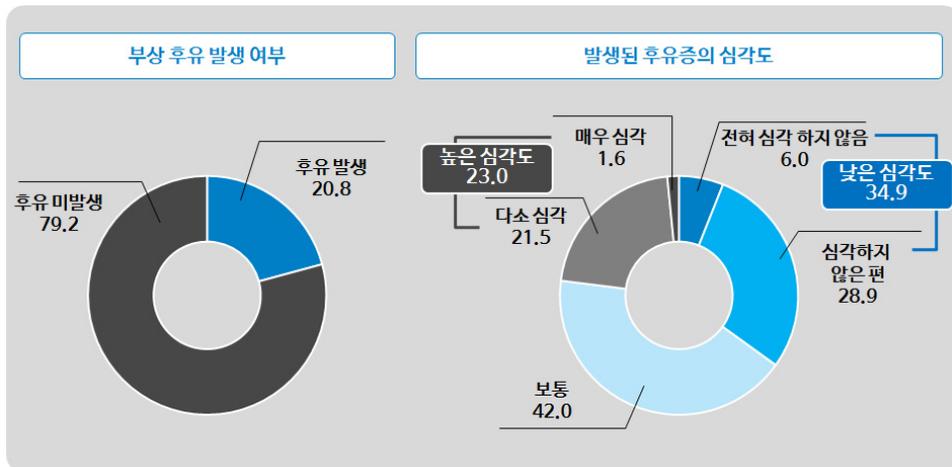
※ 실태조사 전체응답자, n=10,366

6) 부상으로 인한 후유 발생 현황

- ▶ 부상으로 인한 후유증이 발생했다는 응답은 20.8% 였으며, ‘심각하다’는 응답은 23.0%,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은 34.9%로 나타남.

■ 그림 Ⅲ-33 ■ 부상 후유 발생률 및 심각도

(단위: %)



※ 부상 후유 발생 여부 : 실태조사 전체응답자, n=10,366

※ 발생 후유 심각 정도 : 실태조사 후유발생자, n=2,158

스포츠 안전사고 실태조사 -종합편

(1) 종목별 부상 후유 발생률 및 심각도

- ▶ 종목별로 살펴보면, 후유증 발생률은 보디빌딩(헬스)(29.9%), 걷기(29.0%), 게이트볼(26.0%) 순, 부상후유증이 ‘심각하다’는 응답은 승마(39.1%), 수영(36.5%), 항공스포츠(31.3%) 순으로 높게 나타남.

【 표 III-52 】 종목별 부상 후유 발생률 및 심각도

(단위: %)

구분	사례수	후유 미발생	후유 발생	발생 후유증의 심각도							
				사례수	전혀 심각하지 않음	심각하지 않은 편	보통	다소 심각	매우 심각	낮은 심각도	높은 심각도
전 체	10,366	79.2	20.8	2,158	6.0	28.9	42.0	21.5	1.6	34.9	23.0
등산	1,028	82.9	17.1	176	6.8	30.7	43.8	18.2	0.6	37.5	18.8
축구	1,013	81.6	18.4	186	8.1	32.3	42.5	15.1	2.2	40.3	17.2
자전거	883	80.0	20.0	177	7.3	32.8	35.0	23.7	1.1	40.1	24.9
스키/스노보드	729	84.5	15.5	113	7.1	25.7	46.9	18.6	1.8	32.7	20.4
무도	336	75.3	24.7	83	3.6	33.7	39.8	22.9	0.0	37.3	22.9
아이스케이팅	311	78.8	21.2	66	13.6	28.8	33.3	22.7	1.5	42.4	24.2
인라인스케이팅	160	90.6	9.4	15	6.7	20.0	40.0	20.0	13.3	26.7	33.3
보디빌딩(헬스)	713	70.1	29.9	213	1.9	26.3	48.8	20.7	2.3	28.2	23.0
농구	711	76.7	23.3	166	7.2	22.9	46.4	22.3	1.2	30.1	23.5
배드민턴	714	77.6	22.4	160	5.0	23.8	45.6	25.0	0.6	28.8	25.6
걷기	314	71.0	29.0	91	3.3	28.6	41.8	24.2	2.2	31.9	26.4
달리기	713	78.7	21.3	152	0.7	30.3	42.1	25.0	2.0	30.9	27.0
수영	313	83.4	16.6	52	5.8	19.2	38.5	34.6	1.9	25.0	36.5
골프/스키골프	329	76.3	23.7	78	3.8	32.1	39.7	24.4	0.0	35.9	24.4
볼링	312	86.2	13.8	43	2.3	32.6	44.2	20.9	0.0	34.9	20.9
야구	314	82.5	17.5	55	5.5	29.1	38.2	21.8	5.5	34.5	27.3
에어로빅	302	75.5	24.5	74	10.8	33.8	39.2	14.9	1.4	44.6	16.2
테니스	310	81.3	18.7	58	5.2	37.9	37.9	19.0	0.0	43.1	19.0
게이트볼	100	74.0	26.0	26	11.5	38.5	26.9	15.4	7.7	50.0	23.1
요가	211	74.9	25.1	53	5.7	37.7	35.8	18.9	1.9	43.4	20.8
탁구	310	78.7	21.3	66	12.1	22.7	50.0	13.6	1.5	34.8	15.2
승마	110	79.1	20.9	23	8.7	8.7	43.5	39.1	0.0	17.4	39.1
항공스포츠	130	75.4	24.6	32	12.5	31.3	25.0	31.3	0.0	43.8	31.3

※ 부상 후유 발생 : 실태조사 전체응답자, n=10,366

※ 발생 후유 심각도 : 후유발생자, n=2,158

※ 개별 사례수 20표본 이하 결과는 해석 시 주의를 요함

Ⅲ. 조사 결과

(2) 부상 종류 및 가료기간 별 부상 후유 발생률 및 심각도

- ▶ 부상 종류에 따른 후유 발생률을 살펴보면, 절단(50.0%), 파열(42.6%), 탈구(41.4%) 순으로, 가료기간별로 살펴보면 가료기간이 길수록 후유 발생률이 높게 나타남.

【 표 Ⅲ-53 】 부상 종류 및 가료기간 별 부상 후유 발생률 및 심각도

(단위: %)

구분	사 례 수	후유 미 발생	후유 발생	발생 후유증의 심각도								
				사 례 수	전혀 심각 하지 않음	심각 하지 않은 편	보통	다소 심각	매우 심각	낮은 심각도	높은 심각도	
전 체	10,366	79.2	20.8	2,158	6.0	28.9	42.0	21.5	1.6	34.9	23.0	
부상 종류	염좌	3,454	81.1	18.9	652	4.1	28.7	46.6	19.6	0.9	32.8	20.6
	골절	678	64.3	35.7	242	5.8	26.9	41.7	22.7	2.9	32.6	25.6
	탈구	210	58.6	41.4	87	2.3	28.7	29.9	33.3	5.7	31.0	39.1
	열상	457	77.9	22.1	101	11.9	31.7	36.6	19.8	0.0	43.6	19.8
	절단	46	50.0	50.0	23	0.0	65.2	21.7	13.0	0.0	65.2	13.0
	찰과상	943	91.2	8.8	83	18.1	36.1	37.3	8.4	0.0	54.2	8.4
	출혈	284	77.8	22.2	63	4.8	46.0	36.5	11.1	1.6	50.8	12.7
	좌상	1,054	86.2	13.8	145	6.9	39.3	35.9	16.6	1.4	46.2	17.9
	자상	78	73.1	26.9	21	9.5	33.3	38.1	19.0	0.0	42.9	19.0
	통증	2,613	78.9	21.1	552	6.2	27.0	44.0	21.2	1.6	33.2	22.8
	염증	193	64.2	35.8	69	5.8	15.9	50.7	27.5	0.0	21.7	27.5
	파열	197	57.4	42.6	84	6.0	7.1	39.3	45.2	2.4	13.1	47.6
	기타	159	77.4	22.6	36	5.6	30.6	25.0	33.3	5.6	36.1	38.9
가료 기간	경마가료 없음	1,880	93.5	6.5	122	32.0	32.0	27.9	8.2	0.0	63.9	8.2
	1주 미만 가료	2,574	87.5	12.5	322	15.8	37.6	38.2	8.1	0.3	53.4	8.4
	1-2주 가료	3,128	79.3	20.7	648	4.0	37.5	42.3	15.7	0.5	41.5	16.2
	3-4주 가료	1,800	69.6	30.4	547	1.6	28.7	46.8	21.9	0.9	30.3	22.9
	5-8주 가료	589	56.0	44.0	259	1.2	14.7	46.3	36.3	1.5	15.8	37.8
	9주 이상 가료	395	34.2	65.8	260	0.8	10.0	38.5	42.7	8.1	10.8	50.8

※ 부상 후유 발생 여부 : 실태조사 전체응답자, n=10,366

※ 발생 후유 심각 정도 : 실태조사 후유발생자, n=2,158

스포츠 안전사고 실태조사 -종합편

(3) 주 발생 부상후유 유형

- ▶ 부상 후 후유증이 발생한 응답자 10명 중 5명(50.0%)은 부상 후유증의 유형으로 ‘부상 부위의 지속/주기적인 통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다음으로 부자연스러운 신체 움직임, 빠근함/불편감, 관절에서의 소리 등 ‘신체적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경우가 12.8%, ‘부상 부위 사용 시 통증’ (10.3%), 오십견, 디스크, 관절염 등 ‘만성 질환’(9.9%) 등의 순으로 조사됨.

Ⅱ 표 Ⅲ-54 Ⅱ 주 발생 부상후유 유형

(단위: %, 복수응답)

구 분	사례수	응답비율
전 체	2,158	
부상부위의 지속/주기적인 통증	1,078	50.0
신체적 불편함(부자연스러운 움직임, 빠근함/불편감, 관절소리 등)	277	12.8
부상부위 사용시 통증	222	10.3
만성질환(오십견, 디스크, 관절염 등)	214	9.9
부상부위의 비주기적 통증	165	7.6
운동능력 및 기량 감소(근력/유연성/민첩성 약화 및 기량감퇴 등)	99	4.6
심리적 불편함(동일부상발생 및 재발에 대한 두려움, 악몽, 스트레스 등)	89	4.1
부상당한부위의 변형(손가락 휘어짐, 손발톱변형, 부상부위 변/탈색 등)	53	2.5
다른부위의 변형(반대편 손/발 무리 및 두부충격 후 시력문제 등)	9	0.4
신체적 장애(골신장애, 난청, 미/후각 장애 등)	9	0.4
없음	28	1.3
모름/무응답	118	5.5

※ 실태조사 후유발생자, n=2,1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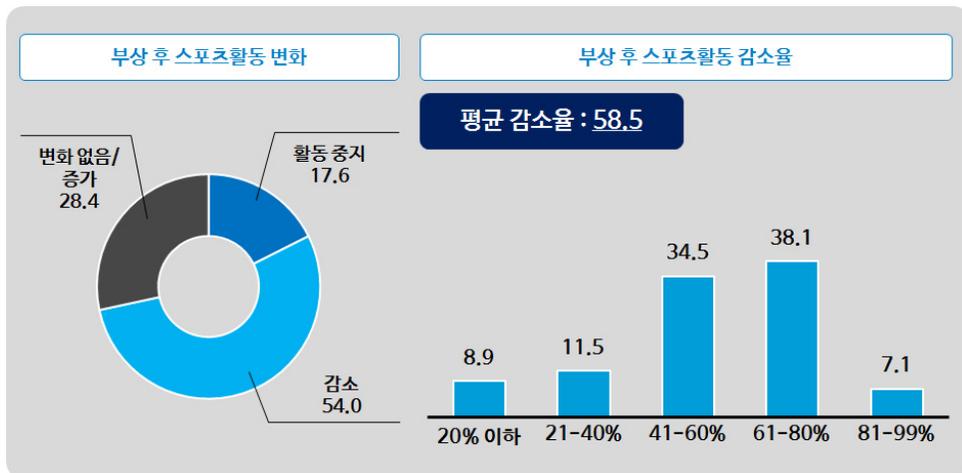
※ 개별 사례수 20표본 이하 결과는 해석 시 주의를 요함

7) 부상 후 스포츠활동 변화 및 감소율

- ▶ 부상 이후 ‘스포츠활동의 주기 및 횟수가 감소’했다는 응답이 54.0%, ‘해당스포츠 활동을 중지’했다는 응답이 17.6%로, 10명 중 7명 정도는 부상 이후 스포츠활동을 적게 하거나 중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 주기 및 횟수가 감소하는 경우, 평균 감소율은 58.5%임.

■ 그림 Ⅲ-34 ■ 부상 후 스포츠활동 변화 및 감소율

(단위: %)



※ 부상 후 스포츠활동 변화 : 실태조사 전체응답자, n=10,366

※ 부상 후 스포츠활동 감소 : 실태조사 부상 후 스포츠활동 감소 응답자, n=5,601

스포츠 안전사고 실태조사 -종합편

(1) 종목별 부상 후 스포츠활동 변화 및 감소율

- ▶ 종목별로 살펴보면, ‘활동중지’라는 응답은 항공스포츠(32.3%), 승마(27.3%), 요가(26.1%) 순으로, ‘감소’라는 응답은 등산(61.2%), 무도(57.4%), 아이스스케이팅(56.6%) 순으로 높게 나타남.
- ▶ 평균 감소율은 스키/스노보드(63.0%), 요가(62.8%), 걷기(61.8%) 순으로 높게 나타남.

【 표 III-55 】 종목별 부상 후 스포츠활동 변화 및 감소율

(단위: %)

구분	사례수	변화 없음/ 증가	활동 중지	감소	감소 인구의 감소율						
					사례수	20% 이하	21-40 %	41-60 %	61-80 %	81-99 %	평균 감소율
전 체	10,366	28.4	17.6	54.0	5,601	8.9	11.5	34.5	38.1	7.1	58.5
등산	1,028	27.1	11.7	61.2	629	4.8	11.1	32.9	44.7	6.5	61.5
축구	1,013	29.7	15.8	54.5	552	8.3	9.4	32.2	40.8	9.2	60.3
자전거	883	31.9	12.6	55.5	490	12.4	12.7	31.6	35.9	7.3	56.8
스키/스노보드	729	31.1	16.0	52.8	385	4.7	7.0	34.8	44.9	8.6	63.0
무도	336	22.6	19.9	57.4	193	9.8	13.0	36.8	34.2	6.2	56.3
아이스스케이팅	311	22.8	20.6	56.6	176	10.8	15.3	35.8	31.3	6.8	55.1
인라인스케이팅	160	31.3	14.4	54.4	87	3.4	16.1	32.2	43.7	4.6	59.5
보디빌딩(헬스)	713	21.2	23.1	55.7	397	6.3	10.6	33.5	44.3	5.3	60.5
농구	711	28.3	17.2	54.6	388	10.3	10.6	37.9	34.5	6.7	57.0
배드민턴	714	22.1	21.7	56.2	401	9.5	8.7	33.2	40.6	8.0	59.9
걷기	314	28.3	16.9	54.8	172	6.4	12.2	27.3	43.6	10.5	61.8
달리기	713	25.9	19.4	54.7	390	9.0	11.0	36.7	37.9	5.4	57.6
수영	313	32.3	16.0	51.8	162	5.6	11.7	39.5	35.8	7.4	59.4
골프/스쿠리골프	329	33.7	16.7	49.5	163	6.1	19.0	34.4	34.4	6.1	56.6
볼링	312	38.1	15.7	46.2	144	16.7	10.4	37.5	30.6	4.9	53.1
야구	314	42.4	12.4	45.2	142	14.1	10.6	40.1	27.5	7.7	54.9
에어로빅	302	31.8	20.5	47.7	144	13.9	13.9	34.0	31.3	6.9	54.7
테니스	310	24.8	23.2	51.9	161	8.7	13.0	34.2	41.0	3.1	58.5
게이트볼	100	42.0	16.0	42.0	42	21.4	28.6	28.6	16.7	4.8	43.6
요가	211	25.1	26.1	48.8	103	8.7	6.8	31.1	41.7	11.7	62.8
탁구	310	28.4	19.4	52.3	162	9.9	13.6	42.0	25.9	8.6	55.5
승마	110	24.5	27.3	48.2	53	18.9	17.0	41.5	17.0	5.7	48.1
항공스포츠	130	17.7	32.3	50.0	65	16.9	21.5	33.8	23.1	4.6	48.5

※ 부상 후 스포츠활동 변화 : 실태조사 전체응답자, n=10,366

※ 부상 후 스포츠활동 감소 : 실태조사 부상 후 스포츠활동 감소 응답자, n=5,601

Ⅲ. 조사 결과

(2) 부상 종류 및 가료기간 별 부상 후 스포츠활동 변화 및 감소율

- ▶ 부상 종류별로 살펴보면, ‘활동 중지’는 절단(34.8%), 파열(33.0%), 염증(29.0%) 순으로, ‘감소’는 탈구(65.7%), 골절(64.2%), 자상(60.3%) 순이며, 평균 감소율은 좌상(61.1%), 염좌(60.6%), 찰과상(59.7%) 순으로 나타남.
- ▶ 전반적으로 가료기간이 길수록 ‘활동 중지’ 및 ‘감소’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표 Ⅲ-56】 부상 종류 및 가료기간 별 부상 후 스포츠활동 변화 및 감소율
(단위: %)

구분	사례수	변화 없음 / 증가	활동 중지	감소	감소 인구의 감소율							
					사례수	20% 이하	21-40%	41-60%	61-80%	81-99%	평균 감소율	
전 체	10,366	28.4	17.6	54.0	5,601	8.9	11.5	34.5	38.1	7.1	58.5	
부상 종류	염좌	3,454	25.7	17.6	56.8	1,961	7.2	8.7	34.4	42.9	6.8	60.6
	골절	678	15.5	20.4	64.2	435	12.0	15.2	36.6	32.4	3.9	54.1
	탈구	210	16.2	18.1	65.7	138	13.8	14.5	38.4	31.2	2.2	53.4
	열상	457	28.0	17.7	54.3	248	14.9	10.9	36.7	32.7	4.8	54.6
	절단	46	10.9	34.8	54.3	25	0.0	24.0	56.0	16.0	4.0	51.0
	찰과상	943	48.1	8.8	43.1	406	9.9	12.6	26.8	38.9	11.8	59.7
	출혈	284	26.8	18.7	54.6	155	10.3	9.7	38.1	38.1	3.9	57.3
	좌상	1,054	33.7	14.9	51.4	542	7.6	10.5	31.2	42.6	8.1	61.1
	자상	78	26.9	12.8	60.3	47	17.0	14.9	27.7	27.7	12.8	54.1
	통증	2,613	29.0	18.8	52.3	1,366	8.8	13.2	35.4	34.5	8.2	57.8
	염증	193	17.6	29.0	53.4	103	4.9	18.4	33.0	38.8	4.9	58.2
	파열	197	16.2	33.0	50.8	100	10.0	17.0	37.0	30.0	6.0	53.9
	기타	159	33.3	19.5	47.2	75	10.7	12.0	45.3	28.0	4.0	52.8
가료 기간	경마가료 없음	1,880	53.5	10.9	35.6	669	11.1	8.4	27.8	38.9	13.9	61.0
	1주 미만 가료	2,574	31.4	14.8	53.8	1,386	10.0	10.3	32.6	39.8	7.3	58.9
	1-2주 가료	3,128	23.0	16.9	60.1	1,879	8.4	11.4	34.0	39.6	6.6	58.8
	3-4주 가료	1,800	16.9	20.3	62.8	1,131	7.3	12.4	38.7	36.3	5.3	57.8
	5-8주 가료	589	10.4	27.8	61.8	364	6.6	16.2	40.9	32.7	3.6	56.3
	9주 이상 가료	395	10.6	45.8	43.5	172	11.6	18.0	39.0	28.5	2.9	52.0

※ 부상 후 스포츠활동 변화 : 실태조사 전체응답자, n=10,3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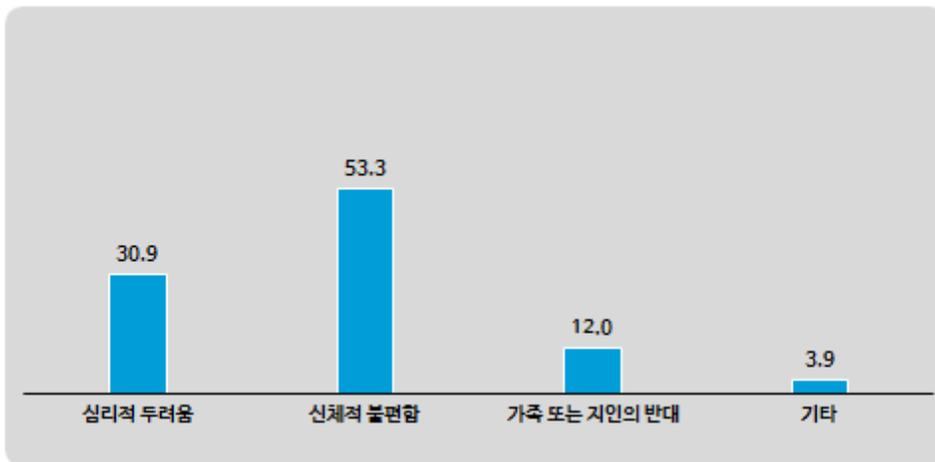
※ 부상 후 스포츠활동 감소 : 실태조사 부상 후 스포츠활동 감소 응답자, n=5,601

8) 부상 후 스포츠활동 감소 및 중단 이유

- ▶ 부상 후 스포츠활동 감소 및 중단의 이유는 ‘신체적 불편함’(53.3%), ‘심리적 두려움’(30.9%), ‘가족 또는 지인의 반대’(12.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그림 III-35 ■ 부상 후 스포츠활동 감소 및 중단 이유

(단위: %)



※ 실태조사 부상 후 스포츠활동 중단 및 감소 응답자, n=7,426

Ⅲ. 조사 결과

(1) 종목별 부상 후 스포츠활동 감소 및 중단 이유

- ▶ 종목별로 살펴보면, ‘신체적 불편함’은 걷기(70.2%), 요가(67.1%), 보디빌딩(헬스)(64.6%) 순으로, ‘심리적 두려움’은 승마(50.6%), 스키/스노보드(48.4%), 인라인스케이팅(46.4%) 순으로, ‘가족 또는 지인의 반대’는 항공스포츠(29.9%), 게이트볼(20.7%), 무도(19.2%)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표 Ⅲ-57】 종목별 부상 후 스포츠활동 감소 및 중단 이유

(단위: %)

구분	사례수	심리적 두려움	신체적 불편함	가족 또는 지인의 반대	기타
전 체	7,426	30.9	53.3	12.0	3.9
등산	749	28.6	53.5	13.1	4.8
축구	712	27.4	51.7	16.6	4.4
자전거	601	38.1	38.8	17.8	5.3
스키/스노보드	502	48.4	38.2	9.6	3.8
무도	260	24.6	55.0	19.2	1.2
아이스스케이팅	240	43.3	40.8	11.7	4.2
인라인스케이팅	110	46.4	30.9	15.5	7.3
보디빌딩(헬스)	562	26.5	64.6	4.8	4.1
농구	510	32.0	53.7	10.8	3.5
배드민턴	556	26.3	60.3	9.5	4.0
걷기	225	20.0	70.2	6.2	3.6
달리기	528	26.7	61.6	9.1	2.7
수영	212	33.0	54.2	8.0	4.7
골프/스크린골프	218	25.7	63.8	8.7	1.8
볼링	193	26.4	56.0	9.8	7.8
야구	181	32.0	45.9	18.2	3.9
에어로빅	206	31.1	51.5	16.0	1.5
테니스	233	27.5	57.5	11.2	3.9
게이트볼	58	22.4	56.9	20.7	0.0
요가	158	27.8	67.1	2.5	2.5
탁구	222	23.0	63.5	10.8	2.7
승마	83	50.6	38.6	9.6	1.2
항공스포츠	107	34.6	32.7	29.9	2.8

※ 실태조사 부상 후 스포츠활동 중단 및 감소 응답자, n=7,426

스포츠 안전사고 실태조사 -종합편

(2) 부상 종류 및 가료기간 별 부상 후 스포츠활동 감소 및 중단 이유

- ▶ 부상 종류별로 살펴보면 ‘신체적 불편함’은 염증(63.5%), 통증(60.1%), 염좌(55.9%) 순으로, ‘심리적 두려움’은 좌상(38.3%), 찰과상(38.0%), 열상(35.6%) 순으로, ‘가족 또는 지인의 반대’는 절단(29.3%), 탈구 및 자상(각 19.3%), 출혈(18.8%) 순으로 높게 나타남.
- ▶ 가료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신체적 불편함’ 응답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 표 Ⅲ-58 ▮ 부상 종류 및 가료기간 별 부상 후 스포츠활동 감소 및 중단 이유
(단위: %)

구분		사례수	심리적 두려움	신체적 불편함	가족 또는 지인의 반대	기타
전 체		7,426	30.9	53.3	12.0	3.9
부상 종류	염좌	2,568	30.0	55.9	10.2	3.9
	골절	573	31.8	50.1	16.2	1.9
	탈구	176	26.1	51.1	19.3	3.4
	열상	329	35.6	43.8	17.0	3.6
	절단	41	34.1	36.6	29.3	0.0
	찰과상	489	38.0	39.1	15.5	7.4
	출혈	208	34.6	45.7	18.8	1.0
	좌상	699	38.3	44.5	13.2	4.0
	자상	57	35.1	45.6	19.3	0.0
	통증	1,856	27.4	60.1	8.8	3.7
	염증	159	22.0	63.5	9.4	5.0
	파열	165	27.9	55.8	14.5	1.8
기타	106	27.4	50.0	12.3	10.4	
가료 기간	경마가료 없음	874	34.9	42.7	12.5	10.0
	1주 미만 가료	1,766	32.3	51.9	11.6	4.3
	1-2주 가료	2,409	29.8	55.0	12.5	2.7
	3-4주 가료	1,496	31.1	53.2	13.4	2.3
	5-8주 가료	528	29.2	58.9	9.7	2.3
	9주 이상 가료	353	23.2	66.3	7.1	3.4

※ 실태조사 부상 후 스포츠활동 중단 및 감소 응답자, n=7,426

제3절 스포츠 안전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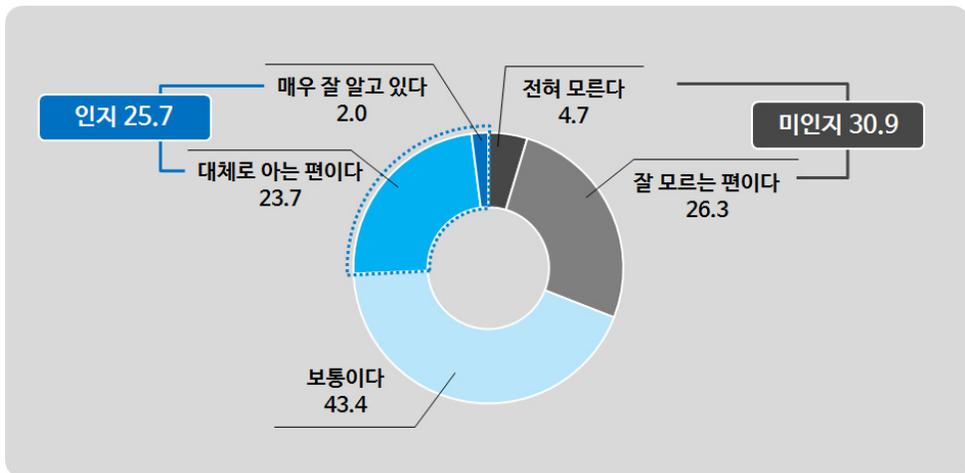
1 안전 의식

1) 종목 안전수칙 인지도

- ▶ 스포츠 안전수칙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25.7%(매우 잘 알고 있음 2.0%+대체로 아는 편 23.7%)로, ‘모른다’는 응답 30.9%(전혀 모름 4.7%+잘 모르는 편 26.3%)에 비해 5.2%p 낮게 나타남.

■ 그림 Ⅲ-36 ■ 종목 안전수칙 인지도

(단위: %)



※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10,366

스포츠 안전사고 실태조사 -종합편

- ▶ 종목별로 안전수칙 인지도를 살펴보면, ‘인지’라는 응답은 야구(41.4%), 게이트볼(40.0%), 수영(31.6%) 순으로 높은 반면, ‘미인지’라는 응답은 볼링(53.8%), 요가(41.7%), 배드민턴(38.4%) 순으로 높게 나타남.

【 표 III-59 】 종목별 안전수칙 인지도

(단위: %)

구 분	사례수	전혀 모른다	잘 모르는 편이다	보통이다	대체로 아는 편이다	매우 잘 알고 있다	미인지	인지
전 체	10,366	4.7	26.3	43.4	23.7	2.0	30.9	25.7
등산	1,028	2.0	24.9	48.7	22.8	1.6	26.9	24.3
축구	1,013	3.8	22.5	45.3	26.7	1.8	26.3	28.4
자전거	883	3.6	25.7	43.3	25.4	2.0	29.3	27.4
스키/스노보드	729	2.5	21.0	47.3	27.6	1.6	23.5	29.2
무도	336	4.5	26.8	41.4	22.9	4.5	31.3	27.4
아이스스케이팅	311	6.4	31.8	38.6	19.9	3.2	38.3	23.2
인라인스케이팅	160	4.4	29.4	39.4	25.0	1.9	33.8	26.9
보디빌딩(헬스)	713	3.9	31.0	41.8	21.2	2.1	34.9	23.3
농구	711	4.5	22.9	41.9	27.4	3.2	27.4	30.7
배드민턴	714	6.6	31.8	43.6	17.5	0.6	38.4	18.1
걷기	314	8.0	29.3	46.2	16.2	0.3	37.3	16.6
달리기	713	5.3	30.2	44.2	19.6	0.7	35.5	20.3
수영	313	2.2	17.6	48.6	28.8	2.9	19.8	31.6
골프/스크린골프	329	4.9	29.5	40.4	21.9	3.3	34.3	25.2
볼링	312	11.2	42.6	29.8	14.1	2.2	53.8	16.3
야구	314	3.2	13.4	42.0	36.6	4.8	16.6	41.4
에어로빅	302	6.6	24.2	40.7	27.5	1.0	30.8	28.5
테니스	310	4.8	24.5	42.3	27.1	1.3	29.4	28.4
게이트볼	100	6.0	25.0	29.0	34.0	6.0	31.0	40.0
요가	211	6.6	35.1	40.3	16.1	1.9	41.7	18.0
탁구	310	8.1	24.2	44.2	21.9	1.6	32.3	23.5
승마	110	5.5	24.5	41.8	26.4	1.8	30.0	28.2
항공스포츠	130	6.2	22.3	46.9	23.8	0.8	28.5	2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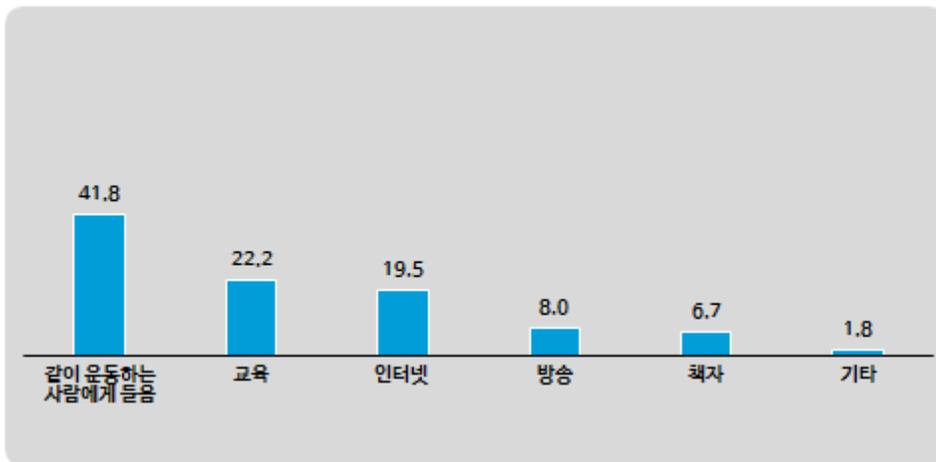
※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10,366

2) 종목 안전수칙 인지 경로

- ▶ 종목별 안전수칙을 비교적 잘 알고 있는 응답자(안전수칙 대체로 인지+매우 잘 인지)들이 안전수칙을 인지하게 된 경로는 ‘같이 운동하는 사람에게 들음’(41.8%), ‘교육’(22.2%), ‘인터넷’(19.5%)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그림 Ⅲ-37 ■ 종목 안전수칙 인지 경로

(단위: %)



※ 실태조사 종목 안전수칙 인지(대체로 아는 편+매우 잘 알고 있음) 응답자, n=2,661

스포츠 안전사고 실태조사 -종합편

- ▶ 종목별로 살펴보면, ‘같이 운동하는 사람에게 들음’이라는 응답은 게이트볼(62.5%), 탁구(60.3%), 배드민턴(55.8%) 순으로, ‘교육’이라는 응답은 승마(61.3%), 항공 스포츠(50.0%), 수영(48.5%) 순으로 높게 나타남.

▮ 표 III-60 ▮ 종목별 안전수칙 인지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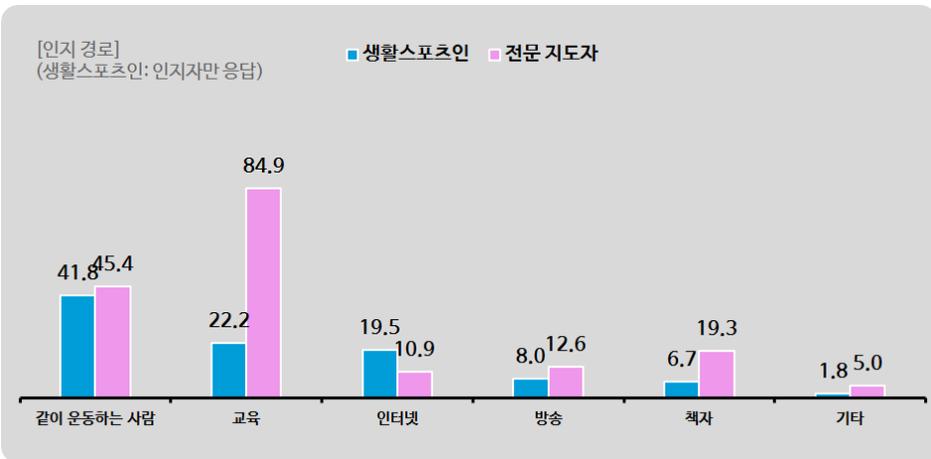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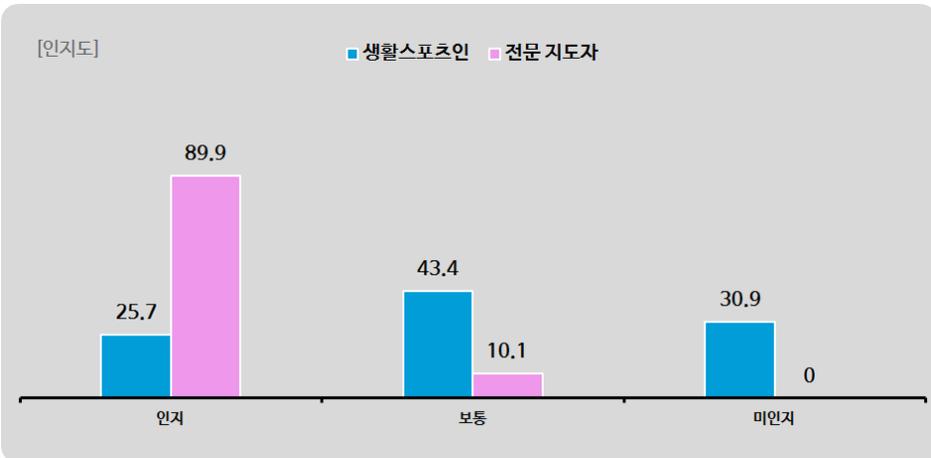
(단위: %)

구 분	사례수	같이 운동하는 사람에게 들음	교육	인터넷	방송	책자	기타	계
전 체	2,661	41.8	22.2	19.5	8.0	6.7	1.8	100.0
등산	250	44.0	11.2	24.4	12.8	6.4	1.2	100.0
축구	288	53.5	16.7	17.0	7.3	3.1	2.4	100.0
자전거	242	36.0	14.9	31.8	9.9	7.0	0.4	100.0
스키/스노보드	213	34.7	34.7	16.0	8.0	6.6	0.0	100.0
무도	92	41.3	39.1	6.5	1.1	10.9	1.1	100.0
아이스스케이팅	72	29.2	23.6	26.4	12.5	8.3	0.0	100.0
인라인스케이팅	43	44.2	9.3	30.2	9.3	4.7	2.3	100.0
보디빌딩(헬스)	166	36.1	18.7	26.5	3.6	13.9	1.2	100.0
농구	218	42.7	22.9	20.2	10.1	2.8	1.4	100.0
배드민턴	129	55.8	14.7	15.5	4.7	8.5	0.8	100.0
걷기	52	17.3	11.5	26.9	25.0	13.5	5.8	100.0
달리기	145	31.0	26.9	28.3	6.9	6.9	0.0	100.0
수영	99	26.3	48.5	9.1	9.1	5.1	2.0	100.0
골프/스크린골프	83	48.2	31.3	10.8	2.4	7.2	0.0	100.0
볼링	51	47.1	25.5	21.6	3.9	2.0	0.0	100.0
야구	130	54.6	14.6	15.4	10.0	5.4	0.0	100.0
에어로빅	86	32.6	20.9	11.6	8.1	4.7	22.1	100.0
테니스	88	53.4	15.9	13.6	4.5	12.5	0.0	100.0
게이트볼	40	62.5	10.0	2.5	10.0	5.0	10.0	100.0
요가	38	31.6	44.7	18.4	0.0	2.6	2.6	100.0
탁구	73	60.3	13.7	19.2	2.7	4.1	0.0	100.0
승마	31	19.4	61.3	6.5	3.2	9.7	0.0	100.0
항공스포츠	32	21.9	50.0	9.4	9.4	9.4	0.0	100.0

※ 실태조사 종목 안전수칙 인지(대체로 아는 편+매우 잘 알고 있음) 응답자, n=2,661

참고 [전문 체육 지도자 조사] 안전의식 인지/ 인지경로

- ◎ ‘전문 체육 지도자 조사’ 결과와 비교해보면, 지도자들의 경우 ‘인지’ 비율이 89.9%로 거의 대부분이며, 특히 ‘교육’을 통한 인지 경로가 84.9%로 ‘생활 스포츠인’과 차이를 보임.
(단위: %)



- ※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10,366
- ※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중 인지자, n=2,661
- ※ 전문 체육 지도자 조사 전체 응답자, n=119

참고 [전문 체육 지도자 조사] 시급 개선 사항

- ◎ ‘전문 체육 지도자 조사’에서 ‘안전한 스포츠 활동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 오픈문항으로 질문한 결과, ‘다양한 교육 강화/확대’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음.
- ‘다양한 교육 강화/확대’에는 ‘지도자 대상 교육’, ‘시설 교육’, ‘보호장구 착용 교육’ 등 다양한 의견들이 있음.
- 다음으로 ‘장비확보 및 장비 착용 의무화’, ‘시설 확보/확충’, ‘안전을 위한 정책/제도 관리 강화’ 등의 순으로 나타남.

시급 개선 사항(오픈문항, n=119)	(%)
다양한 교육 강화/확대	63.9
장비확보/의무화	29.4
시설확보/확충	24.4
안전을위한정책/제도/관리강화	18.5
안전에대한의식개선	9.2
수준에맞는운동	7.6
전문가확보/양성	4.2
기타	15.1
없음/모름/무응답	1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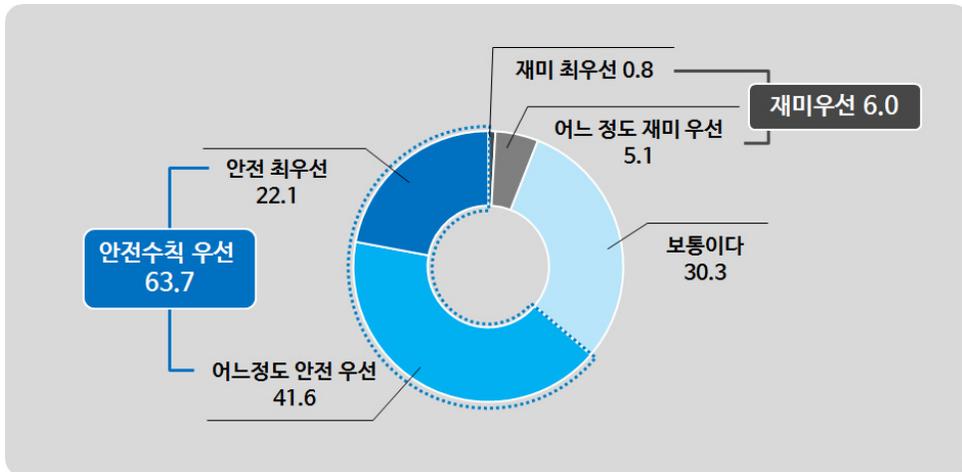
2 안전수칙 준수현황

1) 안전수칙 준수 인식

- ▶ 안전수칙에 대한 준수 정도를 질문한 결과, ‘안전 최우선’ 22.1%, ‘어느정도 안전 우선’ 41.6%로, 63.7%가 안전을 우선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음. ‘재미 우선’은 6.0%임.

■ 그림 Ⅲ-38 ■ 안전수칙 준수 인식

(단위: %)



※ 실태조사 전체응답자, n=10,366

스포츠 안전사고 실태조사 -종합편

- ▶ 안전수칙 준수 인식을 종목별로 살펴보면, ‘안전 우선’이라는 응답은 게이트볼 및 요가(각 73.0%), 스키/스노보드(70.6%), 아이스스케이팅(70.1%) 순으로 높은 반면, ‘재미 우선’이라는 응답은 탁구(11.0%), 항공스포츠(10.8%), 무도(10.1%) 순으로 높게 나타남.

【 표 III-61 】 종목별 안전수칙 준수 인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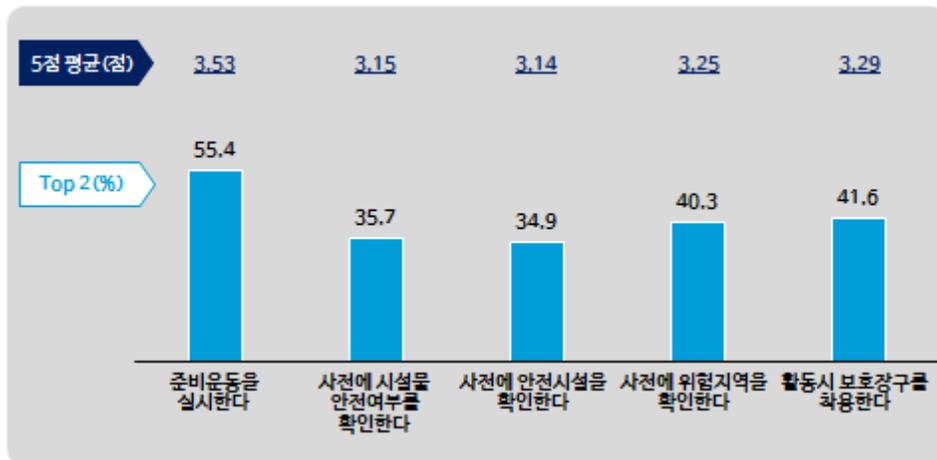
구 분	사례수	재미 최우선	어느정도 재미우선	보통	어느정도 안전우선	안전 최우선	재미 우선	안전수칙 준수 우선
전 체	10,366	0.8	5.1	30.3	41.6	22.1	6.0	63.7
등산	1,028	0.4	2.8	28.1	44.6	24.1	3.2	68.7
축구	1,013	1.2	7.8	34.5	40.9	15.7	9.0	56.6
자전거	883	0.5	5.2	33.0	39.3	22.1	5.7	61.4
스키/스노보드	729	0.4	3.4	25.5	46.1	24.6	3.8	70.6
무도	336	2.7	7.4	31.8	37.2	20.8	10.1	58.0
아이스스케이팅	311	1.3	2.9	25.7	46.6	23.5	4.2	70.1
인라인스케이팅	160	0.0	7.5	23.8	38.8	30.0	7.5	68.8
보디빌딩(헬스)	713	0.6	3.9	27.2	41.1	27.2	4.5	68.3
농구	711	1.5	7.3	36.0	40.6	14.5	8.9	55.1
배드민턴	714	1.0	8.1	33.5	40.9	16.5	9.1	57.4
걷기	314	0.0	2.9	30.6	39.8	26.8	2.9	66.6
달리기	713	0.3	4.1	31.7	41.7	22.3	4.3	64.0
수영	313	1.0	2.6	28.1	39.0	29.4	3.5	68.4
골프/스크린골프	329	0.3	3.3	32.2	46.5	17.6	3.6	64.1
볼링	312	1.0	5.1	34.0	40.4	19.6	6.1	59.9
야구	314	0.0	4.8	30.3	42.0	22.9	4.8	65.0
에어로빅	302	2.3	4.6	27.2	45.4	20.5	7.0	65.9
테니스	310	0.6	4.5	27.1	45.5	22.3	5.2	67.7
게이트볼	100	1.0	5.0	21.0	41.0	32.0	6.0	73.0
요가	211	0.5	0.9	25.6	41.7	31.3	1.4	73.0
탁구	310	1.9	9.0	30.3	36.5	22.3	11.0	58.7
승마	110	0.0	8.2	22.7	33.6	35.5	8.2	69.1
항공스포츠	130	3.1	7.7	26.9	32.3	30.0	10.8	62.3

※ 실태조사 전체응답자, n=10,366

2) 세부 안전수칙 준수 정도

- ▶ 안전수칙 준수 정도를 살펴보면 ‘준비운동을 실시한다’는 응답이 55.4%로 가장 높고, 이어서 ‘활동시 보호장구 착용’(41.6%), ‘사전에 위험지역 확인’(40.3%), ‘사전에 시설물 안전여부 확인’(35.7%), ‘사전에 안전시설 확인’(34.9%) 순으로 높게 나타남.

▮ 그림 Ⅲ-39 ▮ 세부 안전수칙 준수 정도(Top2: 매우긍정+긍정 비율)
(단위: 점, %)



※ 실태조사 전체응답자, n=10,366

※ Top2: [4]긍정과 [5]매우 긍정의 합산 비율

스포츠 안전사고 실태조사 -종합편

- ▶ 종목별로 살펴보면, ‘준비운동 실시’는 승마(3.67점), 야구(3.66점), 보디빌딩(헬스) 및 수영 (각 3.65점) 순으로, ‘활동시 보호장구 착용’은 승마(3.73점), 항공스포츠(3.66점), 스키/스노보드(3.60점) 순으로 높게 나타남.

【 표 III-62 】 종목별 세부 안전수칙 준수 정도(Top2: 매우긍정+긍정 비율)

(단위: 점, %)

구 분	사례수	준비운동을 실시한다		사전에 시설물 안전여부를 확인한다		사전에 안전시설을 확인한다		사전에 위험지역을 확인한다		활동시 보호장구를 착용한다	
		평균	Top2	평균	Top2	평균	Top2	평균	Top2	평균	Top2
전 체	10,366	3.53	55.4	3.15	35.7	3.14	34.9	3.25	40.3	3.29	41.6
등산	1,028	3.51	55.4	3.14	34.8	3.11	33.8	3.24	39.7	3.26	39.1
축구	1,013	3.61	60.6	3.12	33.9	3.10	33.4	3.21	38.1	3.32	43.1
자전거	883	3.37	47.8	3.16	36.5	3.12	34.5	3.27	41.9	3.35	43.7
스키/스노보드	729	3.64	61.9	3.23	38.5	3.19	36.4	3.34	44.2	3.60	56.4
무도	336	3.48	53.9	3.36	44.3	3.42	46.7	3.41	44.9	3.53	53.3
아이스케이팅	311	3.53	55.9	3.27	40.5	3.24	37.9	3.35	46.3	3.56	53.1
인라인스케이팅	160	3.51	56.3	3.15	38.1	3.09	37.5	3.29	42.5	3.47	49.4
보디빌딩(헬스)	713	3.65	60.6	3.14	35.5	3.12	33.7	3.25	39.0	3.21	36.0
농구	711	3.50	53.9	3.12	34.9	3.14	34.9	3.27	40.9	3.21	37.7
배드민턴	714	3.46	51.3	3.13	34.7	3.13	34.2	3.29	40.3	3.18	35.7
걷기	314	3.25	41.1	2.92	25.8	2.91	24.8	3.08	34.4	2.87	24.5
달리기	713	3.58	56.2	3.10	32.5	3.05	31.0	3.16	34.5	3.06	32.7
수영	313	3.65	61.0	3.17	31.9	3.24	37.1	3.34	41.5	3.38	40.9
골프/스쿠린골프	329	3.57	55.0	3.16	35.9	3.09	33.4	3.17	37.4	3.28	41.3
볼링	312	3.42	48.1	3.01	27.6	2.99	26.0	3.12	33.3	3.21	34.3
야구	314	3.66	60.2	3.17	34.7	3.19	37.9	3.28	41.7	3.55	55.4
에어로빅	302	3.59	61.9	3.21	41.1	3.15	35.1	3.26	43.4	3.03	33.4
테니스	310	3.62	58.4	3.20	37.4	3.17	37.7	3.23	38.1	3.37	47.1
게이트볼	100	3.13	36.0	3.23	45.0	3.31	46.0	3.22	44.0	3.03	35.0
요가	211	3.54	59.7	3.04	28.4	3.04	32.2	3.10	37.0	3.12	34.1
탁구	310	3.44	50.6	3.19	37.7	3.20	36.8	3.29	42.3	3.23	36.1
승마	110	3.67	59.1	3.39	48.2	3.28	42.7	3.34	43.6	3.73	63.6
항공스포츠	130	3.53	53.1	3.45	51.5	3.48	52.3	3.60	57.7	3.66	61.5

※ 실태조사 전체응답자, n=10,3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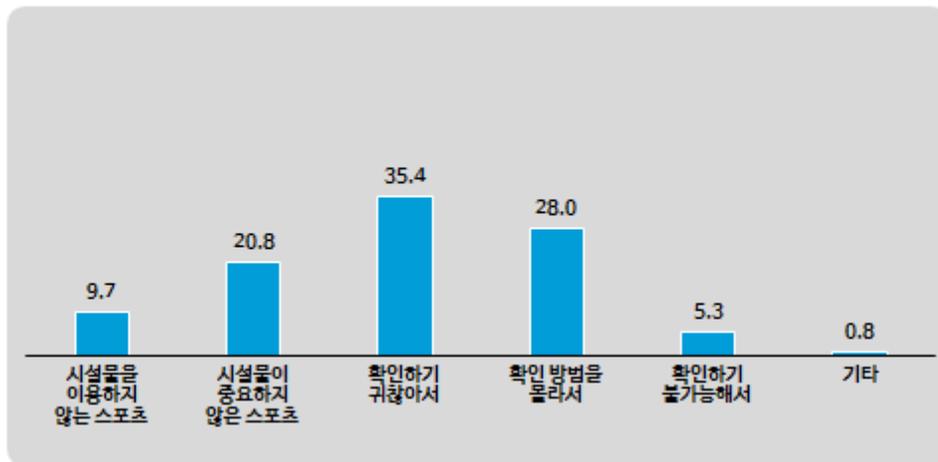
※ Top2: [4]긍정과 [5]매우 긍정의 합산 비율

3) 시설물 안전여부 미확인 이유

- ▶ 시설물 안전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하위 2그룹(전혀 그렇지 않음+그렇지 않음)의 미확인 이유로는 ‘확인하기 귀찮아서’(35.4%), ‘확인방법을 몰라서’(28.0%), ‘시설물이 중요하지 않은 스포츠라서’(20.8%)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그림 Ⅲ-40 ■ 시설물 안전여부 미확인 이유

(단위: %)



※ 실태조사 시설물 안전여부 미확인자(전혀 그렇지 않음+그렇지 않음 응답자) n=6,669

스포츠 안전사고 실태조사 -종합편

- ▶ 종목별로 살펴보면, ‘확인하기 귀찮아서’라는 응답은 농구(44.7%), 무도(43.3%), 아이스스케이팅 및 골프/스크린골프(각 42.2%) 순으로, ‘확인 방법을 몰라서’라는 응답은 승마(36.8%), 항공스포츠(34.9%), 스키/스노보드(34.8%) 순으로 높게 나타남.

▮ 표 III-63 ▮ 종목별 시설물 안전여부 미확인 이유

(단위: %)

구 분	사례수	시설물을 이용하지 않는 스포츠	시설물이 중요하지 않은 스포츠	확인하기 귀찮아서	확인 방법을 몰라서	확인하기 불가능	기타	계
전 체	6,669	9.7	20.8	35.4	28.0	5.3	0.8	100.0
등산	670	14.2	20.1	27.2	30.9	6.7	0.9	100.0
축구	670	8.2	23.0	39.6	23.3	5.2	0.7	100.0
자전거	561	11.2	19.6	35.3	25.5	7.7	0.7	100.0
스키/스노보드	448	6.5	12.5	37.9	34.8	7.1	1.1	100.0
무도	187	5.9	22.5	43.3	23.5	3.7	1.1	100.0
아이스스케이팅	185	6.5	17.8	42.2	25.9	7.6	0.0	100.0
인라인스케이팅	99	6.1	21.2	38.4	28.3	4.0	2.0	100.0
보디빌딩(헬스)	460	5.9	21.1	37.8	29.6	4.1	1.5	100.0
농구	463	5.8	21.2	44.7	22.9	4.8	0.6	100.0
배드민턴	466	7.9	27.9	34.1	26.2	3.0	0.9	100.0
걷기	233	24.0	16.3	26.2	27.5	6.0	0.0	100.0
달리기	481	11.9	17.0	33.3	31.4	5.6	0.8	100.0
수영	213	9.4	17.8	32.4	30.5	8.5	1.4	100.0
골프/스크린골프	211	8.5	19.0	42.2	26.5	3.3	0.5	100.0
볼링	226	6.6	15.9	35.8	33.6	6.6	1.3	100.0
야구	205	6.8	19.0	40.5	25.9	6.3	1.5	100.0
에어로빅	178	16.9	37.1	18.5	26.4	1.1	0.0	100.0
테니스	194	7.2	19.6	38.1	32.5	2.6	0.0	100.0
게이트볼	55	10.9	56.4	12.7	20.0	0.0	0.0	100.0
요가	151	21.2	17.9	24.5	31.1	4.0	1.3	100.0
탁구	193	5.7	28.0	37.3	23.8	4.7	0.5	100.0
승마	57	12.3	10.5	35.1	36.8	3.5	1.8	100.0
항공스포츠	63	7.9	20.6	31.7	34.9	4.8	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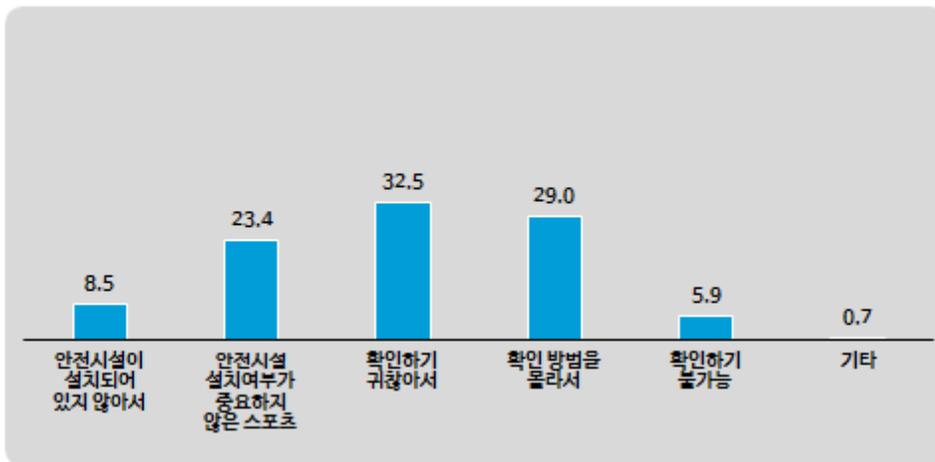
※ 실태조사 시설물 안전여부 미확인자(전혀 그렇지 않음+그렇지 않음 응답자) n=6,669

4) 안전시설 미확인 이유

- ▶ 안전시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하위 2그룹(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의 미확인 이유로는 ‘확인하기 귀찮아서’(32.5%), ‘확인 방법을 몰라서’(29.0%), ‘안전시설 설치여부가 중요하지 않은 스포츠라서’(23.4%) 순으로 높게 나타남.

■ 그림 Ⅲ-41 ■ 안전시설 미확인 이유

(단위: %)



※ 실태조사 안전시설 미확인자(전혀 그렇지 않음+그렇지 않음 응답자) n=6,753

스포츠 안전사고 실태조사 -종합편

- ▶ 종목별로 살펴보면, ‘확인하기 귀찮아서’라는 응답은 골프/스크린골프(40.6%), 농구(39.3%), 항공스포츠(38.7%) 순으로, ‘확인 방법을 몰라서’라는 응답은 수영(37.6%), 스키/스노보드(37.5%), 인라인스케이팅(37.0%) 순으로 높게 나타남.

【 표 III-64 】 종목별 안전시설 미확인 이유

(단위: %)

구 분	사례수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안전시설 설치여부가 중요하지 않은 스포츠라서	확인하기 귀찮아서	확인 방법을 몰라서	확인하기 불가능해서	기타	계
전 체	6,753	8.5	23.4	32.5	29.0	5.9	0.7	100.0
등산	681	7.3	24.4	25.6	34.2	8.2	0.3	100.0
축구	675	7.9	26.4	37.3	22.8	5.2	0.4	100.0
자전거	578	8.0	21.1	30.3	31.7	8.7	0.3	100.0
스키/스노보드	464	7.1	12.5	36.2	37.5	5.6	1.1	100.0
무도	179	14.5	24.0	34.6	22.3	2.8	1.7	100.0
아이스스케이팅	193	5.2	22.3	33.7	29.0	9.8	0.0	100.0
인라인스케이팅	100	5.0	23.0	29.0	37.0	4.0	2.0	100.0
보디빌딩(헬스)	473	7.6	21.8	36.6	29.2	3.4	1.5	100.0
농구	463	8.6	20.7	39.3	25.1	5.4	0.9	100.0
배드민턴	470	10.0	24.3	33.8	24.9	6.0	1.1	100.0
걷기	236	7.2	32.6	22.9	29.2	8.1	0.0	100.0
달리기	492	8.3	24.8	28.0	33.1	5.3	0.4	100.0
수영	197	4.6	14.2	35.0	37.6	7.1	1.5	100.0
골프/스크린골프	219	5.9	19.2	40.6	30.6	3.7	0.0	100.0
볼링	231	5.6	20.3	31.6	31.6	10.0	0.9	100.0
야구	195	14.9	16.4	37.9	23.1	7.2	0.5	100.0
에어로빅	196	14.8	43.4	19.9	19.9	2.0	0.0	100.0
테니스	193	9.8	26.9	32.6	27.5	3.1	0.0	100.0
게이트볼	54	7.4	61.1	20.4	9.3	1.9	0.0	100.0
요가	143	10.5	24.5	24.5	36.4	3.5	0.7	100.0
탁구	196	9.7	29.6	37.2	19.4	4.1	0.0	100.0
승마	63	14.3	15.9	23.8	33.3	9.5	3.2	100.0
항공스포츠	62	14.5	21.0	38.7	22.6	3.2	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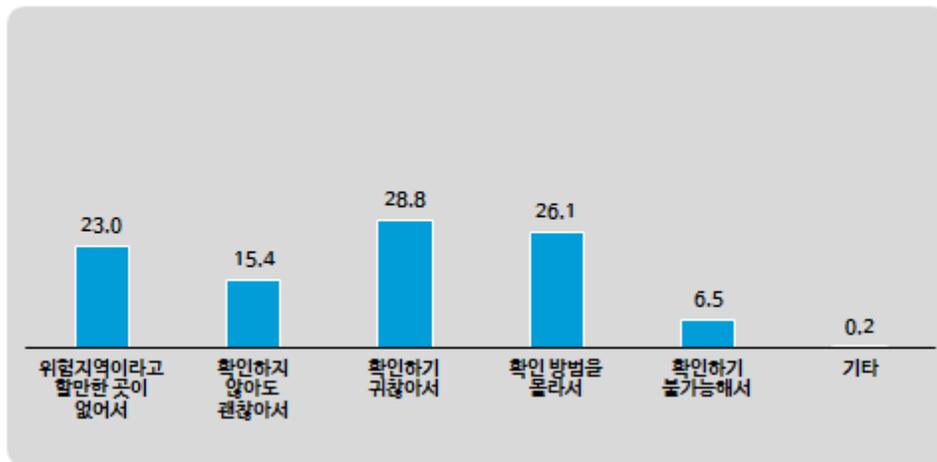
※ 실태조사 안전시설 미확인자(전혀 그렇지 않음+그렇지 않음 응답자) n=6,753

5) 위험지역 미확인 이유

- ▶ 위험지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하위 2그룹(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의 미확인 이유로는 ‘확인하기 귀찮아서’(28.8%), ‘확인 방법을 몰라서’(26.1%), ‘위험지역이라고 할만한 곳이 없기 때문에’(23.0%) 순으로 나타남.

【그림 Ⅲ-42】 위험지역 미확인 이유

(단위: %)



※ 실태조사 위험지역 미확인자(전혀 그렇지 않음+그렇지 않음 응답자) n=6,193

스포츠 안전사고 실태조사 -종합편

- ▶ 종목별로 살펴보면, ‘확인하기 귀찮아서’라는 응답은 무도(40.0%), 농구(35.7%), 인라인스케이팅(33.7%) 순으로, ‘확인 방법을 몰라서’라는 응답은 항공스포츠(38.2%), 승마(35.5%), 수영(32.8%) 순으로 높게 나타남.

【 표 III-65 】 종목별 위험지역 미확인 이유

(단위: %)

구 분	사례수	위험지역 이라고 할만한 곳이 없어서	확인하지 않아도 괜찮아서	확인하기 귀찮아서	확인 방법을 몰라서	확인하기 불가능해 서	기타	계
전 체	6,193	23.0	15.4	28.8	26.1	6.5	0.2	100.0
등산	620	20.8	13.5	21.9	31.1	12.1	0.5	100.0
축구	627	22.8	17.2	31.4	23.1	4.8	0.6	100.0
자전거	513	19.1	13.6	32.6	22.8	11.7	0.2	100.0
스키/스노보드	407	19.9	14.7	27.0	31.2	7.1	0.0	100.0
무도	185	20.0	15.7	40.0	19.5	4.9	0.0	100.0
아이스스케이팅	167	19.2	13.2	31.7	28.1	7.8	0.0	100.0
인라인스케이팅	92	21.7	12.0	33.7	25.0	6.5	1.1	100.0
보디빌딩(헬스)	435	26.4	13.1	30.6	26.0	3.9	0.0	100.0
농구	420	21.2	17.4	35.7	22.4	3.3	0.0	100.0
배드민턴	426	26.3	14.6	31.2	23.5	4.2	0.2	100.0
걷기	206	31.6	11.7	23.3	26.2	7.3	0.0	100.0
달리기	467	27.4	17.3	21.0	25.9	8.4	0.0	100.0
수영	183	23.0	13.1	25.1	32.8	6.0	0.0	100.0
골프/스크린골프	206	16.0	18.0	33.5	26.7	5.8	0.0	100.0
볼링	208	22.1	12.0	26.4	32.2	6.7	0.5	100.0
야구	183	26.2	13.7	31.1	23.5	5.5	0.0	100.0
에어로빅	171	30.4	25.1	19.9	23.4	1.2	0.0	100.0
테니스	192	24.0	13.0	33.3	27.6	2.1	0.0	100.0
게이트볼	56	33.9	30.4	17.9	16.1	1.8	0.0	100.0
요가	133	30.8	13.5	20.3	30.8	4.5	0.0	100.0
탁구	179	18.4	22.9	32.4	21.2	5.0	0.0	100.0
승마	62	16.1	16.1	27.4	35.5	4.8	0.0	100.0
항공스포츠	55	12.7	10.9	32.7	38.2	5.5	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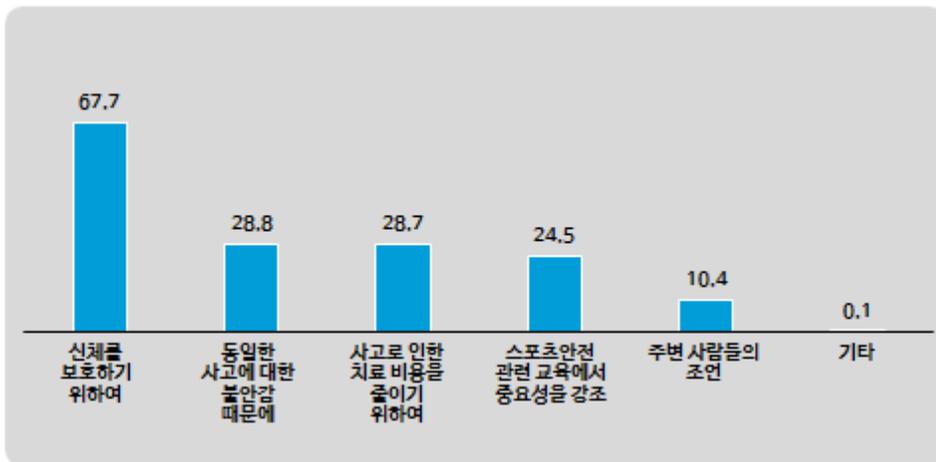
※ 실태조사 위험지역 미확인자(전혀 그렇지 않음+그렇지 않음 응답자) n=6,193

6) 보호장구 착용 이유

- ▶ 보호장구를 착용하는 상위 2그룹(매우 그렇다+그렇다)들의 장비 착용 이유로는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67.7%), ‘동일한 사고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28.8%), ‘사고로 인한 치료비용을 줄이기 위해’(28.7%) 순으로 높게 나타남.

■ 그림 Ⅲ-43 ■ 보호장구 착용 이유

(단위: %)



※ 실태조사 보호장구 착용자(매우 그렇다+그렇다 응답자) n=8,516

스포츠 안전사고 실태조사 -종합편

- ▶ 종목별로 살펴보면,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라는 응답은 인라인스케이팅(80.3%), 스키/스노보드(78.4%), 야구(78.0%) 순으로, ‘동일한 사고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라는 응답은 게이트볼(38.4%), 항공스포츠(33.9%), 무도 및 에어로빅(각 33.0%) 순으로 높게 나타남.

【 표 III-66 】 종목별 보호장구 착용 이유

(단위: %)

구 분	사례수	신체를보호하기위하여	동일한사고에대한불안감때문에	사고로인한치료비용을줄이기위하여	스포츠안전관련교육에서중요성을강조	주변사람들의조언	기타
전 체	8,516	67.7	28.8	28.7	24.5	10.4	0.1
등산	847	75.4	25.6	22.2	22.7	11.5	0.0
축구	850	69.2	27.9	25.6	18.8	9.6	0.1
자전거	739	69.0	28.8	32.1	27.7	10.6	0.0
스키/스노보드	676	78.4	31.8	26.0	26.5	13.5	0.0
무도	303	51.5	33.0	33.0	28.1	6.6	0.3
아이스스케이팅	283	67.1	30.7	30.0	28.3	9.9	0.4
인라인스케이팅	142	80.3	30.3	37.3	29.6	14.1	0.0
보디빌딩(헬스)	562	68.5	29.0	27.6	21.9	10.5	0.2
농구	562	64.2	28.5	32.4	22.6	6.8	0.2
배드민턴	565	61.2	30.8	27.6	21.8	7.4	0.0
걷기	201	67.2	26.9	34.3	23.9	10.9	0.0
달리기	517	67.7	27.3	25.3	23.0	11.6	0.2
수영	278	60.8	24.5	28.1	25.5	9.0	0.0
골프/스쿠린골프	270	67.4	24.4	21.5	21.5	11.1	0.4
볼링	252	77.0	25.0	27.8	19.4	11.5	0.0
야구	286	78.0	29.4	27.3	25.5	9.8	0.0
에어로빅	209	54.1	33.0	41.6	30.1	13.9	0.0
테니스	263	62.0	30.0	28.9	30.4	11.8	0.0
게이트볼	73	43.8	38.4	43.8	30.1	11.0	0.0
요가	161	64.6	27.3	21.1	21.7	11.8	0.6
탁구	254	59.1	30.3	34.3	25.6	9.1	0.0
승마	105	62.9	26.7	36.2	36.2	14.3	0.0
항공스포츠	118	54.2	33.9	47.5	39.8	12.7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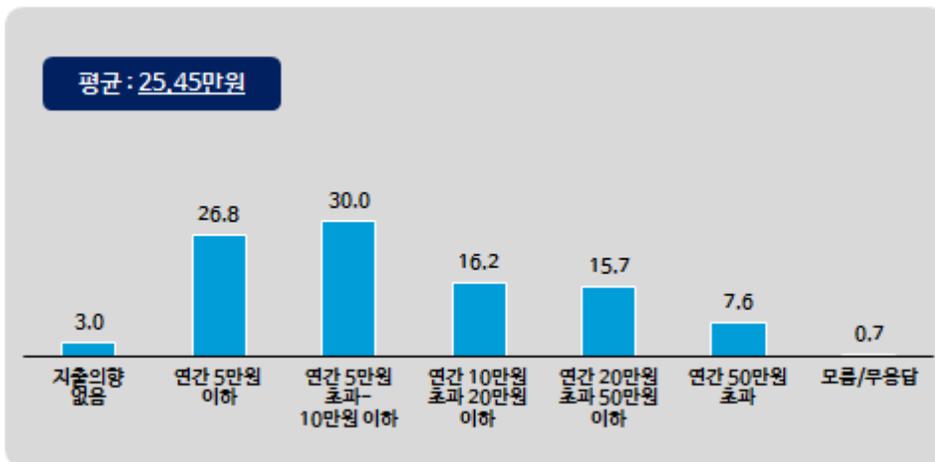
※ 실태조사 보호장구 착용자(매우 그렇다+그렇다 응답자) n=8,516

7) 보호장구 구매비 지출의향

- ▶ 보호장구를 구매하기 위한 지출의향 및 지출수준에 대해서는 단지 3.0%만이 지출의향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연간 5-10만원’(30.0%), ‘연간5만원 이하’(26.8%) 순으로 지출의향이 있다고 응답함.
- ▶ 응답자 1인 당 평균 보호장구 구매비 지출 의향은 약 25.45만원 가량임.

▮ 그림 Ⅲ-44 ▮ 보호장구 구매비 지출의향

(단위: %, 만원)



※ 실태조사 전체응답자, n=10,366

스포츠 안전사고 실태조사 -종합편

- ▶ 종목별로 살펴보면, 항공스포츠(63.97만원), 게이트볼(54.73만원), 승마(47.31만원) 순으로 보호장구 구매를 위한 평균 지출의향 금액이 높음.

【 표 III-67 】 종목별 보호장구 구매비 지출의향

(단위: %, 만원)

구 분	사례수	지출 의향 없음	연간 5만원 이하	연간 5만원 초과-1 0만원 이하	연간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연간 20만원 초과 50만원 이하	연간 50만원 초과	모름/ 무응답	계	평균
전 체	10,366	3.0	26.8	30.0	16.2	15.7	7.6	0.7	100.0	25.45
등산	1,028	1.7	25.6	31.5	20.6	15.9	4.6	0.2	100.0	20.44
축구	1,013	1.6	25.9	31.9	17.5	16.0	6.7	0.5	100.0	25.49
자전거	883	2.4	26.8	26.6	19.0	15.4	8.8	0.9	100.0	27.60
스키/스노보드	729	1.8	21.5	29.6	18.4	19.2	8.8	0.7	100.0	25.81
무도	336	2.1	22.6	22.9	17.0	17.9	16.1	1.5	100.0	40.30
아이스케이팅	311	2.6	31.5	28.0	13.8	14.1	8.7	1.3	100.0	30.51
인라인스케이팅	160	0.6	30.6	36.3	15.6	11.3	5.0	0.6	100.0	19.03
보디빌딩(헬스)	713	2.2	28.9	33.5	14.4	14.9	5.5	0.6	100.0	20.42
농구	711	2.0	25.9	30.4	16.0	15.0	9.6	1.1	100.0	29.73
배드민턴	714	2.7	28.4	30.1	16.1	15.3	6.4	1.0	100.0	21.29
걷기	314	8.0	45.9	28.3	9.2	5.7	2.9	0.0	100.0	13.27
달리기	713	4.8	32.8	32.3	13.7	12.3	3.5	0.6	100.0	17.41
수영	313	1.9	29.4	30.0	14.1	17.6	7.0	0.0	100.0	25.74
골프/스크린골프	329	2.1	19.1	35.0	17.0	18.2	8.2	0.3	100.0	29.90
볼링	312	8.3	27.2	37.5	9.9	12.2	4.8	0.0	100.0	16.94
야구	314	0.6	18.2	29.0	19.4	23.2	9.6	0.0	100.0	29.28
에어로빅	302	11.3	29.8	20.5	11.9	11.9	12.6	2.0	100.0	35.03
테니스	310	0.6	19.4	30.3	18.1	22.6	8.4	0.6	100.0	26.22
게이트볼	100	20.0	27.0	8.0	11.0	12.0	19.0	3.0	100.0	54.73
요가	211	5.2	38.9	35.5	9.0	9.0	2.4	0.0	100.0	13.16
탁구	310	2.3	25.2	32.6	18.4	15.2	6.5	0.0	100.0	25.28
승마	110	0.9	14.5	17.3	16.4	29.1	20.0	1.8	100.0	47.31
항공스포츠	130	0.0	10.8	21.5	15.4	25.4	23.1	3.8	100.0	63.97

※ 실태조사 전체응답자, n=10,3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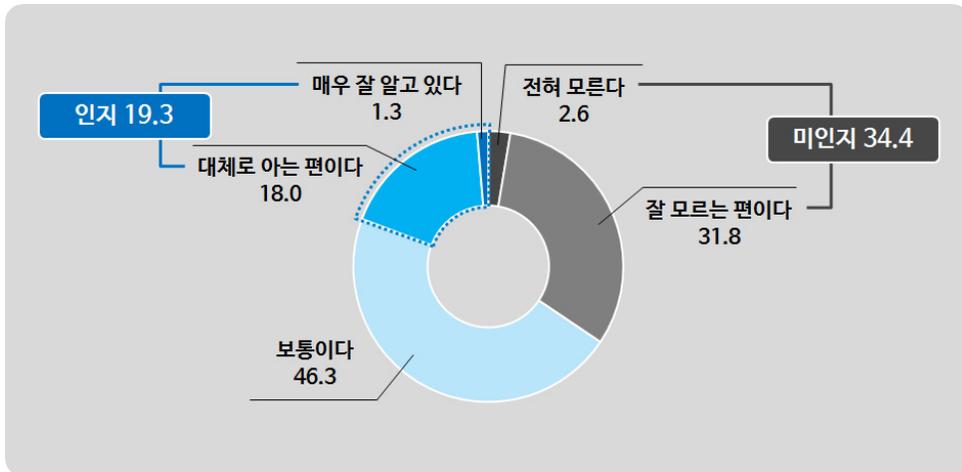
3 사고대처 및 응급처치

1) 스포츠 안전사고 대처 및 예방법 인지도

- ▶ 스포츠 안전사고에 대한 대처 인지도는 19.3%(매우 잘 알고 있다 1.3%+대체로 아는 편 18.0%)로, ‘미인지’ 34.4%(전혀 모름 2.6%+잘 모르는 편 31.8%)에 비해 15.1%p 낮게 나타남.

■ 그림 III-45 ■ 스포츠 안전사고 대처법 인지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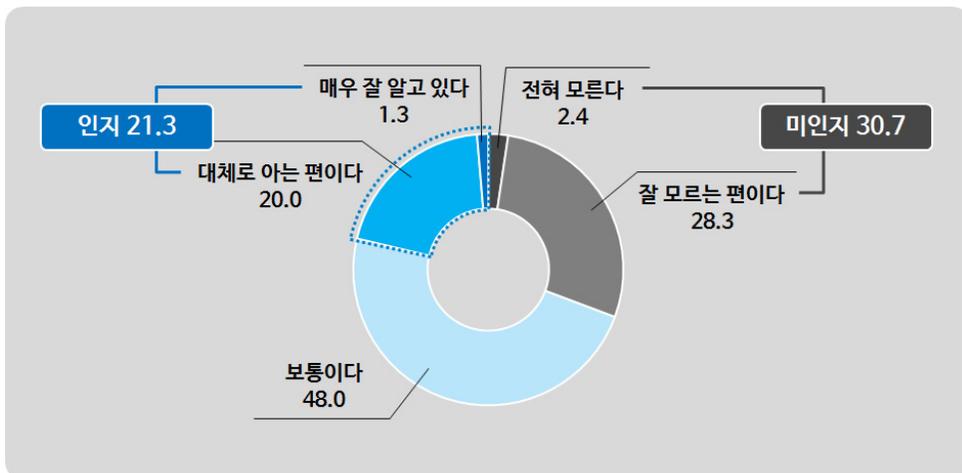
※ 실태조사 전체응답자, n=10,366

스포츠 안전사고 실태조사 -종합편

- ▶ 스포츠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법 인지도는 21.3%(매우 잘 알고 있다 1.3%+대체로 아는 편 20.0%)로, ‘미인지’ 30.7%(전혀 모른다 2.4%+잘 모르는 편 28.3%)에 비해 9.4%p 낮게 나타남.

■ 그림 III-46 ■ 스포츠 안전사고 예방법 인지도

(단위: %)



※ 실태조사 전체응답자, n=10,366

Ⅲ. 조사 결과

(1) 종목별 스포츠 안전사고 대처 및 예방법 인지도

- ▶ 종목별로 살펴보면, 대처법 인지도는 항공스포츠(34.6%), 승마(28.2%), 무도(24.4%) 순, 미인지 응답은 요가(45.5%), 볼링(43.9%), 걷기(43.6%) 순으로 높고, 예방법 인지도는 항공스포츠(32.3%), 게이트볼(32.0%), 승마(31.8%) 순으로, 미인지 응답은 볼링(42.6%), 요가(41.7%), 걷기(36.6%) 순으로 높게 나타남.

【 표 Ⅲ-68 】 종목별 스포츠 안전사고 대처 및 예방법 인지도

(단위: %)

구 분	사례수	대처법			예방법		
		미인지	보통이다	인지	미인지	보통이다	인지
전 체	10,366	34.4	46.3	19.3	30.7	48.0	21.3
등산	1,028	32.2	49.1	18.7	28.1	51.2	20.7
축구	1,013	32.3	47.8	19.9	30.1	48.4	21.5
자전거	883	30.0	49.0	21.0	24.9	50.7	24.3
스키/스노보드	729	30.0	49.5	20.4	26.3	49.5	24.1
무도	336	28.6	47.0	24.4	25.9	47.3	26.8
아이스스케이팅	311	32.8	44.4	22.8	29.3	46.9	23.8
인라인스케이팅	160	39.4	42.5	18.1	33.1	45.6	21.3
보디빌딩(헬스)	713	40.3	43.6	16.1	34.4	45.2	20.5
농구	711	29.8	49.1	21.1	28.6	49.9	21.5
배드민턴	714	37.5	45.5	16.9	33.8	49.3	16.9
걷기	314	43.6	42.4	14.0	36.6	48.4	15.0
달리기	713	37.4	47.3	15.3	36.0	46.8	17.1
수영	313	30.0	51.4	18.5	26.8	50.8	22.4
골프/스크린골프	329	39.8	38.6	21.6	33.4	44.4	22.2
볼링	312	43.9	44.2	11.9	42.6	42.0	15.4
야구	314	28.7	50.0	21.3	26.4	49.0	24.5
에어로빅	302	42.1	37.4	20.5	32.5	44.0	23.5
테니스	310	32.3	44.8	22.9	30.0	46.5	23.5
게이트볼	100	32.0	44.0	24.0	29.0	39.0	32.0
요가	211	45.5	41.2	13.3	41.7	46.0	12.3
탁구	310	36.8	44.8	18.4	33.9	49.0	17.1
승마	110	34.5	37.3	28.2	22.7	45.5	31.8
항공스포츠	130	26.9	38.5	34.6	26.2	41.5	32.3

※ 실태조사 전체응답자, n=10,366

스포츠 안전사고 실태조사 -종합편

(2) 응답자 특성별 스포츠 안전사고 대처 및 예방법 인지도

-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대처법 및 예방법 인지도 모두 종목 능숙도가 높을수록, 종목 경력이 길수록, 동호회 활동자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표 III-69 】 응답자 특성별 스포츠 안전사고 대처 및 예방법 인지도

(단위: %)

구 분		사례수	대처법			예방법		
			미인지	보통이다	인지	미인지	보통이다	인지
전 체		10,366	34.4	46.3	19.3	30.7	48.0	21.3
종목 능숙도	초급	6,834	40.4	46.0	13.7	36.7	48.4	14.9
	중급	2,725	24.7	49.0	26.3	20.7	49.8	29.5
	상급	807	17.0	39.9	43.1	13.5	38.4	48.1
종목 경력	2년미만	2,099	42.9	45.2	11.9	40.1	46.0	13.9
	2년 이상-5년 미만	1,952	36.2	45.0	18.8	31.3	47.8	20.9
	5년이상-10년미만	2,207	32.9	48.2	18.9	28.6	49.5	21.9
	10년 이상-20년 미만	2,406	30.1	47.5	22.4	27.3	49.2	23.4
동호회 활동	20년 이상	1,702	30.0	44.9	25.1	25.7	47.1	27.2
	동호회 활동	3,494	25.3	45.4	29.3	22.1	46.3	31.5
동호회 미활동	동호회 미활동	6,872	39.1	46.8	14.2	35.0	48.9	16.1
	성별	남성	6,110	31.0	47.6	21.4	28.1	48.6
성별	여성	4,256	39.3	44.3	16.3	34.4	47.2	18.4
	연령별	20대	1,627	38.9	43.8	17.3	37.9	41.7
30대		3,649	34.6	46.9	18.5	31.5	48.7	19.8
40대		3,171	35.4	47.7	17.0	30.5	50.7	18.8
50대		1,564	28.8	46.0	25.1	22.8	48.5	28.6
60-64세		258	24.4	36.0	39.5	21.3	44.2	34.5
65세 이상		97	38.1	50.5	11.3	39.2	41.2	1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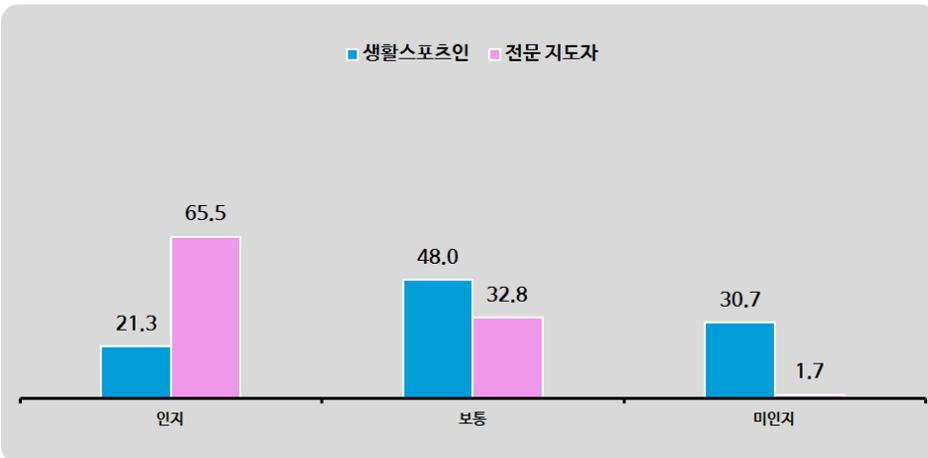
※ 실태조사 전체응답자, n=10,366

참고 [전문 체육 지도자 조사] 안전사고 대처 방법 인지

◎ ‘전문 체육 지도자 조사’ 결과와 비교해보면, 지도자들의 경우 ‘인지’ 비율이 65.5%로 절반 이상이며, ‘미인지’ 응답은 1.7%로 매우 낮게 나타남.

한편, ‘전문 체육 지도자’ 가운데에서도 32.8%가 ‘보통’이라고 응답, 자신 있게 ‘알고 있다’고 응답하지 못하는 응답자가 3명 중 1명가량 나타남.

(단위: %)



※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10,3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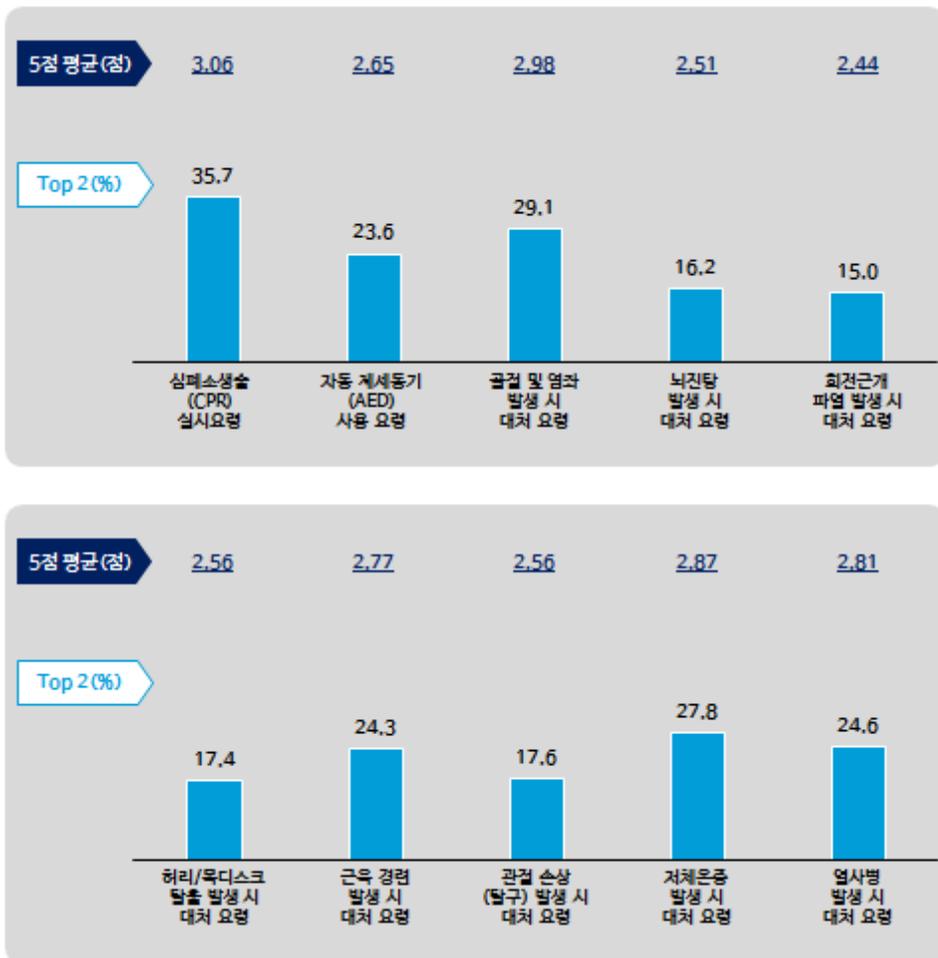
※ 전문 체육 지도자 조사 전체 응답자, n=119

스포츠 안전사고 실태조사 -종합편

2) 스포츠 안전사고 응급처치 요령 인지도

- ▶ 응급처치 요령 인지도는 ‘심폐소생술 실시요령’(35.7%), ‘골절 및 염좌’(29.1%), ‘저체온증’(27.8%) 순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III-47▮ 스포츠 안전사고 응급처치 요령 인지도(Top2: 매우긍정+긍정 비율)
(단위: 점, %)



※ 실태조사 전체응답자, n=10,366

※ Top2: [4]긍정과 [5]매우 긍정의 합산 비율

Ⅲ. 조사 결과

(1) 종목별 스포츠 안전사고 응급처치 요령 인지도

- ▶ 종목별로 살펴보면, ‘심폐소생술 실시요령’은 농구(42.1%), 축구(42.0%), 아이스스케이팅(41.8%) 순, ‘골절 및 염좌 발생시 대처요령’은 무도(36.6%), 아이스스케이팅 (34.7%), 농구(34.3%) 순, ‘저체온증 발생 시 대처요령’은 게이트볼(44.0%), 에어로빅(37.7%), 항공 스포츠(36.9%) 순으로 높음.

【 표 Ⅲ-70 】 종목별 스포츠 안전사고 응급처치 요령 인지도(Top2: 매우긍정+긍정 비율)
(단위: 점, %)

구 분	사례 수	심폐소생술 (CPR) 실시요령		자동제세동기 (AED) 사용요령		골절 및 염좌 발생 시 대처요령		뇌진탕 발생 시 대처요령		회전근개 파열 발생 시 대처요령	
		평균	Top2	평균	Top2	평균	Top2	평균	Top2	평균	Top2
전 체	10,366	3.06	35.7	2.65	23.6	2.98	29.1	2.51	16.2	2.44	15.0
등산	1,028	2.97	31.4	2.51	19.1	2.93	26.3	2.38	12.3	2.31	10.5
축구	1,013	3.21	42.0	2.76	26.9	3.04	28.7	2.58	15.7	2.52	16.4
자전거	883	3.00	33.3	2.66	23.3	2.99	29.3	2.60	18.5	2.46	15.9
스키/스노보드	729	3.05	36.5	2.62	24.8	3.00	31.6	2.46	14.3	2.38	14.0
무도	336	3.13	35.7	2.96	30.4	3.21	36.6	2.88	26.8	2.82	24.4
아이스스케이팅	311	3.14	41.8	2.74	27.3	3.05	34.7	2.59	20.3	2.47	18.3
인라인스케이팅	160	2.82	23.1	2.48	17.5	2.82	26.9	2.42	12.5	2.24	11.9
보디빌딩(헬스)	713	3.10	37.4	2.64	24.5	3.00	30.3	2.45	16.1	2.38	13.9
농구	711	3.25	42.1	2.86	29.0	3.13	34.3	2.60	18.7	2.55	17.2
배드민턴	714	3.04	35.4	2.62	22.4	2.95	27.6	2.53	16.0	2.46	15.4
걷기	314	2.68	21.3	2.32	14.3	2.75	20.7	2.24	9.6	2.14	10.2
달리기	713	2.98	33.4	2.55	20.8	2.81	23.3	2.36	11.5	2.23	9.7
수영	313	3.07	34.8	2.70	23.0	2.92	27.5	2.53	16.6	2.47	16.6
골프/스크린골프	329	3.14	39.5	2.70	26.7	2.99	31.0	2.54	17.9	2.52	16.1
볼링	312	3.04	36.9	2.54	22.8	2.89	24.0	2.26	10.3	2.17	6.7
야구	314	3.22	39.2	2.84	25.8	3.13	33.4	2.60	18.2	2.58	16.2
에어로빅	302	3.12	38.7	2.41	17.2	2.87	28.8	2.48	19.9	2.50	18.5
테니스	310	3.08	34.5	2.71	25.2	3.06	33.2	2.62	16.1	2.62	18.7
게이트볼	100	3.08	34.0	2.48	22.0	2.89	33.0	2.56	25.0	2.72	22.0
요가	211	2.65	24.2	2.38	18.0	2.72	21.8	2.16	9.5	2.09	7.6
탁구	310	3.02	33.2	2.71	21.3	3.00	29.7	2.63	17.4	2.58	18.1
승마	110	3.13	37.3	2.84	26.4	3.09	29.1	2.76	23.6	2.65	21.8
항공스포츠	130	3.14	36.2	2.95	32.3	3.15	32.3	3.01	33.1	2.99	30.0

※ 실태조사 전체응답자, n=10,366

※ Top2: [4]긍정과 [5]매우 긍정의 합산 비율

스포츠 안전사고 실태조사 -종합편

표 III-70 종목별 스포츠 안전사고 응급처치 요령 인지도(Top2: 매우긍정+긍정 비율)(계속)
(단위: 점, %)

구 분	사례 수	허리/목 디스크탈출 발생 시 대처요령		근육경련 발생시 대처요령		관절손상(탈구) 발생시 대처요령		저체온증 발생시 대처요령		열사병 발생시 대처요령	
		평균	Top2	평균	Top2	평균	Top2	평균	Top2	평균	Top2
전 체	10,366	2.56	17.4	2.77	24.3	2.56	17.6	2.87	27.8	2.81	24.6
등산	1,028	2.45	13.2	2.68	20.9	2.47	14.7	2.84	27.2	2.71	21.1
축구	1,013	2.62	16.8	2.89	25.5	2.66	19.2	2.91	29.8	2.88	26.2
자전거	883	2.58	17.3	2.80	26.6	2.59	20.0	2.96	29.9	2.86	24.8
스키/스노보드	729	2.50	17.3	2.66	22.1	2.48	15.9	2.83	28.3	2.70	22.8
무도	336	2.89	27.7	3.04	33.3	2.90	24.4	3.02	31.5	3.06	32.4
아이스스케이팅	311	2.63	23.5	2.81	27.7	2.64	20.9	2.94	29.6	2.86	26.4
인라인스케이팅	160	2.41	14.4	2.68	23.8	2.46	18.8	2.74	22.5	2.71	22.5
보디빌딩(헬스)	713	2.49	16.7	2.73	21.2	2.45	15.0	2.76	24.8	2.79	24.5
농구	711	2.67	20.4	2.93	29.3	2.70	21.5	2.93	29.3	2.91	25.9
배드민턴	714	2.57	16.9	2.72	22.1	2.55	16.1	2.84	26.2	2.85	25.6
걷기	314	2.31	11.8	2.49	18.2	2.26	10.5	2.70	22.3	2.51	16.6
달리기	713	2.38	12.9	2.65	21.7	2.38	14.2	2.79	24.8	2.71	22.4
수영	313	2.63	20.8	2.81	24.0	2.58	17.6	2.87	25.6	2.73	19.5
골프/스크린골프	329	2.71	23.4	2.88	26.7	2.60	19.5	2.93	29.2	2.87	27.4
볼링	312	2.26	9.3	2.50	15.7	2.36	12.8	2.71	23.1	2.59	18.3
야구	314	2.66	17.5	2.96	28.7	2.68	19.4	2.90	28.7	2.96	29.3
에어로빅	302	2.60	18.9	2.88	28.5	2.71	19.9	3.07	37.7	3.09	34.8
테니스	310	2.67	19.0	2.92	28.7	2.63	17.4	2.87	23.9	2.85	22.6
게이트볼	100	2.72	25.0	2.89	32.0	2.74	24.0	3.18	44.0	3.12	41.0
요가	211	2.27	9.5	2.45	13.7	2.21	11.4	2.61	17.1	2.49	15.2
탁구	310	2.60	15.8	2.80	24.2	2.62	16.5	2.89	27.4	2.85	26.1
승마	110	2.85	28.2	2.80	28.2	2.75	24.5	3.00	31.8	2.99	30.0
항공스포츠	130	3.05	36.2	3.05	35.4	2.96	33.8	3.17	36.9	3.02	27.7

※ 실태조사 전체응답자, n=10,366

※ Top2: [4]긍정과 [5]매우 긍정의 합산 비율

Ⅲ. 조사 결과

(2) 응답자 특성별 스포츠 안전사고 응급처치 요령 인지도

- ▶ 모든 응급처치 요령에서 종목 능숙도가 높을수록, 종목 경력이 길수록, 동호회 활동자에서 안전사고 응급처치 요령 인지도가 높게 나타남.

【표 Ⅲ-71】 응답자 특성별 스포츠 안전사고 응급처치 요령 인지도(Top2: 매우긍정+긍정 비율)

(단위: 점, %)

구 분		사례 수	심폐소생술 (CPR) 실시요령		자동 제세동기 (AED) 사용요령		골절 및 염좌 발생 시 대처요령		뇌진탕 발생 시 대처요령		회전근개 파열 발생 시 대처요령	
			평균	Top2	평균	Top2	평균	Top2	평균	Top2	평균	Top2
전 체		10,366	3.06	35.7	2.65	23.6	2.98	29.1	2.51	16.2	2.44	15.0
종목 능숙도	초급	6,834	2.97	32.2	2.55	20.5	2.87	24.0	2.40	12.8	2.32	11.6
	중급	2,725	3.20	40.6	2.81	28.1	3.15	36.1	2.70	21.5	2.64	20.1
	상급	807	3.36	48.5	2.96	34.3	3.36	48.1	2.79	26.5	2.79	26.4
종목 경력	2년미만	2,099	2.93	30.9	2.53	19.7	2.81	22.8	2.36	13.4	2.28	11.0
	2년 이상-5년 미만	1,952	3.02	32.8	2.63	22.8	2.96	29.0	2.53	17.7	2.44	15.5
	5년이상-10년미만	2,207	3.04	34.3	2.63	22.0	2.99	28.8	2.52	16.8	2.47	15.5
	10년 이상-20년 미만	2,406	3.14	38.9	2.71	25.4	3.04	31.0	2.56	17.0	2.49	16.7
동호회 활동	20년 이상	1,702	3.17	42.0	2.77	28.6	3.11	34.6	2.58	16.0	2.52	16.3
	동호회 미활동	3,494	3.28	46.0	2.90	31.7	3.23	39.4	2.77	23.6	2.70	22.0
성별	동호회 활동	6,872	2.95	30.4	2.53	19.5	2.85	23.8	2.38	12.4	2.31	11.4
	남성	6,110	3.20	40.7	2.79	27.4	3.08	31.6	2.60	17.5	2.54	16.3
	여성	4,256	2.86	28.4	2.46	18.1	2.84	25.5	2.38	14.2	2.30	13.1
	연령별											
	20대	1,627	2.99	34.4	2.64	24.4	2.85	27.7	2.36	15.7	2.28	13.2
	30대	3,649	3.11	37.0	2.76	26.7	3.02	29.7	2.57	18.1	2.50	17.2
	40대	3,171	3.01	33.0	2.58	21.4	2.95	26.5	2.50	14.0	2.42	13.6
	50대	1,564	3.13	39.3	2.62	21.4	3.05	33.1	2.55	16.9	2.49	14.5
	60-64세	258	3.16	40.7	2.64	22.1	3.27	39.9	2.69	17.1	2.64	19.0
	65세 이상	97	2.72	20.6	1.79	4.1	2.54	21.6	2.01	8.2	2.20	7.2

※ 실태조사 전체응답자, n=10,366

※ Top2: [4]긍정과 [5]매우 긍정의 합산 비율

스포츠 안전사고 실태조사 -종합편

【표 III-71】 응답자 특성별 스포츠 안전사고 응급처치 요령 인지도(Top2: 매우긍정+긍정 비율)(계속)

(단위: 점, %)

구 분		사례 수	허리/목 디스크탈출 발생 시 대처요령		근육경련 발생시 대처요령		관절손상(탈구) 발생시 대처요령		저체온증 발생 시 대처요령		열사병 발생 시 대처요령	
			평균	Top2	평균	Top2	평균	Top2	평균	Top2	평균	Top2
전 체		10,366	2.56	17.4	2.77	24.3	2.56	17.6	2.87	27.8	2.81	24.6
종목 인속도	초급	6,834	2.43	13.4	2.65	19.9	2.43	14.1	2.77	23.7	2.71	20.7
	중급	2,725	2.77	23.4	2.96	30.1	2.77	22.7	3.04	34.2	2.97	30.6
	상급	807	2.91	30.5	3.21	42.8	2.90	31.0	3.19	40.8	3.13	37.3
종목 경력	2년미만	2,099	2.41	12.6	2.60	18.7	2.40	13.0	2.69	21.8	2.67	20.0
	2년 이상-5년 미만	1,952	2.56	17.9	2.78	25.1	2.55	17.5	2.86	27.0	2.80	23.3
	5년이상-10년미만	2,207	2.57	17.8	2.78	23.8	2.59	17.8	2.91	28.8	2.83	25.4
	10년 이상-20년 미만	2,406	2.59	19.0	2.82	25.8	2.61	20.2	2.94	30.2	2.86	26.4
동호회 활동	20년 이상	1,702	2.66	19.8	2.90	29.2	2.66	19.7	2.97	31.3	2.90	28.0
	동호회 활동 동호회 미활동	3,494 6,872	2.83 2.42	25.6 13.2	3.05 2.63	34.4 19.2	2.79 2.44	24.6 14.1	3.08 2.76	36.0 23.6	3.01 2.71	31.4 21.1
성별	남성	6,110	2.66	19.6	2.90	27.6	2.66	20.0	2.93	29.2	2.89	26.2
	여성	4,256	2.41	14.1	2.59	19.7	2.41	14.3	2.78	25.7	2.70	22.2
연령별	20대	1,627	2.40	17.8	2.65	24.0	2.40	16.7	2.74	25.2	2.68	23.2
	30대	3,649	2.61	18.1	2.82	25.4	2.61	18.8	2.88	27.3	2.82	24.1
	40대	3,171	2.54	15.4	2.74	22.1	2.52	14.7	2.84	25.9	2.80	23.8
	50대	1,564	2.61	18.3	2.83	25.6	2.65	20.1	2.99	33.2	2.91	27.4
	60-64세	258	2.78	26.0	3.02	31.8	2.93	29.1	3.21	39.5	3.02	28.7
	65세 이상	97	2.22	10.3	2.59	21.6	2.38	15.5	2.88	29.9	2.85	3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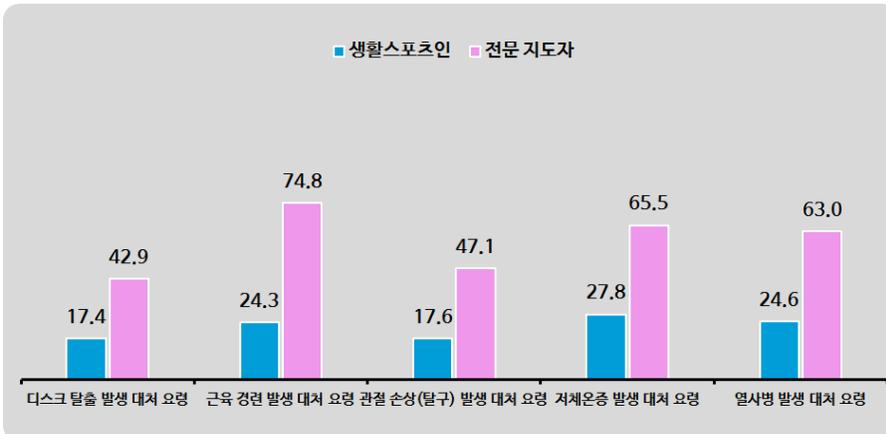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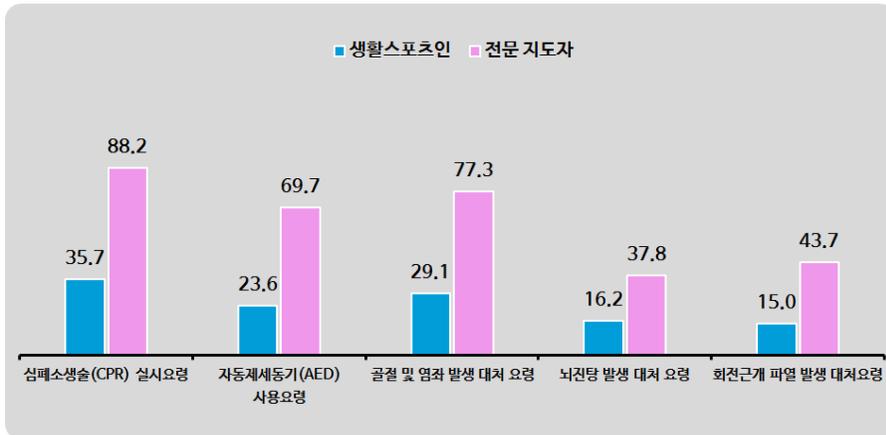
※ 실태조사 전체응답자, n=10,366

※ Top2: [4]긍정과 [5]매우 긍정의 합산 비율

참고 [전문 체육 지도자 조사] 응급처치 요령 인지도

- ◎ ‘전문 체육 지도자 조사’ 결과와 비교해보면, 대부분 ‘전문 체육 지도자’의 인지도가 적게는 2배에서 크게는 3배 이상 더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전문 체육 지도자’의 경우, ‘심폐소생술 실시’에 대한 ‘인지’가 가장 높고, ‘뇌진탕 발생 대처 요령’에 대한 ‘인지’수준이 가장 낮음.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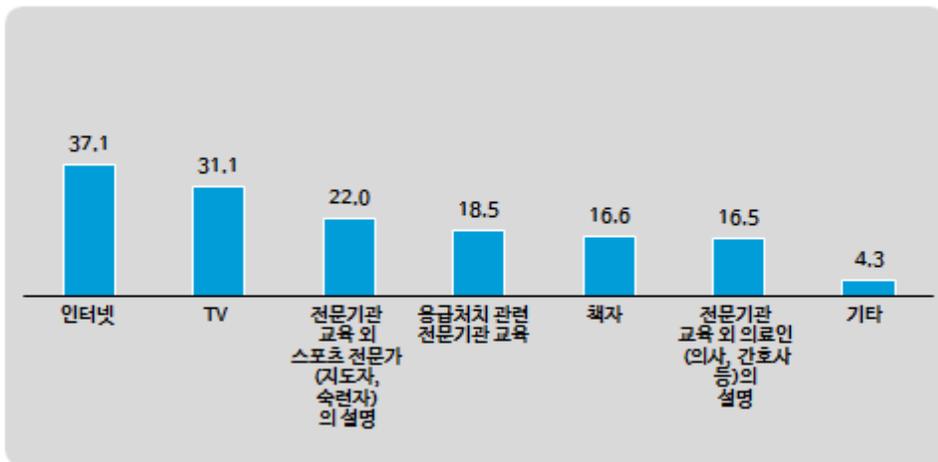
- ※ Top2: [4]긍정과 [5]매우 긍정의 합산 비율
- ※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10,366
- ※ 전문 체육 지도자 조사 전체 응답자, n=119

3) 응급처치 요령 습득경로

- ▶ 응급처치 요령 습득경로는 ‘인터넷’(37.1%), ‘TV’(31.1%), ‘전문기관 교육 외 스포츠 전문가의 설명’(22.0%), ‘응급처치 관련 전문기관 교육’(18.5%)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그림 III-48 ■ 응급처치 요령 습득경로

(단위: %)



※ 실태조사 전체응답자, n=10,366

Ⅲ. 조사 결과

(1) 종목별 응급처치 요령 습득경로

- ▶ 종목별로 살펴보면, ‘인터넷’은 인라인스케이팅(48.8%), ‘달리기’(41.9%), 야구(41.7%) 순, ‘TV’는 게이트볼(49.0%), 걷기(45.9%), 에어로빅(45.7%) 순, ‘전문기관 교육 외 스포츠 전문가의 설명’은 승마(33.6%), 무도(30.4%), 게이트볼(30.0%) 순으로 높게 나타남.

【 표 Ⅲ-72 】 종목별 응급처치 요령 습득경로

(단위: %)

구 분	사례수	인터넷	TV	전문기관 교육외 스포츠 전문 기관의 설명	응급처치 관련 전문 기관 교육	책자	전문기관 교육외 의료인 의설 명	기타
전 체	10,366	37.1	31.1	22.0	18.5	16.6	16.5	4.3
등산	1,028	38.4	39.2	17.0	13.0	16.8	10.1	3.8
축구	1,013	35.4	25.7	23.0	21.6	15.8	15.4	4.2
자전거	883	38.7	33.0	20.6	17.4	16.1	16.6	5.2
스키/스노보드	729	39.0	34.6	22.1	17.7	17.4	15.6	4.8
무도	336	28.0	15.5	30.4	24.1	15.5	31.0	2.1
아이스스케이팅	311	37.3	25.7	23.2	20.3	19.3	22.8	5.1
인라인스케이팅	160	48.8	33.8	16.9	13.1	15.6	15.6	3.1
보디빌딩(헬스)	713	39.6	27.1	24.4	18.2	16.8	17.7	5.6
농구	711	40.1	23.5	23.8	23.2	15.9	20.0	5.5
배드민턴	714	34.2	27.3	21.8	19.7	15.4	15.1	4.2
걷기	314	34.7	45.9	10.8	7.3	17.2	10.5	6.4
달리기	713	41.9	33.7	16.5	16.5	14.6	13.6	5.6
수영	313	35.5	33.2	21.4	16.9	15.3	17.3	3.8
골프/스크린골프	329	35.0	29.5	21.9	17.3	17.3	18.5	1.8
볼링	312	37.5	36.5	21.8	20.5	13.8	16.3	7.1
야구	314	41.7	29.6	29.3	20.1	15.9	15.9	5.4
에어로빅	302	32.1	45.7	28.1	17.9	17.5	21.5	.0
테니스	310	34.8	28.4	28.7	19.4	21.9	14.8	2.9
게이트볼	100	24.0	49.0	30.0	16.0	16.0	31.0	.0
요가	211	33.2	37.4	12.3	15.6	16.6	7.1	5.7
탁구	310	39.0	25.8	22.9	22.6	19.7	15.8	2.3
승마	110	28.2	25.5	33.6	23.6	22.7	24.5	1.8
항공스포츠	130	29.2	15.4	28.5	32.3	20.8	30.0	1.5

※ 실태조사 전체응답자, n=10,366

스포츠 안전사고 실태조사 -종합편

(2) 응답자 특성별 응급처치 요령 습득경로

-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전문기관 교육 외 스포츠 전문가의 설명’ 및 ‘응급처치 관련 전문기관 교육’은 모두 종목 능숙도가 높을수록, 동호회 활동자에서 높게 나타남.
- ▶ 한편 연령별 65세 이상 고연령자는 ‘인터넷’을 비롯한 여타 인지경로 응답 비율이 낮은 반면, ‘TV’가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을 보임.

【 표 III-73 】 응답자 특성별 스포츠 안전사고 응급처치 요령 습득경로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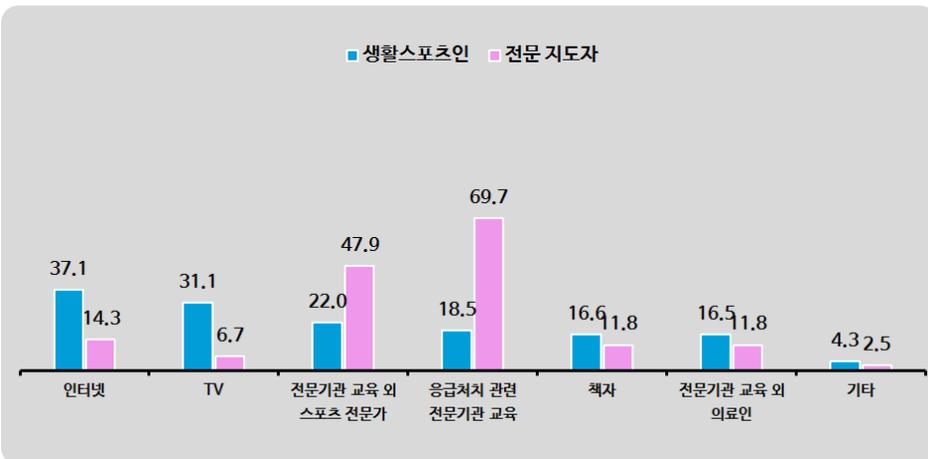
구 분		사례수	인터넷	TV	전문기관교육 외스포츠 초전문기 가의설 명	응급처 치관련 전문기 관교육	책자	전문기 관교육 외의료 인의설 명	기타
전 체		10,366	37.1	31.1	22.0	18.5	16.6	16.5	4.3
종목 능숙도	초급	6,834	37.8	32.7	19.7	17.2	15.4	14.5	4.5
	중급	2,725	36.7	28.1	25.0	19.7	19.5	19.3	4.1
	상급	807	33.3	27.0	30.7	25.2	17.0	24.3	3.3
종목 경력	2년미만	2,099	35.2	32.4	20.2	17.4	13.2	14.1	4.7
	2년 이상-5년 미만	1,952	36.5	29.6	22.6	18.0	17.4	18.3	4.3
	5년이상-10년미만	2,207	39.6	32.0	20.1	16.9	16.5	17.4	4.3
	10년 이상-20년 미만	2,406	38.7	31.3	23.7	18.2	17.7	16.1	4.1
동호회 활동	20년 이상	1,702	35.0	29.6	23.4	22.7	18.5	17.0	4.3
	동호회 활동	3,494	38.2	27.4	31.2	23.8	19.3	21.5	3.5
성별	동호회 미활동	6,872	36.6	32.9	17.3	15.8	15.3	14.0	4.8
	남성	6,110	38.3	26.4	23.6	20.8	16.8	17.6	4.7
연령별	여성	4,256	35.4	37.8	19.6	15.2	16.4	15.1	3.7
	20대	1,627	35.0	28.6	20.8	19.9	13.3	19.7	6.2
	30대	3,649	37.2	25.3	24.4	22.3	14.9	20.0	4.9
	40대	3,171	39.6	35.2	20.1	15.8	17.7	13.2	3.5
	50대	1,564	36.5	36.2	21.3	14.5	20.5	13.0	2.8
	60-64세	258	33.3	34.1	26.0	17.1	22.5	12.0	3.5
65세 이상	97	9.3	61.9	11.3	7.2	24.7	9.3	5.2	

※ 실태조사 전체응답자, n=10,366

참고 [전문 체육 지도자 조사] 응급처치 요령 습득경로

◎ ‘전문 체육 지도자 조사’ 결과와 비교해보면, ‘전문 체육 지도자’의 경우 ‘응급처치 관련 전문기관 교육’이 69.7%로 가장 높게 나타남. 또한, ‘생활 스포츠인’과 달리 ‘인터넷’과 ‘TV’ 등을 통한 습득은 낮게 나타나, 전반적으로 전문적인 교육을 제대로 받고 있다고 판단됨.

(단위: %)



※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10,3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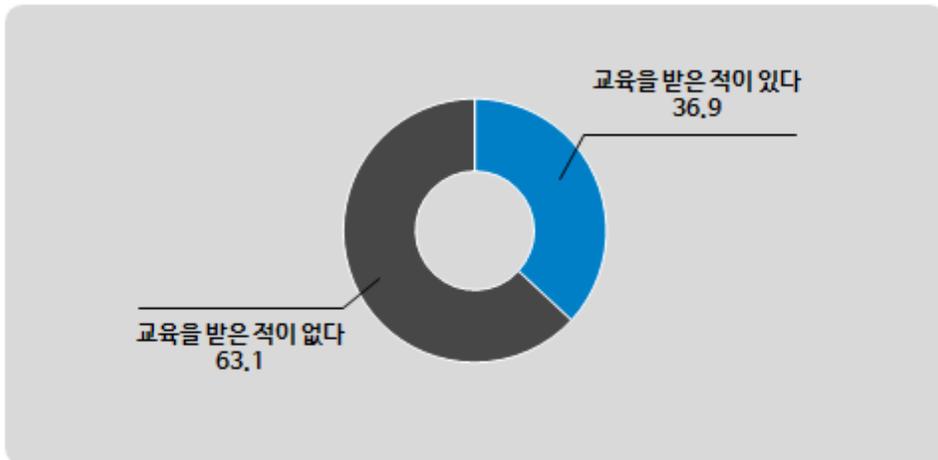
※ 전문 체육 지도자 조사 전체 응답자, n=119

4) 스포츠 안전사고 대비교육 이수율

- ▶ 스포츠 안전사고에 대비한 교육 경험율은 36.9%로 나타남.

■ 그림 III-49 ■ 스포츠 안전사고 대비교육 이수율

(단위: %)



※ 실태조사 전체응답자, n=10,366

Ⅲ. 조사 결과

(1) 종목별 스포츠 안전사고 대비교육 이수율

- ▶ 종목별로 살펴보면, 교육 경험율은 항공 스포츠(62.3%), 승마(58.2%), 아이스스케이팅(51.8%) 순으로 높은 반면, 교육 비경험율은 걷기(80.3%), 등산(70.2%), ‘인라인 스케이팅’(69.4%) 순으로 높게 나타남.

【 표 Ⅲ-74 】 종목별 스포츠 안전사고 대비교육 이수율

(단위: %)

구 분	사례수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	계
전 체	10,366	36.9	63.1	100.0
등산	1,028	29.8	70.2	100.0
축구	1,013	35.9	64.1	100.0
자전거	883	35.0	65.0	100.0
스키/스노보드	729	37.4	62.6	100.0
무도	336	47.0	53.0	100.0
아이스스케이팅	311	51.8	48.2	100.0
인라인스케이팅	160	30.6	69.4	100.0
보디빌딩(헬스)	713	39.1	60.9	100.0
농구	711	42.2	57.8	100.0
배드민턴	714	35.2	64.8	100.0
걷기	314	19.7	80.3	100.0
달리기	713	36.7	63.3	100.0
수영	313	37.4	62.6	100.0
골프/스크린골프	329	31.6	68.4	100.0
볼링	312	37.5	62.5	100.0
야구	314	37.3	62.7	100.0
에어로빅	302	35.4	64.6	100.0
테니스	310	38.7	61.3	100.0
게이트볼	100	41.0	59.0	100.0
요가	211	30.8	69.2	100.0
탁구	310	37.4	62.6	100.0
승마	110	58.2	41.8	100.0
항공스포츠	130	62.3	37.7	100.0

※ 실태조사 전체응답자, n=10,366

스포츠 안전사고 실태조사 -종합편

(2) 응답자 특성별 스포츠 안전사고 대비교육 이수율

-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교육 경험율은 종목 능숙도가 높을수록, 종목 경력이 길수록, 동호회 활동자에서, 30대 이하 연령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표 Ⅲ-75 】 응답자 특성별 스포츠 안전사고 대비교육 이수율

(단위: %)

구 분		사례수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	계
전 체		10,366	36.9	63.1	100.0
종목 능숙도	초급	6,834	34.5	65.5	100.0
	중급	2,725	39.2	60.8	100.0
	상급	807	48.9	51.1	100.0
종목 경력	2년미만	2,099	32.4	67.6	100.0
	2년 이상-5년 미만	1,952	35.5	64.5	100.0
	5년이상-10년 미만	2,207	37.3	62.7	100.0
	10년 이상-20년 미만	2,406	37.9	62.1	100.0
동호회 활동	20년 이상	1,702	42.1	57.9	100.0
	동호회 활동	3,494	46.3	53.7	100.0
성별	동호회 미활동	6,872	32.1	67.9	100.0
	남성	6,110	37.8	62.2	100.0
연령별	여성	4,256	35.5	64.5	100.0
	20대	1,627	45.0	55.0	100.0
	30대	3,649	39.1	60.9	100.0
	40대	3,171	33.2	66.8	100.0
	50대	1,564	32.5	67.5	100.0
	60-64세	258	34.9	65.1	100.0
	65세 이상	97	14.4	85.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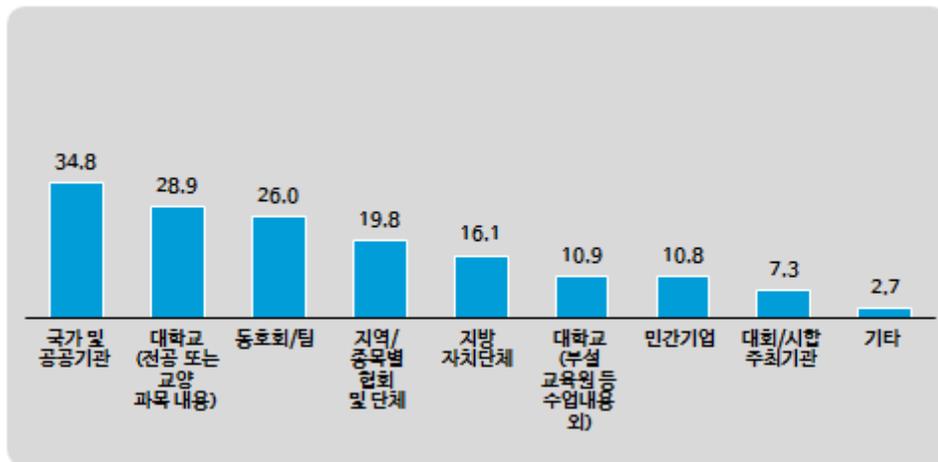
※ 실태조사 전체응답자, n=10,366

5) 스포츠 안전사고 대비교육 기관 유형

- ▶ 스포츠 안전사고 대비 교육을 받은 기관은 ‘국가 및 공공기관’(34.8%), ‘대학교’(28.9%), ‘동호회/팀’(26.0%)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그림 Ⅲ-50 ■ 스포츠 안전사고 대비교육 기관 유형

(단위: %)



※ 실태조사 안전사고 대비교육 이수자, n=3,823

스포츠 안전사고 실태조사 -종합편

- ▶ 종목별로 살펴보면, ‘국가 및 공공기관’이라는 응답은 게이트볼(43.9%), 인라인스케이팅(42.9%), 농구(41.7%) 순으로, ‘대학교’라는 응답은 게이트볼(41.5%), 에어로빅(38.3%), 무도(36.1%) 순으로 높게 나타남.

【 표 Ⅲ-76 】 종목별 스포츠 안전사고 대비교육 기관 유형

(단위: %)

구 분	사례수	국가및 공공기 관	대학교(전공또 는교양 과목내 용)	동호회/ 팀	지역/ 종목별 협회및 단체	지방자 치단체	대학교(부설교 육원등 수업내 용외)	민간기 업	대회/ 시합주 최기관	기타
전 체	3,823	34.8	28.9	26.0	19.8	16.1	10.9	10.8	7.3	2.7
등산	306	31.7	22.2	30.1	18.0	14.7	7.2	12.7	6.5	4.2
축구	364	35.2	28.8	27.7	17.6	16.2	9.9	10.7	8.2	2.2
자전거	309	35.6	25.9	27.2	24.9	20.1	10.0	9.4	6.1	3.2
스키/스노보드	273	33.7	30.0	31.1	14.7	11.4	12.1	15.4	7.7	2.9
무도	158	27.2	36.1	25.9	25.3	22.8	14.6	6.3	8.2	1.3
아이스스케이팅	161	39.8	36.0	21.1	22.4	17.4	14.9	14.3	5.0	2.5
인라인스케이팅	49	42.9	32.7	22.4	14.3	16.3	2.0	10.2	6.1	2.0
보디빌딩(헬스)	279	38.0	34.8	20.1	17.6	14.0	8.2	10.0	7.2	3.9
농구	300	41.7	32.7	26.0	21.3	16.7	13.3	8.3	4.7	1.3
배드민턴	251	34.7	25.9	25.5	21.5	15.1	9.2	6.4	6.4	2.8
걷기	62	25.8	30.6	12.9	25.8	9.7	3.2	8.1	4.8	8.1
달리기	262	33.6	28.6	22.5	14.9	14.1	8.8	13.7	6.9	5.7
수영	117	31.6	23.9	20.5	20.5	16.2	13.7	12.8	6.8	2.6
골프/스크린골프	104	24.0	19.2	31.7	22.1	14.4	15.4	12.5	11.5	1.0
볼링	117	36.8	27.4	19.7	12.8	18.8	6.8	12.0	8.5	3.4
야구	117	34.2	28.2	34.2	23.9	11.1	12.8	9.4	12.0	0.0
에어로빅	107	38.3	38.3	27.1	20.6	19.6	15.0	12.1	10.3	1.9
테니스	120	25.8	25.0	32.5	21.7	16.7	14.2	10.0	9.2	2.5
게이트볼	41	43.9	41.5	17.1	36.6	29.3	26.8	9.8	17.1	0.0
요가	65	41.5	29.2	13.8	9.2	10.8	6.2	13.8	6.2	3.1
탁구	116	33.6	18.1	26.7	22.4	19.0	8.6	13.8	6.0	0.9
승마	64	35.9	26.6	25.0	21.9	18.8	14.1	9.4	3.1	0.0
항공스포츠	81	37.0	32.1	35.8	21.0	16.0	16.0	3.7	8.6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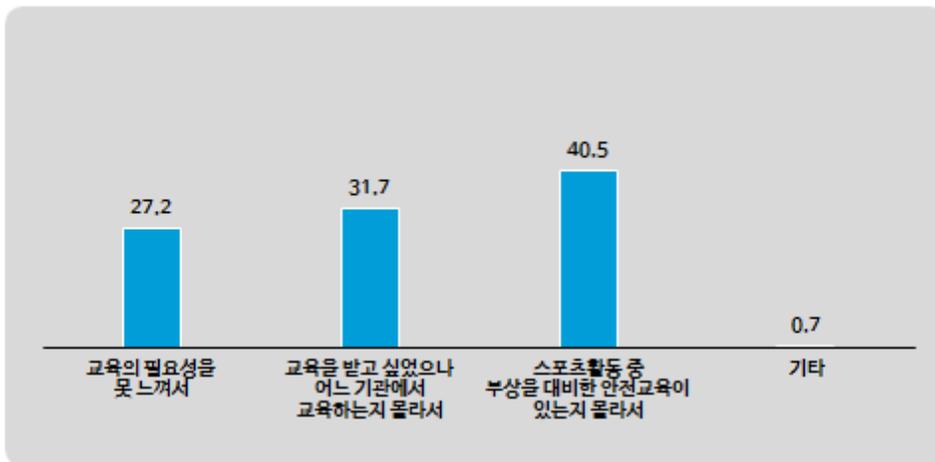
※ 실태조사 안전사고 대비교육 이수자, n=3,823

6) 스포츠 안전사고 대비교육 미이수 이유

- ▶ 스포츠 안전사고에 대비 교육을 받지 않은 이유는 ‘스포츠활동 중 부상을 대비한 안전교육이 있는지 몰라서’(40.5%), ‘교육을 받고 싶었으나 어느 기관에서 교육하는지 몰라서’(31.7%), ‘교육을 필요성을 못 느껴서’(27.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그림 Ⅲ-51 ■ 스포츠 안전사고 대비교육 미이수 이유

(단위: %)



※ 실태조사 안전사고 대비교육 미이수자, n=6,543

스포츠 안전사고 실태조사 -종합편

- ▶ 종목별로 살펴보면, ‘스포츠활동 중 부상을 대비한 안전교육이 있는지 몰라서’라는 응답은 볼링(46.7%), 골프/스크린골프(46.2%), 요가(45.2%) 순으로, ‘어느 기관에서 교육하는지 몰라서’는 승마(43.5%), 인라인스케이팅(38.7%), 무도(38.2%) 순으로 높게 나타남.

【 표 III-77 】 종목별 스포츠 안전사고 대비교육 미이수 이유

(단위: %)

구 분	사례수	교육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교육을 받고 싶었으나 어느 기관에서 교육하는지 몰라서	스포츠활동 중 부상을 대비한 안전교육이 있는지 몰라서	기타	계
전 체	6,543	27.2	31.7	40.5	0.7	100.0
등산	722	26.5	31.6	41.4	0.6	100.0
축구	649	24.5	33.0	42.2	0.3	100.0
자전거	574	28.7	30.1	40.6	0.5	100.0
스키/스노보드	456	25.9	30.3	43.2	0.7	100.0
무도	178	21.9	38.2	39.3	0.6	100.0
아이스스케이팅	150	22.0	36.7	40.7	0.7	100.0
인라인스케이팅	111	23.4	38.7	36.9	0.9	100.0
보디빌딩(헬스)	434	25.6	29.7	43.8	0.9	100.0
농구	411	29.0	35.5	35.3	0.2	100.0
배드민턴	463	27.6	32.4	38.4	1.5	100.0
걷기	252	25.4	31.7	41.7	1.2	100.0
달리기	451	25.9	32.6	40.8	0.7	100.0
수영	196	23.5	35.2	40.8	0.5	100.0
골프/스크린골프	225	29.8	23.1	46.2	0.9	100.0
볼링	195	28.7	24.1	46.7	0.5	100.0
야구	197	24.9	34.0	40.6	0.5	100.0
에어로빅	195	47.7	24.1	28.2	0.0	100.0
테니스	190	27.9	29.5	42.6	0.0	100.0
게이트볼	59	54.2	27.1	18.6	0.0	100.0
요가	146	21.2	32.9	45.2	0.7	100.0
탁구	194	30.4	32.0	35.6	2.1	100.0
승마	46	23.9	43.5	32.6	0.0	100.0
항공스포츠	49	26.5	36.7	36.7	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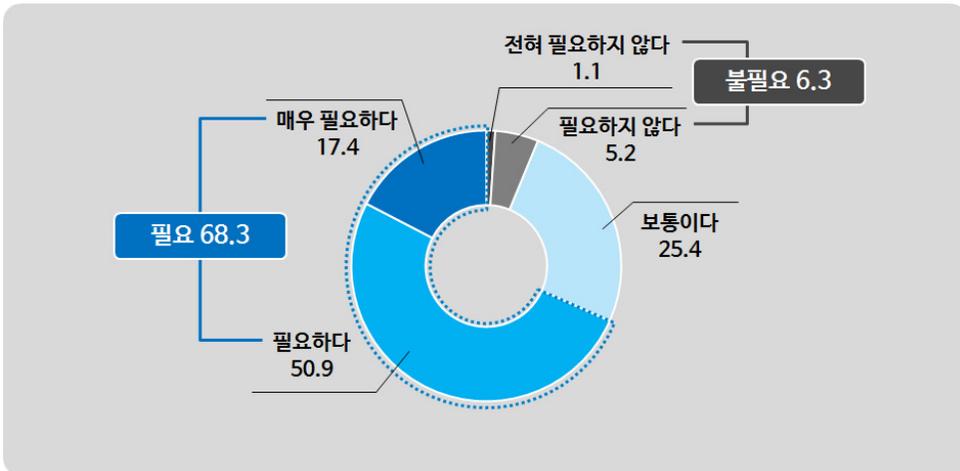
※ 실태조사 안전사고 대비교육 미이수자, n=6,543

7) 스포츠 안전사고 대비교육 필요성 인식

- ▶ 스포츠 안전사고에 대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68.3%로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 6.3%에 비해 현저히 높게 나타남.

■ 그림 III-52 ■ 스포츠 안전사고 대비교육 필요성 인식

(단위: %)



※ 실태조사 전체응답자, n=10,366

스포츠 안전사고 실태조사 -종합편

- ▶ 종목별로 살펴보면, 스포츠 안전사고에 대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인라인스케이팅(77.5%), 승마(76.4%), 등산(74.1%) 순으로,
필요 하지 않다는 응답은 항공스포츠(18.5%), 게이트볼(16.0%), 에어로빅 (14.2%) 순으로 높음.

【 표 III-78 】 종목별 스포츠 안전사고 대비교육 필요성 인식

(단위: %)

구분	사례수	전혀 불필요	불필요	보통	필요	매우 필요	필요하지 않음	필요함
전 체	10,366	1.1	5.2	25.4	50.9	17.4	6.3	68.3
등산	1,028	0.8	3.1	22.0	55.7	18.4	3.9	74.1
축구	1,013	1.0	5.0	28.3	53.1	12.5	6.0	65.6
자전거	883	0.7	6.1	27.7	48.2	17.2	6.8	65.5
스키/스노보드	729	0.5	2.3	22.8	55.0	19.3	2.9	74.3
무도	336	0.9	10.7	35.7	35.4	17.3	11.6	52.7
아이스스케이팅	311	1.0	6.4	19.6	48.6	24.4	7.4	73.0
인라인스케이팅	160	0.0	1.9	20.6	56.3	21.3	1.9	77.5
보디빌딩(헬스)	713	1.5	4.9	23.8	52.0	17.7	6.5	69.7
농구	711	1.7	4.9	29.4	47.0	17.0	6.6	64.0
배드민턴	714	1.0	5.7	26.8	49.9	16.7	6.7	66.5
걷기	314	1.3	2.9	25.8	55.1	15.0	4.1	70.1
달리기	713	0.7	3.8	24.3	55.1	16.1	4.5	71.2
수영	313	1.0	5.4	29.1	44.1	20.4	6.4	64.5
골프/스크린골프	329	0.6	6.4	24.0	53.5	15.5	7.0	69.0
볼링	312	0.3	2.2	25.0	54.8	17.6	2.6	72.4
야구	314	1.9	2.5	24.2	56.4	15.0	4.5	71.3
에어로빅	302	2.6	11.6	21.9	45.0	18.9	14.2	63.9
테니스	310	1.0	7.1	26.1	49.7	16.1	8.1	65.8
게이트볼	100	2.0	14.0	22.0	42.0	20.0	16.0	62.0
요가	211	0.5	2.8	20.4	57.8	18.5	3.3	76.3
탁구	310	1.0	7.7	27.7	47.1	16.5	8.7	63.5
승마	110	1.8	6.4	15.5	50.9	25.5	8.2	76.4
항공스포츠	130	4.6	13.8	25.4	28.5	27.7	18.5	56.2

※ 실태조사 전체응답자, n=10,366

8) 안전한 스포츠활동을 위한 개선사항

- ▶ 안전한 스포츠활동을 위해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는 ‘스포츠 안전교육 강화’(30.2%), ‘스포츠 시설 확대/개선’(11.9%), ‘시설/장비 안전점검 강화’(11.3%) 등의 내용이 주로 응답됨.

【 표 Ⅲ-79 】 안전한 스포츠활동 위한 개선사항 주요 의견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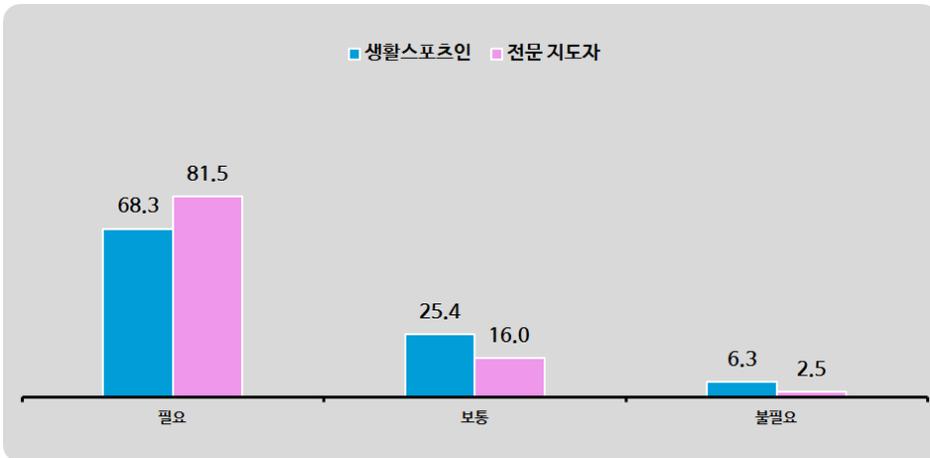
구 분	사례수	응답비율
전 체	10,036	100.0
스포츠안전교육 강화	3,028	30.2
스포츠시설 확대/개선	1,195	11.9
시설/장비 안전점검 강화	1,133	11.3
안전의식 개선	807	8.0
사전사후 준비운동	678	6.8
우수 안전용품 개발/보급	499	5.0
지도자/전문가 양성 및 배치	484	4.8
수준/특성에 맞는 운동	380	3.8
장비/장구 확인	374	3.7
시설/장소에 안내문구, 매뉴얼 비치	374	3.7
시설/장소에 전문가 배치	305	3.0
안전수칙 준수	270	2.7
시설 내 안전용품 비치	263	2.6
안전제도 정비	136	1.4
상황중심교육	120	1.2
예방법 숙지	119	1.2
안전수칙 전파	110	1.1
성숙한 스포츠문화	107	1.1
범국민적인 안전교육	105	1.0
지도자 역량강화	102	1.0
없음	365	3.6
모름/무응답	467	4.7

※ 실태조사 전체응답자, n=10,366

참고 [전문 체육 지도자 조사] 별도 시간을 마련한 안전교육의 필요성

- ◎ ‘전문 체육 지도자 조사’ 결과와 비교해보면, ‘생활스포츠인’과 마찬가지로, 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 ‘전문 체육 지도자’의 경우, ‘시간을 별도로 편성하여 선수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 사실상 ‘생활 스포츠인 조사’와 정확하게 비교 가능한 문항은 아니나, ‘필요성’ 측면에서 비교 가능할 것으로 보임.
- 특히, ‘전문 체육 지도자’의 경우가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적극 공감하고 있어 ‘전문체육선수’에 대한 교육 마련이 절실히 보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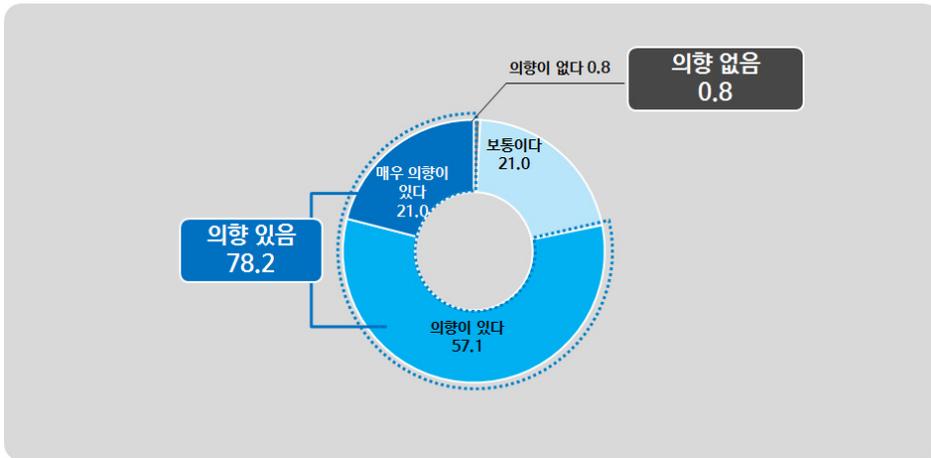
※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10,366

※ 전문 체육 지도자 조사 전체 응답자, n=119

참고 [전문 체육 지도자 조사] 재단 실시 교육 참여 권유 여부

- ◎ ‘전문 체육 지도자 조사’에서 ‘스포츠안전재단에서 실시하는 안전사고 예방 교육 참여 권유 의향’을 질문한 결과,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78.2%(매우 의향이 있다 21.0%+의향이 있다 57.1%)로 높게 나타남.
- 아래 질문은 ‘전문 체육 지도자 조사’에서만 질문한 문항임.

(단위: %)



※ 전문 체육 지도자 조사 전체 응답자, n=1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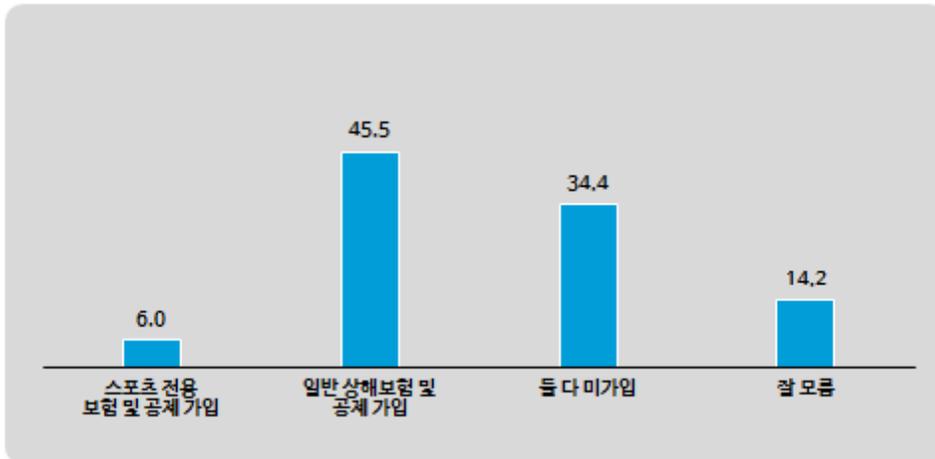
4 보험 및 공제 서비스

1) 스포츠/일반 상해보험 및 공제 가입 여부

- ▶ 상해보험 및 공제 가입여부를 살펴보면, ‘일상생활 중 일어날 수 있는 부상에 대비한 보험 및 공제에 가입되어 있다’는 응답이 45.5%, ‘스포츠활동 중의 부상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주는 보험 및 공제에 가입되어 있다’는 응답은 6.0%에 그침.

■ 그림 III-53 ■ 스포츠/일반 상해보험 및 공제 가입 여부

(단위: %)



※ 실태조사 전체응답자, n=10,366

Ⅲ. 조사 결과

- ▶ 종목별로 살펴보면, ‘스포츠활동중의 부상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 주는 보험 및 공제에 가입되어 있다’는 응답은 항공스포츠(13.8%), 게이트볼(13.0%), 무도(11.6%) 순으로 높게 나타남.

【 표 Ⅲ-80 】 종목별 스포츠/일반 상해보험 및 공제 가입 여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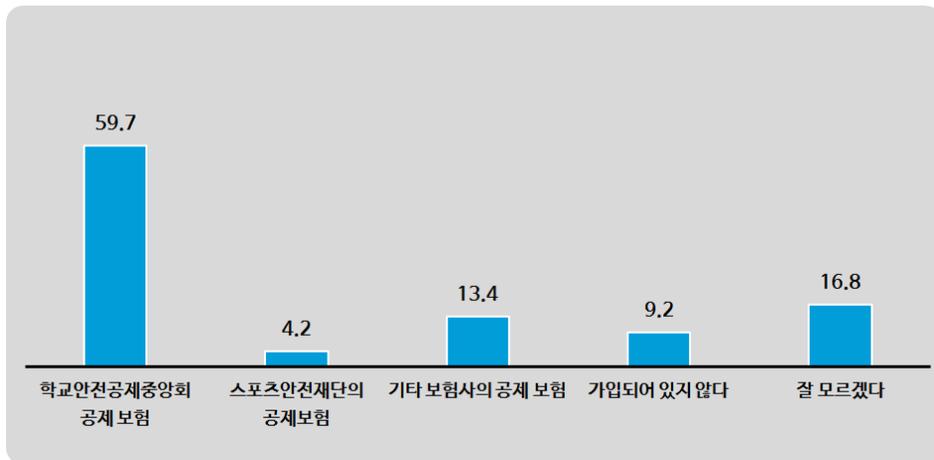
구 분	사례수	스포츠 활동 전용 보험 및 공제 가입	일반 상해보험 및 공제 가입	둘 다 미가입	잘 모름	계
전 체	10,366	6.0	45.5	34.4	14.2	100.0
등산	1,028	2.2	43.6	40.0	14.2	100.0
축구	1,013	5.7	44.4	36.3	13.5	100.0
자전거	883	5.5	42.5	38.5	13.5	100.0
스키/스노보드	729	6.6	49.2	29.2	15.0	100.0
무도	336	11.6	48.2	26.8	13.4	100.0
아이스스케이팅	311	6.8	53.7	23.8	15.8	100.0
인라인스케이팅	160	3.8	37.5	42.5	16.3	100.0
보디빌딩(헬스)	713	4.9	45.3	32.8	17.0	100.0
농구	711	7.3	47.8	31.5	13.4	100.0
배드민턴	714	6.6	43.4	38.4	11.6	100.0
걷기	314	3.5	36.9	43.3	16.2	100.0
달리기	713	3.6	41.9	38.1	16.3	100.0
수영	313	7.0	45.0	31.0	16.9	100.0
골프/스크린골프	329	7.0	50.8	33.1	9.1	100.0
볼링	312	2.6	45.5	32.7	19.2	100.0
야구	314	8.6	45.9	33.8	11.8	100.0
에어로빅	302	10.3	56.0	23.8	9.9	100.0
테니스	310	6.5	45.5	35.8	12.3	100.0
게이트볼	100	13.0	48.0	29.0	10.0	100.0
요가	211	7.1	34.6	35.1	23.2	100.0
탁구	310	5.5	49.7	32.6	12.3	100.0
승마	110	10.9	46.4	30.9	11.8	100.0
항공스포츠	130	13.8	58.5	17.7	10.0	100.0

※ 실태조사 전체응답자, n=10,366

참고 [전문 체육 지도자 조사] 학교 또는 팀 가입 공제/보험

- ◎ ‘전문 체육 지도자 조사’에서 선수 개별 가입 공제 및 보험 외, 학교 또는 팀에서 가입된 공제 및 보험 여부를 질문한 결과, ‘학교안전공제중앙회 공제 및 보험’ 가입이 59.7%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아래 질문은 ‘전문 체육 지도자 조사’에서만 질문한 문항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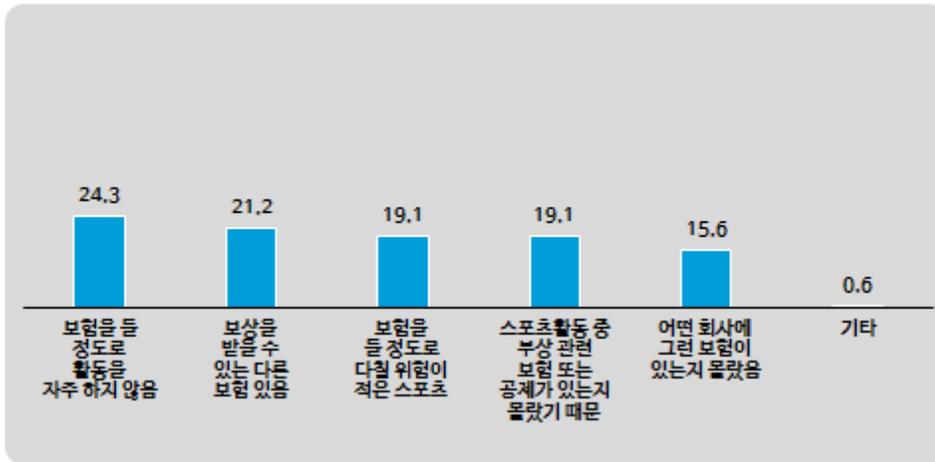
※ 전문 체육 지도자 조사 전체 응답자, n=119

2) 스포츠 상해보험 및 공제서비스 미가입 이유

- ▶ 스포츠 상해보험 및 공제서비스 미가입 이유를 살펴보면, ‘보험을 들 정도로 활동을 자주 하지 않아서’(24.3%),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보험이 있어서’(21.2%), ‘보험을 들 정도로 다칠 위험이 적은 스포츠라서’ 및 ‘스포츠활동 중 부상 관련 보험 또는 공제가 있는지 몰랐기 때문에’ (각 19.1%)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그림 Ⅲ-54 ▮ 스포츠 상해보험 및 공제서비스 미가입 이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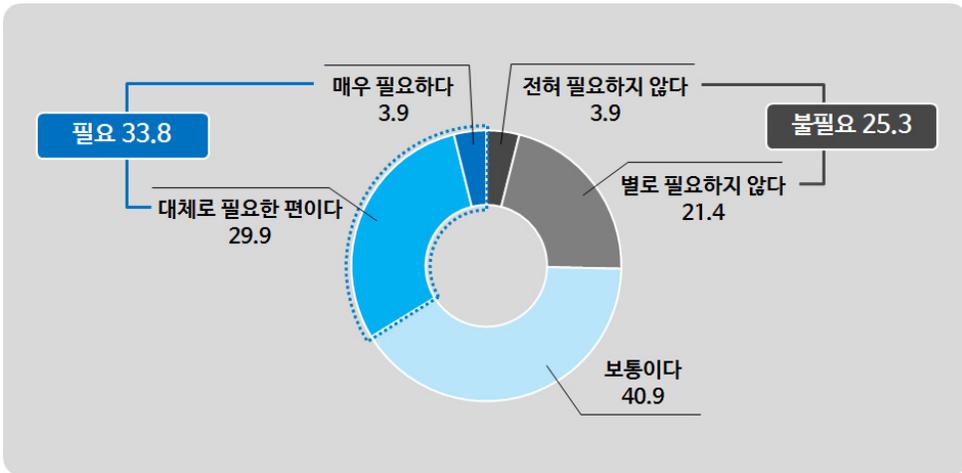
※ 실태조사 스포츠 상해보험 및 공제서비스 미가입자, n=8,277

3) 스포츠 상해보험 및 공제서비스 필요성 인식

- ▶ 스포츠 상해보험 및 공제서비스 필요성에 대해, ‘필요하다’는 응답은 33.8%로, ‘불필요하다’는 응답(25.3%)에 비해 8.5%p 높게 나타남.

■ 그림 III-55 ■ 스포츠 상해보험 및 공제서비스 필요성 인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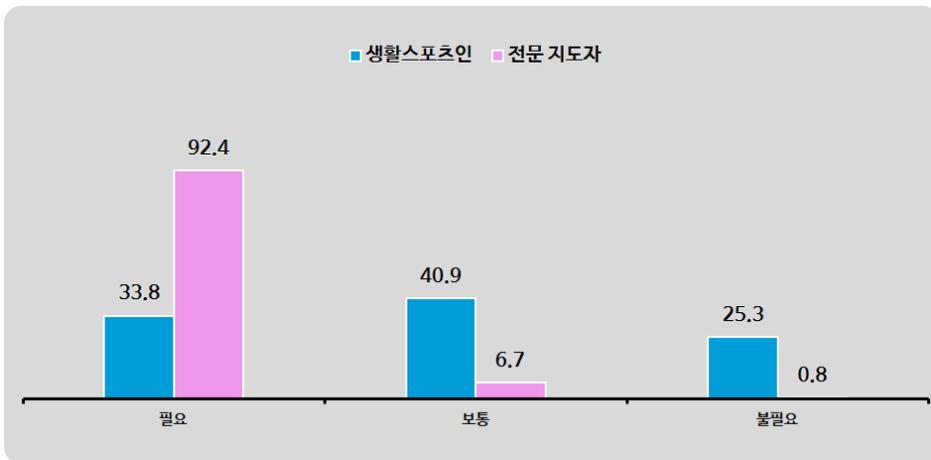


※ 실태조사 전체응답자, n=10,366

참고 [전문 체육 지도자 조사] 보험 또는 공제 필요성

◎ ‘전문 체육 지도자 조사’ 결과와 비교해보면, 전문 체육 지도자의 경우 ‘보험 또는 공제 필요성’에 거의 대부분인 92.4%가 공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단위: %)



※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10,3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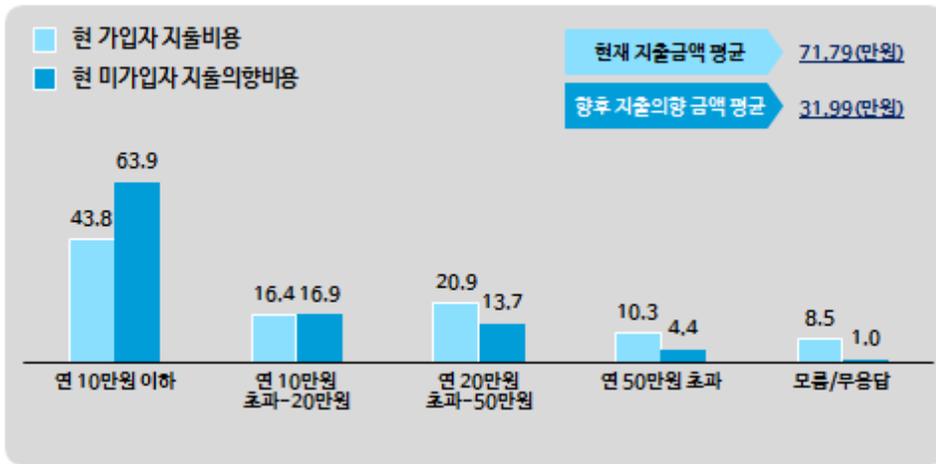
※ 전문 체육 지도자 조사 전체 응답자, n=119

4) 스포츠 상해보험 및 공제서비스 비용 지출

- ▶ 현재 스포츠 상해 및 공제서비스 가입자들의 연평균 지출 금액은 71.79만원으로 나타남.
- ▶ 반면, 현재 스포츠 상해 및 공제서비스 미가입자들의 향후 가입 시 연평균 지출 의향금액은 이보다 낮은 31.99만원으로 조사됨.

■ 그림 III-56 ■ 스포츠 상해보험 및 공제서비스 비용 지출

(단위: %)



※ 현 가입자 지출비용 : 실태조사 스포츠 상해보험 및 공제서비스 가입자, n=621

※ 미 가입자 지출의향 : 실태조사 스포츠 상해보험 및 공제서비스 미가입자, n=9,745

부록1. 종목별 주요결과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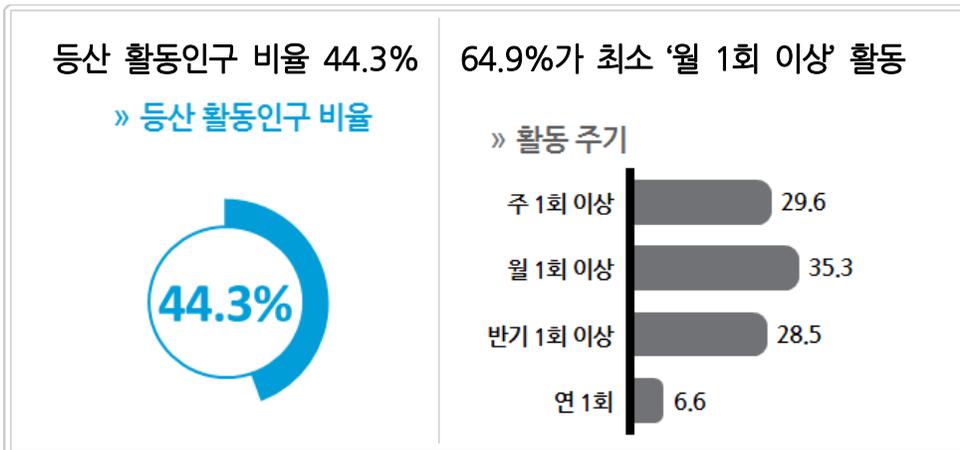


스포츠안전재단
KOREA SPORTS SAFETY FOUNDATION

부록1. 종목별 주요결과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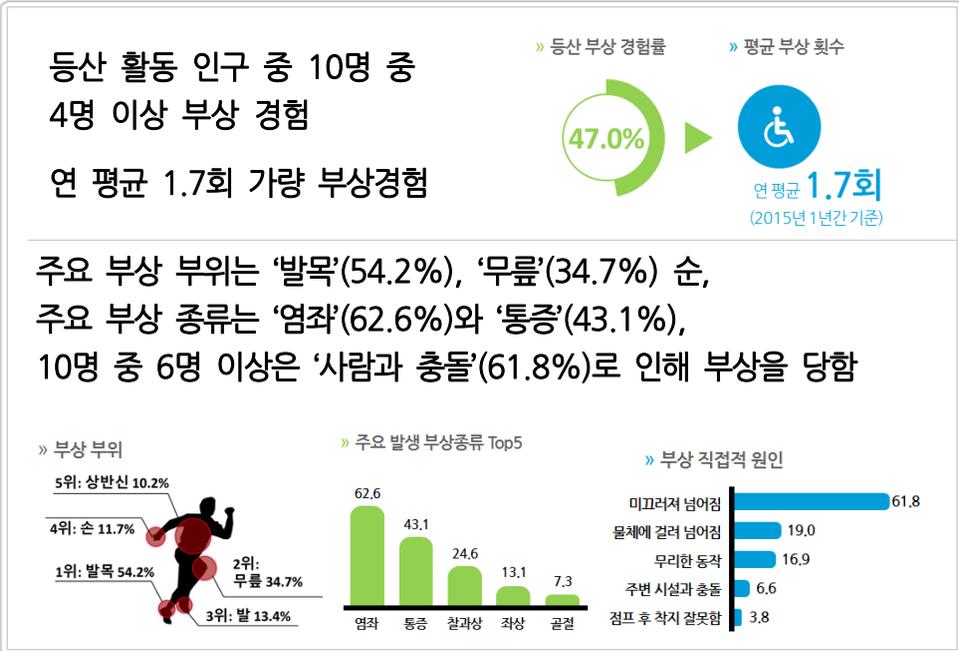
1. 등산

1 생활스포츠 참여 실태



- 최근 1년간 스포츠 활동의 일환으로 등산을 경험한 인구 비율은 44.3%임.
- 전체적으로 10명 중 약 6명 이상(64.9%: 주 1회 이상 29.6%+월 1회 이상 35.3%)은 최소 '월 1회 이상' 등산을 즐기고 있으며, 1회 평균 활동시간은 148.49분임.
- 등산 활동 인구의 절반 이상이 '오전'(09-12시 이전, 51.8%)에 주로 활동함.
- 등산 인구 10명 중 9명 이상(91.6%)은 '전용시설 외 장소'에서 등산을 즐기고 있음.

2 부상 발생 현황



- 등산 활동인구 10명 중 4명 이상인 47.0%의 응답자가 심한 부상부터 경미한 부상까지 당한 경험이 있음.
- 등산 부상 경험은 자주 활동(주 1회 이상 36.7%, 월 1회(월 2-3회 포함) 이상 41.2%) 하는 사람들일수록, 1회 참여 시 약 163분 가량 활동하는 사람들에게서 주로 일어나고 있음.
- 종목 부상 경험자 10명 중 7명 이상(73.2%)은 본인의 등산 능숙도를 '초급' 정도로 인식하고 있으며, 부상자의 절반 이상인 50.8%가 경력이 '10년 이상'이라고 응답함.
- 등산을 통해 발생하는 부상은 주로 '발목'(54.2%), '무릎'(34.7%) 등의 부위에 일어나고 있으며, 가장 흔한 부상 유형은 '염좌'(62.6%), '통증'(43.1%), '찰과상'(24.6%) 등의 순임.
- 등산 부상 경험자들이 겪은 여러 부위와 종류를 종합한, 가장 심각했던 부상 유형은 '발목 염좌'(34.1%)임.
- 부상의 직접적 원인으로는 '미끄러져 넘어짐'이 61.8%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연 평균 약 1.7회 가량의 부상을 입고 있음.
- 등산의 경우, 전반적으로 ‘주요 운동 시간대’와 ‘부상 발생 시간대’가 비슷하게 나타나는 가운데, ‘주요 운동 시간대’는 ‘오전(09-12시 이전)’이 절반 이상인 반면, ‘부상 발생 시간대’는 ‘오전(09-12시 이전)’과 ‘점심(12-15시 이전)’에서 높게 나타남.
 - 1회당 활동 시간이 길수록 ‘점심시간’ 부상 발생 빈도가 높아지나, 이는 긴 활동 시간으로 부상 발생 시간대가 분산된 것으로 보임.

3 부상 발생 환경

전체적으로 부상경험자들의 사고예방활동은 미흡

부상경험자의 42.7%는 부상 전 아무런 사고예방활동을 실시하지 않음
 실시한 응답자 중에서도 '준비운동'(40.7%)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15% 이하의 실시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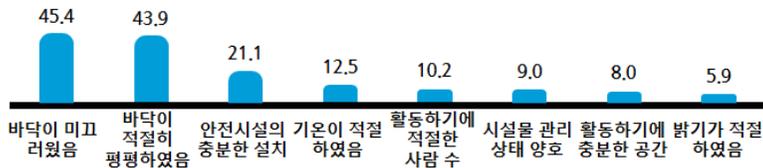
» 사고예방활동 현황

» 사고예방활동 실시 유형



여러 환경적 요인 중 가장 주요한 문제는 '미끄러운 바닥'(45.4%)과 '평평하지 않은 바닥'(43.9%)

» 부상 장소 환경적 요인(Bottom2: 매우 부정평가+부정평가 합산)



※ 5점 척도로 응답된 결과 중 [1]매우 부정평가와 [2]부정평가의 합산 비율을 제시함
 ※ '미끄러운 바닥'은 역척도 문항이므로 Bottom2는 [4]부정평가와 [5]매우 부정평가의 합산 비율임

◎ 부상발생 이전 상황 : 예방활동 측면

- 대부분의 사고예방활동 실시비율에서 가장 높았던 준비운동(40.7%)을 제외하면 모두 15% 이하이며, 42.7%가 '사고예방활동 미실시'라고 응답, 전반적으로는 준비운동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고예방활동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전문/숙련자가 배석함에 따라 '보호장구 및 안전용품 착용', '환경적 위험요소 확인', '준비운동 실시' 등 사고예방활동을 보다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음.
 - 장비 착용을 하는 경우, 10명 중 6명 이상(64.6%)은 부상 당시 '등산스틱'을 소지하고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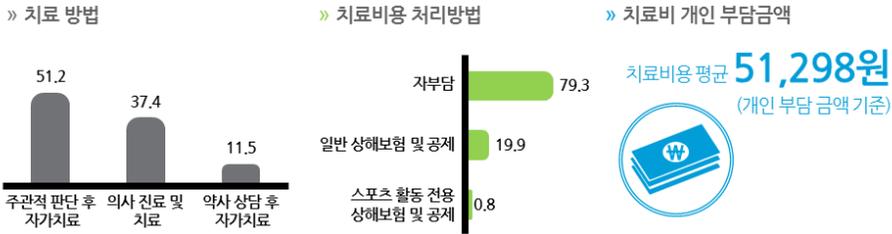
- 환경적 위험요소 확인자의 3명 중 1명가량(29.8%)만이 ‘정실하게 확인’하고 있음.
- 준비운동 실시자는 유연성(56.7%), 근력(40.9%), 심폐지구력(38.5%) 등 다양한 준비운동을 실시(5점 척도 중 [4]그렇다, [5]매우 그렇다의 합산비율 기준)하고 있으며 전문/숙련자가 배석할수록, 그리고 교육을 실시할수록 준비운동 역시 더 충실히 수행하는 것으로 조사됨.
- 확인한 안전매뉴얼의 경우 전반적으로 ‘부상 방지에 도움이 되었다’(48.4%)고 평가됨.
- 부상 전 신체상태가 ‘양호’했다는 응답이 33.7%로, ‘비양호’했다는 응답(5.8%)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나, 종합적으로는 10명 중 3명만이 신체상태가 양호한 상태에서 운동에 참여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음.

◎ 부상 당시 상황 : 환경적 요인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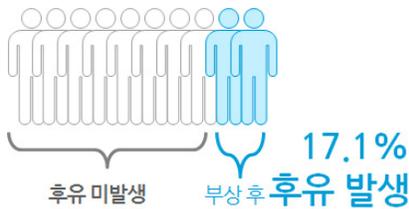
- 10명 중 8명 이상이 ‘하산 중’ 부상을 당했다고 응답, ‘하산’에 대한 교육과 하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예방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부상 장소 운영 주체는 ‘공공’시설이 41.1%, ‘민간’시설이 14.3%임.
- 부상 장소에 안전 안내문구·책자 비치여부에 대해, ‘안내문구 및 책자가 비치되었다’는 응답은 14.7%이며 비치된 경우 61.3%는 이를 확인한 것으로 나타남.
- 부상 장소의 환경적 요인을 종합한 결과, ‘바닥이 미끄러웠음’에 대한 평가가 45.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바닥이 적절히 평평하였음’에 대한 부정적 평가(43.9%), ‘안전시설의 충분한 설치’에 대한 부정적 평가(21.1%) 등의 순으로 조사됨(5점 척도 중 [1]매우 부정적, [2]부정적의 합산비율 기준. 단, ‘미끄러운 바닥’은 역척도 문항이므로 Bottom2는 [4]부정평가와 [5]매우 부정평가의 합산 비율).
- 등산코스(오르는 중)와 등산코스(하산 중)는 ‘바닥이 미끄러웠음’에 대한 평가와 ‘바닥이 적절히 평평하였음’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높게 조사됨.
- 부상 경험자 가운데 부상 당시 ‘지도자 자격증이 있는 전문 지도자’(1.9%)나 ‘해당 종목을 잘 아는 숙련자’(28.7%)가 배석 중이었고 이 중, 지도자가 배석한 경우 대부분(93.8%)은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 관련 교육을 실시한 반면 숙련자는 배석한 10명 중 2~3명 정도(26.7%)만이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였음.

4 부상 후 대처 및 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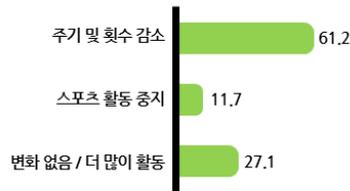
발생된 부상 절반 가량(51.2%)은 '주관적 판단 후 자가치료'
 10명 중 7명 이상(79.3%)은 치료비용을 '자부담 처리'
 개인 부담금액 기준, 1인 1건당 치료 소요비용은 평균 51,298원



부상 경험자 10명 중
 약 2명가량(17.1%)이
 부상으로 인해 후유증 발생



10명 중 8명 정도는 부상 이후
 스포츠 활동을 줄이거나(61.2%)
 중지(11.7%)함



- 염좌의 경우 '압박', 골절의 경우 '부목으로 고정' 등 전반적으로 부상 종류에 적절한 응급 대처를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전반적으로 '조치하지 않음' 응답이 40~50%로 높게 나타나며, 특히 통증과 염증의 경우 해당 비율이 약 60% 수준으로 높음.
- 발생한 부상은 '주관적 판단 후 자가치료'한 비율이 51.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의사 진료 및 치료'(37.4%), '약사 상담 후 자가치료'(11.5%)의 순이며, 부상 경험자 10명 중 8명가량(79.3%)은 치료 비용을 자부담하고, 전체적인 치료비용 개인 부담 금액은 평균 51,298원임.
 - 골절, 탈구, 파열 등의 부상 종류에서 치료비용 개인부담금액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부상 가료기간이 길수록 치료비용의 개인부담금액 역시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부록1 - 종목별 주요결과 요약

- 가료에 필요한 기간은 '1-2주'(31.9%)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1주 미만'(27.1%)이며 '가료기간 없음' 응답도 14.7%로 낮지 않음.
- 부상 경험자 10명 중 약 2명가량(17.1%)이 부상으로 인해 후유증이 발생함.
 - 골절, 염증, 파열 부상에서 후유발생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되었으며 이로 인한 후유증의 심각도 역시 타 종류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부상 경험자 10명 중 6명 이상(61.2%)은 부상 후 활동 주기 및 횟수가 감소하였고, 이의 주된 이유는 '신체적 불편함'(53.5%) 때문이며 다음으로 '심리적 두려움'(28.6%), '가족 또는 지인의 반대'(13.1%)의 순임.

5 스포츠 안전의식

스포츠 안전수칙 인지
24.3%

» 스포츠 안전수칙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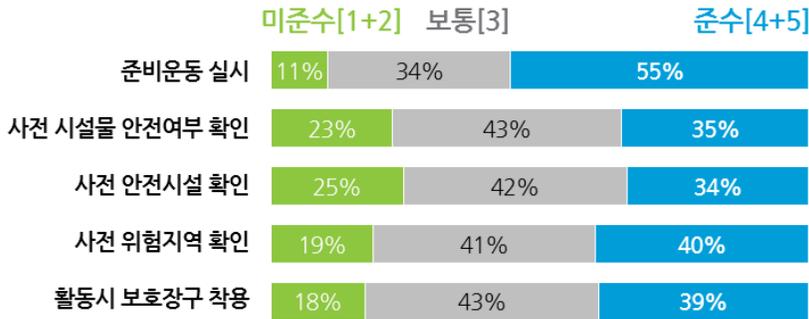
» 스포츠 안전수칙 준수정도

주로 운동 동료로부터
인지



재미 우선 3.2%

세부 안전수칙 중 준비운동을 가장 충실히 수행하며 다음으로 위험지역 확인 → 보호장구 착용 → 시설물 안전확인 → 안전시설 확인의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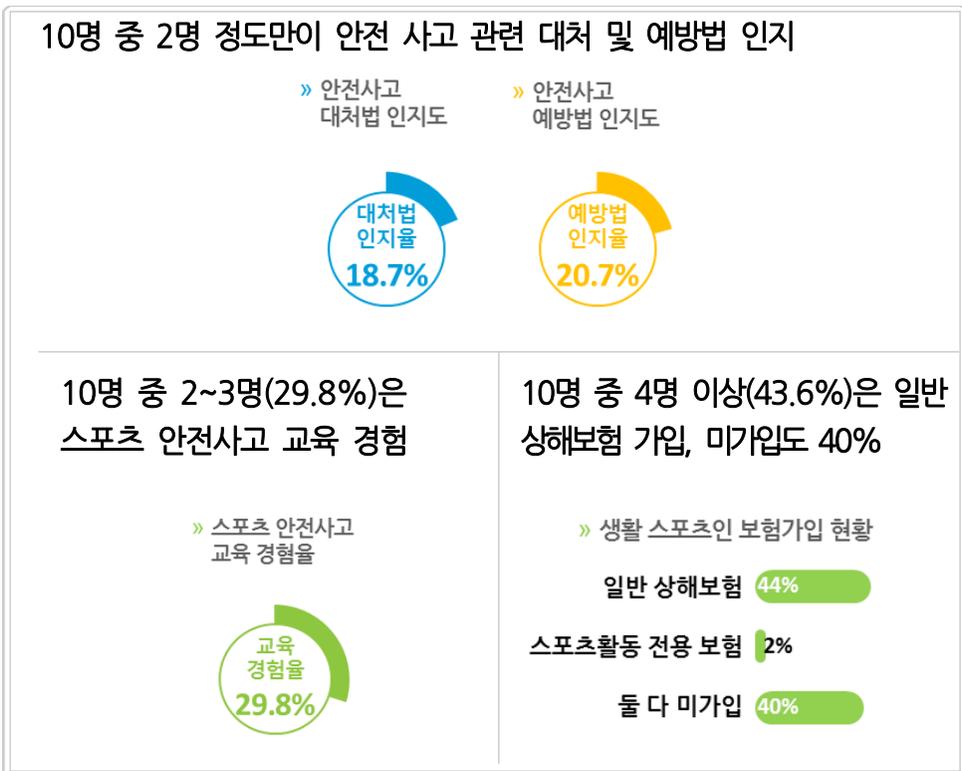


※ 5점 척도로 구성된 문항의 응답 결과임

◎ 안전 인식

- 등산 안전수칙을 ‘인지’하고 있다는 응답은 24.3%(매우 잘 알고 있음 1.6%+대체로 아는 편 22.8%)이며 10명 중 4명(44.0%)은 ‘같이 운동하는 사람’으로부터 안전 수칙을 알게 되었다고 응답함.
- 부상 경험자 10명 중 6명 이상(68.7%: 안전 최우선 24.1%+어느 정도 안전 우선 44.6%)은 운동을 할 때 ‘안전 수칙 준수’를 우선시함.
- 세부적으로는 ‘준비 운동을 실시한다’는 응답이 55.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사전에 위험지역을 확인한다’(39.7%), ‘활동 시 보호장구를 착용한다’(39.1%) 등의 순으로 조사됨(5점 척도 중 [4]그렇다, [5]매우 그렇다의 합산비율 기준).

- 시설물 안전여부 미확인, 안전시설 미확인, 위험지역 미확인 이유 모두 ‘확인 방법을 모른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다음으로 세부 순위에는 소폭 차이가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확인하기 귀찮아서’와 ‘확인이 중요하지 않아서’의 이유로 인해 확인을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됨.
- 보호장구를 구매하기 위한 지출의향 및 지출수준에 대해서는 단 1.7%만이 지출의향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1인 평균 연간 지출의향(또는 현재 지출금액)은 약 20만원 선임.



◎ 대처 및 예방

- 등산을 하던 중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시 대처방법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대처법 18.7%(매우 잘 앎 1.1%+대체로 아는 편 17.6%), 예방법 20.7%(매우 잘 앎 1.0%+대체로 아는 편 19.7%)임.
- 부상 경험자의 32.2%(전혀 모름 1.9%+잘 모르는 편 30.3%)가 등산을 하던 중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시 대처방법을 ‘미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예방법 역시 ‘미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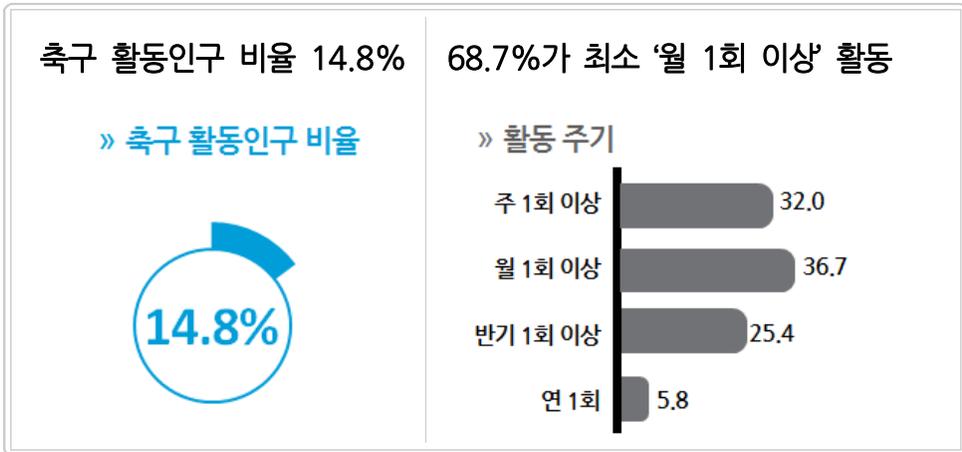
스포츠 안전사고 실태조사 -종합편

지' 비율이 28.1%(전혀 모름 1.5%+잘 모르는 편 26.7%)에 달함.

- 응급처치 요령 인지도는 '심폐소생술 실시요령'(31.4%), '저체온증 발생 시 대처요령'(27.2%), '골절 및 염좌 발생 시 대처요령'(26.3%) 순임(5점 척도 중 [4]어느 정도 알고 있음, [5]매우 잘 알고 있음의 합산비율 기준)
- 안전사고 응급처치 요령 습득 경로는 'TV'가 39.2%, '인터넷'이 38.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스포츠 전문 지도자/숙련자'(17.0%), '책자'(16.8%), '응급처치 전문기관'(13.0%) 등의 순임.
- 스포츠 안전사고에 대비한 '교육을 경험'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29.8%이며, 스포츠 안전사고 대비 교육을 받은 기관은 '국가 및 공공기관'(31.7%), '동호회/팀'(30.1%), '대학교의 정규 강좌'(22.2%) 등의 순임.
- 스포츠 안전사고에 대비 교육을 받지 않은 이유는 '스포츠활동 중 부상을 대비한 안전교육이 있는지 몰라서'(41.4%), '교육을 받고 싶었으나 어느 기관에서 교육하는지 몰라서'(31.6%), '교육을 필요성을 못 느껴서'(26.5%) 등의 순임.
- '스포츠 안전사고에 대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74.1%(매우 필요 18.4%+필요 55.7%)로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 3.9%(전혀 불필요 0.8%+불필요 3.1%)에 비해 현저히 높음.
- '일반 상해보험 및 공제 가입률'이 43.6%, '스포츠 활동 전용 보험 및 공제 가입률'은 2.2%에 불과하며 '둘 다 미가입' 상태인 응답자 비율도 40.0%에 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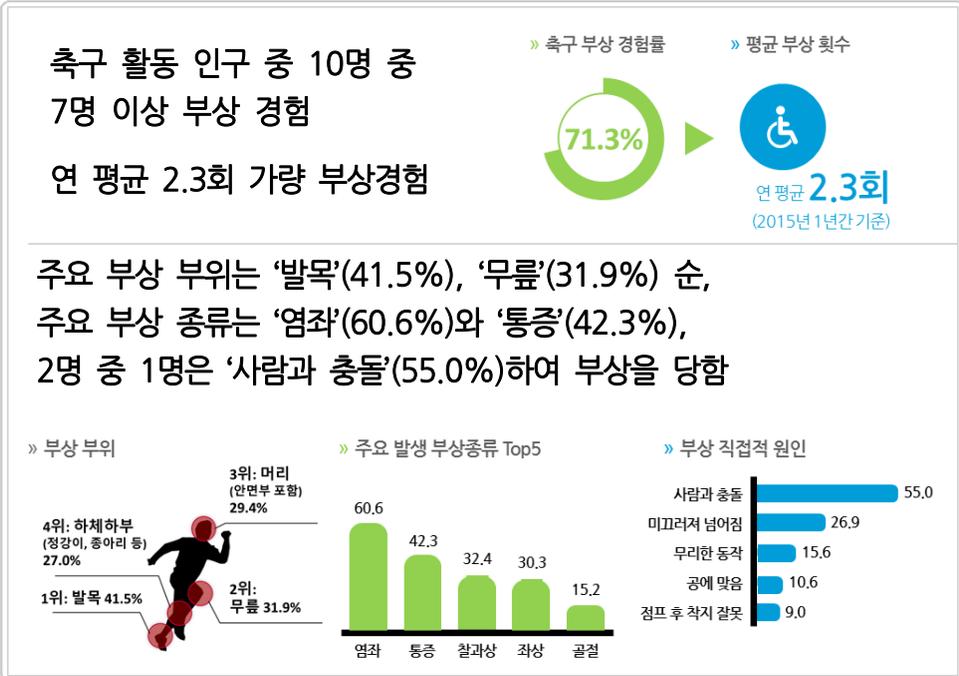
2. 축구

1 생활스포츠 참여 실태



- 최근 1년간 스포츠활동의 일환으로 축구를 경험한 인구 비율은 14.8%임.
- 전체적으로 10명 중 약 7명가량(68.7%: 주 1회 이상 32.0%+월 1회 이상 36.7%)은 최소 '월 1회 이상' 축구를 즐기고 있으며, 1회 평균 활동시간은 99.37분임.
- 일몰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간대에서 축구를 즐기고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오후' (15-18시 이전, 28.1%) 시간대와 '저녁'(18-21시 이전, 19.8%) 시간대에 주로 즐기고 있음.
- 축구 인구 10명 중 8명가량(80.4%)은 '운동장'에서 축구를 즐기고 있음.

2 부상 발생 현황



- 축구 활동인구 전체의 3분의 2 이상인 71.3%의 응답자가 심한 부상부터 경미한 부상까지 당한 경험이 있음.
- 축구 부상 경험은 자주 활동(주 1회 이상 45.6%, 월 1회(월 2-3회 포함) 이상 37.9%)하는 사람들일수록, 1회 참여 시 약 85분가량으로 1 게임을 온전히 소화하는 사람들에게서 주로 일어나고 있음.
- 종목 부상 경험자 10명 중 6명 이상(64.5%)은 본인의 축구 능숙도를 '초급' 정도로 인식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활동 경력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축구를 통해 발생하는 부상은 주로 하반신 전반(하체 상부, 무릎, 하체하부, 발목, 발)에 걸쳐 일어나고 있으며 가장 흔한 부상 유형은 '염좌'(60.6%), '통증'(42.3%), '찰과상'(32.4%), '좌상'(30.3%) 등의 순임.
- 여러 부위와 종류를 종합한, 가장 심각했던 부상 유형은 '발목 염좌'(20.5%)임.
 - 전문체육 지도자 조사 및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자료 분석 결과 전문적으로 활동하는 선수(학교 운동부 포함)들의 경우 주로 발생하는 부상 부위 및 종류, 이를 종합한 부상 유형 모두 생활체육인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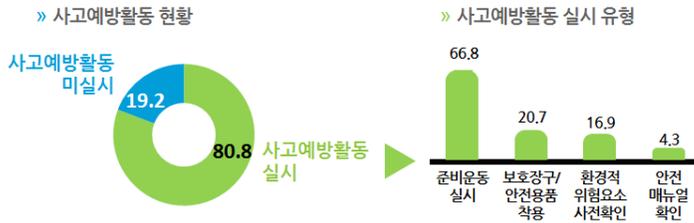
부록1 - 종목별 주요결과 요약

- 부상의 직접적 원인으로는 ‘사람과 충돌’이 55.0%로 가장 높게 나타나 축구를 통해 부상을 입는 사람 2명 중 1명은 시합이나 훈련 중 다른 플레이어와의 충돌 때문에 부상을 입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연 평균 약 2.3회 가량의 부상을 입고 있음.
- 축구의 주 활동 시간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고루 분포되어 있으나 부상 발생은 ‘오전’(09-12시 이전) 시간대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여 주 활동 시간대와 다소 다른 패턴을 나타내고 있음.
 - 고위험 음주군에 해당하는 집단의 ‘오전’(09-12시 이전) 시간대 부상 발생 비율(36.7%)이 높게 나타났으며 저위험 음주군(31.1%), 비음주군(26.3%) 순으로 해당 시간대 부상 발생률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임.

3 부상 발생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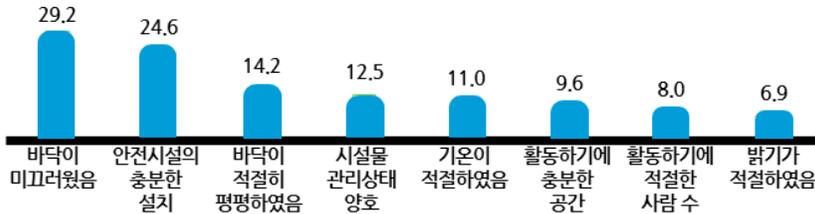
전체적으로 부상경험자들의 사고예방활동은 미흡

부상경험자의 19.2%는 부상 전 아무런 사고예방활동을 실시하지 않음
 실시한 응답자 중에서도 ‘준비운동’(66.8%)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20% 내외의 실시율



여러 환경적 요인 중 가장 주요한 문제는 ‘미끄러운 바닥’(29.2%)과 ‘충분치 않은 안전시설’(24.6%)

» 부상 장소 환경적 요인(Bottom2: 매우 부정평가+부정평가 합산)



※ 5점 척도로 응답된 결과 중 [1] 매우 부정평가와 [2] 부정평가의 합산 비율을 제시함
 ※ ‘미끄러운 바닥’은 역척도 문항이므로 Bottom2는 [4]부정평가와 [5]매우 부정평가의 합산 비율임

◎ 부상발생 이전 상황 : 예방활동 측면

- 대부분의 사고예방활동 실시비율에서 가장 높았던 ‘준비운동’(66.8%)을 제외하면 모두 20% 내외 정도로 나타나 전반적으로는 ‘준비운동’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고예방활동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특히 전문/숙련자가 배석함에 따라 ‘보호장구 및 안전용품 착용’, ‘환경적 위험요소 확인’, ‘준비운동 실시’ 등 사고예방활동을 보다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젊은 층의 사고예방활동이 저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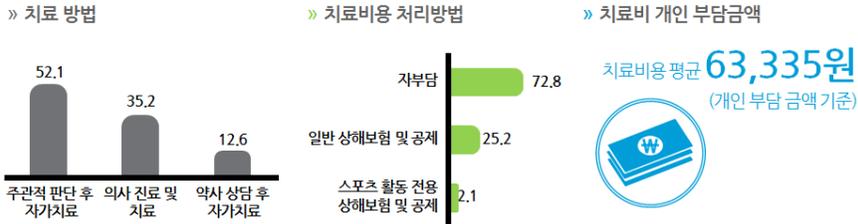
- 장비 착용을 하는 경우, 10명 중 6명 이상(63.3%)은 부상 당시 ‘정강이 보호대’를 착용, 착용한 장비의 전반적 상태는 ‘양호’(39.5%)했던 것으로 나타남.
- 환경적 위험요소 확인자의 20.5%만이 ‘정실히 확인’할 뿐 나머지는 불성실하거나 형식적 확인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준비운동 실시자는 ‘유연성’(53.3%), ‘근력’(43.0%), ‘심폐지구력’(38.1%) 등 다양한 준비운동을 실시(5점 척도 중 [4]그렇다, [5]매우 그렇다의 합산비율 기준)하고 있으며 전문/숙련자가 배석할수록, 그리고 교육을 실시할수록 준비운동 역시 더 충실히 수행하는 것으로 조사됨.
- 확인한 안전매뉴얼의 경우 전반적으로 ‘부상 방지에 도움이 되었다’(43.2%)고 평가됨.
- 부상 전 신체상태가 ‘양호’했다는 응답이 33.6%로, ‘비양호’했다는 응답(9.3%)에 비해 3배 이상 높았으나 종합적으로는 10명 중 3명만이 신체상태가 양호한 상태에서 운동에 참여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음.

◎ 부상 당시 상황 : 환경적 요인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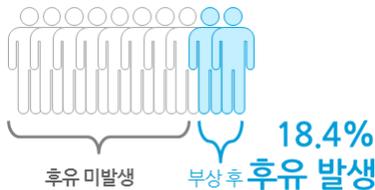
- ‘인조잔디 운동장’에서 부상을 당한 응답자가 48.3%로 가장 높고 ‘잔디 없는 운동장’에서 부상을 당한 응답자 역시 43.5%로 높게 나타나 이들 두 장소에서 대부분의 부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부상 장소 운영 주체는 ‘공공’시설이 45.6%, ‘민간’시설이 31.6%임.
- 부상 장소에 안전 안내문구·책자 비치여부에 대해, ‘안내문구 및 책자가 비치되었다’는 응답은 12.1%이며 비치된 경우 56.8%는 이를 확인한 것으로 나타남.
- 부상 장소의 환경적 요인을 종합한 결과, ‘바닥이 미끄러웠음’이라는 평가가 29.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안전시설의 충분한 설치’에 대한 부정적 평가(24.6%), ‘바닥이 적절히 평평하였음’에 대한 부정적 평가(14.2%), ‘시설물 관리상태 양호’에 대한 부정적 평가(12.5%) 등의 순으로 조사됨(5점 척도 중 [1]매우 부정적, [2]부정적의 합산비율 기준. 단, ‘미끄러운 바닥’은 역척도 문항이므로 Bottom2는 [4]부정평가와 [5]매우 부정평가의 합산 비율).
 - 천연잔디 운동장(37.3%), 인조잔디 운동장(31.5%)의 경우 ‘바닥이 미끄러웠음’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반면, 잔디 없는 운동장의 경우 ‘안전시설의 충분한 설치’에 대한 부정적 평가(36.5%), ‘바닥이 적절히 평평하였음’에 대한 부정적 평가(22.2%)가 높음.
- 부상 경험자 10명 중 약 5명은 부상 당시 ‘지도자 자격증이 있는 전문 지도자’(4.8%)나 ‘해당 종목을 잘 아는 숙련자’(47.0%)가 배석 중이었고, 지도자가 배석한 경우 대부분(80.0%)은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 관련 교육을 실시한 반면 숙련자는 배석한 10명 중 2명 정도(22.8%)만이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였음.

4 부상 후 대처 및 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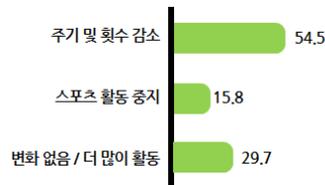
발생된 부상 절반가량(52.1%)은 ‘주관적 판단 후 자가치료’
 10명 중 7명 이상(72.8%)은 치료비용을 ‘자부담 처리’
 개인 부담금액 기준, 1인 1건당 치료 소요비용은 평균 63,335원



부상 경험자 10명 중
 약 2명가량(18.4%)이
 부상으로 인해 후유증 발생



10명 중 7명 정도는 부상 이후
 스포츠 활동을 즐기거나(54.5%)
 중지(15.8%)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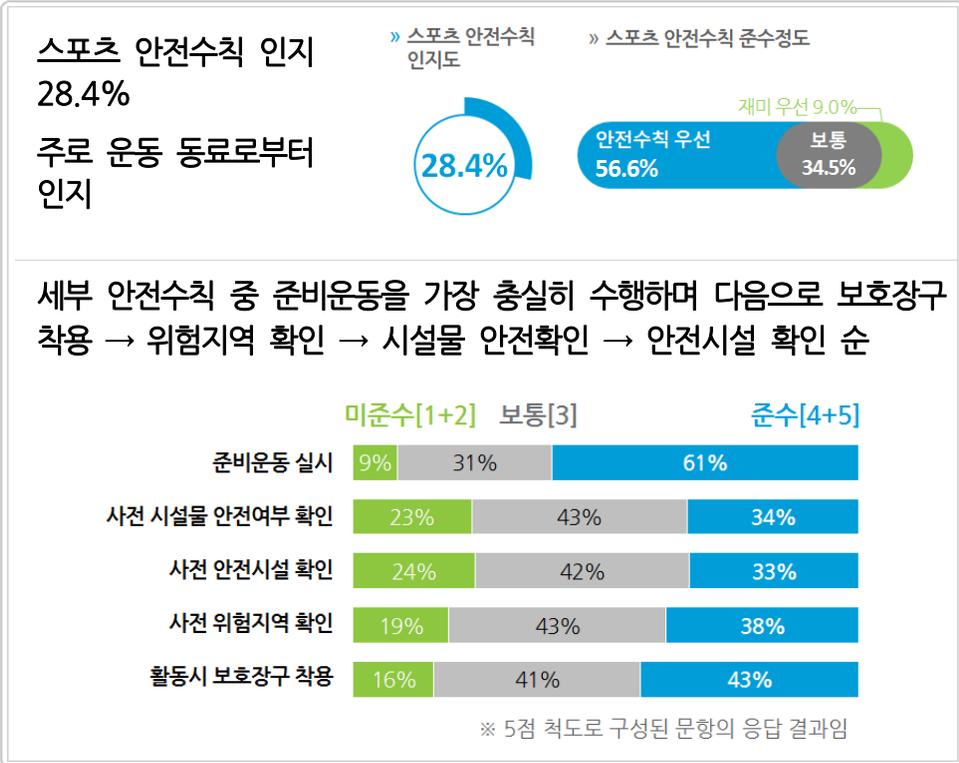


- 염좌, 좌상, 통증, 염증의 경우 ‘냉찜질’을, 골절의 경우 ‘압박’을, 찰과상과 출혈의 경우 ‘소독’을 실시하는 등 전반적으로 부상 종류에 적절한 응급 대처를 실시함.
- 발생한 부상은 ‘주관적 판단 후 자가치료’한 비율이 52.1%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의사 진료 및 치료’(35.2%), ‘약사 상담 후 자가치료’(12.6%)의 순이며, 부상 경험자 10명 중 7명 이상(72.8%)은 치료비용을 ‘자부담’하고, 전체적인 치료비용 개인 부담 금액은 평균 63,335원임.

부록1 - 종목별 주요결과 요약

- 골절, 탈구, 파열 등의 부상 종류에서 치료비용 개인부담금액이 상대적으로 높고 부상 가료기간이 길수록 치료비용의 개인부담금액 역시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 가료에 필요한 기간은 '1-2주'(32.7%)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3-4주'(23.6%)이며 '1주 미만'도 21.2%로 비교적 높음.
- 부상 경험자 10명 중 약 2명가량(18.4%)이 부상으로 인해 후유증이 발생함.
 - 골절, 탈구, 파열 부상에서 후유발생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되었으며 이로 인한 후유증의 심각도 역시 타 종류 대비 높음.
- 부상 경험자 10명 중 5명 이상(54.5%)은 부상 후 활동 주기 및 횟수가 감소하였고, 이의 주된 이유는 '신체적 불편함'(51.7%)때문이며 다음으로 '심리적 두려움'(27.4%), '가족 또는 지인의 반대'(16.6%)의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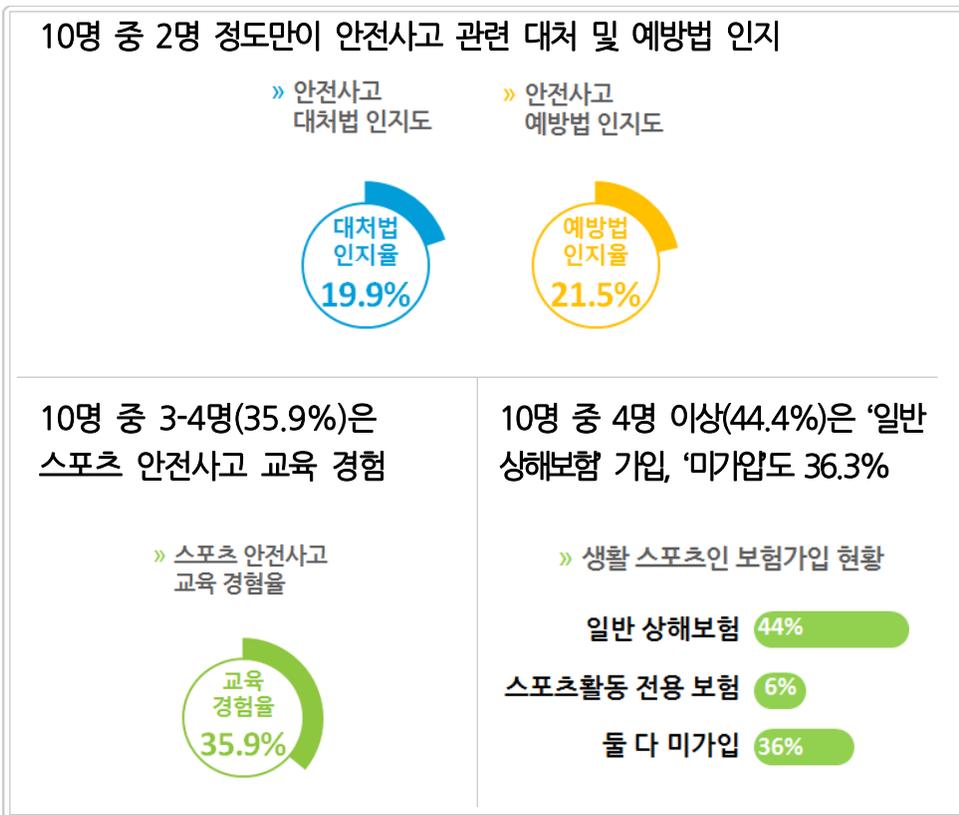
5 스포츠 안전의식



◎ 안전 인식

- 축구 안전수칙을 ‘인지’하고 있다는 응답은 28.4%(매우 잘 알고 있음 1.8%+대체로 아는 편 26.7%)이며 10명 중 5명(53.5%)은 ‘같이 운동하는 사람’으로부터 안전 수칙을 알게 되었다고 응답함.
 - 전문 체육지도자의 84.6%가 안전수칙을 ‘인지’(매우 잘 알고 있음 23.1%+대체로 아는 편 61.5%)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13명 중 11명(84.6%)은 ‘교육’을 통해 안전수칙을 인지하고 있음.
- 부상 경험자 10명 중 5명 이상(56.6%: 안전 최우선 15.7%+어느 정도 안전 우선 40.9%)은 운동을 할 때 ‘안전 수칙 준수’를 우선시 함.
- 세부적으로는 ‘준비 운동을 실시한다’는 응답이 60.6%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활동시 보호장구 착용’(43.1%), ‘사전에 위험지역 확인’(38.1%) 등의 순으로 조사됨 (5점 척도 중 [4]그렇다, [5]매우 그렇다의 합산비율 기준).

- 시설물 안전여부 미확인, 안전시설 미확인, 위험지역 미확인 이유 모두 '확인하기 귀찮아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세부 순위에는 소폭 차이가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확인이 중요하지 않은 스포츠'와 '확인 방법을 몰라서'의 이유로 인해 확인을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됨.
- 보호장구를 구매하기 위한 지출의향 및 지출수준에 대해서는 단지 1.6%만이 지출의향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1인 평균 연간 지출의향(또는 현재 지출금액)은 약 25만원 선임.



◎ 대처 및 예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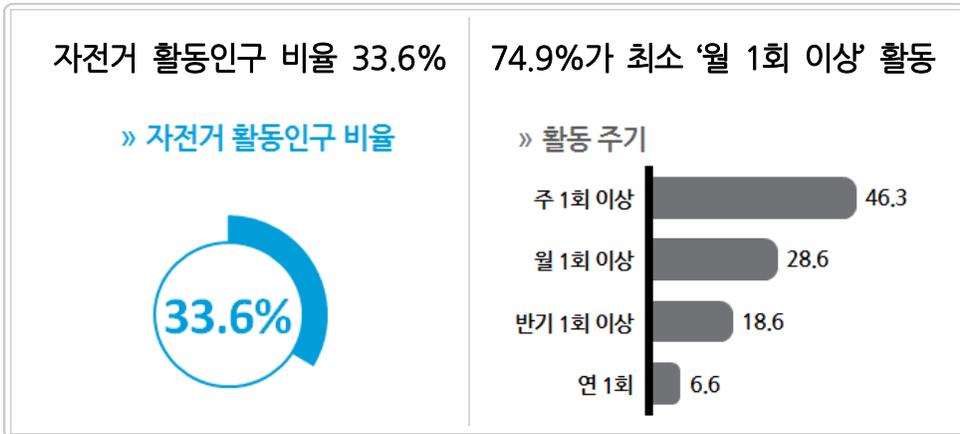
- 축구를 하던 중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시 대처방법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대처법 19.9%(매우 잘 앎 1.2%+대체로 아는 편 18.7%), 예방법 21.5%(매우 잘 앎 1.1%+대체로 아는 편 20.4%)임.

스포츠 안전사고 실태조사 -종합편

- 반면 32.3%(전혀 모름 2.3%+잘 모르는 편 30.0%)는 축구를 하던 중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시 대처방법을 ‘미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예방법 역시 ‘미인지’ 비율이 30.1%(전혀 모름 2.4%+잘 모르는 편 27.7%)에 달함.
- 응급처치 요령 인지도는 ‘심폐소생술 실시요령’(42.0%), ‘저체온증 발생 시 대처요령’(29.8%), ‘골절 및 염좌 발생 시 대처요령’(28.7%) 순임(5점 척도 중 [4]어느 정도 알고 있음, [5]매우 잘 알고 있음의 합산비율 기준).
- 전문 체육지도자 조사 결과 절대적인 인지율은 생활스포츠인 대비 매우 높은 수준이며 생활스포츠인이 주로 알고 있는 요령 외에 근육경련 시 대처요령에 대한 인지도 또한 높게 조사되어 차이를 보임.
- 안전사고 응급처치 요령 습득 경로는 ‘인터넷’이 35.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TV’(25.7%), ‘스포츠 전문지도자/숙련자’(23.0%), ‘응급처치 전문기관’(21.6%) 등의 순임.
- 스포츠 안전사고에 대비한 ‘교육을 경험’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35.9%로 조사되었으며, 스포츠 안전사고 대비 교육을 받은 기관은 ‘국가 및 공공기관’(35.2%), ‘대학교의 정규 강좌’(28.8%), ‘동호회/팀’(27.7%) 등의 순임.
- 스포츠 안전사고에 대비 교육을 받지 않은 이유는 ‘스포츠활동 중 부상을 대비한 안전교육이 있는지 몰라서’(42.2%), ‘교육을 받고 싶었으나 어느 기관에서 교육하는지 몰라서’(33.0%), ‘교육을 필요성을 못 느껴서’(24.5%) 등의 순임.
- 스포츠 안전사고에 대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65.6%(매우 필요 12.5%+필요 53.1%)로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 6.0%(전혀 불필요 1.0%+불필요 5.0%)에 비해 현저히 높음.
- ‘일반 상해보험 및 공제’ 가입률이 44.4%, ‘스포츠 활동 전용 보험 및 공제’ 가입률은 5.7%에 불과하며 ‘둘 다 미가입’ 상태인 응답자 비율도 36.3%에 달함.
- 전문 체육지도자 조사 결과 응답한 지도자 13명(팀, 단체) 중 8명은 잘 모르겠다고 응답하여 축구 전문 체육지도자의 경우 팀에서 가입하는 공제 및 보험에 대해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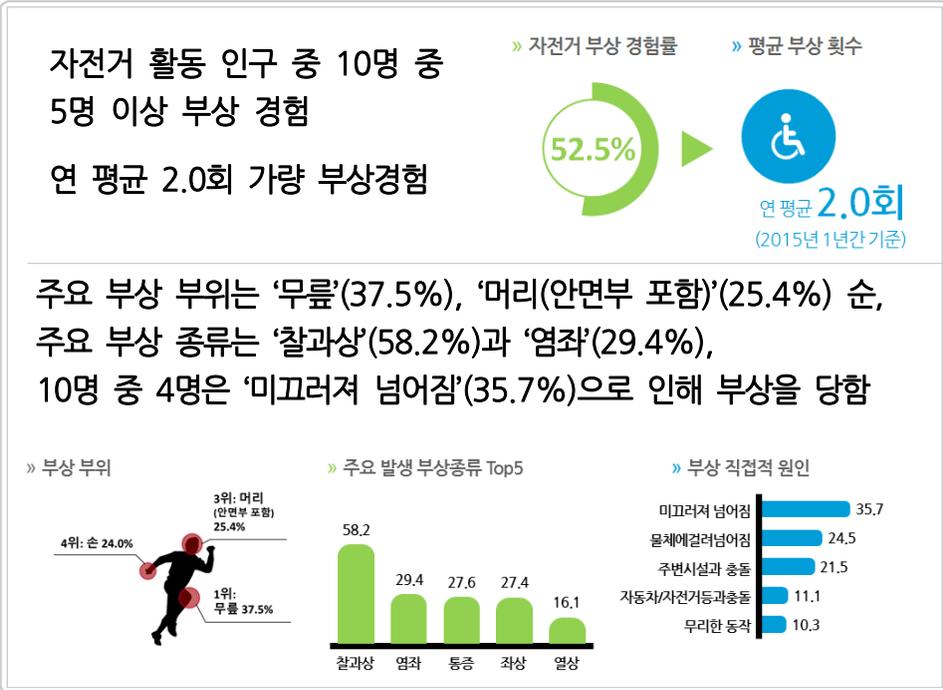
3. 자전거

1 생활스포츠 참여 실태



- 최근 1년간 스포츠활동의 일환으로 자전거를 경험한 인구 비율은 33.6%임.
- 전체적으로 10명 중 약 7명 이상(74.8%: 주 1회 이상 46.3%+월 1회 이상 28.6%)은 최소 '월 1회 이상' 자전거를 즐기고 있으며, 1회 평균 활동시간은 84.75분임.
- 대부분의 시간대에서 자전거를 즐기고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오후 시간대'(15시-18시 이전, 24.7%)와 '저녁 시간대'(18시-21시 이전, 22.7%)에 주로 즐기고 있음.
- 자전거 인구 10명 중 7명 이상(77.3%)은 산, 도로, 공원 등 '전용시설 외 장소'에서 자전거를 즐기고 있음.

2 부상 발생 현황



- 자전거 활동인구 전체의 2분의 1 이상인 52.5%의 응답자가 심한 부상부터 경미한 부상까지 당한 경험이 있음.
- 자전거 부상 경험은 자주 활동(주 1회 이상 61.3%, 월 1회(월 2-3회 포함) 이상 27.5%)하는 사람들일수록, 1회 참여 시 약 89분가량 활동하는 사람들에게서 주로 일어나고 있음.
- 종목 부상 경험자 10명 중 6명 이상(61.4%)은 본인의 자전거 능숙도를 '초급' 정도로 인식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활동 경력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자전거를 통해 발생하는 부상은 주로 '무릎'(37.5%)과 '머리(안면부 포함)'(25.4%), '손'(24.0%) 등 신체 전반에 걸쳐 일어나고 있으며 가장 흔한 부상 유형은 '찰과상'(58.2%), '염좌'(29.4%), '통증'(27.6%), '좌상'(27.4%) 등의 순임.
- 자전거 부상 경험자들이 겪은 여러 부위와 종류를 종합한, 가장 심각했던 부상 유형은 '무릎 찰과상'(10.5%)임.
 - 전문체육 지도자 조사 자료 분석 결과 전문적으로 활동하는 선수들의 경우 주로 발생하

는 부상 부위 및 종류, 이를 종합한 부상유형 모두 생활체육인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음.

- 부상의 직접적 원인으로는 ‘미끄러져 넘어짐’이 35.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물체에 걸려 넘어짐’(24.5%), ‘주변시설과 충돌’(21.5%), ‘자동차/자전거 등과 충돌’(11.1%)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는데 주로 길에 있는 장애물과 충돌하거나 걸려 넘어지는 부상을 입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연 평균 약 2.0회 가량의 부상을 입고 있음.
- 자전거의 주 활동 시간대는 ‘오후 시간대’에서 ‘저녁 시간대’(15시-18시 이전 24.7%+18시-21시 이전 22.7%)와 ‘오전 시간대’(09시-12시 이전, 18.3%)인 것으로 나타남.
 - 부상 발생 시간대는 주 활동 시간대에 수렴하는 결과를 보여 활동 인구가 집중되는 시간대에 부상도 많이 발생하는 정상적인 패턴을 보이고 있음.

3 부상 발생 환경

전체적으로 부상경험자들의 사고예방활동은 미흡

부상경험자의 35.1%는 부상 전 아무런 사고예방활동을 실시하지 않음
 실시한 응답자 중에서도 ‘보호장구 및 안전용품 착용’(33.9%)과 ‘준비운동 실시’(31.7%)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20% 내외의 낮은 실시율

» 사고예방활동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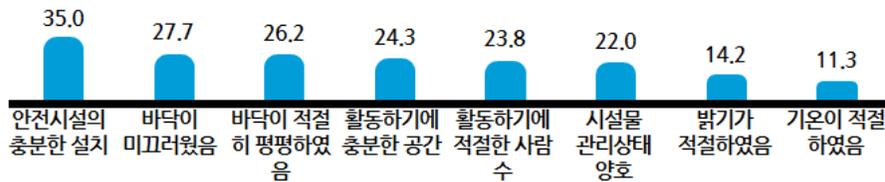
» 사고예방활동 실시 유형



여러 환경적 요인 중 가장 주요한 문제는

‘충분치 않은 안전시설’(35.0%)과 ‘미끄러운 바닥’(27.7%)

» 부상 장소 환경적 요인(Bottom2: 매우 부정평가+부정평가 합산)



※ 5점 척도로 응답된 결과 중 [1] 매우 부정평가와 [2] 부정평가의 합산 비율을 제시함

※ ‘미끄러운 바닥’은 역척도 문항이므로 Bottom2는 [4]부정평가와 [5]매우 부정평가의 합산 비율임

◎ 부상발생 이전 상황 : 예방활동 측면

- 사고예방활동 실시비율이 높았던 활동은 ‘보호장구 및 안전용품 착용’(33.9%)과 ‘준비운동 실시’(31.7%)이며, 다음으로는 ‘환경적 위험요소 사전확인’(23.1%), ‘안전 매뉴얼 확인’(6.2%)으로 전반적으로는 대부분의 사고예방활동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특히 전문/숙련자가 배석함에 따라 ‘환경적 위험요소 사전확인’, ‘준비운동 실시’, ‘안

전 매뉴얼 확인’ 등 사고예방활동을 보다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고연령층의 사고예방활동이 저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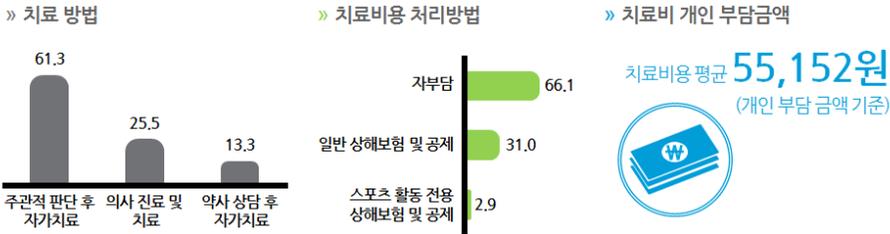
- 장비 착용을 하는 경우, 10명 중 7명 이상(76.9%)은 부상 당시 ‘헬멧’을 착용, 착용한 장비의 전반적 상태는 양호(50.5%)했던 것으로 나타남.
 - 환경적 위험요소 확인자의 29.4%만이 성실히 확인할 뿐 나머지는 불성실하거나 형식적 확인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준비운동 실시자는 유연성(52.5%), 근력(43.6%), 심폐지구력(42.9%) 등 다양한 준비운동을 실시(5점 척도 중 [4]그렇다, [5]매우 그렇다의 합산비율 기준)하고 있음.
 - 확인한 안전매뉴얼의 경우 전반적으로 ‘부상 방지에 도움이 되었다’(38.2%)고 평가됨.
- 부상 전 신체상태가 ‘양호’했다는 응답이 40.4%로, ‘비양호’했다는 응답(9.9%)에 비해 높았으나 종합적으로는 10명 중 4명만이 신체상태가 양호한 상태에서 운동에 참여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음.

◎ 부상 당시 상황 : 환경적 요인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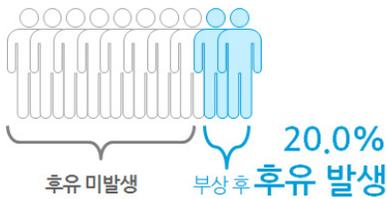
- ‘자전거도로’에서 부상을 당한 응답자가 37.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부상 장소 운영 주체는 ‘공공’시설이 49.4%, ‘민간’시설이 12.2%임.
- 부상 장소에 안전 안내문구·책자 비치여부에 대해, ‘안내문구 및 책자가 비치되었다’는 응답은 13.4%이며 비치된 경우 69.4%는 이를 확인한 것으로 나타남.
- 부상 장소의 환경적 요인을 종합한 결과, ‘안전시설의 충분한 설치에’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35.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미끄러운 바닥’(27.7%) 등의 순으로 조사됨 (5점 척도 중 [1]매우 부정적, [2]부정적의 합산비율 기준. 단, ‘미끄러운 바닥’은 역척도 문항이므로 Bottom2는 [4]부정평가와 [5]매우 부정평가의 합산 비율).
 - 인도(50.0%)와 차도(47.5%), 산(44.3%)의 경우 ‘안전시설의 충분한 설치’의 부정적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음. 반면, 자전거도로(28.7%)의 경우 ‘바닥이 미끄러웠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음.
- 부상 경험자 10명 중 약 5명은 부상 당시 ‘지도자 자격증이 있는 전문 지도자’(13.2%)나 ‘해당 종목을 잘 아는 숙련자’(41.2%)가 배석 중이었고 이 중, 지도자가 배석한 경우 대부분(93.1%)은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 관련 교육을 실시한 반면 숙련자는 배석한 10명 중 4명 정도(40.3%)만이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였음.

4 부상 후 대처 및 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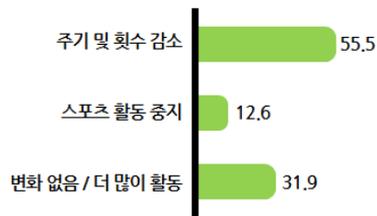
발생된 부상 절반 이상(61.3%)은 '주관적 판단 후 자가치료'
 10명 중 6명 이상(66.1%)은 치료비용을 '자부담 처리'
 개인 부담금액 기준, 1인 1건당 치료 소요비용은 평균 55,152원



부상 경험자 10명 중
 약 2명가량(20.0%)이
 부상으로 인해 후유증 발생



10명 중 6명 정도는 부상 이후
 스포츠 활동을 줄이거나(55.5%)
 중지(12.6%)함



- 염좌, 좌상의 경우 '냉찜질'을, 골절의 경우 '부목으로 고정'을, 열상과 출혈의 경우 '소독' 및 '지혈'을 실시하는 등 전반적으로 부상 종류에 적절한 응급 대처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발생한 부상은 '주관적 판단 후 자가치료'한 비율이 61.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의사 진료 및 치료'(25.5%), '약사 상담 후 자가치료'(13.3%)의 순이며, 부상 경험자 10명 중 6명 이상(66.1%)은 치료 비용을 자부담하고, 전체적인 치료비용 개인 부담 금액은 평균 55,152원임.
 - 탈구, 골절, 파열 등의 부상 종류에서 치료비용 개인부담금액이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되었고, 찰과상이 가장 낮음.

부록1 - 종목별 주요결과 요약

- 가료에 필요한 기간은 '1-2주'(30.5%)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1주 미만'(26.3%)이며 '경미-가료기간 없음'도 21.4%로 비교적 높음.
- 부상 경험자 10명 중 약 2명가량(20.0%)이 부상으로 인해 후유증이 발생함.
 - '절단', '탈구', '골절' 부상에서 후유발생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되었으며 이로 인한 후유증의 심각도 역시 타 종류 대비 높음.
- 부상 경험자 10명 중 5명 이상(55.5%)은 부상 후 활동 주기 및 횟수가 감소하였고, 이의 주된 이유는 '신체적 불편함'(38.8%)때문이며 다음으로 '심리적 두려움'(38.1%), '가족 또는 지인의 반대'(17.8%)의 순임.

5 스포츠 안전의식

스포츠 안전수칙 인지
2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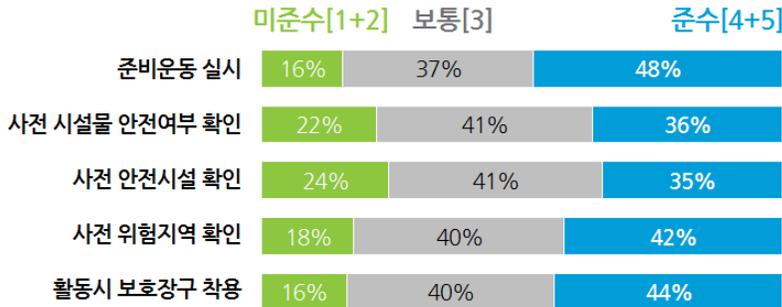
주로 운동 동료로부터
인지

» 스포츠 안전수칙
인지도

» 스포츠 안전수칙 준수정도



세부 안전수칙 중 준비운동을 가장 충실히 수행하며 다음으로 보호장구 착용 → 위험지역 확인 → 시설물 안전확인 → 안전시설 확인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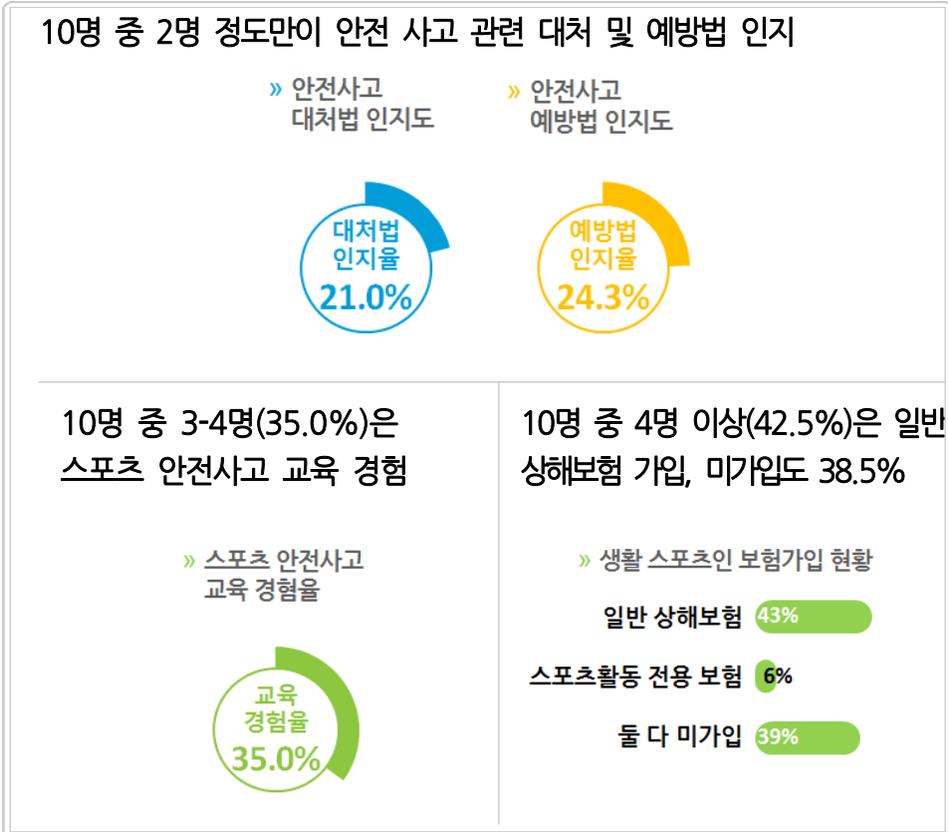


※ 5점 척도로 구성된 문항의 응답 결과임

◎ 안전 인식

- 자전거 안전수칙을 ‘인지’하고 있다는 응답은 27.4%(매우 잘 알고 있음 2.0%+대체로 아는 편 25.4%)이며 10명 중 4명(36.0%)은 ‘같이 운동하는 사람’으로부터 안전수칙을 알게 되었다고 응답함.
 - 전문 체육지도자는 응답자 전원이 안전수칙을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13명 중 10명(76.9%)은 ‘교육’을 통해 안전수칙을 인지함.
- 부상 경험자 10명 중 6명 이상(61.4%: 안전 최우선 22.1%+어느 정도 안전 우선 39.3%)은 운동을 할 때 ‘안전 수칙 준수’를 우선시함.
- 세부적으로는 ‘준비 운동을 실시한다’는 응답이 47.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활동시 보호장구 착용’(43.7%), ‘사전에 위험지역 확인’(41.9%) 등의 순으로 조사됨(5점 척도 중 [4]그렇다, [5]매우 그렇다의 합산비율 기준).

- 시설물 안전여부 미확인, 위험지역 미확인 이유 모두 ‘확인하기 귀찮아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안전시설 미확인 이유는 ‘확인 방법을 몰라서’가 가장 높게 조사됨.
- 보호장구를 구매하기 위한 지출의향 및 지출수준에 대해서는 단지 2.4%만이 지출의향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1인 평균 연간 지출의향(또는 현재 지출금액)은 약 28만원 선임.



◎ 대처 및 예방

- 자전거를 하던 중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시 대처방법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대처법 21.0%(매우 잘 앎 1.2%+대체로 아는 편 19.7%), 예방법 24.3%(매우 잘 앎 1.8%+대체로 아는 편 22.5%)임.
- 부상 경험자의 30.0%(전혀 모름 1.5%+잘 모르는 편 28.5%)가 자전거를 하던 중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시 대처방법을 ‘미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예방법 역시 ‘미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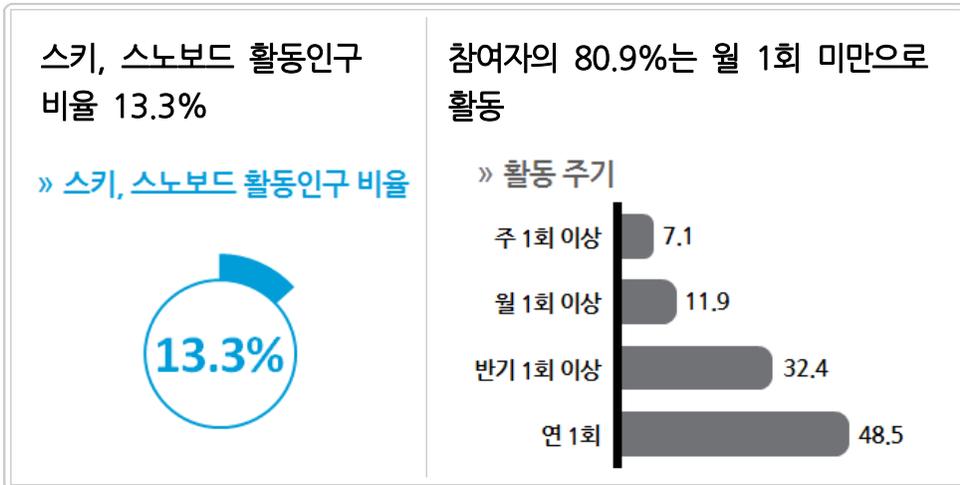
스포츠 안전사고 실태조사 -종합편

지' 비율이 24.9%(전혀 모름 1.4%+잘 모르는 편 23.6%)에 달함.

- 응급처치 요령 인지도는 '심폐소생술 실시요령'(33.3%), '저체온증 발생 시 대처요령'(29.9%), '골절 및 염좌 발생 시 대처요령'(29.3%) 순(5점 척도 중 [4]어느 정도 알고 있음, [5]매우 잘 알고 있음의 합산비율 기준).
 - 전문 체육지도자 조사 결과 절대적인 인지율은 생활스포츠인 대비 매우 높은 수준임.
- 안전사고 응급처치 요령 습득 경로는 '인터넷'이 38.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TV'(33.0%), '스포츠 전문지도자/숙련자'(20.6%), '응급처치 전문기관'(17.4%) 등의 순임.
- 스포츠 안전사고에 대비한 '교육을 경험'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35.0%로 조사되었으며, 스포츠 안전사고 대비 교육을 받은 기관은 '국가 및 공공기관'(35.6%), '동호회/팀'(27.2%), '대학 정규 강좌'(25.9%) 등의 순임.
- 스포츠 안전사고에 대비 교육을 받지 않은 이유는 '스포츠활동 중 부상을 대비한 안전교육이 있는지 몰라서'(40.6%), '교육을 받고 싶었으나 어느 기관에서 교육하는지 몰라서'(30.1%), '교육을 필요성을 못 느껴서'(28.7%) 등의 순임.
- 스포츠 안전사고에 대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65.5%(매우 필요 17.2%+필요 48.2%)로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 6.8%(전혀 불필요 0.7%+불필요 6.1%)에 비해 현저히 높게 나타남.
- 일반 상해보험 및 공제 가입률이 42.5%, 스포츠 활동 전용 보험 및 공제 가입률은 5.5%에 불과하며 둘 다 미가입 상태인 응답자 비율도 38.5%에 달함.
 - 전문 체육지도자 조사 결과 응답한 지도자 13명(팀, 단체) 중 12명은 '학교안전공제중앙회 공제 보험'에 대해 인지하고 있어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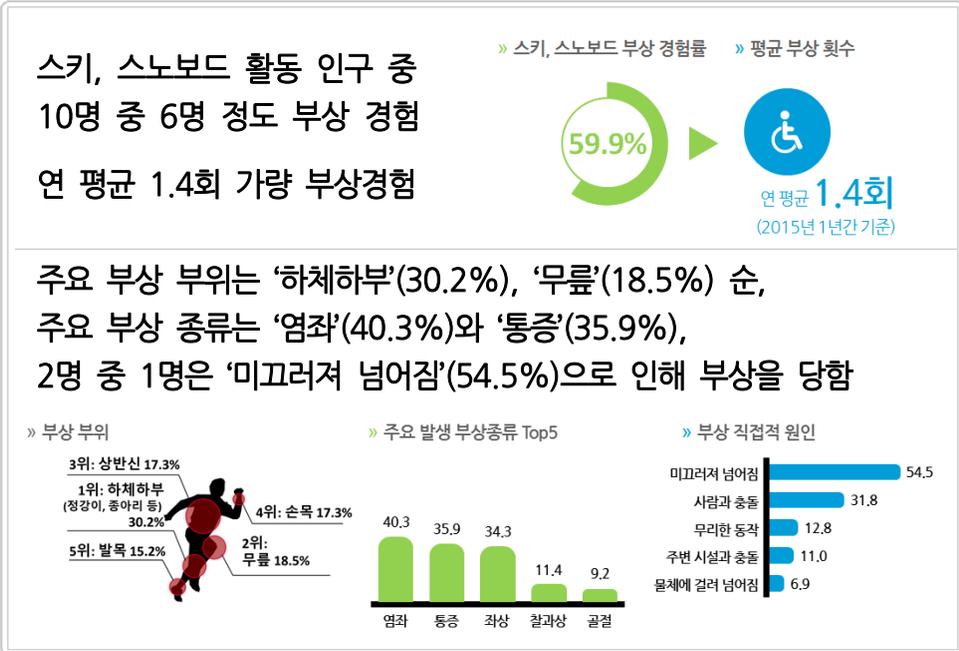
4. 스키/스노보드

1 생활스포츠 참여 실태



- 최근 1년간 스포츠활동의 일환으로 스키, 스노보드를 경험한 인구 비율은 13.3%임.
- 전체적으로 5명중 8명가량(80.9% : 반기 1회 이상 32.4%+연1회 48.5%)이 월 1회 미만으로 스키, 스노보드를 즐기고 있으며, 1회 평균 활동시간은 203.50분임.
- 대부분의 시간대에서 스키, 스노보드를 즐기고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오후’(15-18시 이전, 32.2%) 시간대에 주로 즐기고 있음.
- 스키, 스노보드 인구 10명 중 9명가량(90.8%)은 ‘전용 경기 시설’인 스키장에서 스키, 스노보드를 즐기고 있음.

2 부상 발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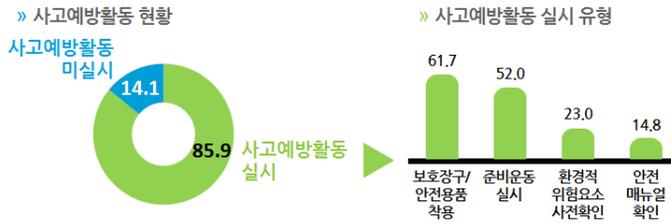
- 스키, 스노보드 활동인구 전체의 절반이 넘는 59.9%의 응답자가 심한 부상부터 경미한 부상까지 당한 경험이 있음.
- 스키, 스노보드 부상 경험은 1회 미만인 비정기로 활동하는 사람들(36.2%)이 가장 부상발생률이 높았고, 부상경험자들의 스키, 스노보드의 평균참여시간은 2시간 30분가량(154분)인 것으로 나타남.
- 부상 경험자 10명 중 6명 이상(62.1%)은 본인의 스키, 스노보드 능숙도를 '초급' 정도로 인식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활동 경력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스키, 스노보드를 통해 발생하는 부상은 주로 '하체상부'(30.2%)에서 일어나고, '무릎'(18.5%), '상반신'과 '손목'(각 17.3%) 등이 그 다음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가장 흔한 부상 유형은 '염좌'(40.3%), '통증'(35.9%), '좌상'(34.3%) 등의 순임.
- 스키, 스노보드 부상 경험자들이 겪은 여러 부위와 종류를 종합한, 가장 심각했던 부상 유형은 '발목 염좌'(9.5%)임.
 - '전문체육 지도자 조사' 분석 결과에서도 '발목 염좌'가 가장 높게 나타남.

- 부상의 직접적 원인으로는 ‘미끄러져 넘어짐’이 54.5%로 가장 높게 나타나 스키, 스노보드를 통해 부상을 입는 사람 2명 중 1명은 시합이나 훈련 중 미끄러져 넘어짐 때문에 부상을 입는 것을 알 수 있음.
- 연 평균 약 1.4회 가량의 부상을 입고 있음.
- 스키, 스노보드의 주 활동 시간대는 ‘오후’(15-18시 이전) 시간대가 32.2%로 가장 활동이 많고, 그 다음으로 ‘점심’(12-15시 이전, 22.3%) 시간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대비하여 부상 발생은 ‘오후’(15-18시 이전, 35.0%) 시간대에 가장 많은 점이 동일하고 그래프의 모양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아, 주요 운동 시간대와 부상 발생 시간대가 비슷함.

3 부상 발생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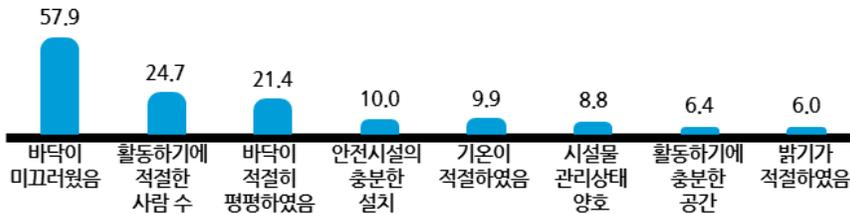
전체적으로 부상경험자들의 사고예방활동은 미흡

부상경험자의 14.1%는 부상 전 아무런 사고예방활동을 실시하지 않음
 실시한 응답자가 가장 많이 행하는 사고예방활동은 ‘보호장구/안전용품 착용’ (61.7%)이고, 그 다음은 ‘준비운동 실시’(52.0%)임



여러 환경적 요인 중 가장 주요한 문제는 ‘미끄러운 바닥’(57.9%)

» 부상 장소 환경적 요인(Bottom2: 매우 부정평가+부정평가 합산)



※ 5점 척도로 응답된 결과 중 [1] 매우 부정평가와 [2] 부정평가의 합산 비율을 제시함
 ※ ‘미끄러운 바닥’은 역척도 문항이므로 Bottom2는 [4]부정평가와 [5]매우 부정평가의 합산 비율임

◎ 부상발생 이전 상황 : 예방활동 측면

- 부상 당시의 운동 시작 전 사고예방을 위해 행했던 활동으로 가장 높은 행동은 ‘보호장구 및 안전용품 착용’(61.7%)인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준비운동 실시’(52.0%), ‘환경적 위험요소 사전확인’(23.0%)의 순으로 조사됨.
 - 특히 전문/숙련자가 교육을 실시함에 따라 모든 사고예방활동을 보다 활발하게 수행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해당 집단의 사고예방활동 미실시의 응답은 3.0%에 불과함.
 - 장비 착용을 하는 경우, 10명 중 6명 이상이 착용한 장비들은 ‘장갑’(84.4%), ‘헬멧’(63.6%), ‘무릎보호대’(60.0%)였고, 착용한 장비의 전반적 상태는 ‘양호’(42.7%)

했던 것으로 나타남.

- 환경적 위험요소 확인자의 10명중 3명 정도인 33.9%만이 ‘성실히 확인’할 뿐 나머지는 불성실하거나 형식적 확인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준비운동 실시자는 ‘유연성’(54.9%), ‘근력’(40.4%), ‘심폐지구력’(34.0%) 등 다양한 준비운동을 실시(5점 척도 중 [4]그렇다, [5]매우 그렇다의 합산비율 기준)하고 있으며 전문/숙련자가 배석할수록, 그리고 교육을 실시할수록 준비운동 역시 더 충실히 수행하는 것으로 조사됨.
- 확인한 안전매뉴얼의 경우 전반적으로 ‘부상 방지에 도움이 되었다’(44.4%)고 평가됨.
- 부상 전 신체상태가 ‘양호’했다는 응답이 43.3%로, ‘비양호’했다는 응답(6.4%)에 비해 6배 이상 높았으나 종합적으로는 10명 중 4명만이 신체상태가 양호한 상태에서 운동에 참여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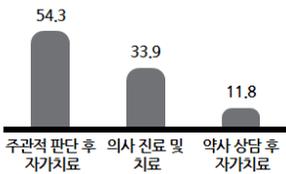
◎ 부상 당시 상황 : 환경적 요인 측면

- ‘슬로프(중급)’에서 부상을 당한 응답자가 55.3%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슬로프(초급)’이 24.1%, ‘슬로프(상급)’이 15.6%로 대부분의 부상이 슬로프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상 장소 운영 주체는 ‘민간’ 시설이 70.4%, ‘공공’ 시설이 7.4%임.
- 부상 장소에 안전 안내문구·책자 비치여부에 대해, ‘안내문구 및 책자가 비치되었다’는 응답은 41.2%이며 비치된 경우 42.9%는 이를 확인한 것으로 나타남.
- 부상 장소의 환경적 요인을 종합한 결과, ‘바닥이 미끄러웠음’이라는 평가가 57.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활동하기에 적절한 사람 수’에 대한 부정적 평가(24.7%), ‘바닥이 적절히 평평하였음’에 대한 부정적 평가(21.4%) 등의 순으로 조사됨(5점 척도 중 [1]매우 부정적, [2]부정적의 합산비율 기준. 단, ‘미끄러운 바닥’은 역척도 문항이므로 Bottom2는 [4]부정평가와 [5]매우 부정평가의 합산 비율).
 - 슬로프(중급)의 경우 ‘활동하기에 적절한 사람수’에 대한 부정적 평가(27.3%)의 비율이 높고, 슬로프(상급)은 ‘바닥이 적절히 평평하였음’에 대한 부정적 평가(35.1%)의 응답비율이 높음.
- 부상 경험자 10명 중 약 5명은 부상 당시 ‘지도자 자격증이 있는 전문 지도자’(6.5%)나 ‘해당 종목을 잘 아는 숙련자’(45.7%)가 배석 중이었고 이 중, 지도자가 배석한 경우 대부분(87.8%)은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 관련 교육을 실시한 반면 숙련자는 배석한 10명 중 3명 정도(34.6%)만이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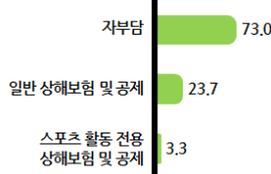
4 부상 후 대처 및 경과

발생된 부상 절반가량(54.3%)은 ‘주관적 판단 후 자가치료’
10명 중 7명 이상(73.0%)은 치료비용을 ‘자부담 처리’
개인 부담금액 기준, 1인 1건당 치료 소요비용은 평균 57,347원

» 치료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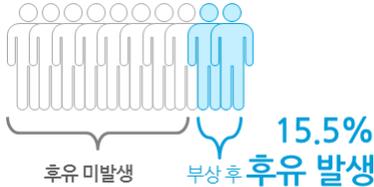
» 치료비용 처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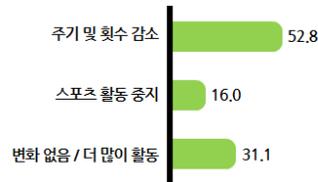
» 치료비 개인 부담금액



부상 경험자 10명 중
약 1-2명가량(15.5%)이
부상으로 인해 후유증 발생



10명 중 7명 정도는 부상 이후
스포츠 활동을 줄이거나(52.8%)
중지(16.0%)함



- 염좌, 좌상, 통증의 경우 ‘냉찜질’을, 골절의 경우 ‘압박’을, 찰과상과 출혈의 경우 ‘소독’을 실시하는 등 전반적으로 부상 종류에 적절한 응급 대처를 실시하고 있음.
- 발생한 부상은 ‘주관적 판단 후 자가치료’한 비율이 54.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의사 진료 및 치료’(33.9%), ‘약사 상담 후 자가치료’(11.8%)의 순이며, 부상 경험자 10명 중 7명 이상(73.0%)은 치료비용을 자부담하고, 전체적인 치료비용 개인 부담금액은 평균 57,347원임.
 - 골절, 탈구, 파열 등의 부상 종류에서 치료비용 개인부담금액이 상대적으로 높고 부상 가료기간이 길수록 치료비용의 개인부담금액 역시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 가료에 필요한 기간은 ‘바로 참여 가능할 정도로 경미함’(26.5%)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1-2주정도’(25.2%)이며 ‘1주 미만’도 23.0%로 비교적 높음.
- 부상 경험자 10명 중 약 2명가량(15.5%)이 부상으로 인해 후유증이 발생함.

부록1 - 종목별 주요결과 요약

- 찰과상, 염좌, 통증 등의 부상에서 후유발생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되었으며 이로 인한 후유증의 심각도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부상 경험자 10명 중 5명 이상(52.8%)은 부상 후 활동 주기 및 횟수가 감소하였고, 이의 주된 이유로는 ‘심리적 두려움’(48.4%)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신체적 불편함’(38.2%), ‘가족 또는 지인의 반대’(9.6%)의 순임.

5 스포츠 안전의식

스포츠 안전수칙 인지
29.2%

주로 교육과 운동
동료로부터 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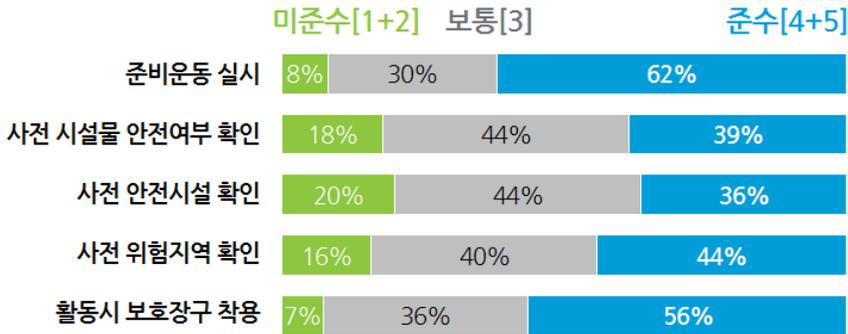
» 스포츠 안전수칙
인지도

» 스포츠 안전수칙 준수정도



재미우선 3.8%

세부 안전수칙 중 준비운동을 가장 충실히 수행하며 다음으로 보호장구 착용 → 위험지역 확인 → 시설물 안전확인 → 안전시설 확인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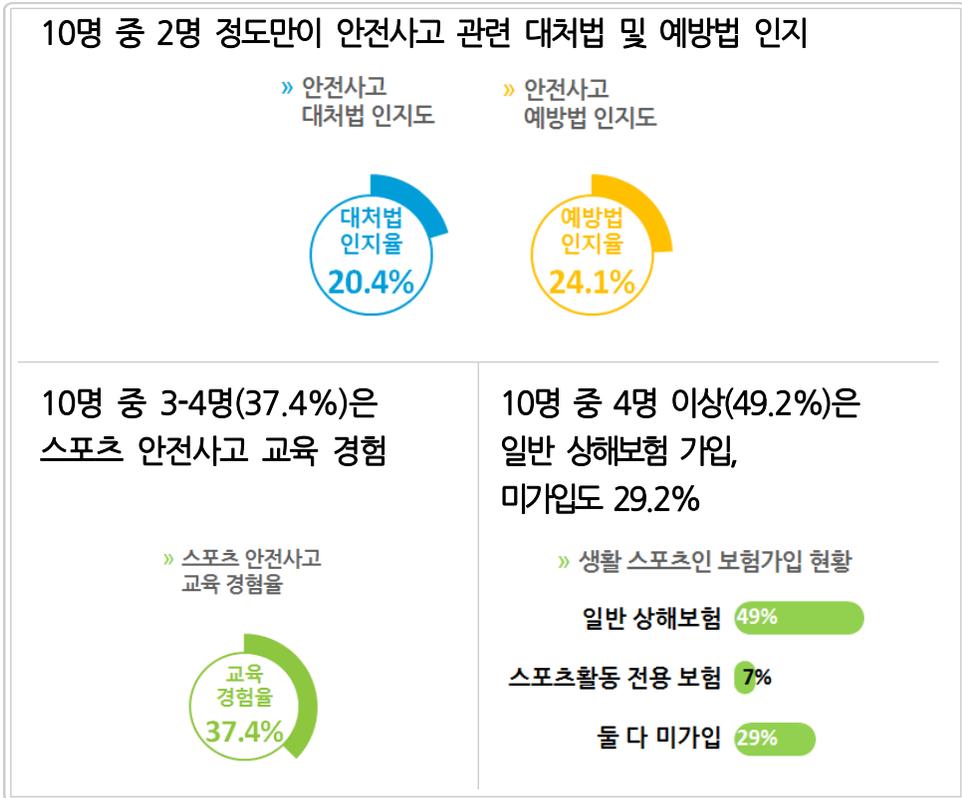


※ 5점 척도로 구성된 문항의 응답 결과임

◎ 안전 인식

- 스키, 스노보드 종목의 안전수칙을 ‘인지’하고 있다는 응답이 29.2%(매우 잘 알고 있다 1.6%+대체로 아는 편 27.6%), ‘미인지’가 23.5%(전혀 모른다 2.5%+잘 모르는 편 21.0%)로 나타남.
- 부상 경험자 10명 중 7명 이상(70.6%: 안전 최우선 24.6%+어느 정도 안전 우선 46.1%)은 운동을 할 때 ‘안전 수칙 준수’를 우선시 함.
- 세부적으로는 ‘준비 운동을 실시한다’는 응답이 61.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활동 시 보호장구 착용’(56.4%), ‘사전에 위험지역 확인’(44.2%) 등의 순으로 조사됨 (5점 척도 중 [4]그렇다, [5]매우 그렇다의 합산비율 기준).
- 시설물 안전여부 미확인인 ‘확인하기 귀찮아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안전시설 미확인과 위험지역 미확인인 ‘확인 방법을 모름’이 가장 높게 나타남.

- 보호장구를 구매하기 위한 지출의향 및 지출수준에 대해서는 단지 1.8%만이 지출의향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1인 평균 연간 지출의향(또는 현재 지출금액)은 약 25.81만원 선임.



◎ 대처 및 예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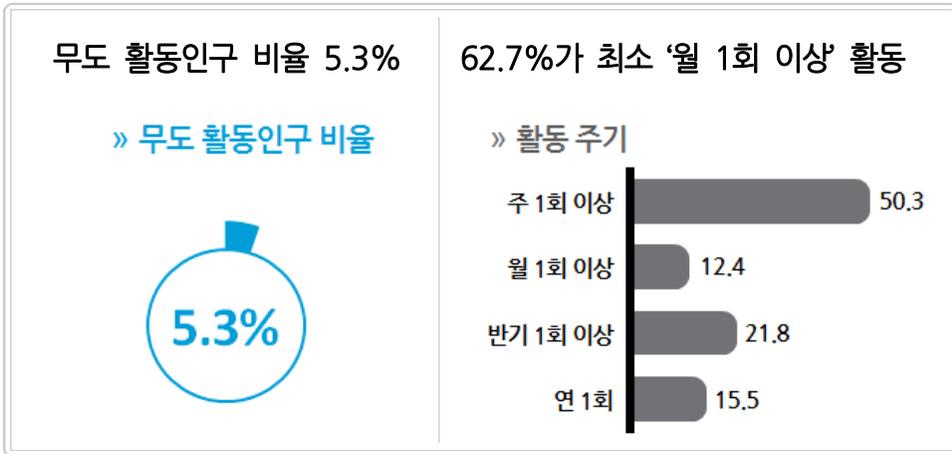
- 부상 경험자의 30.0%(전혀 모름 1.8%+잘 모르는 편 28.3%)가 스키, 스노보드를 하던 중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시 대처방법을 ‘미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예방법 역시 ‘미인지’ 비율이 26.3%(전혀 모름 1.2%+잘 모르는 편 25.1%)에 달함.
 - 인지도는 대처법 20.4%(매우 잘 앎 0.7%+대체로 아는 편 19.8%), 예방법 24.1%(매우 잘 앎 0.7%+대체로 아는 편 23.5%)임.
- 응급처치 요령 인지도는 ‘심폐소생술 실시요령’(36.5%), ‘골절 및 염좌 발생 시 대처법 인지’(31.6%), ‘저체온증 발생 시 대처요령 인지’(28.3%) 순임(5점 척도 중 [4]어느 정도 알고 있음, [5]매우 잘 알고 있음의 합산비율 기준).

스포츠 안전사고 실태조사 -종합편

- 전문 체육지도자 조사 결과 절대적인 인지율은 생활스포츠인 대비 매우 높은 수준이며, 평균적으로 '인지' 비율이 81.8%로 '생활 스포츠인' 대비 4배가량 높으며, '미인지' 응답은 없음.
- 안전사고 응급처치 요령 습득 경로는 '인터넷'이 39.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TV'(34.6%), '스포츠 전문지도자/숙련자'(22.1%), '응급처치 전문기관'(17.7%) 등의 순임.
- 스포츠 안전사고에 대비한 '교육을 경험'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37.4%로 조사되었으며, 스포츠 안전사고 대비 교육을 받은 기관은 '국가 및 공공기관'(33.7%), '동호회/팀'(31.1%), '대학 정규 강좌'(30.0%) 등의 순임.
- 스포츠 안전사고에 대비 교육을 받지 않은 이유는 '스포츠활동 중 부상을 대비한 안전교육이 있는지 몰라서'(43.2%), '교육을 받고 싶었으나 어느 기관에서 교육하는지 몰라서'(30.3%), '교육을 필요성을 못 느껴서'(25.9%) 등의 순임.
- 스포츠 안전사고에 대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74.3%(매우 필요 19.3%+필요 55.0%)로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 2.9%(전혀 불필요 0.5%+불필요 2.3%)에 비해 높음.
- '일반 상해보험 및 공제' 가입률이 49.2%, '스포츠 활동 전용 보험 및 공제' 가입률은 6.6%에 불과하며 '둘 다 미가입' 상태인 응답자 비율도 29.2%에 달함.
- 전문 체육지도자 조사 결과 '학교안전공제중앙회 공제 보험'이 54.5%, '기타 보험사의 공제 보험'이 27.3%로 대부분이 공제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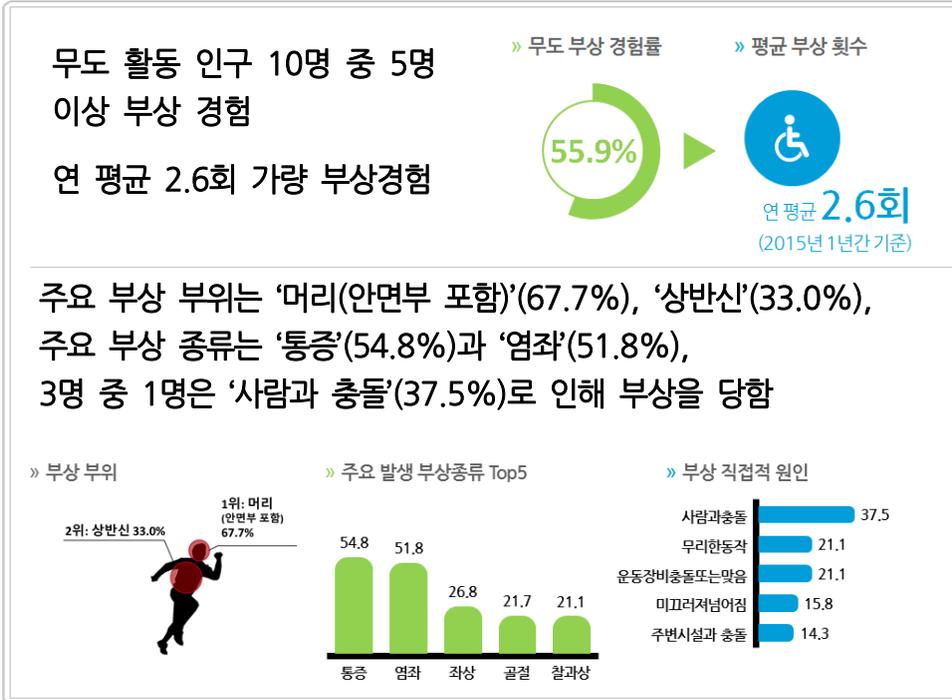
5. 무도(킥복싱, 이종격투기, 복싱, 태권도)

1 생활스포츠 참여 실태



- 최근 1년간 스포츠활동의 일환으로 무도를 경험한 인구 비율은 5.3%임.
- 전체적으로 10명 중 약 6명 이상(62.7%: 주 1회 이상 50.3%+월 1회 이상 12.4%)은 최소 '월 1회 이상' 무도를 즐기고 있으며, 1회 평균 활동시간은 70.69분임.
- 전반적으로 '저녁 시간대'(18-21시 이전, 41.6%)에 주로 즐기고 있음.
- 무도 인구 10명 중 6명가량(57.8%)은 '체육관'에서 무도를 즐기고 있음.

2 부상 발생 현황



- 무도 활동인구 전체의 절반이 넘는 55.9%의 응답자가 심한 부상부터 경미한 부상까지 당한 경험이 있음.
- 무도 부상 경험은 자주 활동(주 1회 이상 72.9%)하는 사람들일수록, 1회 참여 시 약 63분가량 활동하는 사람들에게서 주로 일어나고 있음.
- 무도 부상 경험자 10명 중 5명 이상(56.5%)은 본인의 무도 능숙도를 '초급' 정도로 인식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활동 경력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일어나고 있음.
- 무도를 통해 발생하는 부상은 주로 '머리(안면부 포함)'(67.7%)와 상반신(33.0%)에 집중되고 있으며 가장 흔한 부상 유형은 '통증'(54.8%)과 '염좌'(51.8%)임.
- 무도 부상 경험자들이 겪은 여러 부위와 종류를 종합한, 가장 심각했던 부상 유형은 '발목 염좌'(6.8%)임.
 - 전문체육 지도자 조사 자료 분석 결과 전문적으로 활동하는 선수들의 경우 주로 발생하는 부상 부위는 무릎, 손, 발 등 사지 부분, 주로 발생하는 부상 종류는 골절로 나타나 생활체육인 조사 결과와 상이한 특성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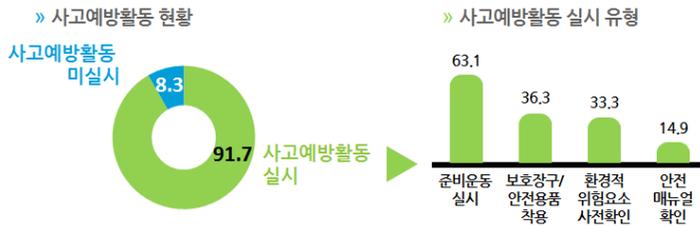
부록1 - 종목별 주요결과 요약

- 부상의 직접적 원인으로는 ‘사람과 충돌’이 37.5%로 가장 높게 나타나 무도를 통해 부상을 입는 사람 약 3명 중 1명은 훈련이나 대련 중 다른 사람과의 충돌(가격) 때문에 부상을 입는 것을 알 수 있음.
- 연 평균 약 2.6회 가량의 부상을 입고 있음.
- 무도의 주 활동 시간대는 ‘저녁’(18시-21시 이전, 41.7%)이며 부상 발생 역시 주 활동 시간대에 수렴하는 결과를 보여 활동 인구가 집중되는 시간대에 부상도 많이 발생하는 정상적인 패턴을 보이고 있음.

3 부상 발생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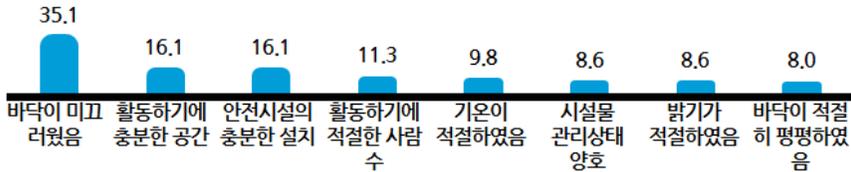
대부분 사고예방활동을 실시하나 준비운동 실시에 그치는 경우 많음

부상경험자의 91.7%는 부상 전 사고예방활동을 실시함
 실시한 응답자 중 '준비운동'(63.1%)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30% 내외의 실시율



여러 환경적 요인 중 가장 주요한 문제는 '미끄러운 바닥'(35.1%)

» 부상 장소 환경적 요인(Bottom2: 매우 부정평가+부정평가 합산)



※ 5점 척도로 응답된 결과 중 [1] 매우 부정평가와 [2] 부정평가의 합산 비율을 제시함
 ※ '미끄러운 바닥'은 역척도 문항이므로 Bottom2는 [4]부정평가와 [5]매우 부정평가의 합산 비율임

◎ 부상발생 이전 상황 : 예방활동 측면

○ 대부분의 사고예방활동 실시비율에서 가장 높았던 준비운동(63.1%)을 제외하면 모두 30% 내외 정도로 나타나 전반적으로는 준비운동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고예방활동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특히 전문/숙련자가 배석함에 따라 '보호장구 및 안전용품 착용', '환경적 위험요소 확인', '준비운동 실시' 등 사고예방활동을 보다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음.

- 장비 착용을 하는 경우, 10명 중 5명(50.0%)은 부상 당시 '정장이 보호대'를 착용, 착용한 장비의 전반적 상태는 양호(36.9%)했던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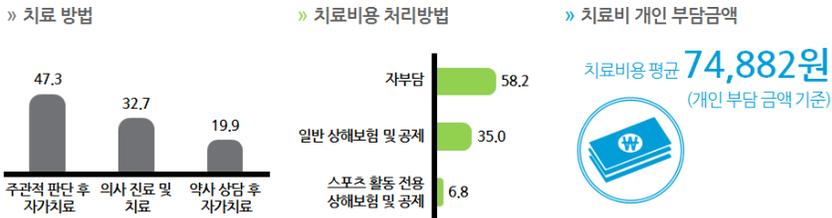
- 환경적 위험요소 확인자의 24.1%만이 성실히 확인할 뿐 나머지는 불성실하거나 형식적 확인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준비운동 실시자는 근력(54.7%), 심폐지구력(53.8%), 유연성(49.1%) 등 다양한 준비운동을 실시(5점 척도 중 [4]그렇다, [5]매우 그렇다의 합산비율 기준)하고 있으며 전문/숙련자가 배석할수록, 그리고 교육을 실시할수록 준비운동 역시 더 충실히 수행하는 것으로 조사됨.
- 확인한 안전매뉴얼의 경우 전반적으로 ‘부상 방지에 도움이 되었다’(52.0%)고 평가됨.
- 부상 전 신체상태가 ‘양호’했다는 응답이 25.9%로, ‘비양호’했다는 응답(17.9%)에 비해 높았으나 종합적으로는 10명 중 2명가량만이 신체상태가 양호한 상태에서 운동에 참여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음.

◎ 부상 당시 상황 : 환경적 요인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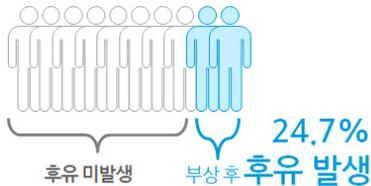
- 무도 부상 경험자 10명 중 9명가량(88.7%)은 ‘도장’에서 부상을 당하고 있으며 부상 장소 운영 주체는 ‘민간’ 시설이 67.9%임(공공시설 17.3%, 잘모름 9.8%).
- 부상 장소에 안전 안내문구·책자 비치여부에 대해, ‘안내문구 및 책자가 비치되었다’는 응답은 35.7%이며 비치된 경우 71.1%는 이를 확인한 것으로 나타남.
- 부상 장소의 환경적 요인을 종합한 결과, ‘바닥이 미끄러웠다’는 평가가 35.1%로 가장 높음. 다음으로 ‘활동하기에 충분한 공간’ 및 ‘안전시설의 충분한 설치’의 부정적 평가(각 16.1%), ‘활동하기에 적절한 사람 수’의 부정적 평가(11.3%) 등의 순으로 조사됨(5점 척도 중 [1]매우 부정적, [2]부정적의 합산비율 기준. 단, ‘미끄러운 바닥’은 역척도 문항이므로 Bottom2는 [4]부정평가와 [5]매우 부정평가의 합산 비율).
- 부상 경험자 대부분(10명 중 9명 이상, 95.0%)은 부상 당시 ‘지도자 자격증이 있는 전문 지도자’(57.9%)나 ‘해당 종목을 잘 아는 숙련자’(37.1%)가 배석 중이었고 지도자나 숙련자가 배석한 경우 10명 중 6~7명가량(전문 체육 지도자 교육 69.8%, 종목 숙련자 교육 61.8%)은 별도의 교육을 실시함.

4 부상 후 대처 및 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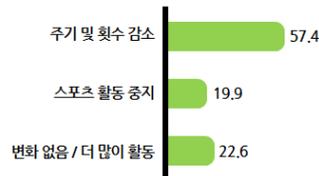
발생된 부상 절반가량(47.3%)은 ‘주관적 판단 후 자가치료’
 10명 중 6명가량(58.2%)은 치료비용을 ‘자부담 처리’
 개인 부담금액 기준, 1인 1건당 치료 소요비용은 평균 74,882원



부상 경험자 10명 중
 약 2명 이상(24.7%)이
 부상으로 인해 후유증 발생



10명 중 7명 이상은 부상 이후
 스포츠 활동을 줄이거나(57.4%)
 중지(19.9%)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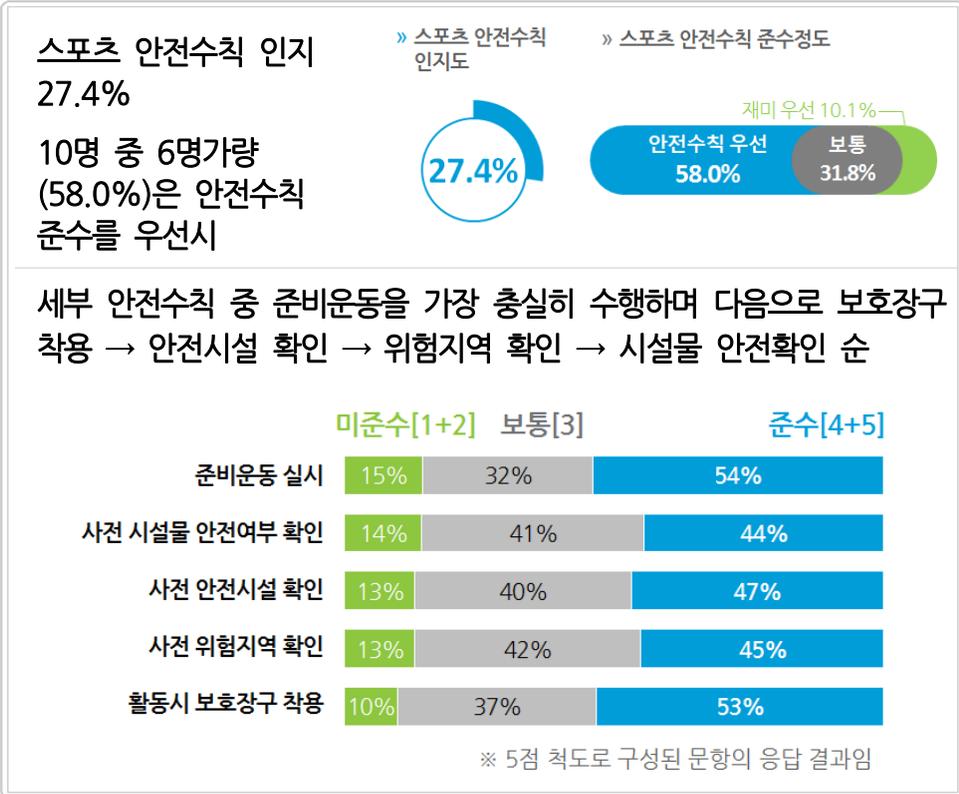


- 염좌, 좌상, 통증의 경우 ‘냉찜질’을, 열상, 출혈의 경우 ‘소독’을 실시하는 등 전반적으로 부상 종류에 적절한 응급 대처를 실시하고 있음.
- 발생한 부상은 ‘주관적 판단 후 자가치료’한 비율이 47.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의사 진료 및 치료’(32.7%), ‘약사 상담 후 자가치료’(19.9%)의 순이며, 부상 경험자 10명 중 6명가량(58.2%)은 치료 비용을 자부담하고, 전체적인 치료비용 개인 부담금액은 평균 74,882원임.
 - 골절, 탈구, 파열 등의 부상 종류에서 치료비용 개인부담금액이 상대적으로 높고 부상 가료기간이 길수록 치료비용의 개인부담금액 역시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부록1 - 종목별 주요결과 요약

- 가료에 필요한 기간은 '1-2주'(35.7%)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1주 미만'(20.2%)이며 '바로 참여 가능할 정도로 경미함'도 19.3%로 비교적 높음.
- 부상 경험자 10명 중 약 2명 이상(24.7%)이 부상으로 인해 후유증이 발생함.
 - '골절' 등 부상에서 후유발생률이 상대적으로 높음.
- 부상 경험자 10명 중 5명 이상(57.4%)은 부상 후 활동 주기 및 횟수가 감소하였고, 이의 주된 이유는 '신체적 불편함'(55.0%)때문이며 다음으로 '심리적 두려움'(24.6%), '가족 또는 지인의 반대'(19.2%)의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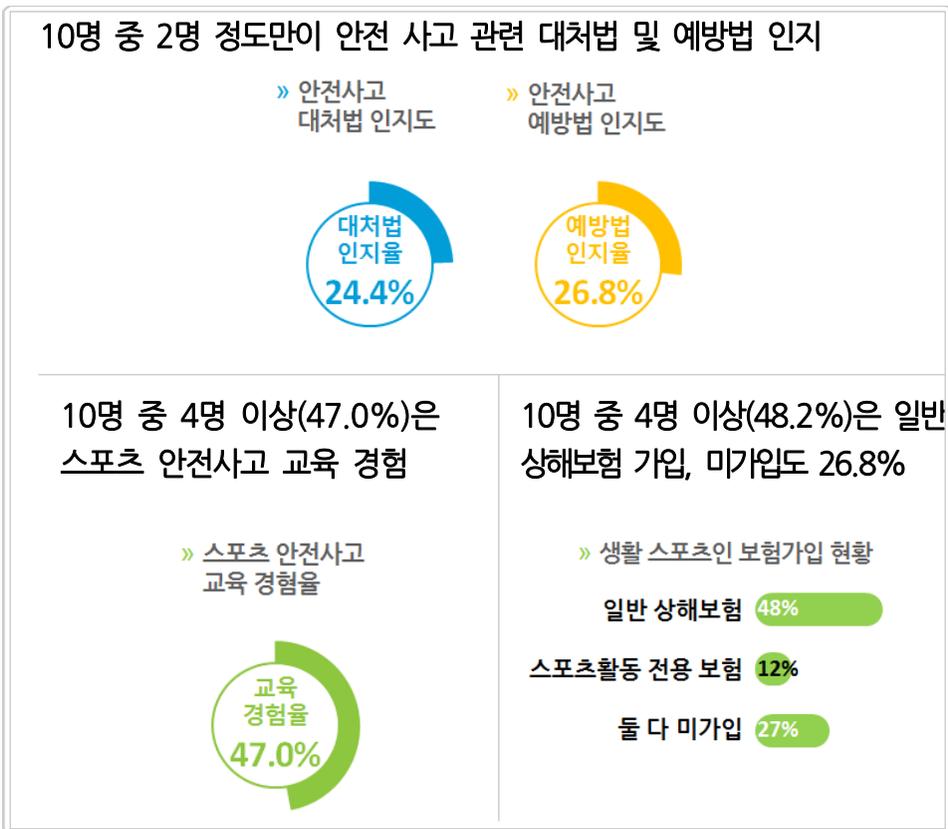
5 스포츠 안전의식



◎ 안전 인식

- 무도 안전수칙을 ‘인지’하고 있다는 응답은 27.4%(매우 잘 알고 있다 4.5%+대체로 아는 편 22.9%)이며 10명 중 4명(41.3%)은 ‘같이 운동하는 사람’으로부터 안전 수칙을 알게 되었다고 응답함.
 - 전문 체육지도자 전원은 안전수칙을 인지(매우 잘 알고 있음 76.9%+대체로 아는 편 23.1%)하고 있으며 13명 중 12명(92.3%)은 ‘교육’을 통해 안전수칙 인지함.
- 부상 경험자 10명 중 5명 이상(58.0%: 안전 최우선 20.8%+어느 정도 안전 우선 37.2%)은 운동을 할 때 ‘안전 수칙 준수’를 우선시함.
- 세부적으로는 ‘준비 운동을 실시한다’는 응답이 53.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활동시 보호장구 착용’(53.3%), ‘사전에 안전시설 확인’(46.7%) 등의 순으로 조사됨(5점 척도 중 [4]그렇다, [5]매우 그렇다의 합산비율 기준).

- 시설물 안전여부 미확인, 안전시설 미확인, 위험지역 미확인 이유 모두 ‘확인하기 귀찮아서’가 가장 높게 나타남. 다음으로 세부 순위에는 소폭 차이가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확인이 중요하지 않은 스포츠’와 ‘확인 방법을 몰라서’의 이유로 인해 확인을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됨.
- 보호장구를 구매하기 위한 지출의향 및 지출수준에 대해서는 단 2.1%만이 지출의향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1인 평균 연간 지출의향(또는 현재 지출금액)은 약 40만원 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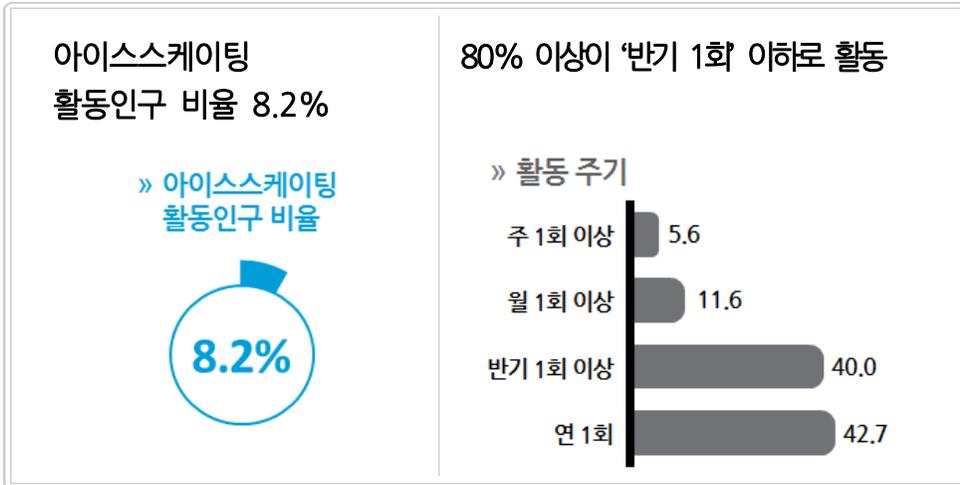


◎ 대처 및 예방

- 부상 경험자의 28.6%(전혀 모름 2.4%+잘 모르는 편 26.2%)가 무도를 하던 중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시 대처방법을 ‘미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예방법 역시 ‘미인지’ 비율이 25.9%(전혀 모름 2.7%+잘 모르는 편 23.2%)에 달함.
 - 인지율은 대처법 24.4%(매우 잘 앎 3.9%+대체로 아는 편 20.5%), 예방법 26.8%(매우 잘 앎 4.2%+대체로 아는 편 22.6%)임.
- 응급처치 요령 인지도는 ‘골절 및 염좌 발생 시 대처법’을 알고 있는 경우가 36.6%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심폐소생술 실시요령 인지’(35.7%), ‘근육 경련 발생 시 대처요령 인지’(33.3%) 등의 순임(5점 척도 중 [4]어느 정도 알고 있음, [5]매우 잘 알고 있음의 합산비율 기준).
 - 전문 체육지도자 조사 결과 절대적인 인지율은 생활스포츠인 대비 매우 높은 수준이며 생활스포츠인이 주로 알고 있는 요령 외에 저체온증 발생 시 대처법에 대한 인지도 또한 높게 조사되어 차이를 보임.
- 안전사고 응급처치 요령 습득 경로는 ‘의료인’이 31.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스포츠 전문 지도자/숙련자’(30.4%), ‘인터넷’(28.0%), ‘응급처치 전문기관’(24.1%) 등의 순임.
- 스포츠 안전사고에 대비한 ‘교육을 경험’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47.0%이며, 스포츠 안전사고 대비 교육을 받은 기관은 ‘대학교의 정규 강좌’(36.1%), ‘국가/공공기관’(27.2%), ‘동호회/팀’(25.9%) 등의 순임.
- 스포츠 안전사고에 대비 교육을 받지 않은 이유는 ‘스포츠활동 중 부상을 대비한 안전교육이 있는지 몰라서’(39.3%), ‘교육을 받고 싶었으나 어느 기관에서 교육하는지 몰라서’(38.2%), ‘교육을 필요성을 못 느껴서’(21.9%) 등의 순임.
- 스포츠 안전사고에 대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52.7%(매우 필요 17.3%+필요 35.4%)로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 11.6%(전혀 불필요 0.9%+불필요 10.7%)에 비해 높음.
- 일반 상해보험 및 공제 가입률이 48.2%, 스포츠 활동 전용 보험 및 공제 가입률은 11.6%에 불과하며 둘 다 미가입 상태인 응답자 비율도 26.8%에 달함.
 - 전문 체육지도자 조사 결과 응답한 지도자 13명(팀, 단체) 중 5명은 일반 상해보험 가입, 4명은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공제·보험에 가입 중인 것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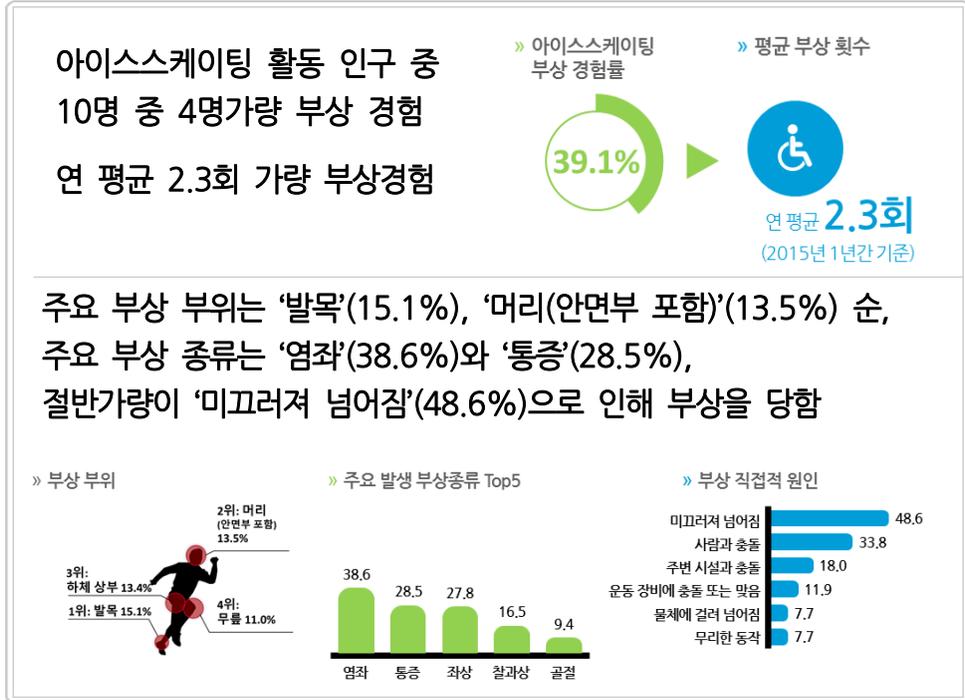
6. 아이스 스케이팅

1 생활스포츠 참여 실태



- 최근 1년간 스포츠활동의 일환으로 아이스스케이팅을 경험한 인구 비율은 8.2%임.
- 전체적으로 10명 중 약 8명 이상(82.7%: '반기 1회 이상' 40.0%+'연 1회' 42.7%)은 반기 1회 또는 그 미만으로 아이스스케이팅을 즐기고 있으며, 1회 평균 활동시간은 94.02분임.
- 10명 중 7명 이상은 '점심'(12시-15시 이전, 28.6%)에서 '오후'(15시-18시 이전, 41.9%) 시간대 사이에 아이스스케이팅을 즐기는 것으로 조사됨.
- 아이스스케이팅 인구 10명 중 8명가량(78.6%)은 '전용 경기시설'에서 아이스스케이팅을 즐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 부상 발생 현황



- 아이스스케이팅 활동인구 전체 10명 중 4명가량인 39.1%의 응답자가 심한 부상부터 경미한 부상까지 당한 경험이 있음.
- 아이스스케이팅 부상 경험은 아이스스케이팅 부상 경험은 비정기(26.4%)적으로 하는 사람들일수록, 1회 참여 시 약 78분가량 즐기는 사람들에게서 주로 일어나고 있음.
- 종목 부상 경험자 10명 중 7명 이상(77.5%)은 본인의 아이스스케이팅 능숙도를 '초급' 정도로 인식하고 있음.
- 아이스스케이팅을 통해 발생하는 부상은 주로 '발목'(15.1%), '머리(안면부 포함)'(13.5%), '하체상부'(13.4%)에 걸쳐 일어나고 있으며 가장 흔한 부상 유형은 '염좌' (38.6%), '통증'(28.5%), '좌상'(27.8%), '찰과상'(16.5%) 등의 순임.
- 아이스스케이팅 부상 경험자들이 겪은 여러 부위와 종류를 종합한, 가장 심각했던 부상 유형은 '발목 염좌'(10.9%)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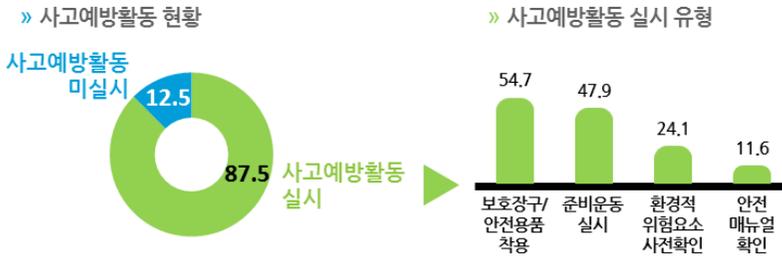
부록1 - 종목별 주요결과 요약

- 부상의 직접적 원인으로는 ‘미끄러져 넘어짐’이 48.6%로 가장 높게 나타나, 아이스스케이팅 종목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 연 평균 약 2.3회 가량의 부상을 입고 있음.
- 아이스스케이팅의 주 활동 시간대는 ‘오후’(15시-18시 이전, 39.9%)이며 부상 발생 역시 주 활동 시간대에 수렴하는 결과를 보여 활동 인구가 집중되는 시간대에 부상도 많이 발생하는 정상적인 패턴을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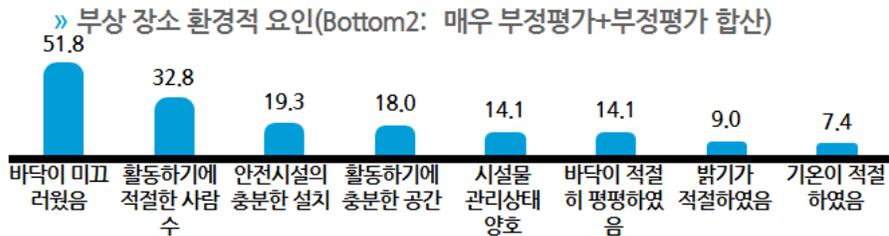
3 부상 발생 환경

전체적으로 부상경험자들의 사고예방활동은 미흡

부상경험자의 12.5%는 부상 전 아무런 사고예방활동을 실시하지 않음
 절반가량이 '보호장구/안전용품 착용', '준비 운동' 등을 실시함



여러 환경적 요인 중 가장 주요한 문제는 '미끄러운 바닥'(51.8%)과 '적절하지 않은 사람 수'(32.8%)



※ 5점 척도로 응답된 결과 중 [1] 매우 부정평가와 [2] 부정평가의 합산 비율을 제시함
 ※ '미끄러운 바닥'은 역척도 문항이므로 Bottom2는 [4]부정평가와 [5]매우 부정평가의 합산 비율임

◎ 부상발생 이전 상황 : 예방활동 측면

○ 부상 당시의 운동 시작 전 사고예방을 위해 행했던 활동으로 가장 높은 행동은 '보호장구 및 안전용품 착용'(54.7%)이며, 다음으로 '준비운동 실시'(47.9%), '환경적 위험요소 사전확인'(24.1%), '안전 매뉴얼 확인'(11.6%)의 순임. 한편, 아무런 사고예방활동을 행하지 않았다는 비율은 12.5%로 대다수는 사고 예방 활동을 실시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전문/숙련자가 배석함에 따라 '보호장구 및 안전용품 착용', '환경적 위험요소 확인',

‘준비운동 실시’ 등 사고예방활동을 보다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음.

- 아이스스케이팅 부상 경험자 중 장비 착용을 하는 경우, ‘헬멧’이 72.9%, ‘장갑’이 71.8%로 대다수가 두 장비를 착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환경적 위험요소 확인자의 21.3%만이 성실히 확인할 뿐 나머지는 불성실하거나 형식적 확인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준비운동 실시자는 유연성(51.0%), 근력(44.3%), 심폐지구력(39.6%) 등 다양한 준비운동을 실시(5점 척도 중 [4]그렇다, [5]매우 그렇다의 합산비율 기준)하고 있으며 전문/숙련자가 배석할수록, 그리고 교육을 실시할수록 준비운동 역시 더 충실히 수행하는 것으로 조사됨.
 - 확인한 안전매뉴얼의 경우 전반적으로 ‘부상 방지에 도움이 되었다’(30.6%)고 평가됨.
- 부상 전 신체상태가 ‘양호’했다는 응답이 41.5%로, ‘비양호’했다는 응답(9.6%)에 비해 높았으나 종합적으로는 절반가량만이 신체상태가 양호한 상태에서 운동에 참여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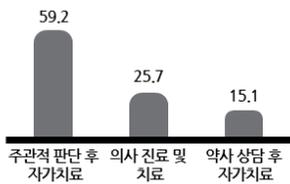
◎ 부상 당시 상황 : 환경적 요인 측면

- ‘실내 빙상장’에서 부상을 당한 응답자가 72.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부상 장소 운영 주체는 ‘공공’시설이 40.5%, ‘민간’시설이 33.4%임.
- 부상 장소에 안전 안내문구·책자 비치여부에 대해, ‘안내문구 및 책자가 비치되었다’는 응답은 40.3%이며 비치된 경우 절반(50.0%)은 이를 확인한 것으로 나타남.
- 부상 장소의 환경적 요인을 종합한 결과, ‘바닥이 미끄러웠다’는 평가가 51.8%로 가장 높음. 다음으로 ‘활동하기에 적절한 사람수’(32.8%)의 부정적 평가, ‘충분하지 않은 안전시설’(19.3%) 등의 순으로 조사됨(5점 척도 중 [1]매우 부정적, [2]부정적의 합산비율 기준. 단, ‘미끄러운 바닥’은 역척도 문항이므로 Bottom2는 [4]부정평가와 [5]매우 부정평가의 합산 비율).
 - 실내 빙상장(54.0%)과 실외 빙상장(정규시설)(48.8%)의 ‘바닥이 미끄러웠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고, 실외 빙상장(임시가설)(61.4%)은 ‘활동하기에 적절한 사람 수’의 부정적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음.
- 부상 경험자 10명 중 절반가량은 부상 당시 ‘지도자 자격증이 있는 전문 지도자’(15.7%)나 ‘해당 종목을 잘 아는 숙련자’(31.0%)가 배석 중 이었고, 지도자가 배석한 경우 대부분(80.5%)은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 관련 교육을 실시한 반면 숙련자는 배석한 10명 중 3명 정도(35.8%)만이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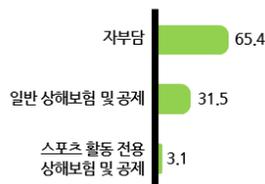
4 부상 후 대처 및 경과

발생된 부상 절반 이상(59.2%)은 '주관적 판단 후 자가치료'
 10명 중 6명 이상(65.4%)은 치료비용을 '자부담 처리'
 개인 부담금액 기준, 1인 1건당 치료 소요비용은 평균 50,491원

» 치료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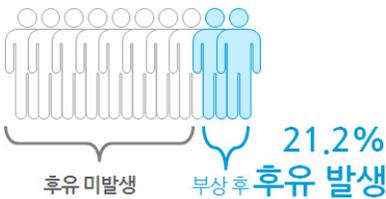
» 치료비용 처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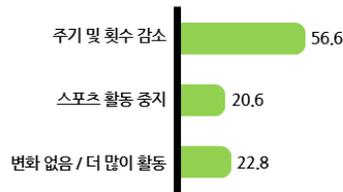
» 치료비 개인 부담금액



부상 경험자 10명 중
 약 2명가량(21.2%)이
 부상으로 인해 후유증 발생



10명 중 7명 정도는 부상 이후
 스포츠 활동을 줄이거나(56.6%)
 중지(20.6%)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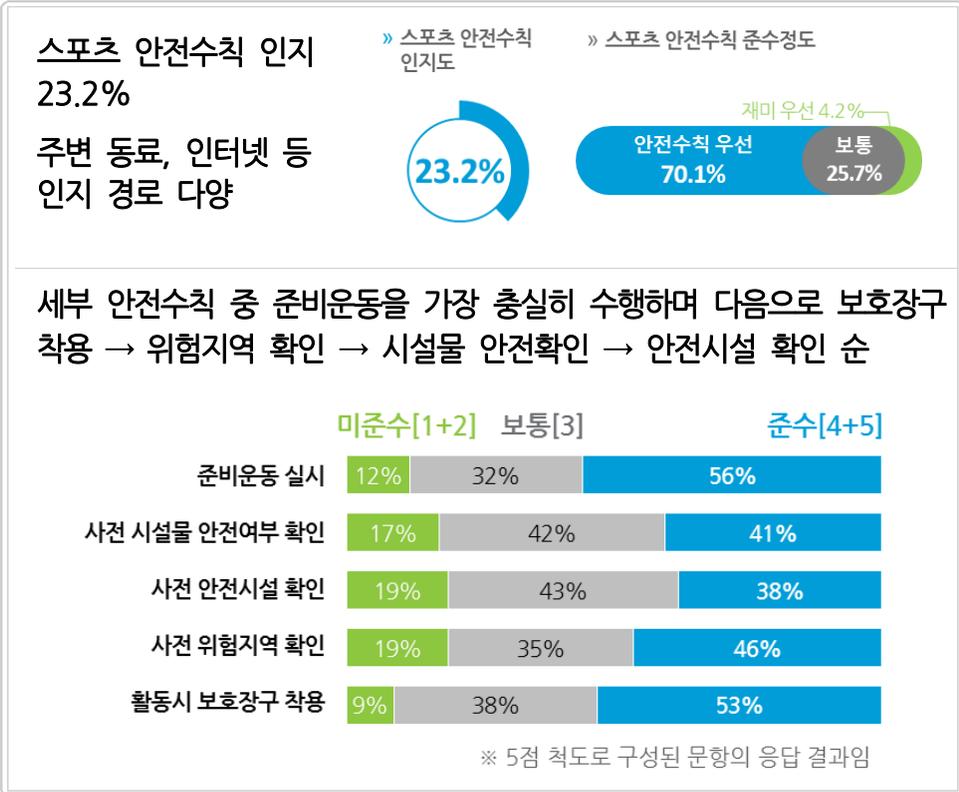


- 염좌의 경우 '냉찜질'을 실시하는 등 전반적으로 부상 종류에 적절한 응급 대처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한편, '통증'과 '좌상'의 경우 '조치하지 않음' 비율이 절반가량으로 적절한 대처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발생한 부상은 '주관적 판단 후 자가치료'한 비율이 59.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의사 진료 및 치료'(25.7%), '의사 상담 후 자가치료'(15.1%)의 순이며, 부상 경험자 10명 중 6명 이상(65.4%)은 치료비용을 자부담하고, 전체적인 치료비용 개인 부담 금액은 평균 50,491원임.
 - 골절, 출혈, 파열 등의 경우 평균 부담 금액을 크게 상회하며, 부상 가료기간이 길수록 치료비용의 개인부담금액 역시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부록1 - 종목별 주요결과 요약

- 가료에 필요한 기간은 '1-2주'(28.9%)와, '1주 미만'(28.6%)이 가장 많고 '가료 기간이 없다'는 응답도 21.9%로 낮지 않음.
- 부상 경험자 10명 중 약 2명가량(21.2%)이 부상으로 인해 후유증이 발생함.
- 부상 경험자 10명 중 5명 이상(56.6%)은 부상 후 활동 주기 및 횟수가 감소하였고, 이의 주된 이유는 '심리적 두려움'(43.3%), '신체적 불편함' (40.8%), '가족 또는 지인의 반대'(11.7%)의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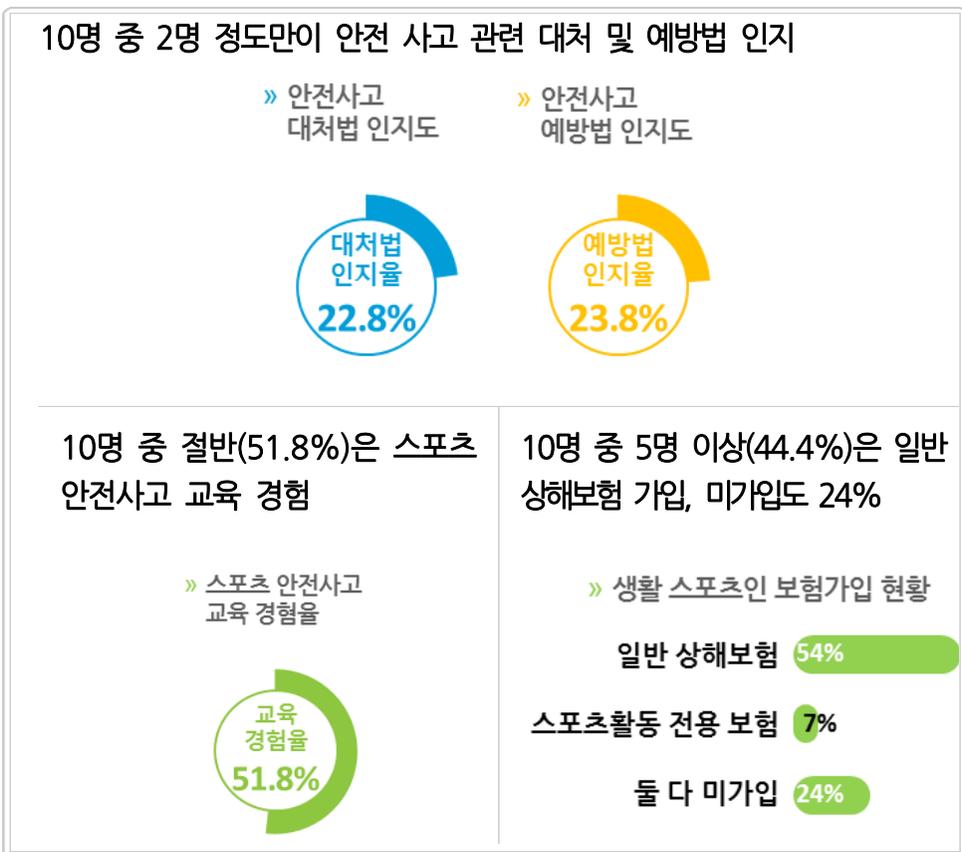
5 스포츠 안전의식



◎ 안전 인식

- 아이스스케이팅 안전수칙을 ‘인지’하고 있다는 응답은 23.2%(매우 잘 알고 있음 3.2%+대체로 아는 편 19.9%)이며 ‘같이 운동하는 사람에게 들었다’(29.2%), ‘인터넷’(26.4%), ‘교육’(23.6%) 등 인지 경로는 다양하게 나타남.
- 부상 경험자 10명 중 7명가량(70.1%: 안전 최우선 23.5%+어느 정도 안전 우선 46.6%)은 아이스스케이팅을 할 때 ‘안전 수칙 준수’를 우선시함.
- 세부적으로는 ‘준비 운동을 실시한다’는 응답이 55.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활동시 보호장구 착용’(53.1%), ‘사전에 위험지역 확인’(46.3%) 등의 순으로 조사됨(5점 척도 중 [4]그렇다, [5]매우 그렇다의 합산비율 기준).

- 시설물 안전여부 미확인, 안전시설 미확인, 위험지역 미확인 이유 모두 '확인하기 귀찮아서'가 가장 높게 나타남. 다음으로 세부 순위에는 소폭 차이가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확인이 중요하지 않은 스포츠'와 '확인 방법을 몰라서' 등의 순임.
- 보호장구를 구매하기 위한 지출의향 및 지출수준에 대해서는 단 2.6%만이 지출의향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1인 평균 연간 지출의향(또는 현재 지출금액)은 약 30만원 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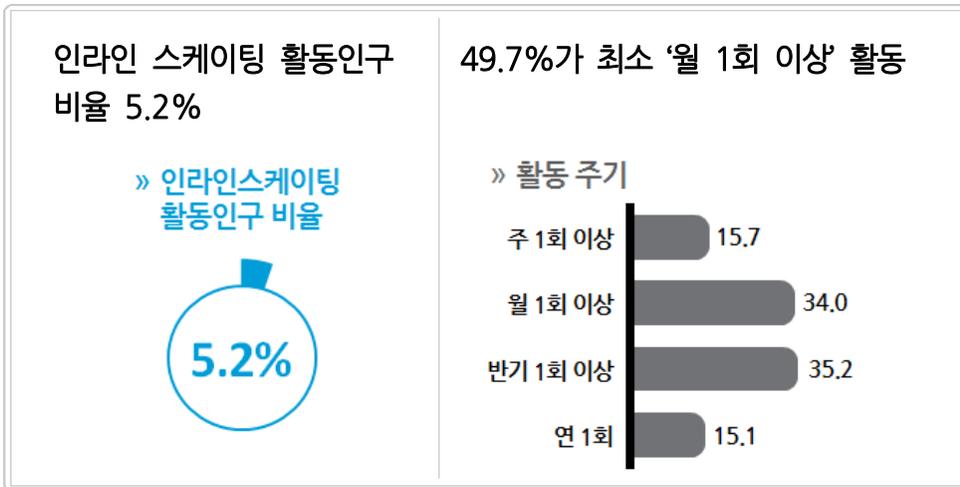


◎ 대처 및 예방

- 부상 경험자의 32.8%(전혀 모름 2.3%+잘 모르는 편 30.5%)가 아이스스케이팅을 하던 중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시 대처방법을 ‘미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예방법 역시 ‘미인지’ 비율이 29.3%(전혀 모름 2.6%+잘 모르는 편 26.7%)에 달함.
 - 인지율은 대처법 22.8%(매우 잘 앎 1.9%+대체로 아는 편 20.9%), 예방법 23.8%(매우 잘 앎 1.9%+대체로 아는 편 21.9%)임.
- 응급처치 요령 인지도는 ‘심폐소생술 실시요령’(41.8%), ‘골절 및 염좌 발생 시 대처요령’(34.7%), ‘저체온증 발생 시 대처요령’(29.6%) 순임(5점 척도 중 [4]어느 정도 알고 있음, [5]매우 잘 알고 있음의 합산비율 기준).
- 안전사고 응급처치 요령 습득 경로는 ‘인터넷’이 37.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TV’(25.7%), ‘스포츠 전문지도자/숙련자’(23.2%), ‘의료인’(22.8%) 등의 순임.
- 스포츠 안전사고에 대비한 ‘교육을 경험’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51.8%이며, 스포츠 안전사고 대비 교육을 받은 기관은 ‘국가 및 공공기관’(39.8%), ‘대학교의 정규 강좌’(36.0%), ‘지역/종목별 협회·단체’(22.4%) 등의 순임.
- 스포츠 안전사고에 대비 교육을 받지 않은 이유는 ‘스포츠활동 중 부상을 대비한 안전교육이 있는지 몰라서’(40.7%), ‘교육을 받고 싶었으나 어느 기관에서 교육하는지 몰라서’(36.7%), ‘교육을 필요성을 못 느껴서’(22.0%) 등의 순임.
- 스포츠 안전사고에 대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73.0%(매우 필요 24.4%+필요 48.6%)로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 7.4%(전혀 불필요 1.0%+불필요 6.4%)에 비해 현저히 높음.
- 일반 상해보험 및 공제 가입률이 53.7%, 스포츠 활동 전용 보험 및 공제 가입률은 6.8%에 불과하며 둘 다 미가입 상태인 응답자 비율도 23.8%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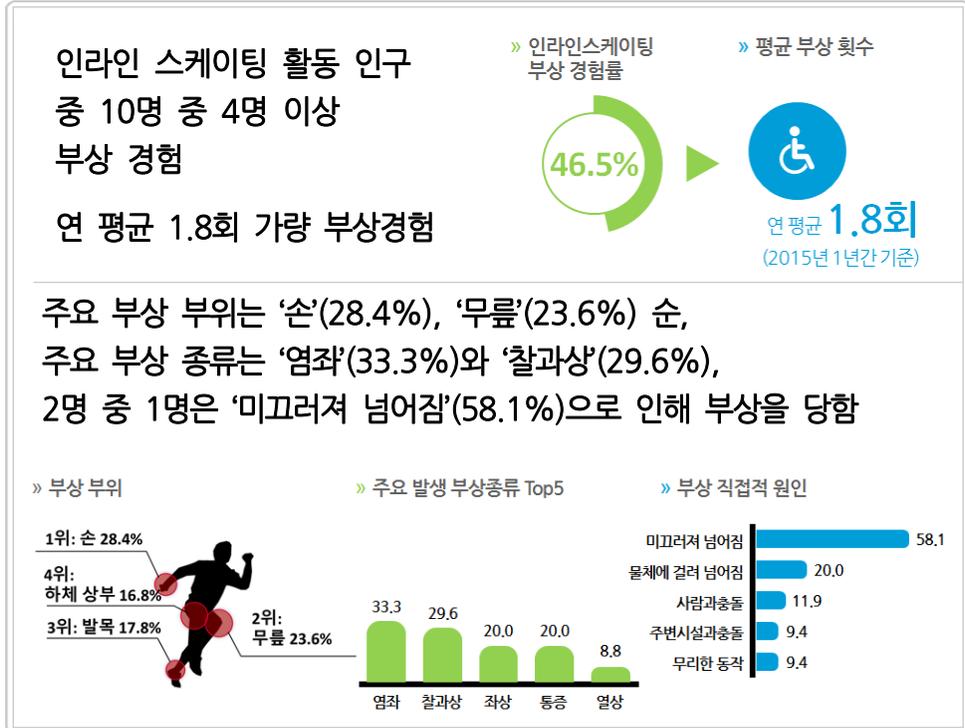
7. 인라인 스케이팅

1 생활스포츠 참여 실태



- 최근 1년간 스포츠 활동의 일환으로 인라인 스케이팅을 경험한 인구 비율은 5.2%임.
- 전체적으로 10명 중 약 4명 이상(49.7%: 주 1회 이상 15.7%+월 1회 이상 34.0%)은 최소 월 1회 이상 인라인 스케이팅을 즐기고 있으며, 1회 평균 활동시간은 65.87분 임.
- 주로 '오후'(15-18시 이전, 42.8%)시간대에 인라인 스케이팅을 즐기고 있음.
- 인라인 스케이팅 인구 10명 중 5명 이상(51.6%)은 산, 도로, 공원 등 '전용 시설이 아닌 장소'에서 인라인 스케이팅을 즐기고 있음.

2 부상 발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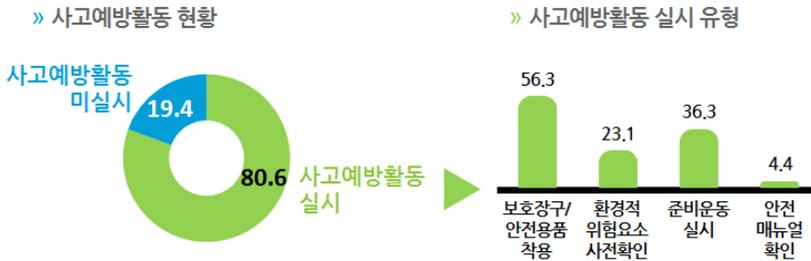
- 인라인 스케이팅 활동인구 10명 중 4명인 46.5%의 응답자가 심한 부상부터 경미한 부상까지 당한 경험이 있음.
- 인라인 스케이팅 부상 경험은 자주 활동(주 1회 이상 28.1%, 월 1회(월 2-3회 포함) 이상 43.1%)하는 사람들일수록, 1회 참여 시 약 70분 정도로 즐기는 사람들에게서 주로 일어나고 있음.
- 종목 부상 경험자 10명 중 7명 이상(72.5%)은 본인의 인라인 스케이팅 능숙도를 ‘초급’ 정도로 인식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활동 경력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인라인 스케이팅을 통해 발생하는 부상은 주로 ‘손’(28.4%)과 ‘무릎’(23.6%)에서 주로 일어나고 있으며 가장 흔한 부상 유형은 ‘염좌’(33.3%), ‘찰과상’(29.6%), ‘좌상’과 ‘통증’(각 20.0%) 등의 순임.
- 인라인 스케이팅 부상 경험자들이 겪은 여러 부위와 종류를 종합한, 가장 심각했던 부상 유형은 ‘발목 염좌’(10.0%)임.

- 부상의 직접적 원인으로는 ‘미끄러져 넘어짐’이 58.1%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물체에 걸려 넘어짐’(20.0%), ‘사람과 충돌’(11.9%), ‘주변 시설과 충돌’ 및 ‘무리한 동작’(각 9.4%)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는데, 주로 인라인 스케이팅을 타던 중 주변 시설이나 사람과 충돌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임.
- 연 평균 약 1.8회 가량의 부상을 입고 있음.
- 인라인 스케이팅의 주 활동 시간대는 ‘오후’(15-18시 이전, 42.8%)와 ‘저녁’(18-21시 이전, 20.1%)시간대인 것으로 나타남.
-부상 발생 시간대는 주 활동 시간대에 수렴하는 결과를 보여 활동 인구가 집중되는 시간대에 부상도 많이 발생하는 정상적인 패턴을 보이고 있음.

3 부상 발생 환경

전체적으로 부상경험자들의 사고예방활동은 미흡

부상경험자의 19.4%는 부상 전 아무런 사고예방활동을 실시하지 않음
 실시한 응답자 중에서도 '보호장구/안전용품 착용'(56.3%)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30% 내외의 실시율임



여러 환경적 요인 중 가장 주요한 문제는

'충분치 않은 안전시설'(30.6%)과 '미끄러운 바닥'(25.0%)

» 부상 장소 환경적 요인(Bottom2: 매우 부정평가+부정평가 합산)



※ 5점 척도로 응답된 결과 중 [1] 매우 부정평가와 [2] 부정평가의 합산 비율을 제시함
 ※ '미끄러운 바닥'은 역척도 문항이므로 Bottom2는 [4]부정평가와 [5]매우부정평가의 합산 비율임

◎ 부상발생 이전 상황 : 예방활동 측면

○ 대부분의 사고예방활동 실시비율은 '보호장구/안전용품 착용'(56.3%), '준비운동 실시'(36.3%)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사고예방활동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특히 20대의 각종 사고예방활동 실시 비율이 낮은 반면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젊은 층의 사고예방활동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됨.
- 장비 착용을 하는 경우, 10명 중 8명가량(81.1%)은 부상 당시 '무릎 보호대'를 착용, 착용한 장비의 전반적 상태는 '양호'(43.3%)했던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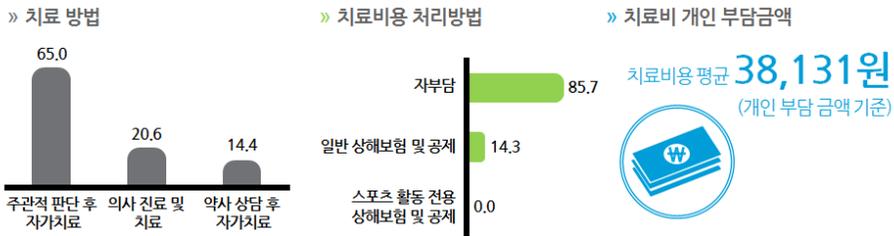
- 환경적 위험요소 확인자의 18.9%만이 성실히 확인할 뿐 나머지는 불성실하거나 형식적 확인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준비운동 실시자는 ‘유연성’(51.7%), ‘근력’(43.1%), ‘심폐지구력’(37.9%) 등 다양한 준비운동을 실시(5점 척도 중 [4]그렇다, [5]매우 그렇다의 합산비율 기준)하고 있음.
- 확인한 안전매뉴얼의 경우 전반적으로 ‘부상 방지에 도움이 되었다’(42.9%)고 평가됨.
- 부상 전 신체상태가 ‘양호’했다는 응답이 45.0%로, ‘비양호’했다는 응답(6.9%)에 비해 높았으나 종합적으로는 10명 중 4~5명만이 신체상태가 양호한 상태에서 운동에 참여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음.

◎ 부상 당시 상황 : 환경적 요인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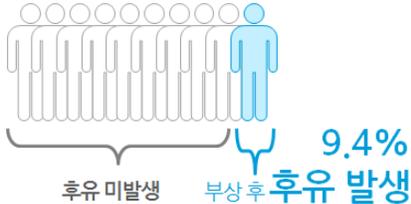
- ‘공원’에서 부상을 당한 응답자가 66.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부상 장소 운영 주체는 ‘공공’시설이 60.6%, ‘민간’시설이 10.0%임.
- 부상 장소에 안전 안내문구 및 책자 비치여부에 대해, ‘안내문구 및 책자가 비치되었다’는 응답은 7.1%이며 비치된 경우 36.4%는 이를 확인한 것으로 나타남.
- 부상 장소의 환경적 요인을 종합한 결과, ‘안전시설의 충분한 설치’라는 부정적 평가가 30.6%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바닥이 미끄러웠음’에 대한 평가(25.0%), ‘바닥이 적절히 평평하였음’에 대한 부정적 평가(18.8%) 등의 순으로 조사됨(5점 척도 중 [1]매우 부정적, [2]부정적의 합산비율 기준. 단, ‘미끄러운 바닥’은 역척도 문항이므로 Bottom2는 [4]부정평가와 [5]매우 부정평가의 합산 비율).
- 부상 경험자 10명 중 약 3명은 부상 당시 ‘지도자 자격증이 있는 전문 지도자’(3.1%)나 ‘해당 종목을 잘 아는 숙련자’(24.7%)가 배석 중이었고 이 중, 지도자가 배석한 경우 대부분(66.7%)은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 관련 교육을 실시한 반면 숙련자는 배석한 10명 중 3명 정도(29.2%)만이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였음.

4 부상 후 대처 및 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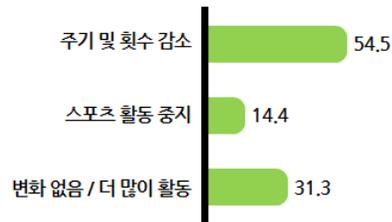
발생된 부상 절반 가량(65.0%)은 '주관적 판단 후 자가치료'
 10명 중 8명 이상(85.7%)은 치료비용을 '자부담 처리'
 개인 부담금액 기준, 1인 1건당 치료 소요비용은 평균 38,131원



부상 경험자 10명 중
 1명가량(9.4%)은
 부상으로 인해 후유증 발생



10명 중 8명 정도는 부상 이후
 스포츠 활동을 줄이거나(54.5%)
 중지(14.4%)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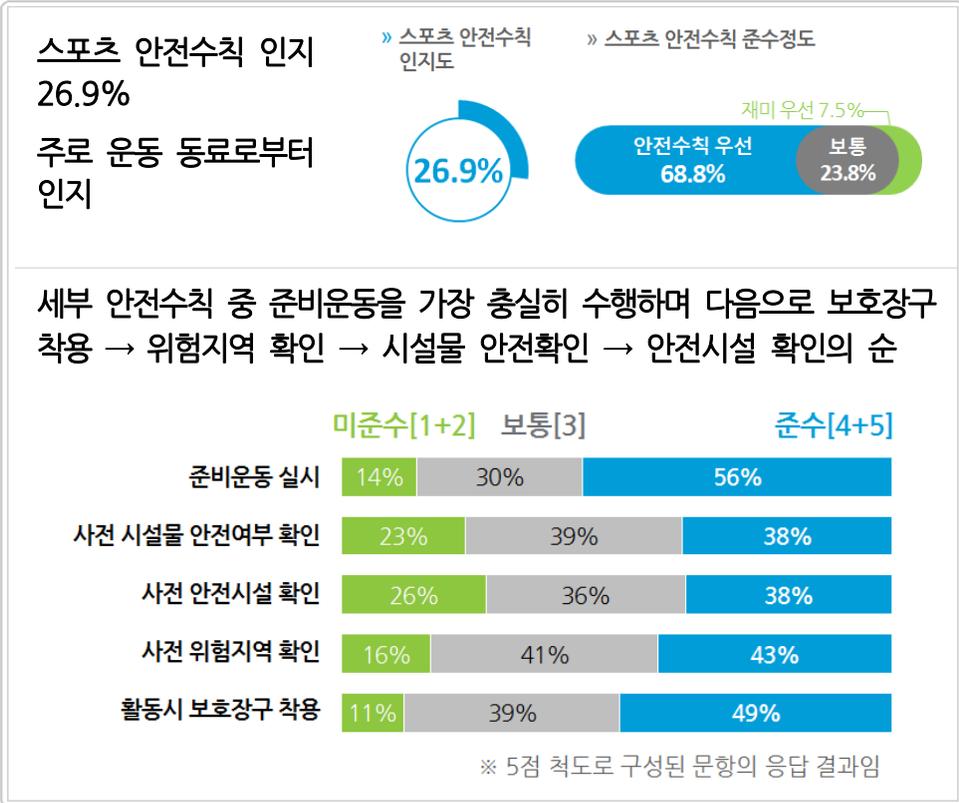


- 대부분의 부상 종류에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는데, 전반적으로 부상 종류와 관련된 적절한 응급 대처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발생한 부상은 '주관적 판단 후 자가치료'한 비율이 65.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의사 진료 및 치료'(20.6%), '약사 상담 후 자가치료'(14.4%)의 순이며, 부상 경험자 10명 중 8명 이상(85.7%)은 치료 비용을 자부담하고, 전체적인 치료비용 개인 부담 금액은 평균 38,131원임.
 - 골절, 파열 등의 부상 종류에서 치료비용 개인부담금액이 상대적으로 높고 부상 가료 기간이 길수록 치료비용의 개인부담금액 역시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 가료에 필요한 기간은 '경미-가료기간 없음'(30.6%)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1-2주'(27.5%)이며 '1주 미만'도 23.8%로 비교적 높음.

부록1 - 종목별 주요결과 요약

- 부상 경험자 10명 중 1명가량(9.4%)은 부상으로 인해 후유증이 발생함.
- 부상 경험자 10명 중 5명 이상(54.4%)은 부상 후 활동 주기 및 횟수가 감소하였고, 이의 주된 이유는 ‘심리적 두려움’(46.4%)때문이며 다음으로 ‘신체적 불편함’(30.9%), ‘가족 또는 지인의 반대’(15.5%)의 순임.

5 스포츠 안전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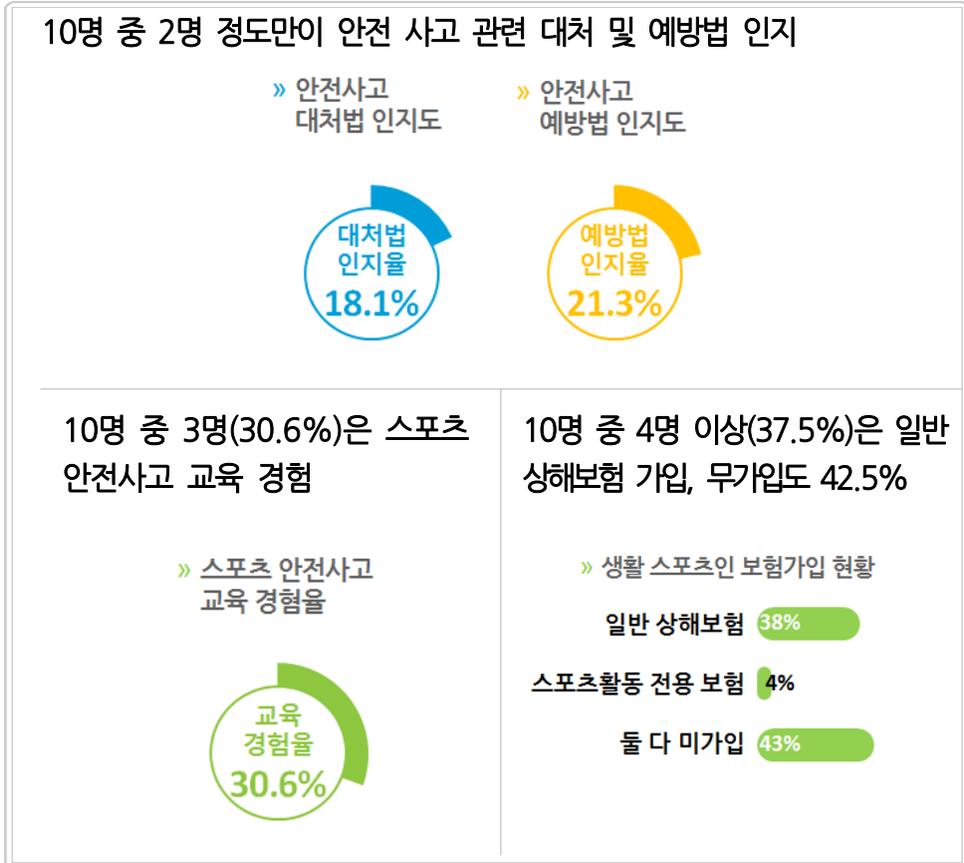


◎ 안전 인식

- 인라인 스케이팅 안전수칙을 ‘인지’하고 있다는 응답은 26.9%(매우 잘 알고 있음 1.9%+대체로 아는 편 25.0%)이며 10명 중 4명(44.2%)은 ‘같이 운동하는 사람’으로부터 안전 수칙을 알게 되었다고 응답함.
- 부상 경험자 10명 중 6명 이상(68.8%: 안전 최우선 30.0%+어느 정도 안전 우선 38.8%)은 운동을 할 때 ‘안전 수칙 준수’를 우선시함.
- 세부적으로는 ‘준비 운동을 실시한다’는 응답이 56.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활동시 보호장구 착용’(49.4%), ‘사전에 위험지역 확인’(42.5%) 등의 순으로 조사됨(5점 척도 중 [4]그렇다, [5]매우 그렇다의 합산비율 기준).
- 시설물 안전여부 미확인, 위험지역 미확인 이유 모두 ‘확인하기 귀찮아서’가 가장 높

게 나타났고, 안전시설 미확인 이유는 ‘확인 방법을 몰라서’가 가장 높게 조사됨.

- 보호장구를 구매하기 위한 지출의향 및 지출수준에 대해서는 단지 0.6%만이 지출의향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1인 평균 연간 지출의향(또는 현재 지출금액)은 약 19만원임.



◎ 대처 및 예방

- 인라인 스케이팅을 하던 중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시 대처방법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대처법 18.1%(매우 잘 앎 1.9%+대체로 아는 편 16.3%), 예방법 21.3%(매우 잘 앎 1.9%+대체로 아는 편 19.4%)임.
- 부상 경험자의 39.4%(전혀 모름 2.5%+잘 모르는 편 36.9%)가 인라인 스케이팅을 하던 중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시 대처방법을 ‘미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예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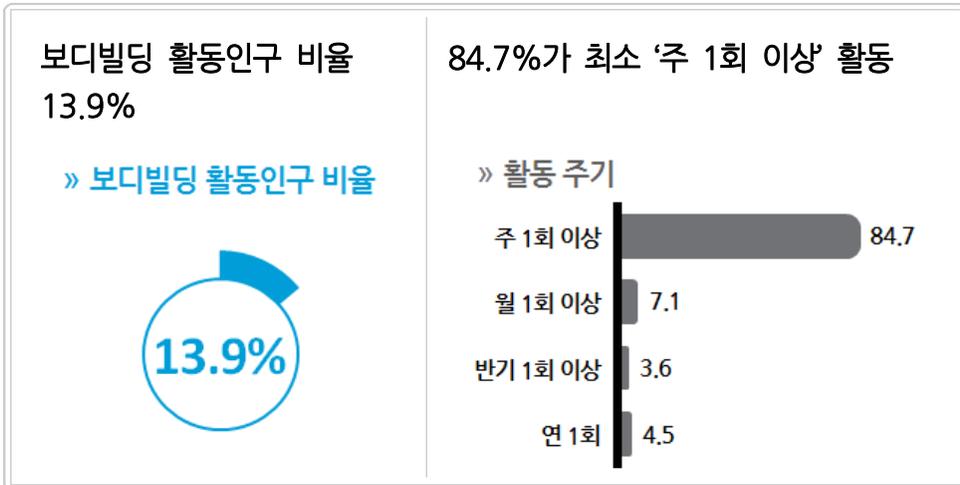
스포츠 안전사고 실태조사 -종합편

역시 ‘미인지’ 비율이 33.1%(전혀 모름 1.3%+잘 모르는 편 31.9%)에 달함.

- 응급처치 요령 인지도는 ‘골절 및 염좌 발생 시 대처요령’(26.9%), ‘근육 경련 발생 시 대처법 인지’(23.8%), ‘심폐소생술 실시요령’(23.1%)순(5점 척도 중 [4]어느 정도 알고 있음, [5]매우 잘 알고 있음의 합산비율 기준).
- 안전사고 응급처치 요령 습득 경로는 ‘인터넷’이 48.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TV’(33.8%), ‘스포츠 전문지도자/숙련자’(16.9%), ‘의료인’(15.6%) 등의 순임.
- 스포츠 안전사고에 대비한 ‘교육을 경험’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30.6%로 조사되었으며, 스포츠 안전사고 대비 교육을 받은 기관은 ‘국가 및 공공기관’(42.9%), ‘대학교의 정규 강좌’(32.7%), ‘동호회/팀’(22.4%) 등의 순임.
- 스포츠 안전사고에 대비 교육을 받지 않은 이유는 ‘교육을 받고 싶었으나 어느 기관에서 교육하는지 몰라서’(38.7%), 스포츠활동 중 부상을 대비한 안전교육이 있는지 몰라서’(36.9%), ‘교육을 필요성을 못 느껴서’(23.4%) 등의 순임.
- 스포츠 안전사고에 대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77.5%(매우 필요 21.3%+필요 56.3%)로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불필요 1.9%)에 비해 현저히 높게 나타남.
- 일반 상해보험 및 공제 가입률이 37.5%, 스포츠 활동 전용 보험 및 공제 가입률은 3.8%에 불과하며 둘 다 미가입 상태인 응답자 비율도 42.5%에 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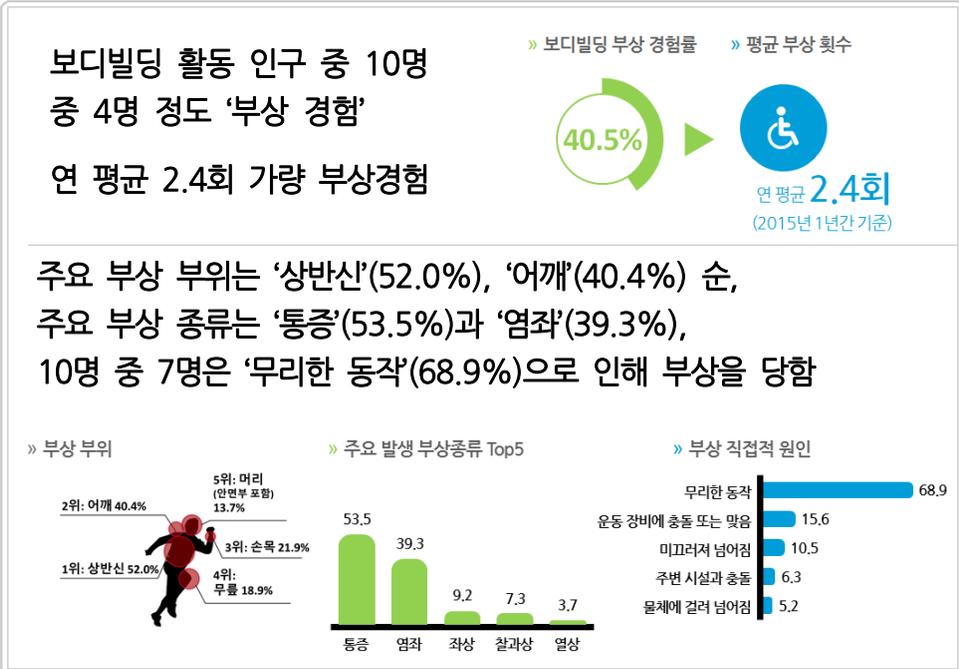
8. 보디빌딩(헬스)

1 생활스포츠 참여 실태



- 최근 1년간 스포츠활동의 일환으로 보디빌딩을 경험한 인구 비율은 13.9%임.
- 전체적으로 10명 중 약 8명 이상(84.7%: 매일 8.1%+주 4~5회 24.0%+주 2~3회 42.4%+주 1회 10.2%)은 최소 주 1회 이상 보디빌딩을 즐기고 있으며, 1회 평균 활동 시간은 79.63분임.
- 보디빌딩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활동을 하는 시간은 '저녁'(18-21시 이전, 47.1%) 시간대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저녁' 시간대에 주로 즐기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됨.
- 보디빌딩 인구 중 절반 이상(51.2%)은 '체육관'에서 보디빌딩을 즐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 부상 발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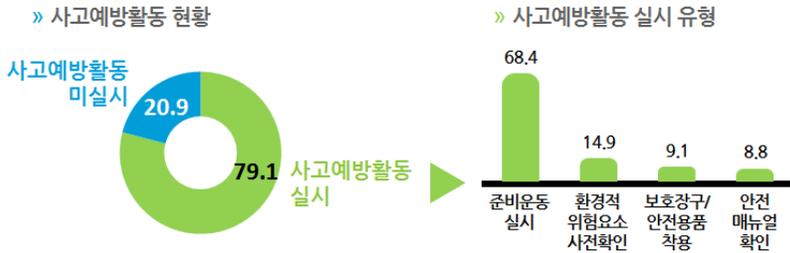
- 보디빌딩 활동인구 전체의 40.5%의 응답자가 심한 부상부터 경미한 부상까지 당한 경험이 있음.
- 보디빌딩 부상 경험은 자주 활동(주 1회 이상 93.1%)하는 사람들일수록, 1회 참여 시 약 74분가량 활동하는 사람들에게서 주로 일어나고 있음.
- 종목 부상 경험자 10명 중 6명 이상(62.8%)은 본인의 보디빌딩 능숙도를 '초급' 정도로 인식하고 있으며 종목 경력 5년 미만인 집단의 구성 비율이 가장 높게(55.5%) 나타남.
- 보디빌딩을 통해 발생하는 부상은 주로 '상반신'(52.0%)과 '어깨'(40.4%), '손목'(21.9%) 순으로 많이 발생하여 상체 전반에 걸쳐 부상이 일어나고 있으며 가장 흔한 부상 유형은 '통증'(53.5%)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염좌'(39.3%), '좌상'(9.2%), '찰과상'(7.3%) 등의 순임.
- 보디빌딩 부상 경험자들이 겪은 여러 부위와 종류를 종합한, 가장 심각했던 부상 유형은 '어깨 통증'(12.2%)임.
 - 전문 체육 지도자 조사 자료 분석 결과 '생활 스포츠인 조사'와 '전문 체육 지도자 조사' 결과 모두 '어깨 통증'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전문 체육 지도자 조사'에서 2순위로 나타

- 난 ‘어깨 염증’은 ‘생활 스포츠인’ 결과에 나타나지 않는 등, 다소 간 결과의 차이를 보임.
- 부상의 직접적 원인으로서는 ‘무리한 동작’이 68.9%로 가장 높게 나타나 보디빌딩을 통해 부상을 입는 사람 10명 중 7명 정도는 무리한 동작을 했기 때문에 부상을 입는 것을 알 수 있음.
 - 연 평균 약 2.4회 가량의 부상을 입고 있음.
 - 보디빌딩의 주 활동 시간대는 ‘저녁’(18-21시 이전) 시간대가 47.1%이고 부상 발생도 ‘저녁’ 시간대가 45.3%로 나타나는 등 주 활동 시간대와 부상 발생 시간대가 유사하게 나타남.

3 부상 발생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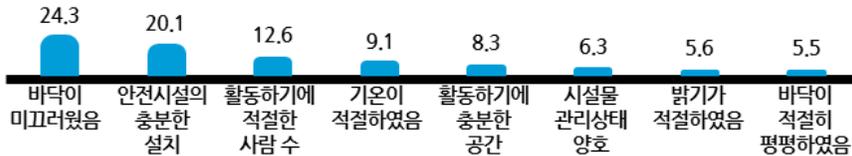
전체적으로 부상경험자들의 사고예방활동은 미흡

부상경험자의 20.9%는 부상 전 아무런 사고예방활동을 실시하지 않음
 실시한 응답자 중에서도 준비운동(68.4%)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20% 미만의 실시율



여러 환경적 요인 중 가장 주요한 문제는 '미끄러운 바닥'(24.3%)과 '충분치 않은 안전시설'(20.1%)

» 부상 장소 환경적 요인(Bottom2: 매우 부정평가+부정평가 합산)



※ 5점 척도로 응답된 결과 중 [1] 매우 부정평가와 [2] 부정평가의 합산 비율을 제시함
 ※ '미끄러운 바닥'은 역척도 문항이므로 Bottom2는 [4]부정평가와 [5]매우 부정평가의 합산 비율임

◎ 부상발생 이전 상황 : 예방활동 측면

- 대부분의 사고예방활동 실시비율에서 가장 높았던 '준비운동'(68.4%)을 제외하면 모두 20% 미만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는 '준비운동'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고예방활동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특히 전문/숙련자가 배석함에 따라 '보호장구 및 안전용품 착용', '환경적 위험요소 확인', '준비운동 실시' 등 사고예방활동을 보다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젊은 층의 사고예방활동이 저조함.
- 장비 착용을 하는 경우, 10명 중 6명 이상(64.6%)은 부상 당시 '손목 보호대'를 착용, 착용한 장비의 전반적 상태는 양호(46.2%)했던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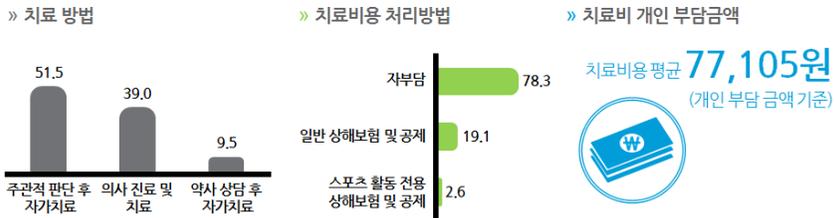
- 환경적 위험요소 확인자의 38.7%(매우 그렇다 8.5%+그런 편 30.2%)가 ‘성실’하게 확인했다고 응답하여 ‘불성실’히 확인 했다는 응답 29.2%(전혀 그렇지 않다 3.8%+그렇지 않은 편 25.5%)보다 높게 나타남.
- 준비운동 실시자는 ‘유연성’(54.3%), ‘근력’(44.3%), ‘심폐지구력’(42.2%) 등 다양한 준비운동을 실시(5점 척도 중 [4]그렇다, [5]매우 그렇다의 합산비율 기준)하고 있음.
- 확인한 안전매뉴얼의 경우 전반적으로 ‘부상 방지에 도움이 되었다’(39.7%)고 평가됨.
- 부상 전 신체상태가 ‘양호’했다는 응답이 23.1%로, ‘비양호’했다는 응답(14.4%)에 비해 높지 않은 편이고, 10명 중 2명만이 신체상태가 양호한 상태에서 운동에 참여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음.

◎ 부상 당시 상황 : 환경적 요인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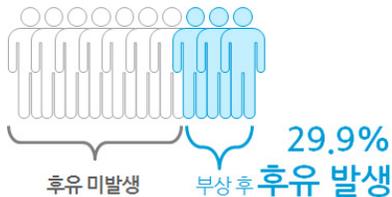
- ‘바벨·덤벨’에서 부상을 당한 응답자가 33.1%로 가장 높고 ‘벤치프레스’(25.4%)와 러닝머신(17.1%)도 비교적 높게 나타나, 이들 세 곳에서 대부분의 부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부상 장소 운영 주체는 ‘민간’시설이 79.0%, ‘공공’시설이 13.2%임.
- 부상 장소에 안전 안내문구·책자 비치여부에 대해, ‘안내문구 및 책자가 비치되었다’는 응답은 30.0%이며 비치된 경우 58.9%는 이를 확인한 것으로 나타남.
- 부상 장소의 환경적 요인을 종합한 결과, ‘바닥이 미끄러웠음’이라는 평가가 24.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안전시설의 충분한 설치’에 대한 부정적 평가(20.1%), ‘활동하기에 적절한 사람 수’에 대한 부정적 평가(12.6%), ‘기온이 적절하였음’에 대한 부정적 평가(9.1%) 등의 순으로 조사됨(5점 척도 중 [1]매우 부정적, [2]부정적의 합산 비율 기준. 단, ‘미끄러운 바닥’은 역척도 문항이므로 Bottom2는 [4]부정평가와 [5]매우 부정평가의 합산 비율).
 - 사이클(56.7%), 벤치프레스(28.2%), 러닝머신(27.0%)의 경우 ‘바닥이 미끄러웠음’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바벨·덤벨(21.6%), 레그프레스(21.1%)는 ‘안전시설의 충분한 설치’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음.
- 부상 경험자 10명 중 약 7명은 부상 당시 ‘지도자 자격증이 있는 전문 지도자’(34.9%)나 ‘해당 종목을 잘 아는 숙련자’(37.6%)가 배석 중이었고, 이 중 지도자가 배석한 경우 절반가량(55.6%)은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 관련 교육을 실시한 반면 숙련자는 배석한 10명 중 4명 정도(39.2%)가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였음.

4 부상 후 대처 및 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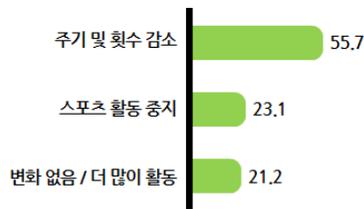
발생된 부상 절반가량(51.5%)은 ‘주관적 판단 후 자가치료’
10명 중 7명 이상(78.3%)은 치료비용을 ‘자부담 처리’
개인 부담금액 기준, 1인 1건당 치료 소요비용은 평균 77,105원



부상 경험자 10명 중
약 3명가량(29.9%)이
부상으로 인해 후유증 발생



10명 중 8명 정도는 부상 이후
스포츠 활동을 줄이거나(55.7%)
중지(23.1%)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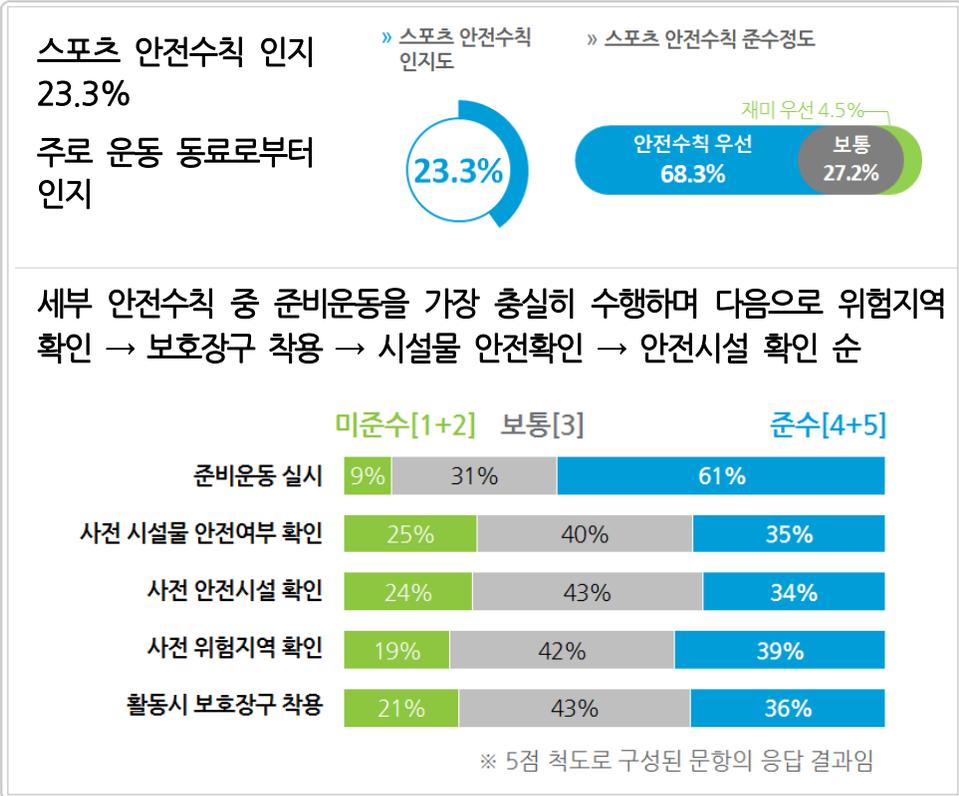


- 염좌, 통증의 경우 ‘냉찜질’을, 찰과상의 경우 ‘소독’을 하여 전반적으로 부상 종류에 적절한 응급 대처를 실시하고 있음.
- 발생한 부상은 ‘주관적 판단 후 자가치료’한 비율이 51.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의사 진료 및 치료’(39.0%), ‘약사 상담 후 자가치료’(9.5%)의 순이며, 부상 경험자 10명 중 7명 이상(78.3%)은 치료비용을 자부담하고, 전체적인 치료비용 개인 부담금액은 평균 77,105원임.
 - 절단, 탈구, 파열 등은 평균 치료비용 개인 부담금액이 높게 나타났고 부상 가료기간이 길수록 치료비용의 개인부담금액 역시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 가료에 필요한 기간은 ‘1-2주’(31.7%)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1주 미만’(24.0%)이며 ‘3-4주’도 20.5%로 비교적 높음.

부록1 - 종목별 주요결과 요약

- 부상 경험자 10명 중 약 3명가량(29.9%)이 부상으로 인해 후유증이 발생함.
- 부상 경험자 10명 중 5명 이상(55.7%)은 부상 후 활동 주기 및 횟수가 감소하였고, 이의 주된 이유는 '신체적 불편함'(64.6%)때문이며 다음으로 '심리적 두려움'(26.5%), '가족 또는 지인의 반대'(4.8%)의 순임.

5 스포츠 안전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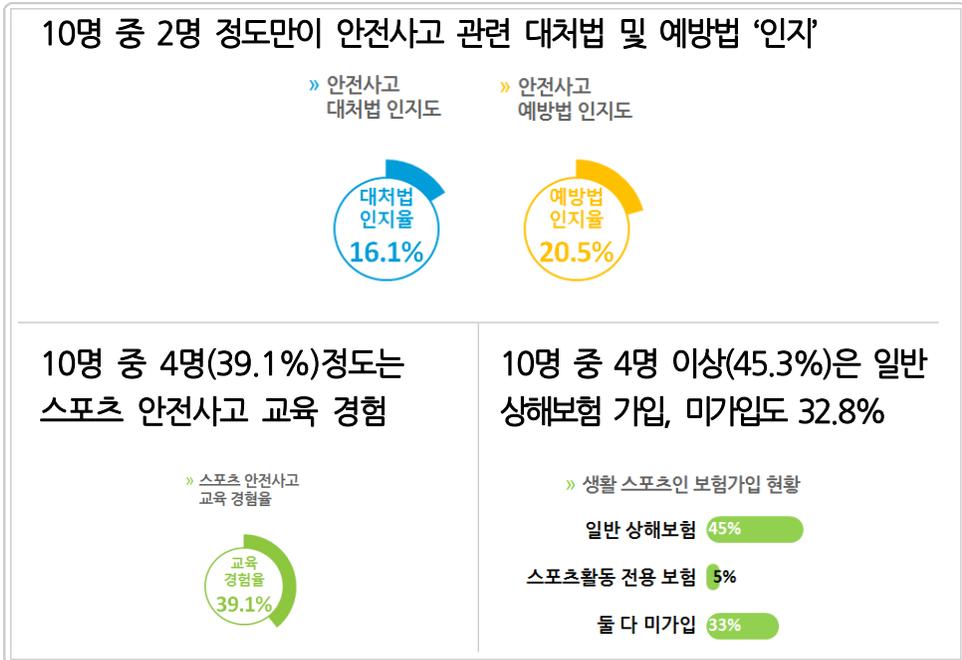


◎ 안전 인식

- 보디빌딩 안전수칙을 ‘인지’하고 있다는 응답은 23.3%(매우 잘 알고 있음 2.1%+대체로 아는 편 21.2%)이며 10명 중 3명 이상(36.1%)은 ‘같이 운동하는 사람’으로부터 안전 수칙을 알게 되었다고 응답함.
 - 전문 체육 지도자의 91.7%는 안전수칙을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특히 ‘교육’을 통한 인지 경로가 100.0%(복수 응답)로 ‘생활 스포츠인’과 차이를 보임.
- 부상 경험자 10명 중 6명 이상(68.3%: 안전 최우선 27.2%+어느 정도 안전 우선 41.1%)은 보디빌딩을 할 때 ‘안전 수칙 준수’를 우선시 함.
- 세부적으로는 ‘사전에 안전시설을 확인한다’는 응답이 33.7%로 가장 낮고, 다음으로 ‘사전에 시설물 안전여부를 확인한다’(35.5%), ‘활동 시 보호장구를 착용한다’(36.0%) 등의 순으로 조사됨(5점 척도 중 [4]그렇다, [5]매우 그렇다의 합산비율 기준).
- 시설물 안전여부 미확인, 안전시설 미확인, 위험지역 미확인 이유 모두 ‘확인하기 귀찮

아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세부 순위에는 전반적으로는 '확인이 중요하지 않은 스포츠'와 '확인 방법을 몰라서'의 이유로 인해 확인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됨.

- 보호장구를 구매하기 위한 지출의향 및 지출수준에 대해서는 단지 2.2%만이 지출의향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1인 평균 연간 지출의향(또는 현재 지출금액)은 약 20만원 선임.



◎ 대처 및 예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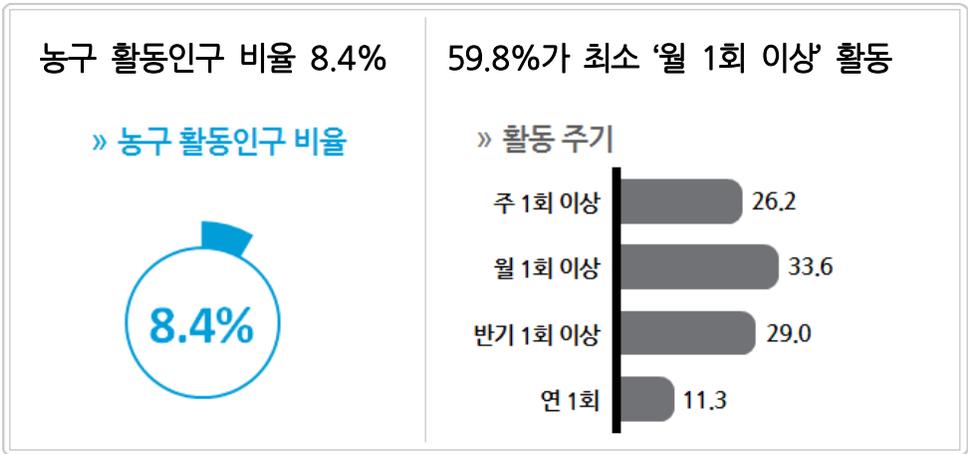
- 부상 경험자의 40.3%(전혀 모름 3.4%+잘 모르는 편 36.9%)가 보디빌딩을 하던 중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시 대처방법을 '미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예방법 역시 '미인지' 비율이 34.4%(전혀 모름 2.4%+잘 모르는 편 32.0%)에 달함.
 - 인지도는 대처법 16.1%(매우 잘 앎 1.8%+대체로 아는 편 14.3%), 예방법 20.5%(매우 잘 앎 1.8%+대체로 아는 편 18.7%)임.
- 응급처치 요령 인지도는 '심폐소생술(CPR) 실시 요령' (37.4%), '골절 및 염좌 발생 시 대처요령'(30.3%), '저체온증 발생 시 대처요령'(24.8%)순임(5점 척도 중 [4]이 넘는 정도 알고 있음, [5]매우 잘 알고 있음의 합산비율 기준).
 - 전문 체육 지도자 조사 결과 절대적인 인지도는 생활스포츠인 대비 매우 높은 수준이며 특히 '심폐소생술(CPR) 실시 요령'의 경우 전문 체육 지도자 전원이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함.

스포츠 안전사고 실태조사 -종합편

- 안전사고 응급처치 요령 습득 경로는 ‘인터넷’이 39.6%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TV’(27.1%), ‘스포츠 전문지도자/숙련자’(24.4%), ‘응급처치 전문기관’(18.2%) 등의 순임.
- 스포츠 안전사고에 대비한 ‘교육을 경험’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39.1%로 조사되었으며, 스포츠 안전사고 대비 교육을 받은 기관은 ‘국가 및 공공기관’(38.0%), ‘대학교의 정규 강좌’(34.8%), ‘동호회/팀’(20.1%) 등의 순임.
- 스포츠 안전사고에 대비 교육을 받지 않은 이유는 ‘스포츠활동 중 부상을 대비한 안전교육이 있는지 몰라서’(43.8%), ‘교육을 받고 싶었으나 어느 기관에서 교육하는지 몰라서’(29.7%), ‘교육을 필요성을 못 느껴서’(25.6%) 등의 순임.
- 스포츠 안전사고에 대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69.7%(매우 필요 17.7%+필요 52.0%)로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 6.5%(전혀 불필요 1.5%+불필요 4.9%)에 비해 현저히 높음.
- ‘일반 상해보험 및 공제’ 가입률이 45.3%, ‘스포츠 활동 전용 보험 및 공제’ 가입률은 4.9%에 불과하며 ‘둘 다 미가입’ 상태인 응답자 비율도 32.8%에 달함.
 - 전문 체육 지도자 조사 결과 ‘가입되어 있지 않다’는 응답이 50.0%,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25.0%로 미가입 케이스가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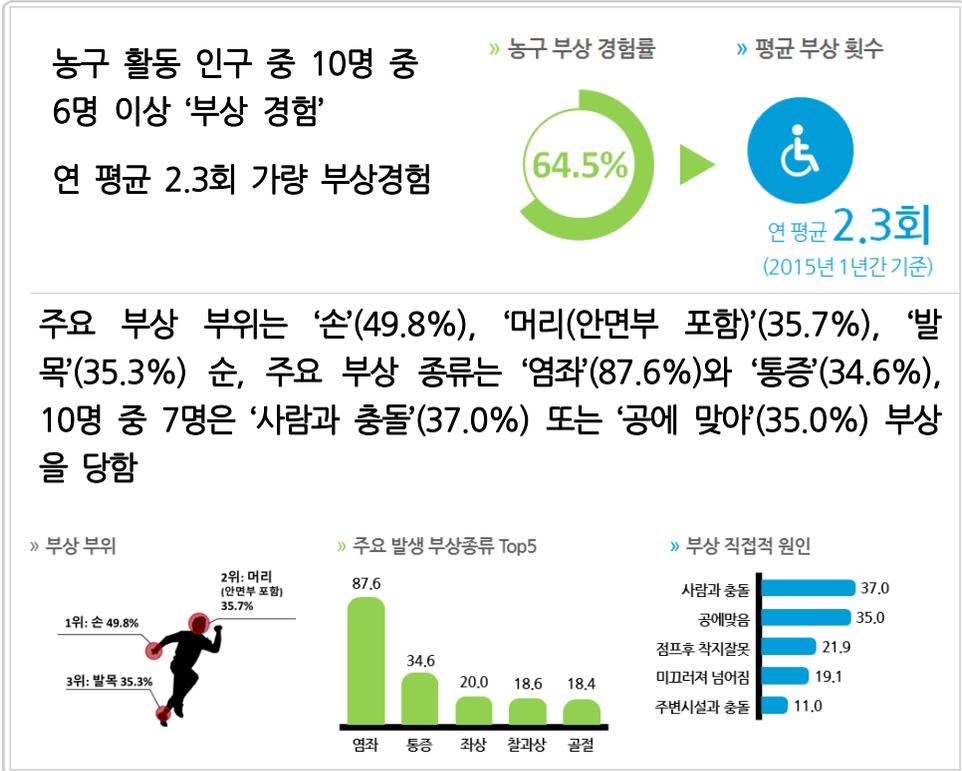
9. 농구

1 생활스포츠 참여 실태



- 최근 1년간 스포츠활동의 일환으로 농구를 경험한 인구 비율은 8.4%임.
- 전체적으로 10명 중 약 6명가량(59.8%: 주 1회 이상 26.2%+월 1회 이상 33.6%)은 최소 월 1회 이상 농구를 즐기고 있으며, 1회 평균 활동시간은 70.49분임.
- 전반적으로 '오후'(15-18시 이전, 26.6%) 시간대와 '저녁'(18-21시 이전, 37.5%) 시간대에 주로 즐기고 있음.
- 농구 인구 10명 중 4명 이상(44.1%)은 '운동장'에서 농구를 즐기고 있음.

2 부상 발생 현황



- 농구 활동 인구 전체의 절반이 넘는 64.5%의 응답자가 심한 부상부터 경미한 부상까지 당한 경험이 있음.
- 농구 부상 경험은 자주 활동(주 1회 이상 46.8%, 월 1회 이상 36.7%)하는 사람들일 수록, 1회 참여 시 약 66분가량 즐기는 사람들에게게서 주로 일어나고 있음.
- 종목 부상 경험자 10명 중 5명 이상(56.7%)은 본인의 농구 능숙도를 '초급' 정도로 인식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활동 경력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농구를 통해 발생하는 부상은 주로 '손'(49.8%)과 '머리(안면부 포함)'(35.7%), '발목'(35.3%) 부위에 주로 일어나고 있으며 가장 흔한 부상 유형은 '염좌'(87.6%), '통증'(34.6%), '좌상'(20.0%) 등의 순임.
- 농구 부상 경험자들이 겪은 여러 부위와 종류를 종합한, 가장 심각했던 부상 유형은 '손가락 염좌'(15.8%)와 '발목 염좌'(15.6%)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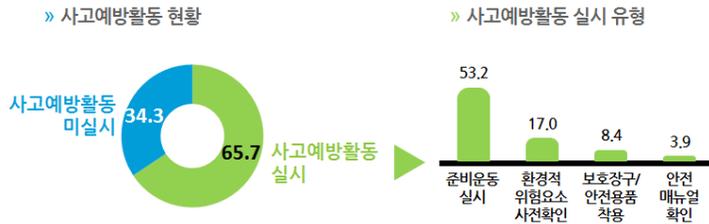
부록1 - 종목별 주요결과 요약

- 전문체육 지도자 조사 및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자료 분석 결과 전문적으로 활동하는 선수(학교 운동부 포함)들의 경우 손가락도 높은 순위이긴 하나 주로 발목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여 일반 생활스포츠인과 차이를 보이나, 주된 부상 종류는 비슷한 경향(염좌 1위)을 보임.
- 부상의 직접적 원인으로는 ‘사람과 충돌’이 37.0%, ‘공에 맞음’이 35.0%로 높게 나타나 농구를 통해 부상을 입는 사람 3명 중 2명은 시합이나 훈련 중 다른 플레이어와의 충돌 혹은 공에 맞아서 부상을 입는 것을 알 수 있음.
- 연 평균 약 2.25회 가량의 부상을 입고 있음.
- 농구의 부상 발생 시각은 주 활동 시간대인 ‘오후’(15-18시 이전)와 ‘저녁’(18-21시 이전) 시간대에 수렴하고 있음.

3 부상 발생 환경

전체적으로 부상경험자들의 사고예방활동은 미흡

부상경험자의 34.3%는 부상 전 아무런 사고예방활동을 실시하지 않음
 실시한 응답자 중에서도 '준비운동'(53.2%)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20% 미만의 실시율



여러 환경적 요인 중 가장 주요한 문제는 '미끄러운 바닥'(34.0%)과 '충분치 않은 안전시설'(29.7%)

» 부상 장소 환경적 요인(Bottom2: 매우 부정평가+부정평가 합산)



※ 5점 척도로 응답된 결과 중 [1] 매우 부정평가와 [2] 부정평가의 합산 비율을 제시함
 ※ '미끄러운 바닥'은 역척도 문항이므로 Bottom2는 [4]부정평가와 [5]매우 부정평가의 합산 비율임

◎ 부상발생 이전 상황 : 예방활동 측면

- 대부분의 사고예방활동 실시비율에서 가장 높았던 '준비운동'(53.2%)을 제외하면 모두 20% 미만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는 준비운동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고예방활동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특히 전문/숙련자가 배석함에 따라 '보호장구 및 안전용품 착용', '환경적 위험요소 확인', '준비운동 실시' 등 사고예방활동을 보다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젊은 층과 남성의 사고예방활동이 저조함.
- 장비 착용을 하는 경우, 10명 중 5명 이상(55.0%)은 부상 당시 '발목 보호대'와 '무릎

보호대'를 착용 중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손목 보호대'는 36.7%로 조사된 가운데, 착용한 장비의 전반적 상태는 '보통' 수준(71.7%)이었던 것으로 나타남.

- 환경적 위험요소 확인자의 24.8%만이 '정신히 확인'할 뿐 나머지는 불성실하거나 형식적 확인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준비운동 실시자는 '유연성'(46.8%), '근력'(40.7%), '심폐지구력'(39.4%) 등 다양한 준비운동을 실시(5점 척도 중 [4]그렇다, [5]매우 그렇다의 합산비율 기준)하고 있으며 전문/숙련자가 배석할수록, 그리고 교육을 실시할수록 심폐지구력 운동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으로 조사됨.
- 확인한 안전매뉴얼의 경우 전반적으로 '부상 방지에 도움이 되었다'(32.1%)고 평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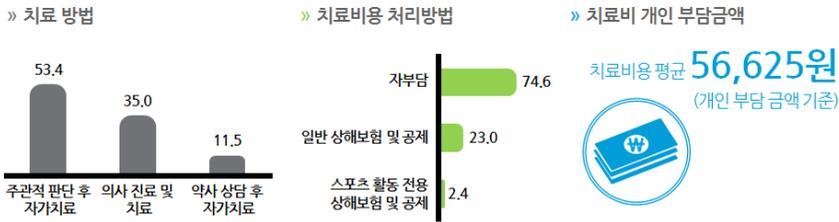
- 부상 전 신체상태가 '양호'했다는 응답이 36.3%로, '비양호'(9.7%)했다는 응답에 비해 3배 이상 높았으나 종합적으로는 10명 중 3명가량만이 신체상태가 양호한 상태에서 운동에 참여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음.

◎ 부상 당시 상황 : 환경적 요인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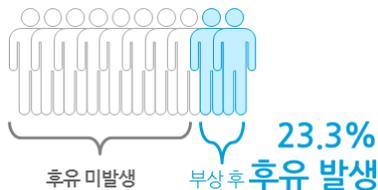
- '야외 코트(우레탄 바닥)'에서 부상을 당한 응답자가 40.5%로 가장 높게 나타나 10건 중 약 4건의 부상은 야외 우레탄 코트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부상 장소 운영 주체는 '공공'시설이 52.0%, '민간'시설이 23.9%임.
- 부상 장소에 안전 안내문구·책자 비치여부에 대해, '안내문구 및 책자가 비치되었다'는 응답은 11.5%이며 비치된 경우 65.0%가 이를 '확인'한 것으로 나타남.
- 부상 장소의 환경적 요인을 종합한 결과, '바닥이 미끄러웠음'이라는 평가가 34.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안전시설의 충분한 설치'에 대한 부정적 평가(29.7%), '시설물 관리상태 양호'에 대한 부정적 평가(16.6%) 등의 순으로 조사됨(5점 척도 중 [1]매우 부정적, [2]부정적의 합산비율 기준. 단, '미끄러운 바닥'은 역척도 문항이므로 Bottom2는 [4]부정평가와 [5]매우 부정평가의 합산 비율).
 - 실내코트(나무)의 경우 '바닥이 미끄러웠음'이라는 의견(41.6%)이 가장 높게 나타남.
- 부상 경험자 10명 중 약 3명 이상 정도는 부상 당시 '지도자 자격증이 있는 전문 지도자'(5.3%)나 '해당 종목을 잘 아는 숙련자'(32.8%)가 배석 중이었고 이 중, 지도자가 배석한 경우 대부분(91.2%)은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 관련 교육을 실시한 반면 숙련자는 배석한 10명 중 2명 정도(17.1%)만이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였음.

4 부상 후 대처 및 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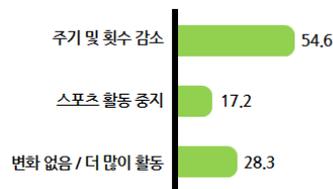
발생된 부상 절반가량(53.4%)은 ‘주관적 판단 후 자가치료’
10명 중 7명 이상(74.6%)은 치료비용을 ‘자부담 처리’
개인 부담금액 기준, 1인 1건당 치료 소요비용은 평균 56,625원



부상 경험자 10명 중
약 2명 이상(23.3%)이
부상으로 인해 후유증 발생



10명 중 7명 정도는 부상 이후
스포츠 활동을 줄이거나(54.6%)
중지(17.2%)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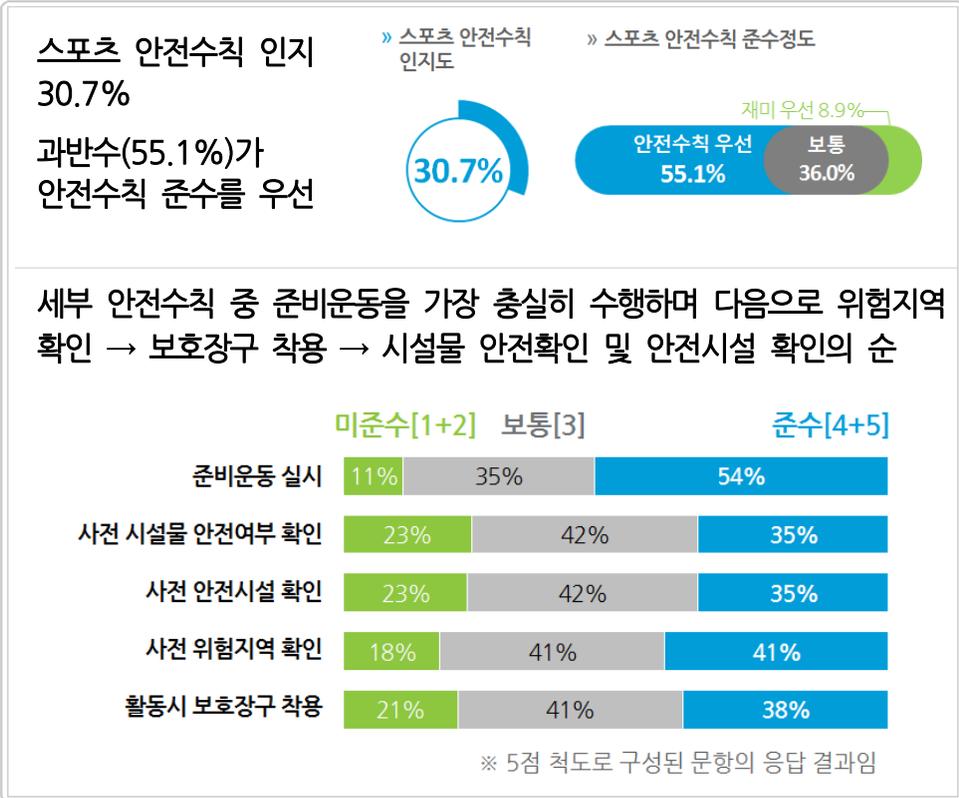


- 염좌의 경우 ‘냉찜질’을, 골절의 경우 ‘압박’을, 열상과 찰과상, 좌상의 경우 ‘소독’을 실시하는 등 전반적으로 부상 종류에 적절한 응급 대처를 실시하고 있음.
- 발생한 부상은 ‘주관적 판단 후 자가치료’한 비율이 53.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의사 진료 및 치료’(35.0%), ‘약사 상담 후 자가치료’(11.5%)의 순이며, 부상 경험자 10명 중 7명 이상(74.6%)은 치료비용을 ‘자부담’하고, 전체적인 치료비용 개인 부담 금액은 평균 56,625원임.

부록1 - 종목별 주요결과 요약

- 골절, 출혈 등의 부상 종류에서 치료비용 개인부담금액이 상대적으로 높고 부상 가료기간이 길수록 치료비용의 개인부담금액 역시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 가료에 필요한 기간은 ‘1-2주’(30.5%)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1주 미만’(24.8%)으로 조사됨.
- 부상 경험자 10명 중 약 2명가량(23.3%)이 부상으로 인해 후유증이 발생함.
 - ‘골절’, ‘탈구’, ‘파열’, ‘열상’, ‘출혈’ 등의 부상에서 후유발생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됨.
- 부상 경험자 10명 중 5명 이상(54.6%)은 부상 후 활동 주기 및 횟수가 감소하였고, 이의 주된 이유는 ‘신체적 불편함’(53.7%) 때문이며 다음으로 ‘심리적 두려움’(32.0%), ‘가족 또는 지인의 반대’(10.8%)의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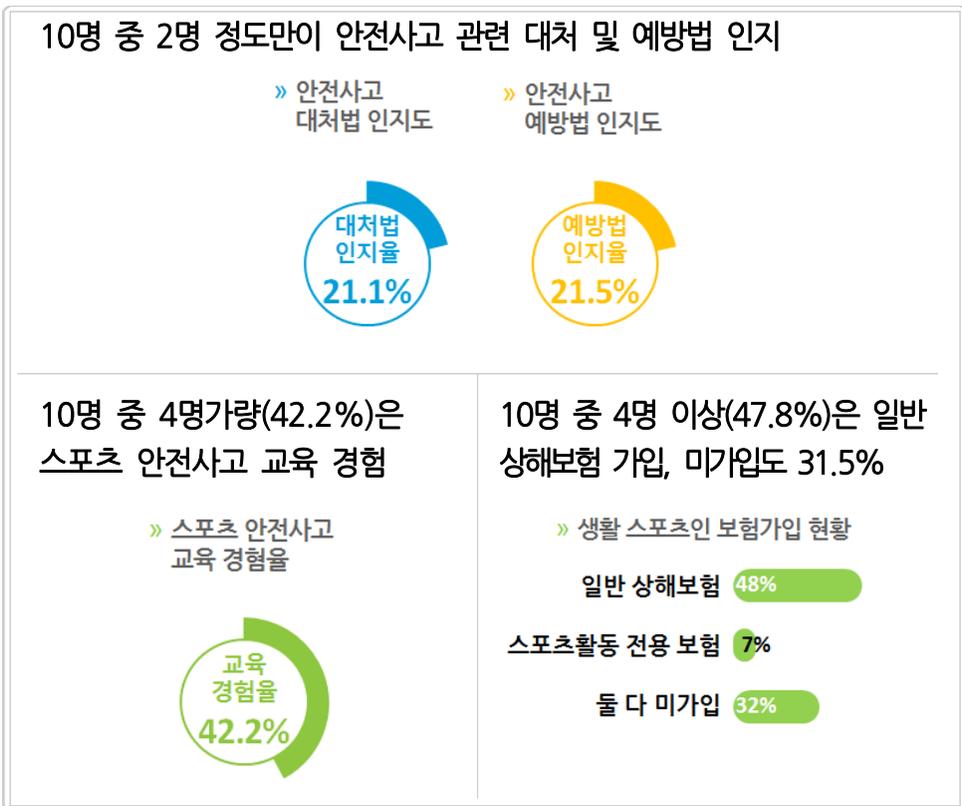
5 스포츠 안전의식



◎ 안전 인식

- 농구 안전수칙을 ‘인지’하고 있다는 응답은 30.7%(매우 잘 알고 있음 3.2%+대체로 아는 편 27.4%)이며 10명 중 4명 이상(42.7%)은 ‘같이 운동하는 사람’으로부터 안전수칙을 알게 되었다고 응답함.
 - 전문 체육지도자의 81.8%는 안전수칙을 인지(매우 잘 알고 있음 36.4%+대체로 아는 편 45.5%)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11명 중 10명(90.9%)은 ‘교육’을 통해 안전수칙을 인지함.
- 부상 경험자 10명 중 5명 이상(55.1%: 안전 최우선 14.5%+어느 정도 안전 우선 40.6%)은 운동을 할 때 ‘안전 수칙 준수’를 우선시 함.
- 세부적으로는 ‘준비 운동을 실시한다’는 응답이 53.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사전에 시설물 안전여부를 확인’(34.9%), ‘사전에 안전시설 확인’(34.9%) 등의 순으로 조사됨(5점 척도 중 [4]그렇다, [5]매우 그렇다의 합산비율 기준).

- 시설물 안전여부 미확인, 안전시설 미확인, 위험지역 미확인 이유 모두 '확인하기 귀찮아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세부 순위에는 소폭 차이가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확인이 중요하지 않은 스포츠'와 '확인 방법을 몰라서'의 이유로 인해 확인을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됨.
- 보호장구를 구매하기 위한 지출의향 및 지출수준에 대해서는 단지 2.0%만이 지출의향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1인 평균 연간 지출의향(또는 현재 지출금액)은 약 30만원 선임.



◎ 대처 및 예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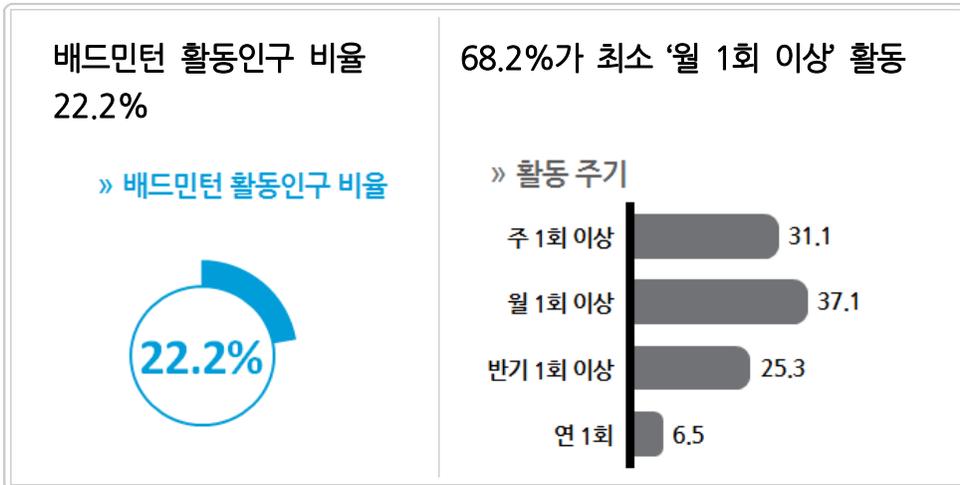
- 농구를 하던 중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시 대처방법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대처법 21.1%(매우 잘 앎 1.4%+대체로 아는 편 19.7%), 예방법 21.5%(매우 잘 앎 1.1%+대체로 아는 편 20.4%)임.

스포츠 안전사고 실태조사 -종합편

- 부상 경험자의 29.8%(전혀 모름 2.7%+잘 모르는 편 27.1%)가 농구를 하던 중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시 대처방법을 ‘미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예방법 역시 ‘미인지’ 비율이 28.6%(전혀 모름 2.5%+잘 모르는 편 26.0%)에 달함.
- 응급처치 요령 인지도는 ‘심폐 소생술’을 알고 있는 경우가 42.1%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골절 및 염좌 발생 시 대처 요령’(34.3%), ‘근육 경련 발생 시 대처 요령’과 ‘저체온증 발생 시 대처 요령’(각 29.3%) 등의 순임(5점 척도 중 [4]어느 정도 알고 있음, [5]매우 잘 알고 있음의 합산비율 기준).
- 전문 체육지도자 조사 결과 전체적인 경향은 비슷하나 절대적인 인지율은 생활스포츠인 대비 매우 높은 수준으로 차이를 보임.
- 안전사고 응급처치 요령 습득 경로는 ‘인터넷’이 40.1%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스포츠 전문지도자/숙련자’(23.8%), ‘TV’(23.5%), ‘응급처치 전문기관’(23.2%) 등의 순임.
- 스포츠 안전사고에 대비한 ‘교육을 경험’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42.2%로 조사되었으며, 스포츠 안전사고 대비 교육을 받은 기관은 ‘국가 및 공공기관’(41.7%), ‘대학교의 정규 강좌’(32.7%), ‘동호회/팀’(26.0%) 등의 순임.
- 스포츠 안전사고에 대비 교육을 받지 않은 이유는 ‘교육을 받고 싶었으나 어느 기관에서 교육하는지 몰라서’(35.5%), ‘스포츠활동 중 부상을 대비한 안전교육이 있는지 몰라서’(35.3%), ‘교육을 필요성을 못 느껴서’(29.0%) 등의 순임.
- 스포츠 안전사고에 대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64.0%(매우 필요 17.0%+필요 47.0%)로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 6.6%(전혀 불필요 1.7%+불필요 4.9%)에 비해 현저히 높음.
- ‘일반 상해보험 및 공제’ 가입률이 47.8%, ‘스포츠 활동 전용 보험 및 공제’ 가입률은 7.3%에 불과하며 ‘둘 다 미가입’ 상태인 응답자 비율도 31.5%에 달함.
- 전문 체육지도자 조사 결과 응답한 지도자 11명(팀, 단체) 중 10명은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공제 및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10. 배드민턴

1 생활스포츠 참여 실태



- 최근 1년간 스포츠활동의 일환으로 배드민턴을 경험한 인구 비율은 22.2%임.
- 전체적으로 10명 중 약 6명 이상(68.2%: 주 1회 이상 31.1%+월 1회 이상 37.1%)은 최소 월 1회 이상 배드민턴을 즐기고 있으며, 1회 평균 활동시간은 62.90분임.
- 주로 저녁 시간대(18-21시 이전, 42.7%)에 배드민턴을 즐기고 있음.
- 배드민턴 인구 10명 중 3명 이상은 산, 도로, 공원 등 '전용시설 외 장소'(37.6%)와 '체육관'(30.5%)에서 배드민턴을 즐기고 있음.

2 부상 발생 현황

배드민턴 활동 인구 중 10명
중 3명 이상 부상 경험
연 평균 1.8회가량 부상경험

» 배드민턴 부상 경험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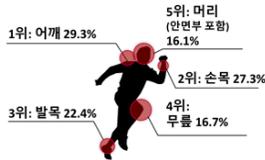
» 평균 부상 횟수



연 평균 **1.8회**
(2015년 1년간 기준)

주요 부상 부위는 '어깨'(29.3%), '손목'(27.3%) 순,
주요 부상 종류는 '통증'(49.6%)과 '염좌'(46.0%),
10명 중 4명은 '무리한 동작'(44.5%)으로 인해 부상을 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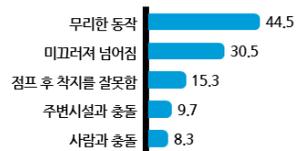
» 부상 부위



» 주요 발생 부상종류 Top5



» 부상 직접적 원인



- 33.0%의 응답자가 심한 부상부터 경미한 부상까지 당한 경험이 있음.
- 배드민턴 부상 경험은 자주 활동(주 1회 이상 60.1%, 월 1회(월 2-3회 포함) 이상 28.7%)하는 사람들일수록, 1회 참여 시 약 63분 정도 즐기는 사람들에게서 주로 일어나고 있음.
- 종목 부상 경험자 10명 중 6명 이상(69.3%)은 본인의 배드민턴 능숙도를 '초급' 정도로 인식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활동 경력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배드민턴의 부상 부위는 '어깨'(29.3%)가 가장 높고, '손목'(27.3%), '발목'(22.4%), '무릎'(16.7%) 등 관절부위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가장 흔한 부상 유형은 '통증'(49.6%), '염좌'(46.0%), '찰과상'(14.1%), '좌상'(10.6%) 등의 순임.
- 배드민턴 부상 경험자들이 겪은 여러 부위와 종류를 종합한, 가장 심각했던 부상 유형은 '발목 염좌'(14.3%)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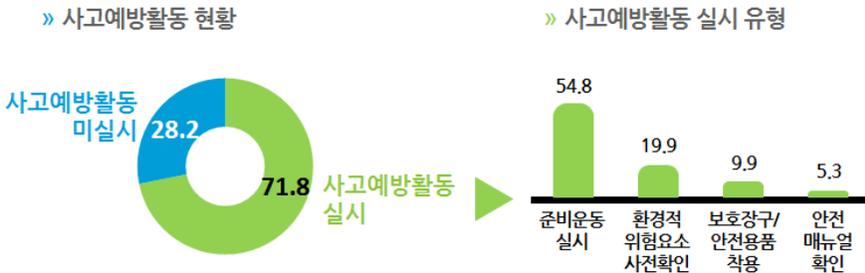
부록1 - 종목별 주요결과 요약

-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자료 분석 결과 전문적으로 활동하는 선수(학교 운동부 포함)들의 경우 주로 발생하는 부상 부위 및 종류, 이를 종합한 부상유형 모두 생활체육인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음.
- 부상의 직접적 원인으로는 ‘무리한 동작’이 44.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미끄러져 넘어짐’(30.5%), ‘점프 후 착지를 잘못함’(15.3%), ‘주변 시설과 충돌’(9.7%), ‘사람과 충돌’(8.3%) 등의 순으로 조사됨.
- 연 평균 약 1.75회가량의 부상을 입고 있음.
- 배드민턴의 주 활동 시간대는 저녁 시간대(18-21시 이전, 42.7%)와 오후 시간대(15-18시 이전, 20.1%)인 것으로 나타남.
 - 부상 발생 시간대는 주 활동 시간대에 수렴하는 결과를 보여 활동 인구가 집중되는 시간대에 부상도 많이 발생하는 정상적인 패턴을 보이고 있음.

3 부상 발생 환경

전체적으로 부상경험자들의 사고예방활동은 미흡

부상경험자의 28.2%는 부상 전 아무런 사고예방활동을 실시하지 않음
 실시한 응답자 중에서도 '준비운동'(54.8%)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20% 미만의 실시율



여러 환경적 요인 중 가장 주요한 문제는 '미끄러운 바닥'(29.0%)과 '충분치 않은 안전시설'(23.2%)

» 부상 장소 환경적 요인(Bottom2: 매우 부정평가+부정평가 합산)



※ 5점 척도로 응답된 결과 중 [1] 매우 부정평가와 [2] 부정평가의 합산 비율을 제시함
 ※ '미끄러운 바닥'은 역척도 문항이므로 Bottom2는 [4]부정평가와 [5]매우 부정평가의 합산 비율임

◎ 부상발생 이전 상황 : 예방활동 측면

- 대부분의 사고예방활동 실시비율에서 가장 높았던 '준비운동'(54.8%)을 제외하면 모두 20% 미만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는 준비운동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고예방활동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특히 전문/숙련자가 배석함에 따라 '보호장구 및 안전용품 착용', '환경적 위험요소 확인', '준비운동 실시' 등 사고예방활동을 보다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음.
 - 장비 착용을 하는 경우, 10명 중 6명 정도(59.2%)는 부상 당시 '손목 보호대'를 착용,

착용한 장비의 전반적 상태는 양호(35.2%)했던 것으로 나타남.

- 환경적 위험요소 확인자의 26.1%만이 성실히 확인할 뿐 나머지는 불성실하거나 형식적 확인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준비운동 실시자는 ‘유연성’(48.3%), ‘근력’(39.1%), ‘심폐지구력’(34.8%) 등 다양한 준비운동을 실시(5점 척도 중 [4]그렇다, [5]매우 그렇다의 합산비율 기준)하고 있으며 전문/숙련자가 배석할수록, 그리고 교육을 실시할수록 준비운동 역시 더 충실히 수행하는 것으로 조사됨.
- 확인한 안전매뉴얼의 경우 전반적으로 ‘부상 방지에 도움이 되었다’(31.6%)고 평가됨.
- 부상 전 신체상태가 ‘양호’했다는 응답이 31.9%로, ‘비양호’했다는 응답(11.8%)에 비해 높았으나 종합적으로는 10명 중 3명만이 신체상태가 양호한 상태에서 운동에 참여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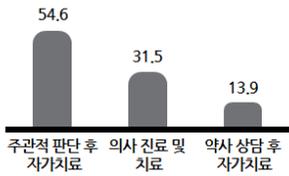
◎ 부상 당시 상황 : 환경적 요인 측면

- ‘실내 코트(나무바닥)’에서 부상을 당한 응답자가 45.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운동장/공원(흙)’(20.4%), ‘야외 코트(콘크리트/시멘트 바닥)’(17.4%)순이며 부상 장소 운영 주체는 ‘공공’시설이 50.0%, ‘민간’시설이 28.9%임.
- 부상 장소에 안전 안내문구·책자 비치여부에 대해, ‘안내문구 및 책자가 비치되었다’는 응답은 16.5%이며 비치된 경우 60.2%는 이를 확인한 것으로 나타남.
- 부상 장소의 환경적 요인을 종합한 결과, ‘바닥이 미끄러웠음’에 대한 평가가 29.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안전시설의 충분한 설치’에 대한 부정적 평가(23.2%), ‘기온이 적절하였음’에 대한 부정적 평가(12.9%) 등의 순으로 조사됨(5점 척도 중 [1]매우 부정적, [2]부정적의 합산비율 기준. 단, ‘미끄러운 바닥’은 역척도 문항이므로 Bottom2는 [4]부정평가와 [5]매우 부정평가의 합산 비율).
- 실내 코트(나무바닥)와 야외 코트(우레탄바닥)의 경우 ‘바닥이 미끄러웠음’에 대한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음.
- 야외 코트(콘크리트/시멘트 바닥)와 운동장/공원(흙)의 경우 ‘안전시설의 충분한 설치’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음.
- 부상 경험자 10명 중 약 5명은 부상 당시 ‘지도자 자격증이 있는 전문 지도자’(8.7%)나 ‘해당 종목을 잘 아는 숙련자’(42.1%)가 배석 중이었고 이 중, 지도자가 배석한 경우 대부분(71.4%)은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 관련 교육을 실시한 반면 숙련자는 배석한 10명 중 2-3명 정도(25.0%)만이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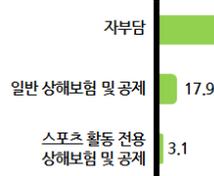
4 부상 후 대처 및 경과

발생된 부상 절반가량(54.6%)은 ‘주관적 판단 후 자가치료’
 10명 중 8명가량(79.0%)은 치료비용을 ‘자부담 처리’
 개인 부담금액 기준, 1인 1건당 치료 소요비용은 평균 47,111원

» 치료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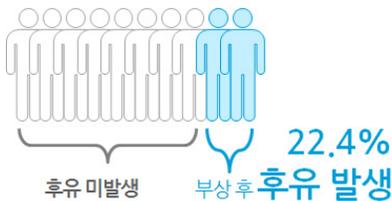
» 치료비용 처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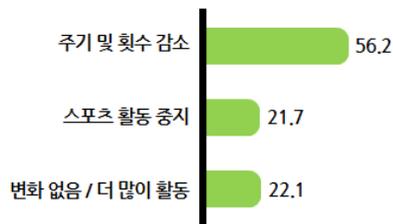
» 치료비 개인 부담금액



부상 경험자 10명 중
 약 2명가량(22.4%)이
 부상으로 인해 후유증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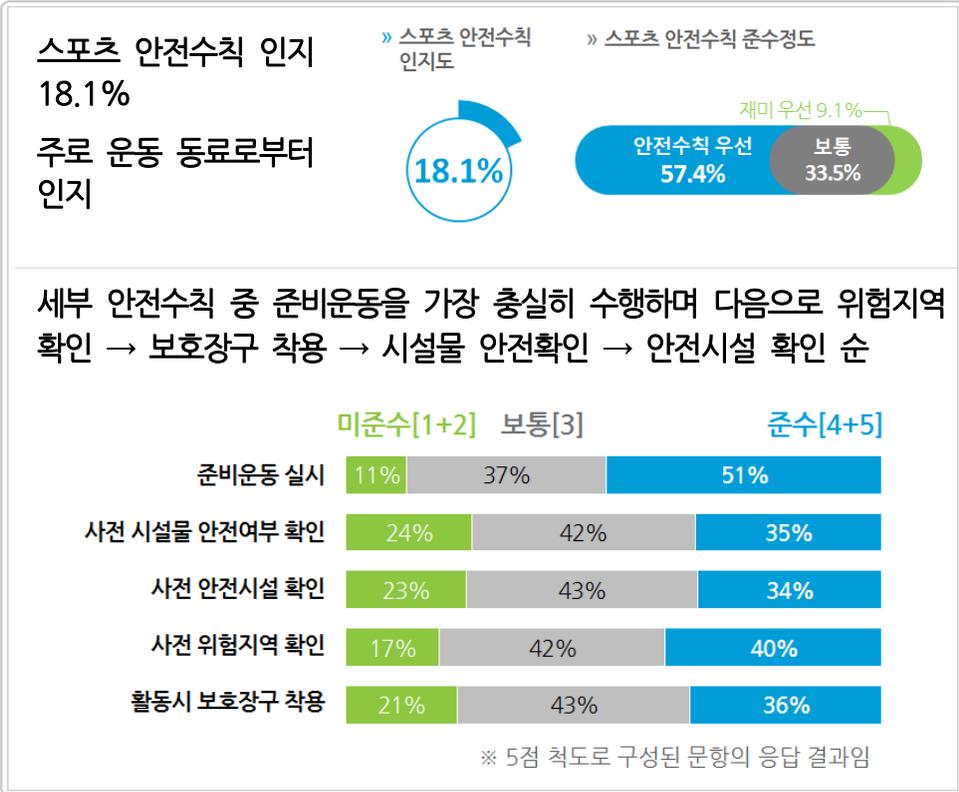
10명 중 8명 정도는 부상 이후
 스포츠 활동을 줄이거나(56.2%)
 중지(21.7%)함



- 염좌, 좌상, 통증, 염증의 경우 ‘냉찜질’을, 골절의 경우 ‘압박’을, 찰과상과 출혈의 경우 ‘소독’을 실시하는 등 전반적으로 부상 종류에 적절한 응급 대처를 실시함.
- 발생한 부상은 ‘주관적 판단 후 자가치료’한 비율이 54.6%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의사 진료 및 치료’(31.5%), ‘의사 상담 후 자가치료’(13.9%)의 순이며, 부상 경험자 10명 중 8명가량(79.0%)은 치료 비용을 자부담하고, 전체적인 치료비용 개인 부담 금액은 평균 47,111원임.
 - 골절, 탈구, 파열 등의 부상 종류에서 치료비용 개인부담금액이 상대적으로 높고 부상 가료기간이 길수록 치료비용의 개인부담금액 역시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 가료에 필요한 기간은 '1-2주'(32.7%)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1주 미만'(26.2%)이며 '3-4주'도 16.2%로 비교적 높음.
- 부상 경험자 10명 중 약 2명가량(22.4%)이 부상으로 인해 후유증이 발생함.
 - 골절, 파열, 염증 부상에서 후유발생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되었으며 이로 인한 후유증의 심각도 역시 타 종류 대비 높음.
- 부상 경험자 10명 중 5명 이상(56.2%)은 부상 후 활동 주기 및 횟수가 감소하였고, 이의 주된 이유는 '신체적 불편함'(60.3%)때문이며 다음으로 '심리적 두려움'(26.3%), '가족 또는 지인의 반대'(9.5%)의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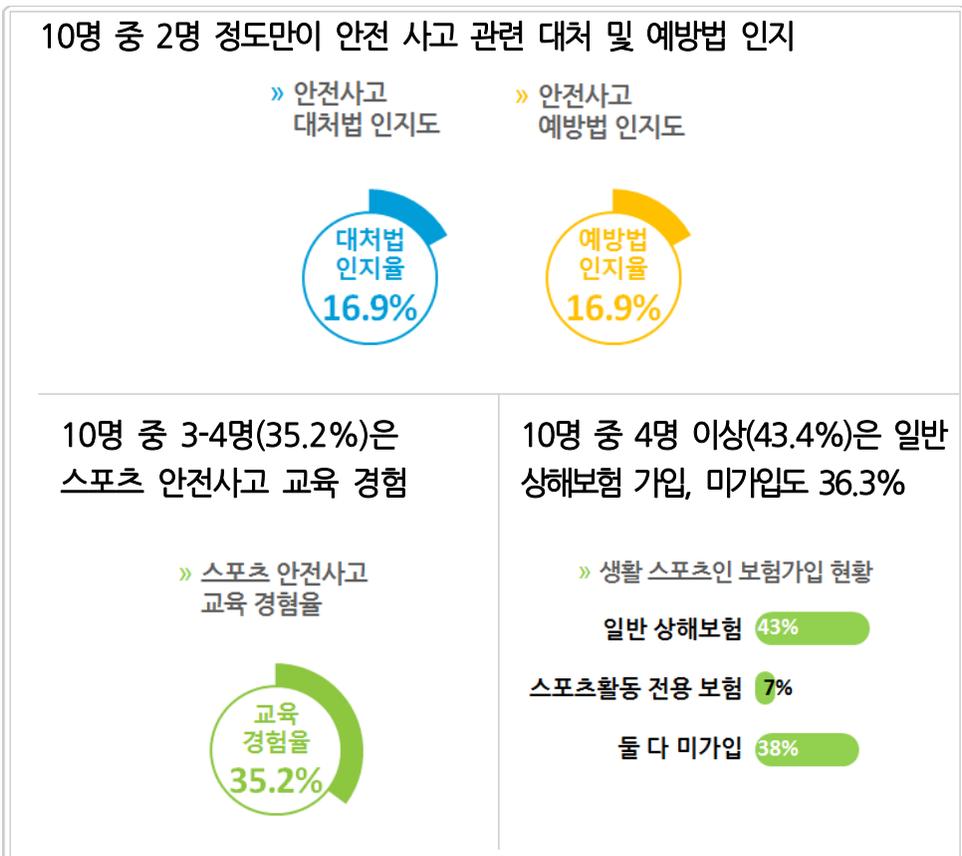
5 스포츠 안전의식



◎ 안전 인식

- 배드민턴 안전수칙을 ‘인지’하고 있다는 응답은 18.1%(매우 잘 알고 있음 0.6%+대체로 아는 편 17.5%)이며 10명 중 5명(55.8%)은 ‘같이 운동하는 사람’으로부터 안전수칙을 알게 되었다고 응답함.
- 부상 경험자 10명 중 5명 이상(57.4%: 안전 최우선 16.5%+어느 정도 안전 우선 40.9%)은 운동을 할 때 ‘안전 수칙 준수’를 우선시 함.
- 세부적으로는 ‘준비 운동을 실시한다’는 응답이 51.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사전에 위험지역 확인’(40.3%), ‘활동 시 보호장구 착용’(35.7%), 등의 순으로 조사됨(5점 척도 중 [4]그렇다, [5]매우 그렇다의 합산비율 기준).

- 시설물 안전여부 미확인, 안전시설 미확인, 위험지역 미확인 이유 모두 '확인하기 귀찮아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세부 순위에는 소폭 차이가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확인이 중요하지 않은 스포츠'와 '확인 방법을 몰라서'의 이유로 인해 확인을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됨.
- 보호장구를 구매하기 위한 지출의향 및 지출수준에 대해서는 단 2.7%만이 지출의향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1인 평균 연간 지출의향(또는 현재 지출금액)은 약 21만원 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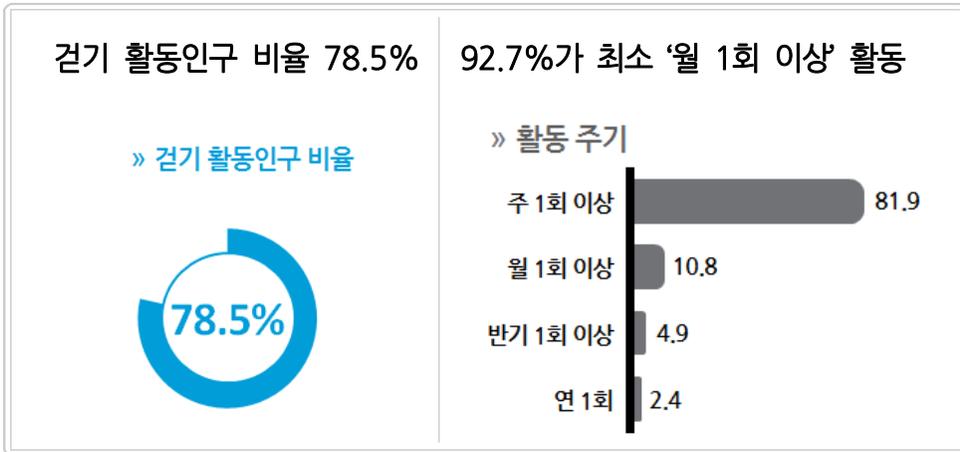


◎ 대처 및 예방

- 배드민턴을 하던 중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시 대처방법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대처법 16.9%(매우 잘 앎 1.1%+대체로 아는 편 15.8%), 예방법 16.9%(매우 잘 앎 1.1%+대체로 아는 편 15.8%)임.
 - 부상 경험자의 37.5%(전혀 모름 3.9%+잘 모르는 편 33.6%)가 ‘미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예방법 역시 ‘미인지’ 비율이 33.8%(전혀 모름 3.6%+잘 모르는 편 30.1%)에 달함.
- 응급처치 요령 인지도는 ‘심폐소생술 실시요령’(35.4%), ‘골절 및 염좌 발생 시 대처요령’(27.6%), ‘저체온증 발생 시 대처요령’(26.2%) 순임(5점 척도 중 [4]어느 정도 알고 있음, [5]매우 잘 알고 있음의 합산비율 기준)
- 안전사고 응급처치 요령 습득 경로는 ‘인터넷’이 35.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TV’(27.3%), ‘스포츠 전문지도자/숙련자’(21.8%), ‘응급처치 전문기관’(19.7%) 등의 순임.
- 스포츠 안전사고에 대비한 ‘교육을 경험’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35.2%로 조사되었으며, 스포츠 안전사고 대비 교육을 받은 기관은 ‘국가 및 공공기관’(34.7%), ‘대학교의 정규 강좌’(25.9%), ‘동호회/팀’(25.5%) 등의 순임.
- 스포츠 안전사고에 대비 교육을 받지 않은 이유는 ‘스포츠활동 중 부상을 대비한 안전교육이 있는지 몰라서’(38.4%), ‘교육을 받고 싶었으나 어느 기관에서 교육하는지 몰라서’(32.4%), ‘교육을 필요성을 못 느껴서’(27.6%) 등의 순임.
- 스포츠 안전사고에 대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66.5%(매우 필요 16.7%+필요 49.9%)로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 6.7%(전혀 불필요 1.0%+불필요 5.7%)에 비해 현저히 높게 나타남.
- 일반 상해보험 및 공제 가입률이 43.4%, 스포츠 활동 전용 보험 및 공제 가입률은 6.6%에 불과하며 둘 다 미가입 상태인 응답자 비율도 38.4%에 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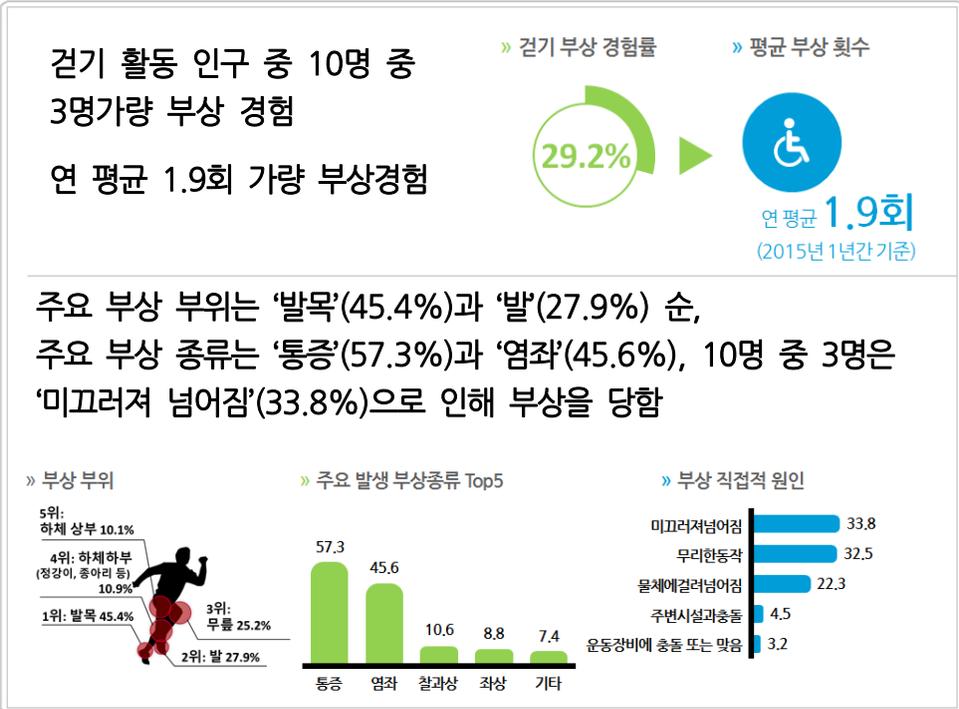
11. 걷기

1 생활스포츠 참여 실태



- 최근 1년간 스포츠활동의 일환으로 걷기를 경험한 인구 비율은 78.5%임.
- 전체적으로 10명 중 약 9명 이상(92.7%: 주 1회 이상 81.9%+월 1회 이상 10.8%)은 최소 월 1회 이상 걷기를 즐기고 있으며, 1회 평균 활동시간은 64.33분임.
- '저녁'(18-21시 이전 32.2%)과 '오전'(09-12시 이전 18.0%)시간대에 주로 즐기고 있음.
- 걷기 인구 10명 중 7명 이상(72.5%)은 산, 도로, 공원 등 '전용시설 외 장소'에서 걷기를 즐기고 있음.

2 부상 발생 현황



- 걷기 활동인구 10명 중 3명인 29.2%의 응답자가 심한 부상부터 경미한 부상까지 당한 경험이 있음.
- 걷기 부상 경험은 자주 활동(주 1회 이상 81.2%, 월 1회(월 2-3회 포함) 이상 10.2%) 하는 사람들일수록, 1회 참여 시 약 61분 정도 즐기는 사람들에게서 주로 일어나고 있음.
- 종목 부상 경험자 10명 중 7명 이상(70.1%)은 본인의 걷기 능숙도를 '초급' 정도로 인식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활동 경력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걷기를 통해 발생하는 부상은 주로 '발목'(45.4%)과 '하반신 전반(발, 무릎, 하체 하부, 하체 상부)'에 걸쳐 일어나고 있으며 가장 흔한 부상 유형은 '통증'(57.3%), '염좌'(45.6%), '찰과상'(10.6%), '좌상'(8.8%) 등의 순임.
- 걷기 부상 경험자들이 겪은 여러 부위와 종류를 종합한, 가장 심각했던 부상 유형은 '발목 염좌'(30.3%)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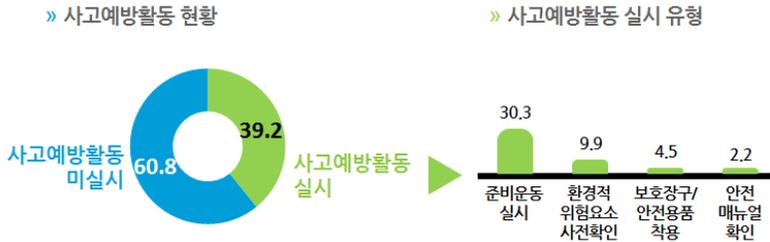
부록1 - 종목별 주요결과 요약

- 부상의 직접적 원인으로는 ‘미끄러져 넘어짐’이 33.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무리한 동작’(32.5%), ‘물체에 걸려 넘어짐’(22.3%), ‘주변 시설과 충돌’(4.5%) 등의 순임.
- 연 평균 약 1.9회 가량의 부상을 입고 있음.
- 걷기의 주 활동 시간대는 ‘저녁’(18-21시 이전 32.2%)과 ‘오전’(09-12시 이전 18.0%)시간대인 것으로 나타남.
 - 부상 발생 시간대는 주 활동 시간대에 수렴하는 결과를 보여 활동 인구가 집중되는 시간대에 부상도 많이 발생하는 정상적인 패턴을 보이고 있음.

3 부상 발생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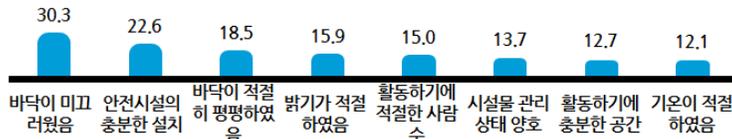
전체적으로 부상경험자들의 사고예방활동은 미흡

부상경험자의 60.8%는 부상 전 아무런 사고예방활동을 실시하지 않음
 실시한 응답자 중에서도 '준비운동'(30.3%)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10% 미만의 실시율



여러 환경적 요인 중 가장 주요한 문제는 '미끄러운 바닥'(30.3%)과 '충분치 않은 안전시설'(22.6%)

» 부상 장소 환경적 요인(Bottom2: 매우 부정평가+부정평가 합산)



※ 5점 척도로 응답된 결과 중 [1] 매우 부정평가와 [2] 부정평가의 합산 비율을 제시함
 ※ '미끄러운 바닥'은 역척도 문항이므로 Bottom2는 [4]부정평가와 [5]매우 부정평가의 합산 비율임

◎ 부상발생 이전 상황 : 예방활동 측면

○ 대부분의 사고예방활동 실시비율에서 가장 높았던 '준비운동'(30.3%)을 제외하면 모두 10% 미만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는 준비운동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고예방활동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특히 전문/숙련자가 배석함에 따라 '보호장구 및 안전용품 착용', '환경적 위험요소 확인', '준비운동 실시' 등 사고예방활동을 보다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젊은 층의 사고예방활동이 저조함.
- 장비 착용을 하는 경우, 10명 중 6명 이상(64.3%)은 부상 당시 '발목 보호대'를 착용, 착용한 장비의 전반적 상태는 '양호'(35.7%)했던 것으로 나타남.

- 환경적 위험요소 확인자의 32.1%만이 성실히 확인할 뿐 나머지는 불성실하거나 형식적 확인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준비운동 실시자는 ‘유연성’(48.4%), ‘심폐지구력’(43.2%), ‘근력’(32.6%) 등 다양한 준비운동을 실시(5점 척도 중 [4]그렇다, [5]매우 그렇다의 합산비율 기준)하고 있음.
- 확인한 안전매뉴얼의 경우 전반적으로 ‘부상 방지에 도움이 되었다’(28.6%)고 평가됨.
- 부상 전 신체상태가 ‘양호’했다는 응답이 26.4%로, ‘비양호’했다는 응답(9.9%)에 비해 높았으나 종합적으로는 10명 중 3명만이 신체상태가 양호한 상태에서 운동에 참여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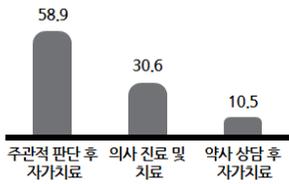
◎ 부상 당시 상황 : 환경적 요인 측면

- ‘하천변 산책로’에서 부상을 당한 응답자가 37.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운동장/공원’(26.8%), ‘인도’(26.1%) 순으로 나타나 이들 장소에서 대부분의 부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부상 장소 운영 주체는 ‘공공’시설이 52.2%, ‘민간’시설이 9.9%임.
- 부상 장소에 안전 안내문구 및 책자 비치여부에 대해, ‘안내문구 및 책자가 비치되었다’는 응답은 7.6%이며 비치된 경우 61.9%는 이를 확인한 것으로 나타남.
- 부상 장소의 환경적 요인을 종합한 결과, ‘바닥이 미끄러웠음’에 대한 평가가 30.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안전시설의 충분한 설치’에 대한 부정적 평가(22.6%), ‘바닥이 적절히 평평하였음’에 대한 부정적 평가(18.5%) 등의 순으로 조사됨(5점 척도 중 [1]매우 부정적, [2]부정적의 합산비율 기준. 단, ‘미끄러운 바닥’은 역척도 문항이므로 Bottom2는 [4]부정평가와 [5]매우 부정평가의 합산 비율).
 - 운동장/공원(26.2%), 하천변 산책로(36.1%)의 경우 ‘바닥이 미끄러웠음’에 대한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음.
 - 반면, 인도의 경우 ‘안전시설의 충분한 설치’(39.0%)와 ‘바닥이 적절히 평평하였음’(35.4%)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높게 나타남.
- 부상 경험자 10명 중 약 8명은 부상 당시 ‘지도자 자격증이 있는 전문 지도자’(4.7%)나 ‘해당 종목을 잘 아는 숙련자’(12.3%)가 배석 중이었고 이 중, 지도자가 배석한 경우 과반수 이하(40.0%)만이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 관련 교육을 실시’하였고 숙련자는 배석한 10명 중 5명 정도(53.8%)가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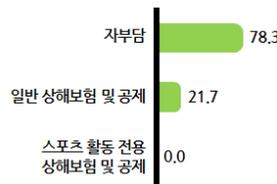
4 부상 후 대처 및 경과

발생된 부상 절반 가량(58.9%)은 '주관적 판단 후 자가치료'
10명 중 7명 이상(78.3%)은 치료비용을 '자부담 처리'
개인 부담금액 기준, 1인 1건당 치료 소요비용은 평균 52,202원

» 치료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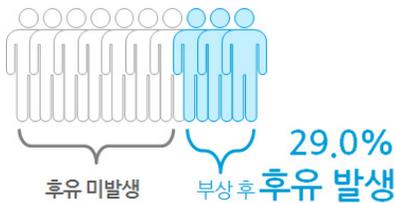
» 치료비용 처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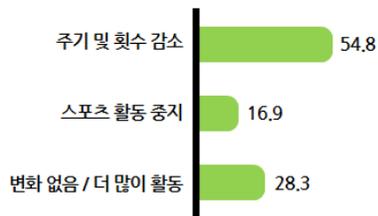
» 치료비 개인 부담금액



부상 경험자 10명 중
약 3명가량(29.0%)이
부상으로 인해 후유증 발생



10명 중 7명 정도는 부상 이후
스포츠 활동을 줄이거나(54.8%)
중지(16.9%)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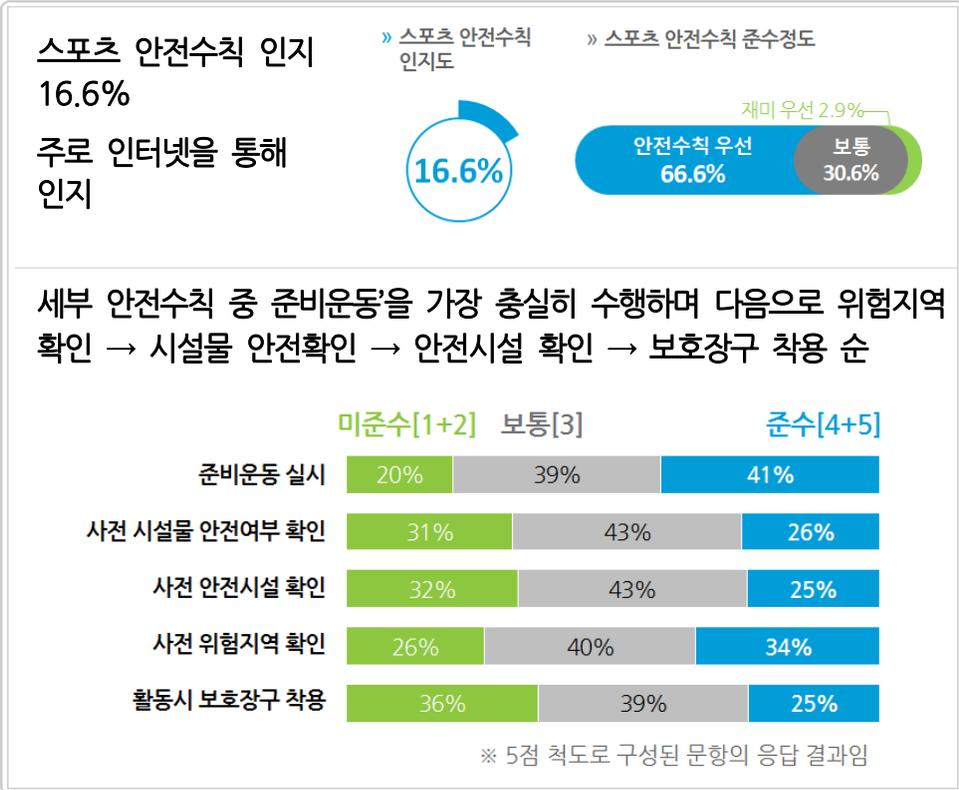


- 대부분의 부상 종류에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는데, 전반적으로 부상 종류와 관련된 적절한 응급 대처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발생한 부상은 '주관적 판단 후 자가치료'한 비율이 58.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의사 진료 및 치료'(30.6%), '의사 상담 후 자가치료'(10.5%)의 순이며, 부상 경험자 10명 중 7명 이상(78.3%)은 치료 비용을 '자부담'하고, 전체적인 치료비용 개인 부담금액은 평균 52,202원임.
 - 열상, 출혈, 파열, 골절 등의 부상 종류에서 치료비용 개인부담금액이 상대적으로 높고 부상 가료기간이 길수록 치료비용의 개인부담금액 역시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 가료에 필요한 기간은 '1-2주'(27.4%)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경미-가료기간 없음'

과 '1주 미만'이 각 23.9% 순임.

- 부상 경험자 10명 중 약 3명가량(29.0%)이 부상으로 인해 후유증이 발생함.
 - 골절에서 후유발생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되었으며 이로 인한 후유증의 심각도 역시 타 종류 대비 높음.
- 부상 경험자 10명 중 5명 이상(54.8%)은 부상 후 '활동 주기 및 횡수가 감소'하였고, 이의 주된 이유는 '신체적 불편함'(70.2%)때문이며 다음으로 '심리적 두려움'(20.0%), '가족 또는 지인의 반대'(6.2%)의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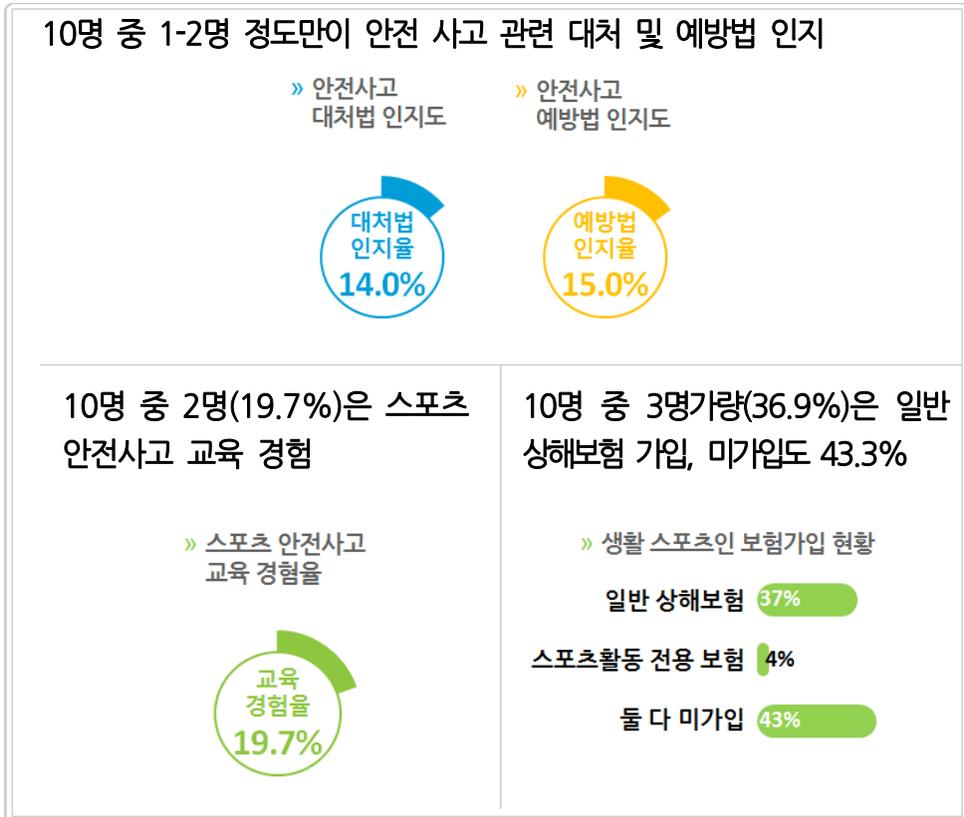
5 스포츠 안전의식



◎ 안전 인식

- 걷기 안전수칙을 인지하고 있다는 응답은 16.6%(매우 잘 알고 있음 0.3%+대체로 아는 편 16.2%)이며 10명 중 3명(26.9%)은 '인터넷'을 통해 안전 수칙을 알게 되었다고 응답함.
- 부상 경험자 10명 중 6명 이상(66.6%: 안전 최우선 26.8%+어느 정도 안전 우선 39.8%)은 운동을 할 때 '안전 수칙 준수'를 우선시함.
- 세부적으로는 '준비 운동을 실시한다'는 응답이 41.1%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사전에 위험지역 확인'(34.4%), '사전 시설물 안전여부 확인'(25.8%) 등의 순으로 조사됨(5점 척도 중 [4]그렇다, [5]매우 그렇다의 합산비율 기준).
- 시설물 안전여부 미확인 이유는 '확인 방법을 모름', 안전시설 미확인 이유는 '확인이 중요하지 않음', 위험지역 미확인 이유는 '확인할 사항이 없음'이 높게 나타남.

- 보호장구를 구매하기 위한 지출의향 및 지출수준에 대해서는 단지 8.0%만이 '지출의향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1인 평균 연간 지출의향(또는 현재 지출금액)은 약 13만원 선임.



◎ 대처 및 예방

- 걷기를 하던 중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시 대처방법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대처법 14.0%(매우 잘 앎 0.6%+대체로 아는 편 13.4%), 예방법 15.0%(매우 잘 앎 0.6%+대체로 아는 편 14.3%)임.
- 부상 경험자의 43.6%(전혀 모름 5.7%+잘 모르는 편 37.9%)가 걷기를 하던 중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시 대처방법을 '미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예방법 역시 '미인지' 비율이 36.6%(전혀 모름 6.1%+잘 모르는 편 30.6%)에 달함.
- 응급처치 요령 인지도는 '저체온증 발생 시 대처요령'(22.3%), '심폐소생술 실시 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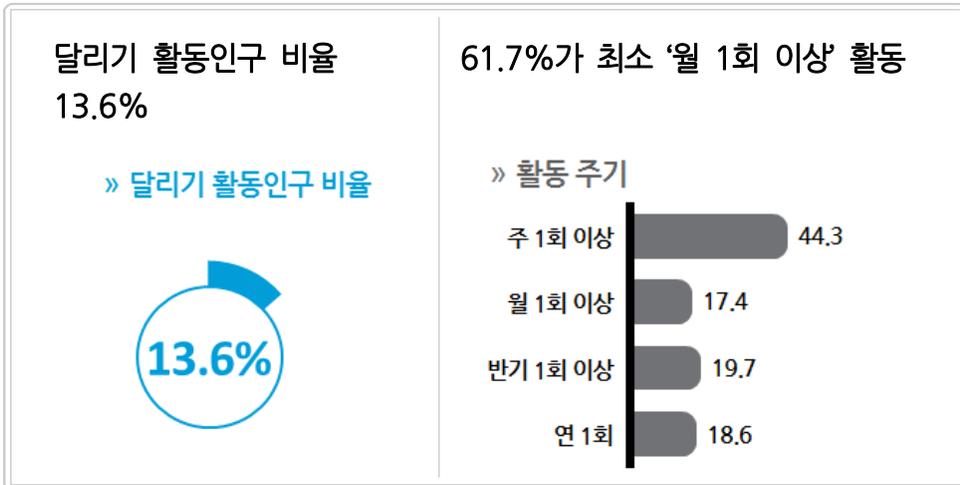
스포츠 안전사고 실태조사 -종합편

령'(21.3%), '골절 및 염좌 발생 시 대처요령'(20.7%) 순임(5점 척도 중 [4]어느 정도 알고 있음, [5]매우 잘 알고 있음의 합산비율 기준).

- 안전사고 응급처치 요령 습득 경로는 'TV'가 45.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인터넷'(34.7%), '책자'(17.2%), '스포츠 전문지도자/숙련자'(10.8%) 등의 순임.
- 스포츠 안전사고에 대비한 교육을 경험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19.7%로 조사되었으며, 스포츠 안전사고 대비 교육을 받은 기관은 '대학 정규 강좌' (30.6%), '국가 및 공공기관'과 '지역/종목별 협회·단체'(각 25.8%) 등의 순임.
- 스포츠 안전사고에 대비 교육을 받지 않은 이유는 '스포츠활동 중 부상을 대비한 안전교육이 있는지 몰라서'(41.7%), '교육을 받고 싶었으나 어느 기관에서 교육하는지 몰라서'(31.7%), '교육을 필요성을 못 느껴서'(25.4%) 등의 순임.
- 스포츠 안전사고에 대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70.1%(매우 필요 15.0%+필요 55.1%)로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 4.1%(전혀 불필요 1.3%+불필요 2.9%)에 비해 현저히 높게 나타남.
- '일반 상해보험 및 공제 가입률'이 36.9%, '스포츠 활동 전용 보험 및 공제 가입률'은 3.5%에 불과하며 '둘 다 미가입' 상태인 응답자 비율도 43.3%에 달함.

12. 달리기

1 생활스포츠 참여 실태



- 최근 1년간 스포츠활동의 일환으로 달리기를 경험한 인구 비율은 13.6%임.
- 전체적으로 10명 중 약 6명 이상(61.7%: 주 1회 이상 44.3%+월 1회 이상 17.4%)은 최소 월 1회 이상 달리기를 즐기고 있으며, 1회 평균 활동시간은 74.79분임.
- 24시에서 05시 사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간대에서 달리기를 즐기고 있는 가운데, 특히 '저녁(18시-21시 이전, 24.5%)'과 '오전(09시-12시 이전, 23.0%)'의 활동 비율이 높음.
- 달리기 인구의 절반 이상인 56.4%는 '전용 시설이 아닌 산, 도로, 공원 등'에서 달리기를 즐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 부상 발생 현황

달리기 활동 인구 중 10명 중
3명가량 '부상 경험'
연 평균 1.6회 가량 부상경험

» 달리기 부상 경험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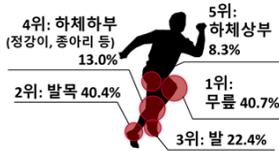
» 평균 부상 횟수



연 평균 **1.6회**
(2015년 1년간 기준)

주요 부상 부위는 '무릎'(40.7%), '발목'(40.4%) 순,
주요 부상 종류는 '통증'(52.5%)과 '염좌'(48.4%),
10명 중 3~4명가량은 '무리한 동작'(37.9%)으로 인해 부상을 당함

» 부상 부위



» 주요 발생 부상종류 Top5



» 부상 직접적 원인



- 달리기 활동인구 전체 10명 중 3명가량인 30.0%의 응답자가 심한 부상부터 경미한 부상까지 당한 경험이 있음.
- 달리기 부상 경험은 자주 활동(주 1회 이상 58.1%, 월 1회(월 2-3회 포함) 이상 24.7%)하는 사람들일수록, 1회 참여 시 약 54분가량 정도 활동가에게 발생함.
- 종목 부상 경험자 10명 중 8명 이상(80.8%)은 본인의 달리기 능숙도를 '초급' 정도로 인식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활동 경력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달리기를 통해 발생하는 부상은 주로 '무릎'(40.7%)과 '발목'(40.4%), '발'(22.4%) 등의 순으로 주로 무릎 아래 하반신에 집중되어 일어나고 있으며 가장 흔한 부상 유형은 '통증'(52.2%), '염좌'(48.4%), '찰과상'(17.8%), '좌상'(11.9%) 등의 순임.
- 달리기 부상 경험자들이 겪은 여러 부위와 종류를 종합한, 가장 심각했던 부상 유형은 '발목 염좌'(24.0%)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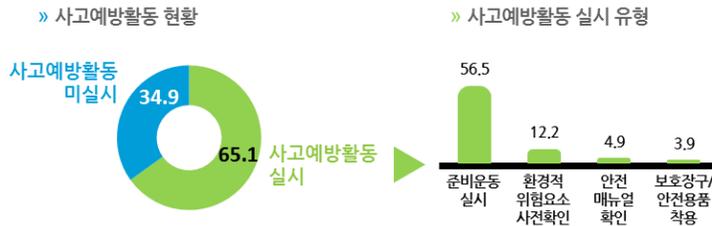
부록1 - 종목별 주요결과 요약

- 전문체육 지도자 조사 결과 발생하는 부상 부위 및 종류, 이를 종합한 부상유형 모두 생활체육인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음.
- 부상의 직접적 원인으로는 ‘무리한 동작’이 37.9%, ‘미끄러져 넘어짐’이 30.6%로 나타남.
- 연 평균 약 1.6회 가량의 부상을 입고 있음.
- 달리기의 주 활동 시간대는 전반적으로 주 활동 시간대와 부상 발생 시간대가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저녁 시간대(18시-21시 이전)’에는 주 활동 시간 대비 부상 발생 비율이 높게 나타남.
- 대부분 부상 발생 비율이 가장 높은 ‘저녁(18시-21시 이전)’ 시간대 부상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가운데, 1회당 활동 시간 별로 ‘2시간 초과’ 장기 활동자의 경우 ‘오전(09시-12시 이전)’ 시간대의 부상 비율이 높게 나타남.

3 부상 발생 환경

전체적으로 부상경험자들의 사고예방활동은 미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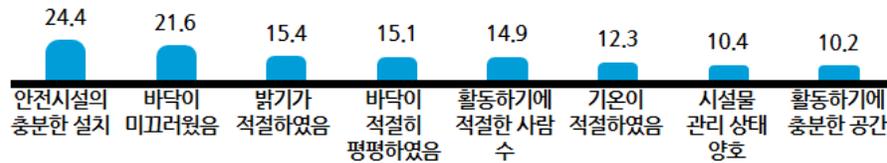
부상경험자의 34.9%는 부상 전 아무런 사고예방활동을 실시하지 않음
 실시한 응답자 중에서도 '준비운동'(56.5%)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15% 이하의 실시율



여러 환경적 요인 중 가장 주요한 문제는

'충분하지 않은 안전시설'(24.4%)과 '미끄러운 바닥'(21.6%)

» 부상 장소 환경적 요인(Bottom2: 매우 부정평가+부정평가 합산)



※ 5점 척도로 응답된 결과 중 [1] 매우 부정평가와 [2] 부정평가의 합산 비율을 제시함

※ '미끄러운 바닥'은 역척도 문항이므로 Bottom2는 [4]부정평가와 [5]매우 부정평가의 합산 비율임

◎ 부상발생 이전 상황 : 예방활동 측면

○ 대부분의 사고예방활동 실시비율에서 가장 높았던 '준비운동'(56.5%)을 제외하면 모두 15% 이하로 나타나 전반적으로는 준비운동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고예방활동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전문/숙련자가 배석함에 따라 '보호장구 및 안전용품 착용', '환경적 위험요소 확인', '준비운동 실시' 등 사고예방활동을 보다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음.
- 장비 착용을 하는 경우, '발목 보호대'(53.6%), '무릎 보호대'(53.6%)를 가장 많이 착용, 착용한 장비의 전반적 상태는 양호(42.9%)했던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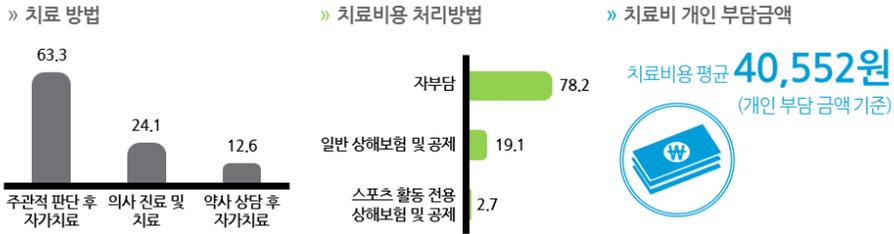
- 환경적 위험요소 확인자의 29.9%만이 성실히 확인할 뿐 나머지는 불성실하거나 형식적 확인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준비운동 실시자는 유연성(54.1%), 근력(43.2%), 심폐지구력(41.9%) 등 다양한 준비운동을 실시(5점 척도 중 [4]그렇다, [5]매우 그렇다의 합산비율 기준)하고 있으며 전문/숙련자가 배석할수록, 그리고 교육을 실시할수록 준비운동 역시 더 충실히 수행하는 것으로 조사됨.
- 확인한 안전매뉴얼의 경우 전반적으로 ‘부상 방지에 도움이 되었다’(42.9%)고 평가됨.
- 부상 전 신체상태가 ‘양호’했다는 응답이 28.8%로, ‘비양호’했다는 응답(10.5%)에 비해 높으나, 종합적으로는 10명 중 2~3명만이 신체상태가 양호한 상태에서 운동에 참여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음.

◎ 부상 당시 상황 : 환경적 요인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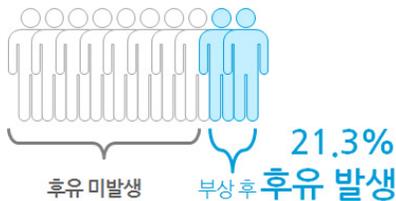
- ‘운동장/공원’에서 부상을 당한 응답자가 40.5%로 가장 높고 ‘하천변 산책로’가 31.4%로, 약 70%가 이 두 장소에서 부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부상 장소 운영 주체는 ‘공공’시설이 49.9%, ‘민간’시설이 16.8%임.
- 부상 장소에 안전 안내문구·책자 비치여부에 대해, ‘안내문구 및 책자가 비치되었다’는 응답은 11.8%이며 비치된 경우 62.5%는 이를 확인한 것으로 나타남.
- 부부상 장소의 환경적 요인을 종합한 결과, ‘안전시설의 충분한 설치’의 부정적 평가가 24.4%로 가장 높음. 이어 ‘미끄러운 바닥’(21.6%), ‘밝기가 적절하였음’의 부정적 평가(15.4%) 등의 순으로 나타남(5점 척도 중 [1]매우 부정적, [2]부정적의 합산비율 기준. 단, ‘미끄러운 바닥’은 역척도 문항이므로 Bottom2는 [4]부정평가와 [5]매우 부정평가의 합산 비율).
- 운동장/공원, 하천변 산책로, 인도의 경우 ‘안전시설의 충분한 설치’의 부정적 평가가 높고, 러닝머신, 실내 체육관의 경우에는 ‘미끄러운 바닥’ 응답이 높게 나타남.
- 부상 경험자 10명 중 약 3명 이상은 부상 당시 ‘지도자 자격증이 있는 전문 지도자’(10.5%)나 ‘해당 종목을 잘 아는 숙련자’(25.3%)가 배석 중이었고 이 중, 지도자가 배석한 경우 절반 이상(58.1%)이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 관련 교육을 실시했으며, 숙련자는 배석한 10명 중 4명 정도(41.3%)만이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였음.

4 부상 후 대처 및 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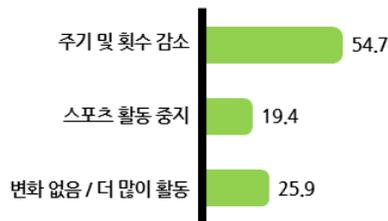
발생 부상, 10명 중 6명 이상(63.3%)은 '주관적 판단 후 자가치료'
 10명 중 7명 이상(78.2%)은 치료비용을 '자부담 처리'
 개인 부담금액 기준, 1인 1건당 치료 소요비용은 평균 40,552원



부상 경험자 10명 중
 약 2명가량(21.3%)이
 부상으로 인해 후유증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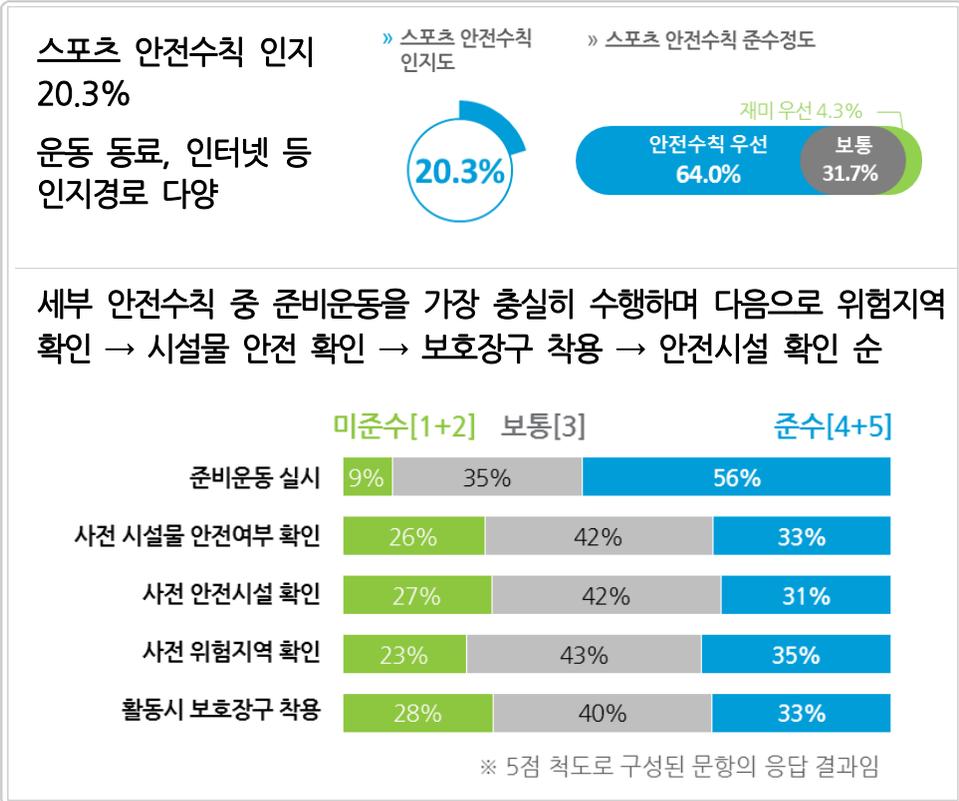
10명 중 7명 정도는 부상 이후
 스포츠 활동을 줄이거나(54.7%)
 중지(19.4%)함



- 대부분 '조치하지 않음'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가운데, '통증', '염증'의 경우 절반 이상이 '조치하지 않음'으로 응답, 적절한 응급 대처 독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한편 그 외, 염좌, 골절 등의 경우 '냉찜질'을, 찰과상의 경우 '부상 부위 소독'과 '지혈' 등을 실시하는 등 전반적으로 부상 종류에 적절한 응급 대처를 실시하고 있음.
- 발생한 부상은 '주관적 판단 후 자가치료'한 비율이 63.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의사 진료 및 치료'(24.1%), '약사 상담 후 자가치료'(12.6%)의 순이며, 부상 경험자 10명 중 7명 이상(78.2%)은 치료 비용을 자부담하고, 전체적인 치료비용 개인 부담 금액은 평균 40,552원임.

- 골절, 탈구, 파열 등의 부상 종류에서 치료비용 개인부담금액이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됨. 부상 가료기간이 길수록 치료비용의 개인부담금액 역시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 가료에 필요한 기간은 '1주 미만'(30.2%)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1-2주'(27.6%)이며 '가료 기간 없음'이라는 응답도 10명 중 2명가량(18.2%)임.
- 부상 경험자 10명 중 약 2명가량(21.3%)이 부상으로 인해 후유증이 발생함.
 - '골절', '파열' 부상에서 후유발생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되었으며 이로 인한 후유증의 심각도 역시 타 종류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부상 경험자 10명 중 5명 이상(54.7%)은 부상 후 활동 주기 및 횟수가 감소하였고, 이의 주된 이유는 '신체적 불편함'(61.6%), '심리적 두려움'(26.7%), '가족 또는 지인의 반대'(9.1%)의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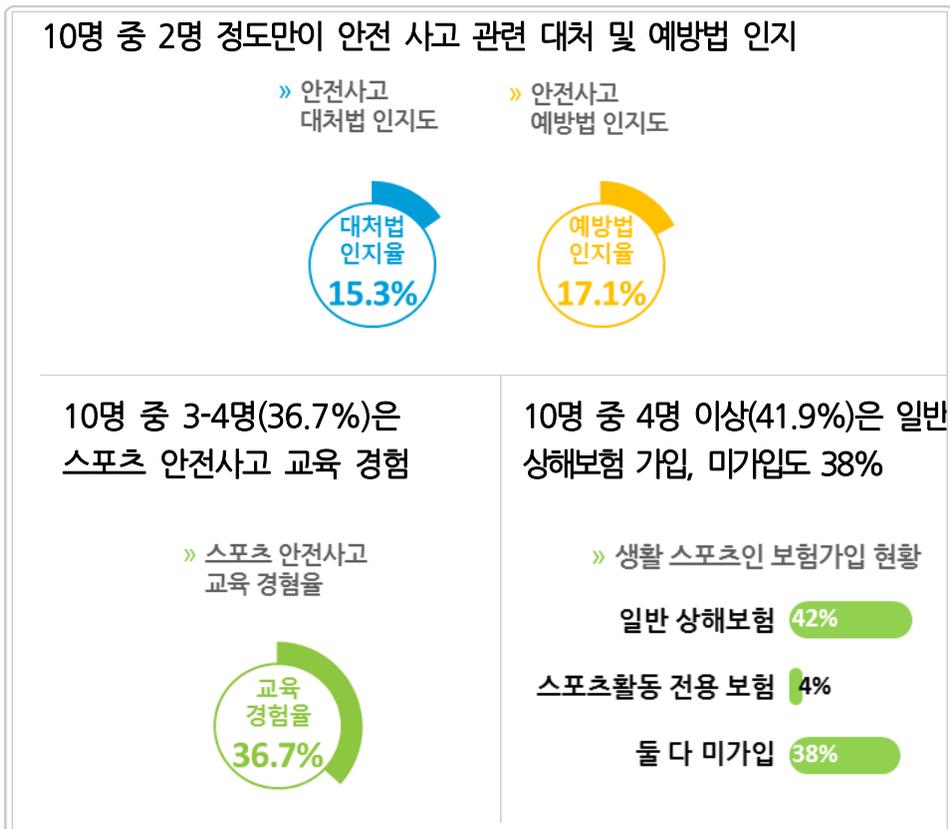
5 스포츠 안전의식



◎ 안전 인식

- 달리기 안전수칙을 ‘인지’하고 있다는 응답은 20.3%(매우 잘 알고 있음 0.7%+대체로 아는 편 19.6%)이며 응답자 10명 중 3명(31.0%)은 ‘같이 운동하는 사람’으로부터 안전 수칙을 알게 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인터넷’(28.3%), ‘교육’(26.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전문 체육지도자의 경우 ‘인지’ 비율이 100.0%이며, 특히 ‘교육’을 통한 인지 경로가 83.3%로 나타남.
- 부상 경험자 10명 중 6명 이상(64.0%: 안전 최우선 22.3%+어느 정도 안전 우선 41.7%)은 운동을 할 때 ‘안전 수칙 준수’를 우선시 함.

- 세부적으로는 ‘준비 운동을 실시한다’는 응답이 56.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사전에 위험 지역을 확인’(34.5%), ‘활동 시 보호장구를 착용’(32.7%) 등의 순으로 조사됨(5점 척도 중 [4]그렇다, [5]매우 그렇다의 합산비율 기준).
- 시설물 안전여부 미확인, 안전시설 미확인, 위험지역 미확인 이유 모두 ‘확인하기 귀찮아서’가 가장 높게 나타남. 다음으로 세부 순위에는 소폭 차이가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확인이 중요하지 않은 스포츠’와 ‘확인 방법을 몰라서’의 이유로 인해 확인을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됨.
- 보호장구를 구매하기 위한 지출의향 및 지출수준에 대해서는 단지 4.8%만이 지출의향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1인 평균 연간 지출의향(또는 현재 지출금액)은 약 17만원 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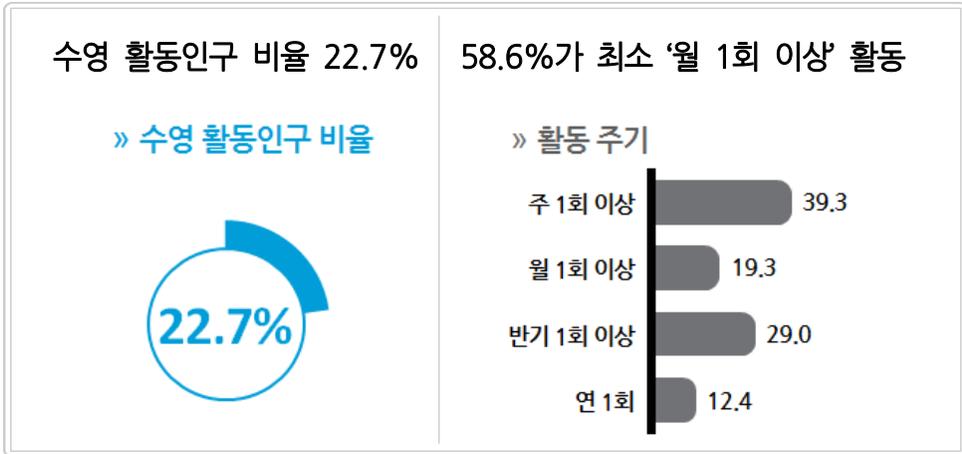


◎ 대처 및 예방

- 부상 경험자의 37.4%(전혀 모름 2.7%+잘 모르는 편 34.8%)가 달리기를 하던 중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시 대처방법을 ‘미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예방법 역시 ‘미인지’ 비율이 36.0%(전혀 모름 2.1%+잘 모르는 편 33.9%)에 달함.
 - 인지율은 대처법 15.3%(매우 잘 앎 0.8%+대체로 아는 편 14.4%), 예방법 17.1%(매우 잘 앎 0.4%+대체로 아는 편 16.7%)임.
- 응급처치 요령 인지도는 ‘심폐소생술 실시요령’(33.4%), ‘저체온증 발생 시 대처요령’(24.8%), ‘골절 및 염좌 발생 시 대처요령’(23.3%) 순임(5점 척도 중 [4]어느 정도 알고 있음, [5]매우 잘 알고 있음의 합산비율 기준).
 - 전문 체육지도자 조사 결과 절대적인 인지율은 생활스포츠인 대비 매우 높은 수준임.
- 안전사고 응급처치 요령 습득 경로는 ‘인터넷’이 41.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TV’(33.7%), ‘응급처치 전문기관’(16.5%), ‘스포츠 전문지도자/숙련자’(16.5%), 등의 순임.
- 스포츠 안전사고에 대비한 ‘교육을 경험’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36.7%이며, 스포츠 안전사고 대비 교육을 받은 기관은 ‘국가 및 공공기관’(33.6%), ‘대학교의 정규 강좌’(28.6%), ‘동호회/팀’(22.5%) 등의 순임.
- 스포츠 안전사고에 대비 교육을 받지 않은 이유는 ‘스포츠활동 중 부상을 대비한 안전교육이 있는지 몰라서’(40.8%), ‘교육을 받고 싶었으나 어느 기관에서 교육하는지 몰라서’(32.6%), ‘교육을 필요성을 못 느껴서’(25.9%) 등의 순임.
- 스포츠 안전사고에 대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71.2%(매우 필요 16.1%+필요 55.1%)로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 4.5%(전혀 불필요 0.7%+불필요 3.8%)에 비해 현저히 높음.
- 일반 상해보험 및 공제 가입률이 41.9%, 스포츠 활동 전용 보험 및 공제 가입률은 3.6%에 불과하며 둘 다 미가입 상태인 응답자 비율도 36.3%에 달함.
 - 전문 체육지도자 조사 결과 응답한 지도자 12명 전원이 ‘학교안전공제중앙회 공제 보험’에 가입되어있다고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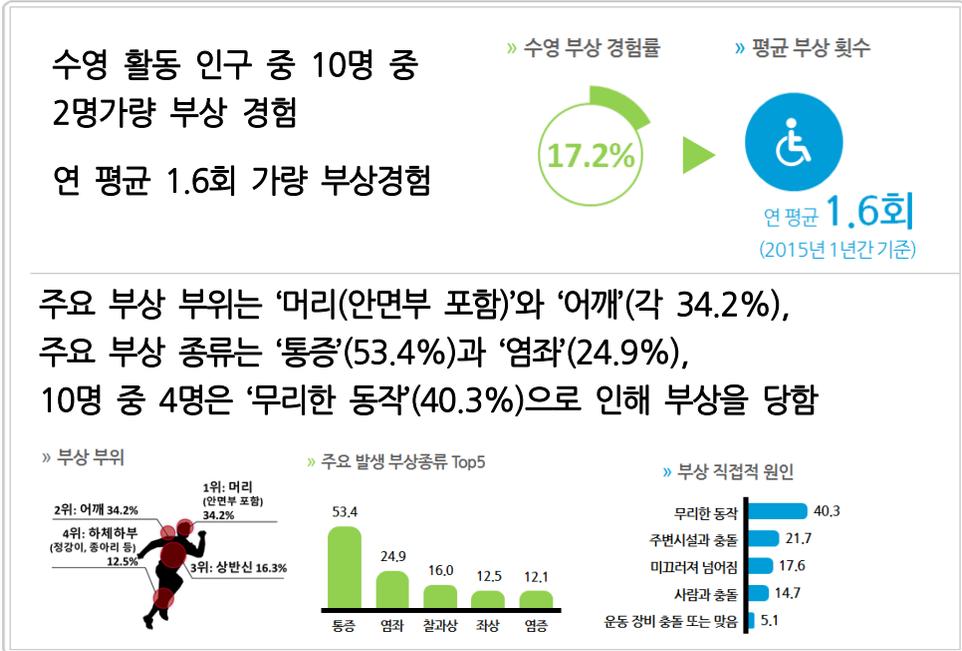
13. 수영

1 생활스포츠 참여 실태



- 최근 1년간 스포츠활동의 일환으로 수영을 경험한 인구 비율은 22.7%임.
- 전체적으로 10명 중 약 6명가량(58.6%: 주 1회 이상 39.3%+월 1회 이상 19.3%)은 최소 월 1회 이상 수영을 즐기고 있으며, 1회 평균 활동시간은 76.4분임.
- '오후'(15-18시 이전, 20.8%)와 '오전'(09-12시 이전, 19.0%)시간대에 주로 즐기고 있음.
- 수영 인구 10명 중 8명 이상(85.3%)은 '전용 경기시설', 즉 수영장에서 수영을 즐기고 있음.

2 부상 발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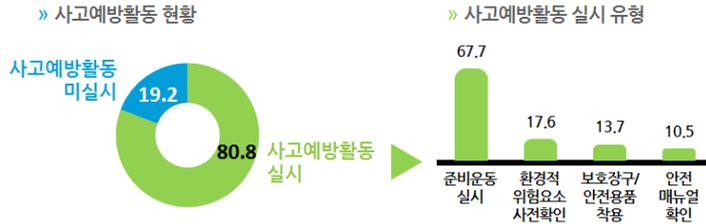
- 수영 활동인구 10명 중 2명가량인 17.2%의 응답자가 심한 부상부터 경미한 부상까지 당한 경험이 있음.
- 수영 부상 경험은 자주 활동(주 1회 이상 72.8%)하는 사람들일수록, 1회 참여 시 약 60분가량 즐기는 사람들에게서 주로 일어나고 있음.
- 종목 부상 경험자 10명 중 5명가량(49.2%)은 본인의 수영 능숙도를 '초급' 정도로 인식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활동 경력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수영을 통해 발생하는 부상은 주로 '머리(안면부 포함)'와 '어깨'(각 34.2%)에 주로 일어나고 있으며 가장 흔한 부상 유형은 '통증'(53.4%), '염좌'(24.9%), '찰과상'(16.0%), '좌상'(12.5%) 등의 순임.
- 여러 부위와 종류를 종합한, 가장 심각했던 부상 유형은 '어깨 통증'(13.4%)임.
 - 전문 체육 지도자 조사 및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자료 분석 결과 전문적으로 활동하는 선수(학교 운동부 포함)들의 경우 주로 발생하는 부상 부위는 머리(안면부 포함)와 어깨로 유사하나 부상 종류는 골절이 다수를 차지하여 생활체육인 조사 결과와 차이를 보임.

- 부상의 직접적 원인으로는 ‘무리한 동작’이 40.3%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연 평균 약 1.6회 가량의 부상을 입고 있음.
- 수영의 주 활동 시간대는 ‘오전’(09-12시 이전) 시간대와 ‘오후’(15-18시 이전) 시간대인 반면 부상 발생은 ‘저녁’(18-21시 이전) 시간대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여 주 활동 시간대와 다소 다른 패턴을 보임.
 - 유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저녁’(18-21시 이전) 시간대 부상의 경우, 전반적으로 자주 활동할수록, 활동 시간이 길수록, 종목 능숙도 중·상급 수준에서 발생 비율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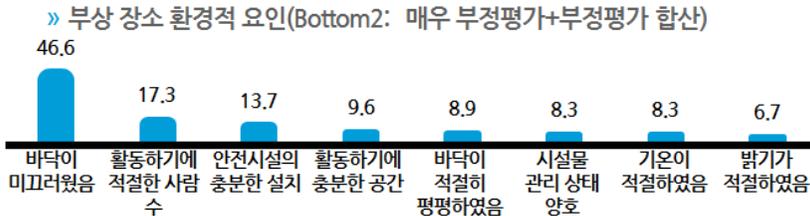
3 부상 발생 환경

전체적으로 부상경험자들의 사고예방활동은 미흡

부상경험자의 19.2%는 부상 전 아무런 사고예방활동을 실시하지 않음
 실시한 응답자 중에서도 '준비운동'(67.7%)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20% 미만의 실시율



여러 환경적 요인 중 가장 주요한 문제는 '미끄러운 바닥'(46.6%)



※ 5점 척도로 응답된 결과 중 [1] 매우 부정평가와 [2] 부정평가의 합산 비율을 제시함
 ※ '미끄러운 바닥'은 역척도 문항이므로 Bottom2는 [4]부정평가와 [5]매우 부정평가의 합산 비율임

◎ 부상발생 이전 상황 : 예방활동 측면

- 대부분의 사고예방활동 실시비율에서 가장 높았던 준비운동(67.7%)을 제외하면 모두 20% 미만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는 준비운동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고예방활동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특히 전문/숙련자가 배석하고 교육을 실시함에 따라 '보호장구 및 안전용품 착용', '환경적 위험요소 확인', '준비운동 실시' 등 사고예방활동을 보다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젊은 층의 사고예방활동이 저조함.
 - 장비 착용을 하는 경우, 10명 중 8명가량(79.1%)은 부상 당시 '수경'을 착용, 착용한 장비의 전반적 상태는 양호(41.9%)했던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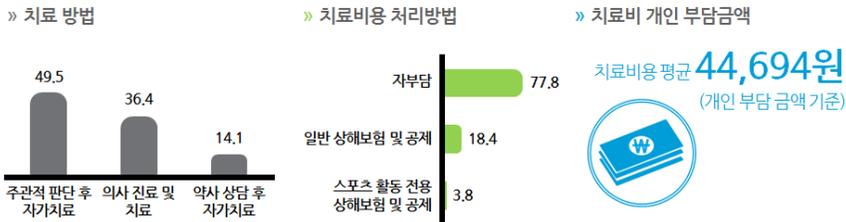
- 환경적 위험요소 확인자의 34.5%만이 성실히 확인할 뿐 나머지는 불성실하거나 형식적 확인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준비운동 실시자는 유연성(58.5%), 근력(44.3%), 심폐지구력(42.5%) 등 다양한 준비운동을 실시(5점 척도 중 [4]그렇다, [5]매우 그렇다의 합산비율 기준)하고 있음.
- 확인한 안전매뉴얼의 경우 전반적으로 ‘부상 방지에 도움이 되었다’(57.6%)고 평가됨.
- 부상 전 신체상태가 ‘양호’했다는 응답이 31.6%로, ‘비양호’했다는 응답(11.5%)에 비해 3배 가량 높았으나 종합적으로는 10명 중 3명만이 신체상태가 양호한 상태에서 운동에 참여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음.

◎ 부상 당시 상황 : 환경적 요인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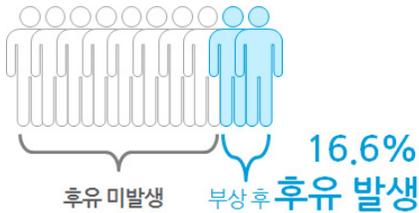
- 대부분의 응답자(90.7%)가 ‘실내 수영장’에서 부상을 당하고 있으며 부상 장소 운영주체는 ‘공공’시설이 44.7%, ‘민간’시설이 39.9%임.
- 부상 장소에 안전 안내문구·책자 비치여부에 대해, ‘안내문구 및 책자가 비치되었다’는 응답은 35.8%이며 비치된 경우 51.8%는 이를 확인한 것으로 나타남.
- 부상 장소의 환경적 요인을 종합한 결과, ‘바닥이 미끄러웠다’는 평가가 46.6%로 가장 높음. 다음으로 ‘활동하기에 적절한 사람 수’의 부정적 평가(17.3%), ‘안전시설의 충분한 설치’의 부정적 평가(13.7%) 등의 순으로 조사됨(5점 척도 중 [1]매우 부정적, [2]부정적의 합산비율 기준. 단, ‘미끄러운 바닥’은 역척도 문항이므로 Bottom2는 [4]부정평가와 [5]매우 부정평가의 합산 비율).
- 실내 수영장(47.9%)의 ‘바닥이 미끄러웠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음.
- 부상 경험자 10명 중 약 8명은 부상 당시 ‘지도자 자격증이 있는 전문 지도자’(59.5%)나 ‘해당 종목을 잘 아는 숙련자’(26.4%)가 배석 중이었고 지도자와 숙련자가 배석한 경우 모두 절반 이상(각 60.3%)은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 관련 교육을 실시하였음.

4 부상 후 대처 및 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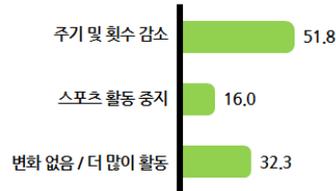
발생된 부상 절반 가량(49.5%)은 ‘주관적 판단 후 자가치료’
10명 중 7명 이상(77.8%)은 치료비용을 ‘자부담 처리’
개인 부담금액 기준, 1인 1건당 치료 소요비용은 평균 44,694원



부상 경험자 10명 중
약 2명가량(16.6%)이
부상으로 인해 후유증 발생



10명 중 7명 정도는 부상 이후
스포츠 활동을 줄이거나(51.8%)
중지(16.0%)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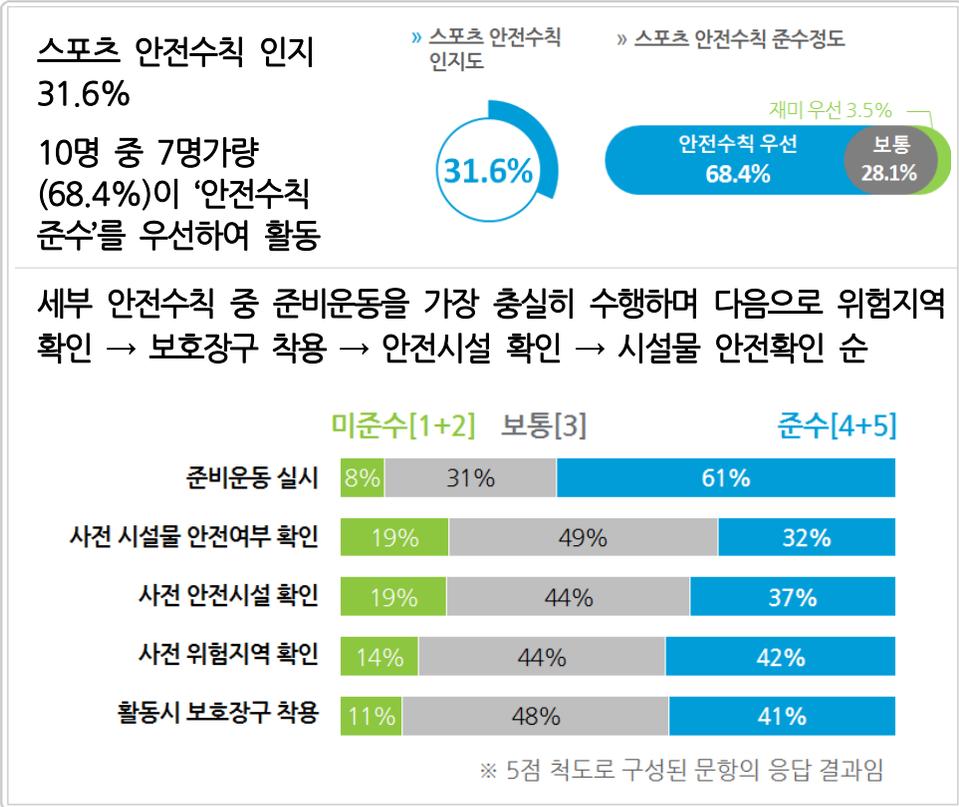


- 염좌, 통증의 경우 ‘냉찜질’을 실시하고 통증의 경우 ‘온찜질 또는 보온’을 병행 실시하는 등 전반적으로 부상 종류에 적절한 응급 대처를 실시하고 있음.
- 발생한 부상은 ‘주관적 판단 후 자가치료’한 비율이 49.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의사 진료 및 치료’(36.4%), ‘의사 상담 후 자가치료’(14.1%)의 순이며, 부상 경험자 10명 중 7명 이상(77.8%)은 치료비용을 자부담하고, 전체적인 치료비용 개인 부담금액은 평균 44,694원임.
 - 염좌, 통증 등 주로 발생하는 부상 종류의 경우 전체 평균 개인부담액에 수렴하는 결과를 보이며, 부상 가료기간이 길수록 치료비용의 개인부담금액 역시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부록1 - 종목별 주요결과 요약

- 가료에 필요한 기간은 '1-2주'(28.4%)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바로 참여 가능할 정도로 경미'(24.9%)이며 '1주 미만'도 22.4%로 비교적 높음.
- 부상 경험자 10명 중 약 2명가량(16.6%)이 부상으로 인해 후유증이 발생함.
 - 가료기간이 길수록 후유발생률 및 발생 후유의 심각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 부상 경험자 10명 중 5명 이상(51.8%)은 부상 후 활동 주기 및 횟수가 감소하였고, 이의 주된 이유는 '신체적 불편함'(54.2%)때문이며 다음으로 '심리적 두려움'(33.0%), '가족 또는 지인의 반대'(8.0%)의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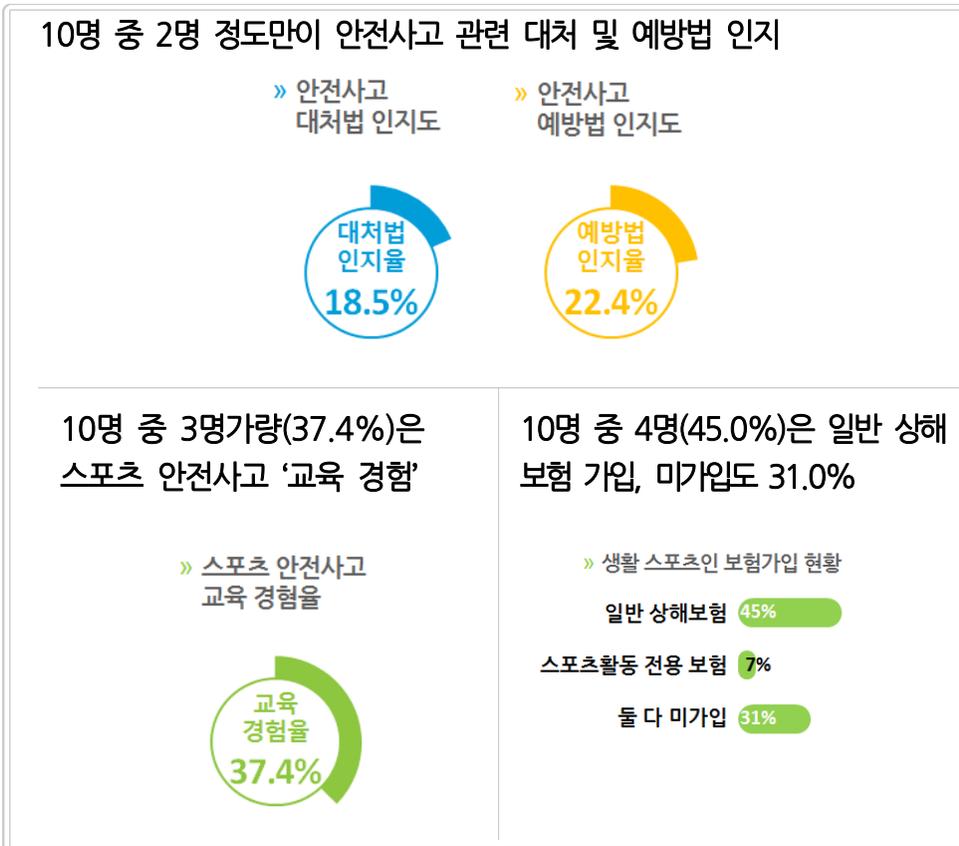
5 스포츠 안전의식



◎ 안전 인식

- 수영 안전수칙을 '인지'하고 있다는 응답은 31.6%(매우 잘 알고 있다 2.9%+대체로 아는 편 28.8%)이며 10명 중 약 5명가량(48.5%)은 '교육'을 통해 안전 수칙을 알게 되었다고 응답함.
 - 전문 체육 지도자 전원은 안전수칙을 인지(100.0%: 매우 잘 알고 있음 8.3%+대체로 아는 편 91.7%)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12명 중 11명(91.7%)은 '교육'을 통해 안전 수칙을 인지함.
- 부상 경험자 10명 중 7명가량(68.4%: 안전 최우선 29.4%+어느 정도 안전 우선 39.0%)은 운동을 할 때 '안전 수칙 준수'를 우선시 함.
- 세부적으로는 '준비 운동을 실시한다'는 응답이 61.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사전에 위험지역 확인'(41.5%), '활동 시 보호장구 착용'(40.9%) 등의 순으로 조사됨 (5점 척도 중 [4]그렇다, [5]매우 그렇다의 합산비율 기준).

- 시설물 안전여부 미확인, 안전시설 미확인, 위험지역 미확인 이유 모두 ‘확인하기 귀찮아서’와 ‘확인 방법을 몰라서’가 주로 높게 나타남.
- 보호장구를 구매하기 위한 지출의향 및 지출수준에 대해서는 단지 1.9%만이 지출의향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1인 평균 연간 지출의향(또는 현재 지출금액)은 약 26만원 선임.



◎ 대처 및 예방

- 수영을 하던 중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시 대처방법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대처법 18.5%(매우 잘 앎 2.9%+대체로 아는 편 15.7%), 예방법 22.4%(매우 잘 앎 1.9%+대체로 아는 편 20.4%)임.
- 부상 경험자의 30.0%(전혀 모름 1.0%+잘 모르는 편 29.1%)가 수영을 하던 중 안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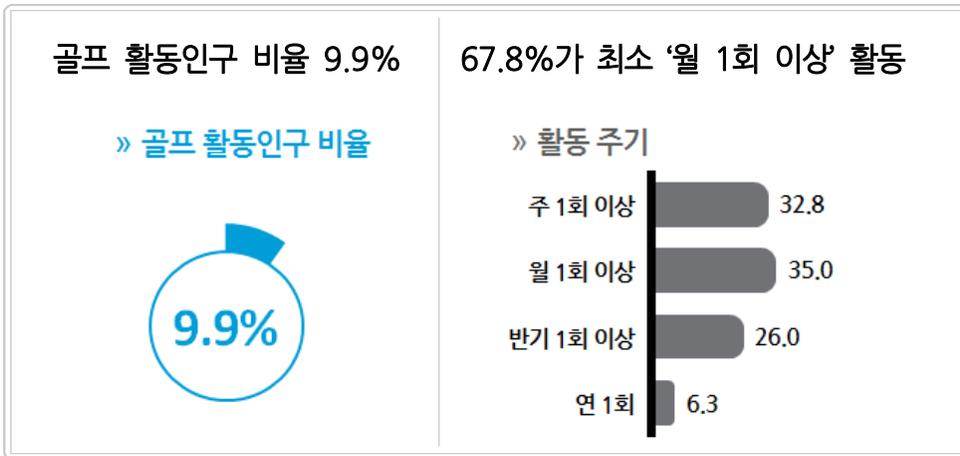
스포츠 안전사고 실태조사 -종합편

고가 발생했을 시 대처방법을 ‘미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예방법 역시 ‘미인지’ 비율이 26.8%(전혀 모름 0.6%+잘 모르는 편 26.2%)에 달함.

- 응급처치 요령 인지도는 ‘심폐소생술 실시요령’(34.8%), ‘골절 및 염좌 발생시 대처요령 인지’(27.5%), ‘저체온증 발생 시 대처법 인지’(25.6%) 등의 순임(5점 척도 중 [4]어느 정도 알고 있음, [5]매우 잘 알고 있음의 합산비율 기준).
 - 전문 체육 지도자 조사 결과 인지율의 경향은 생활체육인 조사와 비슷하나 절대적인 인지율은 생활스포츠인 대비 매우 높은 수준으로 차이를 보임.
- 안전사고 응급처치 요령 습득 경로는 ‘인터넷’(35.5%)과 ‘TV’(33.2%)가 상대적으로 높고 다음으로 ‘스포츠 전문지도자/숙련자’(21.4%), ‘의료인’(17.3%) 등의 순임.
- 스포츠 안전사고에 대비한 ‘교육을 경험’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37.4%로 조사되었으며, 스포츠 안전사고 대비 교육을 받은 기관은 ‘국가 및 공공기관’(31.6%), ‘대학교의 정규 강좌’(23.9%), ‘지역/종목별 협회·단체’ 및 ‘동호회/팀’(각 20.5%) 등의 순임.
- 스포츠 안전사고에 대비 교육을 받지 않은 이유는 ‘스포츠활동 중 부상을 대비한 안전교육이 있는지 몰라서’(40.8%), ‘교육을 받고 싶었으나 어느 기관에서 교육하는지 몰라서’(35.2%), ‘교육을 필요성을 못 느껴서’(23.5%) 등의 순임.
- 스포츠 안전사고에 대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64.5%(매우 필요 20.4%+필요 44.1%)로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 6.4%(전혀 불필요 1.0%+불필요 5.4%)에 비해 현저히 높음.
- 일반 상해보험 및 공제 가입률이 45.0%, 스포츠 활동 전용 보험 및 공제 가입률은 7.0%에 불과하며 둘 다 미가입 상태인 응답자 비율도 31.0%에 달함.
 - 전문 체육 지도자 조사 결과 응답한 지도자 12명(팀, 단체) 중 5명은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공제 및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14. 골프

1 생활스포츠 참여 실태



- 최근 1년간 스포츠활동의 일환으로 골프를 경험한 인구 비율은 9.9%임.
- 전체적으로 10명 중 약 6명 이상(67.8%: 주 1회 이상 32.8%+월 1회 이상 35.0%)은 최소 월 1회 이상 골프를 즐기고 있으며, 1회 평균 활동시간은 166.47분임.
- ‘오전’(09-12시 이전)시간대 활동 비율이 24.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저녁’(18-21시 이전, 20.0%)시간대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10명 중 4명가량(44.0%: 24.0+20.0%)은 오전과 저녁에 골프를 즐기고 있음.
- 골프 부상경험자 10명 중 5명 이상(58.8%)은 ‘야외 골프장’에서 부상을 당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골프 연습장’(30.9%)순으로 조사됨.
- 스크린골프 부상경험자 10명 중 7명 이상(78.0%)은 ‘스크린골프장’에서 부상을 당하고 있음.

2 부상 발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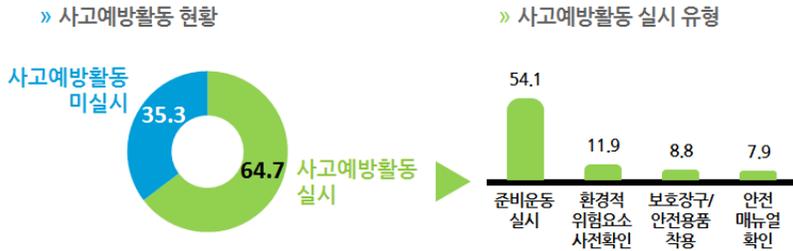


- 골프 활동인구 전체의 절반 가량인 49.3%의 응답자가 심한 부상부터 경미한 부상까지 당한 경험이 있음.
- 골프 부상 경험은 자주 활동(주1회 이상 38.0%, 월1회 이상 39.2%)하는 사람들일수록, 1회 참여 시 약 150분 가량 활동하는 사람들에게서 주로 일어나고 있음.
- 종목 부상 경험자 10명 중 6명가량(59.3%)은 본인의 골프 능숙도를 '초급' 정도로 인식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활동 경력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골프를 통해 발생하는 부상은 주로 '상반신'(54.1%)과 '어깨'(24.6%), '손목'(20.4%)에 집중되고 있으며 가장 흔한 부상 유형은 '통증'(82.4%)과 '염좌'(44.4%)임.
- 골프 부상 경험자들이 겪은 여러 부위와 종류를 종합한, 가장 심각했던 부상 유형은 '허리 통증'(18.2%)임.
- 부상의 직접적 원인으로는 '무리한 동작'이 78.1%로 가장 높게 나타나 골프를 통해 부상을 입는 사람 약 10명 중 8명가량은 본인의 무리한 동작 때문에 부상을 입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연 평균 약 1.69회 가량의 부상을 입고 있음.
- 골프 주 활동 시간대와 부상 발생 시각은 동일한 흐름을 보이고 있음.

3 부상 발생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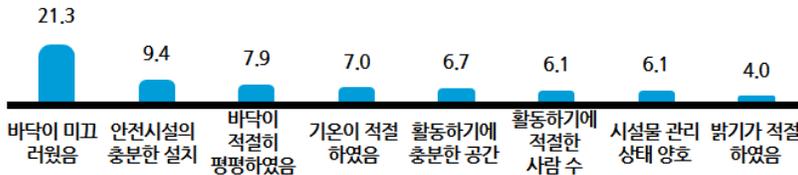
전체적으로 부상경험자들의 사고예방활동은 미흡

부상경험자의 35.3%는 부상 전 ‘아무런 사고예방활동을 실시하지 않음’ 실시한 응답자 중에서도 ‘준비운동’(54.1%)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10% 내외의 실시율



여러 환경적 요인 중 가장 주요한 문제는 ‘미끄러운 바닥’(21.3%)

» 부상 장소 환경적 요인(Bottom2: 매우 부정평가+부정평가 합산)



※ 5점 척도로 응답된 결과 중 [1] 매우 부정평가와 [2] 부정평가의 합산 비율을 제시함

※ ‘미끄러운 바닥’은 역척도 문항이므로 Bottom2는 [4]부정평가와 [5]매우 부정평가의 합산 비율임

◎ 부상발생 이전 상황 : 예방활동 측면

○ 대부분의 사고예방활동 실시비율에서 가장 높았던 ‘준비운동’(54.1%)을 제외하면 모두 10% 내외 정도로 나타나 전반적으로는 준비운동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고예방활동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특히 전문/숙련자가 배석함에 따라 ‘보호장구 및 안전용품 착용’, ‘환경적 위험요소 확인’, ‘준비운동 실시’ 등 사고예방활동을 보다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남성의 사고예방활동이 저조함.
- 장비 착용을 하는 경우, 10명 중 5명 이상(58.6%)은 부상 당시 ‘손목 보호대’를 착용, 착용한 장비의 전반적 상태는 ‘양호’(34.5%)했던 것으로 나타남.

스포츠 안전사고 실태조사 -종합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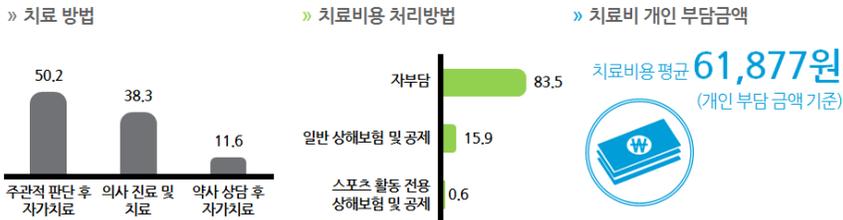
- 환경적 위험요소 확인자의 28.2%만이 성실히 확인할 뿐 나머지는 불성실하거나 형식적 확인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준비운동 실시자는 ‘유연성’(51.1%), ‘근력’(42.7%), ‘심폐지구력’(37.6%) 등 다양한 준비운동을 실시(5점 척도 중 [4]그렇다, [5]매우 그렇다의 합산비율 기준)하고 있으며 전문/숙련자가 배석할수록, 그리고 교육을 실시할수록 준비운동 역시 더 충실히 수행하는 것으로 조사됨.
- 확인한 안전매뉴얼의 경우 전반적으로 ‘부상 방지에 도움이 되었다’(53.8%)고 평가됨.
- 부상 전 신체상태가 ‘양호’했다는 응답이 26.7%로, ‘비양호’했다는 응답(10.9%)에 비해 2배 이상 높았으나 종합적으로는 10명 중 2~3명만이 신체상태가 양호한 상태에서 운동에 참여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음.

◎ 부상 당시 상황 : 환경적 요인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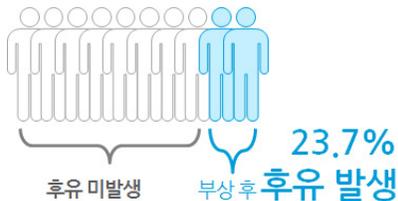
- 골프 부상경험자 10명 중 4명 이상(43.8%)은 ‘스크린 골프장’에서 부상을 당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야외 골프장’(33.1%), ‘골프 연습장’(22.8%)의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부상 장소 운영 주체는 ‘민간’ 시설이 대부분(91.2%)을 차지함.
- 부상 장소에 안전 안내문구 및 책자 비치여부에 대해, 안내문구 및 책자가 비치되었다는 응답은 21.4%이며 비치된 경우 52.2%는 이를 확인한 것으로 나타남.
- 부상 장소의 환경적 요인을 종합한 결과, ‘바닥이 미끄러웠음’에 대한 평가가 21.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안전시설의 충분한 설치’에 대한 부정적 평가(9.4%), ‘바닥이 적절히 평평하였음’에 대한 부정적 평가(7.9%) 등의 순으로 조사됨(5점 척도 중 [1]매우 부정적, [2]부정적의 합산비율 기준. 단, ‘미끄러운 바닥’은 역척도 문항이므로 Bottom2는 [4]부정평가와 [5]매우 부정평가의 합산 비율).
- 야외 골프장의 경우 ‘바닥이 미끄러웠음’에 대한 평가(23.9%)가 상대적으로 높고 스크린 골프장은 ‘안전시설의 충분한 설치’에 대한 부정적 평가(12.5%)가 비교적 높게 조사됨.
- 부상 경험자 10명 중 5명 이상은 부상 당시 ‘지도자 자격증이 있는 전문 지도자’(11.5%)나 ‘해당 종목울 잘 아는 숙련자’(45.0%)가 배석 중이었고 이 중, 지도자가 배석한 경우 10명 중 7명 이상(71.9%)은 별도의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숙련자 배석 시에는 10명 중 2명(20.0%)만이 교육을 실시하였음.

4 부상 후 대처 및 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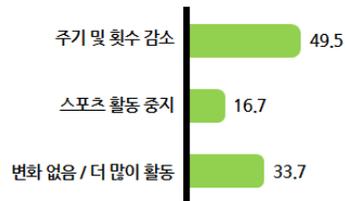
발생된 부상 절반 가량(50.2%)은 ‘주관적 판단 후 자가치료’
10명 중 8명 이상(83.5%)은 치료비용을 ‘자부담 처리’
개인 부담금액 기준, 1인 1건당 치료 소요비용은 평균 61,877원



부상 경험자 10명 중
약 2명 이상(23.7%)이
부상으로 인해 후유증 발생



10명 중 6명 이상은 부상 이후
스포츠 활동을 줄이거나(49.5%)
중지(16.7%)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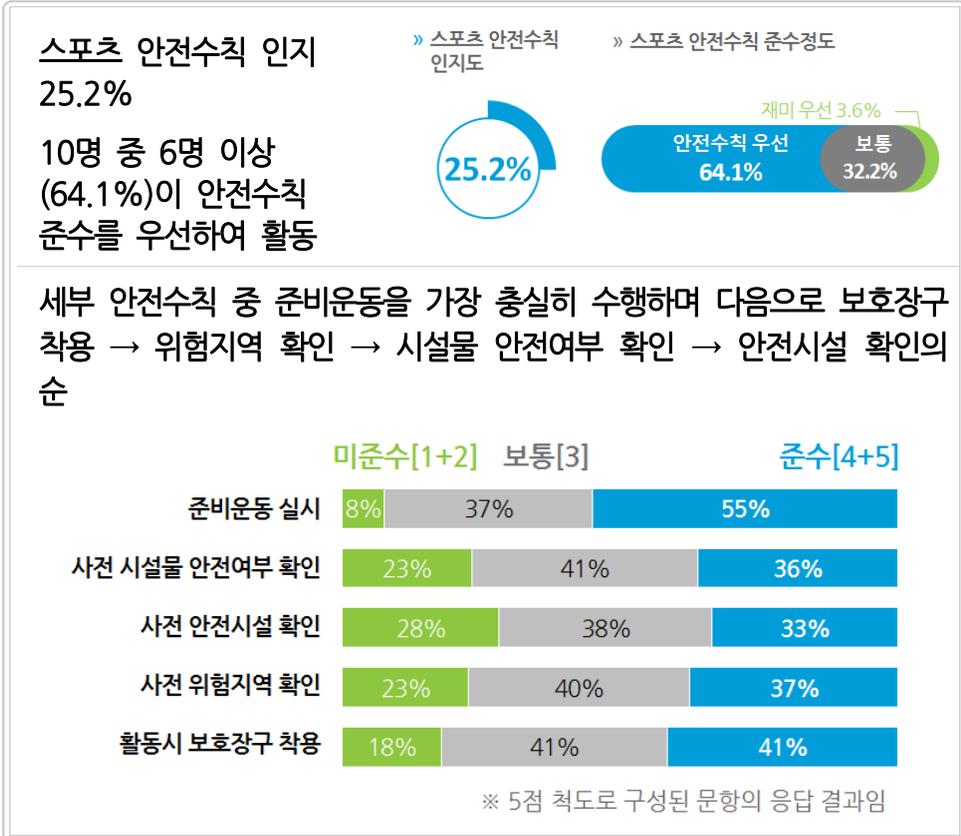


- 염좌의 경우 ‘냉찜질’을 주로 실시하고 있으며 통증을 느낀 경우 10명 중 5명 이상 (56.6%)은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됨.
- 발생한 부상은 ‘주관적 판단 후 자가치료’한 비율이 50.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의사 진료 및 치료’(38.3%), ‘약사 상담 후 자가치료’(11.6%)의 순이며, 부상 경험자 10명 중 8명 이상(83.5%)은 치료 비용을 자부담하고, 전체적인 치료비용 개인 부담 금액은 평균 61,877원임.
 - 부상 가료기간이 길수록 치료비용의 개인부담금액 역시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 가료에 필요한 기간은 ‘1-2주’(31.0%)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3-4주’(23.1%)이며 ‘1주 미만’도 17.0%로 비교적 높음.

스포츠 안전사고 실태조사 -종합편

- 부상 경험자 10명 중 약 2명 이상(23.7%)이 부상으로 인해 후유증이 발생함.
 - 가료기간이 길수록 후유발생률 및 발생 후유의 심각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 부상 경험자 10명 중 5명가량(49.5%)은 부상 후 활동 주기 및 횟수가 감소하였고, 이의 주된 이유는 ‘신체적 불편함’(63.8%)때문이며 다음으로 ‘심리적 두려움’(25.7%), ‘가족 또는 지인의 반대’(8.7%)의 순임.

5 스포츠 안전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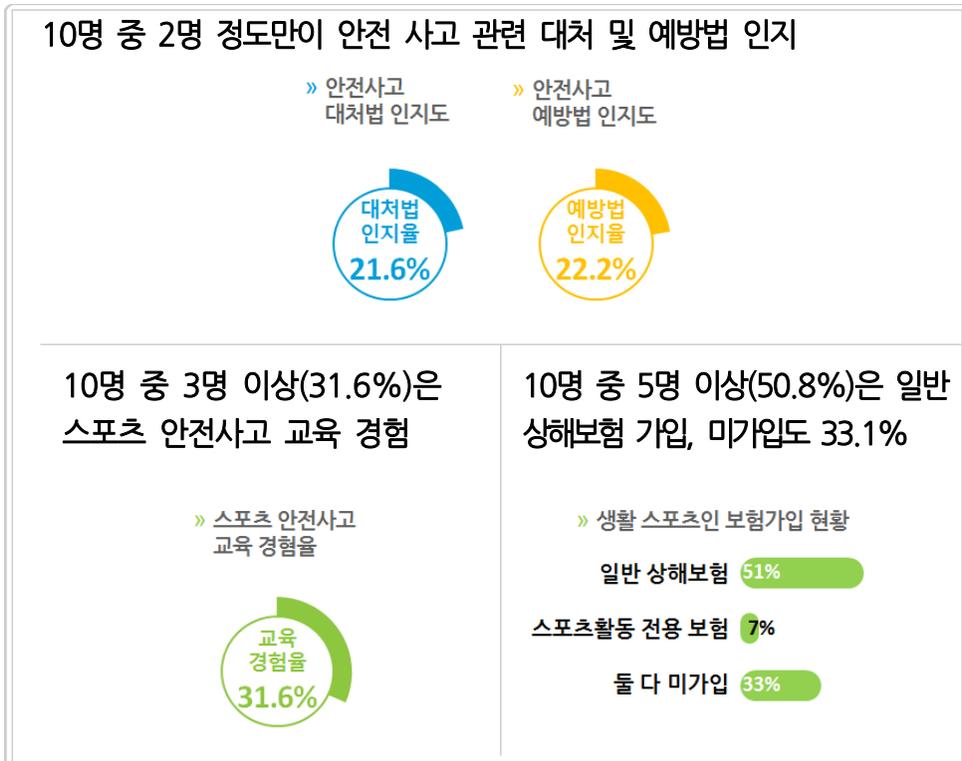
◎ 안전 인식

- 골프 안전수칙을 ‘인지’하고 있다는 응답은 25.2%(매우 잘 알고 있다 3.3%+대체로 아는 편 21.9%)이며 10명 중 5명가량(48.2%)은 ‘같이 운동하는 사람’으로부터 안전수칙을 알게 되었다고 응답함.
- 부상 경험자 10명 중 6명 이상(64.1%: 안전 최우선 17.6%+어느 정도 안전 우선 46.5%)은 운동을 할 때 ‘안전 수칙 준수’를 우선시함.
- 세부적으로는 ‘준비 운동을 실시한다’는 응답이 55.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활동시 보호장구 착용’(41.3%), ‘사전에 위험지역 확인’(37.4%) 등의 순으로 조사됨(5점 척도 중 [4]그렇다, [5]매우 그렇다의 합산비율 기준).
- 시설물 안전여부 미확인, 안전시설 미확인, 위험지역 미확인 이유 모두 ‘확인하기 귀

스포츠 안전사고 실태조사 -종합편

참아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전반적으로 '확인 방법을 몰라서'의 이유로 인해 확인을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됨.

- 보호장구를 구매하기 위한 지출의향 및 지출수준에 대해서는 단지 2.1%만이 지출의향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1인 평균 연간 지출의향(또는 현재 지출금액)은 약 30만원 선임.



◎ 대처 및 예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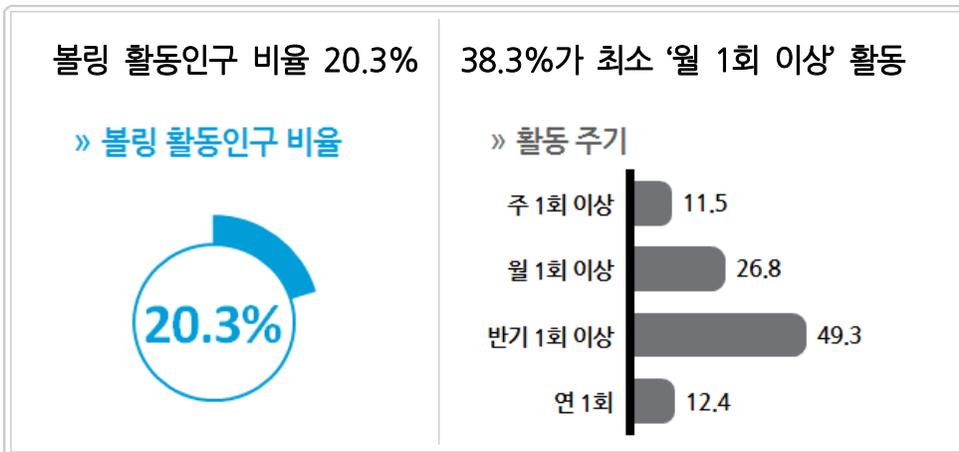
- 부상 경험자의 39.8%(전혀 모름 1.8%+잘 모르는 편 38.0%)가 골프를 하던 중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시 대처방법을 '미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예방법 역시 '미인지' 비율이 33.4%(전혀 모름 2.1%+잘 모르는 편 31.3%)에 달함.
- 인지도는 대처법 24.4%(매우 잘 앎 1.5%+대체로 아는 편 20.1%), 예방법 22.2%(매우 잘 앎 1.8%+대체로 아는 편 20.4%)임.

부록1 - 종목별 주요결과 요약

- 응급처치 요령 인지도는 ‘심폐소생술 실시요령’(39.5%), ‘골절 및 염좌 발생시 대처요령’ (31.0%), ‘저체온증 발생 시 대처요령’(29.2%) 등의 순임(5점 척도 중 [4]어느 정도 알고 있음, [5]매우 잘 알고 있음의 합산비율 기준).
- 안전사고 응급처치 요령 습득 경로는 ‘인터넷’이 35.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TV’(29.5%), ‘스포츠 전문지도자/숙련자’(21.9%), ‘의료인’(18.5%) 등의 순임.
- 스포츠 안전사고에 대비한 ‘교육을 경험’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31.6%로 조사되었으며, 스포츠 안전사고 대비 교육을 받은 기관은 ‘동호회/팀’(31.7%), ‘국가/공공기관’(24.0%), ‘지역/종목별 협회·단체’(22.1%) 등의 순임.
- 스포츠 안전사고에 대비 교육을 받지 않은 이유는 ‘스포츠활동 중 부상을 대비한 안전교육이 있는지 몰라서’(46.2%), ‘교육을 필요성을 못 느껴서’(29.8%), ‘교육을 받고 싶었으나 어느 기관에서 교육하는지 몰라서’(23.1%) 등의 순임.
- 스포츠 안전사고에 대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69.0%(매우 필요 15.5%+필요 53.5%)로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 7.0%(전혀 불필요 0.6%+불필요 6.4%)에 비해 현저히 높음.
- ‘일반 상해보험 및 공제 가입률’이 50.8%, ‘스포츠 활동 전용 보험 및 공제 가입률’은 7.0%에 불과하며 ‘둘 다 미가입’ 상태인 응답자 비율도 33.1%에 달함.

15. 볼링

1 생활스포츠 참여 실태



- 최근 1년간 스포츠활동의 일환으로 볼링을 경험한 인구 비율은 20.3%임.
- 전체적으로 10명 중 약 3명 이상(38.3%: 11.5%+ 26.8%)은 최소 월 1회 이상의 횟수로 볼링을 즐기고 있으며, 1회 평균 활동시간은 84.16분임.
- 대부분 오후에서 야간 시간대 볼링을 주로 즐기고 있고, 특히 그 중에서 '저녁'(18-21시 이전)시간대에 절반가량(49.8%)이 활동을 하고 있음.
- 볼링 인구 10명 중 9명 이상(90.2%)은 '볼링장'에서 볼링을 즐기고 있음.

2 부상 발생 현황

볼링 활동 인구 중 10명 중
3명 이상 부상 경험
연 평균 1.5회 가량 부상경험

» 볼링 부상 경험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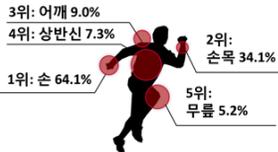
» 평균 부상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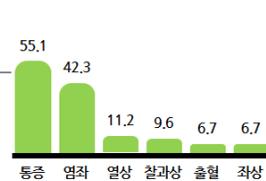
연 평균 1.5회
(2015년 1년간 기준)

주요 부상 부위는 ‘손’(64.1%), ‘손목’(34.1%) 순, 주요 부상 종류는 ‘통증’(55.1%)과 ‘염좌’(42.3%), 2명 중 1명은 ‘무리한 동작’(58.3%)으로 인해 부상을 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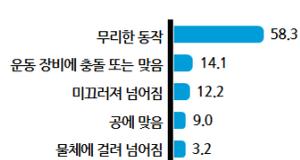
» 부상 부위



» 주요 발생 부상종류 Top5



» 부상 직접적 원인



- 볼링 활동인구 전체의 3분의 1 정도인 32.0%의 응답자가 심한 부상부터 경미한 부상까지 당한 경험이 있음.
- 볼링 부상 경험은 자주 활동(주 1회 이상 19.9%, 월 1회 이상 30.8%)하는 사람들일 수록, 1회 참여 시 약 76분 가량 활동하는 사람들에게서 주로 일어나고 있음.
- 종목 부상 경험자 10명 중 7명 이상(77.9%)은 본인의 볼링 능숙도를 ‘초급’ 정도로 인식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활동 경력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볼링을 통해 발생하는 부상은 주로 ‘손’(64.1%)과 ‘손목’(34.1%)에서 높은 비율로 일어나고 있으며 가장 흔한 부상 유형은 ‘통증’(55.1%), ‘염좌’(42.3%), ‘열상’(11.2%), ‘찰과상’(9.6%) 등의 순임.
- 볼링 부상 경험자들이 겪은 여러 부위와 종류를 종합한, 가장 심각했던 부상 유형은 ‘손목 염좌’(17.0%)임.
- 부상의 직접적 원인으로는 ‘무리한 동작’이 58.3%로 가장 높게 나타나 볼링을 통해 부상을 입는 사람 2명 중 1명은 시합이나 훈련 중 무리한 동작 때문에 부상을 입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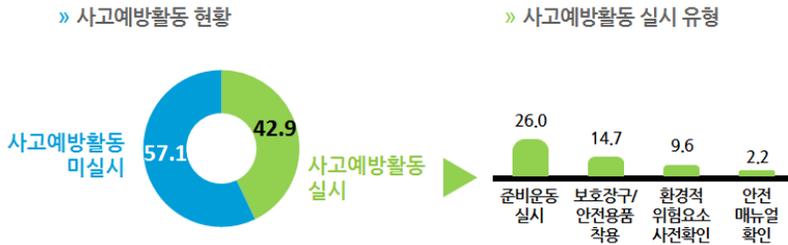
것을 알 수 있음.

- 연 평균 약 1.5회 가량의 부상을 입고 있음.
- 볼링의 주 활동 시간대는 ‘저녁’(18-21시 이전)시간대가 49.8%이고, 다음으로 ‘야간’(21-24시 이전)시간대가 26.0%로 활동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전체적인 부상 발생 그래프가 주 활동 시간대 그래프와 유사한 모양으로 나타나, 주 활동 시간대와 부상 발생 시간대가 서로 비슷함을 알 수 있음.

3 부상 발생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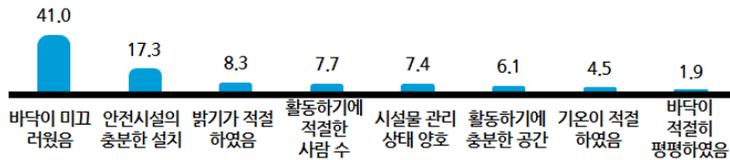
전체적으로 부상경험자들의 사고예방활동은 절반 이하

부상경험자의 57.1%는 부상 전 아무런 사고예방활동을 실시하지 않음
 실시한 응답자 중에서도 '준비운동'(26.0%)을 포함하여 전반적으로 20% 내외의 실시율



여러 환경적 요인 중 가장 주요한 문제는 '미끄러운 바닥'(41.0%)과 '충분치 않은 안전시설'(17.3%)

» 부상 장소 환경적 요인(Bottom2: 매우 부정평가+부정평가 합산)



※ 5점 척도로 응답된 결과 중 [1] 매우 부정평가와 [2] 부정평가의 합산 비율을 제시함
 ※ '미끄러운 바닥'은 역척도 문항이므로 Bottom2는 [4]부정평가와 [5]매우 부정평가의 합산 비율임

◎ 부상발생 이전 상황 : 예방활동 측면

- 대부분의 사고예방활동 실시비율에서 가장 높았던 '준비운동'(26.0%)을 포함하여 모두 20% 내외 정도로 나타나고, 아무런 사고예방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비율도 57.1%로 나타나 전반적으로는 대부분의 사고예방활동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있음.
- 특히 전문/숙련자가 배석하지 않은 집단에서 '보호장구 및 안전용품 착용', '환경적 위험요소 확인', '준비운동 실시' 등 사고예방활동을 수행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됨.
- 장비 착용을 하는 경우, 10명 중 7명 이상(78.3%)은 부상 당시 '손목 보호대'를 착용, 착용한 장비의 전반적 상태는 양호(32.6%)했던 것으로 나타남.

스포츠 안전사고 실태조사 -종합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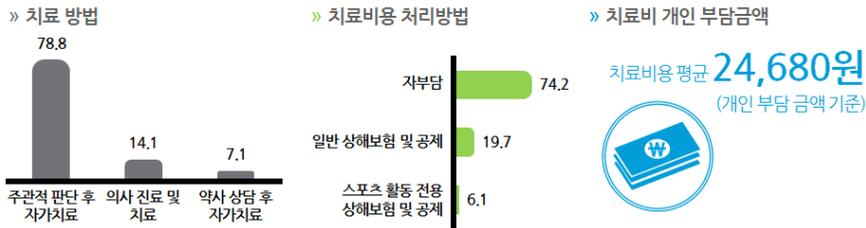
- 환경적 위험요소 확인자의 30.0%만이 성실히 확인할 뿐 나머지는 불성실하거나 형식적 확인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준비운동 실시자는 ‘유연성’(45.7%), ‘근력’(28.4%), ‘심폐지구력’(27.2%) 준비운동을 실시(5점 척도 중 [4]그렇다, [5]매우 그렇다의 합산비율 기준)하고 있으며 전문/숙련자가 배석할수록, 그리고 교육을 실시할수록 준비운동 역시 더 충실히 수행하는 것으로 조사됨.
 - 확인한 안전매뉴얼의 경우 전반적으로 ‘부상 방지에 도움이 안됨’(57.1%)으로 평가함.
- 부상 전 신체상태가 ‘양호’했다는 응답이 36.2%로, ‘비양호’했다는 응답(6.7%)에 비해 5배 이상 높았으나 종합적으로는 10명 중 3명만이 신체상태가 ‘양호’한 상태에서 운동에 참여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음.

◎ 부상 당시 상황 : 환경적 요인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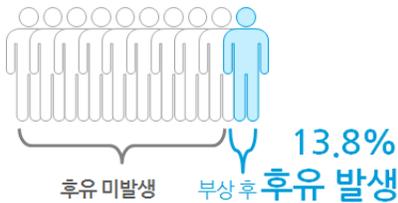
- ‘일반 볼링장’에서 부상을 당한 응답자가 88.1%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락 볼링장’에서 부상을 당한 응답자가 11.2%로 나타나 이들 두 장소에서 대부분의 부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부상 장소 운영 주체는 ‘민간’시설이 75.3%, ‘공공’시설이 4.2%임.
- 부상 장소에 안전 안내문구 및 책자 비치여부에 대해, ‘안내문구 및 책자가 비치되었다’는 응답은 13.0%이며 비치된 경우 35.0%는 이를 확인한 것으로 나타남.
- 부상 장소의 환경적 요인을 종합한 결과, ‘바닥이 미끄러웠음’에 대한 평가가 41.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안전시설의 충분한 설치’에 대한 부정적 평가(17.3%), ‘밝기가 적절하였음’에 대한 부정적 평가(8.3%) 등의 순으로 조사됨(5점 척도 중 [1]매우 부정적, [2]부정적의 합산비율 기준. 단, ‘미끄러운 바닥’은 역척도 문항이므로 Bottom2는 [4]부정평가와 [5]매우 부정평가의 합산 비율).
- 부상 경험자 10명 중 약 4명은 부상 당시 ‘지도자 자격증이 있는 전문 지도자’(2.8%)나 ‘해당 종목을 잘 아는 숙련자’(33.8%)가 배석 중이었고 이 중, 지도자가 배석한 경우 절반가량(50.0%)은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 관련 교육을 실시한 반면 숙련자는 배석한 10명 중 1명 정도(10.5%)만이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였음.

4 부상 후 대처 및 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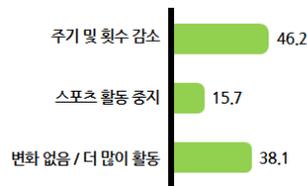
발생된 부상 중 78.8%는 ‘주관적 판단 후 자가치료’
 10명 중 7명 이상(74.2%)은 치료비용을 ‘자부담 처리’
 개인 부담금액 기준, 1인 1건당 치료 소요비용은 평균 24,680원



부상 경험자 10명 중
 약 1명가량(13.8%)이
 부상으로 인해 후유증 발생



10명 중 6명 정도는 부상 이후
 스포츠 활동을 즐기거나(46.2%)
 중지(15.7%)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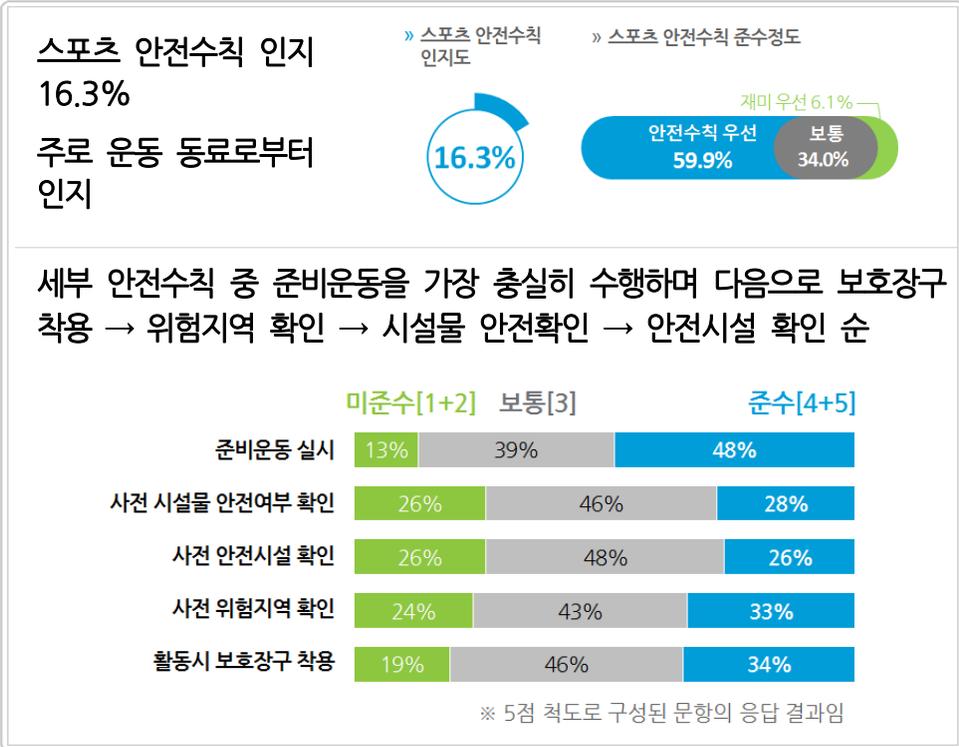


- 염좌, 통증의 경우 ‘냉찜질’을, 출혈의 경우 ‘지혈’을 실시하는 등 전반적으로 부상 종류에 적절한 응급 대처를 실시하고 있음.
- 발생한 부상은 ‘주관적 판단 후 자가치료’한 비율이 78.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의사 진료 및 치료’(14.1%), ‘약사 상담 후 자가치료’(7.1%)의 순이며, 부상 경험자 10명 중 7명 이상(74.2%)은 치료비용을 자부담하고, 전체적인 치료비용 개인 부담금액은 평균 24,680원임.
 - 통증이나 염좌의 경우 전체의 평균보다 적고 부상 가료기간이 길수록 치료비용의 개인 부담금액 역시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 가료에 필요한 기간은 ‘1주 미만’(29.8%)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1-2주’(27.9%)이며 ‘경미-가료기간 없음’도 27.2%로 비교적 높음.

스포츠 안전사고 실태조사 -종합편

- 부상 경험자 10명 중 약 1명가량(13.8%)이 부상으로 인해 후유증이 발생함.
- 부상 경험자 10명 중 4명 이상(46.2%)은 부상 후 활동 주기 및 횟수가 감소하였고, 이의 주된 이유는 ‘신체적 불편함’(56.0%)때문이며 다음으로 ‘심리적 두려움’(26.4%), ‘가족 또는 지인의 반대’(9.8%)의 순임.

5 스포츠 안전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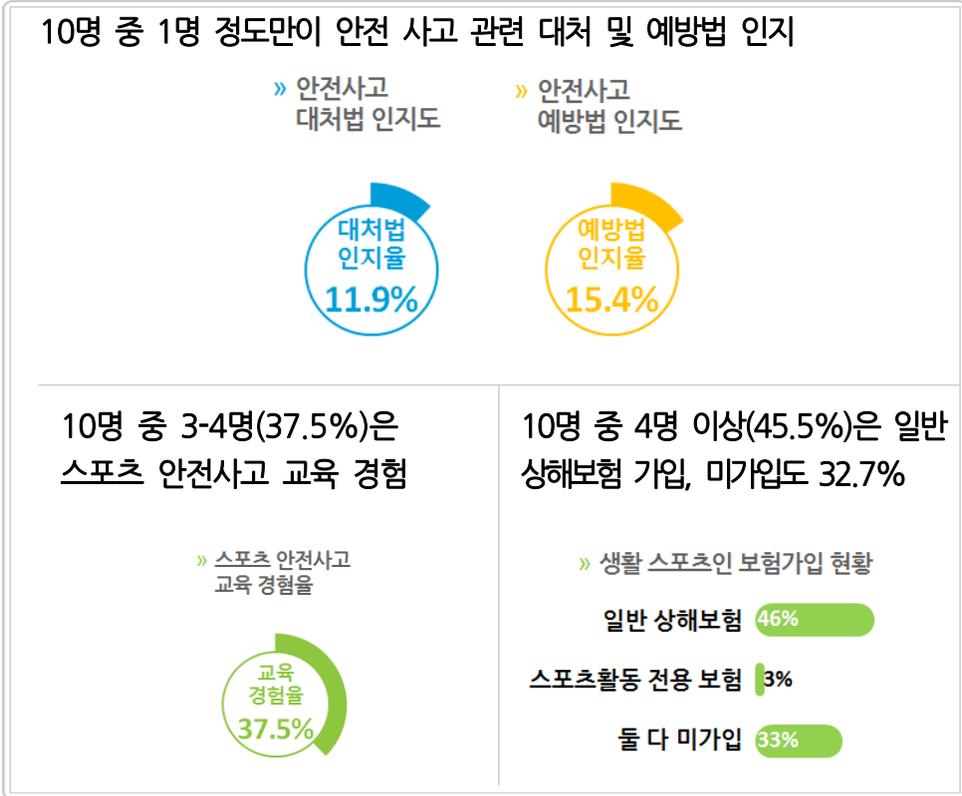


◎ 안전 인식

- 볼링 안전수칙을 ‘인지’하고 있다는 응답은 16.3%(매우 잘 알고 있음 2.2%+대체로 아는 편 14.1%)이며 10명 중 4명(47.1%)은 ‘같이 운동하는 사람’으로부터 안전 수칙을 알게 되었다고 응답함.
- 부상 경험자 10명 중 6명 정도(59.9%: 안전 최우선 19.6%+어느 정도 안전 우선 40.4%)는 운동을 할 때 ‘안전 수칙 준수’를 우선시함.
- 세부적으로는 ‘사전에 안전시설을 확인한다’는 응답이 26.0%로 가장 낮고, 다음으로 ‘사전에 시설물 안전여부를 확인한다’(27.6%), ‘사전에 위험지역을 확인한다’(33.3%) 등의 순으로 조사됨(5점 척도 중 [4]그렇다, [5]매우 그렇다의 합산비율 기준).
- 시설물 안전여부 미확인인 ‘확인하기 귀찮아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위험지역 미확인인 ‘확인 방법을 모름’이 가장 높게 나타나, 두 사례가 미확인인 주된 이유인 것으로 조사됨.

스포츠 안전사고 실태조사 -종합편

- 보호장구를 구매하기 위한 지출의향 및 지출수준에 대해서는 8.3%가 지출의향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1인 평균 연간 지출의향(또는 현재 지출금액)은 약 17만원 선임.



◎ 대처 및 예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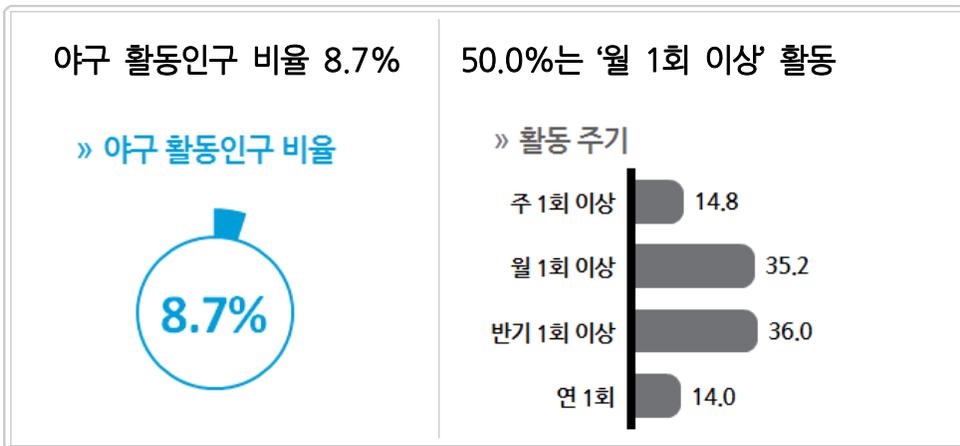
- 부상 경험자의 43.9%(전혀 모름 4.8%+잘 모르는 편 39.1%)가 불링을 하던 중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시 대처방법을 ‘미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예방법 역시 ‘미인지’ 비율이 42.6%(전혀 모름 4.5%+잘 모르는 편 38.1%)에 달함.
 - 인지율은 대처법 11.9%(매우 잘 앎 1.6%+대체로 아는 편 10.3%), 예방법 15.4%(매우 잘 앎 1.3%+대체로 아는 편 14.1%)임.
- 응급처치 요령 인지도는 ‘회전근개 파열 시 대처 요령’을 알고 있는 경우가 6.7%로 가장 낮고, 다음으로 ‘허리/목 디스크 탈출 발생 시 대처법 인지’(9.3%), ‘뇌진탕 발생 시 대처법 인지’(10.3%) 등의 순으로 낮음(5점 척도 중 [4]어느 정도 알고 있음, [5]매우 잘 알고 있음의 합산비율 기준).

부록1 - 종목별 주요결과 요약

- 안전사고 응급처치 요령 습득 경로는 ‘인터넷’이 37.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TV’(36.5%), ‘스포츠 전문지도자/숙련자’(21.8%), ‘응급처치 전문기관’(20.5%) 등의 순임.
- 스포츠 안전사고에 대비한 ‘교육을 경험’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37.5%로 조사되었으며, 스포츠 안전사고 대비 교육을 받은 기관은 ‘국가 및 공공기관’(36.8%), ‘대학교의 정규 강좌’(27.4%), ‘동호회/팀’(19.7%) 등의 순임.
- 스포츠 안전사고에 대비 교육을 받지 않은 이유는 ‘스포츠활동 중 부상을 대비한 안전교육이 있는지 몰라서’(46.7%), ‘교육을 필요성을 못 느껴서’(28.7%), ‘교육을 받고 싶었으나 어느 기관에서 교육하는지 몰라서’(24.1%) 등의 순임.
- 스포츠 안전사고에 대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72.4%(매우 필요 17.5%+필요 54.8%)로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 2.6%(전혀 불필요 0.3%+불필요 2.2%)에 비해 현저히 높음.
- ‘일반 상해보험 및 공제 가입률’이 45.5%, ‘스포츠 활동 전용 보험 및 공제 가입률’은 2.6%에 불과하며 ‘둘 다 미가입’ 상태인 응답자 비율도 32.7%에 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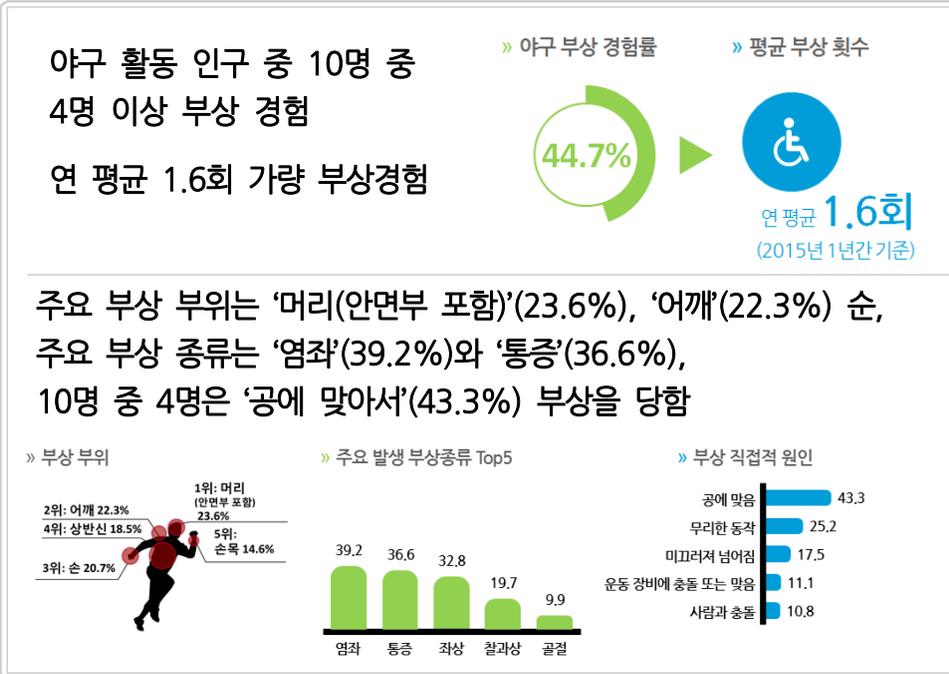
16. 야구

1 생활스포츠 참여 실태



- 최근 1년간 스포츠활동의 일환으로 야구를 경험한 인구 비율은 8.7%임.
- 야구 활동인구의 절반(50.0%: 주1회 이상 14.8%+월1회 이상 35.2%)은 최소 월 1회 이상 야구를 즐기고 있으며, 1회 평균 활동시간은 128.52분임.
- 주로 야간을 제외한 시간대에서 야구를 즐기고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오전'(09시-12시 이전, 28.0%) 시간대와 '오후'(15시-18시 이전, 34.5%) 시간대에 주로 즐기고 있음.
- 야구 활동인구 10명 중 5명 이상(53.4%)은 '운동장'에서 야구를 즐기고 있음.

2 부상 발생 현황



- 야구 활동인구 전체의 10명중 4명 정도인 44.7%의 응답자가 심한 부상부터 경미한 부상까지 당한 경험이 있음.
- 야구 부상 경험은 자주 활동(주 1회 이상 26.1%, 월 1회 이상 54.1%)하는 사람들일 수록, 1회 참여 시 약 130분가량 즐기는 사람들에게서 주로 일어나고 있음.
- 종목 부상 경험자 10명 중 6명 이상(65.3%)은 본인의 야구 능숙도를 ‘초급’ 정도로 인식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활동 경력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야구를 통해 발생하는 부상은 주로 ‘머리(안면부 포함)’(23.6%)와 ‘어깨’(22.3%), ‘손’(20.7%)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가장 흔한 부상 유형은 ‘염좌’(39.2%)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통증’(36.6%), ‘좌상’(32.8%), ‘찰과상’(19.7%) 등의 순임.
- 야구 부상 경험자들이 겪은 여러 부위와 종류를 종합한, 가장 심각했던 부상 유형은 ‘어깨 통증’(9.2%)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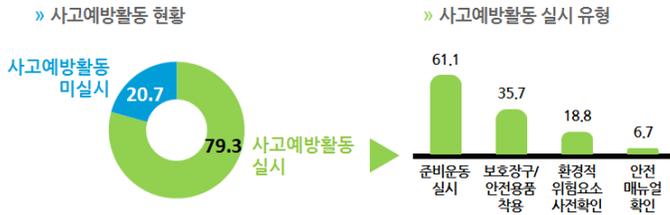
스포츠 안전사고 실태조사 -종합편

- 전문 체육 지도자 조사 및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자료 분석 결과 ‘전문 체육 지도자 조사’의 경우에는 ‘통증’(90.9%), ‘염증’(36.4%), ‘염좌’(27.5%) 등의 순이고,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자료를 살펴보면 ‘골절’(29.1%), ‘파열’(14.1%), ‘염좌’(9.3%)의 순임.
- 부상의 직접적 원인으로는 ‘공에 맞음’이 43.3%로 가장 높게 나타나 야구를 통해 부상을 입는 사람 10명 중 4명은 시합이나 훈련 중 공에 맞아서 부상을 입는 것을 알 수 있음.
- 연 평균 약 1.6회 가량의 부상을 입고 있음.
- 야구의 주 활동 시간대는 ‘오후’(15시-18시 이전, 34.5%) 시간대와 ‘오전’(09시-12시 이전, 28.0%) 시간대 인 것으로 나타났고, 부상 발생은 ‘점심’(12시-15시 이전) 시간대에 활동시간에 비하여 높은 부상발생비율을 보이고 있어 다소간에 차이가 있음.

3 부상 발생 환경

전체적으로 부상경험자들의 사고예방활동은 미흡

부상경험자의 20.7%는 부상 전 아무런 사고예방활동을 실시하지 않음
 실시한 응답자 중에서도 '준비운동'(61.1%)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높지 않음



여러 환경적 요인 중 가장 주요한 문제는

‘충분치 않은 안전시설’(29.0%)과 ‘미끄러운 바닥’(26.4%)

» 부상 장소 환경적 요인(Bottom2: 매우 부정평가+부정평가 합산)



※ 5점 척도로 응답된 결과 중 [1] 매우 부정평가와 [2] 부정평가의 합산 비율을 제시함
 ※ '미끄러운 바닥'은 역척도 문항이므로 Bottom2는 [4]부정평가와 [5]매우 부정평가의 합산 비율임

◎ 부상발생 이전 상황 : 예방활동 측면

- 대부분의 사고예방활동 실시비율에서 준비운동(61.1%)과 보호장구/안전용품 착용(35.7%)을 제외하면 모두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는 준비운동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고예방활동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특히 전문/숙련자가 미배석함에 따라 ‘보호장구 및 안전용품 착용’, ‘환경적 위험요소 확인’, ‘준비운동 실시’, ‘안전매뉴얼 확인’ 등 사고예방활동을 보다 활발하게 수행하지 않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젊은 층의 사고예방활동이 저조함.
 - 장비 착용을 하는 경우, 10명 중 7명 이상은 부상 당시 ‘장갑’(78.6%)과 ‘헬멧’(77.7%)을 착용, 착용한 장비의 전반적 상태는 ‘양호’(38.4%)했던 것으로 나타남.

스포츠 안전사고 실태조사 -종합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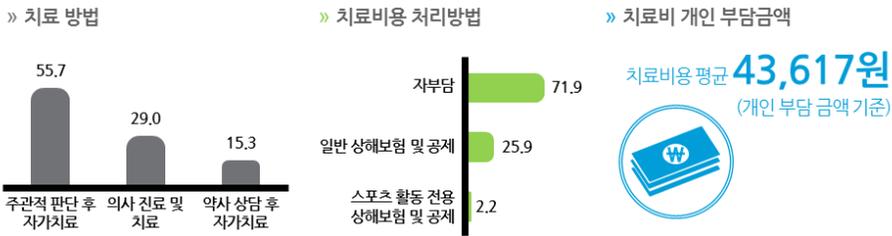
- 환경적 위험요소 확인자의 25.4%만이 성실히 확인할 뿐 나머지는 불성실하거나 형식적 확인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준비운동 실시자는 ‘유연성’(52.6%), ‘근력’(45.8%), ‘심폐지구력’(37.0%) 등 다양한 준비운동을 실시(5점 척도 중 [4]그렇다, [5]매우 그렇다의 합산비율 기준)하고 있으며 전문/숙련자가 배석하여 교육을 실시할수록 준비운동 역시 더 충실히 수행하는 것으로 조사됨.
- 확인한 안전매뉴얼의 경우 전반적으로 ‘부상 방지에 도움이 되었다’(47.6%)고 평가됨.
- 부상 전 신체상태가 ‘양호’했다는 응답이 39.5%로, ‘비양호’했다는 응답(4.8%)에 비해 9배 이상 높았으나 종합적으로는 10명 중 4명만이 신체상태가 양호한 상태에서 운동에 참여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음.

◎ 부상 당시 상황 : 환경적 요인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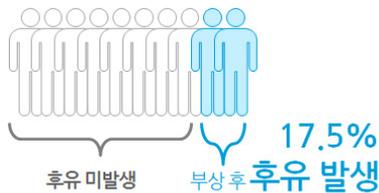
- ‘일반 운동장’에서 부상을 당한 응답자가 32.8%로 가장 높고 ‘잔디 없는 운동장’(고정식 베이스, 23.9%), ‘인조잔디 야구장’(20.1%)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부상 장소 운영 주체는 ‘민간’시설이 37.3%, ‘공공’시설이 36.6%임.
- 부상 장소에 안전 안내문구 및 책자 비치여부에 대해, ‘안내문구 및 책자가 비치되었다’는 응답은 11.0%이며 비치된 경우 67.6%는 이를 확인한 것으로 나타남.
- 부상 장소의 환경적 요인을 종합한 결과, ‘안전시설의 충분한 설치’의 부정적 평가가 29.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바닥이 미끄러웠음’(26.4%), ‘시설물 관리상태 양호’의 부정적 평가(20.7%), ‘바닥이 적절히 평평하였음’의 부정적 평가(15.0%) 등의 순으로 조사됨(5점 척도 중 [1]매우 부정적, [2]부정적의 합산비율 기준. 단, ‘미끄러운 바닥’은 역척도 문항이므로 Bottom2는 [4]부정평가와 [5]매우 부정평가의 합산 비율).
- 일반운동장(40.8%)의 경우 ‘안전시설의 충분한 설치’의 부정적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고, 잔디 없는 야구장(고정식 베이스)의 경우 ‘시설물 관리상태 양호’의 부정적 평가(32.0%), ‘바닥이 적절히 평평하였음’의 부정적 평가(25.3%)에 대한 비율이 높음.
- 부상 경험자 10명 중 약 5명은 부상 당시 ‘지도자 자격증이 있는 전문지도자’(4.2%)나 ‘해당 종목을 잘 아는 숙련자’(48.1%)가 배석 중이었고 이 중, 지도자가 배석한 경우 대부분(83.3%)은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 관련 교육을 실시한 반면 숙련자는 배석한 10명 중 2명 정도(27.3%)만이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였음.

4 부상 후 대처 및 경과

발생된 부상 절반가량(55.7%)은 ‘주관적 판단 후 자가치료’
10명 중 7명 이상(71.9%)은 치료비용을 ‘자부담’ 처리
개인 부담금액 기준, 1인 1건당 치료 소요비용은 평균 43,617원



부상 경험자 10명 중
약 2명가량(17.5%)이
부상으로 인해 후유증 발생



10명 중 6명 정도는 부상 이후
스포츠 활동을 줄이거나(45.2%)
중지(12.4%)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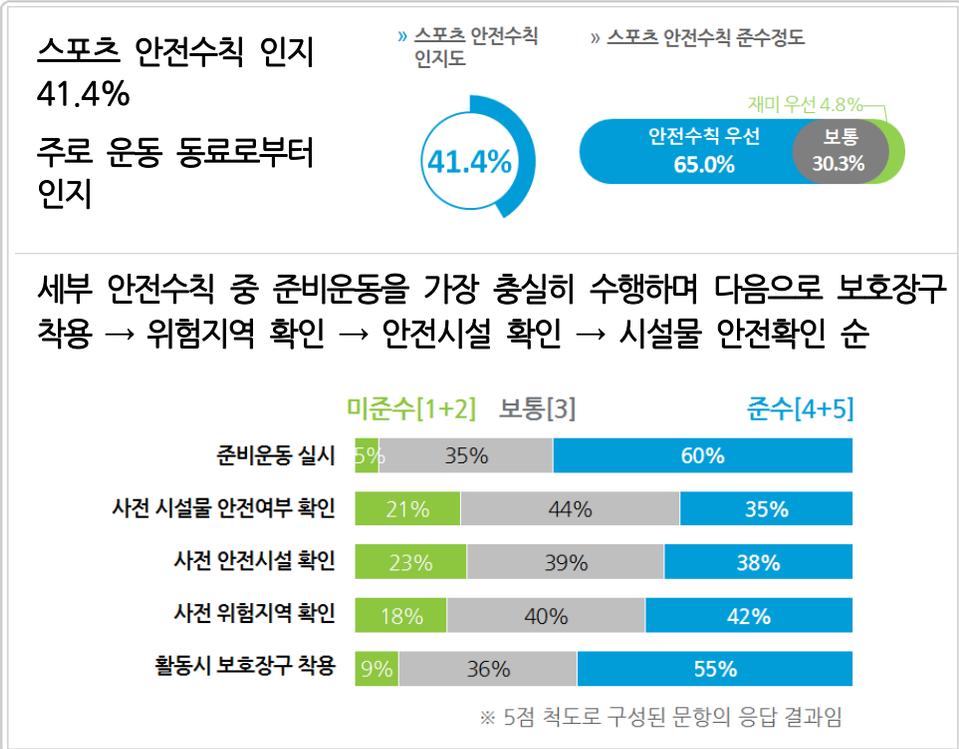


- 염좌, 좌상의 경우 ‘냉찜질’을, 찰과상의 경우 ‘소독’을 실시하는 등 전반적으로 부상 종류에 적절한 응급대처를 실시하고 있음.
- 발생한 부상은 ‘주관적 판단 후 자가치료’한 비율이 55.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의사 진료 및 치료’(29.0%), ‘약사 상담 후 자가치료’(15.3%)의 순이며, 부상 경험자 10명 중 7명 이상(71.9%)은 치료비용을 자부담하고, 전체적인 치료비용 개인 부담 금액은 평균 43,617원임.
- 염좌나 좌상, 통증의 경우 전체의 평균보다 적은 개인부담금을 부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부상 가료기간이 길수록 치료비용의 개인부담금액 역시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스포츠 안전사고 실태조사 -종합편

- 가료에 필요한 기간은 '1-2주'(30.6%)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1주 미만'(23.6%)이며 '3-4주'도 21.0%로 비교적 높음.
- 부상 경험자 17.5%가 부상으로 인해 후유증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됨.
 - '탈구', '파열' 부상에서 후유발생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되었으며 이로 인한 후유증의 심각도 역시 타 종류 대비 높음.
- 부상 경험자 10명 중 4명 이상(45.2%)은 부상 후 활동 주기 및 횟수가 감소하였고, 이의 주된 이유는 '신체적 불편함'(45.9%)때문이며 다음으로 '심리적 두려움'(32.0%), '가족 또는 지인의 반대'(18.2%)의 순임.

5 스포츠 안전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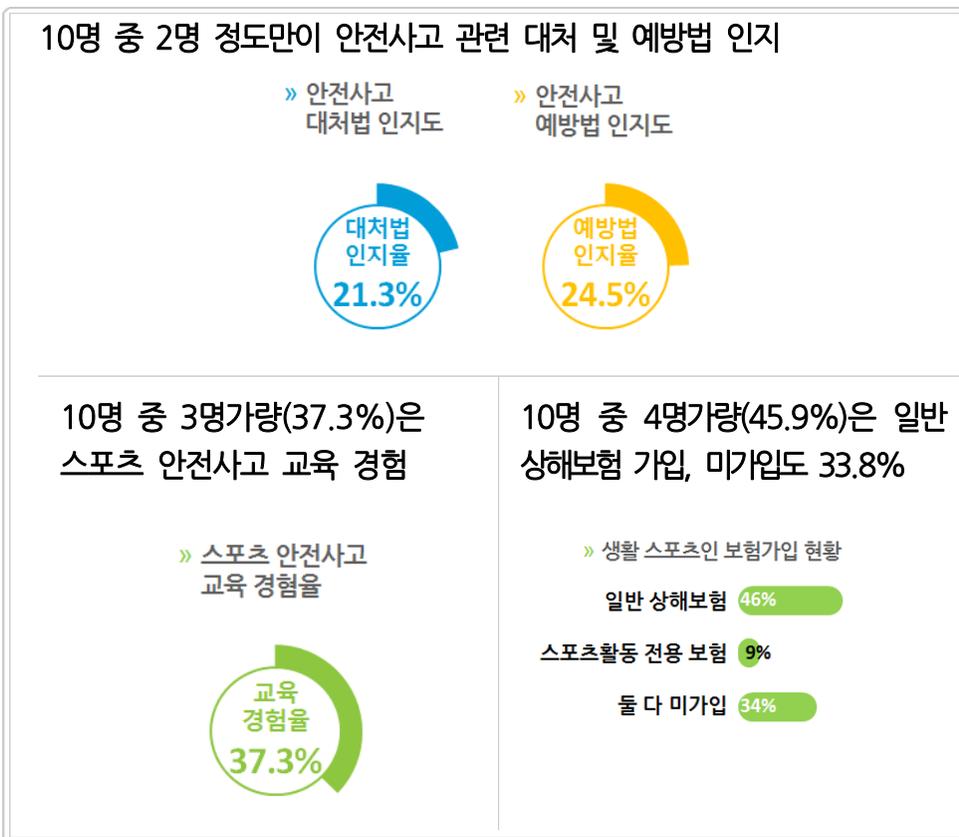


◎ 안전 인식

- 야구 안전수칙을 ‘인지’하고 있다는 응답은 41.4%(매우 잘 알고 있음 4.8%+대체로 아는 편 36.6%)이며 10명 중 5명(54.6%)은 ‘같이 운동하는 사람’으로부터 안전 수칙을 알게 되었다고 응답함.
 - 전문 체육지도자의 54.5%는 안전수칙을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인지율은 큰 차이가 없으나, 72.7%가 ‘교육’을 통해 안전수칙을 인지했다고 하여 생활스포츠인과 큰 차이를 보임.
- 부상 경험자 10명 중 6명 이상(65.0%: 안전 최우선 22.9%+어느 정도 안전 우선 42.0%)은 운동을 할 때 ‘안전 수칙 준수’를 우선시 함.
- 세부적으로는 ‘사전에 안전시설을 확인한다’는 응답이 34.7%로 가장 낮고, 다음으로 ‘사전에 시설물 안전여부를 확인한다’(37.9%), ‘사전에 위험지역을 확인한다’(41.7%) 등의 순임(5점 척도 중 [4]그렇다, [5]매우 그렇다의 합산비율 기준).

스포츠 안전사고 실태조사 -종합편

- 시설물 안전여부 미확인, 안전시설 미확인, 위험지역 미확인 이유 모두 '확인하기 귀찮아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확인 방법을 모름', '확인이 중요하지 않은 스포츠' 또는 '확인할 사항이 없음' 등이 주로 높게 조사됨.
- 보호장구를 구매하기 위한 지출의향 및 지출수준에 대해서는 단 0.6%만이 지출의향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1인 평균 연간 지출의향(또는 현재 지출금액)은 약 29만원 선임.



◎ 대처 및 예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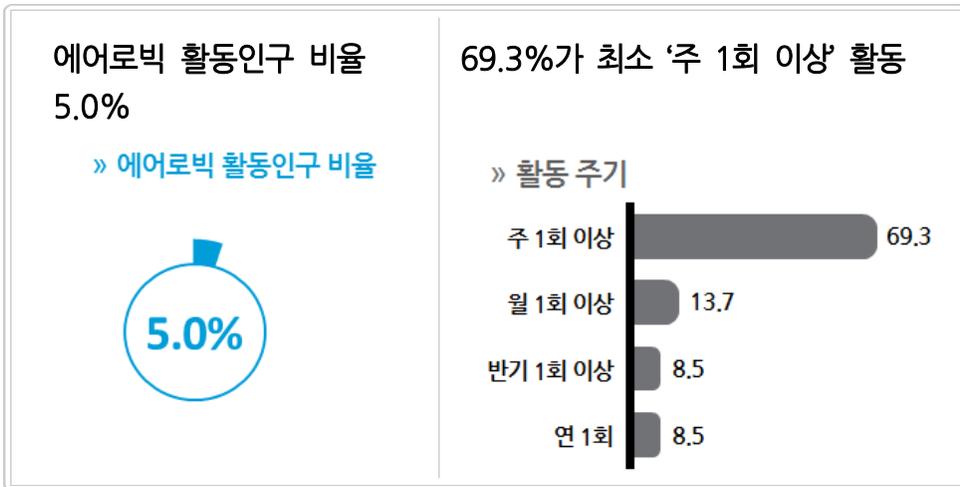
- 야구를 하던 중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시 대처방법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대처법 21.3%(매우 잘 앎 1.6%+대체로 아는 편 19.7%), 예방법 24.5%(매우 잘 앎 1.3%+대체로 아는 편 23.2%)임.

부록1 - 종목별 주요결과 요약

- 부상 경험자의 28.7%(전혀 모름 1.3%+잘 모르는 편 27.4%)가 야구를 하던 중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시 대처방법을 ‘미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예방법 역시 ‘미인지’ 비율이 26.4%(전혀 모름 1.6%+잘 모르는 편 24.8%)에 달함.
- 응급처치 요령 인지도는 ‘회전근개 파열 발생 시 대처 요령’을 알고 있는 경우가 16.2%로 가장 낮고, 다음으로 ‘허리/목디스크 탈출 발생 시 대처 요령’(17.5%), ‘뇌진탕 발생 시 대처 요령’(18.2%) 등의 순임(5점 척도 중 [4]어느 정도 알고 있음, [5]매우 잘 알고 있음의 합산비율 기준).
- 전문 체육지도자 조사 결과 절대적인 인지율은 생활스포츠인 대비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됨.
- 안전사고 응급처치 요령 습득 경로는 ‘인터넷’이 41.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TV’(29.6%), ‘스포츠 전문지도자/숙련자’(29.3%), ‘응급처치 전문기관’(20.1%) 등의 순임.
- 스포츠 안전사고에 대비한 ‘교육을 경험’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37.3%로 조사되었으며, 스포츠 안전사고 대비 교육을 받은 기관은 ‘국가 및 공공기관’ 및 ‘동호회/팀’(각 34.2%), ‘대학교의 정규 강좌’(28.2%), ‘지역/종목별 협회·단체’(23.9%) 등의 순임.
- 스포츠 안전사고에 대비 교육을 받지 않은 이유는 ‘스포츠활동 중 부상을 대비한 안전교육이 있는지 몰라서’(40.8%), ‘교육을 받고 싶었으나 어느 기관에서 교육하는지 몰라서’(35.2%), ‘교육을 필요성을 못 느껴서’(23.5%) 등의 순임.
- 스포츠 안전사고에 대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71.3%(매우 필요 15.0%+필요 56.4%)로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 4.5%(전혀 불필요 1.9%+불필요 2.5%)에 비해 현저히 높음.
- 일반 상해보험 및 공제 가입률이 45.9%, 스포츠 활동 전용 보험 및 공제 가입률은 8.6%에 불과하며 둘 다 미가입 상태인 응답자 비율도 33.8%에 달함.
- 전문 체육지도자 조사 결과 ‘학교안전공제중앙회 공제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응답이 72.7%로 높게 나타났고, ‘가입되어 있지 않다’는 응답이 23.1%,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18.2%인 것으로 조사됨.

17. 에어로빅

1 생활스포츠 참여 실태



- 최근 1년간 스포츠 활동의 일환으로 에어로빅을 경험한 인구 비율은 5.0%임.
- 전체적으로 10명 중 약 7명가량(69.3%)이 최소 주 1회 이상 에어로빅을 즐기고 있으며, 1회 평균 활동시간은 63.63분임.
- 에어로빅의 활동 시간대는 주로 '저녁'(18-21시 이전)시간대에 43.1%가, '오전'(09-12시 이전)시간대에 27.5%가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 외 시간에는 10% 이하임.
- 에어로빅 인구 10명 중 4명 이상(43.1%)은 '체육관'에서 에어로빅을 즐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 부상 발생 현황

에어로빅 활동 인구 중 10명
중 2명가량 부상 경험
연 평균 1.8회 가량 부상경험

» 에어로빅 부상 경험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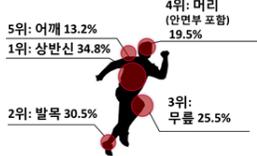
» 평균 부상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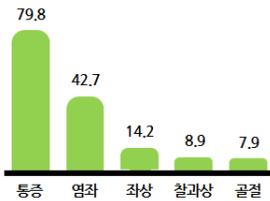
연 평균 **1.8회**
(2015년 1년간 기준)

주요 부상 부위는 '상반신'(34.8%), '발목'(30.5%) 순,
주요 부상 종류는 '통증'(79.8%)과 '염좌'(42.7%),
2명 중 1명은 '사람과 충돌'(51.0%)로 인해 부상을 당함

» 부상 부위



» 주요 발생 부상종류 Top5



» 부상 직접적 원인



- 에어로빅 활동인구 전체 10명 중 2명가량인 17.0%의 응답자가 심한 부상부터 경미한 부상까지 당한 경험이 있음.
- 에어로빅 부상 경험은 자주 활동(주 1회 이상 85.4%)하는 사람들일수록, 1회 참여 시 약 54분 가량 즐기는 사람들에게서 주로 일어나고 있음.
- 종목 부상 경험자 10명 중 6명 이상(62.3%)은 본인의 에어로빅 능숙도를 '초급' 정도로 인식하고 있으며, 대체로 '5년 미만'(65.9%)의 경력자들에게서 발생함.
- 에어로빅을 통해 발생하는 부상은 주로 '상반신'(34.8%), '발목'(30.5%), '무릎'(25.5%)에 일어나고 있으며 가장 흔한 부상 유형은 '통증'(79.8%), '염좌'(42.7%) 등의 순임.
- 에어로빅 부상 경험자들이 겪은 여러 부위와 종류를 종합한, 가장 심각했던 부상 유형은 '무릎 통증'(18.2%)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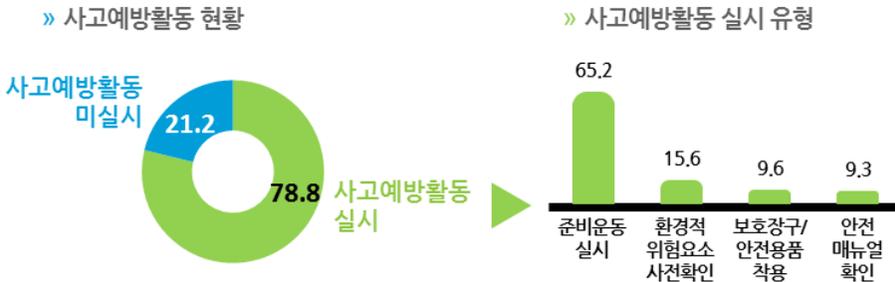
스포츠 안전사고 실태조사 -종합편

- 부상의 직접적 원인으로는 '무리한 동작'이 51.0%로 가장 높게 나타남. 다음으로는, '미끄러져 넘어짐'(23.2%), '점프 후 착지를 잘못함'(17.2%), '사람과 충돌'(12.9%) 등의 순으로 조사됨.
- 연 평균 약 1.8회 가량의 부상을 입고 있음.
- 에어로빅의 주 활동 시간대와 부상 발생 시간대가 비슷하게 나타남. 에어로빅의 주 활동 시간대는 '오전'(09-12시 이전)과 '저녁'(18-21시 이전)시간대인 것으로 나타남. 부상 발생 시간대 역시 비슷한 가운데, 저녁보다는 오전에 부상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

3 부상 발생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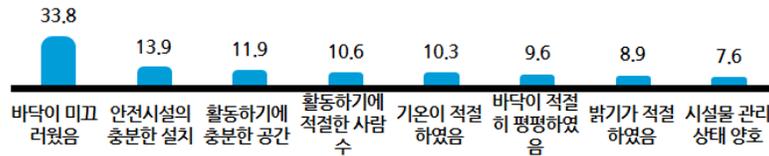
전체적으로 부상경험자들의 사고예방활동은 미흡

부상경험자의 21.2%는 부상 전 아무런 사고예방활동을 실시하지 않음
 실시한 응답자 중에서도 '준비운동'(65.2%)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15% 이하의 실시율



여러 환경적 요인 중 가장 주요한 문제는 '미끄러운 바닥'(33.8%)과 '충분치 않은 안전시설'(13.9%)

» 부상 장소 환경적 요인(Bottom2: 매우 부정평가+부정평가 합산)



※ 5점 척도로 응답된 결과 중 [1] 매우 부정평가와 [2] 부정평가의 합산 비율을 제시함
 ※ '미끄러운 바닥'은 역척도 문항이므로 Bottom2는 [4]부정평가와 [5]매우 부정평가의 합산 비율임

◎ 부상발생 이전 상황 : 예방활동 측면

- 대부분의 사고예방활동 실시비율에서 가장 높았던 '준비운동'(65.2%)을 제외하면 모두 15% 이하로 나타나 전반적으로는 준비운동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고예방활동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특히 전문/숙련자가 배석함에 따라 '보호장구 및 안전용품 착용', '환경적 위험요소 확인', '준비운동 실시' 등 사고예방활동을 보다 활발하게 수행함.

스포츠 안전사고 실태조사 -종합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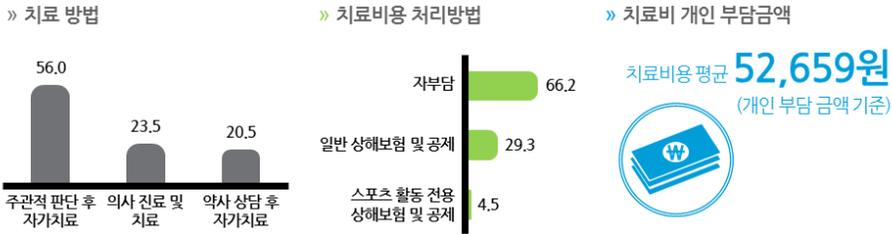
- 장비 착용을 하는 경우, ‘발목 보호대’ 착용과 ‘무릎보호대’ 착용이 각 65.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장비의 상태는 ‘양호’하다는 의견이 27.6%임.
 - 환경적 위험요소 확인자의 17.0%만이 성실히 확인할 뿐 나머지는 불성실하거나 형식적 확인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준비운동 실시자는 ‘유연성’(59.9%), ‘근력’(51.8%), ‘심폐지구력’(44.7%) 등 다양한 준비운동을 실시(5점 척도 중 [4]그렇다, [5]매우 그렇다의 합산비율 기준)하고 있으며 전문/숙련자가 배석할수록, 그리고 교육을 실시할수록 준비운동 역시 더 충실히 수행하는 것으로 조사됨.
 - 확인한 안전매뉴얼의 경우 전반적으로 ‘부상 방지에 도움이 되었다’(39.3%)고 평가함.
- 부상 전 신체상태가 ‘양호’했다는 응답이 26.2%, ‘비양호’했다는 응답이 23.8%로 비슷하게 나타남.

◎ 부상 당시 상황 : 환경적 요인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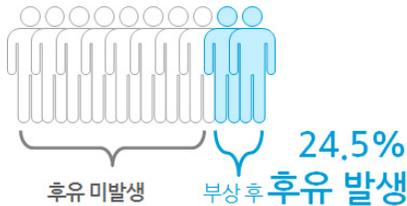
- ‘실내 체육관’에서 부상을 당한 응답자가 88.7%로 대부분이며, 부상 장소 운영 주체는 ‘공공’시설이 32.5%, ‘민간’시설이 56.0%임.
- 부상 장소에 안전 안내문구 및 책자 비치여부에 대해, ‘안내문구 및 책자가 비치되었다’는 응답은 24.5%이며 비치된 경우 58.9%는 이를 확인한 것으로 나타남.
- 부상 장소의 환경적 요인을 종합한 결과, ‘바닥이 미끄러웠음’에 대한 평가가 33.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안전시설의 충분한 설치’에 대한 부정적 평가(13.9%), ‘활동하기에 충분한 공간’에 대한 부정적 평가(11.9%) 등의 순으로 조사됨(5점 척도 중 [1]매우 부정적, [2]부정적의 합산비율 기준. 단, ‘미끄러운 바닥’은 역척도 문항이므로 Bottom2는 [4]부정평가와 [5]매우 부정평가의 합산 비율).
- 부상 경험자 10명 중 약 8명은 부상 당시 ‘지도자 자격증이 있는 전문 지도자’(58.2%)나 ‘해당 종목에 잘 아는 숙련자’(29.7%)가 배석 중이었고 이 중, 지도자가 배석한 경우 절반 이상(57.0%)은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 관련 교육을 실시, 숙련자가 배석한 경우 절반 가량(45.6%)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였음.

4 부상 후 대처 및 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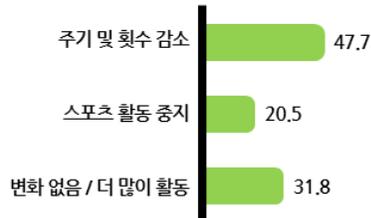
발생된 부상 절반 가량(56.0%) '주관적 판단 후 자가치료'
 10명 중 6명 이상(66.2%)은 치료비용을 '자부담 처리'
 개인 부담금액 기준, 1인 1건당 치료 소요비용은 평균 52,659원



부상 경험자 10명 중
 약 2명가량(24.5%)이
 부상으로 인해 후유증 발생



10명 중 6명 정도는 부상 이후
스포츠 활동을 즐기거나(47.7%)
 중지(20.5%)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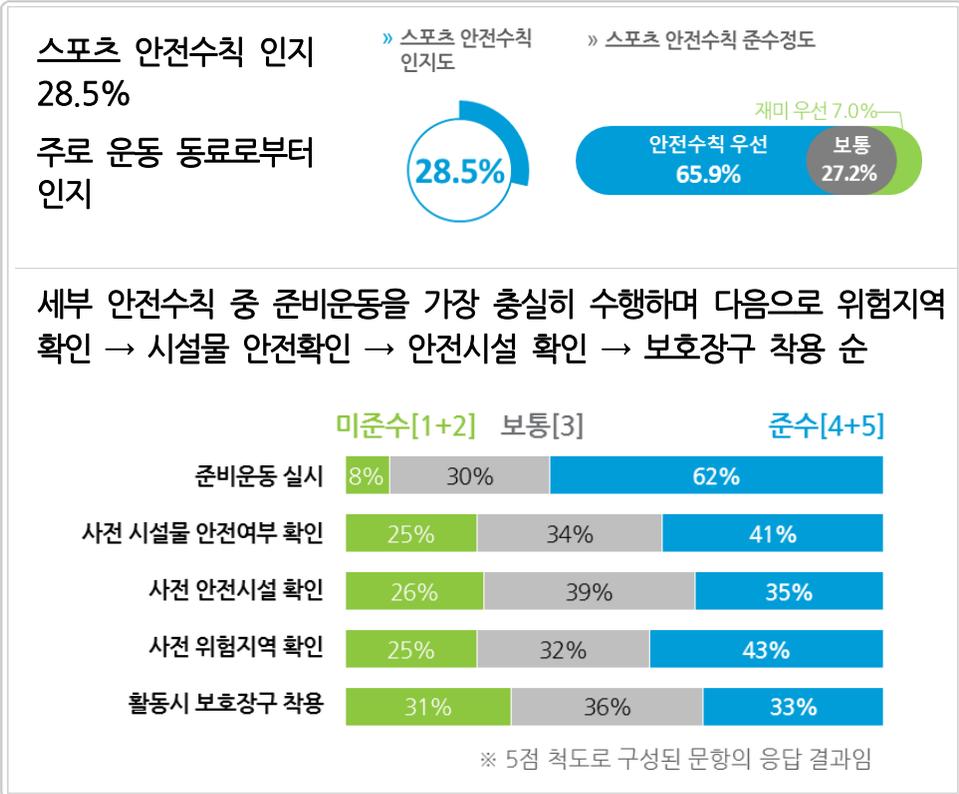


- 염좌, 통증의 경우 '냉찜질'을 실시하는 등 전반적으로 부상 종류에 적절한 응급 대처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한편, 찰과상, 좌상의 경우 절반가량이 '조치하지 않음'으로 응답, 향후 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발생한 부상은 '주관적 판단 후 자가치료'한 비율이 56.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의사 진료 및 치료'(23.5%), '의사 상담 후 자가치료'(20.5%)의 순이며, 부상 경험자 10명 중 6명 이상(66.2%)은 치료 비용을 자부담하고, 전체적인 치료비용 개인 부담금액은 평균 52,659원임.
- 가료에 필요한 기간은 '가료 기간 없음'이라는 응답이 30.5%로 가장 높았으며, 기간이 있는 경우 '1-2주'(26.8%)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1주 미만'(22.2%)임.

스포츠 안전사고 실태조사 -종합편

- 부상 경험자 10명 중 약 2명가량(24.5%)이 부상으로 인해 후유증이 발생함.
- 부상 경험자 10명 중 5명가량(47.7%)은 부상 후 활동 주기 및 횟수가 감소하였고, 이의 주된 이유는 ‘신체적 불편함’(51.5%), ‘심리적 두려움’(31.1%), ‘가족 또는 지인의 반대’(16.0%)의 순임.

5 스포츠 안전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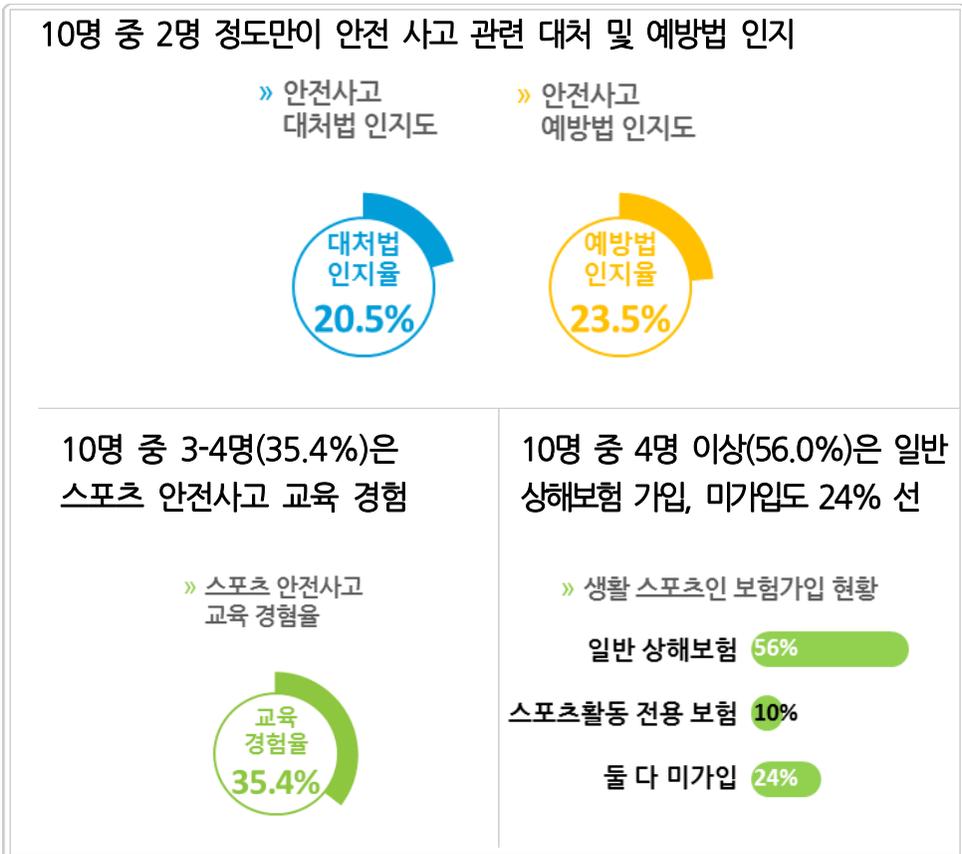


◎ 안전 인식

- 에어로빅 안전수칙을 ‘인지’하고 있다는 응답은 28.5%(매우 잘 알고 있음 1.0%+대체로 아는 편 27.5%)이며 응답자 10명 중 약 3명가량(32.6%)은 ‘같이 운동하는 사람’을 통해 안전 수칙을 알게 되었다고 응답함.
- 부상 경험자 10명 중 6명 이상(65.9%: 안전 최우선 20.5%+어느 정도 안전 우선 45.4%)은 운동을 할 때 ‘안전 수칙 준수’를 우선시함.
- 세부적으로는 ‘준비 운동을 실시한다’는 응답이 61.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사전에 위험지역 확인’(43.4%), ‘시설물 안전여부 확인’(41.1%), 등의 순으로 조사됨(5점 척도 중 [4]그렇다, [5]매우 그렇다의 합산비율 기준).

스포츠 안전사고 실태조사 -종합편

- 시설물 안전여부 미확인, 안전시설 미확인, 위험지역 미확인 이유 모두 ‘확인하기 중요하지 않다’가 가장 높게 나타남. 다음으로 세부 순위에는 소폭 차이가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확인 방법을 몰라서’, ‘확인하기 귀찮다’는 이유로 인해 확인을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됨.
- 보호장구를 구매하기 위한 지출의향 및 지출수준에 대해서는 11.3%만이 지출의향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1인 평균 연간 지출의향(또는 현재 지출금액)은 약 35만원 선임.



◎ 대처 및 예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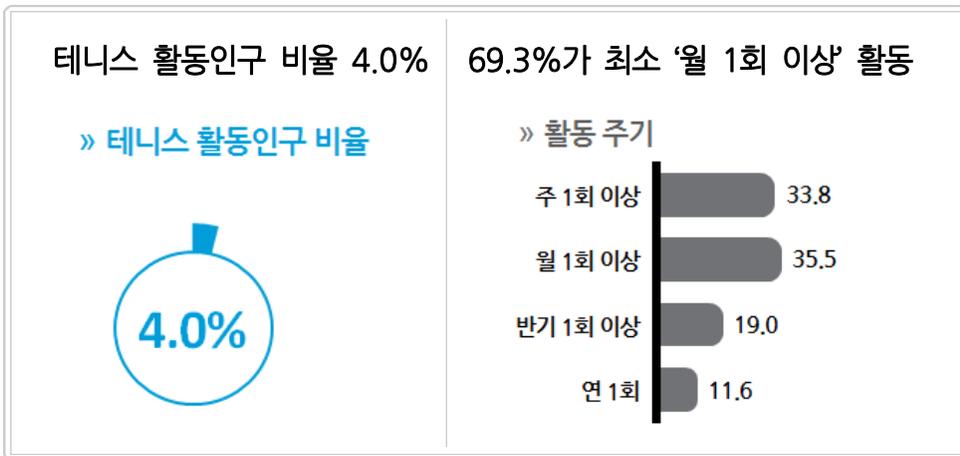
- 부상 경험자의 42.1%(전혀 모름 3.0%+잘 모르는 편 39.1%)가 에어로빅을 하던 중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시 대처방법을 ‘미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예방법 역시 ‘미인지’ 비율이 32.5%(전혀 모름 3.3%+잘 모르는 편 29.1%)에 달함.

부록1 - 종목별 주요결과 요약

- 인지율은 대처법 20.5%(매우 잘 앎 1.0%+대체로 아는 편 19.5%), 예방법 23.5%(매우 잘 앎 1.3%+대체로 아는 편 22.2%)임.
- 응급처치 요령 인지도는 ‘심폐소생술 실시요령’(38.7%), ‘저체온증 발생 시 대처요령’(37.7%), ‘골절 및 염좌 발생 시 대처요령’(28.8%) 순임(5점 척도 중 [4]어느 정도 알고 있음, [5]매우 잘 알고 있음의 합산비율 기준).
- 안전사고 응급처치 요령 습득 경로는 ‘TV’가 45.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인터넷’(32.1%), ‘스포츠 전문지도자/숙련자’(28.1%), ‘의료인’(21.5%) 등의 순임.
- 스포츠 안전사고에 대비한 ‘교육을 경험’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35.4%이며, 스포츠 안전사고 대비 교육을 받은 기관은 ‘국가 및 공공기관’(38.3%), ‘대학교의 정규 강좌’(38.3%), ‘동호회/팀’(27.1%) 등의 순임.
- 스포츠 안전사고에 대비 교육을 받지 않은 이유는 ‘교육을 필요성을 못 느껴서’(47.7%), ‘스포츠활동 중 부상을 대비한 안전교육이 있는지 몰라서’(28.2%), ‘교육을 받고 싶었으나 어느 기관에서 교육하는지 몰라서’(24.1%) 등의 순임.
- 스포츠 안전사고에 대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63.9%(매우 필요 18.9%+필요 45.0%)로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 14.2%(전혀 불필요 2.6%+불필요 11.6%)에 비해 높음.
- ‘일반 상해보험 및 공제 가입률’이 56.0%, ‘스포츠 활동 전용 보험 및 공제 가입률’은 10.3%에 불과하며 ‘둘 다 미가입’ 상태인 응답자 비율도 23.8%에 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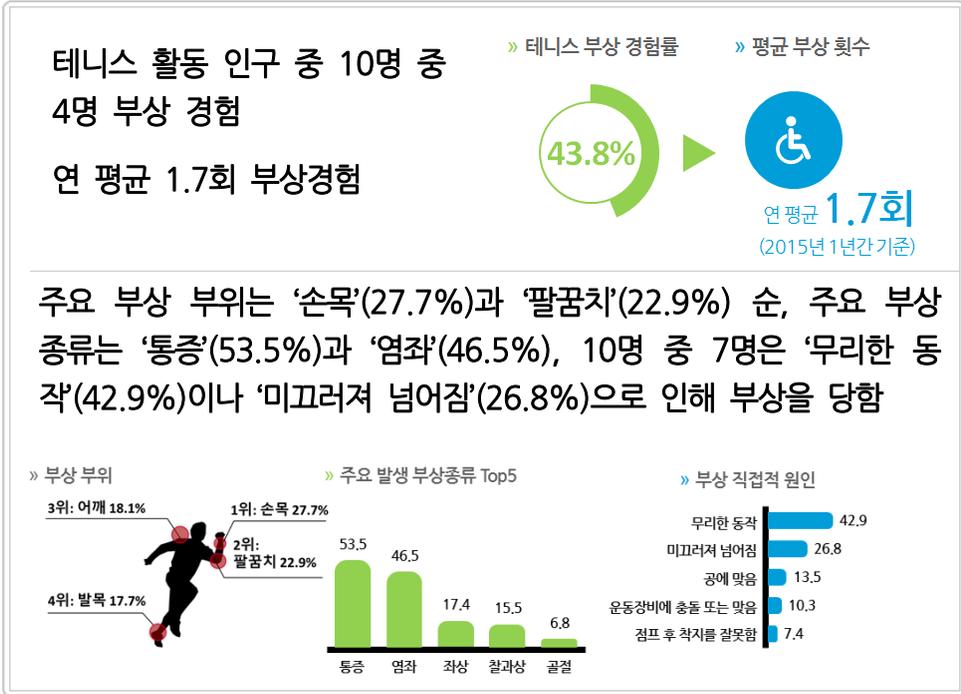
18. 테니스

1 생활스포츠 참여 실태



- 최근 1년간 스포츠활동의 일환으로 테니스를 경험한 인구 비율은 4.0%임.
- 전체적으로 10명 중 약 7명가량(69.3%: 주 1회 이상 33.8%+월 1회 이상 35.5%)은 최소 월 1회 이상 테니스를 즐기고 있으며, 1회 평균 활동시간은 86.66분임.
- '오후'(15시-18시 이전, 22.3%) 시간대와 '저녁'(18시-21시 이전, 32.2%) 시간대에 주로 즐기고 있음.
- 테니스 인구 10명 중 6명 이상(68.6%)은 '전용 경기시설', 즉 테니스장에서 테니스를 즐기고 있음.

2 부상 발생 현황



- 테니스 활동인구 10명 중 4명가량인 43.8%의 응답자가 심한 부상부터 경미한 부상까지 당한 경험이 있음.
- 테니스 부상 경험은 자주 활동(주 1회 이상 50.0%)하는 사람들일수록, 1회 참여 시 약 76분가량 즐기는 사람들에게서 주로 일어나고 있음.
- 종목 부상 경험자 10명 중 6명가량(61.0%)은 본인의 테니스 능숙도를 '초급' 정도로 인식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활동 경력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테니스를 통해 발생하는 부상은 주로 '손목'(27.7%)과 '팔꿈치'(22.9%), '어깨'(18.1%)에 일어나고 있으며 가장 흔한 부상 유형은 '통증'(53.5%)과 '염좌'(46.5%)임.
- 테니스 부상 경험자들이 겪은 여러 부위와 종류를 종합한, 가장 심각했던 부상 유형은 '손목 염좌'(9.7%)와 '발목 염좌'(8.7%) 등의 순임.
 - 전문체육 지도자 조사 및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자료 분석 결과 전문적으로 활동하는 선수(학교 운동부 포함)들의 경우 주로 발생하는 부상 부위로 '발목'과 '무릎'이 높게

스포츠 안전사고 실태조사 -종합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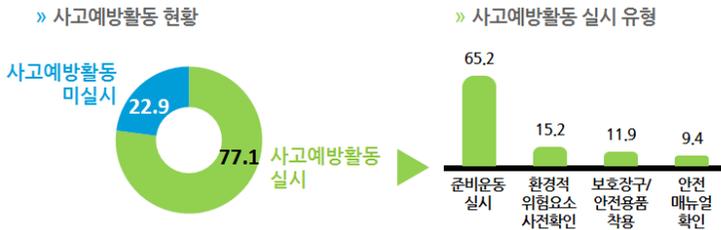
조사되어 일반 생활체육인 결과와 차이를 보임.

- 부상의 직접적 원인으로는 ‘무리한 동작’이 42.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연 평균 약 1.7회 가량의 부상을 입고 있음.
- 테니스의 부상 발생 시각은 주 활동시간대에 수렴하고 있음.

3 부상 발생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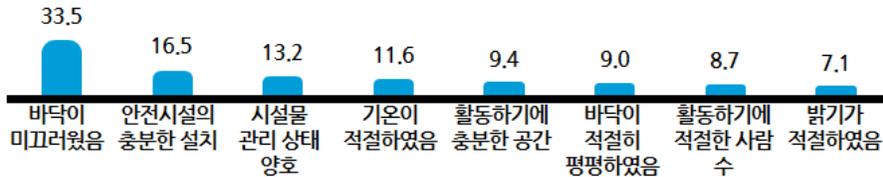
전체적으로 부상경험자들의 사고예방활동은 미흡

부상경험자의 22.9%는 부상 전 아무런 사고예방활동을 실시하지 않음
 실시한 응답자 중에서도 ‘준비운동’(65.2%)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15% 이하의 실시율



여러 환경적 요인 중 가장 주요한 문제는 ‘미끄러운 바닥’(33.5%)

» 부상 장소 환경적 요인(Bottom2: 매우 부정평가+부정평가 합산)



※ 5점 척도로 응답된 결과 중 [1] 매우 부정평가와 [2] 부정평가의 합산 비율을 제시함
 ※ ‘미끄러운 바닥’은 역척도 문항이므로 Bottom2는 [4]부정평가와 [5]매우 부정평가의 합산 비율임

◎ 부상발생 이전 상황 : 예방활동 측면

- 대부분의 사고예방활동 실시비율에서 가장 높았던 ‘준비운동’(65.2%)을 제외하면 모두 15% 이하로 나타나 전반적으로는 준비운동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고예방활동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특히 전문/숙련자가 배석함에 따라 ‘보호장구 및 안전용품 착용’, ‘환경적 위험요소 확인’, ‘준비운동 실시’ 등 사고예방활동을 보다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남성의 사고예방활동이 저조함.
- 장비 착용을 하는 경우, 10명 중 7명가량(67.6%)은 부상 당시 ‘손목보호대’를 착용, 착용한 장비의 전반적 상태는 ‘양호’(43.2%)했던 것으로 나타남.

스포츠 안전사고 실태조사 -종합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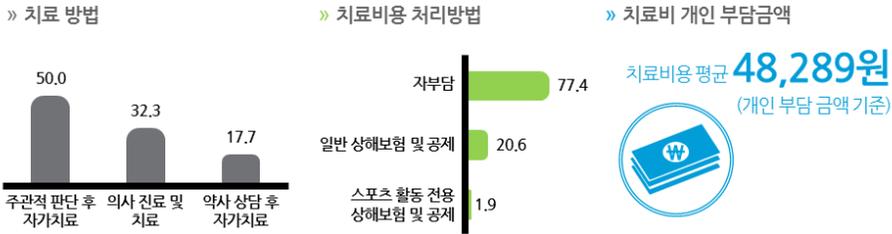
- 환경적 위험요소 확인자의 31.9%만이 '성실히 확인'할 뿐 나머지는 불성실하거나 형식적 확인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준비운동 실시자는 '유연성'(51.0%), '근력'(44.6%), '심폐지구력'(37.1%) 등 다양한 준비운동을 실시(5점 척도 중 [4]그렇다, [5]매우 그렇다의 합산비율 기준)하고 있으며 전문/숙련자가 배석할수록 준비운동 역시 더 충실히 수행하는 것으로 조사됨.
 - 확인한 안전매뉴얼의 경우 부상 방지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27.6%)과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27.6%)이 동일하게 나타남.
- 부상 전 신체상태가 '양호'했다는 응답이 29.4%로, '비양호'했다는 응답(13.5%)에 비해 높았으나 종합적으로는 10명 중 3명만이 신체상태가 양호한 상태에서 운동에 참여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음.

◎ 부상 당시 상황 : 환경적 요인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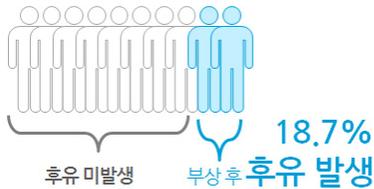
- '클레이/양투카 코트'에서 부상을 당한 응답자가 과반수에 해당하는 50.6%로 조사되었으며 부상 장소 운영 주체는 '공공'시설이 31.3%, '민간'시설이 48.7%임.
- 부상 장소에 안전 안내문구 및 책자 비치여부에 대해, '안내문구 및 책자가 비치되었다'는 응답은 17.2%이며 비치된 경우 57.7%는 이를 확인한 것으로 나타남.
- 부상 장소의 환경적 요인을 종합한 결과, '바닥이 미끄러웠다'는 평가가 33.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안전시설의 충분한 설치'의 부정적 평가(16.5%), '시설물 관리상태 양호'의 부정적 평가(13.2%) 등의 순으로 조사됨(5점 척도 중 [1]매우 부정적, [2]부정적의 합산비율 기준. 단, '미끄러운 바닥'은 역척도 문항이므로 Bottom2는 [4]부정평가와 [5]매우 부정평가의 합산 비율).
 - '잔디 코트'(46.3%)의 바닥이 미끄러웠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음.
- 부상 경험자 10명 중 약 6명은 부상 당시 '지도자 자격증이 있는 전문 지도자'(16.0%)나 '해당 종목을 잘 아는 숙련자'(48.0%)가 배석 중이었고 이 중, 지도자가 배석한 경우 10명 중 6명 이상(65.9%)은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 관련 교육을 실시한 반면 숙련자는 배석한 10명 중 3명 정도(33.3%)만이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였음.

4 부상 후 대처 및 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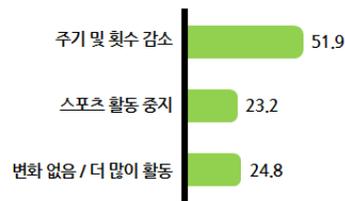
발생된 부상 절반(50.0%)은 ‘주관적 판단 후 자가치료’
 10명 중 7명 이상(77.4%)은 치료비용을 ‘자부담’ 처리
 개인 부담금액 기준, 1인 1건당 치료 소요비용은 평균 48,289원



부상 경험자 10명 중
 약 2명가량(18.7%)이
 부상으로 인해 후유증 발생



10명 중 7명 이상은 부상 이후
 스포츠 활동을 줄이거나(51.9%)
 중지(23.2%)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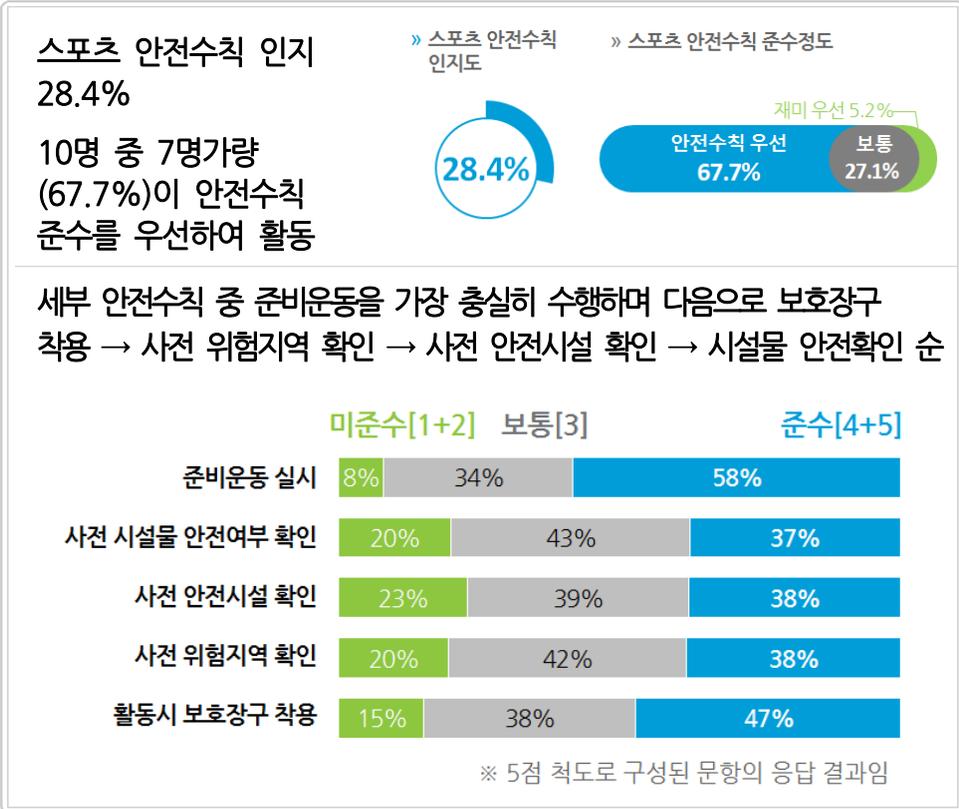


- 염좌, 통증의 경우 ‘냉찜질’을 실시하고 통증의 경우 ‘온찜질 또는 보온’을 병행 실시하는 등 전반적으로 부상 종류에 적절한 응급 대처를 실시하고 있음.
- 발생한 부상은 ‘주관적 판단 후 자가치료’한 비율이 50.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의사 진료 및 치료’(32.3%), ‘약사 상담 후 자가치료’(17.1%)의 순이며, 부상 경험자 10명 중 7명 이상(77.4%)은 치료비용을 자부담하고, 전체적인 치료비용 개인 부담금액은 평균 48,289원임.
 - 부상 가료기간이 길수록 치료비용의 개인부담금액 역시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 가료에 필요한 기간은 ‘1-2주’(32.3%)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1주 미만’(22.6%)이며 ‘3-4주’도 21.3%로 비교적 높음.
- 부상 경험자 10명 중 약 2명가량(18.7%)이 부상으로 인해 후유증이 발생함.

스포츠 안전사고 실태조사 -종합편

- 가료기간이 길수록 후유발생률 및 발생 후유의 심각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 부상 경험자 10명 중 5명 이상(51.9%)은 부상 후 활동 주기 및 횟수가 감소하였고, 이의 주된 이유는 ‘신체적 불편함’(57.5%)때문이며 다음으로 ‘심리적 두려움’(27.5%), ‘가족 또는 지인의 반대’(11.2%)의 순임.

5 스포츠 안전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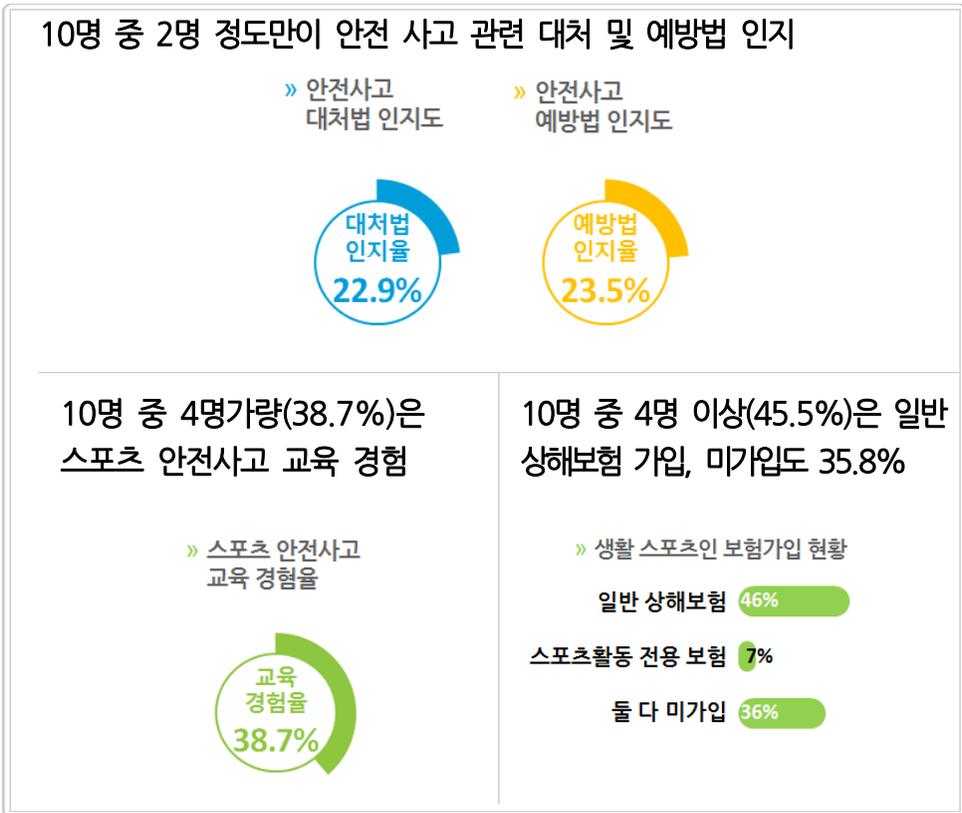
◎ 안전 인식

- 테니스 안전수칙을 ‘인지’하고 있다는 응답은 28.4%(매우 잘 알고 있다 1.3%+대체로 아는 편 27.1%)이며 10명 중 5명가량(53.4%)은 ‘같이 운동하는 사람’으로부터 안전 수칙을 알게 되었다고 응답함.
 - 전문 체육지도자의 90.9%는 안전수칙을 인지(매우 잘 알고 있음 45.5%+대체로 아는 편 45.5%)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11명 중 8명(72.7%)은 ‘교육’을 통해 안전수칙을 인지함.
- 부상 경험자 10명 중 7명가량(67.7%: 안전 최우선 22.3%+어느 정도 안전 우선 45.5%)은 운동을 할 때 ‘안전 수칙 준수’를 우선시 함.
- 세부적으로는 ‘준비 운동을 실시한다’는 응답이 58.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활동 시 보호장구 착용’(47.1%), ‘사전에 위험지역 확인’(38.1%) 등의 순으로 조사됨

스포츠 안전사고 실태조사 -종합편

(5점 척도 중 [4]그렇다, [5]매우 그렇다의 합산비율 기준).

- 시설물 안전여부 미확인, 안전시설 미확인, 위험지역 미확인 이유 모두 ‘확인하기 귀찮아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세부 순위에는 소폭 차이가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확인 방법을 몰라서’ 확인을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됨.
- 보호장구를 구매하기 위한 지출의향 및 지출수준에 대해서는 단지 0.6%만이 지출의향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1인 평균 연간 지출의향(또는 현재 지출금액)은 약 26만원 선임.



◎ 대처 및 예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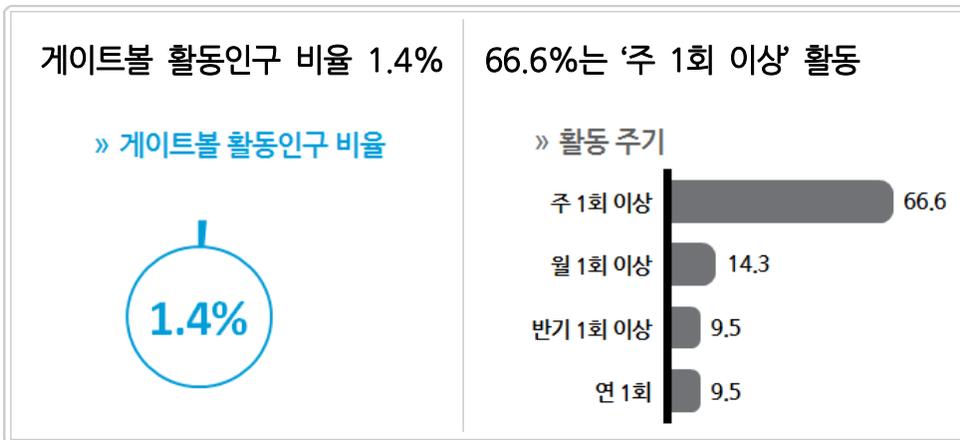
- 테니스를 하던 중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시 대처방법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대처법 22.9%(매우 잘 앎 1.0%+대체로 아는 편 21.9%), 예방법 23.5%(매우 잘 앎 1.3%+

대체로 아는 편 22.3%)임.

- 부상 경험자의 32.3%(전혀 모름 2.6%+잘 모르는 편 29.7%)가 테니스를 하던 중 안전 사고가 발생했을 시 대처방법을 ‘미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예방법 역시 ‘미인지’ 비율이 30.0%(전혀 모름 1.9%+잘 모르는 편 28.1%)에 달함.
- 응급처치 요령 인지도는 ‘심폐소생술 실시요령’(34.5%), ‘골절 및 염좌 발생 시 대처 요령 인지’(33.2%), ‘근육경련 발생 시 대처 방법 인지’(28.7%) 등의 순임(5점 척도 중 [4]어느 정도 알고 있음, [5]매우 잘 알고 있음의 합산비율 기준).
 - 전문 체육지도자 조사 결과 절대적인 인지율은 생활스포츠인 대비 매우 높은 수준이며 생활 스포츠인이 주로 알고 있는 요령 외에 자동 제세동기 사용요령에 대한 인지도 또한 높게 조사되어 차이를 보임.
- 안전사고 응급처치 요령 습득 경로는 ‘인터넷’이 34.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스포츠 전문지도자/숙련자’(28.7%), ‘TV’(28.4%), ‘책자’(21.9%) 등의 순임.
- 스포츠 안전사고에 대비한 ‘교육을 경험’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38.7%로 조사되었으며 스포츠 안전사고 대비 교육을 받은 기관은 ‘동호회/팀’(32.5%), ‘국가 및 공공기관’(25.8%), ‘대학교의 정규 강좌’(25.0%), ‘지역/종목별 협회 및 단체’(21.7%) 등의 순임.
- 스포츠 안전사고에 대비 교육을 받지 않은 이유는 ‘스포츠활동 중 부상을 대비한 안전교육이 있는지 몰라서’(42.6%), ‘교육을 받고 싶었으나 어느 기관에서 교육하는지 몰라서’(29.5%), ‘교육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27.9%) 등의 순임.
- 스포츠 안전사고에 대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65.8%(매우 필요 16.1%+필요 49.7%)로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 8.1%(전혀 불필요 1.0%+불필요 7.1%)에 비해 현저히 높음.
- 일반 상해보험 및 공제 가입률이 45.5%, 스포츠 활동 전용 보험 및 공제 가입률은 6.5%에 불과하며 둘 다 미가입 상태인 응답자 비율도 35.8%에 달함.
 - 전문 체육지도자 조사 결과 응답한 지도자 11명(팀, 단체) 전원은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공제 및 보험에 가입 중인 것으로 나타남.

19. 게이트볼

1 생활스포츠 참여 실태



- 최근 1년간 스포츠활동의 일환으로 게이트볼을 경험한 인구 비율은 1.4%임.
- 전체적으로 10명 중 약 6명 이상(66.6%)은 최소 주 1회 이상 게이트볼을 즐기고 있고 특히 23.8%는 매일 즐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회 평균 활동시간은 104.76분임.
- 시간대에 관계없이 활동 시간 분포를 보임.
- '전용 경기장'(35.7%)은 물론, '운동장'(23.8%), '전용시설 외 장소'(21.4%) 등 다양한 장소에서 게이트볼을 즐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2 부상 발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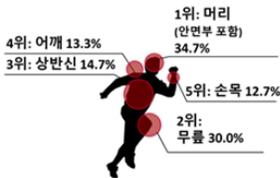
게이트볼 활동 인구 10명 중
4명 이상 부상 경험
연 평균 2.3회 가량 부상경험

» 게이트볼 부상 경험률 » 평균 부상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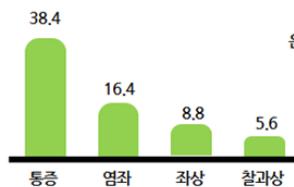


주요 부상 부위는 ‘머리(안면부 포함)’(34.7%)과 ‘무릎’(30.0%) 순,
주요 부상 종류는 ‘통증’(38.4%)과 ‘염좌’(16.4%),
10명 중 4명은 ‘무리한 동작’(39.0%)으로 인해 부상을 당함

» 부상 부위



» 주요 발생 부상종류



» 부상 직접적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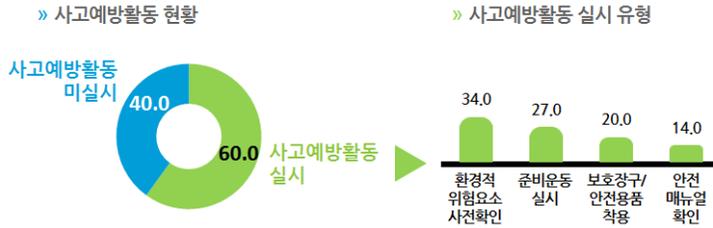
- 게이트볼 활동인구 10명 중 4명 이상인 42.9%의 응답자가 심한 부상부터 경미한 부상까지 당한 경험이 있음.
- 게이트볼 부상 경험은 자주 활동(주 1회 이상 74.0%)하는 사람들일수록, 1회 참여 시 약 97분가량 즐기는 사람들에게서 주로 일어나고 있음.
- 종목 부상 경험자 10명 중 4명 정도(44.0%)는 본인의 게이트볼 능숙도를 ‘중급’ 정도로 인식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활동 경력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게이트볼을 통해 발생하는 부상은 ‘머리(안면부 포함)’(34.7%), ‘무릎’(30.0%)에 주로 일어나고 있으며 가장 흔한 부상 유형은 ‘통증’(38.4%)임.
- 게이트볼 부상 경험자들이 겪은 여러 부위와 종류를 종합한, 가장 심각했던 부상 유형은 ‘무릎 통증’(15.0%)임.
- 부상의 직접적 원인으로는 ‘무리한 동작’이 39.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연 평균 약 2.26회 가량의 부상을 입고 있음.

- 게이트볼의 주 활동 시간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고루 분포되어 있으나 부상 발생은 ‘오후’(15-18시 이전) 시간대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여 주 활동 시간대와 다소 다른 패턴을 보임.
 - 유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오후’(15-18시 이전)시간대 부상의 경우, 전반적으로 활동 시간이 길수록, 종목 능숙도 상급 수준에서 발생 비율이 높게 나타나 오전부터 활동을 이어온 사람들이 활동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무리에 의한 통증을 느끼는 시간대가 주로 오후 시간대인 것으로 유추할 수 있음.

3 부상 발생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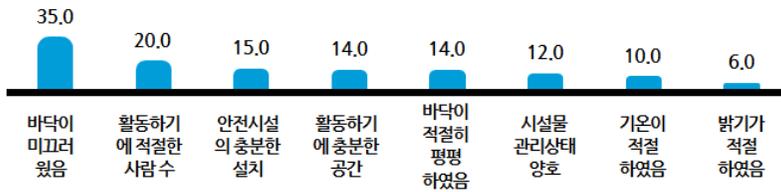
전체적으로 부상경험자들의 사고예방활동은 미흡

부상경험자의 40.0%는 부상 전 아무런 사고예방활동을 실시하지 않음
 실시한 응답자도 세부적으로는 모든 활동에 있어 30% 내외의 실시율



여러 환경적 요인 중 가장 주요한 문제는 '미끄러운 바닥'(35.0%)

» 부상 장소 환경적 요인(Bottom2: 매우 부정평가+부정평가 합산)



※ 5점 척도로 응답된 결과 중 [1] 매우 부정평가와 [2] 부정평가의 합산 비율을 제시함
 ※ '미끄러운 바닥'은 역척도 문항이므로 Bottom2는 [4]부정평가와 [5]매우 부정평가의 합산 비율임

◎ 부상발생 이전 상황 : 예방활동 측면

- 부상 당시의 운동 시작 전 사고예방을 위해 행했던 활동은 '환경적 위험요소 확인'(34.0%)이 가장 높았으며, 아무런 사고예방활동을 행하지 않았다는 비율이 40.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전문/숙련자가 배석함에 따라 '보호장구 및 안전용품 착용', '환경적 위험요소 확인', '준비운동 실시' 등 사고예방활동을 보다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음.
 - 장비 착용을 하는 경우, 대부분(95.0%)은 부상 당시 '발목 보호대'를 착용, 착용한 장비의 상태는 '양호'하다는 응답이 25.0%(매우 좋음 5.0%+좋은 편 20.0%), '불량'했다는 응답이 20.0%(전혀 좋지 않음 10.0%+좋지 않은 편 10.0%)로 나타남.
 - 환경적 위험요소 확인자의 26.5%만이 성실히 확인할 뿐 나머지는 불성실하거나 형식

스포츠 안전사고 실태조사 -종합편

적 확인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준비운동 실시자는 ‘유연성’(37.0%), ‘근력’(37.0%), ‘심폐지구력’(40.7%) 등 다양한 준비운동을 실시(5점 척도 중 [4]그렇다, [5]매우 그렇다의 합산비율 기준)하고 있음.
 - 확인한 안전매뉴얼의 경우 전반적으로 ‘부상 방지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42.9%)고 평가함.
- 부상 전 신체상태가 ‘양호’했다는 응답이 25.0%로, ‘비양호’했다는 응답(27.0%)과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종합적으로는 10명 중 3명만이 신체상태가 양호한 상태에서 운동에 참여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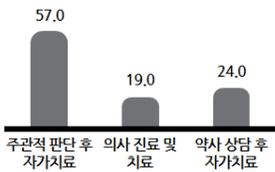
◎ 부상 당시 상황 : 환경적 요인 측면

- ‘실외 흙바닥 게이트볼장’에서 부상을 당한 응답자가 45.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실외 인조잔디 게이트볼장’(23.0%), ‘실내 인조잔디 게이트볼장’(17.0%)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부상 장소 운영 주체는 ‘공공’시설이 46.0%, ‘민간’시설이 37.0% 임.
- 부상 장소에 안전 안내문구 및 책자 비치여부에 대해, ‘안내문구 및 책자가 비치되었다’는 응답은 24.2%이며 비치된 경우 대부분(87.5%)은 이를 확인한 것으로 나타남.
- 부상 장소의 환경적 요인을 종합한 결과, ‘바닥이 미끄러웠음’에 대한 평가가 35.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활동하기에 적절한 사람 수’에 대한 부정적 평가(20.0%), ‘안전시설의 충분한 설치’에 대한 부정적 평가(15.0%) 등의 순으로 조사됨(5점 척도 중 [1]매우 부정적, [2]부정적의 합산비율 기준. 단, ‘미끄러운 바닥’은 역척도 문항이므로 Bottom2는 [4]부정평가와 [5]매우 부정평가의 합산 비율).
- 부상 경험자 10명 중 약 7명은 부상 당시 ‘지도자 자격증이 있는 전문 지도자’(22.2%)나 ‘해당 종목을 잘 아는 숙련자’(50.6%)가 배석 중이었고 이 중, 지도자가 배석한 경우 지도자의 대부분(83.3%)은 별도의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숙련자는 10명 중 3명 정도(34.1%)만이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조사됨.

4 부상 후 대처 및 경과

발생된 부상 절반(57.0%)은 ‘주관적 판단 후 자가치료’
 10명 중 5명가량(48.8%)은 치료비용을 ‘자부담 처리’
 개인 부담금액 기준, 1인 1건당 치료 소요비용은 평균 60,935원

» 치료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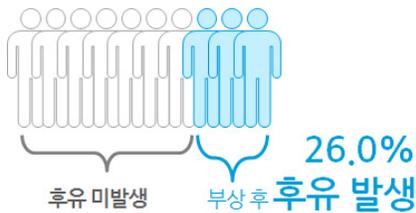
» 치료비용 처리방법



» 치료비 개인 부담금액



부상 경험자 10명 중
 약 3명가량(26.0%)이
 부상으로 인해 후유증 발생



10명 중 6명가량은 부상 이후
 스포츠 활동을 줄이거나(42.0%)
 중지(16.0%)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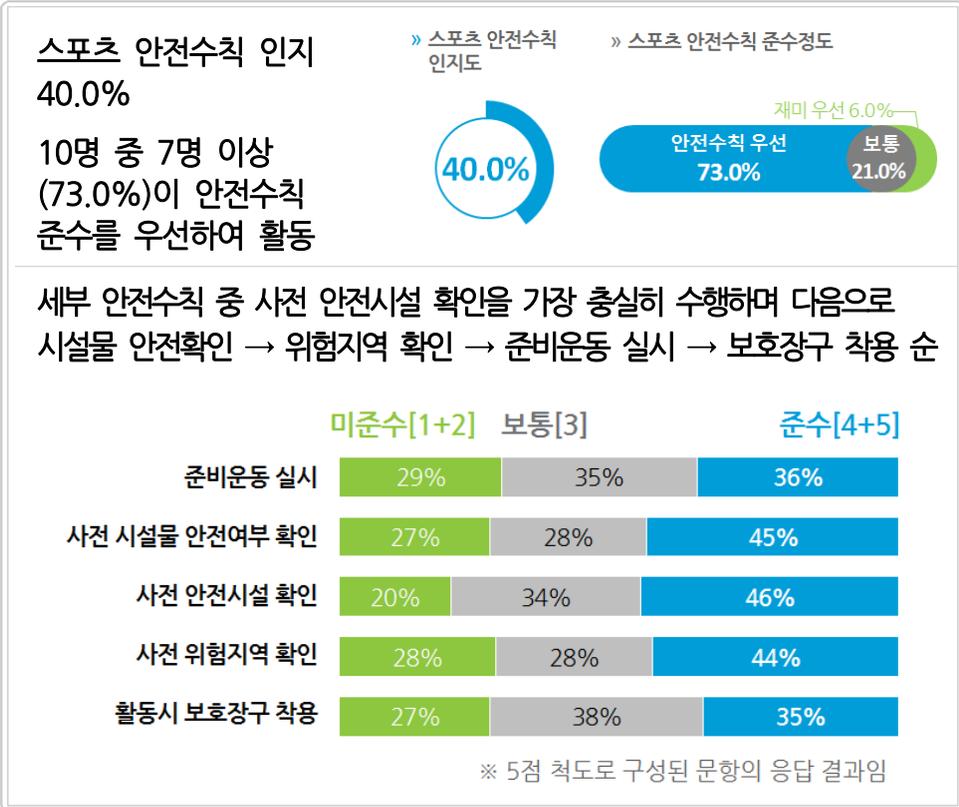


- 염좌의 경우 ‘냉찜질’을 실시하는 등 전반적으로 부상 종류에 적절한 응급 대처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 중 통증의 경우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76.5%)임.
- 발생한 부상은 ‘주관적 판단 후 자가치료’한 비율이 57.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약사 상담 후 자가치료’(24.0%), ‘의사 진료 및 치료’(19.0%)의 순이며, 부상 경험자 10명 중 5명가량(48.8%)은 치료비용을 자부담하고, 전체적인 치료비용 개인 부담금액은 평균 60,935원임.
 - 염좌는 평균 개인부담액보다 낮은 수준이며 통증은 전체 평균 개인부담액에 수렴하는 결과를 보이고 부상 가료기간이 길수록 치료비용의 개인부담금액 역시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스포츠 안전사고 실태조사 -종합편

- 가료에 필요한 기간은 ‘바로 참여 가능할 정도로 경미’(37.0%)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1-2주’(28.0%)이며 ‘1주 미만’도 22.0%로 비교적 높음.
- 부상 경험자 10명 중 약 2명 이상(26.0%)이 부상으로 인해 후유증이 발생함.
 - 골절, 탈구, 파열 부상에서 후유발생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되었으며 이로 인한 후유증의 심각도 역시 타 종류 대비 높음.
- 부상 경험자 10명 중 4명 이상(42.0%)은 부상 후 활동 주기 및 횟수가 감소하였고, 이의 주된 이유는 ‘신체적 불편함’(56.9%)때문이며 다음으로 ‘심리적 두려움’(22.4%), ‘가족 또는 지인의 반대’(20.7%)의 순임.

5 스포츠 안전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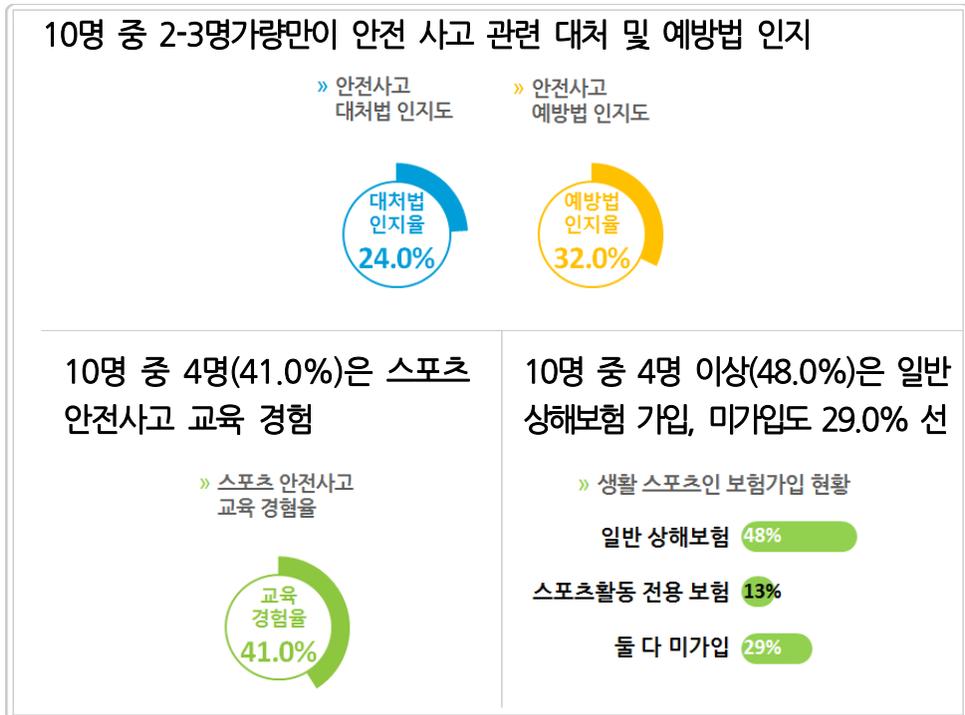


◎ 안전 인식

- 게이트볼 안전수칙을 ‘인지’하고 있다는 응답은 40.0%(매우 잘 알고 있다 6.0%+대체로 아는 편 34.0%)이며 10명 중 6명 이상(62.5%)은 ‘같이 운동하는 사람’을 통해 안전 수칙을 알게 되었다고 응답함.
- 부상 경험자 10명 중 7명 이상(73.0%: 안전 최우선 32.0%+어느 정도 안전 우선 41.0%)은 운동을 할 때 ‘안전 수칙 준수’를 우선시함.
- 세부적으로는 ‘사전에 안전시설을 확인’한다는 응답이 46.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사전에 시설물 안전여부를 확인’한다(45.0%), ‘사전에 위험지역을 확인한다’(44.0%) 등의 순으로 조사됨(5점 척도 중 [4]그렇다, [5]매우 그렇다의 합산비율 기준).

스포츠 안전사고 실태조사 -종합편

- 시설물 안전여부 미확인, 안전시설 미확인, 위험지역 미확인 이유 모두 ‘확인이 중요하지 않은 스포츠여성’가 가장 높게 나타남.
- 보호장구를 구매하기 위한 지출의향 및 지출수준에 대해 20.0%의 응답자가 지출의향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1인 평균 연간 지출의향(또는 현재 지출금액)은 약 55만원 선임.



◎ 대처 및 예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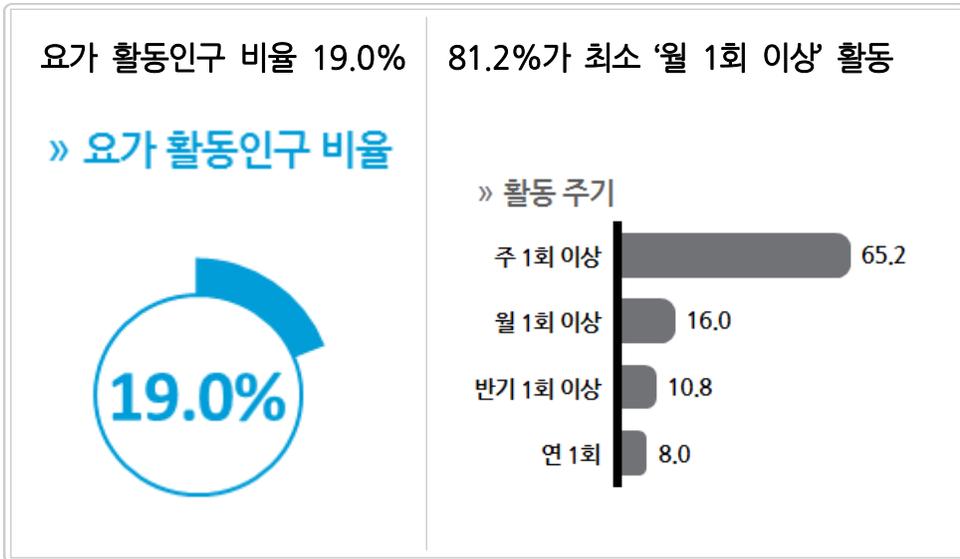
- 게이트볼을 하던 중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시 대처방법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대처법 24.0%(매우 잘 앎 2.0%+대체로 아는 편 22.0%), 예방법 32.0%(매우 잘 앎 1.0%+대체로 아는 편 31.0%)임.
 - 부상 경험자의 32.0%(전혀 모름 5.0%+잘 모르는 편 27.0%)가 게이트볼을 하던 중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시 대처방법을 ‘미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예방법 역시 ‘미인지’ 비율이 29.0%(전혀 모름 4.0%+잘 모르는 편 25.0%)에 달함.
- 응급처치 요령 인지도는 ‘저체온증 발생 시 대처요령’(44.0%), ‘열사병 발생 시 대처요령’(41.0%), ‘심폐소생술 실시요령’(34.0%) 등의 순 (5점 척도 중 [4]어느 정도 알

고 있음, [5]매우 잘 알고 있음의 합산비율 기준).

- 안전사고 응급처치 요령 습득 경로는 ‘TV’가 49.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의료인’(31.0%), ‘스포츠 전문지도자/숙련자’(30.0%), ‘인터넷’(24.0%) 등의 순임.
- 스포츠 안전사고에 대비한 ‘교육을 경험’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41.0%로 조사되었으며, 스포츠 안전사고 대비 교육을 받은 기관은 ‘국가 및 공공기관’(43.9%), ‘대학교의 정규 강좌’(41.5%), ‘지역/종목별 협회단체’(36.6%) 등의 순임.
- 스포츠 안전사고에 대비 교육을 받지 않은 이유는 ‘교육을 필요성을 못 느껴서’(54.2%), ‘교육을 받고 싶었으나 어느 기관에서 교육하는지 몰라서’(27.1%), ‘스포츠활동 중 부상을 대비한 안전교육이 있는지 몰라서’(18.6%) 순임.
- 스포츠 안전사고에 대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62.0%(매우 필요 20.0%+필요 42.0%)로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 16.0%(전혀 불필요 2.0%+불필요 14.0%)에 비해 현저히 높음.
- ‘일반 상해보험 및 공제 가입률’이 48.0%, ‘스포츠 활동 전용 보험 및 공제 가입률’은 13.0%에 불과하며 ‘둘 다 미가입’ 상태인 응답자 비율도 29.0%에 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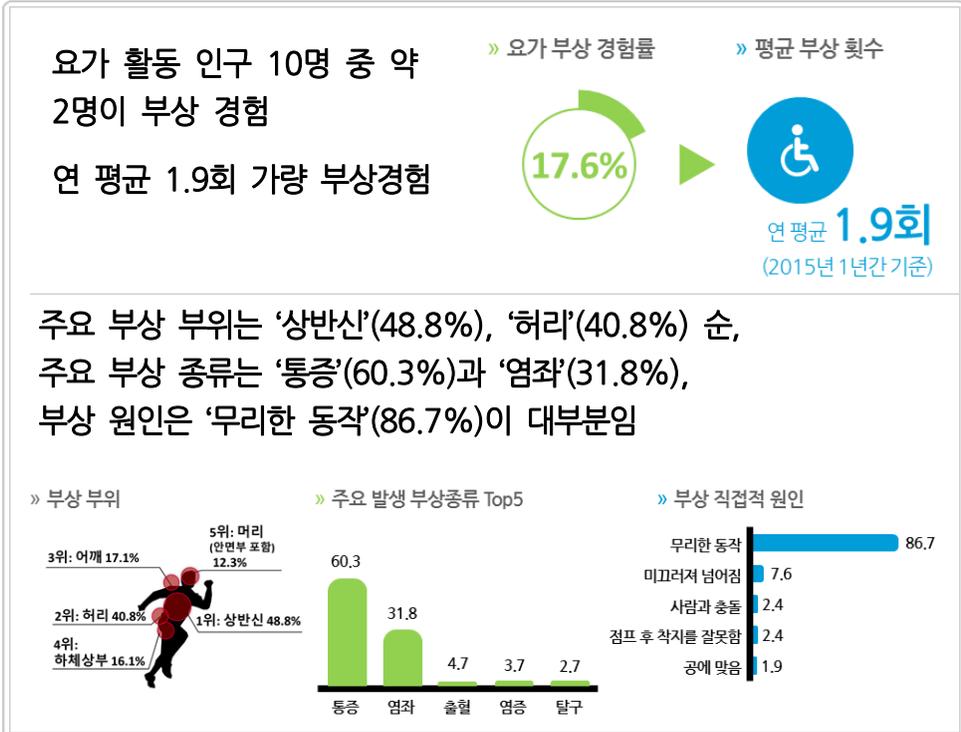
20. 요가

1 생활스포츠 참여 실태



- 최근 1년간 스포츠활동의 일환으로 요가를 경험한 인구 비율은 19.0%로 나타남.
- 전체적으로 10명 중 약 8명 이상(81.2%: 주 1회 이상 65.2%+월 1회 이상 16.0%)은 최소 월 1회 이상 요가를 즐기고 있으며, 1회 평균 활동시간은 51.75분임.
- 요가를 즐기는 시간대는 전반적으로 '저녁'(18-21시 이전, 38.1%) 시간대와 '오전'(09-12시 이전, 20.3%) 시간대의 비중이 높음.
 - '오전' 시간대에는 고연령층의 활동 비율이 높고, '저녁' 시간대에는 젊은 연령층의 활동비율이 높음.
- 요가 인구 10명 중 3명 이상(36.5%)은 '요가 전용 시설'에서 요가를 즐기고 있으며, '집이나 아파트'(23.5%)와 '체육관'(20.5%)에서 활동하는 인구도 각 10명 중 2명 정도로 나타남.

2 부상 발생 현황



- 요가 활동인구 중 17.6%의 응답자가 요가 부상 경험이 있다고 응답함.
- 요가 부상 경험은 자주 활동(주 1회 이상 82.0%, 월 1회 이상(월 2-3회 포함, 10.4%) 하는 사람들일수록, 1회 참여 시 약 53분가량으로 일반적인 1회 강좌를 온전히 소화 하는 사람들에게서 주로 일어나고 있음.
- 종목 부상 경험자 10명 중 8명 이상(81.5%)은 본인의 요가 능숙도를 '초급' 정도로 인식하고 있으며, 종목 경력 '2년 미만'(53.6%)인 집단의 구성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요가를 통해 발생하는 부상은 주로 '상반신'(48.8%)과 '허리'(40.8%)에 일어나고 있고, 가장 흔한 부상 유형은 '통증'(60.3%), 다음으로 '염좌'(31.8%)가 많았음.
- 요가 부상 경험자들이 겪은 여러 부위와 종류를 종합한 가장 심각했던 부상 유형은 '허리 통증'(20.4%)임.
- 부상의 직접적 원인으로는 '무리한 동작'이 86.7%로 가장 높게 나타나 요가활동 중 부상을 입는 사람의 10명 중 8명 이상이 겪는 주된 원인으로 드러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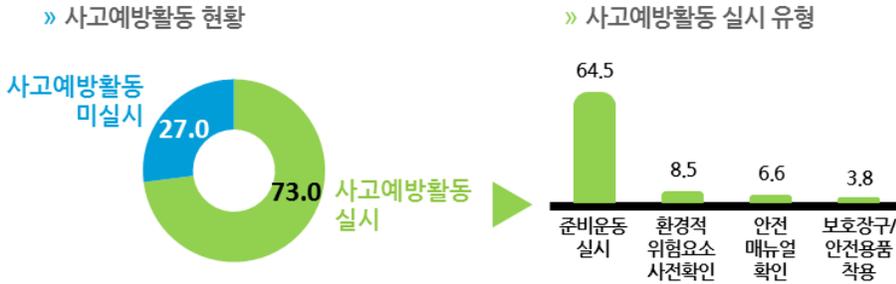
스포츠 안전사고 실태조사 -종합편

- 10명 중 약 8명 이상은 개인의 주관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경증 부상’을 당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연 평균 약 1.9회 가량의 부상을 당하고 있음.
- 부상 발생 시간대는 ‘저녁’(18-21시 이전, 46.0%) 시간대, ‘오전’(09-12시 이전, 20.9%) 시간대 순으로 주 활동 시간대와 비슷한 패턴을 보임.

3 부상 발생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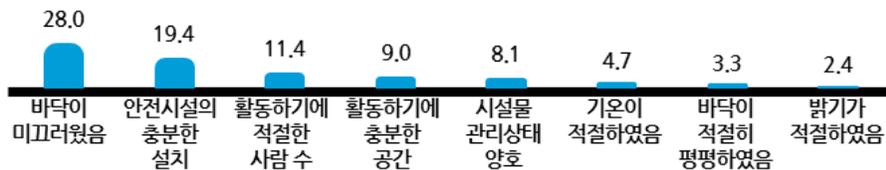
전체적으로 부상경험자들의 사고예방활동은 미흡

부상경험자의 27.0%는 부상 전 아무런 사고예방활동을 실시하지 않음
 실시한 응답자 중에서도 '준비운동'(64.5%)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10% 미만의 실시율



여러 환경적 요인 중 가장 주요한 문제는 '미끄러운 바닥'(28.0%)과 '충분치 않은 안전시설'(19.4%)

» 부상 장소 환경적 요인(Bottom2: 매우 부정평가+부정평가 합산)



※ 5점 척도로 응답된 결과 중 [1] 매우 부정평가와 [2] 부정평가의 합산 비율을 제시함
 ※ '미끄러운 바닥'은 역척도 문항이므로 Bottom2는 [4]부정평가와 [5]매우 부정평가의 합산 비율임

◎ 부상발생 이전 상황 : 예방활동 측면

- 부상 당시의 운동 시작 전 사고예방을 위해 행했던 활동으로 가장 높은 행동은 '준비운동'(64.5%)이며, 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고예방활동은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있음.
- 전문/숙련자가 배석하고 교육을 실시함에 따라 사고예방활동을 전체적으로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으며, 전문/숙련자가 배석하지 않는 경우 사고예방활동을 미실시하는 비

스포츠 안전사고 실태조사 -종합편

율이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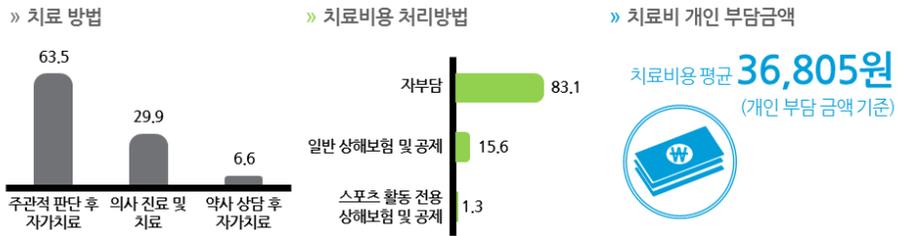
- 장비 착용을 하는 경우, 요가 부상 경험자들 10명 중 약 5명(50.0%)은 부상 당시 ‘손목 보호대’를 착용, 착용한 장비의 전반적 상태는 ‘보통’수준(양호 25.0%, 보통 50.0%, 불량 25.0%)인 것으로 나타남.
 - 부상 전 환경적 위험요소 확인자의 44.4%(매우 그렇다 11.1%+그런 편이다 33.3%)가 ‘정신히 확인’했다고 응답함.
 - 부상을 당했던 당시 행했던 준비운동으로는 ‘유연성 준비운동’(47.8%), ‘근력 준비운동’(44.1%), ‘심폐지구력 준비운동’(41.9%)의 순으로 조사되었으며(5점 척도 중 [4]그렇다, [5]매우 그렇다의 합산비율 기준), 종목 능숙도가 높을수록 전반적인 준비운동 실시 비율이 높게 나타남.
 - 부상 전 확인했던 안전 매뉴얼의 경우 부상 방지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28.6%였으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은 없었음.
- 부상 전 본인의 신체 상태에 대해 ‘양호’했다는 응답이 19.4%(매우 좋았다 1.4%+좋은 편이었다 18.0%)로 ‘비양호’했다는 응답(17.1%: 전혀 좋지 않았다 1.4%+좋지 않은 편 15.6%)과 큰 차이가 없음.

◎ 부상 당시 상황 : 환경적 요인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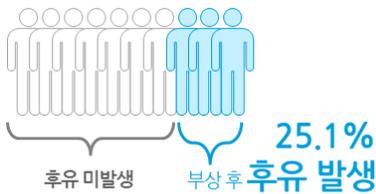
- 응답자 10명 중 4명 이상(45.0%)은 ‘요가전문 교육장’에서 부상을 당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상 장소 운영 주체는 ‘민간’시설이 61.1%로 가장 많음.
- 부상을 당했던 장소에 안전과 관련된 안내문구나 책자가 비치되었던 경우는 18.8%이며, 비치되어 있는 경우 약 절반 정도(55.9%)는 이를 확인하는 것으로 조사됨.
- 부상 장소의 환경적 요인을 종합한 결과, ‘바닥이 미끄러웠음’이라는 평가가 28.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안전시설의 충분한 설치’에 대한 부정적 평가(19.4%), ‘활동하기에 적절한 사람 수’에 대한 부정적 평가(11.4%), ‘활동하기에 충분한 공간’에 대한 부정적 평가(9.0%) 등의 순으로 조사됨(5점 척도 중 [1]매우 부정적, [2]부정적의 합산비율 기준. 단, ‘미끄러운 바닥’은 역척도 문항이므로 Bottom2는 [4]부정평가와 [5]매우 부정평가의 합산 비율).
- 부상 경험자 10명 중 9명 이상은 부상 당시 ‘지도자 자격증이 있는 전문 지도자’(76.3%)나 ‘해당 종목을 잘 아는 숙련자’(19.7%)가 배석 중이었고, 전문지도자 배석 시 44.8%, 숙련자 배석 시 26.7%만이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 관련 교육을 실시하였음.

4 부상 후 대처 및 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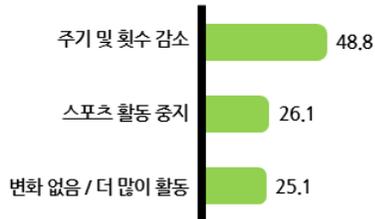
부상 후 10명 중 6명 이상(63.5%)은 ‘주관적 판단 후 자가치료’
 10명 중 8명 이상(83.1%)은 치료비용을 ‘자부담 처리’
 개인 부담금액 기준, 1인 1건당 치료 소요비용은 평균 36,805원



부상 경험자 10명 중
 약 2-3명가량(25.1%)이
 부상으로 인해 후유증 발생



10명 중 7명 정도는 부상 이후
 스포츠 활동을 줄이거나(48.8%)
 중지(26.1%)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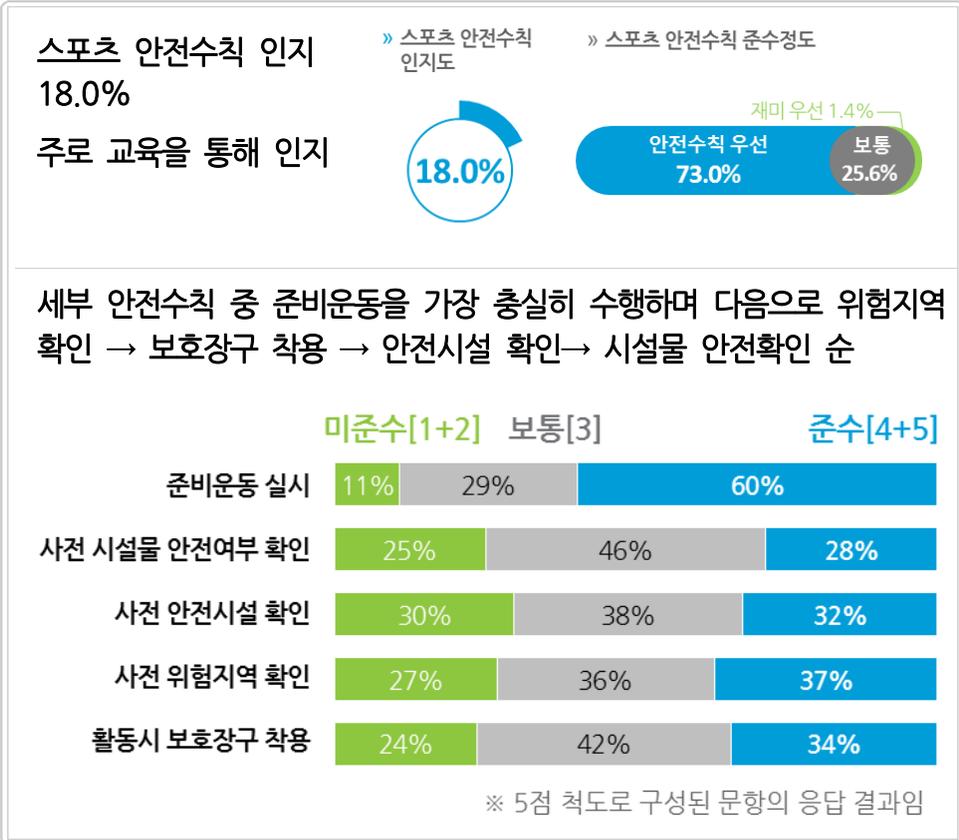


- 염좌의 경우 ‘냉찜질’을, 통증에는 ‘온찜질 또는 보온’을 실시하는 등 전반적으로 부상 종류에 적절한 응급 대처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발생한 부상은 ‘주관적 판단 후 자가치료’한 비율이 63.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의사 진료 및 치료’(29.9%), ‘약사 상담 후 자가치료’(6.6%)의 순이며, 부상 경험자 10명 중 8명 이상(83.1%)은 치료비용을 ‘자부담’, 발생한 부상의 치료비용 중 개인 부담금액은 평균 36,805원으로 나타남.
 - 부상 가료기간이 길수록 치료비용의 개인부담금액 역시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 가료에 필요한 기간은 ‘1-2주’(28.9%)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1주 미만’(26.1%)이며 ‘바로 참여 가능할 정도로 경미함’(22.3%) 등의 순으로 조사됨.

스포츠 안전사고 실태조사 -종합편

- 요가 부상 경험자 10명 중 2명 이상(25.1%)이 부상으로 인해 후유증이 발생함.
 - 통증의 후유발생률은 28.1%로 심각도도 높지 않은 편인 반면(높은 심각도: 15.6%), 염좌의 경우 후유 발생률은 18.5%로 더 낮지만 심각도는 더 높은 수준임(높은 심각도: 50.0%).
- 부상 경험자 10명 중 약 5명(48.8%)은 부상 후 활동 주기 및 횟수가 부상 전 대비 62.8%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이의 주된 이유는 '신체적 불편함'(67.1%)임.
 - 머리/목 부상의 활동 중지 비율(38.1%)이 가장 높고 부상 전 대비 평균 감소율도 57.5%로 다른 부위 대비 낮게 나타나, 머리/목의 부상이 요가 활동 지속에 가장 큰 어려움을 주는 것으로 판단됨.

5 스포츠 안전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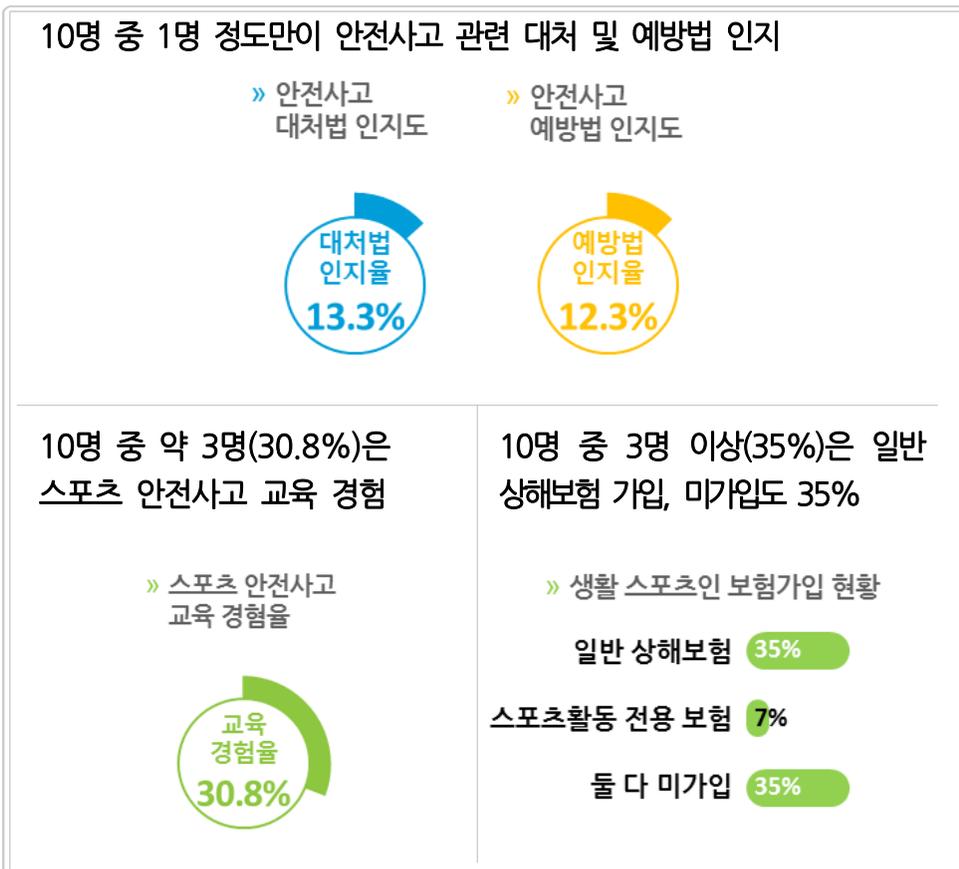
◎ 안전 인식

- 요가 종목의 안전수칙을 ‘인지’하고 있다는 응답이 18.0%(매우 잘 알고 있다 1.9%+ 대체로 아는 편 16.1%)로 ‘미인지’하고 있다는 응답(41.7%: 전혀 모른다 6.6%+잘 모르는 편 35.1%)보다 낮은 수준을 보임.
 - 안전수칙 인지자의 44.7%는 ‘교육’을 통해, 31.6%는 ‘같이 운동하는 사람’을 통해 안전수칙을 알게 되었다고 응답함.
- 부상 경험자 10명 중 7명 이상(73.0%: 안전 최우선 31.3%+어느 정도 안전 우선 41.7%)은 요가를 할 때 ‘안전 수칙 준수’를 우선시함.
- 부상 경험자들의 안전수칙 준수 정도를 보다 세부적으로 파악한 결과 ‘준비 운동을 실시한다’는 응답이 59.7%로 과반수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사전에 위험지역 확

스포츠 안전사고 실태조사 -종합편

인’(37.0%), ‘활동 시 보호장구 착용’(34.1%) 등의 순으로 조사됨(5점 척도 중 [4]그
 렵다, [5]매우 그렇다의 합산비율 기준).

- 시설물 안전여부 미확인, 안전시설 미확인, 위험지역 미확인 이유 모두 ‘확인 방법을 몰라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세부 순위에는 소폭 차이가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확인하기 귀찮아서’, ‘확인이 중요하지 않은 스포츠라서’와 ‘확인할 사항이 없어서’의 이유로 인해 확인을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됨.
- 보호장구를 구매하기 위한 지출의향 및 지출수준에 대해서는 단 5.2%만이 지출의향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1인 평균 연간 지출의향(또는 현재 지출금액)은 약 13만원 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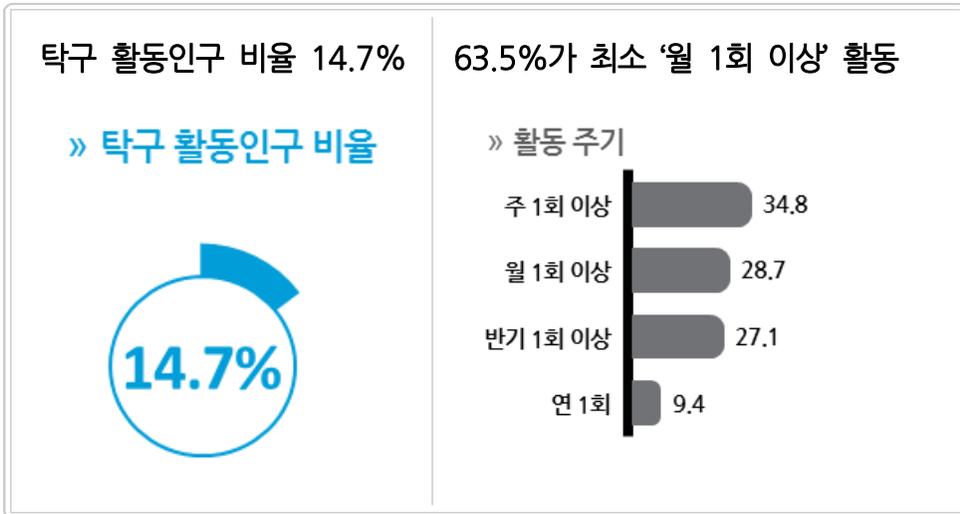


◎ 대처 및 예방

- 요가를 하던 중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시 대처방법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대처법 13.3%(매우 잘 알고 있음 0.5%+대체로 아는 편 12.8%), 예방법 12.3%(대체로 아는 편 12.3%)임.
 - 부상 경험자의 45.5%(전혀 모름 4.3%+잘 모르는 편 41.2%)가 요가를 하던 중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시 대처방법을 ‘미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예방법 역시 ‘미인지’ 비율이 41.7%(전혀 모름 3.3%+잘 모르는 편 38.4%)에 달함.
- 응급처치 요령 인지도는 ‘심폐 소생술’(24.2%), ‘골절 및 염좌 발생 시 대처법 인지’(21.8%), ‘자동 제세동기 사용법 인지’(18.0%) 등의 순으로 조사됨(5점 척도 중 [4]어느 정도 알고 있음, [5]매우 잘 알고 있음의 합산비율 기준).
- 안전사고 응급처치 요령 습득 경로는 ‘TV’가 37.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인터넷’(33.2%), ‘책자’(16.6), ‘응급처치 전문기관’(15.6%) 등의 순임.
- 스포츠 안전사고에 대비한 ‘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없는’ 응답자가 69.2%로 ‘교육을 경험’한 비율(30.8%) 대비 높게 나타났으며 스포츠 안전사고 대비 교육을 받은 기관은 ‘국가 및 공공기관’(41.5%), ‘대학교의 정규 강좌’(29.2%), ‘동호회/팀’과 ‘민간기업’(각 13.8%) 등의 순임.
- 스포츠 안전사고에 대비 교육을 받지 않은 이유는 ‘스포츠활동 중 부상을 대비한 안전교육이 있는지 몰라서’(45.2%), ‘교육을 받고 싶었으나 어느 기관에서 교육하는지 몰라서’(32.9%), ‘교육을 필요성을 못 느껴서’(21.2%) 등의 순임.
- 스포츠 안전사고에 대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76.3%(매우 필요 18.5%+필요 57.8%)로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 3.3%(전혀 불필요 0.5%+불필요 2.8%)에 비해 현저히 높게 나타남.
- 요가 부상 경험자의 35.1%는 ‘스포츠 활동 중의 부상을 전문적으로 보상해주는 보험 및 공제’와 ‘일반 상해보험 및 공제’에 모두 가입되어 있지 않음.
 - ‘일반 상해보험 및 공제’에 34.6%, ‘스포츠 활동 중의 부상을 전문적으로 보상해주는 보험 및 공제’에 7.1%가 가입되어 있다고 응답함.

21. 탁구

1 생활스포츠 참여 실태



- 최근 1년간 스포츠활동의 일환으로 탁구를 경험한 인구 비율은 14.7%임.
- 전체적으로 10명 중 약 6명 이상(63.5%: 주 1회 이상 34.8%+월 1회 이상 28.7%)은 최소 월 1회 이상 탁구를 즐기고 있으며, 1회 평균 활동시간은 71.49분임.
- 주로 '저녁'(18-21시 이전, 37.4%) 시간대와 '오후'(15-18시 이전, 28.3%) 시간대에 탁구를 즐기고 있으며, 탁구 인구 중 절반 이상(52.5%)은 '전용 경기 시설'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남.

2 부상 발생 현황

탁구 활동 인구 중 10명 중
약 2명 부상 경험
연 평균 1.6회가량 부상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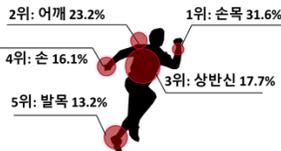
» 탁구 부상 경험률

» 평균 부상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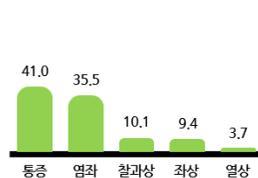


주요 부상 부위는 '손목'(31.6%), '어깨'(23.2%) 순,
주요 부상 종류는 '통증'(41.0%)과 '염좌'(35.5%),
10명 중 4명은 무리한 동작(41.0%)으로 인해 부상을 당함

» 부상 부위



» 주요 발생 부상종류 Top5



» 부상 직접적 원인



- 스포츠 활동 중 부상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19.5%의 응답자가 심한 부상부터 경미한 부상까지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함.
- 탁구 부상자의 절반 이상(57.7%)은 주 1회 이상 활동하고 있으며, 1회 참여 시 평균 약 66분가량 참여하고 있음.
- 부상 경험자의 절반 이상(58.7%)은 본인의 탁구 능숙도를 '초급' 정도로 인식하고 있으며, 종목 경력별 '20년 이상'이 23.9%, '2년 이상 5년 미만'이 21.9% 순으로 나타남.
- 탁구를 통해 발생하는 부상은 주로 '손목'(31.6%)과 '어깨'(23.2%)이고 가장 흔한 부상 유형은 '통증'(41.0%)과 '염좌'(35.5%)이며 가장 심각했던 부상 유형은 '손목 염좌'(12.6%)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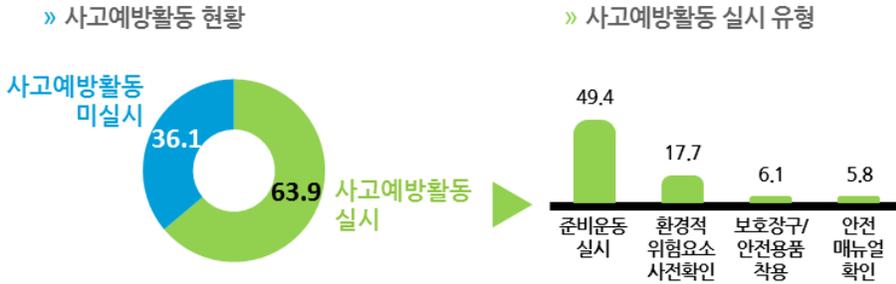
스포츠 안전사고 실태조사 -종합편

- 부상의 직접적 원인으로는 ‘무리한 동작’(41.0%), ‘미끄러져 넘어짐’(23.9%), ‘주변 시설과 충돌’(20.0%) 등의 순으로 조사됨.
- 연 평균 약 1.6회 가량의 부상을 당하고 있음.
- 탁구의 부상 발생 시간대는 ‘저녁’(18-21시 이전) 시간대의 부상 발생률(39.4%)이 가장 높았으며 주 활동 시간대와 비슷한 패턴을 보임.

3 부상 발생 환경

전체적으로 부상경험자들의 사고예방활동은 미흡

부상경험자의 36.1%는 부상 전 아무런 사고예방활동을 실시하지 않음
 실시한 응답자 중에서도 '준비운동'(49.4%)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20% 미만의 실시율



여러 환경적 요인 중 가장 주요한 문제는 '미끄러운 바닥'(29.4%)과 '충분치 않은 안전시설'(21.0%)

» 부상 장소 환경적 요인(Bottom2: 매우 부정평가+부정평가 합산)



※ 5점 척도로 응답된 결과 중 [1] 매우 부정평가와 [2] 부정평가의 합산 비율을 제시함

※ '미끄러운 바닥'은 역척도 문항이므로 Bottom2는 [4]부정평가와 [5]매우 부정평가의 합산 비율임

◎ 부상발생 이전 상황 : 예방활동 측면

- 부상 당시의 운동 시작 전 사고예방 활동으로 가장 높았던 '준비운동'(49.4%)을 제외하면 모두 20% 미만이며 아무런 사고예방활동을 행하지 않았다는 비율도 36.1%로 나타나 탁구 부상 경험자의 대부분은 사고예방활동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있음.
- 전문/숙련자가 배석하고 교육을 함에 따라 '보호장구 및 안전용품 착용', '환경적 위험요소 확인', '준비운동 실시', '안전 매뉴얼 확인'의 사고예방활동을 더 활발하게 수행하는 것으로 조사됨.

스포츠 안전사고 실태조사 -종합편

- 장비 착용을 하는 경우, 10명 중 6명 이상(63.2%)은 부상 당시 ‘손목 보호대’를 착용, 착용한 장비의 상태는 전반적으로 ‘불량’했던 것으로 보임(양호 15.8%, 불량 36.8%).
 - 환경적 위험요소 확인자의 34.5%는 ‘불성실’하게 확인한다고 응답하여 ‘성실히 확인’했다는 응답 27.3%(그런 편 27.3%)보다 높게 나타남.
 - 부상을 당하기 전 행했던 준비운동으로는 ‘유연성 준비운동’(49.0%), ‘심폐지구력 준비운동’(42.5%), ‘근력 준비운동’(39.2%)의 순으로(5점 척도 중 [4]그렇다, [5]매우 그렇다의 합산비율 기준), 전문/숙련자가 배석하고 교육을 함에 따라 사고예방활동을 더 활발하게 수행하는 것으로 조사됨.
 - 부상 전 확인했던 안전 매뉴얼이 부상 방지에 ‘도움이 되었다’(16.7%)는 응답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안전 매뉴얼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부상 전 본인의 신체 상태에 대해 ‘양호’했다는 응답이 31.9%(매우 좋았다 2.3%+좋은 편이었다 29.7%)로 ‘양호하지 않았다’는 응답(12.6%: 전혀 좋지 않았다 0.6%+좋지 않은 편 11.9%)에 비해 2배 이상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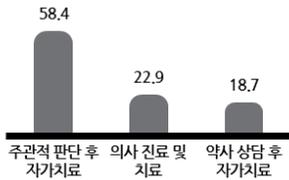
◎ 부상 당시 상황 : 환경적 요인 측면

- ‘전용탁구장’에서 부상을 당한 응답자가 58.7%로 가장 높고, 부상 장소 운영 주체는 ‘민간’시설이 68.4%, ‘공공’시설이 23.2% 임.
- 부상을 당했던 장소에 안전과 관련된 안내문구나 책자가 비치되었던 경우는 15.5%이며 비치되어 있는 경우 46.8%가 이를 확인하는 것으로 조사됨.
 - 부상 장소의 운영주체가 ‘공공’시설인 경우 안전 안내문구 및 책자 비치현황과 비율 모두 비교적 높게 나타남.
- 부상 장소의 환경적 요인을 종합한 결과, ‘바닥이 미끄러웠음’이라는 평가가 29.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안전시설의 충분한 설치’에 대한 부정적 평가(21.0%), ‘활동하기에 충분한 공간’에 대한 부정적 평가(16.8%), ‘활동하기에 적절한 사람 수’에 대한 부정적 평가(14.2%) 등의 순으로 조사됨(5점 척도 중 [1]매우 부정적, [2]부정적의 합산비율 기준. 단, ‘미끄러운 바닥’은 역척도 문항이므로 Bottom2는 [4]부정평가와 [5]매우 부정평가의 합산 비율).
 - ‘바닥이 미끄러웠음’과 ‘안전시설의 충분한 설치’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한 응답자의 경우 다른 요인 대비 부상 가료기간이 길게 나타남.
- 부상 경험자 10명 중 약 5명은 부상 당시 ‘지도자 자격증이 있는 전문 지도자’(12.0%)나 ‘해당 종목에 잘 아는 숙련자’(42.0%)가 배석 중이었고, 이 중 지도자가 배석한 경우 42.4%가, 숙련자가 배석한 경우 20.9%가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 관련 교육을 실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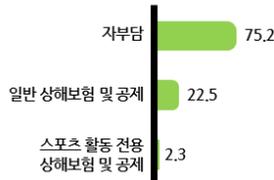
4 부상 후 대처 및 경과

발생된 부상 절반 이상(58.4%)은 '주관적 판단 후 자가치료'
 10명 중 7명 이상(75.2%)은 치료비용을 '자부담 처리'
 개인 부담금액 기준, 1인 1건당 치료 소요비용은 평균 36,917원

» 치료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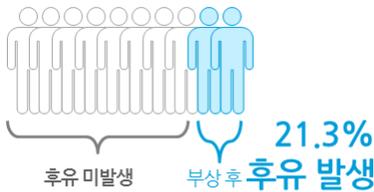
» 치료비용 처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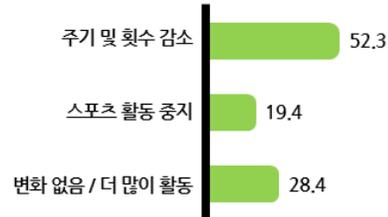
» 치료비 개인 부담금액



부상 경험자 10명 중
 약 2명가량(21.3%)이
 부상으로 인해 후유증 발생



10명 중 7명 정도는 부상 이후
 스포츠 활동을 줄이거나(52.3%)
 중지(19.4%)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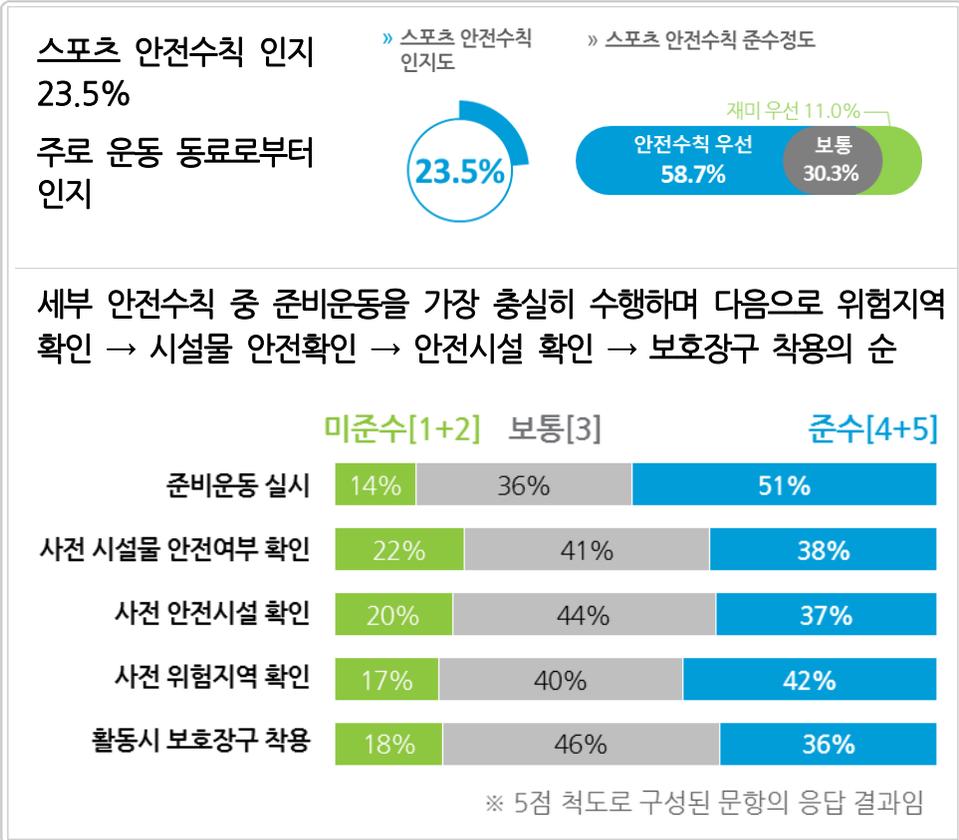


- 사례수가 가장 많은 염좌의 경우 '냉찜질'과 '압박'을, 통증에는 '냉찜질'을 실시하는 등 전반적으로 부상 종류에 적절한 응급 대처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한편, 응답자 10명 중 약 3명은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다(29.0%)고 응답함.
- 발생한 부상은 '주관적 판단 후 자가치료'한 비율이 58.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의사 진료 및 치료'(22.9%), '약사 상담 후 자가치료'(18.7%)의 순이며, 부상 경험자 10명 중 7명 이상(75.2%)은 치료비용을 '자부담'하고, 평균 개인 부담금액은 36,917 원임.
 - 구간별로는 '1만원 이하'의 금액을 부담한 인구가 40.0%로 가장 높음.

스포츠 안전사고 실태조사 -종합편

- 가료에 필요한 기간은 '1-2주'(32.6%)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1주 미만'(31.6%)이며 '바로 참여 가능할 정도로 경미함'(14.8%) 등의 순으로 조사됨.
- 탁구 부상 경험자 10명 중 약 2명가량(21.3%)이 부상으로 인해 후유증이 발생함.
- 부상 경험자 10명 중 5명 이상(52.3%)은 부상 후 활동 주기 및 횟수가 감소하였고 부상 전의 활동주기 및 횟수 대비 55.5%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응답함.
 - 부상 후 스포츠활동 감소 및 중단한 주된 이유로는 '신체적 불편함'(63.5%), '심리적 두려움'(23.0%), '가족 또는 지인의 반대'(10.8%)의 순으로 조사됨.

5 스포츠 안전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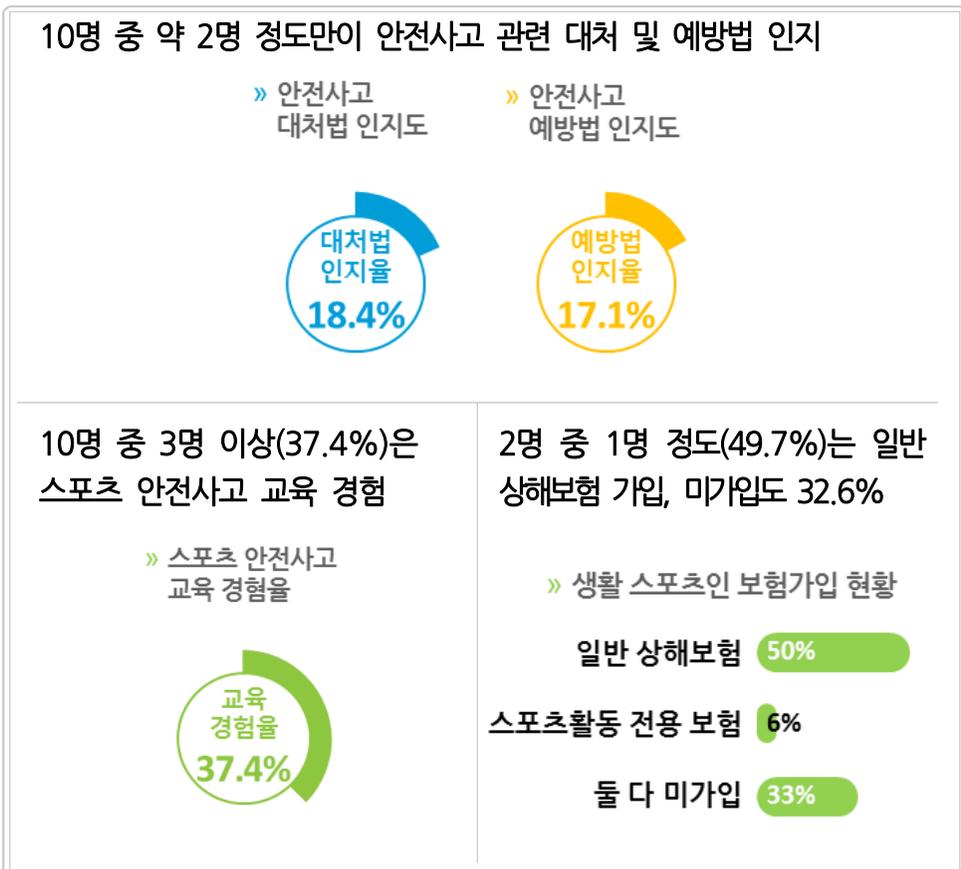


◎ 안전 인식

- 탁구 안전수칙을 ‘인지’하고 있다는 응답은 23.5%(매우 잘 알고 있음 1.6%+대체로 아는 편 21.9%)로 인지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32.3%: 전혀 모른다 8.1%+잘 모르는 편 24.2%)보다 낮게 조사됨.
 - 안전수칙 인지자의 60.3%는 ‘같이 운동하는 사람’으로부터 안전 수칙을 알게 되었다고 응답함.
- 부상 경험자 10명 중 5명 이상(58.7%: 안전 최우선 22.3%+어느 정도 안전 우선 36.5%)은 탁구를 할 때 ‘안전 수칙 준수’를 우선시 함.

스포츠 안전사고 실태조사 -종합편

- 부상 경험자들의 안전수칙 준수 정도를 보다 세부적으로 파악한 결과 ‘준비 운동을 실시한다’는 응답이 50.6%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사전에 위험지역 확인’(42.3%) 이 뒤를 이었음(5점 척도 중 [4]그렇다, [5]매우 그렇다의 합산비율 기준).
- 시설물 안전여부 미확인, 안전시설 미확인, 위험지역 미확인 이유 모두 ‘확인하기 귀찮아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확인이 중요하지 않은 스포츠라서’, ‘확인 방법을 몰라서’, ‘확인할 사항이 없어서’의 이유로 인해 확인을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됨.
- 보호장구를 구매하기 위한 지출의향 및 지출수준에 대해서는 단지 2.3%만이 지출의향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1인 평균 연간 지출의향(또는 현재 지출금액)은 약 25만원 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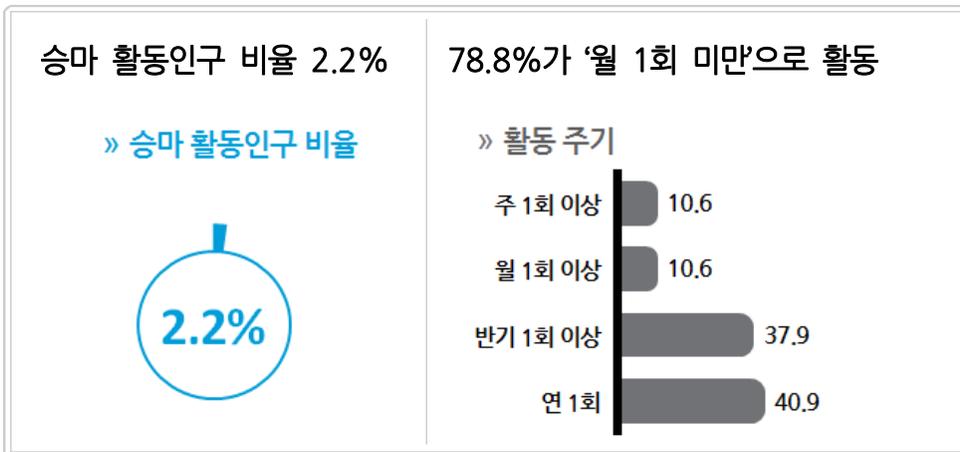


◎ 대처 및 예방

- 탁구를 하던 중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시 대처방법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대처법 18.4%(매우 잘 알고 있음 0.3%+대체로 아는 편 18.1%), 예방법 17.1%(매우 잘 알고 있음 1.0%+대체로 아는 편 16.1%)임.
 - 부상 경험자의 36.8%(전혀 모름 3.2%+잘 모르는 편 33.5%)가 탁구를 하던 중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시 대처방법을 ‘미인지’하고 있다고 응답, 예방법 역시 전체 부상 경험자의 33.9%(전혀 모름 3.9%+잘 모르는 편 30.0%)가 ‘미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함.
- 응급처치 요령 인지도는 ‘심폐 소생술(CPR)’(33.2%), ‘골절 및 염좌 발생 시 대처법 인지’(29.7%), ‘저체온증 발생 시 대처요령 인지’(27.4%) 등의 순으로 조사됨(5점 척도 중 [4]어느 정도 알고 있음, [5]매우 잘 알고 있음의 합산비율 기준).
- 안전사고 응급처치 요령 습득 경로는 ‘인터넷’이 39.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TV’(25.8%), ‘스포츠 전문지도자/숙련자’(22.9%), ‘응급처치 전문기관’(22.6%) 등의 순임.
- 스포츠 안전사고에 대비한 ‘교육을 경험’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37.4%로 조사되었으며 스포츠 안전사고 대비 교육을 받은 기관은 ‘국가 및 공공기관’(33.6%), ‘동호회/팀’(26.7%), ‘지역/종목별 협회 및 단체’(22.4%) 등의 순임.
- 스포츠 안전사고에 대비 교육을 받지 않은 이유는 ‘스포츠활동 중 부상을 대비한 안전교육이 있는지 몰라서’(35.6%), ‘교육을 받고 싶었으나 어느 기관에서 교육하는지 몰라서’(32.0%), ‘교육을 필요성을 못 느껴서’(30.4%) 등의 순임.
- 스포츠 안전사고에 대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63.5%(매우 필요 16.5%+필요 47.1%)로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 8.7%(전혀 불필요 1.0%+불필요 7.7%)에 비해 현저히 높음.
- ‘일반 상해보험 및 공제’ 가입률이 49.7%, ‘스포츠 활동 전용 보험 및 공제’ 가입률은 5.5%에 불과하며 둘 다 미가입 상태인 응답자 비율도 32.6%에 달함.

22. 승마

1 생활스포츠 참여 실태



- 최근 1년간 스포츠활동의 일환으로 승마를 경험한 인구 비율은 2.2%임.
- 전체적으로 10명 중 약 8명가량(78.8% : 반기 1회 이상 37.9+연 1회 40.9%)은 최소 월 1회 미만 승마를 즐기고 있으며, 1회 평균 활동시간은 66.00분임.
- 야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간대에서 승마를 즐기고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오후'(15-18시 이전, 50.0%) 시간대에 주로 즐기고 있음.
- 승마 인구 10명 중 7명 이상(74.2%)은 '전용 경기시설'에서 승마를 즐기고 있음.

2 부상 발생 현황

승마 활동 인구 중 10명 중
2명 정도 부상 경험
연 평균 1.4회 가량 부상경험

» 승마 부상 경험률

» 평균 부상 횟수



연 평균 **1.4회**
(2015년 1년간 기준)

주요 부상 부위는 '상반신'과 '하체상부'(각 30.9%),
주요 부상 종류는 '통증'(32.7%)과 '염좌'(30.9%),
10명 중 4명가량은 '떨어짐'(38.2%)으로 인해 부상을 당함

» 부상 부위



» 주요 발생 부상종류 Top5



» 부상 직접적 원인



- 승마 활동인구의 19.7%는 심한 부상부터 경미한 부상까지 당한 경험이 있음.
- 승마 부상 경험은 자주 활동(주 1회 이상 21.8%, 월 1회 이상(월 2-3회 포함) 29.1%) 하는 사람들일수록, 1회 참여 시 약 68분 정도 즐기는 사람들에게서 주로 일어나고 있음.
- 종목 부상 경험자 10명 중 7명 이상(76.4%)은 본인의 승마 능숙도를 '초급' 정도로 인식하고 있으며, 종목 경력 '2년 미만'(37.3%)인 집단의 구성 비율이 가장 높고 '20년 이상'(2.7%)인 집단의 구성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남.
- 승마를 통해 발생하는 부상은 주로 '상반신'과 '하체상부'(각 30.9%)에 걸쳐 일어나고 있으며 가장 흔한 부상 유형은 '통증'(32.7%), '염좌'(30.9%), '좌상'(27.3%), '찰과상'(11.8%) 등의 순임.
- 승마 부상 경험자들이 겪은 여러 부위와 종류를 종합한, 가장 심각했던 부상 유형은 '발목 염좌'(8.2%)임.

스포츠 안전사고 실태조사 -종합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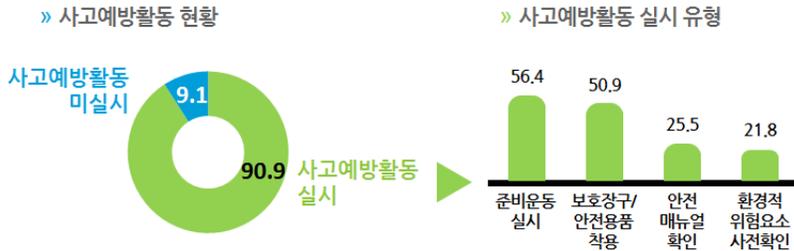
- 부상의 직접적 원인으로는 ‘떨어짐’이 38.2%로 가장 높게 나타나 승마를 통해 부상을 입는 사람 10명 중 4명 정도는 말이나 기구에서 떨어져 부상을 입는 것을 알 수 있음.
- 연 평균 약 1.4회 가량의 부상을 입고 있음.
- 승마의 주 활동 시간대는 주로 ‘오후’(15-18시 이전, 50.0%) 시간대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임.
 - 부상 발생 시간대는 주 활동 시간대에 수렴하는 결과를 보여 활동 인구가 집중되는 시간대에 부상도 많이 발생하는 정상적인 패턴을 보이고 있음.

3 부상 발생 환경

부상경험자들의 사고예방활동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음

부상경험자의 90.9%는 부상 전 사고예방활동을 실시함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준비운동을 실시'(56.4%)하고 '보호장구/안전용품 착용'(50.9%)을 한다고 응답함



여러 환경적 요인 중 가장 주요한 문제는 '미끄러운 바닥'(40.9%), '충분치 않은 안전시설' 및 '평평하지 않은 바닥'(각 13.6%)

» 부상 장소 환경적 요인(Bottom2: 매우 부정평가+부정평가 합산)



※ 5점 척도로 응답된 결과 중 [1] 매우 부정평가와 [2] 부정평가의 합산 비율을 제시함
 ※ '미끄러운 바닥'은 역척도 문항이므로 Bottom2는 [4]부정평가와 [5]매우 부정평가의 합산 비율임

◎ 부상발생 이전 상황 : 예방활동 측면

- 대부분 사고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준비운동'(56.4%)과 '보호장구/안전용품 착용'(50.9%)은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하고 있었음. 또한 다른 활동도 20% 중반의 활동으로 어느 정도는 사고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전문/숙련자가 배석한 경우 '보호장구 및 안전용품 착용', '환경적 위험요소 확인' 등 사고예방활동을 보다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음.
- 장비 착용을 하는 경우, 10명 중 6명 이상이 부상 당시 '전용 부츠'(67.9%), '장

스포츠 안전사고 실태조사 -종합편

갑'(64.3%), '보호조끼'(60.7%)를 착용, 착용한 장비의 전반적 상태는 '양호'(48.2%)
했던 것으로 나타남.

- 환경적 위험요소 확인자의 37.5%만이 '성실히 확인'할 뿐 나머지는 '불성실'하거나 형
식적 확인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준비운동 실시자는 '유연성'(58.1%), '심폐지구력'(53.2%), '근력'(50.0%) 등 다양한
준비운동을 실시(5점 척도 중 [4]그렇다, [5]매우 그렇다의 합산비율 기준)하고 있음.

- 확인한 안전매뉴얼의 경우 전반적으로 '부상 방지에 도움이 되었다'(60.7%)고 평가함.

- 부상 전 신체상태가 '양호'했다는 응답이 35.5%로, '비양호'했다는 응답(12.7%)에
비해 높았으나 종합적으로는 10명 중 3-4명만이 신체상태가 양호한 상태에서 운동
에 참여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음.

◎ 부상 당시 상황 : 환경적 요인 측면

- '실외 승마장'에서 부상을 당한 응답자가 68.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실내 승마
장'(26.4%)로 이들 두 장소에서 대부분의 부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
며 부상 장소 운영 주체는 '민간'시설이 72.7%, '공공'시설이 9.1%임.

- 부상 장소에 안전 안내문구 및 책자 비치여부에 대해, '안내문구 및 책자가 비치되었
다'는 응답은 37.0%이며 비치된 경우 70.0%는 이를 확인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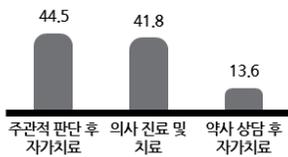
- 부상 장소의 환경적 요인을 종합한 결과, '바닥이 미끄러웠음'이라는 평가가 40.9%
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안전시설의 충분한 설치'에 대한 부정적 평가 및 '바닥이
적절히 평평하였음'에 대한 부정적 평가(각 13.6%), '활동하기에 충분한 공간'에 대
한 부정적 평가(12.7%) 등의 순으로 조사됨(5점 척도 중 [1]매우 부정적, [2]부정적
의 합산비율 기준. 단, '미끄러운 바닥'은 역척도 문항이므로 Bottom2는 [4]부정평
가와 [5]매우 부정평가의 합산 비율).

- 부상 경험자 10명 중 약 9명은 부상 당시 '지도자 자격증이 있는 전문 지도
자'(46.3%)나 '해당 종목에 잘 아는 숙련자'(47.5%)가 배석 중이었고 이 중, 지도자
가 배석한 경우 대부분(83.8%)은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 관련 교육을 실시, 숙련자가
배석한 경우 10명 중 7명 정도(71.1%)가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였음.

4 부상 후 대처 및 경과

발생된 부상 10명 중 4명 이상(44.5%)은 '주관적 판단 후 자가치료'
10명 중 6명가량(60.7%)은 치료비용을 '자부담' 처리
개인 부담금액 기준, 1인 1건당 치료 소요비용은 평균 83,856원

» 치료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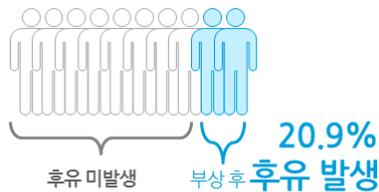
» 치료비용 처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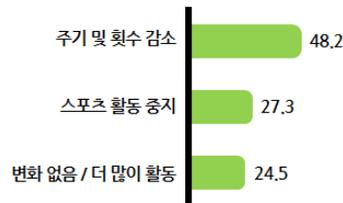
» 치료비 개인 부담금액



부상 경험자 10명 중
약 2명가량(20.9%)이
부상으로 인해 후유증 발생



10명 중 8명 정도는 부상 이후
스포츠 활동을 줄이거나(48.2%)
중지(27.3%)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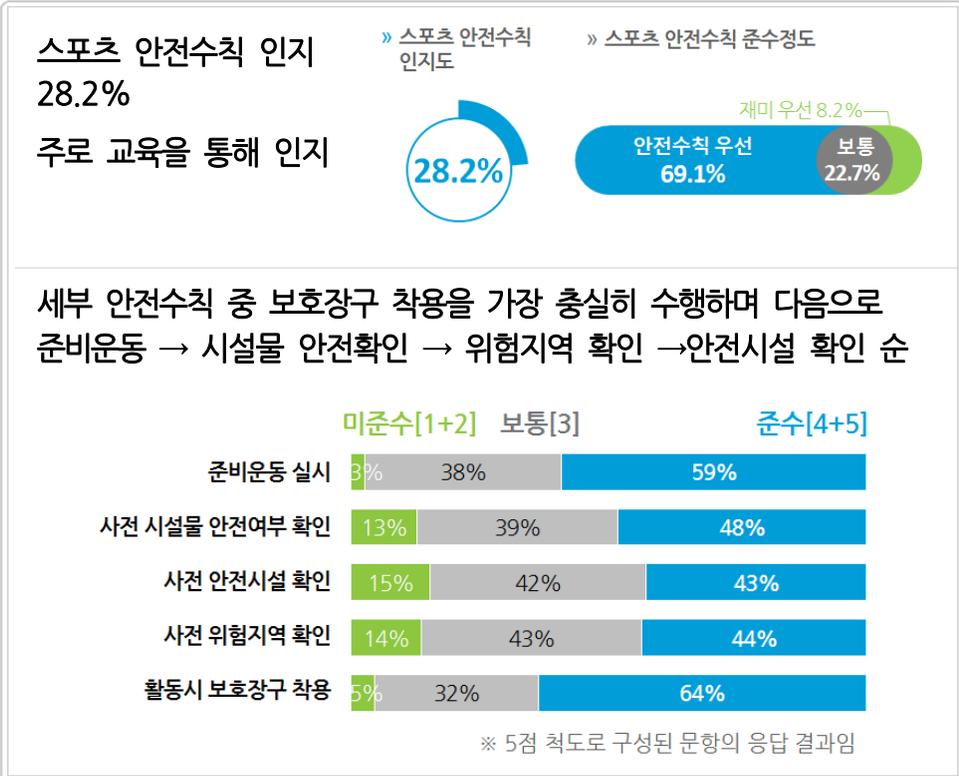
- 염좌, 통증의 경우 '냉찜질'을 실시하고 통증의 경우 '온찜질 또는 보온'을 병행 실시하는 등 전반적으로 부상 종류에 적절한 응급 대처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발생한 부상은 '주관적 판단 후 자가치료'한 비율이 44.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의사 진료 및 치료'(41.8%), '의사 상담 후 자가치료'(13.6%)의 순이며, 부상 경험자 10명 중 6명 이상(60.7%)은 치료비용을 자부담하고, 전체적인 치료비용 개인 부담금액은 평균 83,856원임.
 - 파열, 골절 등의 부상 종류에서 치료비용 개인부담금액이 상대적으로 높고 부상 가료기간이 길수록 치료비용의 개인부담금액 역시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 가료에 필요한 기간은 '1주 미만'과 '3-4주'가 각 25.5%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1-2

스포츠 안전사고 실태조사 -종합편

주'(23.6%)순임.

- 부상 경험자 10명 중 약 2명가량(20.9%)이 부상으로 인해 후유증이 발생함.
- 부상 경험자 10명 중 5명 이상(48.2%)은 부상 후 활동 주기 및 횟수가 감소하였고, 이의 주된 이유는 '심리적 두려움'(50.6%)때문이며 다음으로 '신체적 불편함'(38.6%), '가족 또는 지인의 반대'(9.6%)의 순임.

5 스포츠 안전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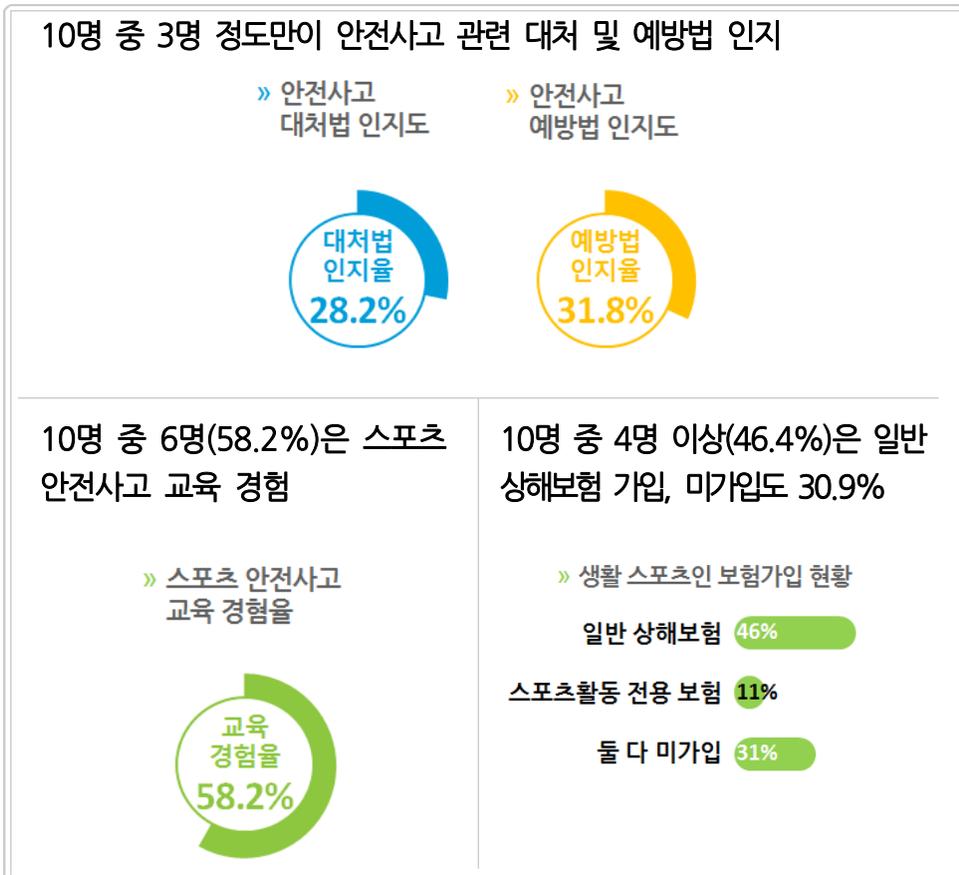


◎ 안전 인식

- 승마 안전수칙을 ‘인지’하고 있다는 응답은 28.2%(매우 잘 알고 있음 1.8%+대체로 아는 편 26.4%)이며 10명 중 6명(61.3%)은 ‘교육’을 통해 안전 수칙을 알게 되었다고 응답함.
- 부상 경험자 10명 중 6명 이상(69.1%: 안전 최우선 35.5%+어느 정도 안전 우선 33.6%)은 운동을 할 때 ‘안전 수칙 준수’를 우선시함.
- 세부적으로는 ‘활동 시 보호장구 착용’이라는 응답이 63.6%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준비 운동 실시’(59.1%), ‘사전 시설물 안전 여부 확인’(48.2%) 등의 순으로 조사됨 (5점 척도 중 [4]그렇다, [5]매우 그렇다의 합산비율 기준).
- 시설물 안전여부 미확인, 안전시설 미확인, 위험지역 미확인 이유 모두 ‘확인 방법을 몰라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확인하기 귀찮아서’로 조사됨.

스포츠 안전사고 실태조사 -종합편

- 보호장구를 구매하기 위한 지출의향 및 지출수준에 대해서는 단지 0.9%만이 지출의향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1인 평균 연간 지출의향(또는 현재 지출금액)은 약 47만원 선임.



◎ 대처 및 예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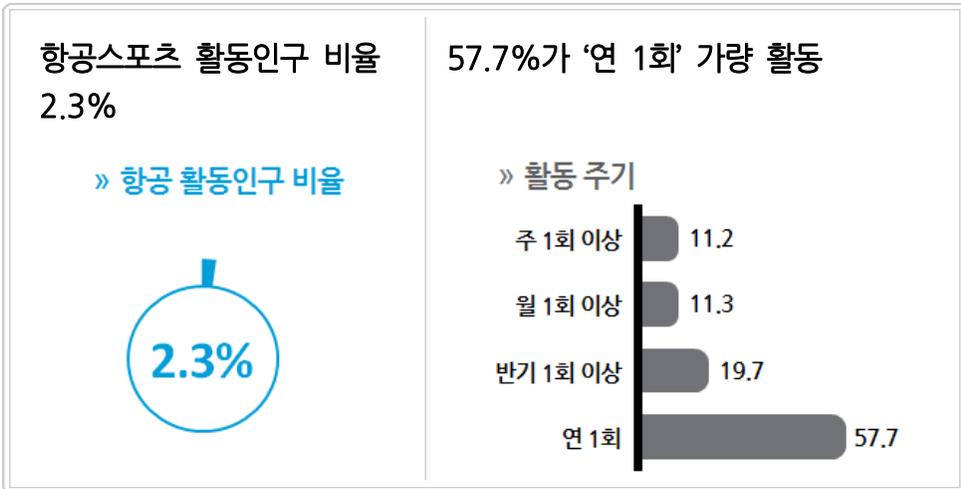
- 승마를 하던 중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시 대처방법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대처법 28.2%(매우 잘 앎 0.9%+대체로 아는 편 27.3%), 예방법 31.8%(매우 잘 앎 0.9%+대체로 아는 편 30.9%)임.
- 부상 경험자의 34.5%(전혀 모름 2.7%+잘 모르는 편 31.8%)가 승마를 하던 중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시 대처방법을 ‘미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예방법 역시 ‘미인지’ 비율이 22.7%(전혀 모름 1.8%+잘 모르는 편 20.9%)에 달함.

부록1 - 종목별 주요결과 요약

- 응급처치 요령 인지도는 ‘심폐소생술 실시요령’(37.3%), ‘저체온증 발생 시 대처요령’(31.8%), ‘열사병 발생 시 대처요령’(30.0%) 순임(5점 척도 중 [4]어느 정도 알고 있음, [5]매우 잘 알고 있음의 합산비율 기준).
- 안전사고 응급처치 요령 습득 경로는 ‘스포츠 전문지도자/숙련자’가 33.6%로 가장 높고 ‘인터넷’(28.2%), ‘TV’(25.5%) 등 다른 경로에 대한 응답도 고르게 나타남.
- 스포츠 안전사고에 대비한 ‘교육을 경험’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58.2%로 조사되었으며 스포츠 안전사고 대비 교육을 받은 기관은 ‘국가 및 공공기관’(35.9%), ‘대학교의 정규 강좌’(26.6%), ‘동호회/팀’(25.0%) 등의 순임.
- 스포츠 안전사고에 대비 교육을 받지 않은 이유는 ‘교육을 받고 싶었으나 어느 기관에서 교육하는지 몰라서’(43.5%), ‘스포츠활동 중 부상을 대비한 안전교육이 있는지 몰라서’(32.6%), ‘교육을 필요성을 못 느껴서’(23.9%) 등의 순임.
- 스포츠 안전사고에 대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76.4%(매우 필요 25.5%+필요 50.9%)로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 8.2%(전혀 불필요 1.8%+불필요 6.4%)에 비해 현저히 높게 나타남.
- ‘일반 상해보험 및 공제’ 가입률이 46.4%, ‘스포츠 활동 전용 보험 및 공제’ 가입률은 10.9%에 불과하며 ‘둘 다 미가입’ 상태인 응답자 비율도 30.9%에 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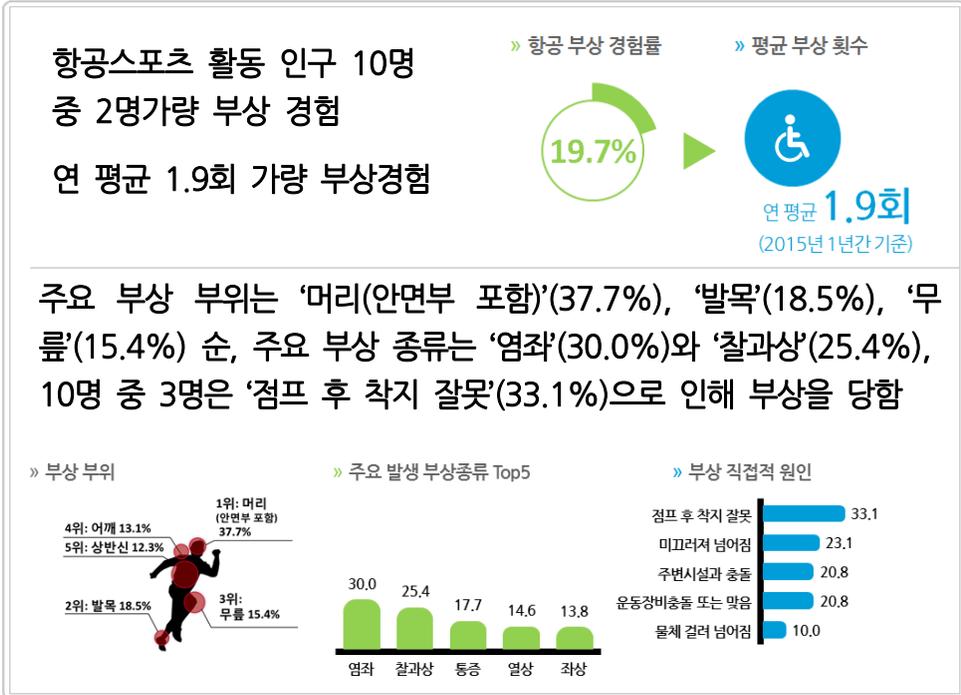
23. 항공 스포츠

1 생활스포츠 참여 실태



- 최근 1년간 스포츠활동의 일환으로 항공 스포츠를 경험한 인구 비율은 2.3%임.
- 전체적으로 10명 중 약 6명가량(57.7%)은 연 1회 가량 항공 스포츠를 즐기고 있으며, 1회 평균 활동시간은 76.90분임.
- 항공스포츠 활동인구 대부분(93.0%: 오전 28.2%+점심 33.8%+오후 31.0%)은 ‘오전’부터 ‘오후’까지의 주간 시간대에 항공 스포츠를 즐기고 있으며, 이른 ‘아침’이나 ‘야간’ 빈도는 매우 낮음.
- 주요 활동 장소는 산이나 도로, 공원 등 ‘전용시설이 아닌 장소’(53.5%)가 ‘전용시설’(40.8%)보다 다소 높게 나타남.

2 부상 발생 현황



- 항공 스포츠 활동인구 10명 중 2명가량인 19.7%의 응답자가 심한 부상부터 경미한 부상까지 당한 경험이 있음.
- 항공스포츠 부상 경험은 1회 참여 시 약 105분가량 활동하는 사람들에게서 주로 일어나고 있으며, 부상 경험자 10명 중 7명 이상(72.3%)은 본인의 항공스포츠 능숙도를 ‘초급’ 정도로 인식하고 있음.
- 종목 경력 2년 미만 구성 비율이 33.8%로 가장 높고, ‘2년 이상-5년 미만’이 25.4%, ‘5년 이상-10년 미만’이 22.3%의 순으로 경력 기간이 길수록 부상 경험자 구성 비율이 낮아짐.
- 항공 스포츠를 통해 발생하는 부상은 주로 ‘머리(안면부 포함)’(37.7%)와 발목(18.5%)에 많이 일어나고 있으며 가장 흔한 부상 유형은 ‘염좌’ (30.0%)와 ‘찰과상’(25.4%), ‘통증’ (17.7%), ‘열상’(14.6%), ‘좌상’(13.8%) 등의 순임.
- 항공 스포츠 부상 경험자들이 겪은 여러 부위와 종류를 종합한, 가장 심각했던 부상 유형은 ‘발목 염좌’(11.5%)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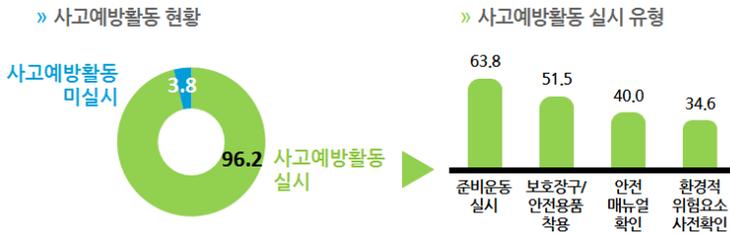
스포츠 안전사고 실태조사 -종합편

- ‘점프 후 착지를 잘못함’이 33.1%로 가장 높게 나타나 항공스포츠를 통해 부상을 입는 사람 약 3명 중 1명은 랜딩 과정 또는 랜딩 방법을 연습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음.
- 연 평균 약 1.9회 가량의 부상을 입고 있음.
- 항공스포츠의 부상 발생 시간은 주 활동 시간대에 수렴하는 결과를 보여 활동 인구가 집중되는 시간대에 부상도 많이 발생하는 정상적인 패턴을 보이고 있음.

3 부상 발생 환경

전체적으로 부상경험자들의 사고예방활동은 양호한 수준

부상경험자의 3.8%만이 부상 전 아무런 사고예방활동을 실시하지 않음
 실시한 응답자 대다수는 '준비운동'(63.8%)을 포함하여 전반적으로 4-50%대의 실시율을 보임



여러 환경적 요인 중 가장 주요한 문제는 '미끄러운 바닥'(41.5%)

» 부상 장소 환경적 요인(Bottom2: 매우 부정평가+부정평가 합산)



※ 5점 척도로 응답된 결과 중 [1] 매우 부정평가와 [2] 부정평가의 합산 비율을 제시함
 ※ '미끄러운 바닥'은 역척도 문항이므로 Bottom2는 [4]부정평가와 [5]매우 부정평가의 합산 비율임

◎ 부상발생 이전 상황 : 예방활동 측면

- 부상 당시의 운동 시작 전 사고예방을 위해 행했던 활동으로 가장 높은 행동은 '준비운동 실시'(63.8%)이며 다음으로 '보호장구 및 안전용품 착용'(51.5%), '안전 매뉴얼 확인'(40.0%), '환경적 위험요소 사전확인'(34.6%)의 순으로 조사되어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의 사고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있음.
- 특히 전문/숙련자가 배석함에 따라 '보호장구 및 안전용품 착용', '환경적 위험요소 확인', '준비운동 실시' 등 사고예방활동을 보다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음.
- 장비 착용을 하는 경우, 대부분의 장비들을 10명 중 7-8명 이상의 비율 모두 착용, 착용

스포츠 안전사고 실태조사 -종합편

한 장비의 전반적 상태는 ‘양호’(28.4%)했던 것으로 나타남.

- 환경적 위험요소 확인자의 42.2%가 ‘정실히 확인’(매우 성실히 8.9%+성실히 33.3%)함.

- 준비운동 실시자는 ‘유연성’(50.6%), ‘근력’(49.4%), ‘심폐지구력’(44.6%) 등 다양한 준비운동을 실시(5점 척도 중 [4]그렇다, [5]매우 그렇다의 합산비율 기준)하고 있음.

- 확인한 안전매뉴얼의 경우 전반적으로 ‘부상 방지에 도움이 되었다’(38.5%)고 평가함.

- 부상 전 신체상태가 ‘양호’했다는 응답이 33.8%로, ‘비양호’했다는 응답(10.0%)에 비해 3배 이상 높았으나 종합적으로는 10명 중 3명만이 신체상태가 양호한 상태에서 운동에 참여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음.

◎ 부상 당시 상황 : 환경적 요인 측면

- 항공 스포츠 부상경험자 10명 중 3명가량(31.5%)은 ‘탑승 장소’에서 부상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부상 장소 운영 주체는 ‘공공’시설이 9.2%, ‘민간’시설이 66.9%임.

- 부상 장소에 안전 안내문구 및 책자 비치여부에 대해, ‘안내문구 및 책자가 비치되었다’는 응답은 46.4%이며 비치된 경우 67.2%는 이를 확인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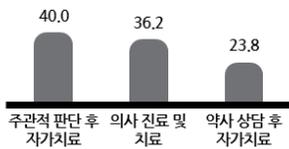
- 부상 장소의 환경적 요인을 종합한 결과, ‘바닥이 미끄러웠음’이라는 평가가 41.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활동하기에 충분한 공간’에 대한 부정적 평가(20.8%), ‘활동하기에 적절한 사람 수’에 대한 부정적 평가 및 ‘바닥이 적절히 평평하였음’에 대한 부정적 평가(각 15.4%) 등의 순으로 조사됨(5점 척도 중 [1]매우 부정적, [2]부정적의 합산비율 기준. 단, ‘미끄러운 바닥’은 역척도 문항이므로 Bottom2는 [4]부정평가와 [5]매우 부정평가의 합산 비율).

- 부상 경험자 대부분(10명 중 9명 이상, 96.1%)은 부상 당시 ‘지도자 자격증이 있는 전문 지도자’(59.0%)나 ‘해당 종목을 잘 아는 숙련자’(37.1%)가 배석 중이었고 지도자나 숙련자가 배석한 경우 대부분(전문지도자 교육 100.0%, 종목숙련자 교육 92.3%)은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였음.

4 부상 후 대처 및 경과

발생된 부상 절반가량(40.0%)은 ‘주관적 판단 후 자가치료’
 10명 중 5명 이상(57.7%)은 치료비용을 ‘자부담 처리’
 개인 부담금액 기준, 1인 1건당 치료 소요비용은 평균 98,019원

» 치료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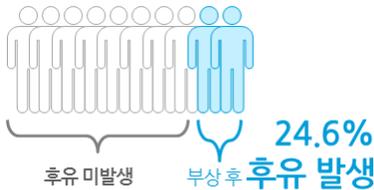
» 치료비용 처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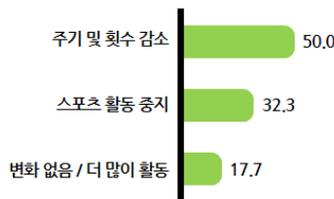
» 치료비 개인 부담금액



부상 경험자 10명 중
 약 2명 이상(24.6%)이
 부상으로 인해 후유증 발생



10명 중 8명 이상은 부상 이후
 스포츠 활동을 줄이거나(50.0%)
 중지(32.3%)함



- 염좌의 경우 ‘냉찜질’과 ‘압박’을 실시하는 등 전반적으로 부상 종류에 적절한 응급 대처를 실시하는 등 전반적으로 부상 종류에 적절한 응급 대처를 실시하고 있음.
- 발생한 부상은 ‘주관적 판단 후 자가치료’한 비율이 40.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의사 진료 및 치료’(36.2%), ‘의사 상담 후 자가치료’(23.8%)의 순이며, 부상 경험자 10명 중 5 가량(57.7%)은 치료 비용을 ‘자부담’하고, 전체적인 치료비용 개인 부담 금액은 평균 98,019원임.
 - 부상 가료기간이 길수록 치료비용의 개인부담금액 역시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 가료에 필요한 기간은 ‘1-2주’(27.7%)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1주 미만’ 및 ‘3-4주’(각 21.5%)이며 ‘바로 참여 가능할 정도로 경미함’도 20.8%로 비교적 높음.
- 부상 경험자 10명 중 약 2명 이상(24.6%)이 부상으로 인해 후유증이 발생함.

스포츠 안전사고 실태조사 -종합편

- 가료기간이 길수록 후유발생률 및 발생 후유의 심각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 부상 경험자 10명 중 5명(50.0%)은 부상 후 활동 주기 및 횟수가 감소하였고, 이의 이유는 '심리적 두려움'(34.6%)과 '신체적 불편함'(32.7%), '가족 또는 지인의 반대'(29.9%)가 고른 분포를 보임.

5 스포츠 안전의식

스포츠 안전수칙 인지
24.6%

10명 중 6명 이상
(62.3%)이 안전수칙
준수를 우선하여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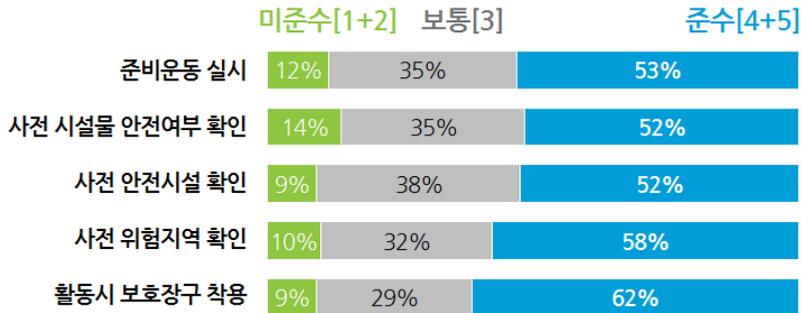
» 스포츠 안전수칙
인지도



» 스포츠 안전수칙 준수정도



세부 안전수칙 중 보호장구 착용을 가장 충실히 수행하며 다음으로 위험 지역 확인 → 준비운동 실시 → 안전시설 확인 → 시설물 안전확인 순



※ 5점 척도로 구성된 문항의 응답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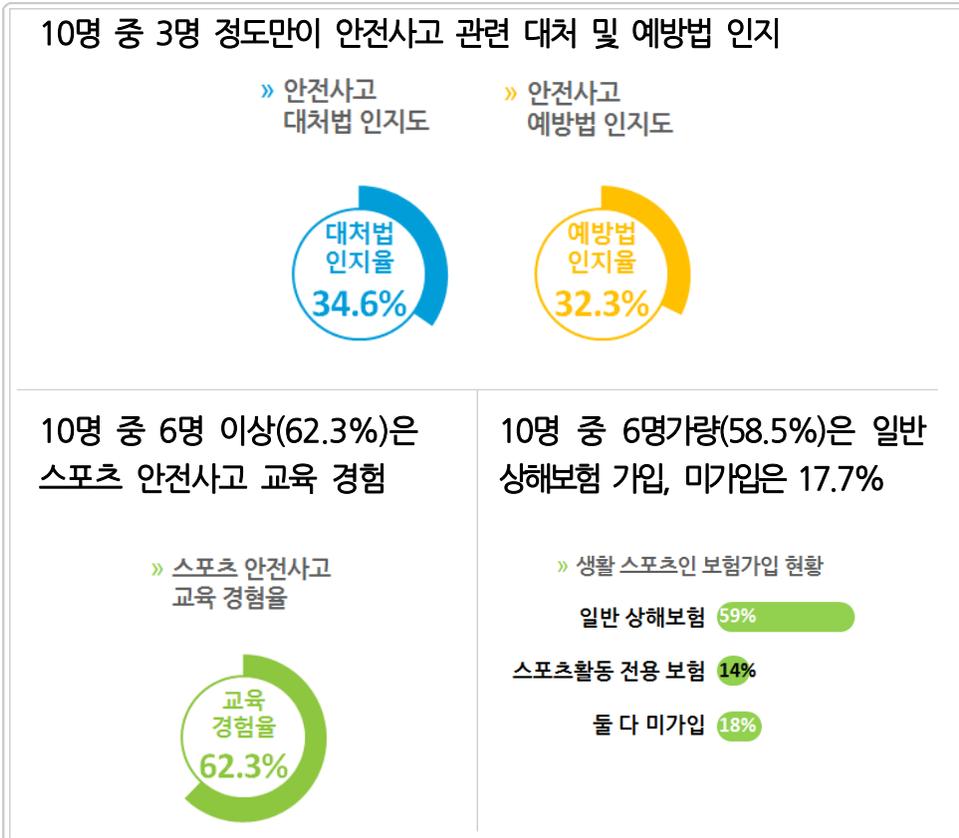
◎ 안전 인식

- 항공 스포츠 안전수칙을 ‘인지’하고 있다는 응답은 24.6%(매우 잘 알고 있다 0.8%+ 대체로 아는 편 23.8%)이며 10명 중 5명(50.0%)은 ‘교육’을 통해 안전 수칙을 알게 되었다고 응답함.
- 부상 경험자 10명 중 6명 이상(62.3%: 안전 최우선 30.0%+어느 정도 안전 우선 32.3%)은 운동을 할 때 ‘안전 수칙 준수’를 우선시함.
- 세부적으로는 ‘활동 시 보호장구를 착용한다’는 응답이 61.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사전에 위험지역을 확인’(57.7%), ‘준비운동 실시’(53.1%) 등의 순으로 조사됨 (5점 척도 중 [4]그렇다, [5]매우 그렇다의 합산비율 기준).
- 시설물 안전여부 미확인과 위험지역 미확인 이유로는 ‘확인 방법을 몰라서’, ‘확인하기 귀찮아서’ 순으로, 안전시설 미확인 이유로는 ‘확인하기 귀찮아서’, ‘확인 방법을

스포츠 안전사고 실태조사 -종합편

몰라서' 순으로 높게 나타남.

- 보호장구를 구매하기 위한 지출의향 및 지출수준에 대해서 지출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인구는 없으며 1인 평균 연간 지출의향(또는 현재 지출금액)은 약 47만원 선임.



◎ 대처 및 예방

- 항공 스포츠를 하던 중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시 대처방법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대처법 34.6%(매우 잘 앎 1.5%+대체로 아는 편 33.1%), 예방법 32.3%(매우 잘 앎 5.4%+대체로 아는 편 26.9%)임.
- 부상 경험자의 26.9%(전혀 모름 3.1%+잘 모르는 편 23.8%)가 항공 스포츠를 하던 중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시 대처방법을 '미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예방법 역시 '미인지' 비율이 26.2%(전혀 모름 1.5%+잘 모르는 편 24.6%)로 나타남.

부록1 - 종목별 주요결과 요약

- 응급처치 요령 인지도는 ‘저체온증 발생시 대처요령’(36.9%), ‘심폐소생술 실시요령’ 및 ‘허리/목 디스크 탈출 발생 시 대처’(각 36.2%), ‘근육경련 발생 시 대처’(35.4%) 등의 순임(5점 척도 중 [4]어느 정도 알고 있음, [5]매우 잘 알고 있음의 합산비율 기준).
- 안전사고 응급처치 요령 습득 경로는 ‘응급처치 전문기관’(32.3%), ‘의료인’(30.0%), ‘인터넷’(29.2%), ‘스포츠 전문지도자/숙련자’(28.5%) 등의 순임.
- 스포츠 안전사고에 대비한 ‘교육을 경험’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62.3%로 조사되었으며 스포츠 안전사고 대비 교육을 받은 기관은 ‘국가 및 공공기관’(37.0%), ‘동호회/팀’(35.8%), ‘대학교의 정규 강좌’(32.1%) 등의 순임.
- 스포츠 안전사고에 대비 교육을 받지 않은 이유는 ‘교육을 받고 싶었으나 어느 기관에서 교육하는지 몰라서’, ‘스포츠활동 중 부상을 대비한 안전교육이 있는지 몰라서’가 각 36.7%로 높게 나왔으며, ‘교육을 필요성을 못 느껴서’는 26.5%임.
- 스포츠 안전사고에 대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56.2%(매우 필요 27.7%+필요 28.5%)로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 18.5%(전혀 불필요 4.6%+불필요 13.8%)에 비해 높음.
- ‘일반 상해보험 및 공제’ 가입률이 58.5%, ‘스포츠 활동 전용 보험 및 공제’ 가입률은 13.8%이며 ‘둘 다 미가입’ 상태인 응답자 비율은 17.7%로 조사됨.

부록2. 조사 설문지

1. 생활 스포츠 실태 기초조사 설문지

2015 스포츠안전사고 실태조사

- 생활 스포츠 실태 기초조사 -

닐슨 온라인패널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조사는 스포츠안전재단에서 의뢰받은 **[2015 스포츠안전사고 실태조사]**입니다.

본 조사는 **우리 국민들의 생활스포츠 활동 실태를 조사하고, 그 속에서 일어나는 사고의 유형들을 파악하여,**

예방활동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33조에 의해 비밀이 보장되고 전체 의견을 살피는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본 조사의 설문 항목 내용에는 맞고 틀리는 내용이 없으며, **특히 개인의 부상정보가 유출되는 일은 절대 없으니** 솔직한 의견을 개진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스포츠안전재단
Korea Sports Safety Foundation

nielsen

문의 : 닐슨코리아 02-2122-7000

표본대상 선정항목

SQ1) 성 별	① 남성	② 여성	
SQ2) 연 령 : 만 () 세	① 19-29세 ④ 50대	② 30대 ⑤ 60-64세	③ 40대 ⑥ 65세 이상
SQ3) 지 역	[대 도시] ① 서울 ⑦ 울산 ③ 부산 ⑧ 세종	[중소도시] ④ 경기시 ⑩ 강원시 ⑫ 충북시 ⑬ 충청시 ⑭ 전주시 ⑮ 전남시	[군 지 역] ⑤ 대구 ⑥ 인천 ⑨ 광주 ⑪ 대전 ⑫ 충청시 ⑬ 전북시 ⑭ 전남시 ⑮ 전북군 ⑯ 경기군 ⑰ 강원군 ⑱ 충북군 ⑲ 충청군 ⑳ 전남군 ㉑ 전북군 ㉒ 전남군 ㉓ 경기군 ㉔ 강원군 ㉕ 충북군 ㉖ 충청군 ㉗ 전남군 ㉘ 전북군 ㉙ 전남군

스포츠 안전사고 실태조사 -종합편

스포츠활동 참여

문 1. OO님께서 최근 1년 이내 다음의 스포츠 활동을 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참여하신 스포츠 활동은 주기적인 활동과 일회성 활동(예를 들면 आय회나 체육대회, 우연한 참여 등)을 모두 포함하여 어떤 형태의 스포츠 활동이건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복수응답]

1 걷기	19 배구	37 스킨스쿠버	55 족구
2 검도	20 배드민턴	38 승마	56 줄넘기
3 게이트볼	21 보디빌딩(헬스)	39 씨름	57 체조(맨손체조, 생활체조)
4 격투기(킥복싱, 이종격투기)	22 볼링	40 아이스하키	58 축구
5 골프	23 빙상	41 아쿠아로빅, 수중발레	59 카누
6 권투	24 사격	42 암벽등반	60 탁구
7 그라운드골프	25 산악자전거	43 야구	61 태권도
8 낚시	26 서바이벌	44 에어로빅	62 테니스
9 농구	27 석궁, 양궁, 국궁	45 요가	63 트라이애슬론(철인3종)
10 당구	28 소프트볼	46 요트	64 파크골프
11 댄스스포츠	29 수구	47 웨이크보드	65 패러글라이딩
12 등산	30 수상스키	48 윈드서핑	66 펜싱
13 라켓볼	31 수영	49 유도	67 피겨스케이팅
14 럭비, 미식축구	32 스노우보드	50 육상(걷기, 마라톤 제외)	68 필드하키
15 래프팅	33 스카이다이빙	51 인라인스케이트	69 핸드볼
16 레슬링	34 스케이트	52 인라인하키	70 행글라이딩
17 마라톤	35 스쿼시	53 자전거(사이클)	71 기타 ()
18 무도(유도, 검도, 태권도 제외)	36 스키	54 정구	99 활동경험 없음

☞ 99 응답자의 경우 문1-1로

문 1-1. (문1의 99번 응답자만) 최근 1년 동안 आय회, 체육대회, 우연한 참여 등을 모두 포함하여 단 한번이라도 활동한 경험도 모두 포함하여 응답해 주세요.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주세요. 단 한번이라도 참여한 스포츠 활동이 없다면 '없음'에 표시해주시면 됩니다. [복수응답]

1 걷기	19 배구	37 스킨스쿠버	55 족구
2 검도	20 배드민턴	38 승마	56 줄넘기
3 게이트볼	21 보디빌딩(헬스)	39 씨름	57 체조(맨손체조, 생활체조)
4 격투기(킥복싱, 이종격투기)	22 볼링	40 아이스하키	58 축구
5 골프	23 빙상	41 아쿠아로빅, 수중발레	59 카누
6 권투	24 사격	42 암벽등반	60 탁구
7 그라운드골프	25 산악자전거	43 야구	61 태권도
8 낚시	26 서바이벌	44 에어로빅	62 테니스
9 농구	27 석궁, 양궁, 국궁	45 요가	63 트라이애슬론(철인3종)
10 당구	28 소프트볼	46 요트	64 파크골프
11 댄스스포츠	29 수구	47 웨이크보드	65 패러글라이딩
12 등산	30 수상스키	48 윈드서핑	66 펜싱
13 라켓볼	31 수영	49 유도	67 피겨스케이팅
14 럭비, 미식축구	32 스노우보드	50 육상(걷기, 마라톤 제외)	68 필드하키
15 래프팅	33 스카이다이빙	51 인라인스케이트	69 핸드볼
16 레슬링	34 스케이트	52 인라인하키	70 행글라이딩
17 마라톤	35 스쿼시	53 자전거(사이클)	71 기타 ()
18 무도(유도, 검도, 태권도 제외)	36 스키	54 정구	99 활동경험 없음

☞ 99 응답자의 경우 문14로

※ 다음부터는 참여하신 스포츠 활동 각각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먼저 선택하신 ___종목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2종목 이상일 경우) 다음은 ___종목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문2~문5 종목 수에 따라 반복)

문 2. 그렇다면 그 종목은 얼마나 자주 활동하십니까?

- ① 매일 ② 주 4-5회 ③ 주 2-3회 ④ 주 1회 ⑤ 월 2-3회
 ⑥ 월 1회 ⑦ 2-3개월 1회 ⑧ 4-5개월 1회 ⑨ 6개월 1회
 ⑩ 1년 1회

문 2-1. (문1-1의 1~98 응답자) 그렇다면 지난 1년 동안 총 몇 회 활동하십니까?

() 회

문 3. 해당 스포츠 활동을 1회 하는데 소요된 시간은 평균 어느정도였습니까?

()분

문 4. 해당 스포츠 활동은 주로 어느 시간대에 하셨습니까?

- ① 새벽 시간대 (오전 5시~7시 이전) ② 아침 시간대 (오전 7시~9시 이전)
 ③ 오전 시간대 (9시~12시 이전) ④ 점심 시간대 (12시~3시 이전)
 ⑤ 오후 시간대 (3시~6시 이전) ⑥ 저녁 시간대 (6시~9시 이전)
 ⑦ 야간 시간대 (9시~12시 이전) ⑧ 그 외의 시간대 (_시 ~ _시)

문 5. 해당 스포츠 활동은 주로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 ① 운동장 ② 체육관 ③ 수영장, 야구장, 골프장, 태권도장 등 전용 경기 시설
 ④ 종목별 전용시설이 아닌 장소 (산, 도로, 공원 등) ⑤ 기타()

문 5-1. (문5의 4번 응답자는 제외) 그렇다면 그 시설의 운영 주체는 어디입니까?

- ① 공공 ② 민간 ③ 기타()

스포츠 안전사고 실태조사 -종합편

스포츠활동 중 부상 경험

※ 다음부터는 활동하셨다고 응답한 스포츠 중 발생한 부상 경험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활동하신 종목 각각에 대해서 응답하시면 됩니다.

부상 경험은 스포츠활동으로 인해 신체 부위가 다치거나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 외부 시설이나 물체, 사람 등에 의해 발생하는 사고를 심각한 수준부터 아주 경미한 수준까지 모두 포함합니다. 병원 진료나 약 처방을 하지 않았더라도 스포츠활동이나 활동 중 다친 경우, 통증이 발생한 경우를 모두 고려해 주십시오.

문 6. ○○님께서는 스포츠 활동 중 부상 경험이 있으십니까?

- ① 심한 부상 경험이 있다 (무7%)
- ② 약간의 부상 경험이 있다 (무7%)
- ③ 경미한 부상 경험이 있다 (무7%)
- ④ 부상 경험이 전혀 없다 (무12%)

문 7. (문6의 1-3 응답자만) ○○님께서 스포츠 활동 중 부상이 발생한 종목을 모두 말씀해 주세요. 【복수응답】

(문1에서 응답한 종목과 일치하는지 확인 / 부상종목이 복수일 경우 반복 질문)

1 걷기	19 배구	37 스킨스쿠버	55 족구
2 검도	20 배드민턴	38 승마	56 출렁기
3 게이트볼	21 보디빌딩(헬스)	39 씨름	57 체조(맨손체조, 생활체조)
4 격투기(리복싱, 이종격투기)	22 볼링	40 아이스하키	58 축구
5 골프	23 빙상	41 아쿠아로빅, 수중발레	59 카누
6 권투	24 사격	42 알렉등반	60 탁구
7 그라운드골프	25 산악자전거	43 야구	61 태권도
8 낚시	26 서바이벌	44 에어로빅	62 테니스
9 농구	27 석궁, 양궁, 국궁	45 요가	63 트라이애슬론(철인3종)
10 당구	28 소프트볼	46 요트	64 파크골프
11 댄스스포츠	29 수구	47 웨이크보드	65 패러글라이딩
12 등산	30 수상스키	48 윈드서핑	66 펜싱
13 라켓볼	31 수영	49 유도	67 피겨스케이팅
14 럭비, 미식축구	32 스노우보드	50 육상(걷기, 마라톤 제외)	68 필드하키
15 래프팅	33 스카이다이빙	51 인라인스케이팅	69 핸드볼
16 레슬링	34 스케이팅	52 인라인하키	70 행글라이딩
17 마라톤	35 스쿼시	53 자전거(사이클)	71 기타 ()
18 무도(유도, 검도, 태권도 제외)	36 스키	54 경구	

문 8. 부상 부위는 어디였습니다는가? 【복수응답】

두부 ① 두피 ② 눈 ③ 코 ④ 입 ⑤ 치아 ⑥ 귀 ⑦ 이마
 ⑧ 턱 ⑨ 광대뼈 ⑩ 제시 부분을 제외한 머리부분
 ⑪ 목(경부)
 몸통 ⑫ 가슴 ⑬ 배 ⑭ 등 ⑮ 허리
 ⑯ 어깨
 ⑰ 위팔
 ⑱ 팔꿈치
 ⑲ 아래팔
 ⑳ 손목
 손 ㉑ 손바닥 ㉒ 손등 ㉓ 손가락 ㉔ 손톱
 ㉕ 고관절 (엉덩이 관절)
 대퇴부 ㉖ 엉덩이 ㉗ 허벅지(대퇴) ㉘ 사타구니
 ㉙ 무릎
 아랫다리 ㉚ 정강이 ㉛ 종아리
 발목관절 ㉜ 발목 ㉝ 아킬레스건
 발 ㉞ 발바닥 ㉟ 발등 ㊱ 발가락 ㊲ 발톱
 그 이외 부위 ㊳ 기타 ()

문 9. 부상 경험이 있으시다면, 어떤 부상이었습니다는가? 부상 종류를 모두 응답해 주세요. 【복수응답】

- ① 염좌(삔짐) ② 골절 ③ 탈구(삔짐) ④ 열상 (찢어짐) ⑤ 절단
 ⑥ 찰과상 (긁힘) ⑦ 파열(터짐) ⑧ 좌상(타박상) ⑨ 자상 (찢림, 베임) ⑩ 염증(곰음)
 ⑪ 기타 ()

문 10. 스포츠활동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치료되기까지 기간은 총 얼마나 소요되었습니다는가?

- ① 1주일 정도 ② 2~3주 정도 ③ 4~7주 정도 ④ 8주 이상

문 11. ○○님께서서는 참여하신 스포츠 종목의 안전수칙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 ① 전혀 모른다 ② 잘 모르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잘 아는 편이다 ⑤ 매우 잘 안다

스포츠 안전사고 실태조사 -종합편

스포츠안전재단 관련

문 19. 이 조사 이전에 '스포츠안전재단'에 대해 알고 계셨습니까?

- ① 알고 있었다 ② 이름만 들어보았다 ③ 전혀 몰랐다

문 20. **【문19의 1,2번 응답자만】** 그렇다면 스포츠안전재단에서 공제(보험)와 안전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 ① 알고 있었다 ② 몰랐다

스포츠안전재단은 2010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으로 설립되어, 국민의 안전한 스포츠 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문화활동(교육, 홍보) 및 스포츠관련 사고에 대한 공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 21. 그렇다면 향후 기회가 되신다면 스포츠안전재단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활용할 의향이 있습니까?

- ① 반드시 활용하겠다 ② 가끔씩 활용하겠다 ③ 별로 활용할 생각이 없다 ④ 전혀 활용할 생각이 없다

문 22. OO님께서 보시기에 안전한 스포츠활동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인구통계 질문

* 다음은 자료처리를 위한 인구통계 질문입니다.

DQ1. OO님의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초등학교 이하 ② 중학교 ③ 고등학교 ④ 대학(4년제 미만)
⑤ 대학(4년제 이상) ⑥ 대학원 이상

DQ2. OO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 ① 경영관리직(5급이상 공무원, 기업체 차장급 이상) ② 전문기술직(의사/약사/과학연구직/교수/예술가/변호사 등)
③ 사무직(6급이하 공무원, 기업체 과장급 이하) ④ 서비스직(아미용원, 간병인, 승무원, 통역원 등)
⑤ 판매직(영업원,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⑥ 기능숙련직(생산현장에서의 기능직 종사원)
⑦ 장차기제조작조립직(생산현장에서의 기계 조작원) ⑧ 단순노무직(일용직근로자, 배달원, 주유원 등)
⑨ 자영업(5인미만 소규모 공장/상점 주인 등) ⑩ 농림/어업/축산업 종사자
⑪ 군인 ⑫ 학생 ⑬ 전업주부 ⑭ 은퇴/무직
⑮ 기타()

DQ3. OO님 다크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얼마입니까? (월급, 임대, 이자소득을 모두 포함하고, 세전 소득으로 말씀해 주세요)

- ① 100만원 미만 ② 100만원-149만원 ③ 150만원-199만원 ④ 200만원-249만원
⑤ 250만원-299만원 ⑥ 300만원-399만원 ⑦ 400만원-499만원 ⑧ 500만원-699만원
⑨ 700만원-999만원 ⑩ 1,000만원 이상

-설문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2. 스포츠 안전사고 실태조사 설문지

2015 스포츠안전사고 실태조사

안녕하세요. 닐슨코리아 조사원 000입니다.

이번에 닐슨코리아와 서울대학교에서는 스포츠안전재단의 의뢰로 2015 스포츠안전사고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우리 국민들의 스포츠 활동 실태를 조사하고, 그 속에서 일어나는 사고의 유형들을 파악하여, 예방활동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33조에 의해 비밀이 보장되고 전체 의견을 살피는 용도로만 사용되고, 개인의 부상정보가 유출되는 일은 절대 없으니 솔직히 의견을 개진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 닐슨코리아 사회조사본부 02-2122-7000

표본대상 선정항목

- 문1) 성별 ① 남성 ② 여성
- 문2) 연령 ① 만 19-29세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만 60-64세 ⑥ 만 65세 이상
- 문3) 지역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세종
 ⑨ 경기도 ⑩ 강원시 ⑪ 충북시 ⑫ 충남시 ⑬ 전북시 ⑭ 전남시
 ⑮ 경북시 ⑯ 경남시 ⑰ 제주
 ⑱ 경기군 ⑲ 강원군 ⑳ 충북군 ㉑ 충남군 ㉒ 전북군 ㉓ 전남군
 ㉔ 경북군 ㉕ 경남군
- 문4) 지역규모 ① 동지역 ② 군/읍/면 지역
- 문5) 참여한 스포츠 ① 등산 ② 축구 ③ 일반 자전거 ④ 사이클(로드바이크 포함) ⑤ 산악자전거
 ⑥ 스키 ⑦ 스노보드 ⑧ 킥복싱 ⑨ 이종격투기 ⑩ 복싱 ⑪ 태권도
 ⑫ 아이스스케이팅 ⑬ 인라인 스케이팅 ⑭ 보디빌딩(헬스) ⑮ 농구
 ⑯ 배드민턴 ⑰ 걷기 ⑱ 달리기(걷기 제외, 마라톤 포함) ⑲ 수영 ⑳ 골프
 ㉑ 스크린골프 ㉒ 볼링 ㉓ 야구 ㉔ 에어로빅 ㉕ 테니스 ㉖ 게이트볼
 ㉗ 요가 ㉘ 탁구 ㉙ 승마 ㉚ 스카이다이빙 ㉛ 행글라이딩 ㉜ 패러글라이딩
- 문6) 부상 경험 (2015년 기준으로 말씀해 주세요. 복수응답 가능)
 ① 심한 부상 경험이 있다 ② 보통 정도의 부상 경험이 있다
 ③ 약간의 부상 경험이 있다 ④ 부상 경험이 전혀 없다 (조사 중단)
- * 부상 경험은 스포츠활동으로 인해 신체 부위가 다치거나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 외부 시설이나 물체, 사람 등에 의해 발생하는 사고를 의미하며, 심각한 수준부터 아주 경미한 수준까지 모두 포함합니다. 병원 진료 나 약 처방을 하지 않았더라도 스포츠활동이나 활동 중 다친 경우, 아팠던 경우를 모두 고려해 주십시오.

스포츠 안전사고 실태조사 -종합편

스포츠활동 참여

※ 참여하시면서 부상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신 스포츠 <종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15년 1년간의 경험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세요.

문 8. 2015년 1년 동안 해당 스포츠 활동을 얼마나 자주 하셨습니까?

- ① 매일 ② 주 4-5회 ③ 주 2-3회 ④ 주 1회
 ⑤ 월 2-3회 ⑥ 월 1회 ⑦ 2-3개월 1회 ⑧ 4-5개월 1회
 ⑨ 6개월 1회 ⑩ 주기적으로 하지는 않았다 **[문 9로 이동]**

문 9. **[문8. @번 응답지만]** 그렇다면 지난 1년 동안 그 스포츠에 총 몇 회 참여하셨습니까?

약 회

문 10. 해당 스포츠 활동 시(1회 기준) 소요된 시간은 평균 몇 분입니까?

약 분

문 11. 해당 스포츠 활동은 주로 어느 시간대에 하셨습니까? 해당되는 시간대에 모두 체크하여 주십시오.

새벽			오전					정오		오후					저녁			저장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input type="checkbox"/>																								

문 12. 귀하께서는 해당 스포츠의 기술 중 어느 정도까지 구현이 가능하십니까?

- ① 초급 기술 ② 초중급 기술 ③ 중급 기술
 ④ 중상급 기술 ⑤ 상급 기술

문 13. 귀하께서는 언제부터 그 스포츠 활동을 하셨습니까?

- 정확한 시기가 기억 나지 않으시는 경우 대략적으로만 선택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년 월

스포츠 안전사고 실태조사 -종합편

※ 다음은 문 17에서 체크(✓)하신, 가장 큰 부상 경험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8 ~ 문19-2)

문 18. 귀하께서는 2015년 한 해 동안 <해당 스포츠 종목>을/를 하시면서 앞서 말씀하신 가장 큰 부상경험과 동일한 형태의 부상을 몇 회 정도 당하셨습니다?

지난 1년간 약 회

문 19. 부상을 당하였을 때의 시간은 언제입니까?

새벽			오전			정오			오후			저녁			자정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문 20. 부상을 당했던 시기는 언제입니까?

월

문. 부상을 당한 장소(또는 시설)는 어디입니까?

- ※ 면접원 : ① <보기카드 2>를 활용하여 현재 응답중인 종목에 해당하는 보기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② 아래 문21~문42 중 해당되는 종목에만 응답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③ 문 25, 문 39, 문 40, 문42는 별도의 보기 없이 장소를 주관식으로 응답합니다.
 예시) "축구"의 부상 경험을 응답 중인 응답자인 경우, <보기카드 2>의 축구 보기를 활용하여 문 22에만 해당 보기 번호를 기입

문항 번호	보기번호 응답 란	문항 번호	보기번호 응답 란	문항 번호	보기번호 응답 란
문 21	등산	<input type="text"/>	문 29	배드민턴	<input type="text"/>
문 22	축구	<input type="text"/>	문 30	겉기	<input type="text"/>
문 23	자전거/인라인	<input type="text"/>	문 31	달리기	<input type="text"/>
문 24	스키/스노보드	<input type="text"/>	문 32	수영	<input type="text"/>
문 25	무도 스포츠	<input type="text"/>	문 33	골프	<input type="text"/>
문 26	아이스 스케이트	<input type="text"/>	문 34	볼링	<input type="text"/>
문 27	보디빌딩/헬스	<input type="text"/>	문 35	야구	<input type="text"/>
문 28	농구	<input type="text"/>	문 36	에어로빅	<input type="text"/>
				문 37	테니스
				문 38	게이트볼
				문 39	요가
				문 40	탁구
				문 41	승마
				문 42	항공 스포츠

문 43. 그 장소의 운영 주체는 어디입니까?

- ① 공공 ② 민간 ③ 잘 모름 ④ 해당 없음 **(문46으로 이동)**

문 44. 그 장소에는 스포츠 활동시 안전과 관련된 안내문구나 책자가 비치되어 있었습니까?

- ① 그렇다 ② 아니다 **(문46으로 이동)** ③ 잘 모르겠다 **(문46으로 이동)**

문 45. **(문44. ①번 응답자)** 그렇다면 안내문구나 책자를 읽어보셨습니까?

- ① 그렇다 ② 아니다

문 46. 다음은 부상 당시 해당 장소의 환경적 요인에 대한 질문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스포츠 활동을 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었다.	1	2	3	4	5
2) 스포츠 활동 공간은 운동하기에 적절한 수의 사람들이 있었다	1	2	3	4	5
3) 시설의 관리상태가 양호했다	1	2	3	4	5
4) 안전시설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었다.	1	2	3	4	5
5) 해당 장소의 바닥이 적절히 평평하였다.	1	2	3	4	5
6) 해당 장소의 바닥이 미끄러웠다.	1	2	3	4	5
7) 해당 장소의 밝기가 적절하였다.	1	2	3	4	5
8) 해당 장소의 기온이 적절하였다.	1	2	3	4	5

문 47. 부상 당시 해당 종목에 함께 참여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 ① 있었다 ② 없었다 **(문51로 이동)**

문 48. **(문 47. ① 응답자)** 해당 종목에 함께 참여한 사람 중 해당 종목의 지도자 또는 숙련자가 있었습니까?

- ① 지도자 자격증이 있는 전문 지도자가 있었다
 ② 해당 종목을 잘 아는 숙련자가 있었다
 ③ 지도자와 숙련자 모두 없었다 **(문51로 이동)**

문 49. **(문 48. ① 또는 ② 응답자)** 해당 종목의 지도자 또는 숙련자가 스포츠안전사고 관련 사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까?

- ① 교육을 실시했다 ②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 **(문51로 이동)**

문 50. **(문 49. ① 응답자)** 해당 종목의 지도자 또는 숙련자가 스포츠안전사고 관련 사전교육을 얼마나 자세히 실시하였습니까?

- ① 매우 자세히 실시하였다 ② 자세히 실시하였다 ③ 보통이다
 ④ 자세히 실시하지 않았다 ⑤ 전혀 자세히 실시하지 않았다

문 60. 해당 부상과 관련된 후유증이 발생하였습니까?

- ① 발생하였다 ② 발생하지 않았다 (문 63으로 이동)

문 61. (문 60. ①번 응답자) 어떤 후유증이었습니까?

(_____)

문 62. (문 60. ①번 응답자) 발생한 후유증이 심각하였습니까?

- ① 전혀 심각하지 않다 ② 별로 심각하지 않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다소 심각한 편이다 ⑤ 매우 심각하다

※ 다음은 부상 발생 전 상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 63. 부상 발생 전 사고 예방을 위해 취하신 행동을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것을 모두 말씀해 주세요.

【복수응답】

- ① 보호 장구 또는 안전 용품을 착용하였다. (문 64~문 85로 이동)
 ② 환경적 위험 요소(노후 시설물, 위험지역 등)를 사전에 확인하였다. (문 87로 이동)
 ③ 준비운동을 실시하였다. (문 88로 이동)
 ④ 안전 매뉴얼을 확인하였다. (문 89로 이동)
 ⑤ 기타() (문 90으로 이동)
 ⑥ 아무런 사고 예방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 (문 90으로 이동)

문. (문 63. ①번 응답자) 착용하신 보호 장구 또는 안전 용품은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 주십시오. 【복수응답】

- ※ 면접원 : ① <보기카드 3>을 활용하여 현재 응답중인 종목에 해당하는 보기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② 아래 문64~문85 중 해당되는 종목에만 응답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예시) "축구"의 부상 경험을 응답 중인 응답자인 경우, <보기카드 3>의 축구 보기를 활용하여 문 65에만 해당 보기 번호를 기입

스포츠 안전사고 실태조사 -종합편

문항 번호	보기번호 응답 란	문항 번호	보기번호 응답 란	문항 번호	보기번호 응답 란
문 64	<input type="text"/>	문 72	<input type="text"/>	문 80	<input type="text"/>
문 65	<input type="text"/>	문 73	<input type="text"/>	문 81	<input type="text"/>
문 66	<input type="text"/>	문 74	<input type="text"/>	문 82	<input type="text"/>
문 67	<input type="text"/>	문 75	<input type="text"/>	문 83	<input type="text"/>
문 68	<input type="text"/>	문 76	<input type="text"/>	문 84	<input type="text"/>
문 69	<input type="text"/>	문 77	<input type="text"/>	문 85	<input type="text"/>
문 70	<input type="text"/>	문 78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문 71	<input type="text"/>	문 79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문 86. **【문 63. ①번 응답자】** 착용하신 보호 장구 또는 안전 용품의 상태는 어떠하였습니까?

- ① 전혀 좋지 않았다 ② 좋지 않은 편이었다 ③ 보통이었다 ④ 좋은 편이었다 ⑤ 매우 좋았다

문 87. **【문 63. ②번 응답자】** 부상 발생 전 환경적 위험 요소(노후 시설물, 위험 지역 등)를 꼼꼼히 확인 하셨습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그런 편이다 ⑤ 매우 그렇다

문 88. **【문 63. ③번 응답자】** 다음은 부상 발생 전 실시하신 준비운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유연성 운동을 자신의 수준에 맞게 실시하였다	1	2	3	4	5
2) 근력 운동을 자신의 수준에 맞게 실시하였다.	1	2	3	4	5
3) 심폐지구력 운동을 자신의 수준에 맞게 실시하였다.	1	2	3	4	5

문 89. **【문 63. ④번 응답자】** 부상 발생 전 확인한 안전 매뉴얼은 부상시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습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그런 편이다 ⑤ 매우 그렇다

문 90. 부상 발생 전 신체 상태(컨디션)는 어떠하였습니까?

- ① 전혀 좋지 않았다 ② 좋지 않은 편이었다 ③ 보통이었다 ④ 좋은 편이었다 ⑤ 매우 좋았다

※ 다음은 부상 발생 후 상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 21. ~ 21-2.)

문 91. 지금까지 응답해주신 부상이 발생한 후 해당 스포츠 참여 주기, 횟수 및 시간 등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 ① 해당 스포츠 활동을 중지했다 **【문93으로 이동】**
- ② 활동을 중지하지는 않았으나 주기, 횟수가 줄었다 **【문92로 이동】**
- ③ 변화 없거나 더 많이 활동하고 있다 **【문94로 이동】**

문 92. **【문 91. ②번 응답자】** 스포츠 참여 주기, 횟수 및 시간 등은 부상 전 대비 몇 %나 참여하십니까?

※ 부상 전의 주기, 횟수 및 시간을 100%라고 가정

약

--	--

 % ※ 아예 중지한 것이 아닌, 줄어든 비율이므로 100보다 작아야 합니다.

문 93. **【문 91. ①, ②번 응답자】** 참여 활동 주기, 횟수 및 시간 등의 변화 또는 해당 스포츠를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 ① 심리적 두려움 ② 신체적 불편함 ③ 가족 또는 지인의 반대 ④ 기타(_____)

스포츠 안전수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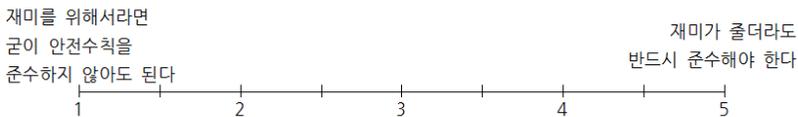
문 94. 귀하께서는 참여중이신 스포츠 <종목>의 안전수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 ① 전혀 모른다 ② 잘 모르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 ④ 대체로 아는 편이다 ⑤ 매우 잘 알고 있다

문 95. 그렇다면 귀하께서는 안전수칙을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해당하는 것을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 ① 교육 ② 같이 운동하는 사람에게 들음
- ③ 인터넷 ④ 책자 ⑤ 방송 ⑥ 기타 (_____)

문 96. 귀하께서 스포츠 활동 시, 스포츠 안전수칙과 관련하여 어느 쪽에 더 가까우십니까?



문 97. 귀하께서 보시기에 안전한 스포츠 활동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책, 시설물, 안전교육, 안전 용품, 지도자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해서 말씀해 주세요.

(_____)

스포츠 안전사고 실태조사 -종합편

스포츠 안전인식

※ 다음은 스포츠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 방법 숙지 여부에 관한 문항입니다.

문 98. 귀하께서는 스포츠안전사고 예방 방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 ① 전혀 모른다 ② 잘 모르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아는 편이다 ⑤ 매우 잘 알고 있다

문 99. 스포츠안전사고 대처 방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 ① 전혀 모른다 ② 잘 모르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아는 편이다 ⑤ 매우 잘 알고 있다

문 100. 스포츠활동 중 부상 및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응급처치 요령에 관한 질문입니다. 아는 정도를 1~5점 사이로 응답해 주십시오.

	전혀 모른다	모른다	보통 이다	안다	매우 잘 안다
1) 심폐소생술(CPR) 실시 요령을 알고 있다.	1	2	3	4	5
2) 자동제세동기(AED) 사용 요령을 알고 있다.	1	2	3	4	5
3) 골절 및 염좌 발생 시 대처 요령을 알고 있다.	1	2	3	4	5
4) 뇌진탕 발생 시 대처 요령을 알고 있다.	1	2	3	4	5
5) 회전근개(어깨 관절 주위를 덮고 있는 4개의 근육) 파열 발생 시 대처 요령을 알고 있다.	1	2	3	4	5
6) 허라목 디스크 탈출 발생 시 대처 요령을 알고 있다.	1	2	3	4	5
7) 근육 경련 발생 시 대처 요령을 알고 있다.	1	2	3	4	5
8) 관절 손상(탈구) 발생 시 대처 요령을 알고 있다.	1	2	3	4	5
9) 저체온증 발생 시 대처 요령을 알고 있다.	1	2	3	4	5
10) 열사병 발생 시 대처 요령을 알고 있다.	1	2	3	4	5

문 101. 응급처치요령을 어떻게 습득하셨습니까? 【복수응답】

- ① 응급처치 관련 전문기관 교육
② 전문기관 교육 외 스포츠 전문가(지도자, 숙련자 등)의 설명
③ 전문기관 교육 외 의료인(의사, 간호사 등)의 설명
④ 책자 ⑤ 인터넷 ⑥ TV ⑦ 기타()

스포츠 안전사고 실태조사 -종합편

문 109. **【문108. ①번 응답자】** 어느 기관(또는 업체)의 보험 또는 공제 서비스에 가입하셨습니까?
 ()

문 110. **【문108. ②, ③번 응답자, ①번 응답자는 제외】** 스포츠활동 중의 부상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보험을 들 정도로 다칠 위험이 적은 스포츠라서
- ② 보험을 들 정도로 활동을 자주 하지 않아서
- ③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보험이 있어서
- ④ 어떤 회사에 그런 보험이 있는지 몰랐기 때문에
- ⑤ 스포츠활동 중 부상 관련 보험 또는 공제가 있는지 몰랐기 때문에
- ⑥ 기타 ()

문 111. 귀하께서는 <스포츠 활동 중 부상>에 대비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여기서의 보험 및 공제 상품은 스포츠 활동 중 부상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주는 보험 또는 공제 상품입니다.

- ① 전혀 필요하지 않다 ② 별로 필요하지 않다 ③ 보통이다
- ④ 대체로 필요한 편이다 ⑤ 매우 필요하다

문 112. **【문108. ①번 응답자】** 귀하께서는 <스포츠 활동 중 부상>에 대비한 보험 또는 공제에 연간 얼마를 지출하고 계십니까?

연간

--	--	--	--

 만원

문 113. **【문108. ①번 비응답자】** 귀하께서는 <스포츠 활동 중 부상>에 대비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한다고 가정할 경우 연간 얼마의 비용을 지출할 의사가 있습니까?

연간

--	--	--	--

 만원

문 114. 귀하께서는 정규 교과과정(초,중,고등학교 교육) 외에 타 기관에서 스포츠 활동 중 사고 및 부상에 대비한 안전교육을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 ①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 **【문115로】** ②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 **【문117으로】**

문 115. **【문114. ①번 응답자】** 안전교육을 받으신 기관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모두 응답하여 주십시오.

- ① 국가 및 공공기관 ② 지방자치단체 ③ 지역/종목별 협회 및 단체
- ④ 대학교(전공 또는 교양과목 내용) ⑤ 대학교(부설 교육원 등 수업내용 외)
- ⑥ 동호회/팀 ⑦ 대회/시합 주최기관 ⑧ 민간기업
- ⑨ 기타 ()

문 116. **【문114. ①번 응답자】** 안전교육을 받으셨던 구체적인 기관명은 무엇입니까?

문 115에서 응답하신 기관에 대해서만 응답하여 주시면 됩니다.

- ① 국가 및 공공기관 : ()
- ② 지방자치단체 : ()
- ③ 지역/종목별 협회 및 단체 : ()
- ④ 대학교(과목 내용) : ()
- ⑤ 대학교(수업 외) : ()
- ⑥ 동호회/팀 : ()
- ⑦ 대회/시합 주최기관 : ()
- ⑧ 민간기업 : ()
- ⑨ 기타 : ()

문 117. **【문115. ②번 응답자】** 교육을 받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교육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 ② 교육을 받고 싶었으나 어느 기관에서 교육하는지 몰라서
- ③ 스포츠활동 중 부상을 대비한 안전교육이 있는지 몰라서
- ④ 기타 ()

문 118. 귀하께서는 스포츠활동 중 사고 및 부상에 대비한 안전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필요하지 않다
- ② 필요하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④ 필요하다
- ⑤ 매우 필요하다

스포츠안전재단 관련

문 119. 이 조사 이전에 ‘스포츠안전재단’에 대해 알고 계셨습니까?

- ① 전혀 몰랐다**【문123으로 이동】**
- ② 이름만 들어보았다
- ③ 잘 알고 있었다

문 120. **【문119. ②, ③ 응답자】** 스포츠안전재단에서 스포츠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 ① 몰랐다
- ② 알고 있었다

스포츠안전재단은 2010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으로 설립되어, 국민의 안전한 스포츠 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문화활동(교육, 홍보) 및 스포츠관련 사고에 대한 공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 121. 향후 기회가 되신다면 스포츠안전재단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들으실 의향이 있습니까?

- ① 의향이 전혀 없다
- ② 의향이 없다
- ③ 보통이다
- ④ 의향이 있다
- ⑤ 의향이 매우 있다

문 122. 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 시 올바른 대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교육 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문 128. 귀하께서 다음 문항에서 제시하는 상황에 처해있을 상황을 가정하고 응답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많은 사람들이 꼭 찬 장소나 체육관에서 어린이들이 각자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1	2	3	4	5
2) 나는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눌 때, 나는 내 주위에서 들리는 소리나 눈앞에 나타나는 것들과 상관이 없이 대화에 집중 할 수 있다.	1	2	3	4	5
3) 나는 TV를 보거나 혹은 라디오를 들으면서도 다른 일을 별로 어렵지 않게 계속 할 수 있다.	1	2	3	4	5
4) TV를 보거나 혹은 라디오를 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 어떤 잡념이 떠오른다 할지라도 쉽게 TV나 라디오를 보고 듣는 것에 집중 할 수 있다.	1	2	3	4	5
5) 경기 상황에서 한사람의 플레이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플레이를 주시할 수 있다.	1	2	3	4	5

문 129. 다음 문항은 귀하의 성향에 대한 질문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이가 들면서 즐길 수 있으면 무엇이든 즐기려고 한다.	1	2	3	4	5
2) 내 능력이 되는 한 무언가를 배우고 싶다.	1	2	3	4	5
3) 가능한 젊어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1	2	3	4	5
4) 나는 화가날 때 주위의 물건을 망기뜨리고 싶다.	1	2	3	4	5
5) 다른 사람과 의견이 맞지 않을 때 가만히 있지 않고, 이를 반박하며 따진다.	1	2	3	4	5
6) 나는 내 성격이 금방 터질 것 같은 화약과 같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7) 나는 모험을 즐기는 편이다..	1	2	3	4	5
8) 나는 다소 기질이 거친 사람이 좋다.	1	2	3	4	5
9) 경해진 규칙을 깨뜨리면 더 특별한 재미가 있다.	1	2	3	4	5

문 138. 귀하께서는 평소 하루 일과가 끝난 후에 어느 정도 피곤함을 느끼십니까?

- ① 매우 피곤함 ② 대체로 피곤한 편임 ③ 보통 정도임
④ 별로 피곤하지 않은 편임 ⑤ 전혀 피곤하지 않음

인구통계 질문

※ 다음은 자료처리를 위한 인구통계 질문입니다.

문 139. 귀하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초졸 ② 중졸 ③ 고졸 ④ 대학교 재학
⑤ 대졸 ⑥ 석사 학위 이수 또는 수료 ⑦ 박사 학위 이수 또는 수료

문 140.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 ① 경영관리직(5급이상 공무원, 기업체 차장급 이상)
② 전문기술직(의사/약사/과학연구직/교수/예술가/변호사 등)
③ 사무직(6급이하 공무원, 기업체 과장급 이하)
④ 서비스직(아미용원, 간병인, 승무원, 통역원 등)
⑤ 판매직(영업원,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⑥ 기능숙련직(생산현장에서의 기능직 종사원)
⑦ 장치·기계조작·조립직(생산현장에서의 기계 조작원)
⑧ 단순노무직(일용직근로자, 배달원, 주유원 등)
⑨ 자영업(5인미만 소규모 공장/상점 주인 등)
⑩ 농림/어업/축산업 종사자
⑪ 군인 ⑫ 학생 ⑬ 전업주부
⑭ 스포츠 선수 ⑮ 스포츠 지도자(감독 또는 코치) ⑯ 은퇴/무직
⑰ 기타()

문 141. 귀하께서는 현재 엘리트선수로 활동하고 있거나, 과거에 활동하셨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 **엘리트선수**: 대한체육회의 가맹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

- ① 엘리트선수로 활동한 적이 없다.
② 현재 엘리트선수로 활동 중이다. **[문142로]**
③ 과거에 엘리트선수로 활동한 경험이 있다. **[문142로]**

스포츠 안전사고 실태조사 -종합편

문 142. **(문 141. ②, ⑥번 응답자)** 엘리트선수로 활동하고 있거나, 과거에 활동하셨던 종목은 무엇입니까?
(올림픽 35종목 기준)

- | | | | | | | |
|-------|--------|-----------|-------------|---------|----------|--------|
| ① 골프 | ② 근대5종 | ③ 농구 | ④ 럭비 | ⑤ 레슬링 | ⑥ 루지 | ⑦ 비아슬론 |
| ⑧ 배구 | ⑨ 배드민턴 | ⑩ 복싱 | ⑪ 봅슬레이/스켈레톤 | ⑫ 빙상 | ⑬ 사격 | |
| ⑭ 사이클 | ⑮ 수영 | ⑯ 스키/스노보드 | ⑰ 승마 | ⑱ 아이스하키 | ⑲ 양궁 | |
| ⑳ 역도 | ㉑ 요트 | ㉒ 유도 | ㉓ 육상 | ㉔ 조정 | ㉕ 철인3종경기 | ㉖ 체조 |
| ㉗ 축구 | ㉘ 카누 | ㉙ 컬링 | ㉚ 탁구 | ㉛ 태권도 | ㉜ 테니스 | ㉝ 펜싱 |
| ㉞ 하키 | ㉟ 핸드볼 | ㊱ 기타() | | | | |

문 143. **(문 141. ②, ⑥번 응답자)** 엘리트선수로 활동하고 있거나, 과거에 활동하셨던 기간은 총 몇 년입니까?

총

--	--

 년

문 144. 귀 닥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얼마입니까? (월급, 임대, 이자소득을 모두 포함하고, 세전 소득으로 말씀해 주세요)

- | | | | |
|---------------|---------------|---------------|---------------|
| ① 100만원 미만 | ② 100만원-149만원 | ③ 150만원-199만원 | ④ 200만원-249만원 |
| ⑤ 250만원-299만원 | ⑥ 300만원-399만원 | ⑦ 400만원-499만원 | ⑧ 500만원-699만원 |
| ⑨ 700만원-999만원 | ⑩ 1,000만원 이상 | | |

문 145. 귀하께서는 스포츠 동호회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 ① 가입되어 있다. ② 가입되어 있지 않다.

-설문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보기카드 1] 부상 부위 및 부상 종류

<문 15. 부상 부위>

① 두피 ② 눈 ③ 코 ④ 입 ⑤ 치아 ⑥ 귀
⑦ 이마 ⑧ 턱 ⑨ 광대뼈 ⑩ 재시 부분을 제외한 머리부분
⑪ 목(경부)
⑫ 가슴 ⑬ 배 ⑭ 등 ⑮ 허리
⑯ 어깨
⑰ 위팔
⑱ 팔꿈치
⑲ 아래팔
⑳ 손목
㉑ 손바닥 ㉒ 손등 ㉓ 손가락 ㉔ 손톱
㉕ 고관절 (엉덩이 관절)
㉖ 엉덩이 ㉗ 허벅지(대퇴) ㉘ 사타구니
㉙ 무릎
㉚ 정강이 ㉛ 종아리 ㉜ 아킬레스 건
㉝ 발목
㉞ 발바닥 ㉟ 발등 ㊱ 발가락 ㊲ 발톱
㊳ 기타 ()

< 문 16. 부상 종류 >

① 염좌(뺨)	② 골절	③ 탈구(빠짐)	④ 열상(찢어짐)	⑤ 절단
⑥ 찰과상(긁힘)	⑦ 출혈	⑧ 좌상(타박상)	⑨ 자상(찢림, 베임)	⑩ 통증
⑪ 염증(붓음)	⑫ 파열(터짐)	⑬ 기타 ()		

[보기카드 2] 스포츠 종목별 부상장소 보기

문5 응답 종목	부상 장소 응답 문항	응답 보기
① 등산	문21	① 등산로 초입 ② 등산코스 (오르는 중) ③ 등산코스 (하산 중) ④ 트래킹 코스 (돌레길 형태) ⑤ 기타 (자세히 : _____)
② 축구	문22	① 천연잔디 운동장 ② 인조잔디 운동장 ③ 잔디 없는 운동장 ④ 실내체육관 (실내풋살장) ⑤ 기타 (자세히 : _____)
③ 일반 자전거	문23	① 자전거도로 ② 차도 ③ 인도 ④ 공원 ⑤ 산 ⑥ 기타 (자세히 : _____)
④ 사이클	문23	① 자전거도로 ② 차도 ③ 인도 ④ 공원 ⑤ 산 ⑥ 기타 (자세히 : _____)
⑤ 산악자전거	문23	① 자전거도로 ② 차도 ③ 인도 ④ 공원 ⑤ 산 ⑥ 기타 (자세히 : _____)
⑥ 스키	문24	① 장비 탈부착·경비장소 ② 슬로프(초급) ③ 슬로프(중급) ④ 슬로프(상급) ⑤ 리프트 승·하차장 ⑥ 기타 (자세히 : _____)
⑦ 스노보드	문24	① 장비 탈부착·경비장소 ② 슬로프(초급) ③ 슬로프(중급) ④ 슬로프(상급) ⑤ 리프트 승·하차장 ⑥ 기타 (자세히 : _____)
⑧ 킥복싱	문25	보기가 없습니다. 주관식으로 장소를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체육관 명을 기재하실 필요는 없으며 '체육관', '링', '대기장소' 등으로만 기재 해주셔도 됩니다.
⑨ 이종격투기	문25	
⑩ 복싱	문25	

[보기카드 3] 스포츠 종목별 보호장구&안전용품 보기

문5 응답 종목	보호장구 안전용품 문항	응답 보기	
① 등산	문64	① 발목보호대 ② 무릎보호대 ③ 손목보호대	④ 등산스틱 ⑤ 아이젠 ⑥ 기타 (자세히 : _____)
② 축구	문65	① 발목보호대 ② 무릎보호대 ③ 손목보호대	④ 장갑 ⑤ 기타 (자세히 : _____)
③ 일반 자전거 ④ 사이클 ⑤ 산악자전거	문66	① 발목보호대 ② 정강이보호대 ③ 무릎보호대 ④ 손목보호대	⑤ 팔꿈치보호대 ⑥ 장갑 ⑦ 헬멧 ⑧ 기타 (자세히 : _____)
⑥ 스키 ⑦ 스노보드	문67	① 발목보호대 ② 정강이보호대 ③ 무릎보호대 ④ 손목보호대	⑤ 팔꿈치보호대 ⑥ 장갑 ⑦ 헬멧 ⑧ 기타 (자세히 : _____)
⑧ 격복상 ⑨ 이종격투기 ⑩ 복싱 ⑪ 태권도	문68	① 발목보호대 ② 정강이보호대 ③ 무릎보호대 ④ 손목보호대 ⑤ 팔꿈치보호대	⑥ 장갑 ⑦ 마우스피스 ⑧ 헬멧 ⑨ 기타 (자세히 : _____)
⑫ 아이스스케이팅	문69	① 발목보호대 ② 정강이보호대 ③ 무릎보호대 ④ 손목보호대	⑤ 팔꿈치보호대 ⑥ 장갑 ⑦ 헬멧 ⑧ 기타 (자세히 : _____)
⑬ 인라인 스케이팅	문66	① 발목보호대 ② 정강이보호대 ③ 무릎보호대 ④ 손목보호대	⑤ 팔꿈치보호대 ⑥ 장갑 ⑦ 헬멧 ⑧ 기타 (자세히 : _____)
⑭ 보디빌딩(헬스)	문70	① 발목보호대 ② 무릎보호대 ③ 손목보호대	④ 장갑 ⑤ 기타 (자세히 : _____)

스포츠 안전사고 실태조사 -종합편

문5 응답 종류	보호장구 안전용품 문항	응답 보기	
㉔ 농구	문71	① 발목보호대 ② 무릎보호대	③ 손목보호대 ④ 기타 (자세히 : _____)
㉕ 배드민턴	문72	① 발목보호대 ② 무릎보호대 ③ 손목보호대	④ 팔꿈치보호대 ⑤ 기타 (자세히 : _____)
㉖ 걷기	문73	① 발목보호대 ② 무릎보호대	③ 손목보호대 ④ 기타 (자세히 : _____)
㉗ 달리기	문74	① 발목보호대 ② 무릎보호대	③ 손목보호대 ④ 기타 (자세히 : _____)
㉘ 수영	문75	① 구명조끼 ② 수경	③ 기타 (자세히 : _____)
㉙ 골프	문76	① 발목보호대	③ 손목보호대
㉚ 스크린골프		② 무릎보호대	④ 기타 (자세히 : _____)
㉛ 볼링	문77	① 발목보호대 ② 무릎보호대	③ 손목보호대 ④ 기타 (자세히 : _____)
㉜ 야구	문78	① 발목보호대 ② 정강이보호대 ③ 무릎보호대 ④ 손목보호대	⑤ 팔꿈치보호대 ⑥ 장갑 ⑦ 헬멧 ⑧ 기타 (자세히 : _____)
㉝ 에어로빅	문79	① 발목보호대 ② 무릎보호대	③ 손목보호대 ④ 기타 (자세히 : _____)
㉞ 테니스	문80	① 발목보호대 ② 무릎보호대 ③ 손목보호대	④ 팔꿈치보호대 ⑤ 기타 (자세히 : _____)
㉟ 게이트볼	문81	① 발목보호대 ② 무릎보호대	③ 손목보호대 ④ 기타 (자세히 : _____)
㊱ 요가	문82	① 발목보호대 ② 무릎보호대	③ 손목보호대 ④ 기타 (자세히 : _____)
㊲ 탁구	문83	① 발목보호대 ② 무릎보호대	③ 손목보호대 ④ 기타 (자세히 : _____)

스포츠 지도 관련

※ 지도하고 계신 스포츠(SQ1)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년간 (2015년) 경험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세요.

※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33조에 의해 비밀이 보장되고 전체 의견을 살피는 용도로만 사용되고, 개인의 정보가 유출되는 일은 절대 없으니 솔직히 의견을 개진해주시면 됩니다.

문 1. 지도하시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 ① 초등부 ② 중학부 ③ 고등부 ④ 대학부 ⑤ 일반 ⑥ 기타()

문 2. 선수 또는 팀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남자 ② 여자 ③ 남·여 모두

문 3. 지도의 형태는 무엇입니까?

- ① 개인 지도 ② 단체(팀) 지도 ③ 개인·단체(팀) 지도 모두

문 4. 주로 어느 시간대에 지도하셨습니까?

()시부터 ()시까지

문 5. 지난 한 해 동안 스포츠를 지도하시는 중 스포츠안전사고로 인한 부상을 당한 선수가 있으십니까?
(2015년 기준으로 말씀하여 주십시오. 복수응답 가능)

※ 부상이란 스포츠활동으로 인해 신체 부위가 다치거나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 외부 시설이나 물체, 사람 등에 의해 발생하는 사고를 의미하며, 심각한 수준부터 아주 경미한 수준까지 모두 포함합니다. 병원 진료나 약 처방을 하지 않았더라도 스포츠활동이나 활동 중 다친 경우, 아팠던 경우를 모두 고려해 주십시오.

- ① 심한 부상을 당한 선수가 있다 ② 보통 정도의 부상을 당한 선수가 있다
③ 약간의 부상을 당한 선수가 있다 ④ 부상을 당한 선수가 전혀 없다

문 5-1. 1년간 선수 1명을 기준으로 부상 사고는 평균 몇 회 발생합니까?

선수 1명 당 약 ()회/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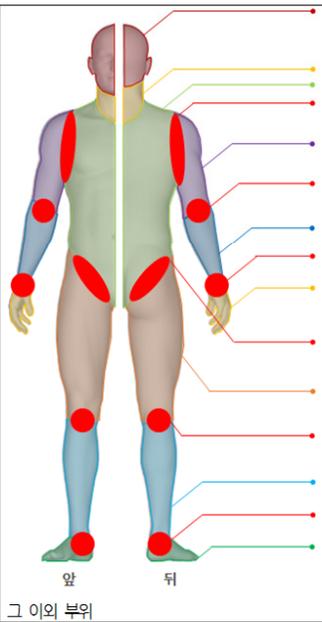
스포츠 안전사고 실태조사 -종합편

문 6. 선수들이 주로 부상을 당하는 부위와 부상 종류는 무엇입니까? (1~3순위)

※ 부상 부위에 따른 부상 종류를 보기 중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한 부위에 여러 종류의 부상이 발생한다면 부상 부위에 한 부위를 복수로 선택하시고 부상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순위	부상 부위	부상 종류 【복수응답】
1		
2		
3		

< 보기1. 부상 부위 >



① 두피 ② 눈 ③ 코 ④ 입 ⑤ 치아 ⑥ 귀
⑦ 이마 ⑧ 턱 ⑨ 광대/뺨 ⑩ 제시 부분을 제외한 머리부분
⑪ 목(경추)
⑫ 가슴 ⑬ 배 ⑭ 등 ⑮ 허리
⑯ 어깨
⑰ 위팔
⑱ 팔꿈치
⑲ 아래팔
⑳ 손목
㉑ 손바닥 ㉒ 손등 ㉓ 손가락 ㉔ 손톱
㉕ 고관절 (엉덩이 관절)
㉖ 엉덩이 ㉗ 허벅지(대퇴) ㉘ 사타구니
㉙ 무릎
㉚ 정강이 ㉛ 종아리 ㉜ 아킬레스 건
㉝ 발목
㉞ 발바닥 ㉟ 발등 ㊱ 발가락 ㊲ 발톱
그 이외 부위
㊳ 기타 ()

< 보기2. 부상 종류 >

① 염좌(뺨)	② 골절	③ 탈구(빠짐)	④ 열상(찢어짐)	⑤ 절단
⑥ 찰과상(긁힘)	⑦ 출혈	⑧ 좌상(타박상)	⑨ 자상(찢림, 베임)	⑩ 통증
⑪ 염증(붓음)	⑫ 파열(터짐)	⑬ 기타 ()		

문 7. 훈련시, 신체 부위별 훈련 강도는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훈련 부위	매우 약함	약함	보통 이다	강함	매우 강함
1) 목	1	2	3	4	5
2) 어깨	1	2	3	4	5
3) 위팔(이두근, 삼두근 부위)	1	2	3	4	5
4) 아래팔(전완근 부위)	1	2	3	4	5
5) 가슴	1	2	3	4	5
6) 복부	1	2	3	4	5
7) 등	1	2	3	4	5
8) 허벅지	1	2	3	4	5
9) 종아리	1	2	3	4	5
10) 기타 부위 ()	1	2	3	4	5

문 8. 훈련시, 어느 훈련에서 부상이 많이 발생하는 편입니까?

- ① 근력 훈련 ② 근지구력 훈련 ③ 유연성 훈련 ④ 유산소 훈련 ⑤ 기타()

문 9. 지도하시는 곳의 훈련 시설은 대체로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좋음 ② 대체로 좋은 편 ③ 보통 ④ 별로 좋지 않은 편 ⑤ 매우 좋지 않음

문 10. 긴 시간동안 같은 부위를 많이 사용하거나 같은 동작을 반복함으로써 나타나는 부상과,

동작의 실수, 훈련/경기 중 충돌 등에 의해 갑자기 발생하는 부상의 비율은 선수들에게 대체로 어느 정도로 나타나는 편입니까?

긴 시간동안 같은 부위를 많이 사용하거나 같은 동작을 반복함으로써 나타나는 부상 : _____%

동작의 실수, 훈련/경기 중 충돌 등에 의해 갑자기 발생하는 부상 : _____%

합계 : 100%

스포츠 안전사고 예방 관련

문 11. ○○님께서 해당 종목 지도 전, 선수에게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계십니까?

- ① 전혀 실시하지 않는다 ② 대체로 실시하지 않는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실시한다 ⑤ 항상 실시한다

문 11-1. (문11. ①~③ 응답인 경우) 교육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문 12. ○○님께서 해당 종목 지도 전, 위험 지역 유무를 확인하십니까?

- ① 전혀 확인하지 않는다 ② 대체로 확인하지 않는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확인한다 ⑤ 항상 확인한다

스포츠 안전사고 실태조사 -종합편

스포츠안전사고 대처

문 20. ○○님께서서는 스포츠안전사고 대처 방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 ① 전혀 모른다 ② 모른다 ③ 보통이다
④ 안다 ⑤ 매우 잘 안다

문 21. 스포츠활동 중 부상 및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응급처치 요령에 관한 질문입니다. 아는 정도를 1~5 점 사이로 응답해 주십시오.

	전혀 모른다	모른다	보통 이다	안다	매우 잘 안다
1) 심폐소생술(CPR) 실시 요령	1	2	3	4	5
2) 자동제세동기(AED) 사용 요령	1	2	3	4	5
3) 골절 및 염좌 발생 시 대처 요령	1	2	3	4	5
4) 뇌진탕 발생 시 대처 요령	1	2	3	4	5
5) 회전근개(어깨 관절 주위를 덮고 있는 4개의 근육) 파열 발생 시 대처 요령	1	2	3	4	5
6) 허리목 디스크 탈출 발생 시 대처 요령	1	2	3	4	5
7) 근육 경련 발생 시 대처 요령	1	2	3	4	5
8) 관절 손상(탈구) 발생 시 대처 요령	1	2	3	4	5
9) 저체온증 발생 시 대처 요령	1	2	3	4	5
10) 열사병 발생 시 대처 요령	1	2	3	4	5

문 22. 응급처치요령을 어떻게 습득하셨습니다? 【복수응답】

- ① 응급처치 관련 전문기관 교육
② 전문기관 교육 외 스포츠 전문가(지도자, 숙련자 등)의 설명
③ 전문기관 교육 외 의료인(의사, 간호사 등)의 설명
④ 책자 ⑤ 인터넷 ⑥ TV ⑦ 기타()

문 23. 지도하시는 선수들이 개별로 가입한 공제 또는 보험 외 학교 또는 팀에서 가입된 공제 또는 보험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느 기관의 공제·보험입니까?

- ①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공제·보험
② 스포츠안전재단의 공제·보험
③ 기타 보험사의 공제·보험 (보험사명: _____)
④ 가입되어 있지 않다.
⑤ 잘 모르겠다.

문 24. ○○님께서서는 선수에게 <스포츠 활동 중 부상>에 대비한 보험 또는 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여기서의 보험 및 공제 상품은 스포츠 활동 중 부상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주는 보험 또는 공제 상품입니다.

- ① 전혀 필요하지 않다 ② 별로 필요하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필요하다 ⑤ 매우 필요하다

문 25. ○○님께서는 스포츠안전교육을 위한 시간을 별도로 편성하여 선수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스포츠안전재단 관련

문 26. 이 조사 이전에 '스포츠안전재단'에 대해 알고 계셨습니까?

- ① 전혀 몰랐다(문27로 이동) ② 이름만 들어보았다 ③ 잘 알고 있었다

문 26-1. (문26. ②, ③ 응답자) 스포츠안전재단에서 스포츠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 ① 몰랐다 ② 알고 있었다

스포츠안전재단은 대한체육회 출자기관으로, 국민의 안전한 스포츠 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문화활동(교육, 홍보) 및 스포츠관련 사고에 대한 공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 27. 향후 기회가 되신다면 선수를 스포츠안전재단에서 실시하는 안전사고 예방 교육 참여를 권유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 ① 의향이 전혀 없다 ② 의향이 없다 ③ 보통이다
④ 의향이 있다 ⑤ 의향이 매우 있다

문 28. 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 시 올바른 대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교육 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_____)

문 29. 스포츠안전재단의 '스포츠안전공제' 서비스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 ① 몰랐다 ② 알고 있었다

문 30. 선수에게 스포츠안전재단의 스포츠안전공제 서비스 상품 가입을 권유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 ① 전혀 의향이 없다 ② 의향이 없다 ③ 보통이다
④ 의향이 있다 ⑤ 매우 의향이 있다

문 31. 스포츠안전공제 서비스에서 무엇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_____)

인구통계 질문

※ 다음은 자료처리를 위한 인구통계 질문입니다.

DQ1. ○○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남성 ② 여성

DQ2. ○○님의 나이는 어떻게 되십니까?

만 ()살

DQ3. ○○님께서 지도하고 계신 지역은 어디입니까?

-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세종
⑨ 경기도 ⑩ 강원도 ⑪ 충청도 ⑫ 충청남 ⑬ 전북도 ⑭ 전남도
⑮ 경북도 ⑯ 경남도 ⑰ 제주
⑱ 경기도 ⑲ 강원도 ⑳ 충청도 ㉑ 충청남 ㉒ 전북도 ㉓ 전남도 ㉔ 경북도 ㉕ 경남도

DQ3-1. ○○님께서 지도하고 계신 지역의 규모는 어떻게 되십니까?

- ① 동지역 ② 군/읍/면 지역

DQ4. ○○님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초졸 ② 중졸 ③ 고졸 ④ 대학교 재학
⑤ 대졸 ⑥ 석사 학위 이수 또는 수료 ⑦ 박사 학위 이수 또는 수료

DQ5. ○○님께서 지도자자격증을 언제 취득하셨습니다?

2급 경기지도자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 년도
1급 경기지도자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 년도
경기 연맹에서 지도자로 인정하는 자격증 : 년도

-설문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스포츠안전사고 실태조사

2016년 4월 인쇄

2016년 4월 발행

발행기관 : 스포츠안전재단

수행기관 : 닐슨컴퍼니코리아(유)-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컨소시엄

본 보고서의 저작권은 스포츠안전재단에 있으며, 저작기관의 승인 없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습니다.

Copyright(c)2016 by Korea Sports Safety Foundation(KSSF). All contents can not be copied without permission.



스포츠안전재단
KOREA SPORTS SAFETY FOUNDATION

재정후원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재정후원을 받았습니다.